발 간 등 록 번 호
12-129879-2231-12

ISSN 1739-2708

6·25戰爭史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민국전도

중국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만
서해
동한만
동해
대마해협
쓰시마섬
제주해협
남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일본
신의주
평양
해주
춘천
청주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진
흥남
원산
함흥
나진
후쿠오카
쓰시마
사세보
범례
축척 1:1,100,000

6·25戰爭史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서 문

올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입니다.

역사학자 카(Edward H. Carr)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끝임 없는 대화"라는 명언으로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거는 죽어 있는 화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끊임없는 연구와 해석 속에서 재정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기존에 발간된 여러 종류의 6·25전쟁 관련자료를 집대성하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추가하여 『6·25전쟁사』 연구편찬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발간을 끝으로 10여 년에 걸쳐 추진해온 『6·25전쟁사』 전 11권에 대한 연구편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사』 편찬은 우리의 뼈아픈 현대사인 6·25전쟁을 재조명하면서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60년 전의 사료를 고증하면서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사업을 잘 수행해준 역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지난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낸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UN 참전 및 지원국 전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국방사의 한 획을 긋게 된 이 책자가 앞으로 국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매개체로서, 그리고 국방 및 군사분야 학자들에게 전사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13년 11월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발 간 사

올해는 우리민족의 역사상 커다란 아픔 중 하나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63주년인 동시에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북한의 불법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참혹함을 초래한 민족사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라는 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곳에 모으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전쟁사』(전 11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전쟁당사국들의 사료 공개와 참전자들의 증언, 우리 연구소의 선행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6·25전쟁사를 증보한다는 계획 하에 『6·25전쟁사』(전 11권) 연구편찬사업을 시작하여 이번에 제11권인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을 발간함으로써 10여 년에 걸친 연구편찬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된 『6·25전쟁사』(전 11권) 연구편찬은 미·소와 남·북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그리고 전쟁당사국들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공개된 시점에서 추진됨으로써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의 집필진들은 이 책을 연구편찬함에 있어 기존 연구성과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 소련의 외교 및 군사자료를 비롯하여 2000년 이후 새롭게 공개된 중국 등의 자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기술내용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6·25전쟁은 스탈린의 승인과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아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것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의 형성이 6·25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거둔 최대의 성과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은 『6·25전쟁사』(전 11권)을 연구편찬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군 및 학계의 연구자들에게는 6·25전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국군 장병 및 국민들에게는 6·25전쟁의 실상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참고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불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열과 성을 다해 준 모든 집필자 여러분과 인쇄를 담당해주신 국군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고견을 내어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이 양 구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

2.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리거나 강조 표시
   『 』: 서명이나 신문매체를 표시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랐다. 문장은 한글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영어 등 원래의 단어를 ( ) 안에 표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명의 경우 과거에 한자로 표기했던 지명들 중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은 한글로 바꾸어 표기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 )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각 장별로 처음 나오는 고유명사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5. 본문에 인용된 외국어 자료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로 번역했다. 다만 그 의미상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고유명사나 관용어 등은 그대로 사용했다.

6. 주기(註記)는 후주(後註)로 하여 각 장 끝부분에 수록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추가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후주에 수록했다.

7. 집필자는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명기했다.

8. 상황도는 주로 1950년대 1:5만 군사지도를 사용했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수록했다.

9. 북한군과 관련된 용어는 국방부의 '정신교육지침'과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인민군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다. 또한 전쟁 후에 달라진 북한지명은 과거의 지명을 표기하면서 ( ) 안에 현재의 지명을 명시했다.

10.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아울러 인용된 중국어 자료는 간자체와 번자체 모두를 번자체로 통일해 표기했다.

목 차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6·25전쟁 개관 ····· 3
제 2 절 전쟁진행 단계별 상황 요약 ····· 5
제 3 절 연구범위 및 수록내용 ····· 15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 19

제 1 절 국내외 정세와 전황 ····· 21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 41
제 3 절 유엔군과 미국의 전쟁지도 ····· 50
제 4 절 한국 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 ····· 70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87

제 3 장 반공포로석방과 한미회담 / 101

제 1 절 휴전회담 재개와 휴전회담 대표 ····· 103
제 2 절 상병포로 교환과 포로교환 협정 ····· 109
제 3 절 반공포로석방 배경과 결과 ····· 130
제 4 절 한미회담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합의 ····· 148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162

제 4 장 중공군의 6월 공세 / 173

제 1 절 작전 개요 ····· 177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 183
제 3 절 6월 공세 제1단계 ····· 213
제 4 절 6월 공세 제2단계 ····· 218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324

제 5 장 중공군의 7월 공세 / 335

제 1 절 작전 개요 ····· 339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 343
제 3 절 중공군의 7월 공세와 국군의 재반격 ····· 363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473

제 6 장 해군작전 / 483

제 1 절 전쟁진행 상황 ····· 485
제 2 절 북한(공산)해군 작전 ····· 488
제 3 절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 작전 ····· 499
제 4 절 서해북방한계선(NLL) 설정 ····· 557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568

제 7 장 공군작전 / 587

제 1 절 작전 개요 ····· 589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 600

제 3 절 유엔공군 및 한국공군 작전 ····· 629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676

제 8 장 정전협정 조인과 전후처리 / 691

제 1 절 정전협정 조인과 정전체제 구축 ····· 693
제 2 절 포로송환과 실향민 귀향 ····· 724
제 3 절 유엔의 조치와 제네바 정치회담 ····· 749
제 4 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 ····· 774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781

제 9 장 총 평 / 791

제 1 절 전쟁의 성격과 의미 ····· 793
제 2 절 전쟁의 경과와 결과 ····· 800
제 3 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형성 ····· 808
제 4 절 전쟁의 교훈 ····· 810

부 록 / 813

1. 연 표 ····· 815
2. 정전협정 ····· 820

참고문헌
찾아보기

〈표 목 차〉

〈표 2-1〉 중공군의 최후공세 3단계 ····· 47
〈표 3-1〉 유엔군측 휴전회담 대표(1953.4.26. 이후) ····· 107
〈표 3-2〉 상병포로 송환 내역 ····· 115
〈표 3-3〉 반공포로 수용 및 석방현황(1953.7.27.) ····· 140
〈표 4-1〉 공산군의 하계공세 현황 ····· 185
〈표 4-2〉 중공군 병단별 공격계획 ····· 185
〈표 4-3〉 공산군 정면부대 전투서열 ····· 188
〈표 4-4〉 공산군 해안사령부 전투서열 ····· 189
〈표 4-5〉 중공군 지휘부 편성 ····· 190
〈표 4-6〉 중공군 해안사령부 지휘부 편성 ····· 191
〈표 4-7〉 중공군 해안방어사령부 지휘부 편성 ····· 192
〈표 4-8〉 중공군 병단별 주요 지휘부 편성 ····· 193
〈표 4-9〉 중공군 정면부대 지휘부 편성 ····· 193
〈표 4-10〉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 194
〈표 4-11〉 북한군 주요 지휘관 ····· 195
〈표 4-12〉 북한군 군단별 주요 지휘관 ····· 196
〈표 4-13〉 공산군 전선정면 배치현황 ····· 197
〈표 4-14〉 공산군 해안방어 배치현황 ····· 198
〈표 4-15〉 극동/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 204
〈표 4-16〉 미 제1군단 전투서열 ····· 206
〈표 4-17〉 미 제9군단 전투서열 ····· 207
〈표 4-18〉 국군 제2군단 전투서열 ····· 208
〈표 4-19〉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 210
〈표 4-20〉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 211
〈표 4-21〉 중공군 하계 제1단계 공세 주요 전투 ····· 217
〈표 4-22〉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21
〈표 4-23〉 전과 및 손실 ····· 234
〈표 4-24〉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35
〈표 4-25〉 전과 및 손실 ····· 249
〈표 4-26〉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50
〈표 4-27〉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현황 ····· 257
〈표 4-28〉 작전기간 중 사단의 손실 현황 ····· 257

〈표 4-29〉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59
〈표 4-30〉 전과 및 손실 ····· 275
〈표 4-31〉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77
〈표 4-32〉 제1차 공방전 전과 및 손실 ····· 289
〈표 4-33〉 제2차 공방전 전과 및 손실 ····· 289
〈표 4-34〉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90
〈표 4-35〉 전과 및 손실 ····· 297
〈표 4-36〉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98
〈표 4-37〉 전과 및 손실 ····· 309
〈표 4-38〉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10
〈표 4-39〉 전과 및 손실 ····· 323
〈표 5-1〉 중공군 제20병단 집단별 작전계획 ····· 346
〈표 5-2〉 중공군 제20병단 작전 집단별 편성 ····· 348
〈표 5-3〉 중공군 제20병단 지휘부 편성 ····· 349
〈표 5-4〉 중공군 제20병단 작전집단별 지휘부 편성 ····· 350
〈표 5-5〉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 351
〈표 5-6〉 북한군 주요 지휘관 ····· 352
〈표 5-7〉 공산군 측 인원 및 장비현황 ····· 353
〈표 5-8〉 미 제1군단 전투서열 ····· 357
〈표 5-9〉 미 제9군단 전투서열 ····· 358
〈표 5-10〉 국군 제2군단 전투서열 ····· 359
〈표 5-11〉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 360
〈표 5-12〉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 361
〈표 5-13〉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64
〈표 5-14〉 전과 및 손실 ····· 375
〈표 5-15〉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76
〈표 5-16〉 전과 및 손실 ····· 398
〈표 5-17〉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00
〈표 5-18〉 전과 및 손실 ····· 415
〈표 5-19〉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17
〈표 5-20〉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34
〈표 5-21〉 전과 및 손실 ····· 448
〈표 5-22〉 북한군 부대조정 현황 ····· 450
〈표 5-23〉 국군 제15사단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51

〈표 5-24〉 종합 전과 및 손실 ····· 465
〈표 5-25〉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67
〈표 5-26〉 전과 및 손실 ····· 472
〈표 6-1〉 6·25전쟁기 미 극동해군 기동편성(1950.9.12.~전쟁종료 시까지) ··· 508
〈표 6-2〉 1952년 11월 2~11월 25일간 체로키 폭격의 전과 ····· 515
〈표 6-3〉 한국해군 제1함대 기구도 ····· 533
〈표 6-4〉 소해함정별 출동일수 통계표(1951.7.1.~1953.7.30.) ····· 546
〈표 6-5〉 전쟁발발 이전과 휴전 시 해군·해병대 병력 비교 ····· 578
〈표 6-6〉 전쟁발발 이전과 휴전 시 함정세력 ····· 578
〈표 7-1〉 1953년도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 현황 ····· 599
〈표 7-2〉 1953년도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부대의 편성 및 교대현황 ··· 601
〈표 7-3〉 1953년 제133전투비행사단의 예하 제대별 비행활동 ····· 603
〈표 7-4〉 조중 연합공군사령부 지휘관계 ····· 608
〈표 7-5〉 1953년 4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 618
〈표 7-6〉 PO-2 경폭격기 사진과 제원 ····· 625
〈표 7-7〉 1953년도 유엔공군의 총 비행활동 ····· 633
〈표 7-8〉 1953년도 주·야간 비행활동 ····· 634
〈표 7-9〉 1953년도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 635
〈표 7-10〉 1953년도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 635
〈표 7-11〉 1953년도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 ····· 636
〈표 7-12〉 1953년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간 피·아 항공기 손실 ····· 637
〈표 7-13〉 1953년도 제트격추영웅(Ace) 명단 ····· 640
〈표 7-14〉 1953년도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 ····· 641
〈표 7-15〉 1953년 근접항공지원 비행 현황 ····· 650
〈표 7-16〉 1953년도 공수비행 현황 ····· 653
〈표 7-17〉 한국공군 지휘관계(1953년 2월 15일 기준) ····· 660
〈표 7-18〉 제10전투비행단 편성표(1953년 2월 15일) ····· 661
〈표 7-19〉 한국공군 연도별 항공기 보유현황 ····· 663
〈표 7-20〉 1953년 한국공군 전투 비행 현황 ····· 665
〈표 7-21〉 1953년도 100회 출격 조종사 현황 ····· 674
〈표 7-22〉 1953년도 출격 중 전사 조종사 현황 ····· 675
〈표 8-1〉 정전협정 당시 양측의 군사력 비교 ····· 706
〈표 8-2〉 정전관리기구 편성표 ····· 720
〈표 8-3〉 유엔군측 군사정전위 편성표 ····· 720

〈표 8-4〉 송환포로 현황 ····· 735
〈표 8-5〉 상병포로 및 송환희망포로의 송환예정과 최종송환 현황 비교 ····· 735
〈표 8-6〉 공산군 측, 송환불원포로 처리 결과 ····· 744
〈표 8-7〉 국군 및 유엔군 측, 송환불원포로 처리 결과 ····· 745
〈표 8-8〉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일정 ····· 775
〈표 8-9〉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우방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현황 ··· 780

〈상황도 목차〉

〈상황도 4-1〉 중공군 6월 공세시의 피아배치 상황 ····· 175
〈상황도 4-2〉 812고지-쌍룡고지 전투 ····· 224
〈상황도 4-3〉 854고지-812고지 전투(2차) ····· 231
〈상황도 4-4〉 883고지-973고지-949고지 전투 피아배치 상황 ····· 237
〈상황도 4-5〉 중공군 제181사단의 공격상황 ····· 241
〈상황도 4-6〉 529고지 전투(제1차 역습) ····· 262
〈상황도 4-7〉 529고지 전투(제2차 역습) ····· 265
〈상황도 4-8〉 529고지 전투(제3차 역습) ····· 269
〈상황도 4-9〉 529고지 전투(제6차 역습) ····· 272
〈상황도 4-10〉 529고지 전투(제7차 역습) ····· 274
〈상황도 4-11〉 28고지 전투 직전의 피아배치 현황 ····· 278
〈상황도 4-12〉 화살머리고지(281고지) 전투 ····· 281
〈상황도 4-13〉 281고지 전투(제17연대 제3대대의 재반격) ····· 287
〈상황도 4-14〉 M1고지 전투상황(1) ····· 293
〈상황도 4-15〉 M1고지 전투상황(2) ····· 295
〈상황도 4-16〉 1090고지 전투상황(1) ····· 302
〈상황도 4-17〉 1090고지 전투상황(2) ····· 305
〈상황도 4-18〉 938고지 전투(1953.6.26.~6.27.) ····· 314
〈상황도 4-19〉 938고지 전투(제3연대의 역습) ····· 320
〈상황도 5-1〉 중공군 7월 공세의 피아배치 상황 ····· 337
〈상황도 5-2〉 교암산 부근 전투(1953.7.10.~7.12.) ····· 368
〈상황도 5-3〉 제19연대의 전투상황(1953.7.13.~7.14.) ····· 370
〈상황도 5-4〉 제9연대 전투상황(1953.7.13.~7.14.) ····· 373
〈상황도 5-5〉 백암산 전투 피아배치 현황 ····· 379
〈상황도 5-6〉 중공군 제180사단의 제1차 침공 ····· 383
〈상황도 5-7〉 국군 제5사단의 진격상황 ····· 395
〈상황도 5-8〉 여문리 부근 전투시 중공군의 침공 ····· 403
〈상황도 5-9〉 여문리 부근 전투(지연전) ····· 408
〈상황도 5-10〉 국군 제8사단의 배치 현황 ····· 419
〈상황도 5-11〉 별우지구 반격전(1) ····· 427
〈상황도 5-12〉 별우지구 반격전(2) ····· 430
〈상황도 5-13〉 별우지구 반격전(3) ····· 432

〈상황도 5-14〉 후동리 부근 전투(1953.7.16.~7.17.) ····· 438
〈상황도 5-15〉 602고지 전투(1953.7.15.~7.18.) ····· 440
〈상황도 5-16〉 후동리 부근 425고지 전투(1953.7.15.~7.17.) ····· 445
〈상황도 5-17〉 351고지 지역 지형도 ····· 452
〈상황도 5-18〉 351고지 전투상황(1953.6.2.) ····· 454
〈상황도 5-19〉 351고지 전투상황(1953.6.3.) ····· 456
〈상황도 5-20〉 351고지 전투상황(1953.6.5.) ····· 458
〈상황도 5-21〉 351고지 제2차전 상황(1953.6.15.) ····· 462
〈상황도 5-22〉 베티고지 전투상황 ····· 470
〈상황도 6-1〉 북한의 기뢰부설 해역 및 아군의 주요 피해 ····· 493
〈상황도 6-2〉 6·25전쟁 발발 이전 정대별 예속함정 및 경비책임해역 ····· 505
〈상황도 6-3〉 원산항내 주요 도서 현황 ····· 549
〈상황도 6-4〉 아군이 점령한 주요 전략도서 현황 ····· 551
〈상황도 6-5〉 군사분계선 지도(「조선정전협정문헌」, 1953.9.) ····· 558
〈상황도 6-6〉 맥아더라인, 클라크 라인과 평화선 ····· 562
〈상황도 7-1〉 1953년 1월 전선 상황도 ····· 590
〈상황도 7-2〉 1953년도 공산공군 비행장 배치지역 및 미그회랑 ····· 593
〈상황도 7-3〉 1953년 4월 기준 북한공군 기지별 전력현황 ····· 619
〈상황도 7-4〉 1953년 6월 30일 기준 공군 부대 배치 현황 ····· 664
〈상황도 8-1〉 정전협정시 군사분계선 및 피아배치 상황 ····· 707
〈상황도 8-2〉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1953.7.27.) ····· 714
〈상황도 8-3〉 비무장지대 송환거부 포로수용소 배치도 ····· 738

제 1 장 총 개요

제 1 절	6 · 25전쟁 개관
제 2 절	전쟁진행 단계별 상황 요약
제 3 절	연구범위 및 수록 내용

제 1 절 6 · 25전쟁 개관

6·25전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적화통일을 위하여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한 전쟁이며, 유엔군과 공산군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합의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전개되었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또는 휴전(休戰)'으로 전투행위가 중지된 상태로 마감되었다.

6·25전쟁은 전쟁이 발발한 후 최초 1년이 전선의 변화가 가장 심한 격동기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교착기였다. 격동기 1년 간에는 공산군이 세 차례나 38도선을 넘나들었다. 그 첫 번째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두 번째는 중공군이 평택-삼척선까지, 세 번째는 중공군이 서울 북방 구파발-강릉선까지 진출하였으나 매번 국군과 유엔군에게 격퇴되었다. 최초 북한군 남침 시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97일 만에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하고 청천강 이북까지 진출하였으며, 두 번째 북한군과 중공군 남침 시에는 약 90일 만에 이들을 격퇴시키고 38도선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군과 중공군 남침 시에도 약 39일 만에 다시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축출하여 전투개시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공산군이 38도선 이남에서 머문 기간은 226일 간이었고,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에서 머문 기간은 76일 간이었다.

6·25전쟁은 북한이 동족에게 피해를 입힌 침략행위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5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대규모의 무력 충돌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20세기 최대의 사건'이었다. 6·25전쟁은 우선 남북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기간에 국군과 유엔군의 인원손실은 77만 6천여 명이나 되었고, 북한 및 중공군의 인원피해도 2백만여 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남한

100만여 명, 북한 150만여 명 등 250만여 명이나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그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를 합한 2,500만여 명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여기에다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국가 기간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 손실만도 320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320만 명의 피난민과 30만 명의 전쟁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 등 사회적 기반을 뿌리 채 뒤흔드는 민족에게 온갖 고초와 고난을 안겨준 전쟁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사회, 문화적 이질화는 심화되었고 체제경쟁 속에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또한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지역의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이 급기야 세계 6대주의 25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동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을 구성한 초강대국들이 이 전쟁에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1950년대 동·서 냉전의 열전으로서 특히 한국은 막대한 인적,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고,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 하에서 남북한 간에는 군비경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핵의 위협 속에 치른 제한적, 국지전적 성격 때문에 양 진영이 핵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세계공산화 책략의 일환으로 스탈린(J. Stalin)의 승인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동의를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지전이면서 국제전'이었다. 동시에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발발된 전쟁이었지만 대한민국이 당시 전 세계 93개의 독립국가 중 68%에 해당하는 총 63개국의 지원 및 지지를 받아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참전국들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의 적화 의도를 막아낸 '자유수호전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이었다.

제 2 절 전쟁진행 단계별 상황 요약

1.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서울 함락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38도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시작했다. 그리고 240여 대의 T-34전차를 앞세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군의 방어선을 곳곳에서 돌파하였다.

다음날인 6월 26일 오후 13시경에 북한군은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함락시켰다. 육탄공격으로 맞서는 국군의 방어선을 연이어 무너뜨리고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6월 28일 01시경 미아리고개를 넘어오자 수도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북한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미아리 방어선 후방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했다는 보고에 채병덕 총참모장이 한강교 폭파를 명령하여 국군 공병부대가 그날 0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파하였다. 이 결과 한강 북쪽에 남아 있던 150만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한 채 북한군 치하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처 철수하지 못한 수많은 국군의 철수로가 차단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은 춘천지역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그들이 수원으로 진출하여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또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 국군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전선에서 삼삼오오로 철수해 오는 병력을 재편성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저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군 지휘부의 조치와 작전의 성과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 회원국들이 지원군을 파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미 제24사단과 제1기병사단을 비롯한 유엔 지상군의 전선투입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2.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지체없이 참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1950년 6월 26일(뉴욕 현지시간 25일), 긴급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도선 북쪽으로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28일(뉴욕 현지시간 27일), 유엔은 권고를 무시한 채 남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군사적인 제재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7월 7일 유엔은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창설하였다. 유엔의 결정에 따라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은 유엔의 기치(旗幟) 아래 지원군을 파병하였다. 초대 유엔군사령관에는 미국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임명되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맥아더 원수에게 서한을 보내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 사이 일본 동경에 위치해 있던 미국 극동군사령부는 남진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전투 준비가 부족했던 미 제24사단은 오산·평택·천안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해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전력과 그들의 측방기동, 후방침투 및 차단 전술에 밀려 금강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섰다. 이어서 7월 20일에는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을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이곳을 방어하던 미 제24사단장마저 실종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였다.

북한군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극동군사령부 명에 의거 7월 13일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어 미 제25사단, 미 제1기병사단 등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켰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에서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연전을 펼치면서 유엔군의 증원 및 재편성을 통한 전열 재정비와 전투력 복원에 진력하였으나, 마침내 7월 말에는 방어에 유리한 낙동강을 연하는 지역까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3. 낙동강방어선 전투

낙동강방어선은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과 동해, 남해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대구 북서쪽 왜관으로부터 남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창녕-마산 진동리에 이르기까지 112km 구간을 담당하고, 왜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낙정리-구미동-청송-영덕을 연하는 138km 구간을 국군이 담당했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6·25전쟁이 발발된 이후 처음으로 좌우가 연결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월 중순경 북한군의 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유엔군은 방어선을 다시 축소 조정해야만 했다. 그 결과 낙동강방어선의 북쪽지역은 왜관-신녕-포항을 연결하는 선으로 축소되었다. 그 이후에도 공산군의 공세는 집요했다. 특히 유엔군이 담당하는 마산·왜관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는 다부동·기계·포항 일대의 지역에서는 운명을 건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이 되면서 양측의 전투력 군형은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국의 지원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유엔군의 전투력이 급속히 증강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국군의 전투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군은 가용한 거의 모든 전투력을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투입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다. 전쟁 초기에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던 T-34전차도 겨우 100여 대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 공군의 끊임없는 후방차단으로 대부분의 보급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보급도 제해권을 장악

하고 있는 유엔 해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렇지만 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낙동강방어선 곳곳이 돌파되고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담당하고 있던 대구 북서쪽의 왜관·다부동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영천 일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북한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방어선을 마산-밀양-울산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대기시키고 있던 미 제1해병여단까지 낙동강 전선에 투입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다.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볼 때 국군과 유엔군보다 열세한 북한군이 9월 공세를 감행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곤혹스럽게 만든 셈이다. 그리고 낙동강방어선에서 전개된 양측 간의 이처럼 치열한 공방전은 공세와 수세의 전세전환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4. 인천상륙작전과 38도선 회복

북한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국군과 유엔군을 낙동강 이남지역으로 몰아붙이며 최후의 공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국군과 유엔군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북한군은 유엔 해군과 공군의 후방차단으로 추가적인 증원과 보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 막대한 장비 및 물자와 함께 자유우방국들이 파병한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9월 15일을 기해 미 제10군단이 중심이 된 상륙부대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인천의 지형적 불리를 비롯한 많은 제한요인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원수의 상륙작전 성공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 13개 사단의 주력은 후방이 차단되었다. 낙동강방어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자 그 사이에 갇힌 북한군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남침 이후 국군과 유엔군을 계속 공격하여 후퇴를 강요했던 기세등등한 북한군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에는 38도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지 불과 15일 만에 전선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최초 유엔이 결의했던 전쟁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은 남과 북이 합쳐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 역시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부터 추구해 왔던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5.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와 북진

1950년 10월 1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북진을 시작했다. 이어 유엔의 '통한(統韓)결의'에 따라 10월 9일, 서부지역의 유엔군도 38도선을 돌파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모든 역량을 낙동강 일대에 투입했던 북한군은 그들의 주력이 붕괴된 후부터 실질적인 저항의지와 능력을 상실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고,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0월 21일, 평양 북쪽 순천에 도달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는 "이날 중으로 순천 북쪽 50㎞ 지점에 위치한 개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했다. 명령을 접수한 대대장은 전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전조등을 밝히고 개천으로 향했고 대대는 당일 중으로 개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초산 북쪽의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한편 11월에는 동부전선에서도 미 제7사단이 혜산진에,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일대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도 해안선을 따라 청진 일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25일 이후 중공군의 기습적인 제1·2차 공세가 감행됨에 따라 6·25전쟁은 전혀 새로운 전쟁으로 바뀌었다.

6.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국군과 유엔군은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미처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950년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까지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이 퇴로를 차단함에 따라 부득이 흥남으로 철수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 간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38도선으로부터 낙동강선까지 수개의 방어선을 계획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12월 하순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이 미군 사단과의 전투에서 50% 이상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북한군 제3, 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를 위하여 배치하고, 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평택-원주-삼척선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확보하였다.

1950년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을 기해 제3차 공세인 38도선 돌파작전을 개시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다시 서울을 내어주고 사전에 계획된 방어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7.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1950년 12월 31일 공산군은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조공을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각각 투입하여,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작전, 즉 제3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 중이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38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1951년 1월 7일에는 37도선인 평택-삼척선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남침을 계속하여 1월 7일에는 수원-여주-강릉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동안에 입은 전력 손실로 인하여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의 공세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공산군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선에 이르렀을 때 중공군은 제4차 공세(1951. 2. 11~2. 18)를 통하여 유엔군의 반격을 무력화하려 했다. 이에 따라 공산군과 유엔군이 서로 맞부딪쳐 횡성,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공세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3월 15일을 기해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5월 중순에는 캔자스선(LINE KANSAS)을 발판으로 중부지역에서는 와이오밍선(LINE WYOMING)으로 불리는 철원-금화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이 다섯 번째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 규모인 3개 병단 11개 군 35개 사단의

중공군과 북한군을 총동원하여 4월(4.22일~30일)에는 서부 및 중부전선(개성-화천)에, 5월(5.16일~22일)에는 중동부전선(양구-인제)에 각각 주공을 투입, 총공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의 공세는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공세에 큰 손실을 입고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그리고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5월 말에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말에는 임진강 하구-연천-철원-화천-간성 북방의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쟁의 양상은 휴전협상 테이블에서의 설전과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교착된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으로 바뀌었다.

8. 휴전회담과 고지쟁탈전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재 반격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접촉선에서 대치하게 된 1951년 6월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모두 이제 더 이상 무력에 의해서는 전쟁을 종결할 수 없고 협상에 의해 전쟁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막되었고, 회담은 이후 중단과 휴회, 재개 등을 반복하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휴전회담은 진행과정에서 유엔군 측 보도진 출입문제, 공산군 측의 중립협정위반 날조사건, 휴전회담 장소의 이전(개성에서 판문점), 세균전 논란 등과 함께 특히 포로교환문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의 전쟁상황은 양측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휴전회담의 진전여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면서 전개되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였으나,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군사작전의 목표를 휴전협상에서의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1952년에 전개된 백마고지 및 저격능선 전투와 1953년에 금성지구에서 진행된 중공군의 이른바 6월과 7월공세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확대된 공방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전이 고지쟁탈전의 규모로 진행되는 제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쌍방 모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선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한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엔 및 한국공군은 1950년 6월 29일부터 한만 국경지역에 형성된 미그회랑을 제외한 한반도 내의 전 지역에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전략폭격 및 후방차단, 근접항공지원 등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에 기여하였다. 유엔 및 한국해군 역시 1950년 6월 27일 이후부터 한반도 내의 모든 해역에서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함재기의 공중폭격과 해상봉쇄, 소해작전, 공중초계 등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9. 휴전협정 체결과 전쟁의 중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공산군과 유엔군은 지상에서 쌍방 간에 38도선을 3번씩이나 오르내리면서 격전을 치렀다. 반면 해상과 공중에서는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군사작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초기에는 북한군과 국군 및 유엔군 간의 대결이었지만 중공군의 참전에 따라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대결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양상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의 전면적인 군사적인 대결에서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는 회담테이블에서의 설전과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전선에서의 치열한 고지쟁탈전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1951년 7월 10일을 기해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간 휴전회담은 1951년 11월에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8개월이 더 걸렸는데 이 때 양측 간에 제기된 핵심적인 이슈는 포로교환 협상이었으며, 정전협정체결 이후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문제 역시 회담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자 휴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쟁은 급격히 종결 분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6월 8일을 기해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이 포로교환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어서 미국과 한국정부가 1953년 7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10시에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간에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같은 날 22시를 기해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6·25전쟁은 쌍방 공히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황에서 전투행위가 일단 중지되었다.

한편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다양한 후속조치가 강구되었다.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유엔군사령관은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목적으로 동·서해상에 북방한계선(NLL, NBL)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송환희망포로의 교환도 계속되어 1954년 1월 28일에 잔여 포로 347명이 공산측에 인계되고, 중립국을 선택한 88명의 포로들는 2월 8일 인천항에서 인도의 군용 수송선을 타고 인도로 떠나면서 포로 송환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양측은 6·25전쟁을 정치적으로 종결짓기 위한 정치회담을 1954년 4월 26일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하여 2개월 동안에 걸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및 국제적인 감독, 외국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회담은 1954년 6월 15일에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제 3 절 연구범위 및 수록내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971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전쟁사』(전 11권)을 발간하였고, 계속해서 국방군사연구소가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한국전쟁』(상·중·하)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이들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공산권 붕괴 이후 새롭게 밝혀진 중국 및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자료와 비밀 해제된 미국의 자료 등을 활용, 6·25전쟁을 재조명하는 '6·25전쟁사 전 11권 연구편찬사업'을 지난 2003년에 시작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마지막 권인 『6·25전쟁사 제11권 :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을 발간하게 되었다.

6·25전쟁사연구편찬 결과

권수	서 명	편 찬 기 간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3. 1~2004. 6
제2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4. 7~2005. 12
제3권	한강선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2006. 1~2006. 12
제4권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2007. 1~2008. 2
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7. 1~2008. 6
제6권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2008. 3~2009. 7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2009. 1~2010. 8
제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 재반격	2010. 1~2011. 6
제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2011. 1~2012. 6
제10권	휴전협상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2011. 7~2012. 12
제11권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2012. 7~2013. 12

이번에 발간된 『6·25전쟁사 제11권』에서는 1953년 1월부터 7월 27일까지 전개된 전선지역에서의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까지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으며, 1954년에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을 비롯한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진행된 전쟁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책의 전반부에는 위에 제시된 기간에 이루어진 공산군과 유엔군 측의 정전협상 및 군사작전과 관련된 전략적 의도와 전쟁지도, 포로교환문제를 비롯한 휴전협상의 난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한미회담 등에 대해 수록했다. 계속해서 책의 중반부에 유엔군의 정찰전과 전초진지 전투, 해당기간 중에 진행된 주요 군사작전인 두 차례의 금성지구 전투(공산군의 6월, 7월 공세)에 대해 기술한 다음, 해군 및 공군작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을 편성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는 정전협정 조인 및 전후처리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마지막 총평으로 6·25전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록하였다. 각 장별 수록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공산군과 유엔군의 전쟁지도”는 먼저 국내외 정세와 전황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공산군의 전쟁지도,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군 측의 전쟁지도 그리고 한국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에 대해 수록했다.

제3장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회담”은 먼저 휴전회담 재개와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에 대한 정리에 이어 병상포로 교환과 포로교환 협정에 대해 수록하였다. 그리고 남북통일 추구와 휴전반대 등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함께 특히 우리 정부가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회담 등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했다.

제4장 “중공군의 6월 공세”는 작전이 진행될 당시의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를 분석한 다음, 작전경과 및 결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5장 “중공군의 7월 공세”도 공산군측의 공격과 유엔군측의 반격에 대해 양측의 상황평가 및 작전의도, 작전계획 및 작전경과 그리고 작전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등의 순서로 구분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제6장 “해군작전”은 먼저 전력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북한해군의 작전에 대해 정리한 다음,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의 작전을 총망라하여 연구, 수록하였다. 아울러 유엔군사령관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설정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분석 및 평가에서는 1953년도에 진행된 해군작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6·25전쟁 전 과정에 걸친 유엔 및 한국해군의 역할과 6·25전쟁이 한국해군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제7장 "공군작전"에서는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의 공군작전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한 다음 공산군 측의 공군작전을 소련, 중국, 북한공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엔 및 한국공군의 작전활동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25전쟁 전 과정에 걸친 공산공군과 유엔 및 한국공군의 역할과 6·25전쟁이 한국공군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제8장 "정전협정 조인과 전후처리"는 정전협정 조인과 이에 따른 정전체제의 구축, 포로교환과 실향민의 귀환, 유엔의 조치와 제네바 정치회담,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의 형성에 대해 새롭게 정리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6·25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은 최대의 안보 및 외교 성과였음을 알리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제9장 "총평"에서는 이번 제11권이 6·25전쟁사 연구편찬 사업의 마지막 산물인 점을 감안 하여 제11권의 연구 대상 기간인 1953년 1월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나 6·25전쟁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연구의 대미(大尾)를 장식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의 지엽적인 범주에서 탈피하여 6·25전쟁의 성격과 의미, 전쟁의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한미동맹 형성, 그리고 전쟁의 교훈을 다룸으로써 전쟁의 큰 차원에서 6·25전쟁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6·25전쟁사』(전 11권)의 완간에 따른 후속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6·25전쟁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6·25전쟁 통사』(한글·영문),『통계로 본 6·25전쟁』,『유엔군 참전사』(Ⅰ,Ⅱ권),『6·25전쟁 기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한국정부의 6·25전쟁지도』,『끝나지 않은 6·25전쟁』,『6·25전쟁과 한국군의 발전』,『6·25전쟁과 인물』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 6·25전쟁사』 (전 11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거나, 소략되었던 부분을 연구 편찬함으로써 6·25전쟁 연구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집필 : 김상원)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제 1 절	국내외 정세와 전황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제 3 절	유엔군과 미국의 전쟁지도
제 4 절	한국 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국내외 정세와 전황

1. 국제정세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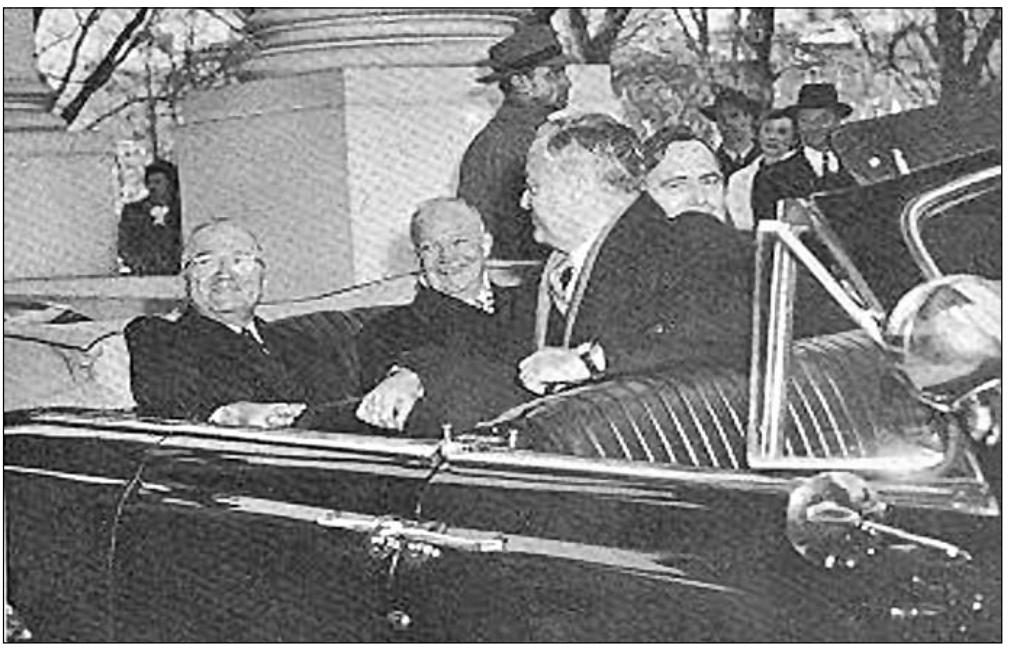
1) 일반 동향

6·25전쟁 3돌째인 1953년의 전쟁양상은 '일면 협상과 일면 전투'라는 틀 속에서 전개되었다. 판문점에서는 휴전회담이 휴회(休會)와 재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고, 전선에서는 휴전 이후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다.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휴전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상의 조기타결을 바라고 있었다. 그렇지만 휴전회담장에서 양측은 포로송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었다. 양측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움으로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舌戰)만을 되풀이하였다.

이처럼 포로송환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제적십자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52년 12월 13일 '국제적십자사집행위원회'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과 제네바협약에 따라 부상당한 '상병포로(傷病捕虜, a sick and injured prisoners of war)'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데 이어, 1953년 2월 이를 유엔총회에 상정하였다. 포로송환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다루게 되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제네바협약(協約, Geneva Convention)의 준수 차원에서 상병포로의 교환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무렵 전쟁을 주도해 왔던 미국과 소련에 변화가 일어났다. 6·25전쟁 발발 이후 전쟁은 물론이고 휴전회담을 주도해 왔던 미국과 소련의 국내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아이젠하워 신임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트루먼 전 대통령(왼쪽 첫 번째)의 모습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이 그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고, 새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890-1969) 행정부가 들어섰다. 이때가 1953년 1월 20일이었다.

또한 소련에서는 6·25전쟁의 남침을 승인하고 북한을 지원하며 지도해 왔던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이 1953년 3월 5일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1] 스탈린의 사망은 이후 포로송환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휴전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쟁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휴전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에 대한 전후 안전보장이 없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휴전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며, 한국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전후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원조 그리고 한국군 증강 약속을 받아냈

다. 공산군 측은 반공포로석방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막바지에 이른 휴전회담 자체를 깨지는 못하였다.

스탈린 장례식 장면. 오른쪽부터 베리아(Beria), 말렌코프(Malenkov), 바실리 스탈린(Vassily Stalin), 몰로토프(Molotov)가 스탈린의 관을 메고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휴전협상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해서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만 2년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대표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양측은 전투행위를 종식하고, 이후 한반도는 정전체제에 의한 불안한 평화가 깃들었다.

2)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출범과 중국정책 변화

1953년 1월 20일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도 전원 교체되었다. 국무장관에는 1949년부터 장관직을 수행한 애치슨(Dean G. Acheson, 1893-1971)이 물러나고, 대신 덜레스(John F. Dulles)가 그 자리에 앉았다. 국방장관에는 1951년에 장관직을 맡은 러베트(Robert A. Lovett)가 물러나고, 변호사 출신의 윌슨(Charles E. Wilson)이 새로 장관에 임명되었다.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

미국의 윌슨 국방장관

따라서 1953년 미국의 한국에서의 전쟁지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지도함에 있어 전임자인 트루먼 대통령과는 달리 주로 참모 및 보좌관들에게 위임하는 편이었다. 전임자인 트루먼 대통령이 6·25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또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있어서의 전쟁정책의 골격(骨格)을 바꾸지 않았다. 정책기조의 큰 틀은 전임 트루먼 행정부가 추구했던 명예로운 휴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3)]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계속해서 휴전회담이 난항을 겪으며 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이젠하워 행정부도 전쟁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의 장기전은 자신에게 불리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195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한국에서의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전선에서 미국과 상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였다.

1952년 12월, 미국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한국전선을 방문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이제까지의 정책을 바꾸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2월 2일 미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Union message to Congress)에서 미 해군의 '대만봉쇄(blockade of Taiwan)'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4]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월 2일, 미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미 해군의 대만봉쇄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하고, 미 제7함대 로 하여금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방벽(防壁) 역할이나 장제스(蔣介石)의 중국본토 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젠하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이젠하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정치 및 군사지도부와 우방의 정치지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 미 공화당의 태프트(Robert Taft) 상원의원, 대만의 장제스(蔣介石) 총통,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등이었다. 특히 아이젠하워의 지지자들은 장제스의 대만(臺灣) 군대의 제한 해제를 환영하면서 공산군과의 전쟁에서 기선을 장악했다며 지지를 보냈다.[5]

하지만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지도자들과 영국·인도의 저명한 언론인들은 아이젠하워 정부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전쟁이 대만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6] 이런 우려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 외무장관 이든(Anthony Eden)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의 대만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내린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는 "미국의 그런 조치는 군사적인 이점을 보상받지 못할뿐더러 국제사회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도의 유력한 신문도 영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인도의 한 신문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총을 가지고 평화를 사냥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논평을 실었다.[7]

1949년 8월, 태평양동맹 논의를 위해 진해를 방문한 장제스 총통(왼쪽 3번째)과 이승만 대통령(오른쪽 3번째).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총통 뒤에 김홍일 장군의 모습이 보인다.

이처럼 새로 들어선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미국 해군에 의한 대만해협 봉쇄해제'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대만(臺灣)에서는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대만의 장제스 군대의 전력은 중국 공산당에게 위협적이지 못하였다. 해군은 상륙정 몇 척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륙훈련을 받은 군인도 얼마 되지 않았다. 대만 자체의 군사력으로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은 무모할 정도였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 대만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대만의 군사력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8] 아이젠하워 정부의 이런 조치에 부담을 느낀 것은 중국이었다. 이제까지 중국은 본토에 대한 대만의 군사적 위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여러모로 볼 때 대만의 군사력은 결코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은 한국전선에 그들의 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립정책을 포기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상황이 달라

졌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조치에 군사적·심리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당시 중국은 1953년부터 5개년 경제개혁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 2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를 형편이 못되었다.[9] 전쟁당사국에게 최악의 상황이 바로 2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경험하였던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이 미국과 영국을 향해 제2전선을 형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었다. 미국은 바로 중국의 이런 전략적 약점을 노렸던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중국정책은 한국전쟁을 둘러싼 공산진영의 전쟁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마냥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스탈린의 사망은 중국에게 휴전협상에 임할 좋은 명분이 되었다.

3) 스탈린의 사망과 소련 정책의 변화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은 6·25전쟁 계획단계에서부터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인물이다. 공산권의 '맏형(Big Brother)' 역할을 자처하며 '남침전쟁'을 설계하고 주도했던 스탈린의 사망은 6·25전쟁 마지막에 있어서 커다란 분수령 역할을 하였다. 그의 죽음은 공산진영의 한국전에 대한 정책과 전략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뿐만 아니라 휴전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스탈린은 북한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6·25전쟁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전쟁 중에는 크레믈린 궁에서 전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런 그가 1953년 3월 5일에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스탈린이 사망하자 중국 정부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을 구성한 후, 3월 7일 급히 모스크바로 파견하여 스탈린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하였다.[10]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Stalin)

중국 총리 겸 외교부장 저우언라이(周恩來

스탈린의 사망은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6·25전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소련은 내부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6·25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북한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공산 측은 난항을 겪고 있는 전쟁포로 문제에서 적당히 양보함으로써 '정전(停戰)'을 조속히 실현시키기로 합의하였다.[11]

스탈린의 사망은 소련 국내정치의 세력판도뿐만 아니라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스탈린 사후, 소련의 국내 상황은 스탈린의 후계자로 하여금 이전의 정책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스탈린의 뒤를 이은 말렌코프(Georigi M. Malenkov)는 3월 5일 정권을 장악한 후 새로운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소련 정권의 교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도 향후 소련의 정치적 노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소련정치 무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유진영 국가들은 말렌코프 행정부가 향후 취할 소련의 대외정책과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12]

실제로 소련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그들의 대외정책,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전쟁정책에 직접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련의 6·25 전쟁 관련 비밀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소련의 비밀외교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는 1953년 3월 19일, 이제까지 취해 온 노선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련 정부는 세계평화구축이라는 면에서 전쟁의 중지는 모든 국민의 이해, 특히 중국과 북한 인민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였다.[13]

특히 소련은 한국에서의 전쟁으로 다소 소원해진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게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 소련은 3월 21일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과 영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며 우호적 입장을 나타냈다. 나아가 한국전 발발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영국인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소련이 직접 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였다.[14]

이외에도 소련 정부의 서방세계에 대한 유화정책은 계속되었다. 소련은 유럽공동방위조약에서의 서독(西獨)의 인준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15] 이는 스탈린시대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변화였다. 스탈린의 사망과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따른 소련의 유화정책은 한국에서의 전쟁해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변화로 인해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이 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소련과 북한의 비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양측의 비밀전문에 의하면 북한 김일성은, "우리[공산]측이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달성에 관한 주도권을 잡을 때가 왔다."고 하였다.[16] 이는 북한이 전쟁을 종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엔군 측은 공산진영의 변화된 외교노선에 희망을 갖고 휴전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부상당한 포로의 교환이었다. 이를 토대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을 다시 열었다.

2. 국내정세의 추이

1) 휴전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갈등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협상이 개시되자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했던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휴전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휴전을 추구하면서 '전쟁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선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였다. 휴전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철저히 배제한 채 회담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일종의 불안과 배신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휴전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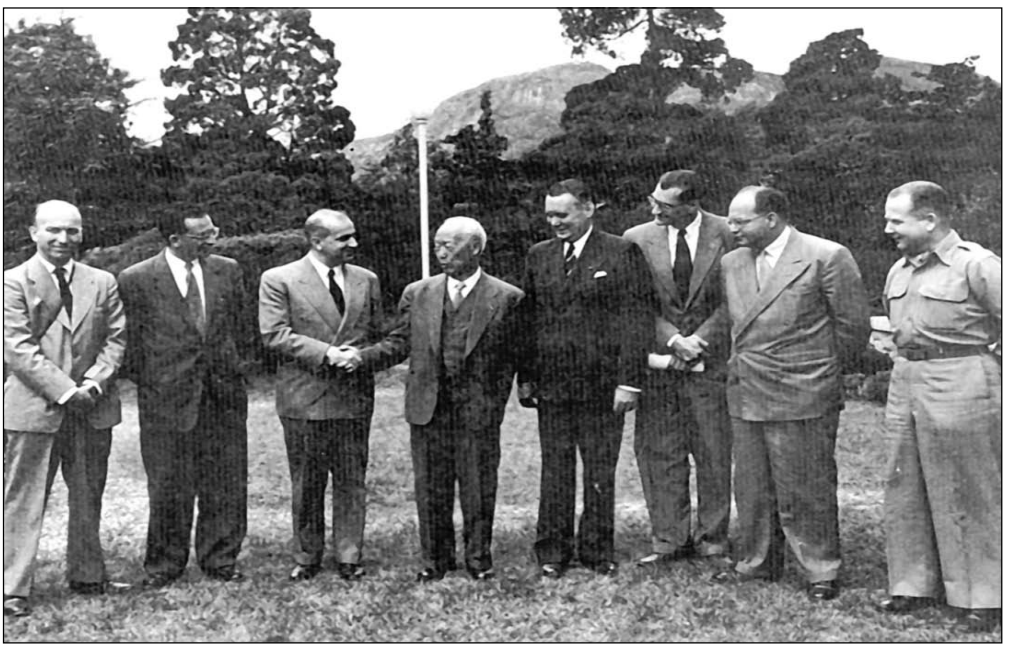
우리에게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휴전반대를 외치고 있는 학생들

한국 정부와 국민은 6·25전쟁 이전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對韓政策)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미국이 한국 정부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전회담을 추진하자, 전쟁이전 한미 간의 불편하였던 상황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이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이어 1950년 1월에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태평양 방어선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초기 미국의 이런 소극적인 대한정책과 군사지원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은 우리 정부가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미국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하였다.[17]

미국에게 한 번 당한 한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 없는 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 국민들도 다시 분단되는 그 어떠한 휴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였다. 더욱이 광복이후부터 건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잔학상을 직접 체험하였던 한국 국민들로서는 공산주의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휴전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사적으로 휴전을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 시작 이전부터 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이 소련의 협상제의를 정식으로 수락하던 1951년 6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과 대한민국 주권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건의 휴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휴전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한 채 휴전회담을 강행하였다.[18] 미국의 이러한 휴전협상 추진은 한국 국민들을 분노와 실망 속에 빠트렸다.

1953년 3월 말 포로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침체를 거듭하던 휴전회담이 공산군 측의 제의로 재개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휴전반대 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범국민적인 휴전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서울 경무대에서 미국측 인사들과 담소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1953년 4월 초, 대한민국 국회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 어떠한 휴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다음은 국회가 채택한 휴전반대 결의안 내용이다.

> 대한민국 국회는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에서 수립한 기본정책인 평화와 통일과 재건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휴전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적이며 파괴적인 휴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 중공의 주은래는 평화를 가장하고 민주진영을 기만하며 열세를 만회하고 차기침략을 준비할 시간을 얻고자 또 하나의 전후 일관된 음모극을 연출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유엔군은 대한민국 3천만 국민의 자유와 통일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엔존립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침략자를 응징하고 안전보장을 확립할 때까지 승리에 매진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19]

이승만 대통령도 4월 5일 제2군단 창설 1주년 기념식에서 “국토통일이 없는 휴전보다는 차라리 압록강으로의 진격을 택해야 할 것이다.”며 휴전반대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졌다.[20] 휴전반대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적극 나섰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동참하였다. 4월 6일 서울에서는 약 5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하여 대대적인 휴전반대 운동을 벌였고, 4월 10일 부산에서도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휴전반대 운동을 펼쳤다.[21]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회는 4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는 “북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성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22] 정쟁(政爭)으로 치닫던 국회가 휴전반대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전쟁 발발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이처럼 단결된 모습을 보인 적이 일찍이 없었다.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호응에 부응해 휴전반대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반대 메시지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였다. 그는 메시지에서 “만일 미국이 압록강 남쪽에 중공군을 주둔하게 하는 어떠한 협정이라도 체결할 경우, 본인은 한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이며, 필요하다면 한국군은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며 경고하였다.[23] 여기에는 휴전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의 휴전반대에 대한 결의와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전달하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워싱턴과 도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행동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였다. 사태수습을 위해 워싱턴과 도쿄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즉각 이승만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4월 27일 도쿄로부터 달려와 경무대를 방문하였다.

이때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군 증강을 약속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휴전문제로 미국은 한국의 신뢰를 잃고 있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

한미 양국은 반공포로 송환문제로 다시 한 번 충돌하였다. 5월 13일 유엔군 측이 포로송환에 관한 최종 절충안을 제의하게 되자, 한국도 이에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한국의 휴전회담 대표가 회담 불참을 선언하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는 한인(韓人) 반공포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양측은 포로교환 협상에 타결을 보게 되었다. 1953년 6월 8일 오후 2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포로송환협정에 조인하였다. 공산군 측에서는 수석대표 남일(南日)이 포로송환협정에 서명하였고, 유엔군 측에서도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휴전회담 마지막 난제였던 포로송환문제가 타결되었다.

이제 정전협정 조인은 시간문제였다. 한국으로서는 최대의 위기였다.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피폐된 상태에서 더구나 전후 보장책도 없

이 정전이 되는 것은 한국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석방을 고려하였다. 그는 한국 단독으로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함으로써 한국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예측은 맞아 떨어졌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 단독의 반공포로석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로써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특히 한미 양국은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2) 국회의 휴전반대 촉구와 전시입법 활동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 및 입법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일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국가의 최대관심사인 휴전반대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부예산심의 및 전시 입법(立法) 활동이었다.

먼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휴전반대에 적극 동참하였다. 국회는 휴전반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였다. 첫째, 3천만의 민의(民意)를 대표하여 북진통일 운동에 앞장섰다. 둘째, 유엔회원국 각국에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 국민들의 휴전반대 입장을 알렸다. 셋째, 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휴전회담과 관련한 모든 정세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6월에 설치되어 운영된 휴전대책위원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부의 대책을 확인하고, 휴전회담 한국대표를 초청하여 회담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활동을 하였다.[24]

또한 국회에서는 제15회 정기국회를 개최하고 1953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는 1952년 12월 20일부터 1953년 6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기를 연장한 후 정부예산안을 처리하였다.[25] 국회는 정부예산안과 국회예산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수정안을 심의하였다. 이때 국회가 통과시킨 1953년도 정부예산안은 약 430억 원이었다. 당시 정부예산은 적자로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원조에

의존하도록 하였다.[26]

특히 국회에서는 정부의 예산안뿐만 아니라 전시입법활동도 수행하였다. 1953년에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신국회법개정안, 노동조합법안, 긴급금융설치법안, 교육공무원법안, 서남지구경찰대설치법안, 노동기준법안, 노동동원법안 등이었다.

신국회법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들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것과 국회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에 따라 1953년 1월 29일 국회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선출을 실시하게 되었다.[27]

또한 국회에서는 회기 중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보장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자의 생활기준을 보장한 노동기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부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국정쇄신에 기여하였다.[28]

3. 전선 상황

1953년 초기 전선 상황은 지난해 추계공세(秋季攻勢) 이래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빙기가 되면서 전선에서의 작전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공산군은 전 전선에서 제한된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공산군은 주로 주저항선 전방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군과 유엔군의 전초고지를 노렸다. 이것은 교착된 전선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투양상이었다.

이러한 전초전투는 서부전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미 제1해병사단의 레노(Reno)-베가스(Vegas)-엘코(Elko)-베를린(Berlin) 전초에서부터 그 동쪽의 후크(Hook), 고왕산, 불모고지, 포크찹(Porkchop) 고지 등에 1개 대대 또는 1개 연대 규모의 공격을 가해 왔다. 이른바 네바다 전초진지(Nevada Complex)에 대한 공격이었다.

연일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진 끝에 3월말, 미 제1군단은 레노 및 불모고지를 잃었다. 당시 미 제7사단 장병들은 1952년 이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불모고지(Old Baldy)의 재탈환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이 고지가 전술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불모고지(Old Baldy)에서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

한편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에서는 3월 5일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의 주요 거점인 저격능선을 탈환하였다. 지난해 10월의 쇼우다운(Showdown) 작전 이래 거듭된 혈전으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이 능선을 드디어 국군이 탈환한 것이다. 국군 제2군단 지역인 금성지구와 그 동쪽의 미 제10군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 지역의 3~4월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그러나 5월 중순경부터 공산군은 서부와 중동부전선에서 미 제8군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중에서도 중공군의 공격은 주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으로 집중되었으며, 5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친 약 2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과의 혈전에서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 여단은 칼슨(Carson)-엘코(Elko)-베가스(Vegas)의 이른바 ' 네바다 전초군 (Nevada Complex)'을 중공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29]

전통적으로 후퇴를 모르는 터키여단 장병들은 362명[30]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 고지군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었으나, 5월 29일 밤 미 제1군단장은 이들에게 철수를 명령하였다. 군단장은 이들 고지군이 전술적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고수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31]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 지역에서도 5월 28일 1개 대대로 추산되는 중공군이 저격능선에 대해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9사단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이보다 앞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2군단 예하 수도사단이 전초기지인 마제고지(馬蹄高地)에서 규모 미상의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일대 공방전을 펼쳤으나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빼앗겼다.

이렇듯 1953년 5월 중순부터 중공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초전은 6월부터 그 전투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공산군은 6월 8일 휴전회담에서 포로송환에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휴전회담이 마지막 조인단계로 접어들자, 전 세계에 그들의 군사적 승리를 과시하려는 듯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중공군은 금성지역의 국군 제2군단 정면에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른바 중공군 6월 공세였다. 이는 1951년 4월과 5월의 춘계공세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공세였다. 이 공세를 통해 공산군은 한국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휴전반대 운동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6월 공세를 통해 국군의 전투력과 국군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32]

또한 중공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6월 18일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보복공세를 단행하였다. 이른바 7월 공세였다. 7월 13일 밤 중공군 6개 사단이 금성지역의 국군 제2군단과 미 제9군단 지역의 국군 사단 방어지역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강타

하였다. 중공군의 첫 공격은 금성돌출부의 좌우측 견부에 해당하는 미 제9군단의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의 국군 제3사단에 집중되었다. 이들 국군 사단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인접에 위치한 제6사단과 8사단의 측방이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사단 좌측의 9사단 진지가 적의 포위위협을 받게 되었다. 일거에 돌파구를 형성한 중공군은 인접한 국군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며 계속 돌파구를 확장해 나갔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국군 사단에게 금성천 남쪽으로의 후퇴를 명령하는 한편, 미 제3사단과 일본에서 공수된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이 지역으로 투입시켰다. 이 지역의 방어책임을 맡고 있던 국군 제2군단도 7월 14일 국군 제11사단을 배속받아 전력을 강화하여 금성천 북쪽으로 반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7월 20일 테일러 장군은 더 이상의 반격을 중지시켰다.[33]

중공군은 6월과 7월의 두 차례에 걸친 마지막 공세를 펼쳐 중부전선에서 보다 유리한 방어선을 형성한 반면, 미 제8군은 금성돌출부를 상실하게 되었다. 7월 공세를 마지막으로 전선은 대체적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부전선의 미 제1해병사단 지역에서는 또 한 차례 전초고지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7월 19일 베를린과 동 베를린 두 전초에 2개 대대 규모의 중공군이 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7월 21일 미 제1군단장이 미 해병사단에게 철수명령을 내림으로써 두 전초진지를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다.[34]

미 제1군단장은 조그마한 고지를 놓고 너무 많은 인명피해를 본 것을 보고 '명분없는 혈전'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이로써 정전협정 조인을 앞두고 단행된 중공군의 공세에 따른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은 멈추게 되었다.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1.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와 전쟁수행체계

1953년에 들어서면서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부에 변화가 생겼다. 가장 커다란 변수는 소련 수상 스탈린의 갑작스런 사망이었다. 그때까지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는 소련의 스탈린을 정점으로 그 밑에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포진한 형국이었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 및 김일성과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전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은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 및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대사 및 소련군사고문단장을 통해 전쟁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사안에 따라서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때는 스탈린의 가명으로 된 비밀전문을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에게 보내 전쟁을 지도하였다.[35]

스탈린의 사망은 전쟁지도체제뿐만 아니라 소련의 전쟁정책에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말렌코프가 스탈린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았으나 스탈린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바로 소련 정부의 유화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탈린이 사망한지 2주일 후인 3월 19일 소련 정부는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소련 정부는 “전쟁의 중지는 모든 국민의 이해, 특히 중국과 북한 인민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36] 소련 정부는 휴전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쟁발발, 특히 중공군 개입 이후 형성된 소련의 스탈린을 정점으로 하고 그 밑에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으로 이루어진 전쟁지도체제의 구도가 무너진 것이다. 이후 실질적인 전쟁지도는 중국의 마오쩌둥이 주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김일성과 펑더화이(彭德懷)에게 통보하는 식의 전쟁지도를 구사하였다.[37]

한국전선에서의 군사상의 작전지휘는 여전히 1950년 12월에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가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중국 전쟁지도부의 핵심에는 여전히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북한에 파견된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를 통해 작전을 포함한 전쟁 전반에 걸쳐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인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마오쩌둥을 보좌하며 대내외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다.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한 리커농(李克農)은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고 북한으로 파견되어 휴전회담을 현지에서 지휘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은 전쟁발발 당시부터 주덕(朱德)이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에 파견된 중공군지휘부에 조중연합사령관 겸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를 비롯하여 사령관 대리 겸 서해안사령관 덩화(鄧華), 부사령관 겸 후방근무사령관 홍쉐즈(洪學智), 제3병단 겸 동해안사령관 쉬스여우(許世友), 제9병단사령관 왕젠안(王建安), 제19병단사령관 한센추(韓先楚)와 황융셩(黃永勝, 4월 이후), 제20병단사령관 양용(楊勇), 공군사령관 녜펑즈(聶風智), 철도운수사령관 류쥐잉(劉居英), 참모장 세팡(解方)과 리다(李達, 4월 이후)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38]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부로는 펑더화이 사령관과 중국측 부사령관 덩화는 그대로 유임하고 있었다. 북한측 부사령관은 김웅(金雄)에서 최용건(崔庸健)으로 교체되었다. 이외에도 조중공군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왕연(王璉), 서해안부사령관에는 방호산(方虎山), 동해안부사령관에는 김웅(金雄)이 맡고 있었다.[39]

북한의 전쟁지도부 및 군사지휘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부수상 겸 외상인 박헌영(朴憲永),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 총참모장 남일(南日), 전선사령관 김광협(金光俠) 등이 있었다.[40] 특히 김일성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계선 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산군 측의 군사상의 작전지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공산군 측의 전쟁수행체계는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스탈린 중심이었고,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조언과 충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오쩌둥은 그 과정에서 주요 사안마다 스탈린에게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스탈린은 이에 대한 해답을 직접 또는 해당국 주재의 소련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반해 김일성은 주로 마오쩌둥과 전쟁 관련 상황을 협의하였고 마오쩌둥은 이를 다시 원문 그대로 스탈린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 그런 점에서 중공군 개입 이후 김일성의 전쟁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초대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

2. 공산군 측의 전략지침과 공세전략

1) 공산군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침

공산군 측은 1953년 1월 미국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유엔군 측이 전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연합군사령관을 역임한 원수 출신인데다 1952년 한국 방문 후 미국 내부에서 전쟁확대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공산군의 견고한 전선정면(戰線正面)의 진지에 맞서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면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클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의 우세한 전력을 이용하여 북한의 동서해안에서 상륙작전과 동시에 정면 공격과 배합해 나가는 방안을 가장 효과적인 방책으로 취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41]

따라서 공산군은 지구작전 및 적극방어라는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면서 대(對)상륙작전 준비를 1953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해안방어, 즉 그들의 수도 평양이 있는 서해안 방어를 강화하였다.[42]

특히 공산군 측은 이러한 전략적 기조하에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과 휴전 후 군사적으로 유리한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해 하계공세를 단행하였다.

2) 중공군의 공세전략과 병력 운용

중공군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과 결정 하에 3월 말까지 제1·16·54군 예하의 제130사단과 개편된 제33사단 및 제138사단을 투입하고 1개 전차사단과 8개 포병연대 규모의 추가적인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시켜 대(對)상륙 및 대(對)공수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병행하여 중공군은 북한의 동서 해안지역 방어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대배치를 조정하였다.

또한 중공군은 서해안부대 연합지휘부와 동해안부대 연합지휘부를 별도 구성하여

이들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5개의 철도 공병사단과 5,000명의 철도 요원을 투입하여 철도의 건설과 수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43] 이들은 4월말까지 4개월 동안 연인원 6천만 명(일일 50만 명)을 동원하여 양쪽 해안에 종심 10km에 달하는 2중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정면 전선과 해안의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에 앞서 이미 2월말까지 탄약과 식량비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식량은 120일분을 확보하였다.[44]

공산군 측이 북한 해안지역에 대한 대상륙작전 준비를 완료한 1953년 4월 그들의 총병력은 180만 명에 이르렀다. 그 중 중공군이 20개군(북한군 군단에 해당)에 135만 명이었고, 북한군이 6개 군단에 45만 명에 달하였다. 1953년 공산군의 병력과 화력은 크게 증강되었으며, 진지는 견고하게 강화되었고, 군수물자도 충분히 보유하게 됨으로써 사기 또한 높았다. 다만 새로이 투입된 7개군(제1·16·21·23·24·46·54군) 및 1개 사단(제33사단)은 견고한 진지에 대한 공격작전 수행능력에서 다소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45]

공산군은 이처럼 전력이 강화되자 전방의 방어진지부터 제2전선에 이르기까지 진지공사가 완성된 3월 하순부터 4월까지 전 전선에 걸쳐 유엔군의 중대급 이하 소규모 목표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격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46]

공산군은 이러한 탐색전이 끝난 5월에는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공산군은 5월 5일 다음과 같이 하계공세(전역적 반격작전)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산군의 '전역' 목적은 "적군[유엔군]을 섬멸하고, 부대를 단련시키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판문점의 휴전회담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현 방어선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공산군은 유엔군의 배치상태에 따라 서부전선에서는 미군, 동부전선에서는 국군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47]

공산군의 하계공세 작전은 통일과 분산이 상호 결합된 방법을 채택하고,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단계별 작전기간은 10일이었고, 휴식기간은 5일로 정하였다. 공세 시기는 6월 초에 시작하여 7월 상순에 종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작전준비는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48]

3) 공산군의 작전지도

중공군은 1953년 3월부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2월에는 전력증강과 진지공사에 주력하다가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자, 작전에 양호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유엔군 전초, 특히 서부전선의 유엔군 전초진지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집중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의 전초진지 공격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월의 공격이 공세이전의 신호로서 유엔군에 대한 전력탐색에 목적에 있었다면, 5월의 공격은 바로 그들의 하계공세계획 제1단계 작전에 해당되었다. 제1단계 작전은 차후에 있을 제2·3단계 작전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중공군이 실시한 3월의 탐색전이 주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에서 벌어진 반면, 5월의 공격은 중부와 중동부전선 미 제9군단, 국군 제2군단, 미 제10군단에 지향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공군이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국군 제2군단이 방어를 맡고 있는 김화(金化)와 화천(華川) 북방의 금성돌출부 지역이었다.

이렇듯 공산군은 최초 탐색전 수준의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한 후, 점차 전력이 완비되는 5월부터는 휴전회담장에서의 유리한 여건조성과 전후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공세적인 작전을 지도해 나갔다.

4) 중공군의 하계공세 목표와 공세 실시

중공군은 하계공세에 앞서 사전 철저한 준비를 갖추었다. 먼저 중공군은 유엔군의 소대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56개의 목표를 선정하고, 이들 목표에 대한 정찰과 포로를 통해 유엔군의 병력 및 화력배치, 진지구축 상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투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공군은 공격목표의 200m 전방에 갱도형으로 만든 돌격출발진지, 즉 병사들이 공격대기지점으로 사용될 둔병동(屯兵洞)을 비밀리에 구축하였다. 또 은폐된 지형에는 잠복구(潛伏區), 즉 잠복호를 구축하는 등 공격에 대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였다.[49]

중공군사령관은 공세준비를 진행 중이던 5월 11일에 최초 계획일정을 조정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유엔군의 중대급 진지에 대한 공격을 즉각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당시 막바지에 이른 포로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예정된 전역기도(戰役企圖)를 은폐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산군의 하계공세는 계획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즉, 중공군의 하계공세는 1953년 5월 13일에 시작되어 7월 27일까지 76일 동안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공군 공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규모가 증가되었고 전투도 더욱 치열해졌다.

중공군은 이 공세에서 북한군과 연합하여 최대한의 전투력을 투입하였다. 공세기간 중 중공군은 주로 금성-화천 축선의 국군 제2군단의 방어정면인 금성돌출부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하였고, 북한군은 인접지역의 유엔군에 지향하였다. 다음 표는 이러한 중공군의 공세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 중공군의 최후공세 3단계[50]

단계	기 간	투입부대	주공 지향방향	비고
1단계 (1차공세)	1953.5.13.~5.26	• 제23·24·60·67군	금성돌출부 전초진지	전초전
2단계 (2차공세)	1953.5.27.~6.23	• 제1·23·24·46·60·67군 • 북한군	금성돌출부 우견부	6월공세
3단계 (3차공세)	1953.6.24.~7.27	• 제1·16·21·23·24·46·54·60·68군 • 북한군	금성돌출부 전지역	7월공세

중공군 하계공세는 여러 가지 명칭을 지니고 있다. 전쟁기간 마지막 공세라는 점에서 최후공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금성돌출부 지역에 대한 공세라는 점에서 금성돌출부전투 또는 금성전투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강력한 공세였던 제3차 공세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7·13공세 및 7·13전투'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공격 개시일인 7월 13일을 기준으로 한데서 비롯되었다. 중공군은 이 공세를 통해 금성지역의 일부 돌출부 지역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해 그당시 이 지역의 방어책임을 맡고 있었던 제2군단장 정일권 중장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의 붉은 광란(狂亂)을 금성 남쪽 6마일선에서 막아내었다."며 아쉬움을 남겼다.[51] 제2군단에 집중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정일권 장군도 어쩔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공산군 측의 편성과 전력증강 노력

1953년 4월 기준으로 공산군의 전력은 5개 병단에 26개군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서해안사령부(6개군)와 동해안사령부(2개군),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3개 병단(제9·19·20병단) 예하의 10개군, 예비대(2개군)로 편성되었고, 북한군은 6개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그 중 중공군 사단은 보병·포병·대전차포·로켓포 사단과 철도사단 등으로 이루어진 92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52]

이 무렵 북한지역에 전개된 공산군의 병력만 113만 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중공군이 83만 6,000명이고, 북한군이 29만 4,000명이었다. 또한 압록강 건너 만주에는 전략예비 개념의 중공군 22만 5,000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 예비전력까지 합치면 공산군의 병력은 무려 135만 5,000명에 달하였다.[53]

이외에도 중국 본토와 티베트에도 중공군 133만 1,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여기에 중국의 군사동맹국인 극동지역에 소련지상군 42만 7,000명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54] 이들 전력까지 포함하면 공산군의 전력은 3백만 명을 상회하였다.

공산군은 이들 전력을 제1선(전방), 제2선(후방), 전략예비로 구분하여 운용하였다. 제1선에는 중공군 3개 병단 10개군과 포병 2개 사단, 북한군 3개 군단 등 총 13개 군단을 배치하여 전방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제2선에는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서해안사령부와 동해안사령부를 각각 편성한 후, 서해안지역에는 중공군 6개 군단과 북한군 1개 군단 등 7개 군단을 배치하였고, 동해안지역에는 중공군 2개 군단과 북한군 2개 군단 등 4개 군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략예비로 중공군 2개

군단과 철도병 1개 사단을 후방에 배치하였다.[55]

이처럼 공산군의 지상군 전력은 중공군의 주력으로서 막강하였다. 중공군은 이들 전력을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에 배치하여 주로 미군과 대치하였고, 북한군은 동부지역에 배치하여 주로 국군과 대치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은 만주에 항공기 약 1,46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제트전투기 1,000대와 제트폭격기 1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밖에 중국 본토에도 900대의 항공기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당시 소련의 극동공군은 약 5,6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극동지역에 배치된 소련의 항공기는 제트전투기 1,700대, 제트 경폭격기 320대, 재래식 중폭격기 220대가 있었다.[56]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해군전력은 유엔군과 비해 절대 열세했다. 중국과 북한은 총 130척의 정찰정과 소형 주정만을 보유하고 있었다.[57] 극동지역의 소련 해군은 중순양함 2척, 구축함 51척, 잠수함 100척 등 전함 400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기간 중 한국 해역에 투입하지는 않았다.[58]

이렇듯 공산군의 전력은 유엔군의 전력과 비교할 때 지상병력과 공군전력이 수적으로 많았으나, 미군의 화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군의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해군전력에는 비할 바가 못되었다.

제 3 절 유엔군과 미국의 전쟁지도

1. 유엔 및 미국 전쟁지도부와 전쟁수행체계

6·25전쟁 3년째를 맞이한 1953년에 유엔과 미국의 전쟁지도부에는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유엔사무총장이 교체되었고, 미국 정부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유엔사무총장에는 전쟁 첫 소식을 보고받고 이를 유엔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트리그브 리(Trygve Lie)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고, 함마슐드(Dag Hammmarskjold)가 새로 유엔사무총장에 피선되었다. 그는 전임 트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1953년 4월 10일, 제2대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하였다.

초대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

제2대 유엔사무총장 함마슐드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군의 주요 직위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교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원수가 1953년 1월 20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부통령에는 정전협정 조인 후 한국을 방문하였고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주창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전(前) 상원의원이 취임하였다.

국무부장관에는 존 덜레스(John F. Dulles), 국방부장관에는 찰스 윌슨(Charles E. Wilson), 육군부장관에는 로저 키이스(Roger M. Keys), 해군부장관에는 로버트 앤더슨(Robert B. Anderson), 공군부장관에는 해롤드 탈보트(Harold E. Talbott)가 임명되었다.[59] 이로써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이 출범하였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좌관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그 옆이 국방장관 윌슨(Wilson)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은 여전히 1947년 창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수행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부통령,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재무부장관, 국가안보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정보국장과 합동참모의장은 고문 겸 옵서버로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6·25전쟁 중 육·해·공군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도 사안에 따라 옵서버로 참가하여 자군(自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에 관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책을 건의하여 결심을 받았다.[60]

합동참모회의 의장에는 브래들리(Omar N. Bradley) 육군원수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며 전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참의장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8월에 태평양사령관으로 있던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제독으로 교체되었다. 합동참모회의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장관이 내린 전략지침과 명령을 해당 전구의 통합군사령관에게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

하였다.[61]

또한 합참의장 브래들리 원수는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장관과의 전략적 회의에서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군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인 각 군 참모총장들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보좌하며 자군의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수행하였다.[62]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인 육군참모총장에는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대장, 해군참모총장에는 페치텔러(William M. Fechteler) 해군대장, 공군참모총장에는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대장이 여전히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63]

한국상황을 논의하는 미국의 브래들리 합참의장(왼쪽 두 번째)과 각 군 참모총장

유엔군사령관에는 1952년 5월에 교체된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육군대장이 여전히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야전군사령관으로는 유일하게 임기가 만료된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육군대장의 후임으로 1953년 2월 11일부로 맥스웰 테일러(Maxwell D. Taylor) 육군중장이 부임하였다. 테일러 장군은 육군 작전참모부장으로 있다가 미 제8군사령관에 취임하였다.[64]

미 합참의장에 임명된 래드포드 제독(1953.8)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미 육군대장

신임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육군중장이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전역(戰區)에 대한 작전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유엔군사령부 및 미 극동군사령부는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략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유엔군사령부와 극동군사령부가 작전수행 간 순수한 작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이 검토를 한 후에 이를 합동참모회의에 넘겨 처리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인 문제를 벗어날 경우에는 관련 행정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참모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를 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였다.[65]

경우에 따라 미국의 전쟁정책은 유엔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유엔의 전쟁지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쟁수행체계는 전쟁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서 작전수행 결과를 2주단위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문서로 보고하였다.

2. 미국의 전쟁방침과 휴전협상 전략

1) 미국의 전쟁방침과 군사목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을 때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지침은 1951년 12월에 승인된 미 국가안전보장문서 NSC118/2이었는데, 이것은 1년 이상이나 경과된 것이었다. 작성당시와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쟁지침은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였다.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의 변화에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휴전회담, 공산군의 군사력 증강, 핵무기 사용 가능성, 미국의 여론과 유엔참전국의 태도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66]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토대로 1953년 초 미국의 한국에서의 전쟁방침과 군사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첫째, 극동에서의 군사목표는 미군부대의 전체적인 안전과 더불어 일본, 필리핀,

대만 및 류큐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미군부대를 극동에 추가로 전개시키는 것은 미국의 긴급전쟁계획의 실시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 상황의 악화로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한국전에 소련이 개입하지 않음에도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67]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기초로 1953년 3월 27일 한국에서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추구해야 될 6가지 방책을 수립하여 윌슨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공세적인 해·공군작전을 계속하여 현재의 지상방어선 부근에서 무기한 방어태세를 유지한다. 그동안에 한국군이 더 많은 방어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지상 작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세적인 해·공군작전을 계속한다.
셋째, 중국과 만주에 대해 단계별로 압력을 증가함으로써 군사작전을 확대 강화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의 템포와 규모도 강화한다.
넷째, 중국과 만주에 대한 군사작전을 한국에서의 강화되는 단계별 군사작전에 부합되게 확대 강화한다.
다섯째, 자유중국군을 한국과 관련된 군사작전에 협조되도록 중국작전에 운용한다.
여섯째, 공산군에게 최대의 손실을 가하고 적의 보급품을 고갈시키기 위해 공세적인 해·공군작전을 실시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협조된 지상작전으로 한반도의 허리부분에 방어선을 설치하기 위한 주요 공세를 계획한다.[68]

미 합동참모본부의 이들 방책은 국가안보회의 문서 NSC-147의 주요 내용으로 발전되었다.[69] NSC-147에 나타난 방책의 주요 핵심은 한국군을 증강하고, 공산군이 휴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허리부분에 방어선을 설치하기 위한 공세를 취하고, 전쟁이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군사적 압력을 만주와 중국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일된 한국을 위해 한국에서 대규모 공세와 함께 만주와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70]

2) 미국의 휴전협상 실패에 대한 대비책

미국은 휴전협상 실패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미국의 NSC-147에 포함된 방책은 1953년 4월 판문점 회담의 재개로 인해 적용될 수 없었다. 이에 윌슨 국방장관은 휴전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합참에 지시하였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1953년 5월 3일 국방장관에게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필연적으로 극동에서 미국의 입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협상 결렬 시 적에 대한 공세작전을 수행할 가용부대를 열거하였다. 이들 부대로는 1개 육군사단(제82공정사단), 1개 해병사단, 1개 해병상륙군사령부, 2개의 중폭격비행단, 2개의 수송비행단, 1개 전투폭격비행단, 3개의 요격전투비행대대였다. 이들 부대는 195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이동할 계획이었다.[71] 그러나 이들 부대가 이동할 경우 다른 지역의 공세작전 능력이 감소될 것이고,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72]

또한 미 합참에서는 대규모의 군사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운용의 필요성도 검토하였다. 특히 전쟁을 확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전쟁이 확대되면 중국과 장기간의 대규모 전쟁을 해야 하고, 아시아에서 소련과의 전쟁에 말려들어 세계전쟁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뿐 아니라 북대서양지역의 동맹국을 잃을 것이며, 게다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73]

이렇듯 미 합참이 휴전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립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중국과 만주에 대한 직접적인 해·공군 작전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군사작전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74]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서 정예의 공산군을 괴멸시키고, 한국이나 극동에서 또 다른 침략을 위한 적의 능력을 감소시키며, 미국이나 유엔이 제시하는 조건하에 적이 휴전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75]

또 필요할 경우 미 합참은 “핵무기의 운용을 포함하여 가능성 있는 모든 작전

들을 동원하되, 해상봉쇄와 지상공세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면서 상황을 보아가며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도 수립하였다.[76]

미 합참의 이러한 방침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계획 8-52'의 수정과 핵무기에 대한 사용 검토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은 유엔군사령관, 태평양사령관, 전략공군사령관에게 하달되었다. 특히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는 '작전계획 8-52'를 수정함에 있어 이들 사령관과 협조하라는 지시도 함께 하달하였다.[77]

3) 미국의 한국휴전 반대에 대한 대비책

유엔군사령부에서는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군을 유엔군에서 철수시키고 국군 단독작전을 실시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에버레디(EVER READY)'라는 상시대비계획을 수립하였다.[78]

에버레디 작전은 1953년 5월 22일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에 의해 수립되어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의 동의를 얻어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었다. 이 작전은 상당수의 한국군이 적대행위를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강경한 조치를 담고 있었다.[79] 에버레디 작전계획은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있었다.

첫째, 국군이 유엔군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둘째, 국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셋째, 극단적인 경우로 한국군과 한국 국민이 유엔군에게 공공연한 적대행위를 할 경우[80]

1953년 5월 2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2개의 안을 내놓았다. 첫째 안은 유엔군사령관은 가능하다면 한국군을 이용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측근을 감금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충분한 협조와 만족스러운 보장을

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81]

이것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이승만을 제거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휴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순조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미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는 1953년 5월 30일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이승만 제거계획’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은 채 미국은 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만을 시도하게 되었다.[82] 미국은 ‘이승만 제거’가 자칫 미국인뿐만 아니라 자유우방세계의 반발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대한 대의명분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포기하게 되었다.[83]

결국 미국은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의 확대를 계획했지만 제한된 전쟁목표의 틀 속에서 전쟁지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 휴전에 임하게 되었다.

다만 휴전조인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시작된 1953년 6월 중공군의 공세에 따라 클라크 장군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과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6월 24일 한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 인해 일본에는 미 제1기병사단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중공군의 7월 10일 공세로 클라크 장군은 제1기병사단의 투입을 고려할 정도로 전선 상황은 심각하였다. 미 합참은 미 제1기병사단의 한국전선 투입을 고려하여 본토에 있던 미 제3해병사단과 1개 해병항공단에게 극동으로 출동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84]

미국이 본토의 병력증원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을 때 한국전선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은 1953년 7월 중순 중부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의 공세는 7월 19일에 이르러 전열을 가다듬은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그 기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작전이 없는 가운데 정전을 맞게 되었다.

3. 미국의 전략검토와 전략지시

1) 미국의 전략검토 배경과 전략지침

1953년에 접어들자 유엔군사령관은 기존의 제한목표공격 전략에서 확전전략으로의 전환과 항공압박작전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는 제한목표공격 전략이 공산측을 휴전협상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확전전략은 1953년 1월 20일에 출범한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가 기존의 대한 군사정책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의 모색과 결부되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의 기존의 대한(對韓)정책은 1951년 12월 20일에 채택된 NSC118/2이었다. 이 정책은 "소련, 대만 또는 중공의 유엔 의석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의 전쟁을 해결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른 미국의 휴전조건은 "한국 정부가 38도선 이남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군은 북한군의 재침을 억제할 수 있도록 증강되어야 하며, 외국군의 점진적 철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휴전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미국은 확전가능성에 대비하고, 가용부대 범위 내에서 군사작전 규모를 증대하며, 북한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내 공군기지 폭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유보시켰고, 중국의 해상봉쇄에 대해서도 재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었다.[85]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38도선 북쪽의 현 접촉선에서 휴전을 추구하고, 실패 시에는 북한으로 북진작전을 전개하되, 만주나 중국으로의 확전을 재검토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그의 선거공약대로 명예로운 조기 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52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바 있었다. 한국에서 전선을 방문한 바 있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그만 고지에 대한 소규모 공격으로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계속적인 지상

작전은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방책의 선택과 적용을 요구하게 되었다.[86]

따라서 1953년 2월부터 미국은 새로운 대한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전쟁의 조기종결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공산군의 군사력 증강이 현저하게 이루어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을 놀라게 하였다. 클라크 장군은 1953년 2월 11일 전선의 위험증가에 대해 미 합참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은 테일러(Maxwell D. Taylor) 중장이 밴플리트 대장의 후임으로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날이었다. 클라크 장군은 중공군 지상군 1~3개군이 새로 한국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3월말까지 4개군을 새로 투입하였다.[87]

특히 만주기지에 공산군(중국 및 북한)의 공군전력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유엔군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공산군이 개성을 군사작전기지로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산군은 개성을 서부전선지역의 부대를 정리하고 재보급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대부대의 집결은 물론 포병기갑부대도 이곳에 주둔중이며 중공군 몇 개군의 지휘소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88]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적정의 변화로 이미 4개월 전에 수립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계획 8-52'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합동참모본부와 대응방책을 협의하였다. 이 계획은 확전조치를 통해 공산군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휴전조건에 응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선을 평양-원산선까지 추진한다.
둘째, 중국과 만주를 폭격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한다.
넷째,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제한사항 제거도 신중히 고려한다.[89]

또한 클라크 장군은 점차 증가하는 공산군의 위협에 관해 보고하면서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가용부대로써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 그리고 군수품을 완편(完編)상태로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군과 유엔군의 병력증원이 곤란한 점을 들어 '국군 20개 사단증편안'을 강력히 주장하여 4월 22일 이를 확정지었다.[90]

이는 현실적으로 공산군의 전력증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 후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특히 휴전이 되면 중장비 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군의 전력증강은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 1일에는 국군 제3군단이 재창설되고, 6월 18일에는 제26사단과 제27사단의 창설로 1953년 6월 25일까지 8개 사단이 추가로 창설됨으로써 국군은 3개 군단에 18개 사단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2) 미국 합참의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전략지시

유엔군사령부가 미 합참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모두가 휴전협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 미 합참은 유엔군사령부에 공산군의 공중전력 위협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만주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공산군의 공중공격 규모가 유엔군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이외의 공산군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 필요성이 제기될 때 건의하면 승인하겠다는 것이었다.

미 합참은 개성지역의 위협에 대해서는 공산군 측이 개성 제한지역에서 1개 사단 규모의 공세를 취할 경우 이를 안전협정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반격할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공산군 공군의 위협과 개성지역에 대한 유엔군 군사작전의 제한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거쳤다.

유엔군사령부가 공산군의 군사력 위협에 대한 대응방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아이젠하워 정부는 NSC118/2의 대안으로 검토해 온 한국에서의 전쟁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책으로 4월 2일 NSC147을 내놓았다.[91] NSC147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되었다. 이는 미국이 전쟁을 군사적으로 확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결정해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NSC147에서 제시된 대안은 1953년 3월 27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6개 방안 가운데 3개(A·B·C) 방안은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3개(D·E·F) 방안은 전쟁을 중국본토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92]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책 A : 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본질적으로 현행 수준으로 계속하면서 한국군을 증강한다.

방책 B : 지상작전의 확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해·공군작전을 계속한다.

방책 C : 협조된 지상작전을 전개하여 한반도의 허리부분(평양-원산)에 방어선을 설치하되, 이와 더불어 공세적 해·공군작전을 계속한다.

방책 D : 만주와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중공격과 해상봉쇄를 포함하여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이때 지상작전도 강화한다.

방책 E : 방책 D에 추가하여 한반도의 허리부분으로 지상작전을 전개한다.

방책 F :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공중공격을 포함하여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하여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구축한다.[93]

NSC147의 방책은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검토되다가, 5월 20일 합동참모본부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휴전협상이 실패할 경우 적용할 방책은 대안 D·E·F를 통합한 것이었다. 즉, 중국과 만주에 대한 직접적인 해공군작전과 한국의 허리부분에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한 협조된 공세작전을 통합하여 적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94]

첫째, 한국에서 정예의 공산군사력을 파괴한다.

둘째, 한국이나 극동에서 또 다른 침략을 위한 적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미국과 유엔의 조건으로 적이 휴전을 수락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넷째, 한국군이 작전에서 더 큰 책임을 맡도록 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 방책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계획 8-52의 부대소요 수정과 그 계획 중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검토가 요망되었다. 이에 따라 이 방책은 유엔군사령관·태평양사령관·전략공군사령관에게 통보되었고, 클라크 장군은 이들의 협조를 얻어 '작전계획 8-52'의 수정에 착수하였다.

3) 유엔군사령관의 핵무기운용계획과 압박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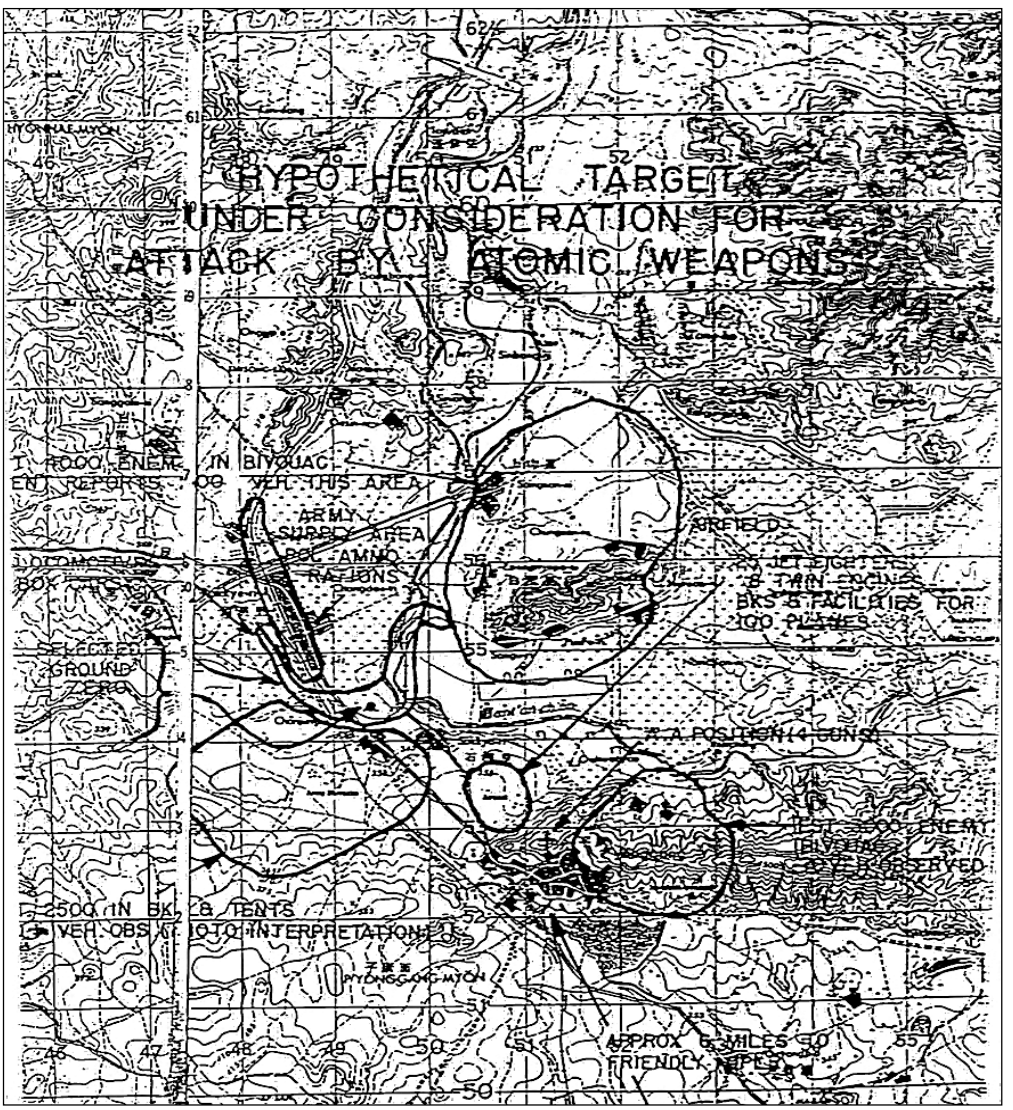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계획 8-52나 NSC147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초기인 1950년 7월부터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바 있었고, 중공군 개입 시에는 전술핵무기의 운용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가상타격훈련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95]

이는 1951년 9월 15일 극동군사령부의 '핵표적분석(Atomic Target Analysis)'이라는 극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극비문서에 의하면, 극동미군은 당시 피아의 접촉선 북방 10km의 평강지역을 핵표적의 하나로 선정하고, '가상 핵타격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이 확인되었다.[96]

당시 평강에는 공산군의 부대, 포진지, 유류 및 탄약보급소, 비행장 등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당시 유엔군의 중부전선(철원-김화) 방어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핵무기 운용문제가 검토되었다. 이는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을 계속 지연시키자 아이젠하워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무기 운용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1953년 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자신이 직접 개성에 대해 전술핵무기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공산군은 이곳이

중립지대란 점을 악용하여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클라크 장군은 이곳에 공산군의 부대와 물자가 "가득 찼다.(Chock full of troops and material)"고 평가할 정도였다.[97]



미극동군사령부가 전술핵무기 공격을 고려한 평강과 가상표적(평강 북서 2.5km 지점에 지상원점을 선정하고 40kt 핵무기로 이들을 타격할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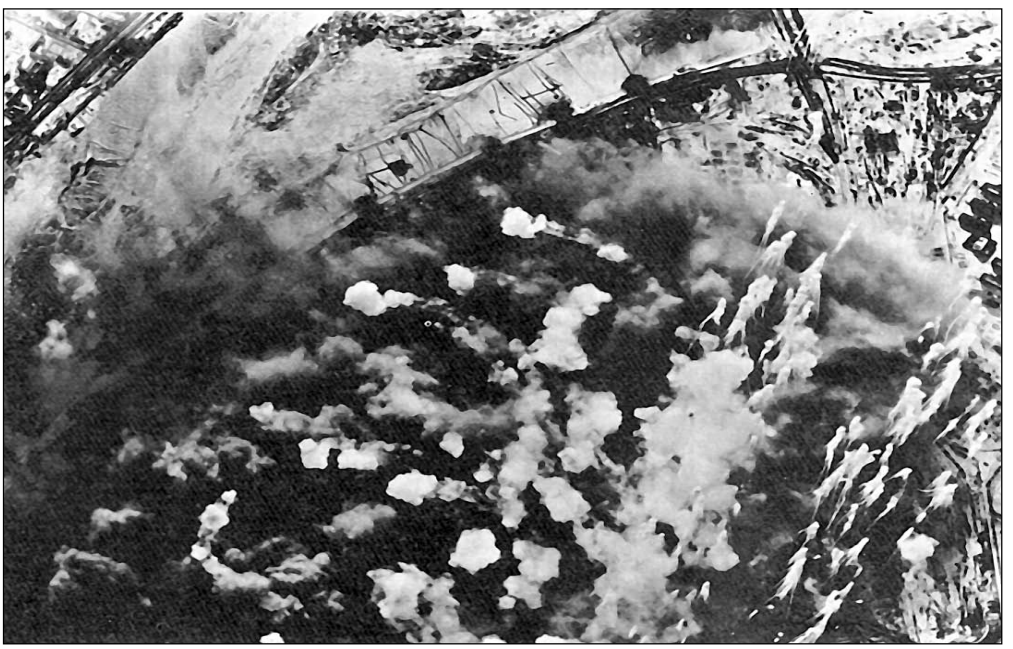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는 당시 개성지역을 발판으로 한 공산군의 공격은 서울 방어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핵무기 사용계획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위원회에서 1953년 3~4월 NSC147을 준비하는 동안 전쟁의 종결수단의 하나로 신중히 검토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판문점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에게 전해지도록 하였다.[98]

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NSC 147과 관련된 회의내용도 언로보도를 통해 알려지도록 하였다. 그는 한국에서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극단의 수단(dire means)'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의 강력한 입장이 중국과 소련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였다. 결국 1953년 초 아이젠하워 정부의 핵무기 사용책략과 같은 때에 발생한 스탈린의 사망이라는 대사건은 한국에서의 전쟁을 확전으로 상승시키지 않고 휴전회담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었다.[99]

훗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보좌관 애담스(Sherman Adams)에게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가져온 것은 핵전쟁의 위협이었다."[100]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핵무기 전략이 휴전협상의 타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아이젠하워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 휴전회담은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빠진 채 진전이 없었고, 회담은 당시에 휴회 중이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교착되어 나로서는 이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측에서 어떤 결정적 조치(definite measures)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그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적에게 휴전협상에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며, 적대행위를 한반도에 국한시킬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떠한 세계적 신사협정에도 구속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인도와 대만해협 그리고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에 관한 메시지를 신중하게 흘렸다.
> 우리는 이것이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귀에 반드시 들어갔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곧 휴전협상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났다.[101]

유엔군 측은 휴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핵위협' 이외에도 항공압박(Air Pressure)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엔군의 항공압박작전에는 평양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제한을 두었던 북한지역의 저수지에 대한 폭파로 확대되었다.



북한 수도 평양을 폭격하는 미국의 B-29전략폭격기

유엔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공산군의 공군을 청천강 북쪽에 묶어놓고 항공압박작전을 실시하여 1953년 2월에 수풍발전소를 폭격하였고, 이어 5~6월에는 북한지역의 주요 저수지를 폭격하였다. 이는 북한의 농업경제를 황폐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유보해 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저수지의 폭파는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의 전의를 떨어드려 휴전조건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다.[102]

이에 따라 유엔 공군은 1953년 5월 15일부터 16일에는 자산(慈山)저수지를 폭파하여 그 물이 군우리-순천-평양 간의 3개 철교를 휩쓸게 됨으로써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어 5월 21일과 29일에는 권가저수지, 6월에는 구성과

덕상저수지를 폭격하였다. 공산군은 자산저수지 폭파로 심대한 수해를 입게 되자 저수지 물을 미리 방류하고 나섰다. 이로써 저수지 폭파는 커다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103]

하지만 수력발전소 파괴와 저수지 폭파 등 항공압박작전은 공산군에게 경제·군사·심리적 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핵위협과 함께 실시된 유엔군의 항공압박전략은 공산군을 굴복시키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4. 유엔군의 편성과 전력증강 노력

1953년 유엔군의 전력으로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작전지휘하에 국군 3개 군단에 18개 사단, 그리고 미군 3개 군단에 7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밖의 지상 전력으로는 영국군 2개 여단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등 15개국으로부터 파견된 대대 및 연대규모의 부대가 참전 중이었으며 이들의 전력은 1개 사단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의 4개국은 병원시설을 파견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엔비회원국이었던 이탈리아도 1951년 11월부터 병원시설을 파견하여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104]

유엔군의 지상병력으로는 국군이 433,000명, 미군이 256,000명(카투사 14,500명 포함), 그 밖의 유엔군이 34,000명으로 총 723,000명이었다.[105] 또한 일본에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대만의 자유중국군 375,000명이 유엔군의 가용예비 전력이었다.[106]

그 중에서 미 제1군단이 한강하구-김화, 미 제9군단이 김화(동측)-북한강, 미 제10군단이 북한강(동측)-소양강, 국군 제1군단이 소양강(동측)-동해안(간성) 지역 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의 지상군 전력은 병력면에서는 공산군이 유엔군에 비해 2:1로 우세하였으며, 화력 면에서는 유엔군이 그 이상으로 우세하였다.

유엔군의 해군전력은 막강하였다. 유엔해군은 항공모함 7척, 전함 1척, 순양함 4척, 구축함 51척, 호위함 9척, 잠수함 4척, 소해정 22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유엔 해군이 공산군 해군력에 비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엔군 해군은 미 제7함대를 주축으로 한국 함대를 포함하여 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타이·콜롬비아로부터 파견된 함정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북한 해군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서 해상작전 능력을 상실하였고 중국과 소련은 해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107]

공군력에 있어서도 유엔 공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제공권도 장악하고 있었다. 유엔 공군의 전력은 미 극동공군의 3개의 중폭격비행단, 6개의 전투폭격비행단, 4와 1/2개의 요격전투비행단, 1개의 전술정찰비행단, 4개의 수송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6개의 항공모함비행단, 5개의 해군정찰대대, 1개의 해병비행단, 그리고 유엔참전국가의 각종 항공기 53대가 있었다.[108]

유엔 공군은 미 극동공군을 주력으로 한국 비행단을 포함하여 영국(항공모함)·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타이·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로부터 파견된 공군부대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장비한 기종은 F-51, F-80, F-82, F-84, F-86, 그리고 B-26 및 B-29 등으로써 전투기로는 F-86이 가장 신형에 속하였다.[109]

제 4 절 한국 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

1. 한국의 전쟁지도부와 전쟁수행체계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의 전쟁지도부는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쟁전반에 대한 지도와 책임을 지고 있는 전시내각, 그리고 미국 및 유엔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을 협조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 편성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시외교를 비롯하여 전시의 국정을 총괄하며 지도해 나가고 있었다. 전쟁 전반을 수행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시내각은 전쟁 초기부터 전쟁수행 주무부서인 국방부·내무부·사회부·법무부가 주체가 되어 전시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전쟁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도 국군통수계통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대통령은 1952년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통령은 함태영(咸台永)이었다.

국방부장관은 신태영(申泰英) 장군이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1953년 6월 30일부로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해군참모총장에서 곧바로 제5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국방부차관은 1951년 6월 23일에 임명된 김일환(金一煥) 장군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정전 이후인 1953년 11월 8일까지 차관직을 유지하였다.[110]

육·해·공군 총참모장과 해병대사령관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육군총참모장은 1952년 7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백선엽(白善燁) 대장이었고, 공군총참모장도 1952년 12월에 임명된 최용덕(崔用德) 중장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전임 국방부장관 신태영
(1952.3.29～1953.6.30)

신임 국방부장관
손원일(1953.6.30～1956.5.26)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주요지휘관들이 반공포로석방 직전 경무대에서 찍은 모습(1953년 6월)

해병대사령관도 1949년 해병대창설당시 임명된 신현준(申鉉俊) 소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만 해군총참모장만 손원일 제독이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하면서 박옥규(朴沃圭) 중장이 새로운 해군총장에 임명되었다.[111]

한국의 전쟁지도부는 미국 및 유엔과 상호협조 체제하에 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물론 전쟁수행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하고 이러한 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였다. 군사작전에 있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유엔군에 의해 한반도 작전이 가시화되자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이후 한국군은 유엔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상대역은 주한 미국대사였으나, 군사적으로는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 파트너 역할을 하였다. 주한 미국대사는 외교정책에 관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주로 협의를 하였고,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8군사령관이 상대역이 되어 현안문제를 협의하거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중요한 현안 문제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미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육·해·공군장관 및 각 군 총참모장, 그리고 미 국무부 관료를 한국에 보내 협의해 나갔다.

순수한 작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군은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의 통제를 받고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지상군(육군·해병대)은 미 지상군사령부 격인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통제를, 그리고 공군은 미 제5공군사령관과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았다.

1953년 1월부터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유엔군사령관은 클라크 대장이었고, 미 제8군사령관은 밴플리트 대장과 테일러(Maxwell D. Taylor) 중장이었다. 테일러 중장은 1953년 2월 11일 부임하였다.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전쟁초기부터 있었던 조이(Charles Turner Joy) 중장에 이어 1952년 6월 4일 브리스코우(Robert P. Briscoe) 중장이었다.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1951년 6월 10일 취임한 웨이랜드(Otto P. Weyland) 중장이 계속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112] 한국군과 미군 및 유엔군 간의 이러한 전쟁수행체계는 전쟁기간 계속 유지되었다.

강원도 화천의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왼쪽부터 정일권 제2군단장,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육군 총참모장,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

한편 1951년 중공군 5월 공세 이후 유엔군지상군사령부 겸 미 제8군사령부의 한국 육군에 대한 작전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육군본부의 전방지휘소가 폐지됨에 따라 육군본부는 인사·군수·훈련 임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직접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반해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자 국군 수뇌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국군통수권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반대 속에 유엔군 측 한국 휴전회담 대표로 참석하게 된 장성들은 난처한 입장에서 휴전회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3년 유엔군 측 휴전회담 한국 대표는 최덕신(崔德新) 육군소장이었다.

2. 한국의 휴전 반대와 미국의 반응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과의 휴전협상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고 있을 때, 한국과의 관계는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최초 협상이 제기될 때부터 휴전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 무렵에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의 몇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모든 중공군을 철수한다.
둘째, 북한 공산군의 무장을 해제한다.
셋째, 어떠한 제3세력도 국제적 회의에서 북한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완전히 인정하고 보장한다.[113]

한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공개적인 성명은 판문점 휴전협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반대 데모와 대중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한국의 이러한 반대는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114], 1953년 4월 16일 워싱턴으로 주한 미국대사와 한국병참관구사령관에 의해 작성된 한국정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공동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휴전에 관한 한국의 분명하고 확고한 반대는 통일에 대한 강한 소망, 1950년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기억, 중·소의 힘과 정치적 압력에 대한 인식, 장차 북한의 재침시 미국의 원조가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이 대통령이 자체의 군사력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서 자신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예고성이 없고 결과에 대한 사전 적절한 고려 없이 기회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 때문에 위험하다.
상황은 절박하나 이 대통령은 미국이 전후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국 통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장한다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다.[115]

휴전반대 운동을 하며 청년들에게 무기를 달라고 외치는 한국 국민들

실제로 이 무렵 이승만 대통령은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휴전회담을 반대하며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며 결의를 다졌고, 국회도 4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의 결의를 지지하면서 '휴전반대 및 북진통일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16]

3일 후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중공군이 압록강 이남에 잔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동의한다면, 그는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는 또 "만일 싸워야 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싸울 것"이라고 하였다.[117]

4월 27일 유엔군사령관이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는 유엔군과 중공군의 동시 철군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소련이 침략할 경우 미국의

원조보장, 그리고 평화가 확보될 때까지 해상봉쇄와 공중방어의 계속, 국군의 증강 등 안전보장조치가 강구되어야 유엔군은 철수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118]

또한 5월 7일 포로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의 초점은 공산국가와 인도군이 남의 나라 땅에 주둔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유엔 대표단의 한국대표가 자체의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스위스가 송환위원회의 의장직을 가지고 모든 포로관리 부대를 관리하되 이들을 제주도에 국한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었다.[119]

이승만 대통령은 5월 8일 자신을 방문한 클라크 장군에게 "휴전을 반대하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며 포로관리를 위해 인도군이 한국 내에 입국한다면 내 명령으로 송환거부 포로들을 석방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120]

하지만 미국은 이 무렵 휴전을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클라크 장군은 브리그스(Ellis O. Briggs) 미국대사와 함께 5월 25일 아침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공산군에게 제안할 송환거부 포로에 관한 유엔군 측의 최종안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협정에 협력할 경우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설득하였다.[121]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클라크 장군과 회견한 뒤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밝혔다.

> 당신들은 모든 유엔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 우리는 싸워 달라고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의존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다.
> 나는 현재 정세 하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내가 협력하겠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122]

포로송환에 관한 유엔군 측의 최종안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심한 반발을 가져왔다.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1953년 5월 29일 "한국 정부는 육군과 경찰 병력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들 5개국 군대와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123]

또한 휴전회담 한국대표는 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한국대표의 휴전회담

참석 거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를 대변한 것으로 유엔군 측이 제시한 상기의 안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회의 참석을 거부한 한국군 대표는 한국 정부 및 군 지휘관들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서한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나는 항상 한국 국민이 생각하고 또 휴전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5월 25일의 제안 속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1. 일반문제에 대한 의견
   1) 유엔군 측이 양보한 중요 문제 중 첫 번째는 1953년 5월 13일 유엔군 측 제안에 의하여 송환을 거부하는 한국인 포로를 석방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2) 제2의 양보는 관리기간의 연장과 포로 문제를 정치회담과 유엔총회에 넘긴다는 점이다.
   3) 과반수 다수결원칙은 공산군 측에 유리하다.
2. 포로의 태도결정에 대한 의견
   4) 친(親)공산국가인 인도의 미지수의 군대가 소련의 위성국으로 볼 수 있는 체코, 폴란드 요원과 함께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와 치외법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5) 군대 이외에 150명 이상의 공산군 측 공작원이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 들어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6) 협정의 전 조항을 포로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타당한 것 같으나 젊은 포로들이 회유와 협박을 겸한 공산주의의 정치요원과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인지 예상할 수 없다.
3. 결론

   1953년 5월 25일자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은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의 강제송환 기도에 굴복한 것을 의미한다. 금번 신 제안 속에 한국 국민의 견해와 건의를 반영한 한 마디의 말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4. 건의

   1953년 6월 1일 이후 공산군 측에 제시될 신 제안을 작성할 것이며, 이 신제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미리 동맹국과 선의의 협의를 할 것. 다시 말하면 신제안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충분한 협의하에 작성할 것.[124]

이승만 대통령의 전선시찰, 백선엽 육군총참모장(오른쪽 첫 번째)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오른쪽 3번째)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계속 싸울 것임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휴전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휴전협정을 조인한다면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사태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유엔군 측 대표단은 한국대표에 의해 회담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보안조치를 강화하였다.[125]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국군이 유엔군으로부터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하여 세 가지 우발상황을 상정한 에버레디(Everready) 계획을 준비하였다. 1953년 5월 22일 클라크 장군이 워싱턴에 제출한 이 계획은 상황1(한국군이 유엔군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상황2(한국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상황3(극단적으로 한국군과 군중이 유엔군에게 공공연히 적대시할 경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126]

상황 1.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유엔군사령부 산하의 미군은 주요 도시 주변의 중요 지역과 시설을 방호하기 위하여 철수준비를 시작한다. 미 해공군은 경계태세로 돌입하고 전방지역에 대한 보급을 감소시키며 한국 정부와 군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증가시킨다.

상황 2.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개시할 때 :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부대의 철수를 단행하고 긴요하지 않은 시설을 폐쇄한다. 한국군 경비부대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대체시키며, 중요 시설과 통신소의 경비를 강화한다. 시민의 이동은 억제한다.

상황 3. 한국군과 군중들이 공공연히 유엔군에게 적대행위를 할 때 : 유엔군과 유엔군에 협조하는 한국군은 자위상의 위치로 철수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 세 가지 상황 중 어느 경우에나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즉, 유엔의 이름으로 계엄령 선포, 의견을 달리하는 한국의 군사 및 민간 지도자 체포, 한국에 대한 군정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미 합참은 클라크 장군의 군정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에 의해 중대한 위기가 조성된다면 부대의 보존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였다.[127]

유엔군 측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주관이 되어 송환거부포로문제를 다루기로 한 5월 25일의 유엔군 측 제안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에 '유엔군 측의 5·25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먼저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한 후에 유엔군과 공산군의 상호 철군을 요구하는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군의 새로운 제안은 본 정부에서 수락할 수 없으므로 대안을 제출한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동시에 한국에서 철군하는데, 이 안건을 실시하기 전에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첫째, 한반도를 어떤 나라 혹은 여러 나라에서 침략할 때는 미국이 한국과 즉시 자동적으로 공동방위한다.

둘째, 미국은 한국에 무기와 탄약과 병참물자를 충분히 보급, 방위능력을 향상시켜 미국 시민이 참전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셋째, 미 해·공군은 계속 주둔하여 공산군이 재침할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킨다.[128]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먼저 체결되는 조건 하에 한반도에서 공산군과 유엔군이 동시 철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원조, 공산군의 재침시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개입, 그리고 새로운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미 해군과 공군을 현재 주둔하고 있는 곳에 계속 잔류시킨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129]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날,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상호방위조약 교섭 용의와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전이 성립되어 수락된 후에는 미국은 필리핀·호주·뉴질랜드와 체결한 것과 같은 조약에 준하여 한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교섭을 할 용의가 있다.

둘째, 미국 정부는 미 의회의 예산 책정액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경제원조를 계속하여 중공업과 농업을 재건한다.

셋째, 미국은 유엔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 평화적 수단에 의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휴전 후에 실시할 정치회담의 개최 이전과 그 회의 중에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130]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 내용은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추구하되, 이를 정치 협상에서 중심 과제로 하며, 휴전결정과 수락직후에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의 조약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협상하고, 전후 경제 원조를 계속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131]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으나 휴전협정이 곧 성립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모종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클라크 장군에게 그 제안은 "너무 늦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후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이 한국 땅에 머물러 있는 다면 한국이 생존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였다.[132]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부터 반공포로 석방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남한 전역에 임시 비상경계령을 발령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관리들을 귀국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한국의 휴전회담 대표를 소환하여 휴전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133]

다음날인 6월 7일 유엔군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유해 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현재의 휴전조약을 결코 수락(受諾)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자살(自殺)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계속 싸울 것이다. 이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조치도 자유로이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134]

이승만 대통령과 대담을 마친 클라크 장군은 대담과정에서 나온 이승만 대통령의 완고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이승만 대통령은 중립국으로서든 기타 무엇으로든 인도군(印度軍)의 한국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이승만 대통령은 인도군이 한국 내에 있다는 것을 참느니 오히려 자기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유엔군사령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송환불원포로들을 석방해 버리겠다고 말했다.
> 이것이 그 다음에 닥쳐올 사태에 대한 최초의 적극적인 경고였다.[135]

공산군과 유엔군의 휴전회담 대표는 1953년 6월 8일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로송환협정에 조인하였다. 포로송환협정의 조인은 사실상의 휴전성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많은 피를 흘린 한국 정부의 의사가 배제되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휴전을 결사반대한 이유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격렬한 휴전반대운동이 벌어졌다. 전쟁발발 이후 일찍이 없었던 반미감정의 징후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반대 시위가 그 횟수나 규모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미국도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군증강계획의 중단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회유하려고 하였다.[136]

정전협정 조인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953년 6월 12일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유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 휴전 후의 정치회담에서의 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거절하면서 대신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자신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대신에 미국의 휴전 이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극동담당 차관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보내겠다고 하였다.[137]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국 대사에게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의 한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회신을 전달하였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다.

> 대통령 각하!
> 우리가 얼마나 난국에 직면하고 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인적 손실과 물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 장병과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 한국에서 유엔의 활동에 협조한 것은 오로지 우리의 친구 모두가 한국통일과 침략자 응징이란 동일한 목표에 움직인다는 하나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은 본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자들과 휴전협정에 조인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유엔군 측은 이러한 휴전협정 문제에 있어서 공산군 측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협정에 협력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협정이 한국의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변경시키는데 유화주의자가 주효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138]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시 분단될 상황에서 휴전 이후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 국가의 운명을 그대로 맡겨둔다는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살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휴전을 반대하며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후복구 그리고 한국군 증강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3. 국군의 편성과 전력 증강 노력

1953년 초 대한민국 육군은 육군본부 예하에 2개 군단, 12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군단으로는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있었다. 제1군단장은 이형근(李亨根) 중장이었고, 제2군단장은 유재흥(劉載興) 중장에서 정일권(丁一權) 중장으로 교체되었다. 사단으로는 수도사단을 비롯하여 제1·2·3·5·6·7·8·9·11·12·15사단이었다.

한국 정부는 중공군의 초기 공세를 저지한 1951년 4월부터 육군을 20개 사단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후 중공군 5월 공세로 인한 국군 제3군단의 붕괴와 해체로 인해 전투력 증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맥아더 후임으로 온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한국군 증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한국군의 적정 병력 수준을 25만 명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군 증강계획이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139] 리지웨이가 2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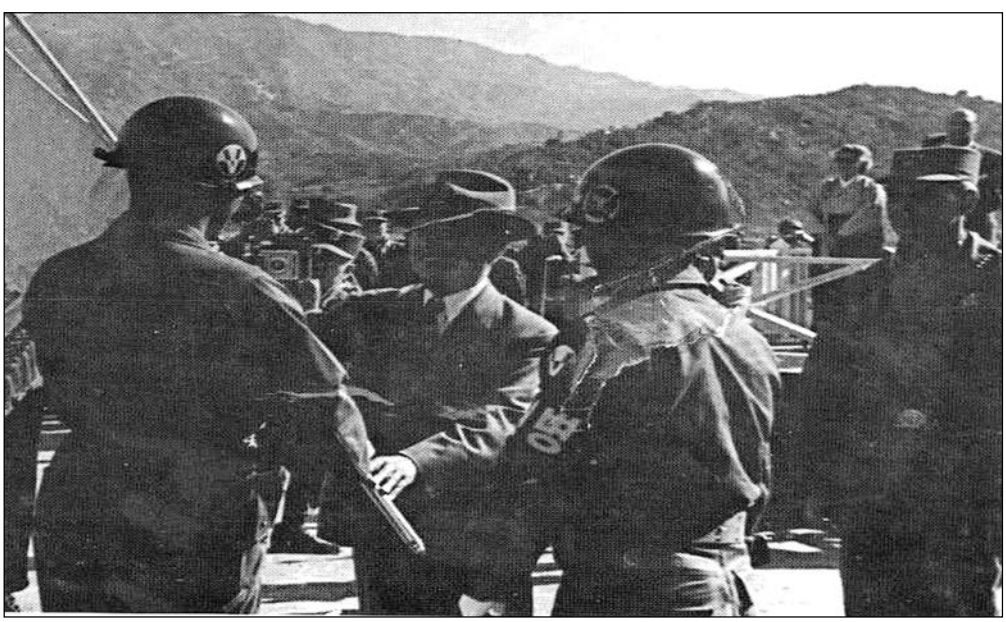
명을 주장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1950년 10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전후, "한국군은 25만 명에 10개 사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워싱턴에 건의한 바 있었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10개 사단만 보유하면, 전후 치안과 적의 침략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140]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 정부는 20개 사단을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자 휴전 이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육군의 증강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나 미 합참은 한국군의 증강에 대해 "현 10개 사단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면 공산군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141] 한국군 증강문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견해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1951년에는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제3군단 재창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1953.5.1)

한국육군 20개 사단 증강계획은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요청에 의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때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한 클라크 장군도 한국군 증강에 호의적으로 나섰다. 미 합참도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 좀 더 과감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작전지역과 목표 및 공격수단의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142]

한국군 증강계획에 따라 군단 창설도 이루어졌다. 정전협정 체결 이전인 1953년 5월 1일에 제3군단(군단장 소장 강문봉)을 다시 창설한데 이어 정전 이후에는 제5군단(군단장 소장 최영희)을 창설하였다.



창설식에서 제5군단장 최영희 장군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1953.10.1)

육군 사단들은 1953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창설에 들어가게 되었다. 1953년 2월 9일에 제20사단(사단장 준장 유흥수)과 제21사단(사단장 준장 민기식)을 창설하였고, 그 후 2개월 뒤인 1953년 4월 21일에는 제22사단(사단장 준장 박기병)과 제25사단(사단장 준장 문용채)을 다시 창설하였다.

이어 정전협정 조인 직전인 1953년 6월 18일에 제26사단(사단장 준장 이명제)과 제27사단(사단장 준장 이형석)을 창설함으로써 정전협정 조인 때까지 육군은 18개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연말인 1953년 11월 8일 제28사단(사단장 준장 이상철)과 제29사단(사단장 준장 최홍희)을 창설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던 20개 전투사단 창설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때 육군 병력은 55만 명에 달했다.[143]

한국 해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함정 구매와 미 군원장비의 인수를 통해 전력을 증강시켰다. 그 결과 휴전 무렵에는 각종 함정 50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 해군의 편성은 1950년 8월 16일 창설된 제1함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제부·경비부·진해공창·시설창·해군병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병력은 14,863명에 달했다.[144]

한국 공군은 전쟁을 통해 전력증강을 도모함으로써 휴전 무렵에는 1개 전투비행단과 1개의 훈련비행단을 주축으로 통신·기상·기지·특무전대 등 5개의 지원전대와 공군사관학교·항공병학교·기술학교 등 3개의 교육기관 및 항공수리창·중앙보급창·자동차수리창 등의 지원부대를 갖춘 근대적인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공군전력도 F-51 80대를 비롯하여 연락 및 연습기 30대 등 항공기 110대를 보유하게 되었다.[145]

이처럼 국군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후의 국방에 대비한 군비확장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육군이 3개 군단 18개 사단, 해군이 1개 함대, 해병대가 1개 전투단, 공군이 2개 비행단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총병력은 약 60만 명에 이르렀다. 장비면에서도 현대적인 중장비와 전투용 함정 및 전투기를 갖추게 되었다.[146]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공산군 측의 전쟁수행체계와 전쟁지도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은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부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까지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는 소련의 스탈린을 정점으로 그 밑에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포진한 형국이었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 및 김일성과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며 전쟁을 지도하였는데 그러한 전쟁수행체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물론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으나 스탈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마오쩌둥이 취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김일성과 펑더화이에게 통보하는 식의 전쟁지도를 구사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선에서의 군사상의 작전지휘는 여전히 1950년 12월에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가 주동이 되어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중연합사의 핵심에는 펑더화이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중연합사령부에는 펑더화이 사령관을 비롯하여 중국측 부사령관에 덩화, 북한측 부사령관에 최용건이 있었다.

북한의 전쟁지도부 및 군사지휘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부수상 겸 외상인 박헌영(朴憲永),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 총참모장 남일(南日), 전선사령관 김광협(金光俠)이 있었다.

공산군 측은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들어서자 전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산군 측의 판단으로는 “유엔군이 공산군의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구축한 견고한 전선정면 진지에 맞서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면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세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북한의 동서해안에 대한 상륙작전과 정면공격을 취할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공산군 측은 1951년 7월 휴전회담 이후 채택한 바 있는 지구작전 및 적극방어라는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면서 대(對)상륙작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함으로써 북한의 동서 해안지역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서해안부대 연합지휘부와 동해안부대 연합지휘부를 별도 구성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포로문제가 난항을 겪다가 4월 병상포로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휴전회담이 급진전을 보이게 되자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금성지역에서 북쪽으로 전선이 형성된 만곡부를 없애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여 금성천 이북지역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1953년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는 스탈린의 사망으로 휴전회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전선에서는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다가 휴전이 임박해지자, 휴전에 반대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한 한국을 '징계'한다는 명분과 전후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3일 김화-화천 일대의 금성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단행하였으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 유엔군 측의 전쟁수행체계와 전쟁지도

유엔군 측의 전쟁수행체계는 외형적으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미국 → 유엔군사령부 → 미 제8군사령부(한국군 포함)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전쟁목적 상 실질적인 전쟁수행체계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좌를 받는 가운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전략지시를 내려 전쟁을 지도하는 수행체계였다. 대신 유엔군사령부는 2주 간격으로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무부를 경유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군의 작전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점에서 유엔군의 전쟁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미국이었다. 이 시기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정점으로 덜레스 국무장관, 윌슨(Charles E. Wilson) 국방장관이 있었다. 합동참모의장은 브래들리 원수가 전쟁 발발 첫날부터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에는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대장, 해군참모총장에는 페치텔러(William M. Fechteler) 해군대장, 공군참모총장에는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대장이 각군 수뇌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전구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은 1952년 5월에 교체된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육군대장이었다. 주한유엔군지상군사령관 겸 미 제8군사령관으로는 1953년 2월 11일에 부임한 테일러(Maxwell D. Taylor) 장군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트루먼 정부의 한국에서의 전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것은 바로 명예로운 휴전정책이었다. 미국은 가급적 빨리 전쟁을 종결짓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고려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한국군을 증강하고, 공산군이 휴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허리부분에 방어선을 설치하기 위한 공세를 취하고, 전쟁이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군사력 압력을 만주와 중국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일된 한국을 위해 한국에서 대규모 공세와 함께 만주와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의 운용을 포함하여 가능성 있는 모든 작전들을 동원하되, 해상봉쇄와 지상공세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면서 상황을 보아가며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도 수립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휴전반대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군을 유엔군에서 철수시키고 국군 단독작전을 실시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에버레디(EVER READY)'라는 상시대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에버레디 작전계획은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있었다. 첫째, 국군이 유엔군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둘째, 국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셋째,

극단적인 경우로 한국군과 한국 국민이 유엔군에게 공공연한 적대행위를 할 경우이다. 하지만 이것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이승만을 제거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휴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해결되었다. 미국은 '이승만 제거'가 자칫 미국인뿐만 아니라 자유 우방세계의 반발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대한 대의명분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포기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전략목표는 공산군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휴전조건에 응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그들의 전쟁목표인 명예로운 휴전정책에 부합되는 군사전략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또 미국은 인명피해가 큰 대규모 지상작전을 회피하는 가운데 주로 우세한 공중전력을 이용한 항공압박전략을 주로 구사하였다. 미국의 항공압박전략의 대상은 이제까지 제한을 두었던 북한지역의 저수지와 수풍발전소가 목표에 포함되었다. 특히 저수지 공격은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전의를 떨어드려 휴전조건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다. 항공압박작전은 공산군에게 경제·군사·심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핵위협과 함께 실시된 유엔군의 항공압박전략은 공산군을 굴복시키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3. 한국의 전쟁지도부와 전쟁지도

1953년 한국 정부의 전쟁수행체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1952년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통령에는 함태영(咸台永)이었다. 국방부장관에는 육군총참모장 출신의 신태영(申泰英) 장군에

서 해군총참모장 출신의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휴전을 불과 1개월 앞둔 1953년 6월 30일에 임명되었다. 국방부차관에는 김일환(金一煥) 장군이 1951년 6월 23일부터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육·해·공군 총참모장과 해병대사령관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육군총참모장은 1952년 7월에 총장에 임명된 백선엽 대장이었고, 공군총참모장도 1952년 12월에 임명된 최용덕 중장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은 1949년 해병대 창설당시 임명된 신현준 소장이었다. 다만 해군총참모장만 손원일 제독에서 박옥규 제독으로 교체되었다.

한국의 전쟁지도부는 미국 및 유엔과 상호협조 체제하에서 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하지만 1953년 분위기는 휴전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와 미국의 갈등이 심하게 대립되었다. 특히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과의 휴전협상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고 있을 때, 한국과의 관계는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통일 없는 휴전'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후 휴전이 임박해오자 한국은 미국에게 전후 한국의 안전과 한국군 증강 그리고 경제원조 등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유엔군에서 한국군을 철수하여 단독북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고 하고,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였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디작전을 수립하는 등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렇듯 이 시기 한국 정부의 전쟁지도는 전선에서의 공산군이라는 외부의 적과 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최대우방국인 미국과의 힘겨루기 속에서 전쟁을 지도하는 형국이었다. 그 과정에서 결국 한국,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하여 한국군 증강과 경제원조 등을 확보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4. 전선상황과 양측의 전쟁지도 평가

1953년 초 휴전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치른 후 전선을 정비하는 한편,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는 포로문제의 조기타결을 서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영향력 행사, 휴전 이후 보다 유리한 방어선 확보, 그리고 정치·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의 전쟁종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공산군 측은 이런 맥락에서 1953년 3월까지 방어력의 강화와 공세역량의 축적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시작한 상병포로교환을 계기로 4월 26일 중단된 휴전회담이 6개월 만에 재개되었음에도 5월부터 하계공세, 즉 휴전 이전 최후의 공세로 부르는 대규모 공세를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유엔군 측은 협상을 통한 전쟁의 조기종결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군사작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1951년 7월 10일 시작된 휴전회담 이후 유엔군의 전략이었다. 그러다보니 유엔군은 자연히 수세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이 휴전회담을 지연하며 군사력을 줄곧 강화해 나가자 유엔군도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국군 20개 사단의 증강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만주폭격을 포함한 확전계획을 워싱턴에 건의하였다.

트루먼 행정부와 교체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안으로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압박전략을 신중히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엔군 측의 전략이 주효하여 전쟁발발 3주년을 맞아 제한전쟁이냐 확전이냐의 막바지 기로에서 공산군 측이 1953년 5월 25일에 '유엔군 측의 최종안'을 수용함으로써 포로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반공포로석방으로 한때 양측의 분위기가 경직되었으나,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 약속으로, 공산군은 마지막 공세를 전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후

양측은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렇다면 6·25전쟁을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전쟁지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 쪽은 누구일까? 공산군 측, 유엔군 측, 아니면 한국! 1953년 6월, 한국을 배제한 양측은 휴전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여기에는 스탈린의 사망도 한몫하였다. 휴전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웠음에도 '휴전'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만족해 하였다. 양측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에 대해 분노하고 분개하였으나, 휴전회담 자체를 단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한다는 교섭수단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행위, 즉 반공포로석방을 감행함으로써 전후 한국 안보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력증강, 그리고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휴전으로 승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양측보다 휴전을 반대함으로써 전후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주어진 상황에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한 장본인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집필 : 남정옥)

주(註)

1)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574쪽.
2)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p.408.
3)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08.
4)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08.
5)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08-409.
6)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08.
7)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09.
8)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09.
9)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pp.408-409; 양대현,『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형설출판사, 1993, 270-271쪽.
10)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574쪽.
11)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575쪽.
12)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12.
13) 대한민국 외무부 역,『소련 외교문서』제3권(미간행), 168쪽.
14) 대한민국 외무부 역,『소련 외교문서』제4권(미간행), 178쪽. 이 무렵 프랑스 정부도 전쟁초기 납북된 프랑스 시민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소련 정부에 요청하였다.
15)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12.
16)「북한 김일성이 몰로토프에게(1953.3.29.)」, 대한민국 외무부 역,『소련 외교문서』제4권, 180쪽.
17)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한국전란 1년지』, 1951, C5-C5쪽.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1989, 28-31쪽.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74쪽.
20)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1984, 572쪽.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75쪽.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76쪽.
23)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573쪽.
24)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 3년지』, A48쪽.
25)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 3년지』, 1953, A47쪽.
26)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 3년지』, A47쪽.
27)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 3년지』, A47쪽.
28)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 3년지』, A47쪽.
29)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395-396.
30) 터키군은 전사 151명, 부상자 239명, 실종 2명의 피해를 입었다.
31)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564-565쪽.
32)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567쪽.

33)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76.
34)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62-463.
35) 외무부 역,『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1-4권, 1994.
36) 대한민국 외무부 역,『소련 외교문서』제3권(미간행), 168쪽;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855-861쪽.
37)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576쪽.
38)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575쪽.
39)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855-861쪽.
4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中共軍의 韓國戰爭史 : 抗美援朝戰史』, 세경사, 1991, 348-353쪽.
4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64-268쪽.
4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64-268쪽.
4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68-269쪽.
4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70쪽.
4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74-275쪽.
4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72-273쪽.
4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75쪽.
4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75쪽.
4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78-279쪽.
5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抗美援朝戰爭史: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281-296쪽.
51) 정일권,『정일권 회고록: 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354쪽.
5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855-861쪽.
5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이하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로 통일)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202.
5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2.
5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855-861쪽.
5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2.
5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2.
5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2.
59) 남정옥,『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15쪽.
60) 남정옥,『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학술정보, 2010, 53쪽.
61) 남정옥,『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60쪽.

62)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3.
63)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321쪽.
64)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91.
65)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55-56.
6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1.
67) Appendix A to Memo, JCS to Secretary of Defense, "Further Courses of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Korea", 27 March, 1953.
68) Memo, JCS to Secretary of Defense, "Further Courses of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Korea", 27 March, 1953; JCS 1776/365, 23 March 1953, "Further Courses of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Korea", sec.125.
69) NSC-147, Analysis of Possible Courses of Action in Korea, *FRUS, 1952-1954*, vol.15, Part 2, pp.838-840.
7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4.
71) Schnabel and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1-1953,* vol.Ⅲ, Part Two, p.204).
72) Memo, JCS to Secretary of Defense, "Possible Actions 세 Impress Communists in Korea of U. N. Offensive Intentions in Event Armistice Negotiations Break Down", 4 May, 1953; JCS 1776/370.
73) Memo, JCS to Secretary of Defense, "Courses of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Korea," 19 May, 1953; JCS 1776/372.
74) Schnabel and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1-1953,* vol.Ⅲ, Part 2, p.207.
75) Schnabel and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1-1953,* vol.Ⅲ, Part 2, p.207.
76) Memo, JCS to Secretary of Defense, "Courses of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Korea", 19 May, 1953; JCS 1776/372.
77) JCS 1776/374, 9 June, 1953.
78) Memorandum for the Record, Prepared by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Department of the Army(Eddleman), *FRUS, 1952-1954*, vol.XV, Part 1, pp.1126-1129. 한편 미국은 1952년 6월 초에도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이승만 견제 내지 제거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였다(Clark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July 5 1952, *FRUS, 1952-1954*, vol.15, pp.377-379).
79) *FRUS, 1952-1954*, vol.15, pp.965-968.
80) JCS 1776/373, 5 June, 1953.
81) Memorandum of the Substance of Discussion at a Department of State-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FRUS, 1952-1954*, vol.15, pp.1114-1119.
82) *FRUS, 1952-1954*, vol.15, pp.1127-1128.
83) B. J. Bernstein, "The Pawn As Rook: The Struggle to End the Korean War",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January-February 1978, p.40.

84) Schnabel and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2, p.253.

85)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p.330-332.

86)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154.

8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p.194-195.

8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p.194-195.

8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192.

90)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40.

9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3.

9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p.206-207.

9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4;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332.

9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7.

95)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491쪽.

96) GHQ FEC, G-3, *Commander's Atomic Target Analysis*(1951, Sep 15).

97)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New York : Random House Inc., 1987), p.243.

98)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154.

99)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303.

100)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p.238.

101)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p.239; Dwight D.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New York :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3), p.181.

10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494쪽.

103) 합동참모본부,『韓國戰史』, 916-918쪽.

104)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1997, 5쪽.

10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3.

10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2.

10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2.

10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2.

10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8쪽.

11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사연표 1945-1990』, 1994, 749-756쪽.
111)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사연표 1945-1990』, 749-756쪽.
112)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428-437쪽.
11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9.
11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0;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4), p.262.
11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0.
116) 국방부 전편위, 『한국전쟁 휴전사』, 273-275쪽.
11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0.
11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0;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44.
11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1;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44.
12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0.
12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p.221-222.
12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2.
123) 『동아일보』, 1953년 5월 29일자.
124) 최덕신, 『내가 겪은 판문점』, 삼학문화사, 1955, 83-93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77-278쪽.
12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3.
12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3.
12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3.
12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C43쪽;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집문당, 2007, 1014쪽.
12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7.
13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8.

13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8; 온창일,『韓民族戰爭史』, 1014쪽.
13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8.
1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83쪽.
134) *FRUS, 1952-1954*, XV, Part 2, pp.1149-1151; Clark to JCS, June 7, 1953, RG218, CCS 383.21Korea(3-19-45), sec. 130, NA.
135)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264.
136)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p.284-285.
13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0;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50.
138)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 3년지』, C49쪽.
139) 국방부,『국방사』2, 1987, 335쪽.
14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211.
14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210-211.
142) 온창일,『韓民族戰爭史』, 997쪽.
143) 국방부,『국방사』2, 328쪽, 335-337쪽; 육군본부,『육군발전사』상, 1970, 404-417쪽; 육군본부,『육군발전사』제2권, 1970, 181-196, 260-264쪽.
144) 국방부,『국방사』2, 376-380쪽.
145) 국방부,『국방사』2, 386-388쪽.
146) 국방부,『국방사』2, 329쪽.

제 3 장 반공포로석방과 한미회담

제 1 절	휴전회담 재개와 휴전회담 대표
제 2 절	상병포로 교환과 포로교환 협정
제 3 절	반공포로석방 배경과 결과
제 4 절	한미회담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합의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휴전회담 재개와 휴전회담 대표

1. 휴전회담 재개

휴전회담은 포로송환문제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1952년 10월 8일 이후 중단되었다. 그러던 차 1953년 3월 5일 스탈린(Joseph Stalin)의 사망으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회담 재개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공산군 측이 먼저 유엔군 측에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공산군 측은 1953년 3월 30일, 연락장교단을 통해 스탈린 사망 이전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이 제의했던 '상병포로교환' 제의에 동의한다고 통보해 왔다. 유엔군사령관은 2월 22일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부상당한 포로에 대한 교환을 공산군 측에 제의한 바 있었다.

공산군 측은 부상당한 상병포로교환을 제의하면서 휴전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포로송환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공산군 측의 이러한 행동은 휴전회담을 다시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2년 10월 8일 이후 장기간 중단되었던 휴전회담이 1953년 4월 26일, 판문점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휴전회담이 중단된 지 실로 6개월 18일 만의 일이었다.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은 이전까지 주장해 왔던 포로들의 강제송환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 대한 중립국으로의 이송(移送)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산군 측의 이런 제안은 일견(一見), 유엔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공산군 측의 제안에 따르면 포로들이 중립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 중립국으로 넘어간 포로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될 경우 포로들을 중립국에 무기한 체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포로들을 마냥 중립국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는 공산군 측이 포로들을 중립국에 넘겨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공산군 측의 포로송환 제안에 복선(伏線)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한 유엔군 측 대표는, 이를 반대하면서 5월 25일 공산군 측에게 포로송환에 대해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유엔군 측이 제시한 안은 1952년 12월 3일 유엔에서 인도(印度) 대표가 제의한 바 있는 결의안 내용과 비슷하였다.

이때 유엔군 측이 제시한 내용은, "자유송환을 거부하는 모든 포로는 중립국으로 구성된 포로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도인(印度人)으로 한다. 그리고 60일 이후 모든 송환거부 포로들에게는 자유인으로서 민간인의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1] 이것이 바로 유엔군 측의 '5·25 제안'이었다.

이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5월 26일 양측 대표들의 실무자회의가 열렸고, 6월 4일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 안에 약간의 수정을 한 후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양측의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은, "포로송환 2개월 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설득기간을 거쳐 그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정치회의에서 30일간 토의한다.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환거부 포로들은 민간인 신분을 갖게 되며, 포로가 원한다면 인도 적십자사나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의하여 중립국으로 송환되어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었다."[2]

이로써 양측은 1953년 6월 8일, 휴전회담 제146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포로송환문제를 타결짓게 되었다. 이날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장군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南日)이 포로송환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휴전회담은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2.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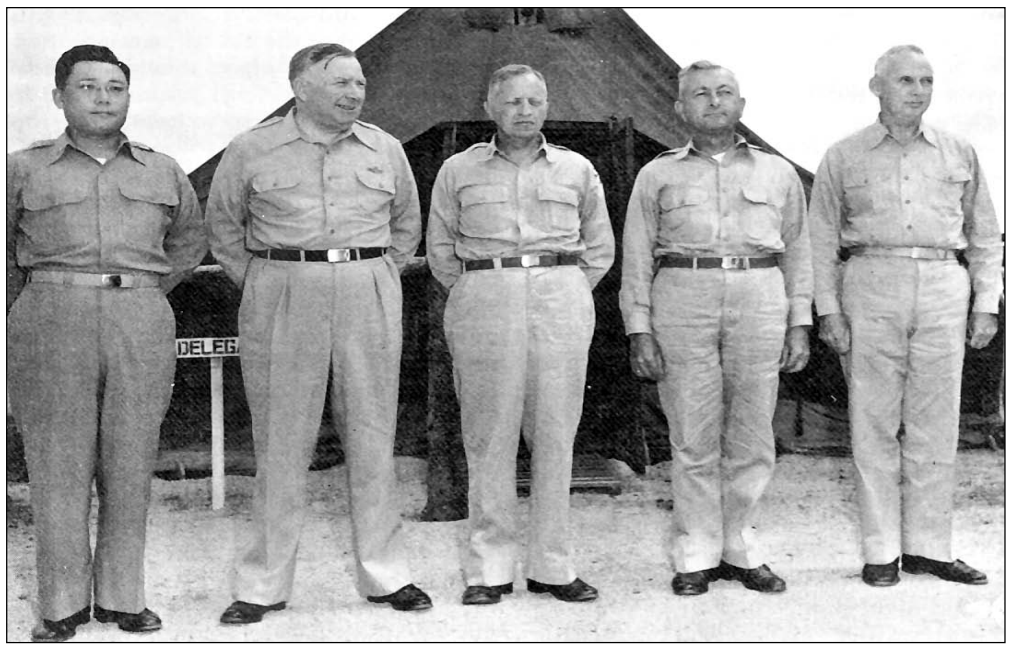
1953년 4월 26일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다시 열렸다. 휴전회담이 6개월간의 긴 공백기간을 갖는 동안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의 신상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다. 그것은 휴전회담 대표들의 교체였다.

유엔군 측에서는 1953년 4월 휴전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수석대표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회담 재개에 앞서 워싱턴에 수석대표 교체를 건의하였다. 그는 해리슨 수석대표 대신, 그 당시 유엔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J-1)으로 있던 브라이언 밀번(Bryan L. Milburn) 육군소장을 새로운 수석대표로 추천하였다. 클라크 장군은 해리슨 장군을 자신의 참모장으로 기용하기 위해 밀번 장군을 추천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힉키(Doyle O. Hickey) 장군이 곧 전역할 예정이어서 밀번 장군으로 교체할 생각이었다.

클라크 사령관의 입장에서 볼 때, 밀번 장군은 1951년 5월 이후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인사참모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로 판단하였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4월 15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협상이 시작된 중요한 단계에 비추어 해리슨 장군을 판문점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하면서, “밀번 장군은 본회의가 재개되면 앞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리슨 장군과 인계하기 위한 준비를 한 후 본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이로써 해리슨 장군이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3)]

이에 따라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로는 수석대표 해리슨 육군중장과 터너(Howard M. Turner) 미 공군소장만 그대로 유임되었고, 3명의 다른 대표는 교체되었다. 새로 교체된 유엔군 측 대표는 다음과 같다. 맥코넬(Frank C. McConnell) 육군준장과 모리스(Joseph T. Morris) 공군준장이었다.

한국 측 휴전회담 대표도 이한림(李翰林) 육군소장에서 최덕신(崔德新) 육군소장으로 교체되었다.[4)]



1952년 6월 이후 대표(왼쪽부터 이한림, 모리스, 해리슨, 맥코넬, 다니엘 제독)

1953년 4월 이후 대표(왼쪽부터 글렌, 다니엘, 해리슨, 최덕신, 오스번)

하지만 한국군 대표는 포로교환 문제에 관해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에게 제안한 내용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엔군 측 제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휴전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고문을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해리슨 중장에게 전달하고, 본 회담에 불참하였다.

<표 3-1> 유엔군측 휴전회담 대표(1953.4.26. 이후)

유 엔 군		공 산 군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중장	수석대표	남 일(南日) 대장
육군대표	오스번(Ralph M. Osborne) 준장	중국대표(1)	티엔자오유(田敎友) 소장
해군대표	다니엘(John C. Daniel) 소장	중국대표(2)	쯔청원(紫成文) 소장
공군대표	글렌(Edger E. Glenn) 준장 핀치(George M. Finch) 준장	북한대표(1)	이상조(李相朝) 소장
한국대표	최덕신(崔德新) 소장	북한대표(2)	장춘산(張春山) 소장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휴전회담 대표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는 1953년 6월 1일, 한국군 대표단을 대폭 보강할 것을 지시하였다. 수석대표 밑에 육·해·공군 대표를 두게 하였다. 이에 따라 수석대표 최덕신 육군소장 밑에 육군대표 이호(李澔) 준장, 해군대표 김일병(金一秉) 준장, 공군대표 김창규(金昌圭) 준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이들을 보좌할 연락장교에는 이수영(李壽榮) 육군대령이 임명되었다.[5]

공산군 측에서는 수석대표 남일(南日)과 북한 측 대표인 이상조(李相朝)만 그대로 유임되었다. 중공군 대표에는 다소 변동이 있었다. 비엔창우(邊昌武) 중장 대신에 티엔 쟈오유(田敎友) 소장이, 세팡(謝方) 소장 대신에 차이청원(柴成文) 소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북한군 대표에는 소희(蘇熙) 소장이 물러나고, 장춘산(張春山) 소장이 임명되었다.[6]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왼쪽부터 세팡, 덩화, 남일, 이상조, 장평산)

이처럼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이 교체되었지만 회담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이 잡고 있었다. 미국은 워싱턴의 지시를 받은 유엔군사령관이 수석대표를 통해 회담을 진행시켜 나갔다.

반면 공산군 측은 북한의 남일이 수석대표직을 맡고 있었으나, 그 배후에는 베이징(北京)에서 파견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리커농(李克農)이 있었다. 중국 외교의 막후 실력자인 리커농은 개성에 상주하며 마오쩌둥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때 한국은 여전히 휴전을 반대하며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제 2 절 상병포로 교환과 포로교환 협정

1. 상병포로 교환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은 1953년 2월 22일 상병포로의 즉각적인 교환을 제의하는 서한을 공산군 측에게 발송하였다. 이는 1949년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제109조에 의한 국제적십자(國際赤十字)의 결의내용을 고려하여 내린 조치였다. 제네바협약 제109조는 "충돌당사국은 부상당한 포로의 수(數) 또는 계급과 관계없이 그들이 귀환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한 후,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러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부상포로의 교환을 담은 서한을 공산군 측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클라크 사령관이 공산군 측에게 전달한 부상포로의 송환과 관련된 내용이다.

> 국제적십자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양측 교전국이 성의의 표시로서 제네바협약의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상병포로를 송환함으로써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의 인도적(人道的) 조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망한 바 있다.
>
> 귀하에게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휴전회담의 진행 중 유엔군 측은 처음부터 제네바협약의 인도적인 모든 조항을 진지하게 준수하여 왔다.
>
> 특히 억류되어 있는 상병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약 조항을 실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유엔군 측은 제네바협약 제109조에 의거하여 이송할 수 있는 중병(重病) 또는 중상(重傷) 포로를 즉시 송환할 용의가 있다.
>
> 본관은 귀측에 억류되어 있는 유엔군 상병포로의 송환을 즉시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

유엔군 측 연락장교는 교환조건의 공정한 검토와 제네바협약의 제109조에 의거한 상병포로의 상호 교환을 위한 필요한 협정을 하기 위해 귀측 연락장교와 회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7]

유엔군사령관의 상병포로교환에 대해 공산군 측은 한동안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스탈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공산군 측이 휴전협상에 변화를 보였다. 소련 정부가 클라크 장군의 상병포로교환 제의에 뒤늦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소련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게, "두 나라는 유엔군 측의 병상포로 교환 제의에 긍정적으로 회신할 것. 이때 중국은 정전협정을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중국 측의 성명에 대해 북한은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권고하였다.[8]

이에 공산군 측은 김일성(金日成)과 펑더화이(彭德懷)의 명의로 클라크 사령관에게 회신을 보냈다. 김일성과 펑더화이는 회신에서, "휴전협정 체결이전 또는 휴전회담재개 이전, 언제라도 상병포로들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상병포로교환에 관한 회신 내용이다.

귀측은 쌍방에 억류되어 있는 상병포로들에게 제네바협약의 조항을 적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측은 귀측과 같은 의미에서 전쟁 중 발생한 양측의 상병포로를 교환하자는 귀측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제안은 제네바협약 제109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상병포로의 교환이 전반적인 포로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 세계인민이 갈망하는 한국에서의 휴전이 달성되리라고 믿는다.

그럼으로 우리는 양측 휴전회담 대표자들이 즉시로 판문점에서 회담을 속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 측 연락장교는 회담재개 일자를 결정하기 위해 귀측 연락장교와 회합할 용의가 있다.[9]

이때 공산군 측은 상병포로에 대한 교환뿐만 아니라 휴전회담 재개까지도 제안하고 나왔다. 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周恩來)는 3월 30일, 베이징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정부를 대변하여 포로의 제한된 교환을 승인하며, 그것이 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10] 이때 저우언라이가 발표한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병포로 교환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은 전쟁포로 전체의 완만한 해결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럼으로 적대행위의 종결을 보장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전체 전쟁포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 대표단들은 적대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상병포로의 교환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전쟁포로문제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11]

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의 성명 속에는 공산군 측이 이전까지 주장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유엔군 측에 양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음날인 3월 31일 북한은 소련이 권고한 대로 중국의 성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유엔총회에서도 이날 휴전회담이 유엔의 목적에 따라 한국에서 휴전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도 공산군 측이 회담재개에 동의한 것은 포로문제에 대해 유엔군 측의 견해를 받아들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2]

이처럼 휴전회담 재개 논의가 활발해지던 1953년 3월 31일,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에 상병포로 교환과 판문점 휴전회담 재개를 제의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연락장교회의를 통해 공산군 측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다음은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 측에게 휴전회담 재개를 제의한 내용이다.

> 첫째, 1953년 2월 22일 본관의 서한에 회답한 3월 28일자 귀측의 서신에 만족을 표시한다. 육군 장성이나 해군 제독을 대표로 하는 연락장교단이 가능한 한 빨리 상병포로 송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정을 맺기 위하여 판문점에서 회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상병포로 교환이 포로문제의 가장 원활한 해결책이라는 귀측의 견해에 동의한다. 본관은 첫 단계로서 휴전회담의 본회담 속개를 위해 연락장교 회의를 지시할 것이다.

셋째, 본관은 모든 상병포로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유엔군 측이 제안한 연락장교회의 일정에 대한 귀측 결정을 조속히 통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13]

유엔군사령관의 회담재개 제의에 대해 소련 정부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소련 외상 몰로토프(Vyacheslav M. Molotov)는 1953년 4월 1일,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의 회담재개를 환영하고 나섰다. 몰로토프는 성명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에서 휴전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몰로토프 외상이 발표한 휴전회담 재개 관련 내용이다.

1953년 3월 28일자 상병포로 교환에 대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서한에 회답한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의 회신이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와 북한정부는 상병포로 교환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언명하였고, 모든 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전쟁을 종식시킬 협정에 도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소련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제안이 전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 실현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만약 중국과 북한정부의 대표들이 이에 포함된다면 유엔은 한국에서의 휴전에 대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14]

이로써 양측의 휴전회담 재개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보였다. 공산군 측은 연락장교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 4월 2일자 유엔군사령관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우리들은 귀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이며, 우리 측 연락장교단은 상병포로 교환을 사전에 타협하고, 휴전회담 재개일자를 결정하기 위해 1953년 4월 6일, 판문점에서 귀측 연락장교단과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15]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연락장교들이 드디어 4월 6일 판문점에서 회동하였다.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인 미국의 다니엘(John C. Daniel) 제독과 북한의 이상조(李相朝)가 연락장교들을 인솔하고 판문점으로 나왔다. 그들은 상병포로 교환을 위한 첫 번째 회합을 가졌다.[16]

이날 회합에서 다니엘 제독은 상병포로교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유엔군 측은 판문점에서 상병포로들을 보내고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교환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7일 내에 하루 500명의 포로들을 송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북한대표 이상조는 공산군 측이 제네바협약 제109조와 제110조[17]에 해당되는 모든 상병자들의 송환을 원한다고 발언하였다.[18]

첫날 회합에서 양측이 제시한 교환방법의 요지는 유엔군 측이 인원수에 따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반면,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락하면서 제네바협약 제110조의 내용을 덧붙여 국적별 교환을 제의하였다.

회의는 다음날 계속되었다. 유엔군 측은 교환 포로들의 국적과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교환할 것과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장교임명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4월 8일, 상병포로 교환 숫자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공산군 측 : 우리 측이 귀측에게 송환할 수 있는 상병포로의 수는 약 600명이며 그 중 약 450명은 한국인 상병포로이고, 약 150명은 비한국인 상병포로라는 것을 통고한다.

유엔군 측 : 귀측이 송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병포로의 수는 귀측이 말한 포로 총수(總數)에 비추어보아 불신할 정도로 적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송환 포로 수를 다시 고려할 것과 상병포로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군 측이 송환할 용의가 있는 약 700명의 중국인과 5,100명의 한국인 상병포로 총수를 귀하에게 제시하겠다.[19]

공산군 측은 항상 유엔군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제시하였다. 상병포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산군 측은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 12,000명 중 상병포로 600명을 유엔군 측에게 통보하였다. 이는 유엔군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다. 반면 유엔군 측은 공산군포로 132,000명 중 상병포로 5,800명을 공산군 측에게 통보하였다. 공산군 측은 이 숫자에 크게 만족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상병포로교환과 관련된 회담이 계속되었다. 양측 장교들은 4월 9일, 상병포로 송환원칙에 대한 종합토의를 마치고, 세부사항을 작성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송환기간 중 판문점 경비병의 숫자는 양측 모두 30명으로 하고, 유엔군 측은 지정된 노선을 통해 포로들을 5대의 차량으로 회담지역까지 이송하는 것이었다.[20]

협의를 마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4월 11일, 상병포로교환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로써 양측은 상병포로교환 송환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완료하게 되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병포로 송환은 본 협정 조인 후 10일 이내에 판문점에서 시작한다. 공산군 측은 1일 약 100명 정도의 상병포로를 송환하고, 유엔군 측은 25명을 단위로 하여 1일 약 500명 정도의 상병포로를 인도한다.
>
> 상병포로는 성명, 계급, 포로번호 또는 군번을 포함하여 국적별로 준비한 명부와 함께 인도한다.
>
> 송환기간 중 상병포로를 개성과 문산(汶山)으로 수송할 모든 철도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며, 판문점에 이르는 자유통로의 통과는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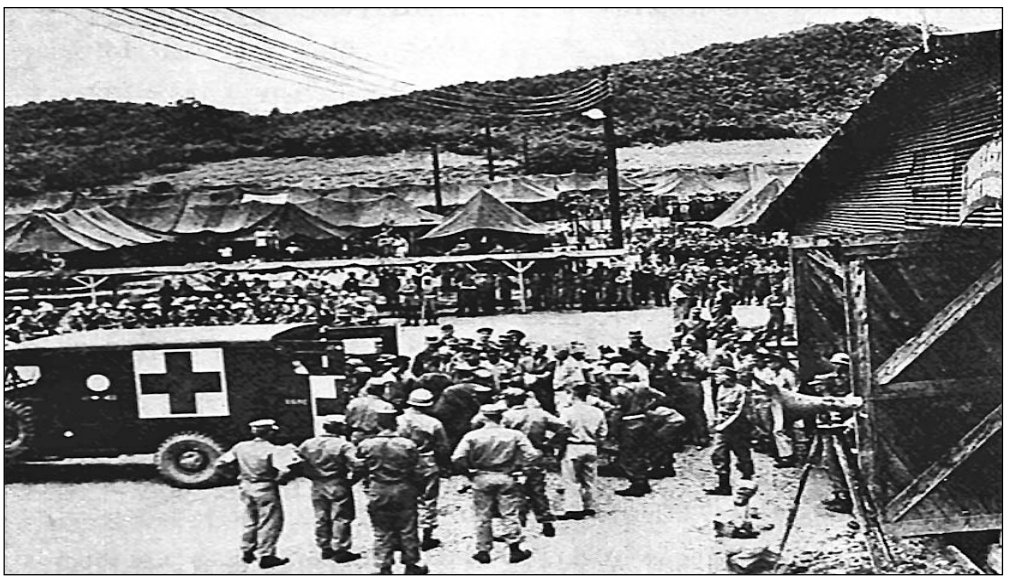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로 이름 붙인 상병포로 송환을 늦어도 4월 20일에 시작하여, 그로부터 20일 이내로 완료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공산군 상병포로들을 거제도와 제주도에서 판문점으로 이송하였다.

포로교환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1953.4.11)

한편, 유엔군 측은 상병포로 송환 대상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유엔군 포로를 송환해 오기 위해 공산군 상병포로를 550명 더 추가하겠다고 공산군 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4월 23일에 유엔군 측의 추가 송환에 최초 동의하겠다고 하였으나, 3일 후 태도를 바꾸어 더 이상 추가 송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병포로 송환은 이것으로 완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 3-2> 상병포로 송환 내역

유엔군 측	인원	공산군 측	인원
북한군	5,194	한국군	471
중공군	1,030	미 군	149
민간인 억류자	446	영국군	32
		기 타	32
계	6,670	계	684



병상포로 교환 장면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

미국의 윌슨 국방장관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더 이상 추가로 포로송환을 할 기색이 없는 것을 알고, 5월 3일 마지막 송환포로들에 대한 수송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던 북한군 포로 5,194명, 중공군 포로 1,030명 그리고 민간인 억류자 446명을 포함하여 총 6,670명을 공산군 측에게 넘겨주었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으로부터 유엔군 상병포로 684명을 넘겨받았다. 여기에는 한국인 포로 471명, 미국인 포로 149명, 영국인 포로 32명, 터키인 포로 15명, 콜롬비아인 포로 6명, 호주인 포로 5명, 캐나다인 포로 2명, 그리스인·남아프리카인·필리핀인 포로 각각 1명씩이었다.[22]

2. 포로교환 협정 체결

1953년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과 소련에서 국가원수가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1953년 1월 20일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그해 3월 5일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군 측도 휴전협상에 다소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공산군 측의 이러한 변화가 포로문제에 관한 진정한 양보의 표시인지 그 여부는 재개된 휴전회담의 성공에 달려 있는 문제였다. 유엔군 측은 상병포로 송환을 협상하면서 본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유엔군 측이 포로교환 협상에서 지금까지 고수해 온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과 그 위성 국가는 중립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엔군사령관은 스위스와 스웨덴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훈령을 문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포로는 한국에서 수용해야 하며,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송환불원포로)'를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고려할 수 없다.

셋째, 송환불원자(送還不願者)는 중립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간 수용한다. 유엔군 사령관은 수용기간 60일을 주장하였으나 90일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 송환불원자에게 강압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만일 송환불원자가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중립국은 그들을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
여섯째, 중립국은 포로 송환여부에 관해 최종 권한을 가진다.
일곱째, 송환불원자는 합의된 기간이 만료될 때에 중립국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석방한다.[23]

유엔군 측의 이러한 포로송환 원칙에 대해 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는 3월 30일, 이전의 강제송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휴전협상 당사자가 정전 후,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포로 중 즉시 송환을 원하는 자를 먼저 송환하고, 포로송환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나머지 포로를 중립국으로 이관하자."고 제안하였다.[24]

저우언라이의 제안은 다음날 북한 김일성의 동의를 얻었다. 공산군 측의 포로송환에 관한 입장은 4월 9일, 공산군 측의 수석대표 남일(南日)에 의해 유엔군 측에 전달되었다. 이로써 포로송환 협정에 가능성이 보이게 되었다. 다음은 남일이 유엔군 측에 전달한 포로송환 관련 내용이다.

우리는 명백히 포로송환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쪽이던 억류된 포로들의 본국송환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강압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우리와 중국 측은 유엔군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소위 강제송환 또는 폭력에 의한 송환이란 문제는 전혀 존재치 않으며,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주장에 반대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의거해서 협박과 압력에 짓눌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나머지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들을 어느 한 중립국으로 인도해 주고, 우리 측의 설명을 통해 점차 그 같은 우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제안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중립국의 의미, 포로들의 인수장소, 설득반의 범위, 송환불원자들의 최종 도착지에 대한 결정 등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였다.[26]

그런 연후 유엔군 측 수석대표는 4월 17일, 휴전회담 재개에 관한 유엔군 측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공산군 측에 전달하였다. 다음은 유엔군 측 수석대표가 공산군 측에 보낸 서한 내용이다.

첫째, 본관은 본회담 재개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협의를 위해 유엔군 측 연락장교단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둘째, 귀측이 유엔군 측 제안을 수락하거나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와 북한 수상 김일성의 성명서에 비추어 유엔군 측은 다음과 같은 협정이 포로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① 중립국은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취급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스위스와 같은 국가일 것.

② 직접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은 편의를 위해 중립국 관리하에 있는 한반도 내 수용소로 이관할 것.

③ 중립국은 그들의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6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한 후 평화적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할 것.

넷째, 유엔군 측은 양측 대표 전원이 참석하는 회담에서 상당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휴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27]

유엔군 측의 제안은 공산군 측의 기선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에게 그들의 초기 제안을 수락하거나, 그들 자신의 건설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또 중립국으로 스위스를 선정하면서 송환불원포로들의 수용소를 한국 내에다 설치할 것도 제안하였다.[28]

한편 유엔에서는 한국의 휴전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판문점에서 매듭짓도록 하자는 브라질 대표의 발의가 60:0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휴전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29]

유엔군 측의 다니엘 제독은 본회담을 4월 23일에 재개하자고 제의하였다. 하지만 공산군 측 대표들이 최초 25일로 정했다가 다시 26일로 연기하였다. 이로써 판문점 회담이 중단된지 6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본회담이 재개되자 첫 회의에서 공산군 측 수석대표는 3월 30일자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성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개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전협정 후 2개월 이내에 양측은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들을 송환한다.
둘째, 그 다음 달에는 송환불원포로 모두를 어느 중립국으로 보내 그 나라의 사법권에 인계한다.
셋째, 그 다음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해서 송환불원자의 소속국들은 그들과 대담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을 가져야 한다.
넷째, 기간 중에 마음을 바꾼 포로들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시킨다.
다섯째, 6개월간의 설득기간이 끝나가는 데도 중립국 수중에 잔류되어 있는 포로들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에서 마련한 정치회의에서 결정한다.
여섯째, 중립국에 체재하는 송환불원 포로들의 모든 비용은 그 포로의 소속국가에서 부담한다.[30]

공산군 측이 내놓은 제안은 유엔군 측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유엔군 측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중립국 선정문제, 수용소의 위치, 보호 및 설득기간. 중립국의 보호기간 이후 송환거부포로 처리문제였다. 유엔군 측은 포로들을 중립국으로 이송시켜 6개월 동안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만일 그러한 목적이라면 60일간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립국으로 포로이송을 주장한 공산군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31]

이에 공산군 측은 4월 29일, 중립국을 아시아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며 중립국 선정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처음으로 내비추었다. 하지만 중립국을 어떤 국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6개월이란 설득기간에 대해 유엔군 측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南日)은 이 문제를 토의하자

고 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중립국이 선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대안을 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산군 측은 5월 2일, 휴전회담에서 중립국으로 인도·버마(현 미얀마)·인도네시아·파키스탄을 제안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스위스와 스웨덴을 밀고 있었던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제시한 국가들 중 한 국가를 지명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산군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파키스탄을 선택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그러나 포로들을 중립국으로 이송(移送)시킬 수 없다는 점과 설득기간을 4개월까지 양보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은 5월 4일 휴전회담에서, 한때 유엔총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파키스탄을 중립국으로 지정할 것을 제의하였다.[32] 하지만 공산군 측은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공산군 측은 5월 7일, 포로문제에 관한 '8개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첫째, 양측은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전협정(초안) 제3조 제51항의 관계 조항과 양측에 의하여 교환되고 검토된 확정적인 포로명부에 입각하여 원래 소속국(所屬國)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모든 전쟁포로들을 방해함이 없이 집단적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둘째, 직접 송환되지 않는 억류(抑留) 포로들의 본국 송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전협정 초안 제2조 제37항에 규정되어 있는 폴란드, 체코, 스위스, 스웨덴이 4개국과 양측이 합의한 바 있는 인도(印度) 등 5개국이 각각 임명하는 동수(同數)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한다.

셋째, 본 제안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송환될 포로들을 제외한 양측의 모든 포로들은 원래 억류 장소에서 억류 측의 군사적인 관리와 수용에 벗어나며, 본 제안의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들을 인수하고 관리할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넷째, 직접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을 인수하여 수용하게 될 때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관리를 인수한 후 4개월 이내에 그 포로들이 두려움 없이 그들의 가정(家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지시키고, 모든 포로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원래의 억류 장소에 설득인원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을 위한 시설을 즉시 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이 포로들을 인수하고 관리한 후 4개월 이내에 설득되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포로들은,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송환을 추진해야 하며 억류국은 어떠한 방해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포로송환을 위한 행정적 세부사항은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양측이 토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섯째, 본 제안의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4개월의 기한이 만료될 때 만약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남은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다면 그들의 처리는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규정된 정치회담에 일임한다.

일곱째,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관리기간 내에 본국 송환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포함한 포로에 대한 모든 경비는 그들이 속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한다.

여덟째, 본 제안의 각 조항과 이에 따른 협정은 모든 포로들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33]

공산군 측의 포로송환에 관한 제안(8개항) 가운데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다. 하나는 송환불원포로가 한국 이외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송환불원포로의 접촉 기간을 6개월이 아닌 4개월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4개월의 시한이 끝나면 잔류 송환불원포로는 정치회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은 5월 9일 공산군 측의 제안 중, 정치회담에서 토의된 후에도 남게 되는 송환거부포로의 처리문제,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공산군 측은, “포로들은 모두 복귀할 것이므로 잔류포로 문제는 없을 것이고,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34]

유엔군 측에서는 공산군 측의 답변을 검토하였다. 유엔군 측은 5월 10일, 다음 몇 가지 사항만 공산군 측이 받아들이면 포로송환에 관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음이 유엔군 측이 내놓은 새로운 안이다.

첫째, 5개국 위원회는 절차 문제를 제외하고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한다(이는 인도가 폴란드 및 체코와 제휴함으로써 '비(非)강제송환원칙'이 위원회 내에서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만일 정치회담에서 30일 내에 포로문제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그 포로들을 석방하고 민간인 신분을 부여한다.

셋째,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송환불원포로들을 억류하고 있는 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관리한다. 인도(印度)는 그 위원회를 도울 모든 무장부대와 운영요원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의장을 임명한다. 또한 그 위원회의 집행기관 역할을 담당한다.[35]

그러나 유엔군 측의 이 안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갈홍기(葛弘基) 공보처장은 소련의 위성국들이 송환불원포로를 감독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5월 12일 이승만 대통령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한국인 송환불원포로가 여러 국가로 형성된 어떤 집단, 특히 공산주의자에 의해 통제되는 나라로 인도(引導)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인도(印度)를 중립국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36]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의 안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37] 클라크 장군은 "모든 한국인 포로는 휴전이 되자마자 곧 석방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은 5월 13일, 유엔군 측의 새로 수정된 안을 공산군 측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산군 측은 송환불원포로 전원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중국인 송환불원포로들의 관리를 인계받고, 한국인 포로들은 휴전과 동시에 북한이든 한국이든 안주(安住)할 곳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보유한 채 일반인의 자격으로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산군 측에서는 송환위원회의 5개 구성국인 인도, 폴란드, 체코, 스위스 및 스웨덴이 각각 같은 수의 포로경비병력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오직 인도군(印度軍) 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공산군 측의 제안은 송환불원포로들의 최후 처리에 있어서 애매한 채로 남아 있었지만, 유엔군 측에서는 포로들의 정치적인 망명 장소를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38]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새로운 안에 거부감을 보였다. 공산군 측 대표 남일(南日)은 유엔군 측의 제안에 대해 "협상을 지연시키고 포로들을 강제로 구금하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하였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은 휴전회담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 4일간의 휴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5월 25일까지 연기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포로송환에 관한 유엔군 측의 최종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유엔군사령관도 공산군이 유엔군 측이 제시한 휴전조건을 수락하지 않고 장기간의 휴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성(開城)을 유엔군의 폭격제한 지역에서 해제하여 공중작전을 확대하고, 개성 주위에서 국지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소득 없이 회담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휴전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5월 23일, 최종 입장이 반영된 안(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공산군 측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클라크 장군이 건의한 군사적 조치를 승인하고 중립지대에 관한 모든 협정이 무효라는 것을 공산군 측에 통고할 계획이었다. 그와 동시에 송환불원 포로를 모두 석방하도록 승인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 무렵 공산군 측에서 유엔의 최종 제안을 거부하고 아무런 건설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쟁을 계속해 나갈 권한을 받아 놓고 있었다."고 술회하였다.[39]

한편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최종 제안에 내포된 양보사항이 한국 정부를 실망시킬 것을 염려하여 5월 25일에 클라크 장군과 브리그스(Ellis O. Brigs)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도록 권고하였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최종 제안이 1951년 11월에서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인도결의안'과 대체로 일치하는 조항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군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였다.[40] 유엔군 측이 제안한 '5·25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모든 무장 부대와 관리 요원을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을 수락하는 5개국 포로송환위원회(a five-nation custodial commission)를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휴전이 발효되는 날에 송환불원 한국인도 중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위원회로 인계한다.

셋째, 그 위원회는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 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넷째, 관리기구에 관한 권한위임 사항은 공산군 측이 중립국 관리하에 있는 포로들에게 위협 또는 강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제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각 위원회의 구성국가(인도 제외)에 할당할 직원의 수 제한

② 포로면접에 허용되는 대표의 수 제한

③ 포로의 면담은 그 위원회의 각 회원국 대표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

④ 송환희망을 표명하면서 포로가 제시한 모든 증서는 위원회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해 효력

⑤ 모든 일에 신문 보도진의 접근 허용

⑥ 포로에 대한 설득기간은 90일로 제한

⑦ 나머지 송환불원포로의 정치협상에 의한 처리. 하지만 정치회담에서는 그 포로들을 포로가 최초 그 관리위원회에 인계된 후 120일(정치회담에서 3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유엔총회로 이관(移管)하여 총회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포로는 그 위원회의 계속적인 관리하에 둔다.[41]

유엔군 측이 제안한 '5·25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개국으로 구성되는 포로송환위원회를 수락한다. 둘째, 송환거부 포로를 포로송환위원회로 이관한다. 셋째, 포로송환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하에 운영한다. 넷째, 포로 설득기간은 90일로 제한한다. 다섯째, 송환되지 않고 남은 포로의 처리는 포로송환위원회에서 정치회담으로 이관되는 기간인 120일 이내에 처리한다. 그 후에는 유엔총회로 이관한다.[42]

유엔군 측의 이 제안은 공산군 측이 이전에 제시한 바 있는 8개항의 제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측 대표들은 5월 25일 판문점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때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 장군은 회의진행을 비밀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南日)도 이를 받아들였다.[43]

유엔군 측은 포로교환에 대한 최종안을 전달하였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안(案)을 검토하는데 1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회를 요청하였다. 공산군 측이 유엔군 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고 휴회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유엔군 대표들을 상당히 고무시켰다.[44]

유엔군사령관은 5월 27일 이 제안에 내포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일성과 펑더화이(彭德懷)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포로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뒤 "본관은 당신들이 오랜 시일을 끌면서 실없는 논쟁만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귀측이 아직도 휴전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는 유일한 논점에 대한 우리 대표단의 대안을 긴급히 그리고 심각하게 숙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만약 휴전을 원한다는 귀측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귀측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45]

이 무렵 미 합동참모본부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NSC147)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극비사항으로, 필요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쟁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즉, "핵무기의 전략적·전술적 운용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작전들이 최대한의 기습과 최대의 충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46]

이때 한국 정부는 휴전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유엔군 측의 '5·25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휴전협정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한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철수시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였다.[47]

한국 정부의 반대이유는 뚜렷하였다. 유엔군 측의 제안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토의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인도군(印度軍)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비롯하여 송환불원포로들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포로들을 설득하게 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불편한 심기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의 휴전회담 대표 최덕신(崔德新) 장군은 유엔군 측의 '5·25 최종안'이 발표되자,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휴전회담 불참을 선언하였다. 그날이 바로 5월 27일이었다.[48]

휴전회담 본회의는 6월 4일에 가서야 재개되었다.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이 유엔군 측 제안에 대해 약간 수정했으나, 유엔군 측이 최초 제시한 원안(原案)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귀측이 5월 25일에 제시한 새로운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마련한 포로송환협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엔군 측 입장과 약간 차이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송환불원자에 대해 유엔총회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치회담에서 처리하지 못한 송환불원자에 대해서는 석방한다는 것이었다.[49]

이 문제는 양측의 휴전회담 참모장교회의에서 해결되었다. 6월 7일, 양측의 참모장교들은 포로취급 관련 조항에 대한 마지막 세칙(細則)을 완성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당시 포로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모두 사소한 것들이었다. 더구나 이때 양측은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세칙은 곧 작성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포로관련 세칙은 다음날인 6월 8일, 휴전회담 수석대표들의 서명을 받았다.[50]

이로써 지난 1년 반 동안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이 끌어왔던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송환원칙이 드디어 합의를 보게 되었다. 협상의 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송환불원포로 송환을 위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휴전 후 모든 포로에게 그들이 송환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양측은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및 인도에게 송환거부포로를 관리할 위원국에 지명되었다는 것을 통고하고 승낙을 요청할 것.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판문점 부근의 비무장지대에 설치하고 동일한 구성 국가로 조직되는 부수 기관과 그 위원을 중립국위원회가 포로를 감시하는 장소에 배치할 것.

양측 대표는 동 위원회와 그 부수기간의 임무 수행상황을 시찰할 수 있으며 동 시찰은 설명 과정과 면담 과정에 포함된다.

제2조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군대와 운영 요원은 인도에 의하여 제공된다.

인도 대표는 제네바협약 제132조[51]에 의하여 심판자와 중립국 송환위원회 감독 및 의장이 된다.

다른 4개국 대표들은 각각 동수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수는 5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조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군대는 소규모의 헌병으로 제한한다.

제3조 상기 제1조에서 규정된 포로들에 대해 송환을 저지할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위협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제2장 포로의 감시

제4조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송환을 반대하는 모든 포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억류국(抑留國)에 의해 한반도에 설정된 지점의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포로수용소의 관리권을 장악할 경우 억류국 측 군대는 그곳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한다. 전 조항에서 지정된 지점은 인도 군대에 의해 완전히 점령된다.

제3장 포로 설득

제8조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관리를 인계받은 후 90일 이내에 포로 소속국이 해당 포로들에게 그들의 권한을 설명한다. 이들 설득 대표들은 포로 1천 명당 7명을 초과하지 않되, 총계 5명 이하는 안 된다.

제4장 포로 처리

제10조 중립국 송환위원회 또는 부수기관은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이 신청한 신청서의 유효성을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11조 전쟁포로관리를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이관한 후 90일이 되면, 제8조에 규정한 대표들의 면담은 종료하고, 나머지 송환거부포로들은 정치회담으로 이관된다.

정치회담은 이 문제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고, 동 회담기간 중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계속하여 전쟁포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20일 이내에 정치회담에서 처리에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된 해당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선언에 의해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52]

포로송환협정 체결로 유엔군 측은 반공포로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다. 또한 포로협상에서 나타난 전쟁포로에 대한 '비(非)강제송환 원칙'은 후일 국제법 체계에 그 정신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포로송환협정 체결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51년 11월 27일 이후 변경된 전선 상황을 반영한 군사분계선에 대한 재협상뿐이었다.[53]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합의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제사회의 이목은 휴전에 이르는 마지막 협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조인은 이제 시간문제였다. 오로지 절차상의 문제만 남겨놓고 있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사건이 발생됨으로써 국제사회는 또다시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제 3 절 반공포로석방 배경과 결과

1. 반공포로석방 배경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남달랐다. 그는 휴전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이 나라를 분단하는 조건이 포함된 이른바, 평화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고 간에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포로문제에 있어서도 반공포로는 석방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는 "송환불원포로(送還不願捕虜), 즉 반공포로는 휴전과 동시에 석방되어야 한다. 반공포로를 소련 위성국이나 친공(親共) 중립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로 구성되는 송환위원회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휴전회담기간 내내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54]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9일, 경북 영천(永川)에 위치한 포로수용소를 시찰한 후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철조망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각하 만세!"를 외치며 자유석방을 부르짖는 그들의 애국충정(愛國衷情)에 깊은 감동을 받은 바가 있었다.[55] 그래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반공포로석방을 요구하고 나왔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급기야 6월 8일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이 한국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포로교환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날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었음을 보고하고, 휴전협상 타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석방 및 휴전반대 표명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반공포로석방에 앞서 포로수용소를 시찰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1953.4.)

이승만 대통령은 이틀 전인 6월 6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元容德) 장군을 경무대(景武臺)로 불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회담이 우리나라의 뜻과 달리 진행되고 있고, 더구나 북쪽으로 가기를 반대하고 있는 반공포로들을 인도군의 심사에 맡겨서 교환한다고 하니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을 석방하고자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연구를 지시하였다.[56]

한편 헌병총사령부(憲兵總司令部) 설치도 반공포로석방을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사전 조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3월 24일부로 국방부에 헌병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사후 설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헌병총사령부는 대통령령 제153호 「헌병령(憲兵令)」에 의해 설치되었다. 사령부의 설치목적은 합리적인 헌병병과의 운영을 기하고 육·해·공군 헌병의 유기적인 협조를 조정하는데 있었다. 헌병총사령관 밑에는 육해공군 각 보좌관, 총무부, 수사부, 정보부, 공보실, 재정실(財政室), 통신실을 두었다. 헌병총사령부가 설치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원용덕 장군을 육군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헌병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57]

원용덕 사령관은 최근 휴전회담의 경과나 국내정세로 보아 비상사태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약간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원용덕 사령관은 "각하! 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 며칠만 시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방법을 연구하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용덕 사령관의 말을 듣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잘 연구해 보라며 격려하였다.[58]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는 전후 한국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되는 휴전회담에 대한 반발, 반공포로를 공산진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반공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 휴전협상에 전쟁당사국인 한국의 주장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배신감, 자유를 갈망하는 반공포로들의 탄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59]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검토지시를 받은 원용덕 사령관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도 포로석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둘째, 설사 합법적인 절차는 무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포로수용소의 관리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들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않고는 포로석방이 곤란하다.

셋째, 반공포로를 석방하려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나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배제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넷째, 헌병총사령관은 각 군 헌병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포로수용소 경비를 하고 있는 육군 헌병을 움직이기가 어렵다.[60]

원용덕 사령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도를 골몰히 생각하였다. 그는 우선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읽어보기로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답을 찾기로 하였다. 그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제네바협약에 "포로교환은 의무적이 아니라는 것과

전쟁포로는 그를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원용덕의 생각으로는 설령 한국군 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다고 해도 한국은 교전당사국으로서 영토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 이때 헌병총사령부 편제과장(編制課長) 최세경(崔世卿) 소령도 "포로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처우해야 한다. 반공포로석방은 한국의 주권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건의를 원용덕 사령관에게 하였다.[61]

즉, 원용덕 장군은 제네바협약 전문 가운데 "포로교환은 의무적이 아니다."는 것과 "전쟁포로는 그들을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는 규정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의 지휘권이 비록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교전당사국으로서 영토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제 문제는 반공포로를 석방하기 위해 각 포로수용소의 경비를 담당하고 한국육군의 경비헌병을 헌병총사령부의 지휘 하에 두는 일만 남았다. 다행히 이 문제는 국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원용덕 장군은 다음과 같이 기지(奇智)를 발휘하였다. 그는 "각 군 헌병을 헌병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한다."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합법화하기로 하였다.[62] 모든 일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2. 반공포로석방 추진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은 1953년 6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고 "오늘부터 육·해·공군의 모든 헌병은 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의 지휘하에 들어갈 것을 명령한다."라는 문서를 갖고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만(晩)'자 서명을 받았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원용덕 사령관을 보며, "나도 몇 사람한테서 포로석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원(元) 장군이 가장 적임자라고 하더군. 그리고 내 생각에도 원 장군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터이므로 원 장군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각 지구 포로수용소에 있는 반공한인애국청년(反共韓人愛國靑年)들을 석방시켜서 자유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하는 바이오."라며 반공포로석방을 간곡히 지시하였다.[63] 이에 원용덕 사령관은 "신명(身命)을 다해 대통령 각하의 대명(大命)을 완수하겠습니다."라며 결의를 다졌다.[64]

대통령과 원용덕 사령관 간에 반공포로석방 문제가 오고 갈 무렵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여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는 원용덕 장군을 비롯하여 진헌식(陳憲植) 내무부장관, 휴전회담 한국대표 최덕신(崔德新) 소장, 갈홍기 공보처장 정도였다.[65] 원용덕 사령관은 대통령의 밀명을 받고나서 제일 먼저 진헌식 내무부장관을 찾아갔다. 그것은 반공포로석방 직후에 있을 포로들의 안내와 보호를 경찰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합의하기 위해서였다. 내무부도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움직이는 원용덕 사령관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포로석방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이처럼 철저히 그리고 은밀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신태영(申泰英) 국방부장관과 백선엽(白善燁) 육군총참모장에게는 반공포로석방을 비밀로 하였다.[66]

그당시 미국은 한국의 후방지역을 관할하는 병참관구사령관 헤렌(Thomas W. Herren) 장군으로부터 포로에 관한 정보보고를 포함하여 한국의 정세에 관한 일일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이 보고서들은 반공포로 중에 어떤 격렬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어떤 보고서에도 그런 행동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유엔군사령관은 6월 8일에 "대탈출을 위한 조직적 계획의 징후는 없다."고 보고하였다.[67]

6월에 들어서면서 휴전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한국에서는 휴전반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휴전회담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한국도 휴전을 둘러싸고 일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한국 정부는 6월 7일, 전국에 걸쳐 준비상계엄령을 하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인 육군총참모장 백선엽 대장 이하 전 장병에게 긴급 귀국명령을 내렸고,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에서 한국대표를 소환하였다.[68]

반공포로석방의 주역

석방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

석방을 실행한 원용덕 사령관

특히 반공포로석방 임무를 부여받은 헌병총사령부는 분주히 움직였다. 헌병총사령부는 이때부터 모든 행동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6월 9일 10시,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은 육군헌병사령관 석주암(石主岩) 준장, 부사령관 송효순(宋孝淳) 대령, 제3처장 홍구표(洪嶇杓) 대령 등을 긴급 호출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용덕 사령관은 "6월 8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3만 6천여 명의 반공포로(중공군 출신 제외)를 일시에 유엔군, 즉 미군 모르게 석방하라는 대명(大命)을 받았다."고 말하였다.[69] 원용덕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특명을 들은 회의 참석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반공포로를 석방하라는 대통령의 '만(晩)'자 서명이 들어 있는 명령서를 직접 확인했다. 석방과 관련된 명령계통은 대통령→헌병총사령관→육군헌병사령관→포로경비부대라고 못박았다. 물론 극비리에 포로를 석방시킨다고 하지

만 군의 통수계통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총참모장 조차 이를 모르게 하라고 하니 이에 어떠한 의혹을 안가질 수 없었다.

둘째, 국군 통수계통상 헌병부대는 육군참모총장의 지휘 명령하에 있는데 설령 육군헌병이 헌병총사령관의 지휘명령을 받으라는 대통령 서명의 명령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통수계통상 매우 난처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70]

셋째, 국군 작전지휘권은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1950년 7월 14일자로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단독작전 지휘명령권이 없다는 사실이다.

넷째, 포로수용소의 관리는 포로 소장(所長) 이하 모두 미군들이 담당하고 있고, 한국군 헌병부대는 미군과 함께 일부 경비만을 맡고 있는데 미군 모르게 어떻게 석방시키느냐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한국군과 미군 간에 큰 유혈(流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것인가. 대통령의 명령은 유혈 없이 성사시키라는 것이니 더욱 어렵기만 하다.

다섯째, 포로석방 후의 조치는 경찰이 주동이 되어 경찰과 국민들이 협조한다고 하니 이는 문제시될 것이 없었다. [71]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정당한 처사라는 명분하에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나 군인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모른 체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석주암 육군헌병사령관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며 원용덕 사령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다. 이때 원용덕 사령관은 석주암 장군에게 ‘비밀 엄수’를 부탁하였다. 이후 남아 있는 참석자들은 각 포로수용소의 수용인원, 미군 배치현황, 한국군 경비병력, 경비지휘관 사항, 시설현황, 부근 지형 등 문제를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리고 포로 석방은 “육군 헌병의 경비부대가 실력으로 수용소를 접수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할 것.”을 결정하였다.[72]

6월 11일, 헌병총사령부 제1부장인 문종욱(文鍾郁) 대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명령서와 원용덕 사령관의 신인장(信認狀)을 휴대하고 포로수용소가 위치한 부산·광주·논산·마산·영천을 경비행기를 타고, 현지 지휘관에게 접수명령서를 전달하고 12일 귀대하였다. 그러나 포로경비를 담당하는 지휘관들이 수용소

접수명령에 의심을 품고 육군헌병사령부에 이를 문의하게 되었다. 이에 보안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원용덕 사령관은 수용소 접수를 취소하였다.

거사일이 다가올수록 헌병총사령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6월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원용덕 사령관은 보안문제를 고려하여 처음 회의에서 결정한 방안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포로를 석방한다."고 계획을 수정한 다음, 최초 정했던 15일 자정의 거사 날짜를 '6월 18일 24시'로 결정하는 작전명령을 작성하였다.[73]

특히 원용덕 사령관은 비밀 보안유지를 위해 보좌관 김길수(金吉洙) 대령과 제1부장 문종욱 대령을 신당동 자택으로 불러, 등사프린트를 설치해 놓고 포로석방 작전명령서를 직접 프린트하였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은 등사를 하느라 손에 잉크를 잔뜩 묻혔다. 이때 원용덕 사령관은 두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손에 등사잉크를 묻히고 작명(作命)을 밀고 있지만, 이 명령을 집행하는 우리 헌병들은 필시 피를 묻혀 가며 임무를 완수할 것을 생각하니…"라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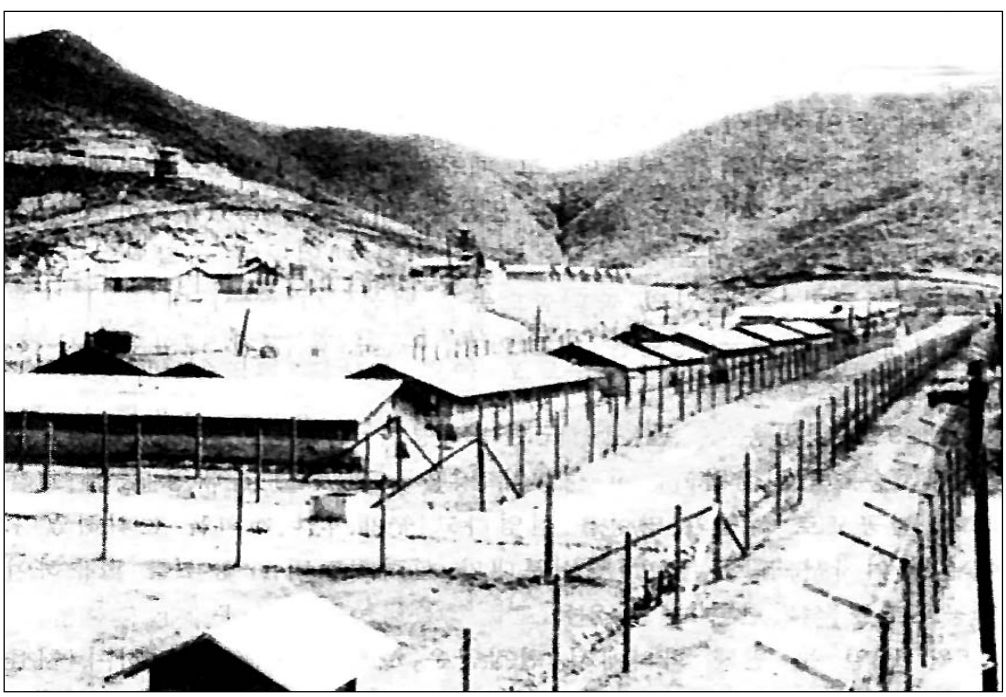
등사가 끝나자 원용덕 사령관은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명령서에 직접 확인 날인을 하고 봉투를 밀봉(密封)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붉은 글씨로 '극비(極秘)'라고 썼다. 원용덕 사령관은 광주·마산·부산·영천·논산 등 각 지구별로 파견될 포로석방 밀사(密使)를 선발하여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75]

각 지구로 파견될 밀사로는 다음과 같다. 광주지구에는 본부사령 임기택(林奇澤) 중령, 마산지구에는 수사과장 김삼룡(金三龍) 중령, 부산지구에는 지도과장 김진호(金鎭浩) 중령, 영천지구에는 정보과장 조용연(趙容연) 소령, 논산지구에는 사찰과장 황병준(黃秉俊) 소령이 가게 되었다.

반공포로석방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성공이냐 실패이냐!"만 남겨놓고 있었다. 반공포로석방은 6월 18일 24시, 계획대로 단행되었다.

3. 반공포로석방 단행과 정부의 조치

1953년 6월 18일 새벽 01시 30분, 헌병총사령부에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작전 제1신이 접수되었다. 부산지구수용소가 포로석방에 성공하였다는 보고였다. 곧이어 다른 수용소에서도 포로석방 작전에 성공하였다는 보고가 잇달아 들어왔다. 그러나 영천수용소만은 거사 직전에 미군 측에 석방기도가 탐지되어 실패하였다. 따라서 부산·광주·논산·마산·영천·부평·대구 각 수용소에서 총 27,388명의 포로가 탈출하여 석방되었다.



반공포로가 탈출하고 난 후 텅 비어 있는 마산 포로수용소 모습(1953.6.18)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은 18일 새벽 04시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공포로 석방이 계획대로 성공했음을 보고하였다. 경무대를 나온 원용덕 사령관은 05시 30분에

갈홍기 공보처장를 만나 협의한 다음 중앙방송국으로 달려갔다. 원용덕 장군은 06시에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본직(本職)은 1953년 6월 18일 24시를 기해 관하 지휘관에게 애국 포로수용소 접수를 명하였다.
> 본직은 신성한 조국 주권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이를 명령하였으며, 이는 국제공법인 제네바협약 총칙 제12조에 의거하는 것이다. 본직은 한국 국민의 열화 같은 민족정기에 호응하여 이를 감히 실천하는 바이다.
> 그 결과는 유엔 제 국가의 이익에 공헌 있을 것을 확신하며 몽매에도 잊지 못하는 북진통일을 전취하려는 한민족의 자유권의 엄숙한 발동임을 내외에 선언하는 바이다.
> 세계 우방은 한민족의 애절한 이 행동을 적시하여 국제공약의 엄정한 이행과 공산 침략 분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이제 애국 동포에 고하노니 포로수용소 인근에 소재하는 부대, 경찰관, 애국청년단 및 일반 주민들은 본직이 지휘하는 헌병의 본 임무수행에 절대적인 협조가 있기를 요망하며, 민족존망지추(民族存亡之秋)의 진두에 서게 된 한민족의 철석같은 의사를 끝까지 한사결행(限死決行)하여 자유 수호와 반공평화 확립의 세계사에 이 업적이 길이 빛나도록 일사분란, 분골정신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76]

이처럼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의 국민들에게 반공포로들을 잘 대해 주라고 하는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담화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반공포로석방 성공 후 이승만 대통령은 원용덕 장군에게 의용(義勇)이라는 휘호를 내렸다.

이에 따라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반공포로들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대해 주었다. 국민들은 포로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일부에서는 영웅으로 대접하는 경향도 있었다.

탈출과정에서 부상당한 반공포로를 보호하고 있는 경찰

<표 3-3> 반공포로 수용 및 석방현황(1953.7.27.)[77]

포로수용소	수용포로 총인원	석방된 포로	사망	잔류수용인원			
				부상	체포	미탈출	계
부산지구 거제리 제2수용소	3,065	392	1	-	116	2,556	2,672
부산지구 가야리 제9수용소	4,027	3,930	-	-	-	97	97
광주 제5수용소	10,610	10,432	5	8	-	165	173
논산 제6수용소	11,038	8,024	2	2	336	2,674	3,012
마산 제7수용소	3,825	2,936	3	11	144	731	886
영천 제3수용소	1,171	904	1	-	116	150	266
부평 제10수용소	1,486	538	47	60	39	802	901
대구 제4수용소	476	232	2	-	180	61	241
계	35,698	27,388	61	81	931	7,236	8,248

이에 반해 미군 당국은 탈출한 포로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국의 행정기관과 국민들이 포로들에게 옷을 주고 민가에 숨겨 주게 되자 미군의 재수용 노력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각 반공포로수용소의 석방 현황은 앞의 표와 같다.

반공포로 석방은 서울과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을 경악케 하였다. 미군 지휘관들은 즉각 한국군 수뇌부에 진위 파악과 함께 이를 항의하고 나섰다. 미군 지휘관들이 제일 먼저 항의한 곳은 육군총참모장 공관이었다.

6월 18일 새벽 02시, 대구의 육군총참모장 공관으로 미군 지휘관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한국의 후방지역 책임과 포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병참관구사령관 헤렌 소장이 제일먼저 "한국의 경비원들이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한국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의하면서 포로들을 재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저스(Gordon Rogers) 소장과 테일러(Maxwell D. Taylor) 미 제8군사령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하였다.[78]

反共韓人捕虜釋放을完了
十八日零時收容所接收,同五時에斷行
내責任下에命令했다
李大統領、重大談話를發表
嚴肅한主權發動
國民을愛護善導하라
不法抑留者엔武力行使
全愛國捕虜釋放無難히完了
緊急閣議를開催
三軍首腦部도會議
五十分間會見
美韓國戰의
共産軍攻
美大統領에書翰
敵機七

이승만 대통령의 "내 책임하에 반공포로를 석방했다"는 신문 보도

백선엽 육군총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에게 “반공포로석방은 대통령 자신의 책임하에 단행한 것이다. 아침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하였다.[79]

대부분의 반공포로들이 탈출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반공포로 전원 석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관련 성명내용이다.

> 제네바협약과 인권 정신에 의하여 반공한인(反共韓人) 포로들은 벌써 다 석방시켜야 할 터인데, 유엔당국들과 또 이 포로를 석방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우리의 설명을 들은 분들은 동정상(同情上)으로나 원칙상으로나 동감을 가질 것으로 나는 믿는 바이다.
>
> 그러나 국제상 관련으로 해서 불공평하게도 그 사람들을 너무 오래 구속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유엔이 공산군 측과 협의할 조건이 국제적 관련을 더욱 복잡하게 해서 필경은 우리의 원수(怨讐)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오해를 주는 흠상(欠喪)을 일으킬 염려가 있게 하였다.
>
> 그러므로 이 흠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내가 책임을 지고 반공한인포로를 오늘 6월 18일자로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다.
>
> 각 도지사와 경찰관들에게 지시하여 이 석방된 포로들을 아무쪼록 잘 지도, 보호케 할 것이나 다 그 직책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
> 우리 모든 민족이나 친구들이 다 협조해서 어디서든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믿는 바이다.[80]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먼저, 반공포로석방은 제네바협약에 입각한 인도주의 정신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엔에게 명분을 갖게 되었다. 둘째, 석방의 대상자들에 대한 성격을 ‘반공한인 포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당사지인 반공포로들이나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셋째, 국가원수 및 통수권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임했다. 반공포로석방은 대통령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각 행정기관 및 국민들에게 탈출한 포로들을 적극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4.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한국의 입장

이승만 대통령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반공포로석방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공산군측은 물론 세계 여론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었다. 미국은 대단한 충격과 함께 휴전협상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받아들였고, 영국은 이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그 중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나라가 미국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참모들은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81]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 사건이 휴전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즉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공모(共謀)를 언급하면서 수용소내의 미군들이 포로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무던히 애썼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82]

> 오늘 심야부터 새벽 사이에 약 2만 5천 명의 북한군 반공포로가 부산·마산·논산·광주에 있는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였다.
> 대한민국 고위 당국에서 발표한 성명서들은 한국 정부 고위당국이 비밀리에 이와 같은 행동을 계획하고 신중한 협조 아래 반공포로 석방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 포로수용소 경비를 위해 배치된 한국군 경비부대는 탈출을 방지하지 않았으며 한국군 경비병과 포로 간에 결탁이 있었던 것을 입증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 포로수용소장과 수명의 행정 요원으로 한정되었던 송환 거부 포로수용소 근무 미군들은 오늘 발생한 집단탈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한국군 경비병과 포로들이 공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 다량의 무독성 가스와 기타 최루가스의 사용은 포로 탈출이 심야를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소총사격으로 9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하였다. 미군의 피해는 없었다.
> 오늘 오후 1시 현재 976명의 탈출 포로가 재수용되었다.
> 각 주둔지와 송환거부 포로수용소에 잔류하고 있던 한국군 경비는 미군부대로 대치되었다.[83]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은 심각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의 자문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는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두기로 한 이승만 대통령의 최초 약속과 사전협의 없이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클라크 장군에게 말한 것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은 다음날인 6월 19일 주한 미국대사 브리그스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다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내용이다.

> 귀하의 현재의 명령과 그에 따른 행동은 '명백한 위반(a clear violation)'이며 유엔군사령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만일 그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피와 용기를 바친 그들의 모든 희생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만일 현재와 같은 귀하의 행동이 지속된다면 유엔군사령부는 그로부터 연유되는 상황하에서 귀하와 더불어 공동작전을 계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귀하가 그것을 종결하려는 유엔군사령부의 권위를 즉각적이며 확실하게 수락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의 시행이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에게는 귀하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 만일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1953년 6월 6일자 본인의 서한에 포함된 보장(assurances)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귀하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보장은 귀하의 정부의 보존과 강화 그리고 한국의 최종적 통일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 만일 귀하의 행동에 의해 조성된 권한의 분리와 상호신뢰의 결핍이 계속 허용된다면 이들 목표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확신한다.[84]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을 보고 난 이승만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현재의 행동이 자살(自殺)이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한국에 중공군을 남겨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형집행영장(death warrant)'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언제까지나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85]

이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 브리그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하는 보장을 요청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내 입장을 바꿀 수 없다. '휴전협정의 조인(signing of armistice)'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의 자동적인 철수를 의미한다(automatically mean withdrawal of the ROK forces from the UNC)'는 점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86]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에 대한 강경 입장은 6월 22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과의 대담에서도 나왔다. 그는 클라크 장군에게 "휴전에 서명한다는 것은 '한국의 분단(the division of country)'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87]

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의 포로석방을 비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전에 계획된 로버트슨 차관보의 한국방문을 상황이 명료해질 때까지 연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상에서 훌륭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88]

공산군 측도 반공포로석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산군 측은 반공포로석방 다음날인 6월 19일에 반응을 보였다. 6월 19일 아침, 공산군 측은 먼저 회의를 취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들은 통역관 회의와 비무장지대의 세부작업을 책임진 참모장교회의를 취소하고 나왔다. 그리고 6월 20일, 본회담이 재개되었을 때,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는 반공포로석방에 유엔군 측이 이승만 대통령과 공모하였다고 비난하는 김일성과 펑더화이의 서신을 전달하였다.[89] 다음은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보낸 서한 내용이다.

>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정부와 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휴전에 이승만 일당이 포함되는가?
>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어떤 보증이 있는가? 만일 포함된다면 그때 귀측은 포로 25,952명 모두를 즉각 책임지고 회수해야만 한다.
> 그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90]

공산군 측의 항의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에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처음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다(unqualified no)'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정부와 육군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휴전은 그 당시로서는 이승만 정부를 포함하지 않았다. 휴전준수에 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유엔군 측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만 약속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91]

아무튼 공산군 측의 입장에서는 유엔군 측이 과연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공산군 측의 우려가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군 측에 대한 공산군 측의 비난도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산군 측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반공포로석방을 한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회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6월 20일 클라크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 "장차 있게 될 정치회담이 한국 통일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역설하면서 현재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전쟁에서 실현되지 않는 통일이 정치회의에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과의 정치협상이란, 그것이 항상 그러했듯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였다.[92]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단독으로 행한 반공포로석방이 한국군 철수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보낸 서신의 결론부분에서, "반공한국인 포로의 석방행위는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견해와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상황이 오면 자신은 그것을 사전에 클라크 장군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다.[93]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도 미국이나 유엔군 측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것은 국군이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회담을 결렬시키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파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94]

이처럼 반공포로석방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군과 공산군 측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미국으로부터 전후 한국의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컸다.

제 4 절 한미회담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합의

1. 한미회담 배경

한미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을 때 미국은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반공포로를 석방한 후에도 여전히 휴전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었다. 한국 국민의 거센 데모가 전국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유엔군 물자가 들어오는 부산과 인천항에서는 부두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한미 간에는 새로운 국면 조성이 필요할 때였다. 감정에 앞서 이성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다행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먼저 손을 뻗었다. 워싱턴에서는 반공포로석방 이전에 계획한 바 있던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차관보의 한국방문 임무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은 1953년 6월 22일, 주한 미국대사 브리그스에게 “로버트슨이 한국으로 즉각 출발하여 6월 25일에는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로버트슨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95]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6월 22일 저녁에 워싱턴을 출발하였다. 이때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로버트슨에게 같이 보냈다. 덜레스는 서신에서 “한미 양국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많은 희생의 대가로 성취한 휴전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한국에 없다.”며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96]

로버트슨은 1953년 6월 24일 도쿄에 도착하였다. 이때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이 군사상황에 관한 토의를 돕기 위해 로버트슨 특사를 수행하였다.[97]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도쿄에 도착하자, 그 즉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브리그스 주한미국대사, 그리고 머피(Robert D. Murphy) 주일 미국대사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비타협적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럴 경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유엔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상대할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건의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98] 그리고서 미국의 특사일행은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그만큼 버거운 상대로 여기고 있었다.

2. 이승만-로버트슨 회담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1953년 6월 25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이날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3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로버트슨 특사일행은 김포공항에서 휴전협정, 포로교환,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정치회담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도착 다음날인 6월 26일,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에 들어갔다. 로버트슨은 먼저 한국의 반공포로석방으로 인한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친 불미스러운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휴전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승만과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휴전에 대해 토의를 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수를 치고 나왔다. 그는 특사일행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수락하면 휴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첫째, 한국인 반공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한 후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인도한다.

둘째, 정치회담에도 90일의 시한 제한을 둔다.

셋째, 미국은 한국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한국 육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데 지원을 계속한다.

넷째,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즉각 보장한다.[99]

한미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 국무차관보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하였다. 로버트슨 특사와 클라크 장군이 6월 2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회답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요 회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수면에서(logistically) 가능할 경우 한국인 송환불원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한다. 중국인 송환불원포로는 제주도에서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인도한다.

둘째, 미국은 정치회담에 일방적인 '시한제한(time limit)'을 부과할 수 없으나, 90일이 지나도 회담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과 협조하여 회담에서 철수를 고려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economic aid)와 한국군이 '20개 사단이 될(20-division goal)' 때까지 지원한다.

넷째, 미국은 필리핀과 유사한 상호방위조약(a mutual defense treaty)'을 기꺼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상원의 인준(consent of the US senate)'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보장(guarantee)'할 수 없다.[100]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회신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승만은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나의 견해에 모두 동의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로버트슨 특사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offer)을 '비망록(an aide-memoire)' 형태로 기술할 것을 요청하였다.[101]

이때 이승만과 로버트슨 특사일행은 한국 정부가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전쟁수행 중이나 전쟁 종결될 때까지 유엔군사령부의 권위(authority)를 인정하고, 휴전(armistice)을 준수하며, 상호 동의에 의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02]

이날 저녁, 로버트슨 특사와 클라크 장군은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 합의한 비망록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였다. 로버트슨 일행은 이승만 대통령의 말에 당황하였다.

이승만은 다음날인 6월 28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새로운 비망록을 특사일행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이승만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 있었다. 다음은 이승만이 미국 특사에게 제시한 새로운 협상 내용이다.

미국은 한국군의 20개 사단 증강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 국가들의 전력증강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한국군을

증강시켜야 한다.
북한은 물론 중국인 반공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도하기 전에 비무장지대로 이송해야 한다. 한국인 포로에 대한 심사는 1주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만일 정치회담이 9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즉각 회담에서 철수하고, 군사작전의 재개에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한다. 대신 한국은 전쟁을 승리로써 해결하여 공동의 대의를 도모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유엔군사령부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할 것이며, 한국군이 철수하게 되면 사전에 유엔군사령부에 통고할 것이다.[103]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망록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을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매듭짓고, 정치회담이 결렬될 경우, 특히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군하지 않을 때 전투를 재개하며, 유엔군사령부가 전쟁을 승리로써 해결하여 공동의 대의를 도모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아래 둔다."는 새로운 사항을 제시하였다.[104]

로버트슨 특사와 클라크 장군은 이 놀라운 사태의 진전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이 상황을 즉각 워싱턴에 보고하였다. "우리가 휴전을 이행함에 있어 이승만 대통령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opinion)이다."라는 전문을 보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휴전협상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자신만 알고 있는 문제"라고 미국은 판단하였다.[105]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이승만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한국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철수"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을 압박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때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이승만 대통령을 압박할 '유일한 방법(the only way)'은 '휴전에 대한 결론(the conclusion of armistice)'을 빨리 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 측에게 휴전회담

재개를 추진하게 되었고,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브리그스 주한미국대사, 머피 주일 미국대사, 콜린스 미 육군참모총장도 동의하였다.[106]

입장을 정리한 로버트슨 특사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6월 29일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다시 시작하였다. 로버트슨 특사는 전날 이승만이 제시했던 새로운 제안내용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로버트슨 특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의 입장과 일치되도록 자신의 비망록을 수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클라크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20일자 공산군 측의 서한에 '응신(replying)'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분명해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망록을 가급적 빨리 수정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107]

로버트슨 특사와 클라크 장군은 회담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보좌관들과 한국문제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정책지도자들은 "이승만이 허세(bluff)를 부리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대안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휴전을 '의도적으로 방해(sabotage)'한다면, 미국과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유엔군과 미군의 집결, 보급창의 통합, 한국에서의 초과품목에 대한 일본으로의 수송, 미군 보충병의 한국으로의 이동 중지 등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108] 도와주는 미국이 도움받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를 다루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워싱턴의 대안에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그렇게 하겠다."며 이에 적극 동의하였다. 하지만 로버트슨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실제로 철수를 하지 않는, 철수위협은 좋은 방책이 될 수 없다. 이승만이 열정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우리들에게 도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109]

한미 간의 분위기는 다시 경직되었다. 이때 실마리를 푼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간의 회담 때에는 언제나 이러한 '밀고 당기는 외교수완'을 발휘하였다.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은 로버트슨 특사에게 "우리와 귀하와의 우정(友情)어리고 솔직한 토의는 많은 오해와 의구심을 불식시켰다."라는 서한을 보냈다. 그렇지만 편지 속에 미국에 대한 양보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미국은 한국의 분단에 관여하였으며 지금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하여 한국을 무한정 분단된 채로 내버려 두려고 한다."며 미국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에는 미국과 화해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 우리는 정치회담이 실패할 경우, 만일 미국이 우리와 더불어 한국통일이 이룩될 때까지 전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명확히 보장만 한다면 '휴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협정(an agreement not to obstruct the armistice)'을 체결할 수도 있다.
> 만일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내가 휴전(armistice)에서 귀하들의 요구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다.
> 그것은 내가 지금과 같이 '휴전조건(the truce terms)'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110]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요구조건이 확실해졌다. 이승만은 정치회담이 결렬될 경우,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바라고 있었다. 로버트슨 특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속하는 문제였다. 로버트슨은 국무장관과 협의한 후 7월 2일 새롭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비망록을 작성하였다.

첫째, 현존하는 필리핀과의 조약에 비추어 '상호방위조약(a 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며, 협상은 즉각 시작할 수 있으나 비준(ratification)은 상원의 조언(advice)과 승인(consent)을 기다려야 한다.

둘째, 한국이 공산군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를 위하여 국군을 해·공군 포함, 약 20개 사단 수준으로 증강·유지하는 것을 원조한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셋째, 한국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 또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넷째, 휴전조인 후 정치회담(political conference)에서 논의하게 될 공동목표(common objectives)에 관해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다.

다섯째, 정치회담에서는 한국통일과 중공군의 철수를 이루기 위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노력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만일 90일 후 그 회담의 무익함이 판명되고, 공산측이 그 회담을 선전 목적이나 한국을 난처하게 하는데 이용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 그 회담에서 철수하여 한국 통일을 목표로 한 '앞으로의 조치(further measures)'에 관해 협의한다.[111]

로버트슨 특사는 자신이 작성한 위의 비망록을 7월 3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일 회담에 실패할 경우 합법적으로 전투를 재개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회담에서 기꺼이 철수하여 한국과 앞으로의 가능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로버트슨은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한국의 통일과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혼자보다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 비망록을 잘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112]

로버트슨 특사는 다음날인 7월 4일, 경무대를 방문하고 상호방위조약 초안을 이승만 대통령과 변영태(卞榮泰)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이 그 조약이 미 의회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자신한다고 했다."며 말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휴전서명은 방위조약이 서명되고 비준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로버트슨은 휴전에서 그러한 지연은 고려될 수 없다고 응대하였다. 회담을 마친 후 로버트슨은 국무부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합의점에 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는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다.[113]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음과 같은 보다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하였다.

첫째, 한국의 법적 관할권은 두만강 및 압록강 이남의 지역, 즉 전통적인 한국 영토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양국 정부는 인정한다.

둘째, 동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원조를 계속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한반도와 근해에 미군의 육·해·공군기지를 설치한다.

셋째, 일방이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은 즉각 자동적으로 개입하며 침략의 적용범위는 일방의 본토뿐만 아니라 섬, 군대, 선박, 비행기까지 포함한다.[114]

한국 정부의 상호방위조약 초안은 미국 측 초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7월 2일자 비망록에 대하여 계속 비판하면서, 7월 7일 그의 입장이 담긴 서한을 로버트슨에게 전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첫 번째 상호방위조약 제안에 대해서는 상원의 비준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락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합의사항과 일치하지만, 한국 육군의 최종 증강목표는 20개 사단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 사항인 전후 목표에 대해서도 수락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정치회담에 대해서는 만일 회담이 실패하면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제의를 수락한다.[115]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7월 8일 경무대에서 다시 만났다.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았다. 이승만은 이때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철수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어린애 같은 짓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의 절정은 7월 9일에 이루어졌다. 이날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거부하지 않고,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휘하에 두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한 그렇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로버트슨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제의는 적절한 보답이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양국의 확실한 입장을 문서화하기로 약속하였다. 회담을 마친 후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休戰) 수락과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휘하에 두기로 한 약속은 ‘백만 달러의 가치(worth a million dollar)’가 있다.”면서 이를 워싱턴에 보고하였다.[116]

7월 9일 회담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 특사는 가장 어려웠던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포로문제만 남겨놓게 되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포로문제에 논의하였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과 중국인 송환불원포로를 비무장지대로 이동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에게 중국인 포로는 제주도에서 송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장군은 중국인 송환불원포로도 비무장지대로 이동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도군의 대한민국 진입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클라크 장군은 인도군을 모두 비행기로 비무장지대로 수송하겠다고 하였다. 회담을 마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로버트슨에게 상호방위조약 초안 수정과 함께 앞서 약속한 것을 명료하게 한 서한을 전달하였다.[117] 이승만 대통령은 그 서한에는 지금까지의 회담진행 사항을 요약하고, 한국 정부가 동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중공군의 철수와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전에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하고, 송환불원포로의 처리를 위한 3개 월 간의 활동 기간을 수락하며(그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 대신에), 이들 포로의 비무장지대로의 수송에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할 것이다.
>
> 그러나 후자의 두 가지 양보는 어떠한 외국군 부대(인도나 혹은 어떤 나라로부터 오던 간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들여 놓지 않으며, 3개월간의 심사 후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석방되기를 원하는 한국인 포로는 모두 석방하고, 송환을 불원하는 중국인 포로는 모두 대만으로 수송한다는 양해하의 조건부이었다.[118]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의 비준을 얻는 문제에 대해 양해하면서, 미 의회가 다음 회기에 비준을 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가 휴전에 서명할 수는 없지만, 휴전 하에서 취해지는 어떠한 대책이나 조치가 대한민국의 생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휴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119]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목표이자 소망인 대한민국의 재통일(reunification)에 대해서는 정치적 또는 평화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120]

로버트슨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신이 "앞서 그가 천명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후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이승만의 초안은 두 가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적 권한이 압록강까지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른 하나는 북대서양조약에서 따온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은 다른 일방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상호방위조약 모델로 제시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서는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을 때 상호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121]

덜레스 국무장관은 7월 10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그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전부일 것"이라고 하였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또 로버트슨 특사에게 "귀하와 클라크 장군이 용인한다면, 그 서한의 주요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것보다는, 이승만이 제기하는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토의하도록 놔두고, 그것을 휴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고려하라."고 하였다.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방위조약 초안은 휴전 후, 고위급 회담에서 다룰 토의 자료로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122] 국무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로버트슨은 7월 11일,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고 휴전을 앞두고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합의

1953년 7월 11일,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은 최종 회담을 가졌다. 그는 이승만에게 "오해와 시각 차이가 대체로 명료하게 되었으며, 양국은 신뢰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남은 문제에 관해 만족할만한 해결을 전망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을 전달하였다. 그리고서 로버트슨은 이제 자신의 임무는 끝났으며, 워싱턴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회담은 "가장 정성어린 말"로 끝을 맺었

다.[123] 회담을 마친 이날(7월 11일)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 특사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Issued at Seoul by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and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Walter S. Robertson)을 발표하였다.

> 우리는 지난 2주일간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존재하는 깊은 우의(deep friendship)를 강조한 솔직하고도 정중한 의견교환(exchanges of views)을 하였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휴전문제, 전쟁포로교환 및 장래의 정치회담(political conference) 등에 관련하여 야기된 곤란한 제 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달성하였다.
>
> 토의(discussions)는 3년 전 공산침략 이후 우리들의 관계에 존재하였던 우리의 공동목표(common objectives)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휴전 후에도 계속하며 증대시키려는 우리의 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
> 전쟁포로에 관해서는 어느 전쟁포로이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또 일정한 기간 후에는 공산주의자의 통치(Communist jurisdiction)하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모든 전쟁포로를 남한(South Korea)에서 석방할 것이다. 또한 비공산계 중국인은 그들이 선택한 곳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
> 우리 양국정부는 현재 교섭 중에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정치·경제 및 방위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하여 토의하고, 우리의 회담은 이들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합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 특히 우리는 자유·독립·통일(a free, independent, and unified Korea)이라는 공동목표를 가급적 단시일(shortest practical time) 내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공동노력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는 바이다.
>
> 우리들의 회담을 진전시킨 화합의 정신(spirit of accord)과 광범위한 합의(large areas of agreement)가 극동(Far East)에 있어서의 견고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광범위한 목표에 분명히 인도할 계속적인 상호존경과 상호이해의 정신으로 장차 뒷받침될 것이라고 확신하다.[124]

한국시각으로 7월 12일 아침, 로버트슨 특사와 콜린스 장군이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한미 양국이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의 휴전, 포로 처리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

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다.[125]

첫째, 휴전성립 후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고 약속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무장관 덜레스가 조약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갖도록 상원의원들을 설득한다.

둘째, 미국은 장기간의 경제원조와 2억 달러의 제1회 원조를 공약한다. 그밖에 유엔군총사령관은 휴전이 조인되는 즉시로 95만 달러에 해당하는 1,000만 파운드의 식료품을 한국 국민에게 공급한다.

셋째, 90일이 경과하여도 휴전 후의 정치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한미 양국은 동 회담에서 철수하여 한국 통일에 관한 앞으로의 행동을 토의한다.

넷째, 이미 계획된 대로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고 이에 적당한 해·공군력을 증강한다.[126]

다섯째, 정치회담 개최 이전에 공동 목표의 모든 국면을 토의하기 위해 '고위급 한미회담'을 개최한다.

또한 서울과 워싱턴에서 공동발표를 할 때, 국무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韓國統一에 相互協力
十二日韓美共同聲明發表
最終會談은아니다
兩國協調의 可
今後의重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타결한 한미공동성명 발표를 보도한 국내신문(1953.7.12.)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였지 휴전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였다. 동의하지 않은 휴전에 굳이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 유엔군 측은 휴전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아직 유엔군 측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예상되는 장애요인, 즉 공산군의 최종공세, 한국의 협정 준수에 관한 보증을 요구하는 공산군 측 대표단의 압력, 이승만-로버트슨 협정에서 불명하게 남아 있던 문제에서 기인된 한국 정부와의 최종적인 어려움 등이 남아 있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상병포로 교환과 공산군 측의 속임수

1953년 3월 5일 소련 수상 스탈린이 사망한지 약 1개월 만에 공산군 측에서는 전쟁종결에 대한 가시적인 징후가 나타났다. 그 첫 신호는 1953년 2월 23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이 펑더화이와 김일성에게 보낸 환자 및 부상포로 교환에 관한 서한에 공산군 측이 회신을 보내옴으로써 나타났다. 3월 28일자 유엔군 측에 보내 온 공산군 측의 회신내용은 클라크 대장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것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이래 결렬된 휴전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통고해 왔다.

이에 따라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은 1953년 4월 6일 판문점에서 회동을 갖게 되었다. 이후 양측 대표들은 4월 11일 부상포로 교환에 정식으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4월 20일 이른바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로 알려진 부상포로교환이 시작되었다.

4월 26일까지 실시된 부상포로교환에서 유엔군 측은 공산군 상병포로 6,670명을 인도하였고, 공산군 측은 유엔군 상병포로 640명을 인도하였다. 이는 10 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공산군 측은 상병포로교환에서도 숫자를 터무니없이 줄인 채 그들의 목적을 위해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후 포로송환에서도 공산군 측은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여 유엔군 측을 분노케 하였다. 하지만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이런 수법에 계속 당하였다. 이는 유엔군 측의 치밀하지 못한 전략과 공산군 측의 협상전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2. 반공포로석방의 배경과 의미

1953년 6월 4일 공산군 측이 포로송환에 관한 유엔군 측의 절충안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전후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없는 가운데 정전협정이 조인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한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아야 하였다.

이제까지 실시했던 휴전반대만으로는 정전협정 조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다.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 급기야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 성명을 통해 "모든 외국군의 한반도 철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군만이라도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127]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한국을 달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월 7일 친서를 보내 휴전 후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와 경제 원조를 약속하였다.[128]

하지만 한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그 내용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비난 및 국군단독의 전쟁수행' 발언을 계속하였다. 그는 6월 17일 오후, 국군 제2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휴전을 비난하고 국군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편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은 6월 8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상 마지막 난제이던 포로송환협정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정전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정전협정 조인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 놓게 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많은 인명 피해와 국토의 파괴를 감수하면서 오로지 통일한국만을 갈망해 왔던 한국 국민과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휴전의 가시화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난국을 헤쳐갈 대안으로 반공포로석방을 생각하고, 이를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헌병총사령부를 통해 1953년 6월 18일 24시를 기해 유엔군포로수용소에 수용된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포로수용소로부터 26,930명의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휴전회담에 한국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반공포로석방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국들은 물론이고 공산군 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부터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모두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명예로운 휴전을 추구해왔던 미국으로서는 이제 한국을 달래야 될 입장에 서게 되었다.

3. 한미회담의 성과와 의의

반공포로석방의 소식을 접한 도쿄와 워싱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된 가운데 공산군 측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반공포로석방을 배신행위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타개책이 필요하였다. 미국은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인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서울로 파견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일행은 이승만 대통령과 전후 한국의 안보 및 전후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쿄를 경유하여 6월 25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한편 미국으로서는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공산군 측의 반응이 염려되었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유엔군이 한국 정부의 포로석방을 방관하였다고 비난하면서도 휴전회담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반공포로석방 자체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발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휴전을 원하고 있었다.

미국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으로 만일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을 거부

하고 전선에서 다시 공세를 취할 경우, 중국 본토로의 확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에 대한 공격목표까지 선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적은 어디까지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는 미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의 견해를 잘 알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여 2주간의 회담을 마친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국군의 20개 사단 증편, 그리고 2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약속하였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절대적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그것도 당당히 받아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었다.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7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휴대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를 전후하여 판문점에서도 7월 10일 휴전회담이 다시 재개되었다. 하지만 전선에서는 공산군의 마지막 공세인 7월 공세가 시작되었다. 중공군의 7월 공세는 휴전을 앞두고 화천발전소를 빼앗고, 한국군의 전력 약화와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하지만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는 화천 북방에 위치한 금성천 지역의 국군의 만곡부(彎曲部)만을 제거한 채 종결되었다. 그것은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공산군 측의 일종의 앙갚음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하면 감수할만한 수준이었다.

반공포로석방의 결과로 한국은 전후 안전보장과 민족의 생존에 필요한 상호방위조약을 미국과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6·25전쟁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이 피와 땀으로 확보한 최대의 성과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초였다.

(집필 : 남정옥)

주(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1989, 270-271쪽;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1984, 564쪽.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71쪽
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이하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로 통일)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211.
4)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p.4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97-399쪽.
5)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집문당, 1998, 182쪽.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97-399쪽;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587쪽.
7)「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공산군 측에게 병상포로의 교환을 제의한 서한(1953.2.22.)」,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 3년지』, 1954, C16쪽.
8)「소연방 각료회의 문건, 별첨 1(1953.3.19.)」, 외교부 역,『소련외교문서』제3권, 168-169쪽. 소련 각료회의에서는 병상포로의 귀환을 위해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스웨덴·스위스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9)「클라크 장군 서한에 대한 공산측 회답(1953.2.22.)」,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 3년지』, C16쪽.
1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9. 중국 외상 저우언라이는 1953년 3월 3일 유엔총회장 피어슨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서 병상포로교환을 환영한다고 하였다.「포로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안한 중공 외상 저우언라이 성명(1953.3.3.),『한국전란3년지』, C17쪽.
1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9. 중국 외상 저우언라이는 1953년 3월 3일 유엔총회장 피어슨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서 병상포로교환을 환영한다고 하였다.「포로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안한 중공 외상 저우언라이 성명(1953.3.3.),『한국전란3년지』, C17쪽.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1989, 257-258쪽.
1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56쪽.
14) *New York Times*, 1 Jun 195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의 포로』, 1996, 184쪽에서 재인용.
15)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의 포로』, 185쪽.
16)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14.
17) 1949년 제네바협약 제110조의 귀향시킬 포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현저히 감소될 것 같은 불치의 병상포로들. 둘째, 의사의 진단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병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능력이 현저히 감소될 병상포로들. 셋째,

그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능력이 계속적으로 현저히 감소될 자로서 현재 치료 중인 병상포로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14.

18)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14.
19) 「1953년 4월 6일자 미 국무부 공보」,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3년지』, C20-C21쪽.
20) 「1953년 4월 6일자 미 국무부 공보」,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3년지』, C26쪽.
2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85-186쪽.
22)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18-419.
2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2.
24)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 3년지』, C17쪽;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13.
25)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19.
26)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20.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62-263쪽.
28)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20.
29) 양대현, 『역사의 증언』, 277쪽.
3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2;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23.
31)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24.
3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3.
33)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3년지』, C39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65-266쪽;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4.
3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4.
3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5.
3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455쪽.
37) 양대현, 『역사의 증언』, 286-287쪽.
38)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3년지』, C41쪽.
39)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New York: Harper &Brothers, 1954), p.267.
40)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29.
41) 「포로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산군측에 제시한 유엔군측의 신제안」,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 3년지』, C41쪽;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8.
42)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Clark), Washington, 1953. 5. 22, *FRUS 1952-1954*, Vol.XV, pp.1082-1086.
4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18.

44)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30.

45)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30.

4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07.

47) 최덕신,『제2의 판문점은 어디로』, 청운문화사, 1968, 54-60쪽.

48)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한국전쟁과 휴전체제』, 181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77-278쪽.

4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458쪽.

50)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31.

51) 충돌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정에 대한 위반 혐의에 관하여 관계 국가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 절차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52) 국방부 정훈부,『한국전란3년지』, C45-C47쪽.

53)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32.

54)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461쪽.

55) 송효순,『대석방』, 신현실사, 1973, 206쪽.

56) 송효순,『대석방』, 206-207쪽;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의 포로』, 193-194쪽.

57) 대한민국 국방부,『國防部史』제1집, 1954, 318-319쪽.

58) 송효순,『대석방』, 207쪽.

5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의 포로』, 195쪽.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87쪽.

61) 송효순,『대석방』, 208쪽.

62) 송효순,『대석방』, 209쪽.

63) 송효순,『대석방』, 209쪽.

64) 송효순,『대석방』, 210쪽.

65) 송효순,『대석방』, 211쪽.

66)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의 포로』, 197쪽.

6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1.

68) 『동아일보』, 1953. 6. 18;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4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29.

69) 송효순,『대석방』, 214쪽.

70) 이 문제는 6월 12일부로 국방부 일반명령 제155호에 의해 명령 조치되었다.

71) 송효순,『대석방』, 216-217쪽.

72) 송효순,『대석방』, 217쪽.

73) 송효순,『대석방』, 219-220쪽.

74) 송효순,『대석방』, 219-220쪽.

7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203쪽.
76)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의 한인애국 포로수용소 접수에 대한 담화」,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 3년지』, C50쪽; 『부산일보』, 1953년 6월 18일.
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227쪽.
78) 백선엽, 『6·25한국전쟁 회고록 : 군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271쪽.
79) 백선엽, 『6·25한국전쟁 회고록 : 군과 나』, 272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221쪽.
80)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전원 석방에 대한 성명」,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3년지』, C49쪽; 『부산일보』, 1953년 6월 18일.
8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2.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1981, 66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222쪽;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281. 이날 클라크 장군은 서한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1981, 66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222쪽;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281. 이날 클라크 장군은 서한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8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3.
8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3.
8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3.
8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6.
8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3.
8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5.
9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5.
9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5.
92)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3년지』, C52-C54쪽.
93)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3년지』, C52-C54쪽.
9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231-232쪽.
9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4.
9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4.
9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5.

9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6.

99)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 3년지』, C98-100쪽;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8.

10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8;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C43-44쪽.

10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8

10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8.

10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9.

1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83쪽.

10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9.

10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39.

10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0.

108) Mesage Defense 942613 to CINCUNC, 30 June 195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0.

10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1.

110) Mesage Defense 942613 to CINCUNC, 30 June 195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2.

11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2.

11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3.

11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3.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85쪽.

11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3.

11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4.

11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5.

118)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288; 송효순,『대석방 : 실록 반공포로석방』, 신현실사, 1973, 311쪽.

11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5.

12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5.

12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5.

12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6.

12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6.

1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조약집 1945-1980』제1집, 1981, 669-670쪽.

125)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6권, 을유문화사, 1972, 122쪽; 송효순,『대석방 : 실록 반공포로석방』, 310쪽.

126) 육군 20개 사단의 확충안은 1953년 5월에 확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먼저 승인된 제12·15사단 외에 휴전이전까지 추가로 제20·21·22·25·26·27사단이 창설되고 제3군단사령부가 재창설되었다. 사단 확충계획과 병행하여 이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야전포병단과 전차부대 등이 확충되었는데 포병단은 휴전 이전까지 16개 부대로 증가되었으며, 전차부대는 3개 전차대대(9개 중대)로 증강되었다. 육군본부,『병과별부대역사』, 47-48쪽; 육군본부,『육군발전사』상, 404-4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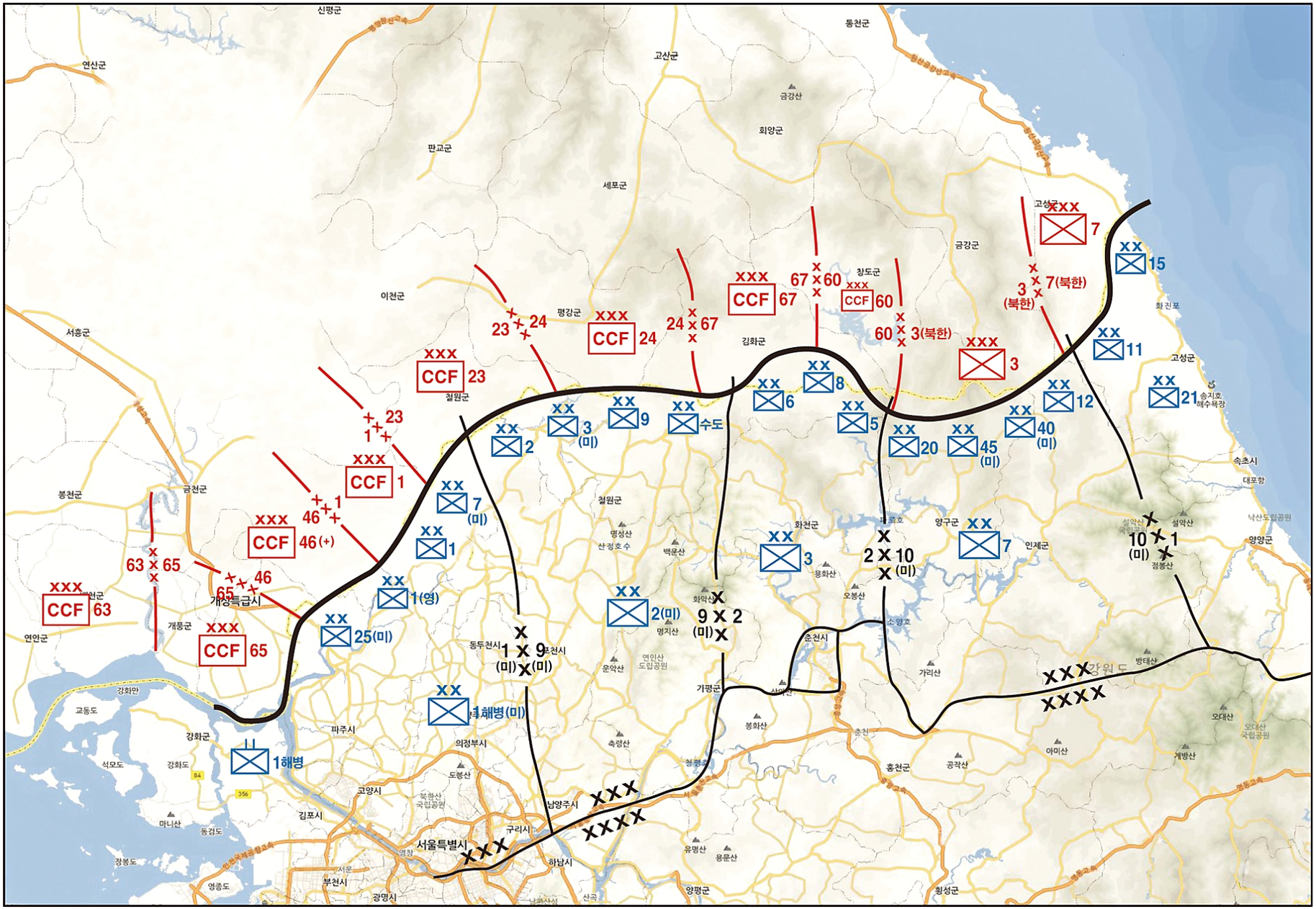
127) 국방부 정훈부,「휴전문제에 대한 한국측 대안에 관한 이대통령 성명 발표」(1953.6.6.),『한국전란3년지』, 1954, C43쪽.

128) 국방부 정훈부,「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휴전조인에 관하여 이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1953.6.7.),『한국전란 3년지』, C43쪽;『동아일보』, 1953년 6월 7일.

제 4 장 중공군의 6월 공세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제 3 절	6월 공세 제1단계
제 4 절	6월 공세 제2단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상황도 4-1> 중공군 6월 공세의 피아배치 현황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상황 요약

1953년 초의 전국(戰局)은 양측이 진지를 강화하며 탐색과 소부대전투만을 반복하는 가운데 휴전회담도 포로송환 문제로 인해 중단된 상황에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양측은 1952년 말까지 계속된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실시한 후 전선을 정비하면서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포로문제의 조기타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영향력의 행사, 휴전과 관련하여 보다 양호한 방어선의 확보, 정치 및 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종결 등 군사·정치적 목적에서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방어력의 강화와 공세역량에 주력하던 공산군 측은 1953년 3월로 접어들자 제한된 규모이나 전보다 많은 부대를 정면으로 추진하여 공세를 감행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 공산군 측의 공세는 4개월에 걸친 전선의 교착을 틈타 축적한 전력을 바탕으로 고지쟁탈전을 재개하고 유리한 거점을 마련하려는 기도였다. 공산군은 3월 1일 임진강 서남쪽으로부터 사미천 간의 방어선을 점령한 미 제2사단 예하의 프랑스대대를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미 제1군단 정면에서 압력을 가중함으로써 유엔군 측의 전진진지를 탈취하려 획책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스탈린의 사망과 4월 20일부터 시작한 상병포로교환을 계기로 4월 26일에 휴전협상의 본회담이 6개월 만에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상반기에 중대~대대규모에 이르는 병력으로 제한목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유리한 지형에 대한 선점을 도모하였다. 이어 6월 10일을 기해 하계공세를 개시

한 공산군은 미 제9군단 우익정면에 대한 견제공격과 함께 4개 사단을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2군단의 지경으로 투입하는 한편 제2군단 우익인 제5사단 정면에 집중하였다.

이때 국군 제2군단은 우인접 제20사단과 연계하여 북한강 북쪽에서 수도고지-지형능선-금성 남쪽에 이르는 전선에 제5·제8·제6사단을 전개하고 있었다. 공산군의 주공이 지향된 제5사단은 6월 14일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였으나, 통신과 측방병참선의 유지가 곤란해짐에 따라 북한강 남쪽으로 물러나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은 공산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제3사단 예하의 2개 연대를 제2군단에 배속하여 제5사단을 지원하였고, 공산군의 공세가 약화됨에 따라 미주리선 상의 전선을 재정비하였다.

반면에 유엔군 측은 협상을 통한 전쟁의 조기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작전의 확대를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수세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을 지연하며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 유엔군 측도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시도하였다. 국군 20개 사단에 대한 증강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만주폭격을 포함한 확전계획을 건의하였다. 또한 트루먼 행정부를 뒤이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압박전략을 신중히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군 측의 책략이 주효하여 제한전쟁이냐 확전이냐의 막바지 기로에서 공산군 측이 '5·25 최종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로 의제에 대한 극적인 타협도 가능하였고, 공산군의 마지막 공세를 분쇄함과 동시에 휴전조인에 이르게 되었다.

2. 작전지역의 특징

1953년 1월부터 7월에 걸쳐 펼쳐진 유엔군의 서부 및 중부전선 전투는 주로 임진강

-문산-전곡-운천-화천-양구-간성을 연하는 선의 남북지역이 주무대였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역으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고서저의 지세를 보여주고, 작전이 주로 진행된 여름철의 기상조건은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며, 장마로 인해 시계의 제한은 물론 부대의 기동 등 작전수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대략 2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투지역은 전반적으로 공자에게 불리하고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서부 전선

김포반도로부터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서(以西)지역을 아우르는 서부지역은 대체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과 비옥한 충적토, 간석지, 갯벌, 해안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임진강 북쪽의 개성 고지군과 임진강 남쪽의 파평산과 감악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하천은 경기 북부를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예성강과 마식령 부근에서 발원하여 파주를 지나 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임진강, 강원도 및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서해안으로 접어드는 한강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도시는 개성과 문산, 적성, 연천, 전곡 등으로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철로와 도로망이 종횡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주요 철로와 도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와 함께 개성-문산-서울을 잇는 1번 도로, 연천-동두천-의정부를 연결하는 3번 국도가 남북으로 그리고 문산-법원리-동두천을 잇는 도로가 동서로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의 기동이 가능하였다.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여름철인 6~7월은 불규칙적인 강우와 더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연일 계속된 장마로 시계의 제한은 물론 부대 기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등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서부지역은 습지와 하천, 갯벌 등의 천연장애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지만 종횡으로 발달된 도로망과 비교적 낮은 고지 사이로 발달된 개활지는 공격에 유리하였고, 특히 서울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중부 전선

중부 전선은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동(以東)으로부터 북한강 서안지역을 포함한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주 격전장이었던 금성돌출부 지역은 표고가 500~1,000m에 이르는 고지들이 횡격실을 이루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지역 내의 주요 지형은 좌로부터 저격능선, 552고지, 교암산(770고지), 지형능선, 수도고지(663고지), 949고지 및 973고지 등이 있고, 이 고지들을 중심으로 북방에는 오성산, 용학산 어은산 등이, 그리고 남방에는 대성산, 삼천봉, 적근산, 백암산, 백석산 등이 위치하였다. 이 고지들은 작전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북한강 및 금성천과 병행으로 종격실 능선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대의 공격에 유리하고 원거리 관측이 가능하였다.

중부전선 주격전장인 금성지역의 횡격실 지형(백암산 정상에서의 조망)

작전지역 내의 도로망은 북한강을 중심으로 이동지역은 지대가 험하고 좌우로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었으며, 남북으로 흐르는 북한강 계곡의 동안을 따라 개설된 100번 도로와 북한강 수로를 이용하는 하천 보급로뿐이었다. 북한강 이서지역은 화천-사방거리-주파령-금성을 잇는 17번 국도가 작전지역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119번 도로와 103번 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1)]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6~7월의 장마철에 발생하는 낮은 구름과 안개로 인해 항공지원에 많은 제한을 주었다. 특히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짙은 안개로 원거리 관측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기간 중 기온은 섭씨 10~29.5도에 풍향은 서북풍이 불었고, 월평균 강우량은 약 130㎜로 기간 중 계속되는 강우로 하천의 수심이 깊어져 작전에 제한을 주었다.[2)]

3) 중동부 전선

중동부지역은 북한강 동안으로부터 태백산맥 북부지역을 아우르며,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표고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협소한 계곡과 경사도가 높은 이 지역의 주요 고지는 어은산과 삼각산, 가칠봉과 백석산, 대우산과 대암산 등으로서, 직경 15~20cm 정도의 소나무와 잡목 그리고 잡초와 칡덩굴 등이 뒤섞여 우거져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이다. 주요 강과 하천은 북한강 상류가 동북쪽에서 서남방향으로 흐르며, 문등리 계곡을 따라 흐르는 수입천과 사태리 계곡의 소하천, 그리고 군량천 등이 화천저수지나 소양호로 흘러드는데[3)], 하천의 유속이 빠를 뿐 아니라 강우 시에는 하천의 깊이와 폭이 불시에 증가한다.

작전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인제와 원통 그리고 양구와 화천 등이고,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간성-인제-홍천-서울 간 44번 도로가 동서로, 화천-춘천-홍천간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 간 46번 도로 그리고 인제-현리-홍천을 잇는 451번 도로가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는 굴곡과 함께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악 1차로로서 차량 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작전기간 중 지역의 기상조건은 산악지대의 지세적인 특징과 내륙인 관계로 한서의 차가 심해 여름엔 더우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연평균 12.3℃이고, 최고와 최저 기온은 37℃~영하 32℃이었다.[4)]

결론적으로, 중동부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을 비롯한 각종 천연장애물이 산재해 있고, 종·횡적인 도로망이 제한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격에 불리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4) 동부 전선

태백산맥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은 서부의 경우 태백산맥에 연하여 표고 1,000~1,700m의 높은 산지가 주능선을 이룬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동부해안지대는 모래해안이 주를 이루며 내륙은 150m 이하의 구릉과 야산이 동해와 접하고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북쪽의 적벽산과 월비산, 351고지 등과 남쪽의 고황봉과 339고지, 향로봉과 건봉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주요 하천은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은 남강이 있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 신탄리 부근에서 다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성 근처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강폭은 평균 60~80m이나 수폭은 대략 20m 내외이며, 유속은 초속 1.8m로 기갑 및 차량부대의 기동을 제한하지만 도보부대의 도섭은 가능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고성과 통천 그리고 간성과 거진 등이며, 도로망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7번 도로와 강정-남강-사기점을 잇는 7002번 도로가 있다. 동해안 일대는 비교적 개활한 지형으로 도로망이 다소 발달되어 있으나, 내륙은 험준한 지세로 인해 인마의 통행이 가능한 산간소로 밖에 없고 우마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 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5)]

작전기간 중 이 지역의 기상조건은 여름철의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가끔 흐린 날씨와 비로 인해 주간에는 시계에 제한을 받았다. 특히 새벽에는 동해안 특유의 짙은 안개가 발생하여 지상관측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간헐적으로 항공 및 포병지원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온은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으로 겨울엔 포근하고 여름에 시원하였다.

결론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발달된 횡격실 능선과 종적 도로망의 제한, 협소한 기동 공간 등으로 인해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특히 해상과 산악지역을 통한 특수전부대의 침투 및 상륙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 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하계공세의 전략

1953년 4월 26일 휴전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보다 커진 반면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때 중국 수뇌부는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았고, 설령 정전이 성립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전장의 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휴전회담도 강력한 작전과 병행되어야만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6]

중공군 지도부는 유엔군의 공격은 희생이 큰 전선정면에 대한 공격대신 해·공군의 우세한 전력을 이용하여 동·서해안에서 상륙을 실시한 후 정면공격과 연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구작전과 적극방어'라는 기존의 작전을 고수하면서 대상륙작전의 준비를 1953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해안방어, 특히 서해안 방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7]

이러한 전략판단과 결정에 따라 중공군 지휘부는 1953년 3월말까지 추가 병력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대상륙 및 대공수작전의 방어에 중점을 둔 동·서해안 지역의 부대배치 조정을 완료하였다. 이와 아울러 서해안부대 연합지휘부와 동해안 지휘부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들 부대를 지휘하는 한편 철도공병사단으로 하여금 철도의 건설과 수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상륙작전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다.[8]

이처럼 대상륙작전을 완료한 1953년 4월 무렵 공산군 측의 병력과 화력은 대폭

강화되었고, 진지 또한 견고하게 구축되었으며, 작전물자도 충분하게 보유함으로써 사기도 크게 진작되었다. 하지만 새로이 투입된 7개 군단 1개 사단은 견고한 진지에 대한 공격작전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였다.[9]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 지휘부는 정전이 이루어질 경우 새롭게 투입된 증원 병력이 전투경험을 축적하고 부대를 단련시킬 기회를 상실할 것으로 판단, 모든 전선에서 중대급 이하 소규모 목표에 대한 선별적인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10]

이들은 1953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하계공세의 목적을 "적군을 섬멸하면서 부대의 단련과 경험을 축적하고, 휴전회담과 연계하여 협력하는데 있다. 아울러 현재의 방어상태를 적절히 개선하는데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공세의 기본정신은 "정면전선과 측후방의 방어가 견고하고 안정된 현 상황 하에서 대담하게 작전을 실시하고 반복쟁탈전을 전개하여 적을 대량살상하되, 반드시 충분한 준비 후에 공격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공세의 방침은 "작은 승리를 모으고, 여러 번의 승리로 대승을 거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격목표는 1개 대대규모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고, 공격 시마다 1~2개 소대에서 1~2개 중대 정도의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목표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보복적 반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격목표의 선택은 공격에 유리한 지형으로 병력과 화력의 집결과 전개가 용이하고 기습공격에 유리한 곳을 결정하게 하였다.

한편 반격작전은 통일과 분산이 상호 결합된 방법을 채택,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였고, 각 단계별 작전기간은 10일이고 휴식준비는 5일로 정하였다. 또한 공세 시기는 6월초에 개시하여 7월 초순에 종료할 예정이었고, 모든 준비는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11]

이와 같이 공산군의 하계공세의 목적과 방침은 한국정부의 휴전반대 의지를 꺾으려는 압력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공군의 부대훈련과 휴전회담 지원 그리고 그들의 방어선 개선 등에도 있었다. 공산군의 하계공세 개념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공산군의 하계공세 현황

단 계	기 간	투 입 부 대	주 공 방 향	비 고
제1단계	5.13~5.26	제23·24·67·60군	금성돌출부 전초선	전초전
제2단계	5.27~6.16	제46·1·23·24·67·60군, 북한군	금성돌출부 우견부	6월공세
제3단계	7.13~7.27	제46·1·23·16·24·68·54·60·21군, 북한군	금성돌출부 전지역	7월공세

2) 작전계획

중공군 하계공세계획 중 제1단계 공세작전의 기본 개념은 제2단계 및 제3단계 작전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공격방향도 주로 중부와 중동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국군 제2군단, 미 제10군단 지역의 금성돌출부를 지향하고 있었다. 하계공세를 위해 공산군은 전선정면 제1선에 중공군 7개군과 북한군 2개 군단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공세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중공군 지휘부는 각 병단의 주공 및 지원부대를 편성하고 주요 공격대상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9병단 예하의 제46군은 영국군 제1사단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9병단은 제24군이 중심이 되어 미 제3사단을 집중 공격하고, 제20병단은 제60군과 제67군이 북한강 일대에서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에 대한 공격을 담당토록 하였다.[12)]

<표 4-2> 중공군 병단별 공격계획

구 분	제19병단	제9병단	제20병단
공격대상	영국군 제1사단	미 제3사단	국군 제5·8사단
주공부대	제46군	제24군	제60·67군
지원부대	제40군 제120사단	제68군 제204사단	제12군 제33사단 제68군 제203사단
예비대	제63·64군 1개 사단	제47군 제140사단	제68군 제202사단

특히 하계공세의 주공 역할을 담당한 중공군 제20병단은 제67군과 제60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을 중점 공격하도록 결정하고 공세를 2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 공세는 5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중대급 이하의 목표에 대한 공격으로서, 제67군이 과호리 동남쪽 고지를 중점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한 후 고지를 사수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공세는 다시 두 방식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5월 20일경부터 30일 사이에 대대급 이하의 목표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제67군과 제60군이 율동 남산과 '방형산(方形山)'[13]을 중점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반격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대대급 이상의 목표에 대한 공격으로 제67군과 제60군이 좌수동의 남산 및 883고지를 중점 공격하여 점령한 후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었다.[14]

한편 제1선에 배치된 각 병단은 공세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공군은 대대급 7개, 중대급 17개, 소대급 32개 등 모두 56개의 공격목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정찰과 포로획득을 통해 병력과 화력의 배치는 물론 진지구축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에 적절한 전투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공격목표의 200m 전방에 갱도형 돌격출발진지, 즉 비밀잠복지역(屯兵洞)을 비밀리에 편성하거나 혹은 은폐지형에 잠복호를 구축하는 등 치밀하게 공세준비를 실시하였다.[15]

3) 지휘체계 및 전투편성

(1) 지휘체계

공산군은 한반도 국경 안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이라 함)'과 북한군의 모든 작전과 이에 관계되는 업무를 통일 지휘하기 위해 '조중연합사령부'를 편성하였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중공군사령부와 북한군 총참모부로 구성된 연합지휘기구[16]로서 중공군은 물론 북한군 및 모든 유격부대들을 지휘체계 하에 두었다.[17] 따라서 모든 작전은 조중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명령은 중공군사령부와 북한군 최고사령부를 경유하여 예하에 하달되었다.

중공군과 북한군 수뇌부, 김일성(중앙)과 펑더화이(우측 2번째)의 모습

중공군의 지휘 및 통제는 조중연합사령관 겸 중공군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중공군사령부는 6개 사령부(후방병참·공군·안둥방공구·철도운수·서해안·동해안사령부)와 3개 지휘소(포병·공병·장갑병지휘소), 그리고 정면부대인 3개 병단(제9·제19·제20병단)과 지원군 총예비대로 편성되었는데[18], 이들 조직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면부대의 각 병단사령관은 예하의 각 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최고사령관인 김일성(金日成)이 조중연합사령부 지휘계선 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산군 측의 작전지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내의 전쟁 전반을 지휘 및 통제하는 체계는 최고사령부에서 총참모부를 거쳐 예하의 전선사령부를 비롯한 해군사령부 및 공군사령부와 포병사령부, 그리고 후방행정사령부 등으로 이어져 있었다.[19] 특히, 전선작전의 총괄을 담당한 전선사령부는 정면부대와 서해안 및 동해안사령부에 편성된 북한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전선사령부의 지휘계선 상에 정면부대의 제3·

제7·제1군단과 서해안사령부의 제4군단 그리고 동해안사령부의 제2·제5군단이 편성되어 있었다.[20]

(2) 전투편성

공산군 측의 제1선의 작전을 담당한 정면부대는 중공군사령부 예하 제9·제19·제20병단과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 3개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중공군 제9병단은 제23·제24군과 포병 제7사단, 제19병단은 제1·제46·제63·제64·제65·제66군과 포병 제8사단, 그리고 제20병단은 제60·제67·제68군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북한군은 제1·제3·제7군단으로 편성되었다.

<표 4-3> 공산군 정면부대 전투서열

구 분	군	사 단	비 고
중공군 제19병단	제1군	제1·2·7사단	
	제46군	제133·136·120사단	제120사단 배속
	제63군	제187·188·189사단	제2선 부대
	제64군	제190·191·192사단	제2선 부대
	제65군	제193·194·195사단	
	포병	제8사단	
중공군 제9병단	제23군	제67·69·73사단	
	제24군	제70·72·74사단	
	포병	제7사단	
중공군 제20병단	제60군	제179·180·181·33사단	
	제67군	제199·200·201사단	
	제68군	제202·203·204사단	
북한군 전선사	제1군단	제8·9·47사단	제2선 부대
	제3군단	제1·15·45사단	
	제7군단	제3·7·37·46사단	

북한 내 해안방어의 통일된 지휘를 위해 설치된 해안방어사령부 중 서해안사령부는 중공군 제16·제38·제39·제40·제50·제54군과 포병 제1사단·탱크 제1사단·해군 쾌속정대대, 그리고 북한군 제4군단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동해안사령부는 중공군 제12·제15군과 북한군 제2·제5군단으로 이루어졌다.

<표 4-4> 공산군 해안사령부 전투서열

구 분		군 단	사 단	비 고
서해안사령부	중공군	제16군	제32·46·47사단	제2선 부대
		제38군	제112·113·114·137사단	제137사단 배속
		제39군	제115·116·117사단	
		제40군	제118·119사단	제2선 부대
		제50군	제148·149·150사단	
		제54군	제130·134·135사단	제2선 부대
		포병	제1사단	
		장갑병	탱크 제1·2·3연대	탱크 제1사단 겸
	북한군	제4군단	제4·5·10·105사단	
동해안사령부 (제3병단)	중공군	제12군	제31·34·35사단	제2선 부대
		제15군	제29·44·45사단	제2선 부대
	북한군	제2군단	제2·13·27사단	
		제5군단	제6·12·32사단	

중공지원군사령부에 편성된 포병지휘소는 포병 5개(제1·제2·제7·제8·제10) 사단과 로켓포 2개(제21·제22) 사단, 대전차포(제33사단) 및 고사포병(제61)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장갑병제1지휘소는 탱크 4개(제4·제5·제6연대 및 독립 제2) 연대로, 안둥방공구사령부는 고사포병 3개(제62·제63·제64) 사단과 도시방어고사포부대 4개 연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철도운수사령부는 9개 철도사단, 공병지휘소는 13개 공병대대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공군사령부는 8개(제3·제4·제6·제12·제14·제15·제16·제17)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중공군 총예비대는 제21·제47군과 철도병 제7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조직 중 서해안 및 동해안사령부와 공군사령부 그리고 철도운수사령부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연합지휘기구로 북한군이 부사령관을 담당하였다.[21]

한편 중공지원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을 살펴보면,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펑더화이(彭德懷)로서 조중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겸하였다. 그리고 사령관 대리 겸 정치위원 대리는 덩화(鄧華), 제2부사령관 양더즈(楊得志),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 그리고 참모장 리다(李達), 정치부주임 장난셩(張南生) 등이었다.

이외의 예하 사령부 및 지휘소의 주요 지휘관은 후방병참사령관 홍쉐즈(지원군사령부 부사령관 겸임)를 비롯하여 공군사령관 녜펑즈와 안둥 방공구사령관 청쥔, 철도운수사령관 류쥐잉, 포병지휘소사령관 가오춘신, 공병지휘소 사령관 탄산허, 장갑병지휘소 사령관 자오제 등으로서 다음의 <표 4-5>와 같다.

<표 4-5> 중공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지원군사령부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정치위원 겸임
	사령관대리	덩 화(鄧 華)	정치위원 대리
	제2부사령관	양더즈(楊得志)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	
	참모장	리 다(李 達)	
	정치부주임	장난셩(張南生)	
후방병참사령부	사령관	홍쉐즈(洪學智)	지원군부사령관 겸임
	정치위원	저우춘췐(周純全)	
	참모장	뤄 원(羅 文)	
공군사령부	사령관	녜펑즈(聶鳳智)	
	참모장	우 쑤(吳 肅)	
방공구사령부	사령관	청 쥔(成 鈞)	안둥(安東) 주둔
철도운수사령부	사령관	류쥐잉(劉居英)	
	정치위원	추이톈민(崔田民)	
포병지휘소	사령관	가오춘신(高存信)	
	정치위원	류 허(劉 何)	
	참모장	주 광(朱 光)	
공병지휘소	사령관	탄산허(譚善和)	정치위원 겸임
	참모장	수 왕(蘇 旺)	
장갑병지휘소	사령관	자오제(趙 杰)	전차 제3사단장 겸임

한편 북한 내 해안방어의 통일된 지휘를 위해 설치된 해안방어사령부 중 서해안사령부는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덩화를 비롯하여 제1부사령관 량싱추와 제2부사령관 우신췐, 북한측 부사령관 방호산(方虎山), 부정치위원 겸 정치부주임 두핑, 참모장 왕젱주 등이었다. 또한 동해안사령부는 사령관 쉬스여우를 비롯하여 부사령관 젱샤오샨, 북한측 부사령관 김웅(金雄), 부정치위원 두이더, 참모장 왕윈루이 등이었다.

<표 4-6> 중공군 해안사령부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서해안사령부	사령관	덩 화(鄧 華)	정치위원 겸임
	제1부사령관	량싱추(梁興初)	
	제2부사령관	우신췐(吳信泉)	
	부정치위원	두 핑(杜 平)	정치부주임 겸임
	참모장	왕젱주(王政柱)	
동해안사령부	사령관	쉬스여우(許世友)	제3병단장 겸임
	부사령관	젱샤오샨(曾紹山)	1953. 5월부
	부정치위원	두이더(杜義德)	
	참모장	왕윈루이(王蘊瑞)	
	정치부주임	류여우광(劉有光)	

해안방어사령부에 편성된 각 군장 및 주요 지휘관을 살펴보면, 서해안사령부는 제16군장 인셴빙, 제38군장 대리 장융후이, 제39군장 우신췐, 제40군장 원위청, 제50군장 쩡저셩, 제54군장 딩셩 등이었다. 그리고 동해안사령부는 제12군장 리젼, 제15군장 대리 리청팡 등으로서 다음의 <표 4-7>과 같다.

<표 4-7> 중공군 해안방어사령부 지휘부 편성

구 분	군 단	직 책	성 명	비 고
서해안사령부	제16군	군장	인셴빙(尹先炳)	
		참모장	양파셩(暘發生)	부군장 겸임
	제38군	군장	장융후이(江擁輝)	
		참모장	리지타이(李際泰)	
	제39군	군장	우신췐(吳信泉)	정치위원 겸임
		부참모장	션테빙(沈鐵兵)	
	제40군	군장	원위청(溫玉成)	정치위원 겸임
		참모장	예은팅(葉陰庭)	
	제50군	군장	쩡저셩(曾澤生)	
		참모장	쟝커청(蔣克誠)	
	제54군	군장	딩 셩(丁 盛)	
		부군장	우루이산(吳瑞山)	
동해안사령부	제12군	군장	리 젼(李 震)	
		참모장	샤오융인(蕭永銀)	부군장 겸임
	제15군	군장	리청팡(李成芳)	대리
		참모장	장윈위(張蘊鈺)	

제1선의 작전을 담당한 정면부대의 각 병단 주요 지휘관을 살펴보면, 제19병단은 사령관 황융셩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겸 참모장 젱쓰위와 부정치위원 겸 정치부주임 천셴루이 그리고 부참모장 쉐커중 등이었다. 또한 제9병단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 왕젠안, 부사령관 왕삐청, 참모장 후빙윈, 정치부주임 셰여우파 등이었으며, 제20병단은 사령관 정웨이산과 후임인 양용, 정치위원 왕핑, 참모장 샤오윈쥬와 부참모장 자오관잉 등 <표 4-8>과 같다.

전방부대에 편성된 제19병단 예하의 군장은 제1군장 황신팅, 제46군장 샤오웬푸, 제63군장 촨충비, 제64군장 탕쯔안, 제66군장 왕다오방이었다. 또한 제9병단의 군장은 제23군장 중궈추, 제24군장 장젼이었고, 제20병단은 제60군장 장주량, 제67군장 츄웨이, 제68군장 천팡런이었다. 이외의 각 군별 주요 지휘관은 다음의 <표 4-9>와 같다.

<표 4-8> 중공군 병단별 주요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제19병단사령부	사령관	황융셩(黃永勝)	
	참모장	쩡쓰위(曾思玉)	부사령관 겸임
	부정치위원	천셴루이(陳先瑞)	정치부주임 겸임
	부참모장	쉐커중(薛克忠)	
제9병단사령부	사령관	왕젠안(王建安)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왕삐청(王必成)	
	참모장	후빙윈(胡炳云)	
	정치부주임	셰여우파(謝有法)	
제20병단사령부	사령관	정웨이산(鄭維山)	
		양 용(楊 勇)	1951. 6. 이후
	정치위원	왕 핑(王 平)	
	참모장	샤오원쥬(蕭文玖)	
	부참모장	자오관잉(趙冠英)	

<표 4-9> 중공군 정면부대 지휘부 편성

구 분	군	직 책	성 명	비 고
제19병단	제1군	군장	황신팅(黃新廷)	
		참모장	양원안(楊文安)	
	제46군	군장	샤오웬푸(蕭全夫)	
		참모장	장완춘(張万春)	
	제63군	군장	촨충비(傳崇碧)	
		참모장	두위화(杜瑜華)	
	제64군	군장	탕쯔안(唐子安)	
		참모장	마웨이화(馬衛華)	부군장 겸임
	제65군	군장	왕다오방(王道邦)	정치위원 겸임
		참모장	정산셩(鄭三生)	
제9병단	제23군	군장	중궈추(鍾國楚)	
		참모장	쟈뤄위(賈若瑜)	
	제24군	군장	장 젼(張 震)	대리
		참모장	리쟈이(李家益)	
제20병단	제60군	군장	장주량(張祖諒)	
		참모장	덩스쥔(鄧仕俊)	부군장 겸임
	제67군	군장	츄웨이(邱 蔚)	
		참모장	류 수(劉 蘇)	
	제68군	군장	천팡런(陳仿仁)	
		참모장	숭쉐페이(宋學飛)	

중공군사령부 예하 총예비대의 주요 지휘관은 제21군장 우용상(吳泳湘)과 참모장 후웨이(胡煒), 제47군장 장텐윈(張天云)과 참모장 예젠민(葉建民) 등이었다.

<표 4-10>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구 분	군 단	사 단	연 대
최고사령부	제1군단	제8보병사단	제81·제82·제83보병연대, 제8포병연대
		제9보병사단	제85·제86·제87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7보병사단	제113·제123·제124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군단	제4보병사단	제5·제16·제18보병연대, 제4포병연대
		제5보병사단	제10·제11·제12보병연대, 제5포병연대
		제10보병사단	제25·제27·제29보병연대, 제160포병연대
		제105기계화사단	제1·제2·제3전차연대, 제208기갑훈련연대
		제23육전여단	
		제26육전여단	
	제7군단	제3보병사단	제7·제8·제9보병연대, 제31포병연대
		제7보병사단	제51·제53·제54보병연대, 제7포병연대
		제37보병사단	제74·제75·제76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6보병사단	제93·제94·제95보병연대, 제66포병연대
		제24육전여단	
전선사령부	제2군단	제2보병사단	제4·제6·제17보병연대, 제2포병연대
		제13보병사단	제19·제21·제23보병연대, 제13포병연대
		제27보병사단	제172·제173·제174보병연대, 제25포병연대
	제3군단	제1보병사단	제2·제3·제14보병연대, 제1포병연대
		제15보병사단	제45·제48·제50보병연대, 제15포병연대
		제45보병사단	제89·제90·제91보병연대, 제51포병연대
	제5군단	제6보병사단	제1·제13·제15보병연대, 제6포병연대
		제12보병사단	제30·제31·제32보병연대, 제12포병연대
		제32보병사단	제39·제40·제41보병연대, 포병연대
		제25육전여단	

한편 북한군은 전쟁 전반을 지휘 및 통제하기 위해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를 설치하고 예하의 전선사령부를 비롯한 해군사령부와 공군사령부, 포병사령부와 후방행정사령부, 정치국을 관장하였다. 전선사령부 예하에는 정면부대의 3개 군단(제1·제3·제7군단)과 서해안 및 동해안방어사령부에 소속된 3개 군단(제2·제4·제5군단)이 편성되어 있었다.[22] 앞의 <표 4-10>은 1953년 5월 당시의 북한군 전투서열을 나타내고 있다.[23]

작전기간 중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총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민족보위상 겸 부사령관인 김웅, 총참모장 남일,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광협이었고, 포병사령관과 후방행정사령관 등은 미상이었다.

<표 4-11>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총사령관	원수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부원수	김 웅(金 雄)	서해안사령부 부사령관 겸임
총참모부	총참모장	상장	남 일(南 一)	
전선사령부	사령관	상장	김광협(金光俠)	
	참모장	중장	최 광(崔 洸)	
포병사령부	사령관	-	-	
후방행정사령부	사령관	-	-	

그리고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 이권무, 제2군단장 최현, 제3군단장 유경수, 제4군단장 박정덕, 제5군단장 방호산, 제7군단장 이이법 중장이며, 각 군단 예하의 사단장과 여단장은 <표 4-12>와 같다.[24]

<표 4-12> 북한군 군단별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중장	리권무(李權武)	정면부대(제2선)
	제8사단장	소장	김봉문(金奉文)	
	제9사단장	소장	석정국	
	제47사단장	소장	백낙천	
제2군단	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동해안사령부 예속
	제2사단장	소장	이철용(李喆用)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제27사단장	소장	조 관(趙 寬)	
제3군단	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정면부대(제1선)
	제1사단장	소장	정 범(鄭 範)	
	제15사단장	소장	주 연(朱 燕)	
	제45사단장	소장	지병학(池炳學)	
제5군단	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동해안사령부 예속
	제6사단장	소장	최봉준(崔鳳俊)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32사단장	소장	김대홍(金大弘)	
	제25육전여단장	소장	김요만	
제4군단	군단장	중장	박정덕(朴正德)	서해안사령부 예속
	제4사단장	소장	송덕만(宋德萬)	
	제5사단장	소장	김창덕(金昌德)	
	제10사단장	소장	이방남(李芳南)	
	제105기계화사단장	소장	송영실	
	제23육전여단장	소장	오백룡(吳百龍)	
	제26육전여단장	소장	송인섭	
제7군단	군단장	중장	이이법(李離法)	정면부대(제1선)
	제3사단장	소장	오진우(吳振宇)	
	제7사단장	소장	이익성(李益成)	
	제37사단장	소장	하진동	
	제24육전여단장	소장	김성국	

4) 전투력 수준

중공군이 6월 공세를 단행할 무렵 공산군의 병력은 전쟁 이래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총 병력은 180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 중 중공군

지상부대가 20개 군이었고, 각종 특수병과와 후방 병참 등을 포함한 병력은 135만 명이었다. 북한군은 6개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병과의 병력을 모두 합해 45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25]

한편 정면 전선에 대한 공산군의 병력 전개는 제1선에 중공군 7개 군과 북한군 2개 군단이, 제2선에 중공군 3개 군과 북한군 1개 군단이 투입되었다. 예성강 하구로부터 북한강 동안의 문등리까지를 담당한 중공군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제19병단은 예성강 하구로부터 삭녕 동쪽의 양지촌에 이르는 지역에 예하의 제65·제46·제1군을 제1선에 배치하고 제63군과 제64군을 제2선에 두었다.

또한 제9병단은 석현동 이북에서 주자동 일대에 예하의 제23군과 제24군을, 제20병단은 아심리에서 북한강 동쪽의 문등리 지역에 제67군과 제60군을 포진시키고 별도로 제68군을 제2선에 두었다. 그리고 북한강 동안의 문등리에서 동해안의 고성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한 북한군은 전선사령부 예하의 제3군단과 제7군단을 배치하고 제1군단을 제2선에 두었다.[26]

<표 4-13> 공산군 전선정면 배치현황

중공군			북한군
예성강 하구 ~ 북한강 동안(문등리)			문등리 ~ 고성
제19병단	제9병단	제20병단	전선사령부
제65·제46·제1군	제23·제24군	제67·제60군	제3·제7군단
제63·제64군	-	제68군	제1군단

해안방어에 있어 이남포로부터 용암포에 이르는 서해안 제1선에는 중공군 3개 군(제38·제39·제50군)과 북한군 1개 군단(제4군단)이 배치되었고 제2선에는 중공군 3개 군(제16·제40·제54군)이 위치하였다. 또한 통천에서 서호진에 이르는 동해안 제1선 방어는 북한군 2개 군단(제2·제5군단)이 담당하였고, 중공군 2개 군(제12·제15군)이 제2선에 위치하였다.[27]

<표 4-14> 공산군 해안방어 배치현황

구 분	서해안방어사령부	동해안방어사령부
정 면	이남포~해주~용암포	통천~원산~서호진
제1선	• 중공군 제38·제39·제50군	
	• 북한군 제4군단	• 북한군 제2·제5군단
제2선	• 중공군 제16·제40·제54군	• 중공군 제12·제15군

2. 유엔군 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1953년에 접어들어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기존의 제한목표공격 전략을 확전전략으로 전환하는 한편 항공압박작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공산군 측이 휴회기를 이용하여 군사력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데 반해, 유엔군 측의 제한목표공격 전략은 공산측을 휴전협상으로 끌어들이는 강제력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중 확전전략은 1953년 1월 21일에 출범한 아이젠하워 정부의 기존정책을 대신할 정책의 모색과 결부되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에 관한 미국의 기존 목표는 종국적으로는 통일이며, 우선은 소련과 대만 그리고 중공의 유엔의석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NSC 118/2로 채택되어 있었다.[28] 이에 따라 휴전은 한국정부가 38도선 이남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군을 북한군의 재침을 억제할 수 있도록 증강하면서 외국군의 점진적 철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휴전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은 확전가능성에 대비하고 가용부대 범위

내에서 군사작전 규모를 증대하며, 북진을 제한하는 사항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내 공군기지에 대한 폭격은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유보되었고,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도 재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었다.[29] 다시 말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38도선 북쪽의 현 접촉선에서 휴전을 추구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북진작전을 전개하되, 만주나 중국으로의 확전은 재검토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명예로운 조기 휴전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모색하기 위해 1952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전선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조그만 고지에 대한 소규모 공격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또한 "지상 작전이 계속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확신하며 새로운 방책의 선택과 적용을 강조하였다.[30]

이에 따라 1953년 2월부터 새로운 대한정책의 모색, 특히 전쟁의 조기종결을 위한 방책의 강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무렵 공산군의 군사력은 유엔군사령관이 놀랄 정도로 증강되어 있었다. 1953년 2월 11일 클라크는 공산군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전선의 위험증가에 미 합참이 관심을 경주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중공 지상군 1~3개 군이 입한(入韓)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만주기지에 중공 및 북한의 공군력이 현저하게 증강되어 유엔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31]

다음으로는 "적이 개성을 군사작전기지로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적은 개성을 서부전선의 부대를 정리하고 재보급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대부대의 집결은 물론 포병기갑부대도 주둔중이며, 중공군 몇 개 군의 지휘소도 위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32]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적정의 변화로 이미 4개월 전에 수립된 유엔군사령부 작전계획 8-52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합동참모본부와 대응방안의 강구를 협의하였다. 이 계획은 확전조치를 통해 공산군 측이 유엔군의 휴전조건에 응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전선을 평양-원산선까지 추진하고, ② 중국과 만주를 폭격하며, ③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함은 물론 ④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제한사항의 제거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33]

클라크 장군은 점증하는 공산군의 위협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대응방안으로 무엇보다 가용부대로써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 및 군수품을 언제나 완전편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병력증강과 관련해서는 미군 및 유엔군의 증원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국군 20개 사단을 증편하는 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하여 결국 4월 22일에 이를 확정지었다.[34]

이는 현실적으로 공산군의 전력증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 후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하였다. 특히 휴전이 성립되면 중장비의 도입이 협정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군의 증강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 1일 제3군단이 창설된데 이어 6월 18일 제26사단과 제27사단의 창설로 전쟁발발 3주년까지 8개 사단이 추가 창설됨으로써 국군은 3개 군단 18개 사단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35]

공산군의 공중전력 위협에 관해 합참은 자동적으로 만주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공산군의 공중공격 규모가 유엔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한반도 밖의 공산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건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공산공군의 위협과 개성지역의 성역 남용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회의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공산군의 군사력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강구와 동시에 신정부가 NSC 118/2의 대안으로 검토해 온 한국전쟁의 해결방책인 NSC 147이 1953년 4월 2일 성안되어 4~5월 중에 대통령과 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되었다. 이는 미국이 전쟁을 군사적으로 확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결정해야 할 정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대안은 당초 1953년 3월 27일 미 합참이 제출한 것으로서 6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중 A·B·C 3개 방안은 전쟁을 한반도로 국한시키는 것이고, D·E·F 3개 방안은 전쟁을 중국 본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이들 방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A안 : 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본질적으로 현행 수준으로 계속하는 한편 한국군을 증강한다.
② B안 : 지상작전의 확대를 고려함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해·공군 작전을 계속한다.
③ C안 : 협조된 지상작전을 전개하여 한반도의 허리부분(평양-원산)에 방어선을 설치하되, 이와 더불어 공세적 해·공군작전을 계속한다.
④ D안 : 만주와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중폭격과 해상봉쇄를 포함하여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지상작전도 강화한다.
⑤ E안 : D안에 추가하여 한반도의 허리 부위로 지상작전을 전개한다.
⑥ F안 :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공중폭격을 포함하여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하여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구축(驅逐)한다.[36]

2) 작전계획

NSC 147의 방안은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합동참모본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5월 20일 합참이 최종안으로 제시하여 합의를 본 휴전협정이 실패할 경우 적용할 방책은 대안 D·E·F를 통합한 것이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국과 만주에 대한 직접적인 해·공군작전과 대체로 한국의 허리 부분에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한 협조된 공세작전을 통합하여 적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 강화하며,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전을 준비한다.
> a. 한국에서 정예의 공산 군사력을 파괴한다.
> b. 한국이나 극동에서 또 다른 침략을 위한 적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 c. 미국-유엔의 조건으로 적이 휴전을 수락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다.
> d. 한국군이 작전에서 더 큰 책임을 맡도록 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37]

이 방안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계획 8-52의 부대소요 수정은 물론 그 계획 중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검토가 요망되었다. 이에 따라 이 방책은 유엔군사령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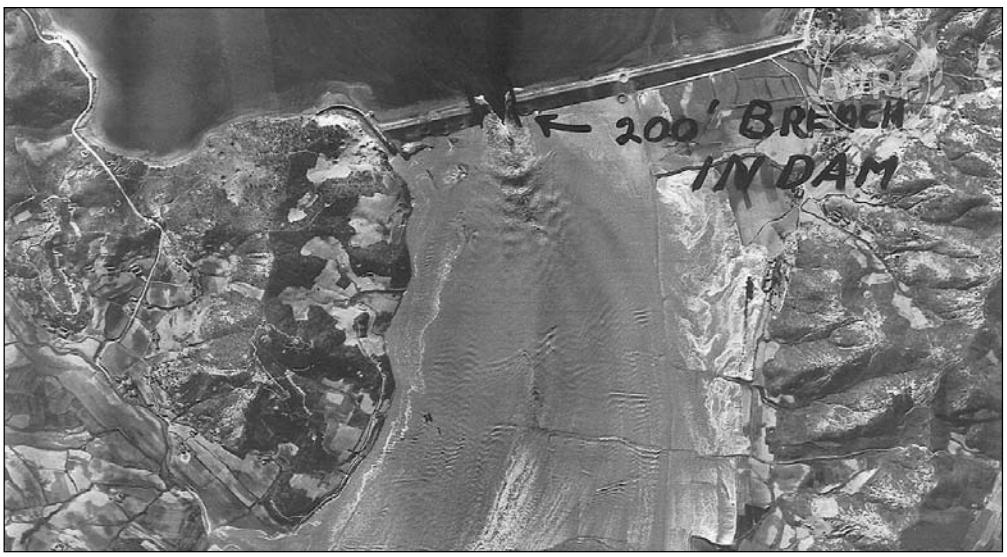
태평양사령관, 전략공군사령관에게 통보되었으며, 클라크 장군은 이들의 협조를 얻어 그의 작전계획 8-52의 수정에 착수하였다.[38]

여기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계획 8-52나 NSC 147을 성안하면서 핵무기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초기인 1950년 7월부터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였고, 중공군 개입 시에는 전술 핵무기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후 가상타격훈련까지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39]

그러나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을 계속 지연시키자 아이젠하워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핵무기 운용문제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1953년 2월 11일 국가안보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자신이 개성에 대해 전술핵무기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공산군은 이곳이 중립지대란 점을 악용하여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켰으며,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점을 우려스럽게 지적하였다.[40] 이를 발판으로 한 공산군의 공격은 서울을 방어하는데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이의 사용계획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위원회에서 1953년 3~4월 NSC 147을 준비하는 동안 전쟁의 종결수단의 하나로 신중히 검토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판문점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에 은연 중 암시하였다.[41] 또한 NSC 147 내용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결을 위한 극단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중국과 소련으로 흘려보냈다. 결국 1953년 초 아이젠하워 정부의 핵무기 사용책략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스탈린의 사망이 한국전쟁을 확전시키는 대신 휴전회담을 촉진시키는 촉매로 작용하였다.[42]

유엔군 측은 휴전의 조기실현을 위해 '핵위협' 외에도 항공압박(Air Pressure)작전을 수립, 북한지역의 저수지 폭파로까지 확대하였다.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공군은 공산공군을 청천강 북쪽에 묶어놓고 항공압박작전의 일환으로 1953년 2월에 수풍발전소를 세 번에 걸쳐 폭격한데 이어 5~6월에는 북한지역의 주요 저수지를 폭격하였다. 이는 북한의 농업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엔군 측의 항공압박작전에 의해 폭파된 자산댐(평양 북방 40㎞ 지점)

유보해왔으나, 이것의 폭파가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전의를 저하시켜 휴전조건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최후의 선택이었다.

유엔공군은 1953년 5월 15일과 16일에 자산저수지를 폭파하였다. 이로 인해 군우리-순천-평양간의 3개 철교를 휩쓸어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5월 21일과 29일에는 권가저수지를 폭격하였다. 또한 6월에는 구성과 덕상저수지마저 폭격하였다. 그러나 적은 자산저수지의 폭파로 막대한 수해를 입자, 저수지 물을 방류함으로써 이후의 저수지 폭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43] 하지만 수력발전소 파괴와 저수지 폭파 등 항공압박작전은 공산군에게 경제·군사·심리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핵위협'과 '항공압박'은 공산군을 굴복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지휘체계 및 전투편성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모든 유엔군의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는 극동군

및 유엔군사령부로서 예하에 미 제8군을 편성하고 있었다. 극동군 및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은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겸 참모장인 히키(Doyle O. Hickey) 중장,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과 후임인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 그리고 극동해군사령관 브리스코(Robert C. Briscoe) 중장과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 극동군 및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과 전투서열은 <표 4-15>와 같다.[44]

<표 4-15> 극동/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극동/유엔군 사령부	사령관	대장	Mark W. Clark	6. 10부 대장 승진
	참모장	중장	Doyle O. Hickey	부사령관 겸임
	부참모장	소장	William S. Lawton	육군 담당
		소장	Mickey Moore	공군 담당
		소장	Thomas C. Ragan	해군 담당
	인사참모	소장	Bryan L. Milburn	
	정보참모	소장	Riley F. Ennis	
	작전참모	소장	Gilman C. Mudgett	
	군수참모	소장	Lorenzo S. Sabin	
	민사참모	소장	B. Hall Hanlon	
극동육군사령부	사령관	소장	Thomas S. Harrold	
미 제8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James A. Van Fleet	
		대장	Maxwell D. Taylor	1953. 2. 11부
	참모장	준장	Paul D. Harkins	
극동해군사령부	사령관	중장	Robert C. Briscoe	
제7함대사령부	사령관	중장	Joseph J. Clark	
극동공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제5공군사령부	사령관	중장	Glenn O. Barcus	

작전기간 중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는 미 제8군사령부는 예하에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제10군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 등 5개 군단을 편성하고 있었다.

서부전선의 방어정면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제7·제25보병사단, 그리고 영연방 제1사단과 한국군 제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예하에 제1·제5·제7 및 제11포병연대를, 미 제7보병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와 배속된 콜롬비아 대대 및 에티오피아 대대를, 그리고 미 제25사단은 제14·제27·제35연대와 배속된 터키 여단을 예하에 두었다.[45]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 제28·제29보병여단과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을, 또한 한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를 예하에 두었다.[46]

유엔군사령부 수뇌부인 리지웨이(왼쪽), 밴플리트(중앙), 클라크 장군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클라크(Bruce C. Clarke)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1해병사단장 폴락(Edwin A. Pollock) 소장과 후임인 페이트(Randolph C. Pate) 소장, 미 제7보병사단장 스미스(Wayne C. Smith) 소장과 후임인 투루도(Arthur G. Trudeau) 소장, 미 제25보병사단장 윌리엄스(Sammuel T. Williams)

소장과 후임인 헤스(Louis T. Heath) 소장, 영연방 제1사단장 웨스트(M.M.A.R. West) 소장과 국군 제1사단장 김동빈 준장 등 이었다.[47] 미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미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군단	군단장	중장	Bruce C. Clarke	1953. 4. 11부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Edwin A. Pollock	
		소장	Randolph C. Pate	1953. 6. 16부
	제1연대장	대령	Walter F. Layer	
	제5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연대장	대령	Heman Nickerson, Jr.	
	제11포병연대장	대령	Joseph L. Winecoff	
미 제7보병사단	사단장	소장	Wayne C. Smith	
		소장	Arthur G. Trudeau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에티오피아대대장	중령	Wolde Y. Shitta	배속부대
	콜롬비아대대장	중령	Alberto Ruiz Novoa	배속부대
		중령	Carlos Ortiz Torres	1953. 6. 25부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Sammuel T. Williams	
		소장	Louis T. Heath	1953. 6. 27부
	제1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터키여단장	준장	Sirri Acar	배속부대
영연방 제1사단	사단장	소장	M.M.A.R. West	
	영 제28여단장	준장	T. J. Daly	1953. 3까지
	영 제29여단장	준장	D. A. Kendrew	
	캐나다 제25여단장	준장	J. V. Allard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소장	박임항(朴林恒)	
		준장	김동빈(金東斌)	1953. 5. 5부
	제11연대장	대령	최주종(崔周鍾)	
	제12연대장	대령	이길영(李吉泳)	
	제15연대장	대령	송호림(宋虎林)	

중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2·제3사단과 한국군 수도·제2·제9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보병사단은 제9·제23·제38연대와 배속된 프랑스대대 및 네덜란드대대 그리고 타일랜드대대를, 미 제3사단은 제7·제15·제65연대와 배속된 벨지움대대 및 그리스대대를 각각 예하에 두었다. 그리고 한국군 수도사단은 제1·제26보병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제2보병사단은 제17·제31·제32보병연대를, 그리고 제9사단은 제28·제29·제30연대를 예하에 편성하였다.[48]

<표 4-17> 미 제9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Reuben E. Jenkins	
	참모장	준장	Lawrence R. Dewey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William L. Barriger	
	제9연대장	대령	Wilbur Wilson	
	제23연대장	대령	George C. Mergens	
	제38연대장	대령	William F. Kernan	
	프랑스대대장	중령	Germiny	배속부대
	네덜란드대대장	중령	C. M. Schilperoord	배속부대
	타일랜드대대장	중령	Parti Yotesakrai	1953. 5. 20부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George W. Symthe	
		소장	Eugene W. Ridings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벨지움대대장	중령	Gathy	배속부대
	그리스대대장	중령	Georgios Koumanakos	배속부대
국군 수도사단	사단장	소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대령	최세인(崔世寅)	
	제26연대장	대령	은석표(殷碩杓)	
	제1기갑연대장	대령	육근수(陸根洙)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김웅수(金雄洙)	
	제17연대장	대령	김필상(金弼相)	
	제31연대장	대령	조성래(趙成來)	
	제32연대장	대령	강홍모(姜弘模)	
국군 제9사단	사단장	소장	이한림(李翰林)	
	제28연대장	대령	윤태호(尹泰皓)	
	제29연대장	대령	문중섭(文重燮)	
	제30연대장	대령	조연표(趙淵表)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젠킨스(Reuben E. Jenkins) 중장과 참모장 듀이 준장(Lawrence R. Dewey)을 비롯하여 미 제2사단장 배리거(William L. Barriger) 소장, 미 제3사단장 심스(George W. Symthe) 소장과 후임인 리딩스(Eugene W. Ridings) 소장, 한국군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 국군 제2사단장 김웅수 준장과 국군 제9사단장 이한림 소장 등이었다.[49] 미 제9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앞의 <표 4-17>과 같다.

중동부전선의 좌전방을 담당한 한국군 제2군단은 한국군 제3·제5·제6·제8사단으로 편성되었다. 한국군 제3사단은 제18·제22·제23연대를,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그리고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예하에 각각 두었다.[50]

국군 제2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정일권 중장을 비롯하여 제3사단장 임선하 소장, 제5사단장 최홍희 준장과 후임인 김종갑 소장 및 박병권 소장, 제6사단장 백인엽 소장 및 후임인 김점곤 준장, 그리고 제8사단장 이명재 준장 및 후임인 송요찬 소장 등이었다. 국군 제2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4-18>과 같다.

<표 4-18> 국군 제2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2군단	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국군 제3사단	사단장	소장	임선하(林善河)	
	제18연대장	대령	박경원(朴敬遠)	
	제22연대장	대령	장호진(張好珍)	
	제23연대장	대령	박 철(朴 徹)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최홍희(崔泓熙)	
		소장	김종갑(金鍾甲)	1953. 6. 15부
		소장	박병권(朴炳權)	1953. 6. 29부
	제27연대장	대령	최영규(崔英圭)	
	제35연대장	중령	박선용(朴善龍)	
		대령	박창원(朴昌遠)	1953. 6. 1부
	제36연대장	대령	고광도(高光道)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김점곤(金點坤)	
	제2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7연대장	대령	한관흥(韓官興)	
	제19연대장	대령	김한주(金漢柱)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이명재(李明載)	1953. 5. 21부
		소장	송요찬(宋堯讚)	1953. 6. 16부
	제10연대장	중령	이관식(李寬植)	1953. 7. 16부
	제16연대장	대령	안병건(安秉健)	
	제21연대장	대령	공국진(孔國鎭)	
		대령	성정모(成正模)	1953. 5. 5부

중동부전선의 우전방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은 미 제40·제45보병사단과 한국군 제7·제12·제20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40보병사단은 예하에 제160·제223·제224연대를 두었고, 미 제45보병사단은 제179·제180·제279연대와 배속된 필리핀 제14대대전투단을 두었다. 또한 국군 제7보병사단은 제3·제5·제8연대를, 국군 제12보병사단은 제37·제51·제52연대를, 제20보병사단은 제60·제61·제62연대를 예하에 두었다.[51]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화이트(Issac D. White)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40사단장 게이더(Ridgely Gaither) 소장, 미 제45보병사단장 진더(Philip Ginder) 준장, 국군 제7사단장 김용배 준장과 제12사단장 윤춘근 준장, 그리고 제20사단장 유흥수 준장과 후임인 송석하 준장 등이었다. 미 제10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4-19>와 같다.[52]

한편 동부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국군 제11·제15사단과 예비인 제2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국군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제15사단은 제38·제39·제50연대를, 그리고 제21사단은 제63·제65·제66연대를 예하에 각각 두었다.[53]

<표 4-19>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중장	Issac. D. White	
미 제40사단	사단장	소장	Ridgely Gaither	
	제160연대장	대령	Elmer C. Leagor	
	제223연대장	대령	Louis V. Truman	
	제224연대장	대령	Hugh P. Harris	
미 제45사단	사단장	준장	Philip Ginder	
	제179연대장	대령	Joseph C. Sandlin	
	제180연대장	대령	Ellis B. Ritchie	
	제279연대장	대령	Preston J.C. Murphy	
	필리핀대대장	중령	Nicanor Jimenez	배속부대
국군 제7사단	사단장	준장	김용배(金容培)	
	제3연대장	대령	유중수(柳重秀)	
	제5연대장	대령	손창규(孫昌圭)	
	제8연대장	대령	이병형(李秉衡)	
국군 제12사단	사단장	준장	윤춘근(尹春根)	
	제37연대장	대령	김재명(金在明)	
	제51연대장	대령	김 헌(金 憲)	
	제52연대장	대령	장호강(張虎崗)	
국군 제20사단	사단장	준장	유흥수(劉興守)	
		준장	송석하(宋錫夏)	1953. 5. 27부
	제60연대장	대령	박춘성(朴春成)	
			채명신(蔡命新)	1953. 5. 27부
	제61연대장	대령	김인철(金仁哲)	
	제62연대장	대령	홍순룡(洪淳龍)	
		중령	이재기(李再起)	1953. 6. 27부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이형근 중장을 비롯하여 제11사단장 임부택 준장, 제15사단장 이정석 준장과 후임인 백인엽 소장 및 최영희 소장 그리고 제21사단장 민기식 소장이었다. 국군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4-20>과 같다.

<표 4-20>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중장	이형근(李亨根)	
국군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임부택(林富澤)	
	제9연대장	대령	김영하(金永夏)	
	제13연대장	대령	박응규(朴應奎)	
	제20연대장	대령	유원식(柳源植)	
국군 제15사단	사단장	준장	이정석(李貞錫)	
		소장	백인엽(白仁燁)	1953. 6. 13부
		소장	최영희(崔榮喜)	1953. 6. 26부
	제38연대장	대령	이동화(李東和)	
		대령	유재성(劉載成)	1953. 6. 17부
	제39연대장	대령	박인용(朴仁勇)	
		대령	김진위(金振暐)	1953. 6. 20부
	제50연대장	대령	조원영(趙原英)	
국군 제21사단	사단장	소장	민기식(閔機植)	
	제63연대장	대령	이현진(李賢進)	
		대령	한순화(韓順華)	1953. 5. 5부
	제65연대장	대령	김선규(金璿圭)	
	제66연대장	대령	안민일(安玟一)	

이 외에도 육군본부는 국군 제22사단과 제25사단, 그리고 북부지구경비사령부를 직할로 편성하고 있었으며, 주요 지휘관은 제22사단장 박기병 소장과 제25사단장 문용채 준장이었다.[54]

4) 전투력 수준

공산군의 하계공세가 개시될 무렵의 유엔군의 전력은 한국군 3개 군단 14개 사단(2개 사단 육군본부 직할)과 미군 3개 군단 7개 사단이 주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외에 영국군 2개 여단과 캐나다군 1개 여단으로 편성된 영연방 1개 사단과 터키

여단, 그리고 대대 및 연대규모의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태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부대가 참전하고 있었다.[55]

이 무렵 유엔군의 총병력은 720,840명으로서 한국군 452,000명과 미군 234,280명 그리고 영국군을 비롯한 기타 유엔군 34,560명이었다.[56] 이들 전체 병력 중 미 제8군사령관이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총 244,000명이었다. 전선에 전개된 병력은 미군 125,500명과 유엔군 18,500명 그리고 한국군 70,000명 등 214,000명이었고, 예비병력은 미군 4,500명과 유엔군 5,000명 그리고 한국군 20,500명 등 30,000명이었다.[57]

또한 국군과 유엔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는 야포 1,950문 및 박격포 1,660문, 대전차포 1,165문, 전차 및 자주포 1,100문, 항공기 1,827대 등이었다. 따라서 공산군과의 병력대비 시 병력 면에선 공산군이 대체로 2:1로 우세하였으며, 화력 면에서는 유엔군이 전차 및 자주포와 항공기 등에서 1.5~2:1로 우세한 반면 야포 및 박격포 그리고 고사포 등은 2~5:1로 공산군이 우위를 점하였다.[58]

제 3 절 6월 공세 제1단계

중공군의 최후 하계공세는 195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개되었으나, 준비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53년 3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중공군은 이미 1월과 2월에 전력증강과 진지공사에 주력한 다음 겨울이 지나고 3월에 접어들자 작전에 양호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유엔군의 전초, 특히 서부전선의 유엔군 전초진지에 대하여 제한된 규모로 집중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중공군은 3월 3일 미 제2사단의 전초인 사미촌 부근의 후크(Hook) 고지를 공격한데 이어 3월 하순에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3월 17일에도 미 제2사단의 방어선상에 위치한 고왕산(355m, Little Gibraltar)을 공격하였으나,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완강하게 저항한 미 제9연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중공군의 공격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3월 23일 중공군은 미 제7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역곡천 남안의 불모고지(275m)와 포크찹 고지(234m)를 공격하였다.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불모고지에 배치된 콜롬비아 대대와 포크찹 고지의 미 제31연대 제3대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대대는 이날 밤 불모고지의 전초중대가 며칠 동안 계속된 중공군의 포격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교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때를 노린 중공군은 대대병력을 투입하여 콜롬비아 대대를 공격하는 동시에 2개 중대병력으로 포크찹 고지를 공격하였다.

중공군의 기습에 허를 찔린 콜롬비아 대대의 A중대와 B중대는 전열을 정비한 후 격렬하게 백병전을 펼쳤으나, 결과적으로 전세의 열세로 고지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사단은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사단 예비까지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피탈된 고지를 탈환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포크찹 고지의 미 제3

대대도 중공군의 피상공격에 밀려 고지에서 후퇴하였으나,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비중대로 역습을 실시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새로 사단장으로 부임한 트루도(Arthur G. Trudeau) 소장은 며칠 동안 공격준비를 실시한 후 다시 불모고지를 탈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전술적 가치도 없는 전초진지를 그보다 값비싼 인적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미 제8군사령관의 취지에 따라 이 공격계획은 취소되었다.

유엔군 전초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양상은 더욱 치열해져갔다. 3월 26일 중공군은 미 제1해병사단 제5연대의 전초인 베가스(157m, Vegas)와 레노(148m, Reno), 그리고 카슨(Carson)에 공격을 집중하였다. 판문점 북동쪽 16㎞ 지점에 위치한 이들 전초에서는 격렬한 근접전투가 전개되었고, 중공군은 베가스와 레노 전초를 점령하였다. 이에 미 제5해병연대는 야간을 이용하여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적이 야포 및 박격포와 소화기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

다음날인 3월 27일 연대는 증강된 1개 대대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가용화력으로 적진을 공격한 후 다음날 다시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 공격에서 연대는 레노 전초를 포기하고 베가스 전초에만 2개 대대를 집중한 결과, 고지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어진 중공군의 반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유지하였다. 이 전투에서 피아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베가스 전초는 피로써 지켜진 고지였다. 이는 고지의 전술적 가치보다는 피아간 상대의 방어의지와 능력을 시험한 데 따른 것이었다.

베가스 고지 전투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공군의 전초진지 공격은 5월 중순에 다시 시작되었다. 3월 공격의 주목적이 공세 이전의 신호로서 유엔군 전력의 탐색에 있었다면, 5월의 공격은 그들의 하계공세계획의 제1단계 작전으로서 제2단계 및 제3단계 작전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3월의 공격이 주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에 집중된 반면, 5월의 공격은 대상이 주로 동부와 중동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국군 제2군단, 미 제10군단에 지향되었고 특히 금성돌출부로 집중되었다.

포격지원을 준비중인 중공군 포병

중공군의 *하계공세*가 단행될 무렵의 전선은 한강 하구 - 장단 - 판문점-수욱시-철원 백마고지-김화 저격능선-금성(남단)-교암산-관망산-949고지-내곡-황기-남강-동해안 감호를 연하는 선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부전선의 화천 북방 전선이 금성 쪽으로 불거져 이 부분의 전선을 '금성돌출부'라 칭하였다.

금성돌출부는 김화 저격능선-금성 남쪽 중치령·회고개-교암산-지형능선-수도고지-949고지-973고지-883고지를 연하여 형성되었다. 이 돌출부는 폭이 40㎞로 좌우의 인접한 전선보다 최대 10㎞ 정도 북쪽으로 불거져 있었으며, 돌출부의 정점은 금성에 근접해 있었다. 이 지역은 유엔군이 1951년 추계공세 당시 확보하였고, 1952년 공산군의 추계공세 때에도 치열한 격전을 벌여 고수한 지역이었다.

아군의 배치는 금성 남단으로부터 883고지에 이르는 지역에는 국군 제2군단이, 금성(회고개) 서측에는 미 제9군단에 편성된 국군 제9사단의 일부와 수도사단이 포진하였다. 국군 제2군단은 중공군의 하계공세가 시작될 무렵, 주접근로인 회고개-교암산 간에 제6사단을, 지형능선-수도고지-북한강에 제8사단을, 그리고 949고

지-973고지-883고지 간에 제5사단을 배치하고 제3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또한 제2군단 좌측의 수도사단은 회고개-하소리 간을, 제9사단은 그 서쪽의 저격능선을 방어하였고, 제2군단 동쪽에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2사단이 병행하여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금성돌출부 지역의 국군 제2군단과 수도사단 및 제20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20병단 예하 제67군과 제60군이 배치되었고, 제9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24군 제72사단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3군은 철원 서북쪽의 역곡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5월 12일 제60군 제180사단이 국군 제5사단 전초인 689고지(텍사스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5월 13일부터 금성돌출부 정면의 전초진지에 대해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 공격은 본공세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28일에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이를 지원하는 한편 본공세의 기도를 은폐하기 위해 중대급 이하의 소규모 목표인 전초진지로 국한한 것이었다.

한편 중공군의 제1단계 공세에 직면한 국군 제2군단은 물론 미 제9군단 예하의 제9사단과 수도사단은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전투에서 중공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제8사단 제10연대의 전초인 마제형 전초(271고지)는 끝내 피탈되었다.

특히 중공군의 하계 제1단계 공세 중 서전으로 공격목표였던 689고지는 북한강 동쪽의 국군 주저항선의 요충인 973고지의 전초가 설치된 중요한 고지였다. 이 고지는 국군 제5사단이 인수하기 전인 4월에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된 곳이었다. 당시 제3사단 제18연대는 1개 소대로 전초를 운용하고 있던 중, 중공군 제181사단 제542연대의 공격을 받고 8번에 걸친 피탈과 탈환을 반복한 끝에 전초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빼앗긴 과호리(科湖里)의 마제형 진지(271m)는 5월 13일 중공군 제201사단의 공격을 받고 고지에서 물러난 후 5월 17일까지 4차에 걸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전사 181명, 부상 262명, 실종 23명의 손실을 입은 반면 중공군도 전사 789명과 포로 10명의 손실을 입는

등 이 전초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격전은 치열하였다.

<표 4-21> 중공군 하계 제1단계 공세 주요 전투

전 투 명	기 간	교 전 부 대		전 투 지 역	결과
		중공군	국 군		
689(텍사스)고지	'53.5.12~17	제180사단	제5사단	973고지 북쪽 1.5㎞	격퇴
오봉능선	'53.5.12~17	제180사단	제5사단	973고지 북쪽 1.5㎞	격퇴
삼각봉	'53.5.13~15	제181사단	제5사단	949고지 서북 1.5㎞	격퇴
마제형(271)고지	'53.5.13~17	제201사단	제8사단	북한강 서안(과호리)	피탈
샛별(470)고지	'53.5.14~16	제199사단	수도사단	금성서남 7㎞(직목동)	격퇴
저격능선	'53.5.16~19	제72사단	제9사단	김화 북쪽 3.5㎞	격퇴
회고개	'53.5.23~24	제199사단	수도사단	금성 서남 4㎞	격퇴

중공군의 제1단계 공세에 따라 전개된 주요 전초고지 전투는 <표 4-21>에서 보듯이 북한강과 금성천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집중되었다. 이는 곧이어 전개된 제2차 공세가 이곳으로 지향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후였다.

제 4 절 6월 공세 제2단계

중공군은 제1단계 공세를 종료한 다음날인 1953년 5월 27일부터 하계공세의 제2단계(6월 공세)로 전환하였다. 제2단계 공세작전의 기본개념은 제1단계 공격작전의 경험을 토대로 공격목표를 대대급 진지로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서 공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2단계 공세에는 제1단계 공격작전에 참가한 중부전선의 제9병단 예하 제23군과 제24군, 제20병단 예하의 제60군과 제67군 외에도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과 대치하고 있는 제19병단 예하 제1군과 제46군은 물론 동부전선에 배치된 북한군도 참여하였다. 따라서 제2단계 공세는 1951년에 단행된 춘계공세 이후 최대 규모의 공세로 실시되었다.[59]

제2단계 공세는 공산군이 5월 27일 금성돌출부의 국군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의 전초 네바다고지군과 후크고지, 중동부 미 제10군단의 우익인 854고지-812고지, 그리고 동해안 국군 제1군단의 351고지를 공격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다.

한편 휴전회담에서는 이 무렵 유엔군 측이 제의한 '5·25 최종안'에 의해 난항을 거듭해 온 포로 의제의 타결이 임박한 국면을 맞고 있었으나, 이 안은 "포로의 자유송환원칙은 고수하되, 반공포로도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포로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분단으로 가는 휴전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공포로의 중립국 송환위원회 이송에 반대해 온 한국정부의 입장과 상치되었다. 따라서 이는 '휴전반대', '북진통일' 주장의 성명발표와 시위를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중공군사령관인 펑더화이는 제2단계 작전의 진행 초기인 6월 1일에 원래 예정했던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에 대한 공격방침을 한국군을 위주로 한 공격으로 전환하였다.[60]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의 형세에 근거하여 회담의 진행뿐 아니라 작전행동을 더욱 촉진하면서 새로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부대의 작전

경험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61]

이와 같은 작전방침의 전환에 따라 새로 한국전선에 도착한 병력을 전방으로 투입하여 부대배치를 재조정하였다. 제16군은 제9병단에 배속되어 제23군과 제24군의 1개 사단 방어임무를 인수하였고, 제21군은 모두 곡산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원군 전선예비가 되었다. 이로써 특히 중부전선 및 금성돌출부지역 좌측의 중공군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각 병단은 작전지침의 수정과 부대편조의 변경에 따라 작전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주공인 제20병단은 6월 4일에 작전회의를 열어 반격작전계획에 대해 더욱 깊은 연구를 하였다. 이 병단은 예하의 제60군과 제67군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북한강 동서 양측의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을 공격하며, 2개 사단 이상의 부대가 반격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병단은 군으로부터 추가적인 포병지원을 받아 약 1주일간의 준비를 거쳐 6월 10일부터 공세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62]

1. 854고지 및 812고지 전투(1953. 6. 1 ~ 7. 17)

1) 전투 개요

이 전투는 1953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그리고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동부전선 서화계곡을 감제하는 계곡 양측의 854고지와 812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12사단과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1사단 및 제45사단이 2차에 걸쳐 전개한 공방전이다.

국군 제12사단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미 제45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하여 군단 우익으로 미네소타(Minnesota)선상의 방어임무를 담당하였다. 사단은 1953년 1월 제51연대가 확보한 854고지에 대한 북한군의 기습공격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방어

임무를 제52연대에 부여하였다. 이로써 사단의 우일선을 맡게 된 제52연대는 591고지-829고지를 연한 주진지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52연대에 임무를 인계한 제51연대는 사단의 중앙일선으로 854고지를 중심으로 한 삼치령(三峙嶺) 일대의 주진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좌일선인 제37연대는 소양강 서안-812고지-758고지 성내천(城內川) 북안에 이르는 일대에 주진지를 편성하였다.[63] 이후 사단은 공병 2개 중대를 일선연대에 배속시켜 주요 거점에 동굴호와 장애물을 구축하여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군단포병 및 미 제5공군의 지원 아래 위력수색을 적극 실시하면서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다.[64]

당시 주진지에 투입된 사단의 병력은 8개 대대 총 12,420여 명이었고, 장비 및 무기는 브라우닝 자동소총(BAR) 282정, 경기관총(LMG) 290정, 기관단총(SMG) 1,613정, 50구경기관총(50MG) 107정, 3.5인치 로켓포 113문, 60㎜ 및 81㎜ 박격포 84문과 35문, 75밀리 무반동포(75RR) 및 57RR 18문과 54문 등이었다. 그리고 4.2인치 박격포 12문과 155㎜ 곡사포 18문 등 사단포병의 지원이 가능하였다.[65]

반면에 사단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1사단으로 제2연대를 우일선, 제3연대를 중앙일선, 그리고 제14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752고지-1052고지-812고지 서북쪽 능선-직곡-장들-오가덕-송어덕에 이르는 일대에 5개 대대를 배치하고 4개 대대를 예비로 두었다. 이들은 전선에 투입된 이래로 진지보강에 착수하는 한편 소대규모의 정찰전을 반복하고 유격대를 후방에 은밀히 침투시켜 전후방 교란을 시도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의 병력은 9,730명으로 추산되었고, 155㎜ 야포 12문과 122㎜ 야포 9문, 120㎜ 박격포 60문과 82㎜ 박격포 84문, 61㎜ 박격포 96문 등의 화력지원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66] 또한 이들은 전선이 교착된 기간에 동굴호를 주축으로 견고한 방어선과 화력거점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포병진지마저 동굴화함으로써 공중공격과 대포병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67]

한편 전투지역은 중동부전선의 요충인 펀치볼 동북쪽의 견부로 인제에 이르는 주요 접근로인 서화리 계곡을 감제하고 있어 적이 공세로 이전할 경우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700~1,000m의 고봉이 즐비한데다 수림이 무성하여 관측과 사계가 불량하였고, 특히 주저항선 일대는 적으로부터 감제되어 불리하였다. 그러나 854고지-812고지는 주저항선상의 좌우견부의 요충으로 전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고수해야만 하였다.[68]

<표 4-22>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2사단장	준장	윤춘근(尹春根)	
	제37연대장	대령	김재명(金在命)	
	제1대대장	중령	박정인(朴定仁)	
	제2대대장	중령	김백영(金白泳)	
	제3대대장	소령	박완식(朴完植)	
	제51연대장	대령	김 헌(金 憲)	
	제3대대장	소령	김한용(金漢龍)	
	제52연대장	대령	장호강(張虎崗)	
	제1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2대대장	중령	한완수(韓完洙)	
	제3대대장	소령	이강환(李康煥)	
		소령	신영조(申榮祚)	
	사단수색중대장	대위	조영환(曺永煥)	
	사단포병단장	대령	이희권(李喜權)	
	사단공병대대장	소령	김희채(金熙采)	
	제3연대 제3대대장	중령	박규화(朴圭華)	배속부대
북한군	제3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1사단장	소장	정 범(鄭 範)	
	제2연대장	중좌	박노오(朴魯吾)	
	제3연대장	대좌	김경모(金敬模)	
	제14연대장	대좌	고기환(高基煥)	
	제45사단장	소장	지병학(池炳學)	
	제89연대장	대좌	김길원(金吉元)	
	제90연대장	대좌	최주원(崔周元)	
	제91연대징	대좌	김 호(金 虎)	
	포병연대장	대좌	송창녕(宋昌寧)	

2) 전투 경과

(1) 제1차전(6월 1일 ~ 6월 9일)

국군 제12사단장은 현 전선의 방어에 역점을 두고 854고지-812고지 일대를 고수하기로 결심하고, 주요 거점의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위력수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51연대의 방어정면 일부를 제52연대가 담당토록 하여 854고지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69] 이로서 사단은 주저항선에 5개 대대를 전개하고 예비진지에 3개 대대를, 그리고 1개 대대를 예비로 보유하면서 미네소타선 방어에 임하였다.

이후 812고지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에 따라 사단장은 예상되는 전면공세를 격퇴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지시를 예하에 하달하였다.[70]

① 사단은 미네소타선을 계속 방어하면서 적을 진지 앞에서 포착 섬멸하려 한다.
② 제52연대는
  ㉮ 1개 대대로써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하여 기동방어에 임하라.
  ㉯ 제2대대는 사단예비로서의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③ 제51연대는
  ㉮ 2개 대대로써 주저항선을 계속 확보하라.
  ㉯ 예비대를 854고지 후사면으로 진출시켜 854고지에 대한 방어종심을 유지하고 긴급지원태세를 갖추라.
④ 제37연대는
  ㉮ 5월 31일 24:00를 기해 성내천 남안의 일부 전투지역을 미 제40사단에 인계하라.
  ㉯ 2개 대대로써 주저항선을 계속 확보하라.
  ㉰ 예비대대를 812고지 부근으로 진출시켜 긴급지원태세를 갖추라.
⑤ 사단 포병단은
  ㉮ 제65포병대대로써 제52연대를 직접 지원토록 하라.
  ㉯ 미 제143포병대대로써 제51연대를 직접 지원토록 하라.
  ㉰ 제66포병대대로써 제37연대를 직접 지원토록 하라.

㉣ 제95포병대대 및 군단지원포병은 사단을 일반 지원한다. 단, 화력의 우선권은 제37연대에 부여한다.

⑥ 공병대대장은 제51연대와 제37연대에 계속 1개 중대씩을 배속하라.

⑦ 미 제140전차대대 C중대가 풍기에서 제51연대를, 그 B중대가 서포구(西布口)에서 제37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⑧ 사단 CP는 평촌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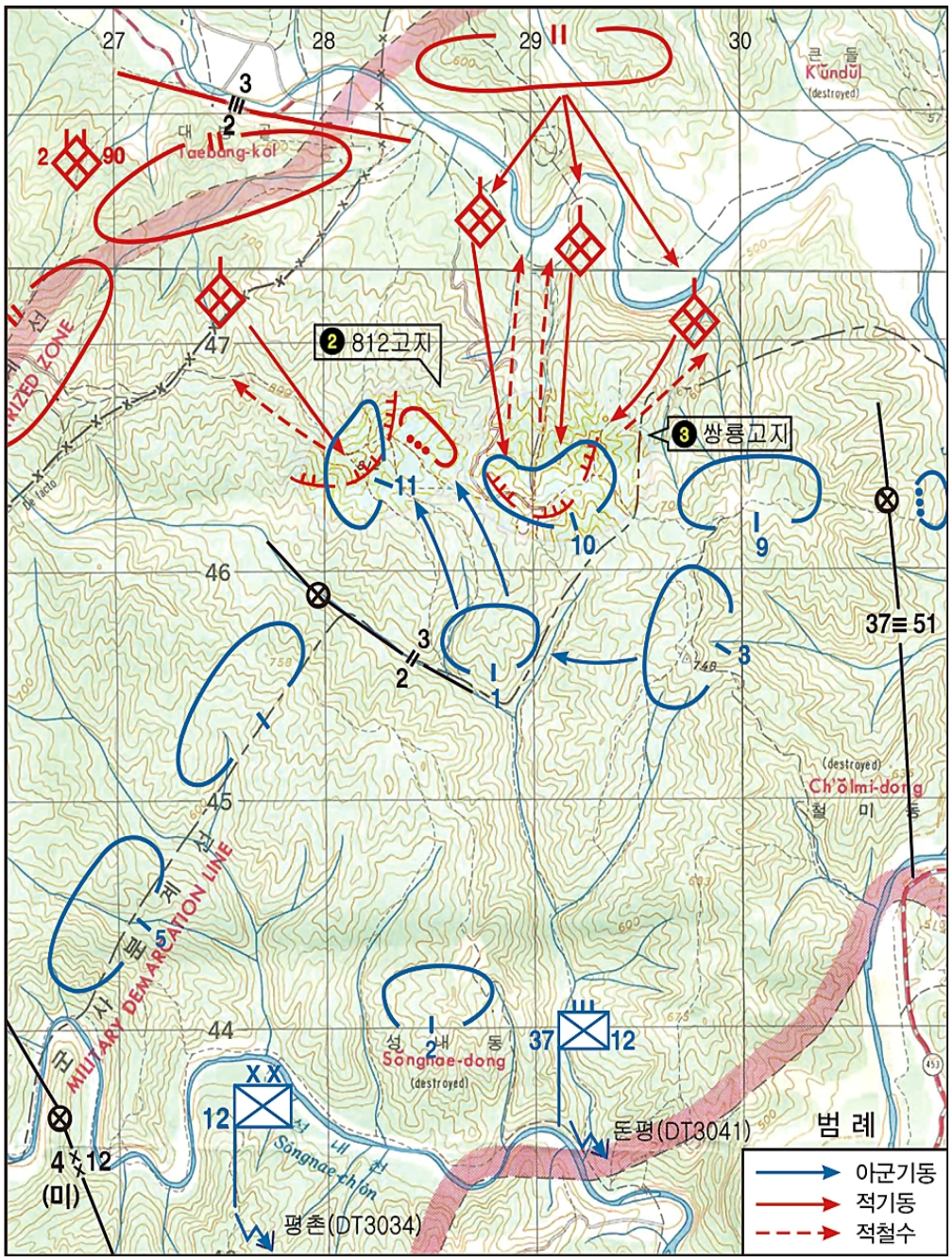
1953년 6월 1일 16시를 기해 북한군 제3군단은 200문에 달하는 각종 포의 일제 사격을 사단 전 정면에 실시하였다. 이에 사단장 윤춘근 준장은 각 연대와 사단 예비대의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하였다.[71] 곧이어 쌍방간의 포격전이 전개되어 854고지-812고지의 진지 앞에 설치한 철조망과 지뢰지대가 파괴되고 유선망이 단절됨은 물론 엄체호와 교통호가 붕괴되었다.

21시 50분경 포격의 연신과 함께 앞서 우회한 북한군 제45사단 제89연대 예하의 1개 대대가 812고지 동쪽 능선의 북사면으로 일제히 공격을 가해왔다. 이때 서화계곡 좌익의 812고지는 제37연대가, 서화계곡 우익의 854고지는 제51연대가 방어하였으며, 제52연대는 우전방 남강 남쪽을 담당하고 있었다.[72]

854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51연대장 김헌(金憲) 대령은 22시 40분에 북한군 제45사단 제91연대 예하의 1개 대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73] 북한군은 방어정면의 제3대대를 양익으로 포위를 기도하는 가운데 1개 중대가 고지 정면으로 돌진하여 200m앞까지 접근하였다. 대대는 포병의 탄막사격과 최후저지사격으로 이들의 접근을 저지하였으나, 계속된 적의 돌격에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어 백병전을 펼친 끝에 854고지 정상 부근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이 고지 동남쪽 능선에 대기하고 있던 수색중대를 투입하여 적의 배후를 기습공격하자 적은 혼란에 빠져 후퇴를 시작하였고, 대대는 진지를 회복하였다.[74]

한편 제37연대장 김재명(金在命) 대령은 제3대대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전을 전개함에 따라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전중인 제3대대는 현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제2대대는 제3대대에 대한 측방지원을 준비하며, 그리고 제1대대는 증원과 역습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다.

<상황도 4-2> 812고지-쌍룡고지 전투



제3대대는 소양강을 우회한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맞아 격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당초 812고지 동쪽 1㎞의 무명고지(후에 '쌍룡고지'로 명명됨)와 854고지를 공격하여 그곳에서 격전이 전개되고 있던 자정 무렵에 1,000여 발의 포격을 812고지에 집중한 후 기습적으로 공격해왔다. 812고지 주봉 일대를 방어하던 제11중대는 최후저지사격과 미 전차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어둠을 틈탄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중대는 육박전을 펼친 후 동굴호로 들어가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첫날의 전투에서 사단은 적이 먼저 공격한 쌍용고지와 854고지의 방어에는 성공하였으나, 결국 812고지를 상실함으로써 이를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전개하였다. 연대장은 연대 예비인 제1대대에 역습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대대장 박정인(朴定仁) 중령의 지휘 하에 6월 2일 01시를 기해 812고지에 대한 역습에 나섰다. 병력을 양분하여 고지 정상으로 돌진한 대대는 정상 부근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격퇴시키고 고지 주봉의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어 예비대를 확보하려는 연대장의 의도에 따라 제11중대에 인계하고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였다.[75]

그러나 제1대대로부터 진지를 인계받은 제3대대 제11중대는 진지편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2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격렬한 백병전을 벌인 끝에 고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812고지의 재탈환 명령을 제1대대에 하달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제2차 역습에 나서 05시 30분에 항공 및 포병지원을 받으며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북한군은 대대의 돌진을 저지하기 위해 포격을 집중하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제1대대는 대대장의 진두지휘 아래 탄막지대를 돌파하고 적진으로 돌입하여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였으나,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8부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몰 무렵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고지를 점령한 적은 동굴진지를 역이용하며 강력히 저항하였고, 또한 측방의 1052고지에서는 지원사격과 포격을 대대에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사상자가 늘어가자 연대장은 대대의 철수를 명령함으로써 결국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76]

공격부대에 대한 지원사격을 실시하는 포병대원

6월 3일 제37연대는 사단 예비인 사단수색중대와 제52연대 제5중대를 지원받아 제3차 역습에 임하였다.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부대로 선발된 제2대대 제7중대는 유엔공군기가 1052고지 일대를 강타하고 포병의 지원사격이 812고지로 집중되는 가운데 전진을 시작하였다. 적진을 향해 은밀히 접근하던 이들은 도중에 적의 잠복조를 만나 교전을 벌인 후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적진으로 돌입하여 일진일퇴의 격전을 펼쳤으나, 중과부적으로 끝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사단 수색중대가 05시를 기해 초월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77] 그리고 이날 밤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812고지로 증원되는 징후를 포착한 연대장은 이를 적의 공격기도로 판단하고 제1대대를 재배치하였다.

한편 사단장 윤춘근 준장은 적이 812고지를 증원하여 거점을 보강하는 등 새로운 공세징후마저 보이자, 사단 예비인 제52연대 제2대대(-)로 제37연대를 증원토록 하였다. 이어 사단장은 군단 지시에 따라 배속된 제7사단 제3연대 제3대대에 우일선의 제52연대 주진지를 인수하도록 하는 한편 제52연대에 812고지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기로 작정하였다.[78]

이와 같이 작전명령에 따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사단장은 812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역습계획을 예하에 하달하였다.[79]

① 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812고지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52연대는
  ㉮ 1개 대대로서 역습을 감행한다.
  ㉯ 1개 대대는 후속하면서 양 측방을 엄호한다.
  ㉰ 돌파구를 저지중인 제37연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③ 제37연대는
  ㉮ 현 진지를 고수하라.
  ㉯ 제52연대를 화력 지원하라.
  ㉰ 역습간 812고지에 대한 조명을 담당하라.
④ 제51연대 및 제3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포병단은
  ㉮ 제66포병대대가 H-00:30을 기해 제52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 제95포병대대 및 군단지원포병은 제52연대를 일반 지원한다.
  ㉰ 812고지 조명에 대해 제52연대와 협조를 유지한다.
  ㉱ H-00:20부터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다.
⑥ 미 제140전차대대 B중대는 역습간 제52연대를 직접 지원하며, 그 일부의 전차는 역습에 참가한다.
⑦ 공병대대는 역습간 1개 중대를 제52연대에 배속한다.
⑧ 항공지원은
  ㉮ D-1에 6개 편대가 1시간 간격으로 출격, 812고지 일대에 HE탄 및 Napalm탄을 투하하며, 4개 편대는 2시간 간격으로 1052고지의 화기진지에 교란폭격을 실시한다.
  ㉯ H-4에 5대의 B-26 경폭격기는 1052고지 일대의 중화기진지를 폭격한다.
  ㉰ H+1부터 1시간 간격으로 5개 편대가 출격하여 활동중인 중화기진지를 제압한다.
  ㉱ Mosquito 정찰기는 상시 812고지 상공에 체공하여 폭격을 유도한다.

그러나 사단의 역습은 실시 직전인 6월 5일에 군단장의 지시로 보류되었다.[80] 이는 휴전협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피를 흘리거나 적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군사령부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공중공격과 포격으로 적의 출혈을 계속 강요하고, 역습거점과 접근로를 계속 확보하려 하였다.[81]

그러나 이날 밤에 북한군은 1개 대대를 투입하여 제37연대 제3대대가 배치된 812고지 우측의 무명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제1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적의 돌파구 확장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22시 50분에 고지 정면의 제10중대를 공격하였다. 3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10중대장 윤길병(尹吉炳) 대위는 적의 파상공세를 저지하였으나, 새로이 증원된 적이 돌파구를 확대하고 진내로 침입하자 진내사격과 역습을 요청하며 동굴진지에서 완강히 저항하였다.[82] 이후 윤길병 대위는 적의 투항을 끝내 거부하고 자결하였다.

무명고지의 피탈을 확인한 제37연대장은 배속된 제52연대 제2대대에 고지탈환과 제10중대를 구출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04시 10분에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전진하던 대대는 도중에 역습을 눈치 챈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진격이 중단되었다. 이후 대대는 병력을 수습하여 공격을 재개하였고, 이러한 공격은 22시 50분까지 6차례나 반복되었지만 끝내 임무달성에는 실패하였다.[83]

다음날인 6월 7일에 사단장 윤춘근 준장은 812고지와 그 동쪽 능선상의 무명고지가 피탈되자, 무명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지시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84]

① 사단은 전투지경선의 일부를 변경하고 제52연대를 제일선에 배치하여 방어 및 역습태세를 강화하려 한다.

② 제37연대는

㉮ 제3대대의 전투지역의 일부를 6월 7일 20:00까지 제52연대에 인계하라.

㉯ 812고지 정면으로부터 성내천에 이르는 선을 계속 방어하라.

㉰ 제52연대 제2대대의 배속을 6월 7일 20:00에 해제하고 원대에 복귀하게 하라.

③ 제52연대는
  ㉮ 제2대대가 원대 복귀한다.
  ㉯ 1개 대대로써 6월 7일 20:00까지 제37연대 제3대대(-)의 진지를 인수하라.
  ㉰ 1개 대대로써 무명고지를 탈취하라.
  ㉱ 제1대대는 사단예비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④ 제3연대(-) 및 제51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전투지경선의 변경은 6월 7일 20:00부로 유효하다.

제37연대장은 사단의 지시에 따라 제3대대의 812고지 동쪽 능선상의 주진지를 제52연대에, 그리고 812고지 전면의 주진지를 제1대대에 각각 인계하도록 명령하였다. 제37연대 제3대대의 주진지를 인수한 제52연대 제3대대는 무명고지에 대한 역습준비에 착수하였다.

6월 8일 정오 무렵 짙게 깔렸던 안개가 걷힘과 동시에 제52연대장 장호강(張虎崗) 대령은 연기된 역습을 감행하기 위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8일 14:00를 기하여 무명고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무명고지와 A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3대대는 공격간 제2대대를 화력 지원하라.
④ 제1대대는 사단 예비로서의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미 제140전차대대 B중대가 직접 지원한다.
⑥ 공격간 요청에 따라 공중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OP는 755고지에 위치한다.

명령에 따라 제2대대는 14시에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대대는 제5중대를 주공으로, 그리고 제6중대를 조공으로 하여 동남쪽과 남쪽 능선으로 협공을 개시하였다. 주공인 제5중대가 8인치 및 155㎜ 야포의 대포병 사격 지원 아래 화력거점을 파괴하자, 조공인 제6중대와 후속한 제7중대가 합세하여 격전을 전개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은 궤멸상태에 빠져들어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부여된 목표인 무명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85] 이후

이 무명고지는 제52연대의 별칭에 따라 '쌍용고지'라 불리게 되었다.

제2대대장은 또 다른 목표인 A고지의 탈환을 제7중대에 지시하였다. 포병의 지원사격 아래 공격에 나선 제7중대는 A고지에서 완강하게 버티는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적진 가까이 도달하여 돌격을 감행하였다. 적은 수류탄을 투척하며 중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고, 중대는 뒤로 물러나 기회를 엿보기로 하였다.

다음날에 재개된 공격에서 제2대대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연대장은 주저항선을 확보한 제3대대에 이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6월 9일 15시에 공격에 나서 주공인 제9중대가 최후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17시 50분에 목표인 A고지를 점령하였다.[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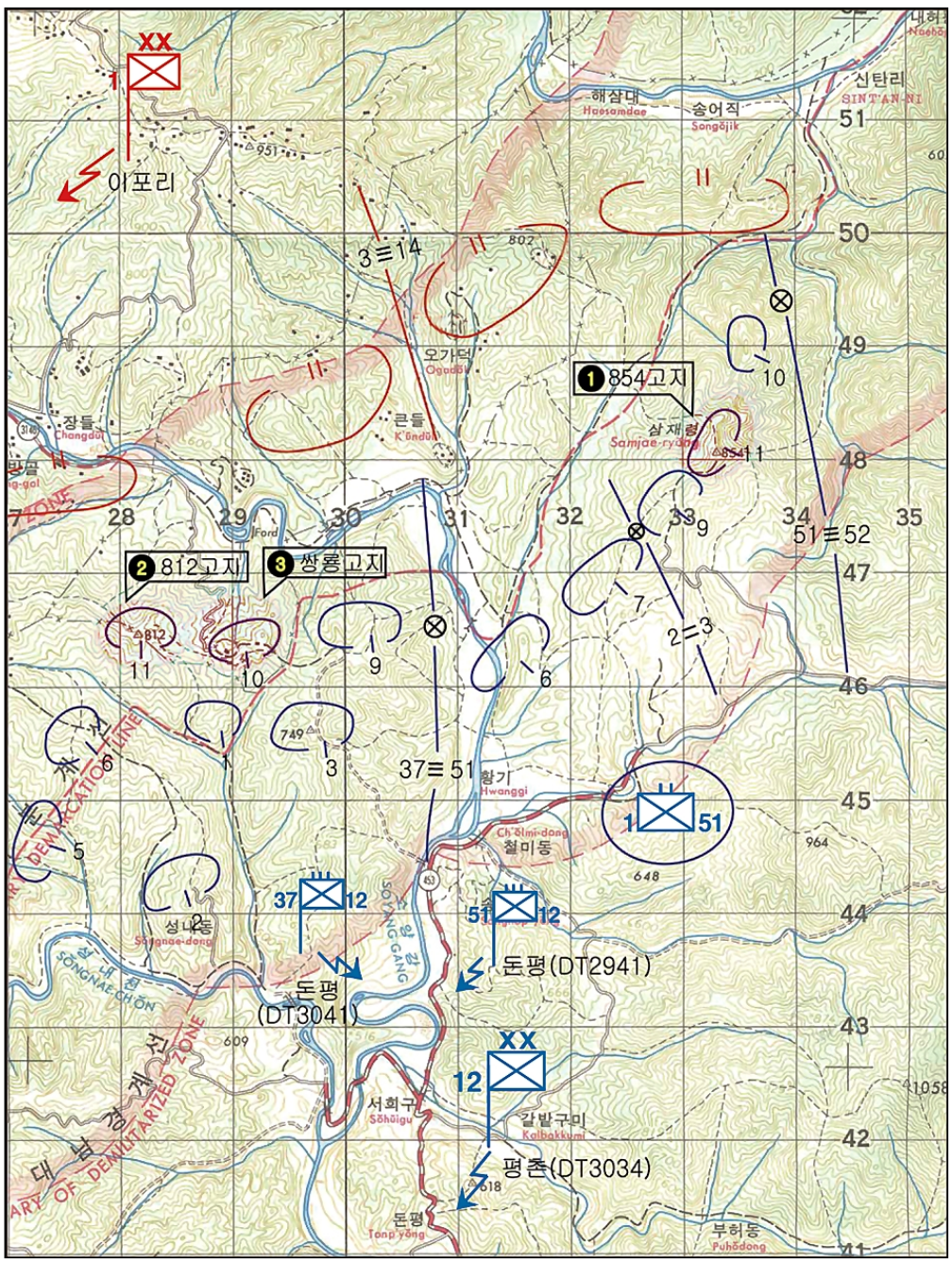
(2) 제2차전(7월 16일 ~ 7월 17일)

1953년 6월 7일 사단지시에 따라 제37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했던 제52연대는 6월 12일에 제37연대의 주진지마저 인수하였다.[87] 연대는 제3대대를 우일선, 제2대대를 좌일선, 그리고 제1대대를 예비로 두고 사단 좌일선으로 소양강 서안-쌍룡고지-812고지 전면-758고지-성내천 북안에 이르는 전투지역을 담당하였다. 이어 연대는 포병의 지원 아래 야간수색과 잠복을 강화하여 포로획득에 주력하면서 812고지에 대한 역습태세를 갖추었다.

이런 가운데 7월로 접어들어 적의 공세징후가 전후방에서 포착되자, 연대장 장호강 대령은 7월 5일 05시부로 쌍룡고지와 812고지 정면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시키기 위해 연대 예비인 제1대대를 일선으로 진출시켜 제3대대의 진지를 인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812고지 동쪽 능선상의 쌍룡고지를 비롯한 주진지 일대를 점령하고 812고지 전사면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대예비로 전환된 제3대대는 755고지 부근 등에서 예비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에 정면의 북한군 제1사단은 예하의 제2연대를 오른쪽에, 제3연대를 중앙에, 제14연대를 왼쪽에 배치하고 북한군 제3군단 직할 제31포병연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아군의 항공지원이 제2군단 정면으로 집중되자 진지보강에 전념하는 한편 854고지-쌍룡고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88]

<상황도 4-3> 854고지-812고지 전투(2차)



북한군은 7월 16일 밤 10시 30분을 기해 제52연대 정면에 10분에 걸쳐 약 5,000여 발의 각종 포탄을 집중하여 장애물지대와 교통호 등을 파괴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2개 중대규모로 812고지 동북쪽 능선을 공격한데 이어 쌍룡고지로 공격의 방향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89] 적의 주공이 제1대대 정면에 지향되는 것으로 판단한 연대장은 적을 진지 전방에서 격멸하기 위해 제1대대는 현 진지선을 고수하고 제2대대는 제1대대를 화력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제3대대는 증원과 역습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정순기 소령은 예하 중대에 현 진지를 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쌍룡고지에서 812고지에 이르는 능선상에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1중대는 적의 공격이 중대 정면으로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22시 50분에 2개 중대규모의 적이 812고지 동북쪽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포병의 탄막사격 아래 저지사격으로 적의 침공을 저지하였으나, 23시 20분경 서측방으로 우회한 일부 병력이 협공을 가하며 진내로 들이닥쳤다.[90]

이와 같이 위기에 직면하자 대대장은 배속된 제10중대를 쌍룡고지 남쪽 능선으로 보내 차단진지를 점령토록 하고, 제1중대는 정면을 좁혀 거점방어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로써 제1중대는 쌍룡고지의 주봉을 중심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서쪽 능선으로부터 돌파구를 확장하려는 적과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 무렵 A고지 전초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3중대는 병력의 열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포병의 차단사격과 박격포의 근접지원 아래 자정 무렵까지 적의 파상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대대 오른쪽의 제2중대도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수류탄을 투척하며 일진일퇴의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7월 17일 제1대대는 진지 한쪽으로 침입한 적을 격퇴하기 위해 혈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쌍룡고지가 다시 피탈되고 적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제3중대마저 거점방어로 전환되는 위기상황에서 대대는 일진일퇴의 격전을 전개하였다. 다행히도 대대는 사단포병의 TOT사격이 주효하여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 윤춘근 준장은 쌍룡고지 일대를 점령한 적이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공격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37연대의 1개 대대를 급파하여 제52연대를 증원토록 조치하였다.[91] 이에 따라 제52연대는 제37연대 제3대대에 소양강변의 가고지-795고지-바고지-사고지에 이르는 제2방어선을 점령토록 하였고, 제3대대의 일부로 쌍룡고지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92]

3) 전투 결과

결과적으로 적의 최후공세인 6월 공세에서 국군 제12사단은 서화계곡 동측의 854고지는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나, 812고지는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쌍용고지는 피탈 후 회복하였으나, 중공군의 7월 공세에서 결국 빼앗기고 말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사단은 현 진지선에서 물러나 제37연대를 우일선에, 제52연대를 좌일선에 그리고 제51연대를 사단 예비로 하여 924고지-891고지-695고지-송노평-노전평-서포구-692고지를 연한 일대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이 전투는 수행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다. 제37연대 제3대대장 박완식 소령은 당시의 이 전투를 회고하며, "812고지가 첫날의 적 공격에 피탈된 원인은 경계의 소홀로 인해 기습을 허용한 데 있다"라고 증언하였다.[93] 또한 제1차 역습을 성공적으로 이끈 제1대대장 박정인 중령은 "예비대대의 임무를 부여받은 후 전방대대 지역을 중대장들과 더불어 자주 방문하여 지형을 익히고 역습계획을 연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특히 그는 회고록에서 병사들의 전장공포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812고지 탈환 후에 부하들의 총구검사를 실시한 결과, 뜻밖에도 사격을 실시한 병사가 51%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머지는 겁에 질려 뒤따라 올라간 것이다..... 그밖에도 수류탄 투척 시 안전핀을 뽑지 않은 채 던지는 병사 등 전장공포증에 걸린 병사들을 보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죽음이며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온 국민에 의해 영원히 제사를 받게 된다'며 전장공포증을 극복하고 사생관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공격 전력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었다."[94]

한편 이번 전투 중 사단의 종합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4-23>과 같다.[95]

<표 4-23>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과							손실		
	사살	추정 살상	포로	노획				전사	전상	실종
				HMG	LMG	다발총	소총			
제37연대	150	203	4	3	8	8	11	182	313	29
제51연대	41	106			1	13		22	44	4
제52연대	177	215	6	4	11	20	10	119	406	5
계	368	524	10	7	20	41	21	323	763	38

2. 883고지-973고지-949고지 전투(1953. 6. 10 ~ 6. 14)

1) 전투개요

883고지-973고지-949고지 전투는 북한강과 금성천이 합류하는 삼각 돌출부를 중심으로 그 이동(以東)의 883고지-973고지-949고지-삼각봉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미주리(Missouri)선상에서 국군 제2군단 예하 제5사단이 제3사단 제22연대를 배속받아 중공군 제60군 제180사단 및 제181사단 그리고 제68군 제203사단과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7주전인 1953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개한 공방전이다.

국군 제5사단은 1953년 4월 15일 군단의 지시에 따라 제3사단의 진지를 인수하며 작전지역인 미주리선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사단은 제27연대를 우일선으로 883고지-973고지-949고지 동쪽 500m간의 주저항선 동반부에, 제36연대를 좌일선으로 949고지-739고지-삼각봉 남쪽 500m선으로 이어지는 서반부에 각각 전개하였으며, 제35연대는 북한강 서쪽 장재동에 예비로 두었다. 이어 사단은 진지공사

에 착수하여 주진지는 물론 689고지와 오봉능선, 두경봉 등 전초진지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였다.

<표 4-24>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5사단장	준장	최홍희(崔泓熙)	
	제27연대장	대령	최영규(崔英圭)	
	제1대대장	중령	최규선(崔奎瑄)	
	제2대대장	중령	윤필용(尹泌龍)	
	제3대대장	중령	차규헌(車圭憲)	
	제35연대장	대령	박창원(朴昌源)	
	제1대대장	소령	이명근(李明根)	
	제2대대장	소령	정인순(鄭仁淳)	
	제3대대장	중령	손개동(孫介同)	
	제36연대장	대령	고광도(高光道)	
	제1대대장	소령	박태송(朴泰松)	
	제2대대장	중령	이재전(李在田)	
	제3대대장	소령	박용학(朴龍鶴)	
	제22연대장	대령	최병순(崔炳淳)	배속부대
	제1대대장	중령	권영찬(權寧讚)	
	제2대대장	중령	이병철(李炳轍)	
	제3대대장	중령	손병용(孫炳用)	
	제11포병단장	대령	김 성(金 聖)	지원부대
중공군	제60군장		웨이지에(韋 杰)	
	제180사단장		구안준팅(官峻亭)	
	제181사단장		왕쳉한(王誠漢)	
	제68군장		키우웨이(邱 蔚)	
	제203사단장		양동량(楊棟樑)	

반면에 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60군으로 대체로 어은산 남쪽 1.5㎞-송정-572고지간의 미주리선 북쪽에 주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연대규모의 병력을 사단의 진지

앞 500~1,000m 지점의 오봉능선-689고지-748고지선으로 추진하여 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4월 24일 689고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인 이후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였으나, 6월 10일을 기해 주저항선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의 병력은 약 24,000명으로 추산되었고, 이들 중 절반이 신병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충분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공격간에 2개 포병연대의 지원은 물론 82㎜ 박격포 112문과 61㎜ 박격포 126문, 무반동총 89정 및 로켓포 63문 등의 보병화력을 지원받았다.[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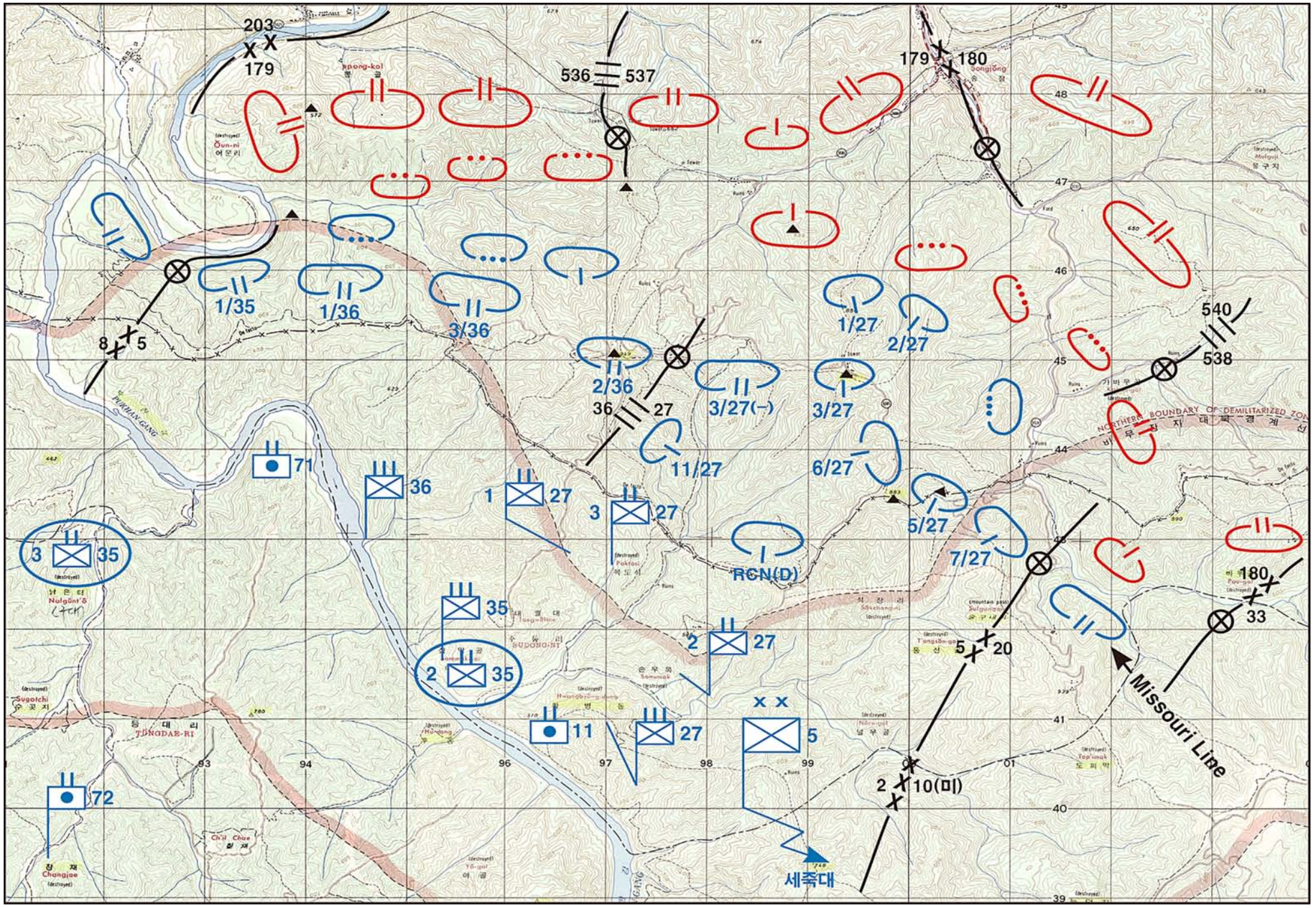
반면에 국군 제5사단의 당시 병력은 10,000명을 약간 상회하였는데, 이 중 36%가 16주의 교육을 마치고 전입한 신병들이었다. 또한 사단의 장비는 편제상의 100% 수준을 유지하였고, 제11포병단 예하의 제71대대와 제72대대, 그리고 제5중포중대와 제3전차중대의 지원을 받아 화력지원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97]

한편 작전지역은 북한강 상류와 금성천이 합류되는 삼각 돌출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동(以東)으로 뻗어 오른 험준한 산맥이 어은산 남서쪽의 통선곡에 이르는 10㎞에 달하는 산악지대였다.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삼림이 울창하고 700~900m 내외의 고봉이 치솟아 있으며, 계곡과 능선이 이어져 있어 횡적 연결이 어려운 지대였다. 뿐만 아니라 기동로가 거의 없고, 삼림 사이의 협로로 이어져 있어 보급도 케이블카에 의존하였으며, 차량의 기동로도 북한강 동안에 연한 단일로뿐이었다. 따라서 병력과 화력 운용상의 제한조건이 많았다. 그리고 기간 중에는 강우와 짙은 안개가 겹쳐 적정판단이나 항공지원이 제한되었다.

2) 전투 경과

중공군과 북한군은 1953년 5월 27일부터 주로 금성돌출부의 국군 제2군단 전초진지에 대해 탐색공격을 감행해오는 한편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첨예하게 대결을 벌여온 네바다고지, 812고지, 351고지에 대해 인명을 아끼지 않는 공격을 가해 6월 초순에 이들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산군의 최후공세 제2단계 작전의 주공부대인 제20병단은 공격준비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6월 10일에 북한강과 금성천 합류지점의 아군 주저항선 공격에 주력을 투입하였다.

<상황도 4-4> 883고지-973고지-949고지 전투 피아배치 상황



제20병단 예하 제60군은 북한강 동안 국군 제5사단의 주저항선 949고지-973고지-883고지를, 제67군은 북한강 서안 국군 제8사단의 지형능선과 수도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제68군은 예비로 세포리에서 전방의 군(단)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북한강과 금성천의 분기점으로부터 동으로 통선골(通先谷)까지 949고지-973고지-883고지로 형성된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이는 배후에 도섭이 불가능한 북한강을 두고 있어 배수의 진이기도 하였다. 이들 고지군은 아군이 1951년 추계공세 당시 확보한 이래 계속해서 방어해 오고 있었다.

1953년 4월 15일 국군 제3사단과 교대하여 이곳에 진출한 제5사단은 제36연대(+1)를 주저항선의 좌반부 548고지-949고지(우두산)에, 제27연대(+1)를 우반부 973고지-883고지에 배치하고 이들 전방연대로써 삼각봉-두경봉-748고지(피의 고지)-689고지(텍사스고지)-오봉능선-승리봉에 소대규모의 전초를 운용하며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사단예비인 제35연대(-1)는 '낡은터(舊垈)'와 황병동(黃炳洞)에 각각 1개 대대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지역의 주보급로는 북한강 동안에 개척된 강변도로가 유일한 것이었으며, 낡은터 북쪽에는 작전용 교량으로 도보교와 철판교가 가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 강변과 629고지 간에는 보급추진용 케이블카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밖에 후동-황병동 간에도 작전용 교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901부교중대가 사단을 지원하였다.

한편 국군 제5사단의 전방에서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제60군은 제181사단을 주공으로 973고지 방향으로 지향하고, 제180사단을 조공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제33사단은 우인접 미 제10군단의 국군 제20사단 정면에서 견제공격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며, 제179사단은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98] 이들은 이번 공격에 앞서 공격부대를 후방으로 빼내어 예행연습까지 실시하였고, 공격개시 전날에 6개 중대의 2개 소대병력을 아군 진지의 전방과 양측방의 '비밀잠복지역'으로 진입시켜 기습을 달성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99]

이와 같이 준비를 완료한 중공군 제60군은 1953년 6월 10일 일몰과 동시에 여러 개의 제파로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이른바 중공군의 '6월 공세'로 불리는 대작전이 펼쳐졌다. 주공인 제181사단은 이날 하오 송정-가바우골 부근에 집결하였다가 날이 저물면서 오봉능선 좌우로 전개하여 973고지를 주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아군을 기만하기 위해 먼저 좌일선 제36연대지역 949고지 북쪽으로 중대규모의 부대를 투입하여 견제공격을 하였으며, 20시부터 10,000발의 포격을 퍼부으면서 21시를 기해 1개 연대규모로서 973고지 전방의 전초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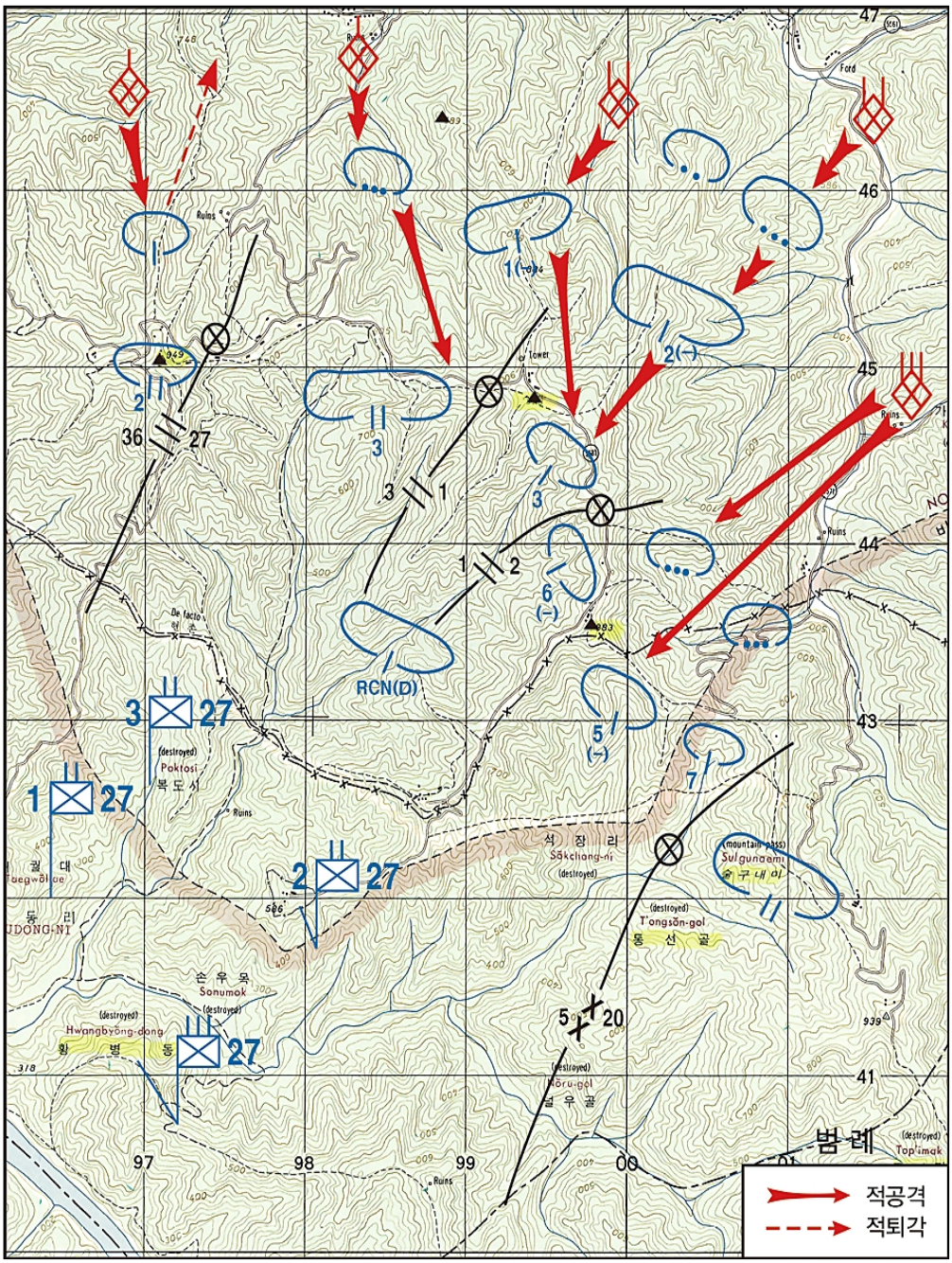
전방에 추진된 청음초, 매복조 그리고 소대규모의 전초부대는 쇄도하는 적의 공격에 중과부적으로 지원사격을 요청해가며 21시 15분에 주진지로 철수하였다. 이 와중에 적의 집중된 포격으로 제27연대는 대대간의 유선과 대대-전방중대 간의 유선이 거의 두절되어 부대지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당시 무선장비도 성능이 불량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전초선을 돌파한 적은 포격의 지원 아래 제27연대 제3중대가 점령하고 있던 973고지와 제6중대가 방어하고 있던 883고지로 쇄도하였다. 아울러 적은 2개 대대로 883고지에 대한 공격도 개시하였다. 국군 제5사단 제11포병단은 적의 접근로에 TOT사격을 가하였으나, 적은 포격이 멎는 틈을 타 주저항선으로 계속 공격을 가하였다. 23시경 주저항선의 핵인 양 고지의 일부가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저항선은 물론 전초진지까지도 휴전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고수방어 개념으로 방어하였으나, 전투정면이 넓어 이들 중요 고지에도 1개 중대 밖에 배치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각 1개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펼친 적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3시 40분, 973고지가, 그리고 10분 후에는 883고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주저항선이 돌파되자 우선 제27연대장은 양측방 부대로 돌파를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돌파된 제1대대와 제2대대 병력을 수습하여 저지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27연대의 인접인 좌익의 제36연대와 우익의 제20사단 제62연대의 전선은 조용한 상황이었다.

<상황도 4-5> 중공군 제181사단의 공격상황



이 무렵 제27연대 지휘소를 방문한 사단장 최홍희(崔泓熙) 준장은 전황을 검토한 끝에 지체 없이 사단예비로 역습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6월 11일 01시에 하달된 역습명령은 사단예비인 제35연대(-1)는 973고지를 탈환하고, 제27연대는 사단 수색중대와 제35연대 수색중대를 배속받아 자력으로 883고지를 탈취하도록 하였다.

명령에 따라 제27연대는 병력수습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나 제2대대(-)로 04시 30분에 역습을 실시하여 한때 883고지의 참호선에 접근 수류탄전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끝내 적의 화망을 뚫지 못하고 물러나 급편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7연대장은 제2대대만으로는 883고지 탈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07시 30분에 일단 각 대대로 하여 현 접촉선을 유지하면서 부대를 정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앞서 11일 03시경 제5사단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군단장은 예비인 제3사단 제22연대를 제5사단에 배속 조치하고 피탈지역을 탈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제5사단장은 제22연대가 배속됨에 따라 이미 하달한 역습계획에 수정을 가해 복도시에 집결중인 제35연대(-1)로 973고지를, 황병동(黃柄洞)에 집결중인 제22연대로 883고지를 각각 탈환토록 지시하였다.

제35연대는 제1대대가 제36연대에 배속되어 주저항선 좌익을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제2대대와 제3대대로 역습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제2대대는 황병동에서 08시 10분에 북동쪽 능선을 타고, 제3대대는 07시 30분에 제27연대 제3대대 진지 동쪽의 805고지를 지나 동쪽으로 973고지를 공격하였다. 양 대대는 적의 포화와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하여 가망이 없는 듯했으나, 제2대대의 예비인 제7중대가 투입되어 전방의 양개 중대를 초월 15시 40분에 과감한 돌격을 전개한 것이 성공하여 어렵사리 목표인 973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뒤이어 도착한 대대의 나머지 중대와 함께 잔적을 소탕하고 그 과정에서 중공군 1명을 포로로 노획하였다.

생포된 포로는 제181사단 제543연대 소속으로 이 고지를 점령한 제541연대와 막 교대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중공군은 공격부대가 목표를 점령하면 곧 많은 보급품과 탄약을 휴대한 새로운 부대로 임무를 교대시키는 것이 상용 전법이었는데, 이는 이 전투에서도 포로진술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고지를 점령한 후 제2대대는 제3대대와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973고지 서측 500m 지점의 '마의 돌출능선'을 점령하고 있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목표를 점령한 지 약 3시간이 지난 18시 50분경 제2대대는 치열한 포격과 함께 좌우 양측으로부터 적의 역습을 받아 격돌한지 30분 만에 방어선이 무너지자 주봉에서 물러나 급편진지를 구축한 채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때 제35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각 연대는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야간방어에 들어가라는 구두명령을 수령하자, 배속된 제27연대 제3대대와 연계하여 연대 예하의 제3대대 및 제2대대로 973고지 500m 후사면에 저지선을 구축하였으며, 우로는 883고지 후사면의 제27연대(-1)와 연결하였다.

한편 제22연대는 6월 11일 일출 후 북한강 건너 황병동에 집결하였다. 연대는 군단예비로 있을 시 연대장도 새로 부임하였고, 대대장 2명과 중대장 7명 그리고 사병의 1/3이 휴가나 외출 중에 있어 전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제22연대장은 수색중대를 제27연대 지역으로 파견해 883고지의 적정을 파악하는 한편 제3대대와 제1대대를 좌우 일선으로, 제2대대를 예비로 883고지를 탈환할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양 대대는 11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날은 가랑비가 내려 항공지원이 불가능하였다. 15시를 전후해 실시된 돌격전에서 공격부대는 적의 방망이수류탄과 기관총 화망에 병력의 1/3을 상실하였다. 결국 연대는 19시에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제35연대와 제22연대가 973고지와 883고지에 대한 역습을 전개하는 동안 제27연대는 낙오자를 수습하여 제1대대로 973고지 후방에 저지선을 편성하는 한편 제2대대와 제3대대 낙오병을 돌파구의 양견부를 지탱하고 있는 본대로 복귀시켜 돌파구 확장을 억제하며 역습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의 1차 역습에서 실패한 제5사단은 밤새 다음날의 재역습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사단은 이미 많은 병력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보급마저 부진하였고, 기동에도 제한이 많았으며, 기상의 악화로 항공지원도 받을 수 없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 04시의 여명을 기해 제35연대와 제22연대로 재역습을 시작하였다.

제35연대는 전날과 같이 제2대대와 제3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 중 제2

대대는 805고지를 출발하여 격전 끝에 09시 40분에 '마의 돌출능선'을 점령하고 973고지 500m 전방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북동쪽 능선으로 973고지를 공격한 제2대대는 도중에 주저앉고 말았다. 제35연대의 공격이 주춤하자 적은 제2대대 방향으로 2개 대대를, 제35연대와 제22연대의 간격으로 일부 부대를 진출시킴과 동시에 973고지에 배치된 주력을 움직여 공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으로 제2대대는 남쪽으로, 제3대대는 805고지 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연대장은 이들에게 저지선을 구축하도록 지시하고 배속된 제27연대 제3대대에는 적이 949고지 쪽으로 돌파구를 확대하지 못하게 저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같은 시간에 역습을 전개한 제22연대는 제1대대로 883고지 남쪽에서 적을 견제하게 하고, 제3대대는 남서쪽 능선을 따라 공격하며, 예비인 제2대대로 제3대대 서쪽으로 우회하여 973고지와 883고지 중간의 무명고지를 점령함으로써 883고지를 고립시켜 점령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제22연대 역습의 성공 여부는 제2대대의 무명고지 점령 여부에 달려 있었다.

작전을 숙의중인 정일권 제2군단장

제2대대는 04시에 공격선을 출발하여 일출 전까지 무명고지에 도달한 후 여러 차례의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증강된 대대규모의 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마침내 973고지의 적이 883고지 쪽으로 돌파구를 확대함으로써 그 세에 밀려 남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남서쪽에서 공격한 제3대대도 883고지 200m까지 접근하여 여러 차례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오히려 적의 역공에 병력이 분산되고 말았다. 연대는 이날 11시경에 전날의 저지선에서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날 공격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09시 30분에 군단장 정일권 중장과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Mxwell D. Taylor) 중장이 수동리 사단의 임시지휘소를 방문하였다. 군사령관은 상황을 청취한 후 사단장의 복안을 문의한 바, 사단장은 기필코 원진지를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표출하였다. 사단은 이날 미 중박격포 1개 대대의 추가지원을 받았으며, 지원부대를 재배치한 후 13시 30분을 기해 제3차 역습을 지시하였다.

제22연대는 오전의 전투에서 병력의 과반수를 상실한 제2대대를 예비로 돌리고 나머지 2개 대대로 역습을 실시하였다. 제1대대는 883고지 정면에서, 제3대대는 남서능선에서 돌격선까지 진출해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중공군의 화망과 수류탄 투척을 뚫지 못해 선봉에서 돌진한 결사대만 희생한 채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이 무렵 적 1개 대대가 883고지 서북쪽에서 제3대대를 포위하려 하자, 연대는 급편방어로 전환하여 이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15시 10분을 기해 사단의 공격중지명령이 하달되자, 제22연대는 포병의 지원사격 하에 공격전 저지선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한편 제35연대는 6월 12일의 제3차 공격개시 시간까지도 부대의 재편성이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연대장은 지금까지 949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27연대 제3대대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949고지를 제35연대 제3대대가 방어하도록 부대교대를 실시하여 17시경에 완료하였다. 이에 앞서 사단장은 제22연대와 제35연대에 의한 역습이 한계에 달했다고 결론지은 후 좌일선 부대로서 지금까지 적의 대부대 공격을 받지 않은 제36연대로 역습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장은 양개연대의 역습 중지와 아울러 제27연대로 하여금 사단의 좌일선 진지를 인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제35연대의 이날 역습은 자동적으로 중지되었다.

(1) 사단의 저지선 붕괴

제27연대는 6월 13일 04시부터 기동하여 적의 간헐적인 포격을 받으며 16시까지 제36연대의 진지인수를 완료하였다. 제36연대는 황병동에 집결하여 일몰 무렵 예하 대대를 973고지와 883고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대기 지점으로 전개시키고 다음날 여명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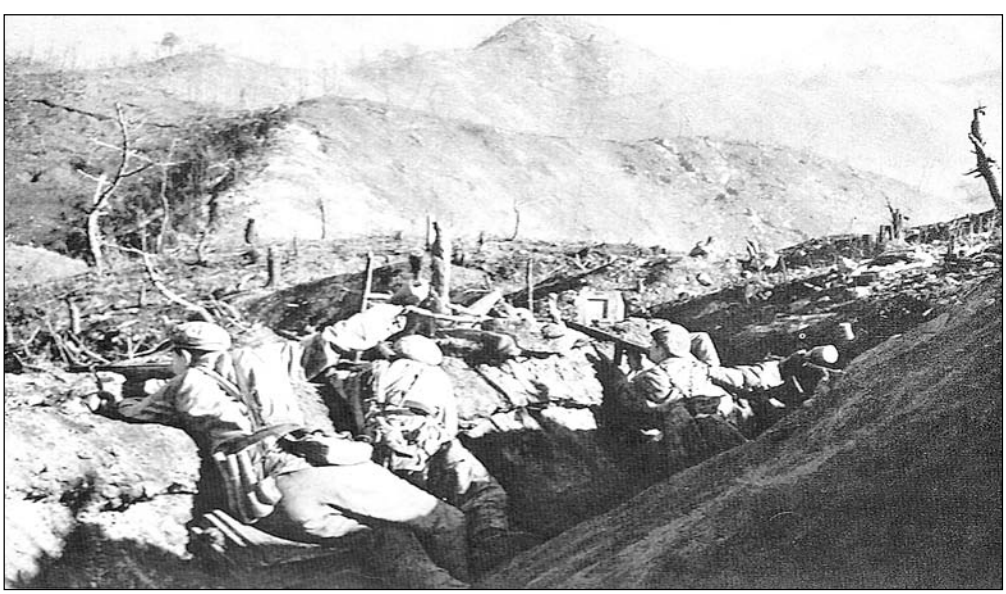
그러나 이에 앞서 중공군이 6월 14일 02시에 선제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제22연대 중앙과 좌익을 차례로 돌파를 시도하였으며, 이 와중에 제6중대가 적중에 고립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제22연대는 날이 밝은 후 정확한 관측에 의한 포병 지원사격의 도움을 받아 제6중대를 구출하였으나, 10시 30분경에는 대체로 883고지 1~1.3㎞ 남쪽 능선으로 물러나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이날 획득한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제181사단 소속이며 뒤에는 중원부대가 도착하여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새벽 좌일선 제27연대에서 획득한 포로가 제203사단 제609연대 소속이라고 밝힘에 따라 새로운 부대가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0]

이와 같은 전황에 봉착한 사단장은 역습을 중지하고 접촉선을 고수하기로 결심을 바꾸어 역습을 준비하고 있던 제36연대를 제27연대와 제35연대 그리고 제22연대의 직후방인 복도시-널우골의 제2선에서 방어종심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제36연대를 제외한 다른 3개 연대는 이미 최소한 3회 이상의 식사를 걸렀을 뿐 아니라 매일 밤 중공군의 공격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고, 많은 전우를 잃어 사기마저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험준한 산악지형에다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노무자들의 식사와 탄약보급은 물론 환자 수송을 위한 노력은 사기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중공군은 제180사단과 증원된 제203사단 제609연대를 좌일선에 투입하여 6월 14일 18시부터 사단의 전 정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사단 좌익(548고지-739고지)의 제27연대는 적 2개 연대의 공격에 저지선이 무너지고 통신마저 불통되는 등 부대가 일대 혼란에 빠져 북한강에 가설된 교량을 향해

밀려 내려갔다. 우익(973고지-883고지)의 제22연대는 적 5개 대대를 맞아 초전에는 그런대로 그 기세를 꺾기도 하였지만 20시가 넘으며 적의 파상공격에 휩쓸려 저지선을 상실하였다. 중앙(949고지-805고지)의 제35연대도 949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대대가 중공군 5개 대대의 인해공격을 받아 23시 40분을 전후하여 진지가 완전히 돌파되었다. 이때 805고지의 제3대대는 좌우익의 제1대대와 제22연대 전선이 돌파됨에 따라 적지에 고립되어 탈출과정에서 제9중대장이 전사하는 등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사단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혼전에 빠져들자, 사단역습을 중단하고 저지선을 형성한 제36연대를 북한강 상의 교량 부근으로 이동시켜 교두보를 구축하고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 6월 14일 23시경 사단의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병력은 중공군의 야간 추격을 받으며 황병동 계곡으로 밀려들었다. 사단장은 629고지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폭파하고 공병대대장에게 북한강 상의 교량폭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자정 무렵 사단의 상황은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국군의 진지를 공격중인 중공군

(2) 신방어선(Iceland Line)으로의 철수

제2군단장 정일권 중장은 이 무렵 우전방 사단이 현 방어선인 미네소타선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군 제5사단을 그 남쪽 금성천과 북한강에 연한 방어선인 아이슬란드선으로 철수시켜 양지촌(462고지)-후동-널우골(748고지)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7연대는 북한강 서안의 양지촌(462고지-후동)에, 제36연대는 북한강 동안 황병동(319고지)-널우골(748고지)에 방어편성을 실시하고 제35연대는 군돌-감우리에 집결시켜 사단예비로 두었다. 그리고 제22연대는 북한강 서안으로 철수하여 원대복귀를 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군단의 조치와 사단명령에 따라 각 연대는 야간에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고 제1103야전공병단은 낡은터 북동쪽과 후동에 가설된 북한강 상의 작전용 교량을 02시부터 03시까지 폭파하였다. 이 폭음은 철수하는 병사들을 더욱 놀라고 두렵게 만들었다. 적의 추격 하에 분산된 채 북한강에 도달한 병력은 이미 교량이 파괴된 후라서 일부는 헤엄을 치고 일부는 보조물을 이용해 강을 건너야 했다. 물론 중장비의 철수는 불가능하였고, 지원된 미군의 중박격포대대도 박격포를 모두 파괴하였다. 마치 개전초기 한강교량 파괴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듯하였다.

이런 혼란과 위기를 넘기면서 사단은 6월 15일 07시까지 신방어선을 편성하여 안정을 되찾았다. 이날은 다행히 날씨가 청명하여 유엔공군기가 6·25전쟁 사상 1일 최고 출격횟수인 2,143회나 출격하여 중공군 진지와 부대를 강타함으로써 적의 돌파구 확장과 추격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전투 결과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중장은 이 전투가 종결됨과 동시에 중동부전선의 보강에 착수하여 미 제8군 예비인 제3사단을 제2군단에 복귀시켰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북한강 서안의 아이슬란드선을 점령, 방어하게 되었다. 또한 미 제10군단 예비인 국군 제7사단은 좌익으로 추진되어 제20사단의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미주리선 붕괴 이후의 전선을 재조정한 결과, 제5사단 제36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748고지-전석 서북쪽 1.8㎞간의 진지를 중심으로 동쪽은 제7사단 제8연대가, 서쪽은 제3사단 제18연대가 배치되어 아이슬란드선상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마주하고 있었던 중공군 제60군은 북한강 동안에서 일단 진격을 중단하고 전열을 정비한 후 제61, 제62, 제63의 3개 사단으로 편성된 제21군과 진지를 교대하였다. 이후 이들은 제62사단과 제63사단으로 광석교(廣石橋)-황병동(黃柄洞)-가라치(加羅峙)-금성천 강구로 연하는 아이슬란드선 북쪽에 진지를 편성하여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이번 전투기간 중 제5사단이 거둔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4-25>와 같다.[101]

<표 4-25>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추정 사살	노획			전사	부상	실종
				박격포	소총	수류탄			
제27연대	1,997	6	942	1	3	12			
제35연대	1,647	4	942		3	9			
제36연대	961	2	333						
제22연대	472	8	2,766	1	16	19			
계	4,677	20	4,983	2	22	40	24/812	36/1,583	17/697

3. 250(퀸)고지-199(박)고지 전투(1953. 6. 25 ~ 6. 29)

1) 전투 개요

250(퀸)고지-199(박)고지 전투는 미 제1군단의 중앙우익전선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이 휴전협정의 조인을 앞두고 연천 북방 임진강 부근의 250고지와

199고지를 탈취하기 위한 중공군 제1군 예하 제1사단과 제7사단의 공격을 맞아 1953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중공군이 목표로 한 250고지와 199고지는 제1사단의 우일선 정면에서 전초선을 이루는, 그리고 같은 능선에 남북으로 연한 고지들이다. 또한 심한 굴곡을 보이며 동서로 흐르는 역곡천 하류와 서북에서 동남으로 흐르는 임진강 사이에서 삼각형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고지들은 적의 진출로를 가로막는 관문이자, 동남쪽 1㎞ 후방의 사단 주저항선을 엄호하는 요지일 뿐 아니라 적의 주진지 후방을 굽어볼 수 있는 요충이었다.[102]

<표 4-26>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미 제1군단장	소장	Bruce C. Clarke	
	제1사단장	준장	김동빈(金東斌)	
	제11연대장	대령	최주종(崔周鍾)	
	제2대대장	중령	김봉건(金奉楗)	
	제3대대장	중령	김형록(金衡祿)	
	제12연대장	대령	이길영(李吉泳)	
	제1대대장	중령	강영걸(康永傑)	
	제2대대장	중령	한국찬(韓國贊)	
	제15연대장	대령	송호림(宋虎林)	
	제1대대장	중령	최봉도(崔鳳道)	
	제2대대장	중령	박춘웅(朴春雄)	
	제3대대장	중령	이종정(李鍾鼎)	
	사단수색중대장	대위	장기열(張其悅)	
	사단포병단장	대령	송찬호(宋贊鎬)	
	사단공병대대장	중령	문희영(文熙瑛)	
	1해병연대전투단장	대령	김성은(金聖恩)	배속부대
중공군	제1군장		류주안리안(劉轉連)	
	제1사단장		류하오양(遊好揚)	
	제7사단장		장카이지(張開基)	

사단 당면의 적은 중공군 제1군으로서 임진강 동안에 제7사단을, 서안에 제1사단을 각각 전개하고 제2사단을 예비로 두었다. 이들은 국공내전에서 국부군과 대전한 경험을 보유하였고, 산악유격전에 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의 병력은 37,770명으로 약 60%가 신병으로 구성되었으며, T/E에 의한 완전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지원화력은 75~76㎜포병 5개 대대와 122㎜포병 1개 대대, 85㎜대전차포병 1개 대대로 편성되었다.[103]

반면에 국군 제1사단은 역곡천 남안의 어적산리 부근에서 임진강 동안의 중사리간 남북의 진지를 우일선 제15연대에, 임진강 서쪽에 접안한 노리(Nori)고지로부터 고왕산 서쪽 기슭에 이르는 서북의 진지를 좌일선 제11연대에 담당토록 하는 한편 제12연대를 사단예비로 하였다. 지원화력은 제5포병단을 예속하여 사단포병단으로 개편함으로써 105㎜ 3개 대대와 155㎜ 1개 대대의 완전편제의 사단포병을 보유하였고, 이밖에도 7개 포병대대의 지원이 가능하였다.[104]

2) 전투 경과

미 제1군단의 중앙우익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은 예하의 제15연대에 사단의 우일선을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무렵 사단 주저항선의 방어개념은 다음과 같았다.[105]

① 사단은 2개 연대로써 주저항선을 동서로 나누어 맡고, 1개 연대를 예비로 확보한다. 일선연대의 당면의 전초진지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고수한다.
② 우일선연대는 임진강 동쪽 지역을 맡는다. 사단수색중대를 배속한다. KSC 3개 중대를 배속한다. 중박격포(4.2인치) 1개 소대를 배속한다. 공병 1개 중대로써 직접 지원하게 한다.
③ 좌일선연대는 임진강 서쪽 지역을 맡는다. 공병 1개 중대를 배속한다. KSC 3개 중대를 배속한다. 중박격포(4.2인치) 2개 소대를 배속한다.
④ 예비연대는 주력을 임진강 서안의 강내리(江內里)-북삼리(北三里) 일대에, 1개 대대는 강 동안의 선곡동(仙谷洞)에 집결, 대기한다.

⑤ 포병단은 경포 각 1개 대대로서 좌우 일선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하고, 경포 1개 대대와 중포대대는 일반지원에 임하도록 한다. 피지원연대의 임무교대와 동시 지원포병대대의 임무를 교대한다.

⑥ 제2전차중대는 좌일선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배속 해병전차중대는 우일선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⑦ 공병대대는 각 1개 중대로써 좌우 일선연대를 직접 지원토록 하고, 잔여중대로써 후방진지와 보급로 보수공사에 임하게 한다. 아이슬란드(Iceland)선은 제2주저항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캔사스(Kansas)선은 저지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와이오밍(Wyoming)선은 반격에 있어서의 공격개시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국군 제1사단은 우일선의 방어정면에 250고지(퀸고지)와 199고지(박고지) 등 8개의 고지가 동북으로 4㎞의 진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단수색중대를 보강하였다. 우일선 방어정면을 담당한 제15연대는 주저항선인 제임스타운(Jamestown)선에 2개 대대를, 아이슬란드선에 예비인 1개 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우일선 대대에 3㎞의 주저항선과 함께 퀸고지를 포함한 5개 진지를, 좌일선 대대에 2㎞의 주저항선과 박고지를 포함한 3개 진지를 담당토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우일선 대대는 2개 중대, 좌일선 대대는 1개 중대의 병력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대는 우일선 대대에 사단수색중대와 예비대대의 1개 중대를 배속하여 2개 중대를, 좌일선 대대에 연대수색중대를 배속하여 1개 중대를 각각 보강하였다.

이런 결과로 연대의 우일선인 제2대대는 제5중대와 제6중대 그리고 사단수색중대의 3개 중대로 주저항선을 담당토록 하고, 제7중대는 퀸고지를 전담시켰다. 좌일선인 제3대대는 주저항선을 제11중대와 제9중대가 담당토록 하고, 배속된 연대수색중대를 임진강 동안을 연해 배치하여 사단 좌일선과의 협조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 제10중대는 박고지를 포함한 3개 진지의 방어임무를 맡게 하였다.

연대는 예비를 확보하지 못한 제3대대의 병력사용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병전차중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여 화력으로 이를 보전하면서 지원포병의 화력지원

에 의존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퀸고지와 박고지 진지 앞에 3중의 철조망과 장애물지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6월 11일부터 중공군은 계속된 포격으로 전초진지 전방의 장애물에 대한 파괴를 시도하였고, 결국 퀸고지와 박고지 앞의 경사면에 설치된 장애물지대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또한 6월 21일 밤부터 중공군 정찰대가 진지 앞에 출몰하여 철조망을 절단하고 공격호를 구축하는 등 공격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1) 제15연대의 상황

6월 25일 어둠이 짙어진 20시경 중공군은 사단 우일선의 마이크(Mike)고지로부터 퀸고지와 박고지를 연하여 좌일선 정면의 리틀노리(Little Nori)고지에 대해 강력한 포격을 가해왔다. 제15연대의 우일선인 제2대대 정면의 마이크고지와 퀸고지에는 20시부터 적의 포격이 집중되었다. 마이크고지에는 제5중대의 1개 소대가, 퀸고지에는 제7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20분이 지난 후 마이크고지 앞에는 역곡천을 도하한 1개 중대규모의 적이, 그리고 퀸고지에는 2개 중대규모의 적이 출몰하여 공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사단의 지원 포격이 마이크고지에 집중되자, 적은 얼마 후 역곡천 북안으로 되돌아갔고, 퀸고지를 공격한 적도 제7중대의 강력한 방어와 사단의 지원 포격에 막혀 물러나게 되었다.

한편 연대의 좌일선인 제3대대 정면의 박고지 일대를 확보하고 있던 제10중대는 연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박고지 양측의 제1고지와 제3고지에 집중되던 적의 포격이 박고지로 전환되면서 제1고지와 제3고지에는 각각 대대규모의 적이 출몰하여 고지를 에워싸기 시작하였고, 곧이어 수류탄전이 전개되었다. 1개 소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제3고지는 통신이 두절된 채, 적의 방망이수류탄 공격에 의해 1시간 만에 고지를 상실하였다.

또한 박고지 서남쪽의 제1고지 또한 1개 소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적은 1개 중대가 정면공격을 가하는 한편 2개 중대가 임진강 동안을 따라 우회하여 양면공격을 가해왔다. 소대는 포격지원을

받으며 적의 진내 접근을 저지하였으나, 21시가 지나며 중과부적으로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져 급기야 진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주진지인 박고지 또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혈전을 벌이고 있었다. 중대는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적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21시 30분경 좌우의 제1고지와 제3고지 방면에서의 공격과 더불어 22시에는 동남쪽의 교통호로부터 들이닥친 적으로 인해 완전포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고지 정상의 관측호 주위로 진지를 축소하고 부근의 동굴을 진지로 이용하였다.

마침내 적이 정상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중대장은 중대원을 이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입구를 막았다. 그리고 적이 정상으로 모여든 순간, “현재 박고지에는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정상을 차지하고 진지를 재편 중에 있음. 중대장 이하 일부 중대원은 동굴 속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음. VT탄으로 우리의 머리를 때려주기 바람.”이라고 대대에 무선연락을 취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제58포병대대가 VT탄 포격을 고지 정상에 2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로써 중대는 적을 몰아내고 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대를 수습하고 관측호 부근에 진지를 편성하던 중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적으로부터 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어 물러났던 적이 다시 정상으로 접근을 시작하였다. 중대장은 중대를 이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입구를 봉쇄하고 동굴을 파괴하려는 적의 시도에 맞서 저항하였다.

한편 적거리(赤巨里)의 연대 CP에서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 송호림 대령은 적의 목적이 박고지 일대를 탈취하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예비가 없는 제3대대가 진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 제1대대는 각 1개 중대로써 퀸고지와 박고지를 지원하고, 1개 중대는 제11중대 OP고지로 추진하여 명령을 대기하라. 제1중대는 21:30부로 제2대대 배속을 해제한다.[106]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아이슬란드선에서 예비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2중대에 퀸고지를, 제3중대에 박고지를 지원토록 하고, 제1중대를 제11중대 OP로 추진하였다.

(2) 제11연대의 상황

국군 제1사단의 우일선으로 임진강 서안을 담당한 제11연대는 우일선인 제1대대의 제3중대가 확보중인 리틀 노리고지와 버블고지에서 각각 1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중대는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접근한 적에게 포병사격을 요청해 물리치려 했으나 적도 포격으로 대응하였다. 리틀 노리고지와 버블고지에서는 수류탄전이 벌어졌으나, 얼마 후 버블고지를 공격하던 적은 신호와 함께 물러감으로써 리틀 노리고지에서만 격전이 지속되었다.

사단장은 적이 노리고지 부근을 공격해 온 의도는 아군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양공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화력을 제15연대 정면에 집중시키기 위해 리틀 고지의 병력을 버블고지로 철수시켰다. 이와 함께 사단 좌우일선에 대한 적의 공격기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제15연대가 퀸고지와 박고지에서 격전을 전개하는 동안 예비대를 제15연대 정면에 집중시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중공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실시중인 포병대원

① 사단은 현 MLR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Mike고지-Queen고지-박고지-Nori고지에 침공한 적을 격멸하려 한다.
② 제15연대는 금일 21시부로 제12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지휘하고 당면의 MLR 및 OPL을 확보하라. 단, 이 예비대대의 전투참가는 사단장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③ 제12연대는 오늘 21시부로 1개 대대를 제15연대에 배속 조치하라. 연대주력은 적거리 부근에 집결하여 후명을 기다리라.[107]

이에 따라 제12연대 제1대대는 제15연대장의 지휘 하에 기동을 실시하여 주저항선 인근에 집결하였다. 또한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제15연대의 우일선과 좌일선 정면을 담당하기 위해 상매동(上梅洞) 부근에 각각 집결하였다.

(3) 제15연대의 상황

연대장의 진격명령에 따라 어둠 속에서 이동한 제1대대는 제11중대 OP에 대대 OP를 개설하였고, 각 중대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였다. 퀸고지 지원에 나선 제2중대는 6월 26일 01시 20분에 퀸고지에 진출한 후 서남쪽의 제3고지 탈환에 나섰다. 그러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8부 능선의 돌파가 용이치 않자 제11중대 OP로 철수하였다. 또한 박고지 지원에 나선 제3중대는 전 중대원이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돌진하여 격전을 벌인 끝에 01시 20분에 정상을 탈환하고 동굴 속의 제10중대와 합류하였다.

그러나 물러났던 적이 02시에 박고지 정상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고지 정상의 병력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 최봉도 중령은 박고지의 적은 포병의 진내사격으로 격퇴하기로 하고 제1중대를 포격이 끝나는 즉시 박고지를 공격토록 지시하였다. 중대장의 진두지휘 아래 공격에 나선 제1중대는 진지의 일부를 탈취한 후 정상으로 돌진하려는 순간 적의 증원 병력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치열한 백병전을 펼친 끝에 역부족으로 06시에 8부 능선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3) 전투 결과

사단은 제11연대의 공격중대가 250고지-199고지에서 물러난 6월 29일 16시부터 7월 1일 13시까지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적의 움직임을 견제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 밤에는 사단 내 모든 노무단(KSC)을 동원하여 퀸고지와 황새고지를 연결하는 능선에 함정을 만들고 지뢰를 설치하여 황새고지로의 접근을 방지하였다. 또한 제15연대로 하여금 적을 퀸고지에 억류시키고 황새-상무-갈매기고지 등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예비인 제11연대 1개 대대를 아이슬란드선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반면에 중공군 제7사단은 퀸고지를 탈취한 후 군 예비인 제2사단과 교대하였는데, 이는 이번 전투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결과였다.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및 손실 현황은 다음의 <표 4-27> 및 <표 4-28>과 같다.[108]

<표 4-27>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현황

구 분	사살	생포	노획						
			로켓포	박격포	중기	경기	다발총	소총	수류탄
제10연대	576	56			6	17	14	78	960
제16연대	609	17		2	4	5	2	20	2,450
제21연대	286	33	3	4	3			56	9,700
계	1,472	106	3	6	13	22	16	154	13,110

<표 4-28> 작전기간 중 사단의 손실 현황

구 분	전사	부상	실종	망실			
				BAR	M1소총	칼빈소총	총검
제10연대	1/111	7/397	/3	2	10	49	168
제16연대	3/93	7/466	/3				
제21연대	/37	5/285	/8				
계	4/241	19/1,148	/14	2	10	49	168

4. 529고지 전투(1953. 6. 25 ~ 7. 3)

1) 전투 개요

529고지(觀望山) 전투는 국군 제3사단이 북한강과 금성천의 분기점에 위치한 독립고지인 529고지를 방어하기 위해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201사단 및 제60군 예하 제180사단과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휴전회담을 앞두고 공산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의 요충지를 회복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이들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 화천저수지를 탈환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적은 그 지역의 감제고지인 883고지-973고지-949고지 선과 북한강 서안에 돌출한 663고지를 점령하여 북한강 동안과 서안을 연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다음 100번 도로(등대리-화천)의 기점을 획득한 여세를 몰아 국군 제2군단의 유일한 병참선인 17번 도로(창도리-화천)를 방성곡 부근에서 차단하고, 군단주력을 격파한 후 최종목표인 화천으로 진격하려 하였다.[109]

이런 상황에서 국군 제2군단은 돌파된 883고지-973고지-949고지선의 회복을 위해 실시한 두 차례의 반격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군단의 우측방이 노출되어 위협이 증대되자, 군단은 제3사단을 미 제8군으로부터 배속받아 군단 우익의 제5사단과 중앙의 제8사단 사이의 작전지역 일부를 담당하였다.[110]

당시 사단 방어정면의 중공군 제67군은 좌익의 중공군 제60군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제67군은 예하의 3개 사단을 어덕리-금성-북한강 동안의 어운리 선에 제199사단-제200사단-제201사단 순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특히 제3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201사단이 사단지휘소를 금학동에 두고 우측의 중방평-쌍룡동간에 제601연대를, 좌측의 쌍룡동-663고지-상녕골선에 제602연대를 배치하여 제23연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603연대는 예비로 용학산 북쪽 기슭에 두었다. 또한 제60군 예하 제180사단은 북한강 상류의 돌출부인 548고지-973고지-도피막에 이르는 선을 침공하여 제18연대 및 제5사단과 대치

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사단 포병연대의 75㎜ 20문과 76㎜ 10문, 독립포병연대의 76㎜ 10문과 105㎜ 30문 등 80문의 대소구경포가 지원하였고, 제1기갑연대 소속의 전차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병력 수준은 1개 사단 평균 10,000명이고, 이 중 40%가 신병이었으나 간부급 대부분이 팔로군과 국부군 출신으로 전투경험이 풍부하였다. 또한 보급상황도 20일간의 비축량을 확보함으로써 사기도 높은 편이었다.

<표 4-29>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3사단장	소장	임선하(林善河)	
	제18연대장	대령	박경원(朴敬遠)	
	제22연대장	대령	최병순(崔炳淳)	
		대령	장호진(張好珍)	1953.6.28부
	제1대대장	소령	이재신(李在信)	
	제2대대장	중령	한익검(韓益檢)	
	제3대대장	대위	임판길(林判吉)	대리
	제23연대장	대령	박 철(朴 徹)	
	제1대대장	중령	김재룡(金在龍)	
	제2대대장	대위	강흥중(姜興中)	대리
	제3대대장	소령	김경철(金慶哲)	
	사단수색중대장	대위	설준철(薛俊喆)	
	공병대대장	중령	한광수(韓珖洙)	
	전차중대장	대위	이성재(李性宰)	
	제11포병단장	대령	김 성(金 聖)	배속부대
중공군	제67군장		마 시(馬 襲)	
	제199사단장		지 우(齊 武)	
	제200사단장		리 징(李 靜)	
	제201사단장		마후이(馬 輝)	

한편 국군 제3사단은 6월 15일 배돌바우-여문리(汝文里) 북쪽 700m의 무명고지에 이르는 작전지역에서 제18연대를 배돌바우-구대리 북쪽 600m간을, 그리고 제23연대를 이와 연계하여 여문리 북쪽까지 연하는 선을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제3사단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약 4,800여 명의 병력과 로켓포 23문, 75㎜ 및 50㎜ 무반동총 31정, 81㎜ 및 60㎜박격포 66문, BAR 128문, 기관총 166정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은 제11 및 제72포병대대의 직접 지원과 미 제176 및 제88포병대대의 일반지원을 받았으며, 적의 직사화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2개 소대를 예속받았다. 또한 제1103야공단은 사단 주보급로인 100번 도로, 그리고 17번 도로를 정비하고 있었다.[111]

529고지는 북한강 상류에서 갈라져 서남으로 향하는 금성천과의 분기점에 있는 독립고지로서 적의 주진지인 663고지와 548고지로부터 감제되고 있었으며, 주봉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은 완만한 반면 전사면은 기암절벽을 이루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또한 기간 중의 기상은 새벽에는 안개로 인해 장거리 관측이 곤란하였으나, 대체로 청명한 날씨로 항공지원이 용이하였다.[112]

2) 전투 경과

휴전을 앞두고 적의 공세에 대비하여 주진지를 강화하며 그들의 동향을 주시하던 제3사단장 임선하(林善河) 소장은 적정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현 주저항선을 계속 고수하려 한다.
② 제18 및 제23연대는 현 진지를 강화하되, 인접부대와의 연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적의 야간침투에 대비하라.
③ 제22연대(예비)는 항시 출동할 태세를 갖추라.
④ 제11포병단은 피지원부대의 사격지원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

예상한 대로 중공군은 1953년 6월 25일 529고지 일원에 각종 포화를 10분에

걸쳐 집중한 후 22시 5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제23연대 제2대대의 전진진지를 목표로 세 방면에서 공격을 가하였다.[113] 이에 제2대대장은 전방에 설치한 모든 잠복조를 철수시켜 거점별 방어로 전환시키고, 지원포병으로 탄막사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단장은 예비인 제22연대에 출동준비를 명령하였다.

적의 공격축선이 점차 529고지로 지향되자, 사단장은 방어에서 반격으로 이전하여 적을 격퇴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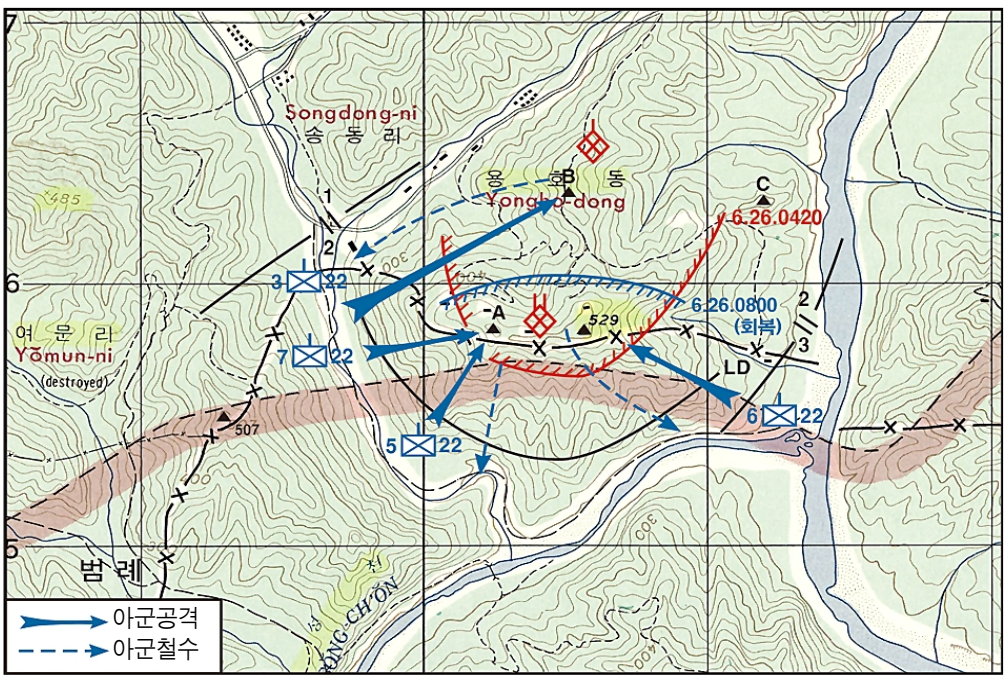
① 제22연대장은 ㉮ 1개 대대를 용호동으로 우회시켜 적의 측배를 강타하고 B고지를 탈취하라. ㉯ 또한 1개 대대를 제23연대에 배속하라. ㉰ 그리고 1개 대대를 507고지에 배치하여 예비진지를 확보 강화하라.
② 제23연대장은 배속받은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주저항선을 강화하라.

이에 따라 제22연대장으로부터 우회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는 심야에 폭우를 뚫고 용호동(龍湖洞)을 향해 출발하였다. 또한 제23연대에 배속된 제22연대 제2대대와 507고지의 예비진지 점령을 부여받은 제22연대 제1대대도 목표로 향하였다. 이 무렵 적은 사단의 탄막지대를 뚫고 진지 앞 100m 전방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적이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제2대대가 전 화력을 집중하여 사격을 퍼붓자 잠시 멈칫하던 적은 공격방향을 A고지로 선회하였다. 이때 대대는 적의 포격으로 이미 통신이 두절되었고, 연락호도 완전히 붕괴되어 고립된 상태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었다. 계속된 분전에도 전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전개되자 대대장은 04시 20분에 529고지 남쪽의 8부 능선으로 병력을 철수시켰다.[115]

제23연대 제2대대가 고지를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제22연대 제2대대의 배속명령을 변경하여 제22연대장의 지휘 하에 529고지에 대한 역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529고지 남쪽의 8부 능선에 전개된 제2대대가 역습에 나서게 되었다. 대대장은 각각 1개 중대로 고지의 동남쪽과 서쪽에서 협공을 가하기로 하고, 중화기중대는 507고지에서 화력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상황도 4-6> 529고지 전투(제1차 역습)



6월 26일 04시를 기해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대대는 포병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가파른 경사와 바위틈을 헤치며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일선의 제7중대는 적진 100m 앞에서 적의 치열한 포화로 진격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때 예비인 제5중대가 합류함에 따라 공격을 재개하여 양 중대는 적진 50m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양 중대가 진지 앞까지 도달하자, 적은 소화기사격과 수류탄을 던지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때 제7중대장 오정섭(吳珽燮) 대위가 단신으로 20m까지 접근한 후 돌격명령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병을 물리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원들도 적진으로 돌진하여 A고지 정상에서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제5중대마저 합류하여 협공을 펼치자, 적은 06시경 많은 시체를 남긴 채 뿔뿔이 흩어져 북쪽으로 퇴각하였다.[116]

한편 529고지 동남쪽으로 진출하던 제6중대는 극심한 경사와 함께 적의 수류탄

투척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여 전진이 교착된 상태였다. 이때 제7중대와 제5중대가 A고지를 탈취하면서 사단포병은 전 화력을 제6중대 지원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를 기회로 제6중대가 고지정상으로 돌격하여 진입하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적은 300여 구의 시체를 남겨놓은 채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529고지를 빼앗긴지 3시간 40분 만인 08시에 주저항선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1개 대대규모의 적이 529고지 동북쪽 능선 100m의 지점에서 포격지원을 받으며 반격을 가해왔다. 이때 529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6중대는 양측의 포격으로 붕괴된 연락호에서 최후저지사격을 실시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시간이 지나며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이런 상황이 A고지에서도 전개되자, 적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8부 능선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앞서 용호동으로 우회한 제3대대는 B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행군 도중 날이 밝으며 대대의 행군대열이 적에게 노출되었고, 급기야 9,000발에 달하는 적의 교란사격이 집중되었다. 가까스로 병력을 수습한 대대장은 07시 50분에 B고지 서쪽 계곡에서 제9중대와 제10중대를 각각 좌우일선으로 하여 진격에 나섰다. 이때 적도 B고지를 상실할 경우 529고지 일대의 후방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필사적인 포격과 함께 병력을 증원함으로써 대대의 공격은 8부 능선에서 멈추고 말았다.[117]

이에 대대장은 후속하던 제11중대를 최우일선으로 돌려 09시 20분에 B고지 남쪽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각 중대의 공격이 개시되며 사단의 포병사격이 정상을 향하였다. 적의 진지 앞까지 도달한 후 3면에서 돌진을 감행한 대대는 적의 무차별 포격 속에서 육탄전을 펼쳐 마침내 B고지를 장악하였다. 반격 15분 만에 B고지를 탈취한 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11시를 기해 507고지의 서북쪽으로 철수하였다.[118]

이러한 상황에서 군단장 정일권 중장은 529고지의 전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반드시 탈환하기 위해 작전지역을 정비하였다. 군단은 6월 26일 11시부로 제5사단의 일부병력으로 제3사단의 일부 정면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제3사단은 제18연대의

전투지역 방어임무를 제5사단에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119] 또한 제8사단과 제3사단의 제한점 및 전투지경선 일부를 변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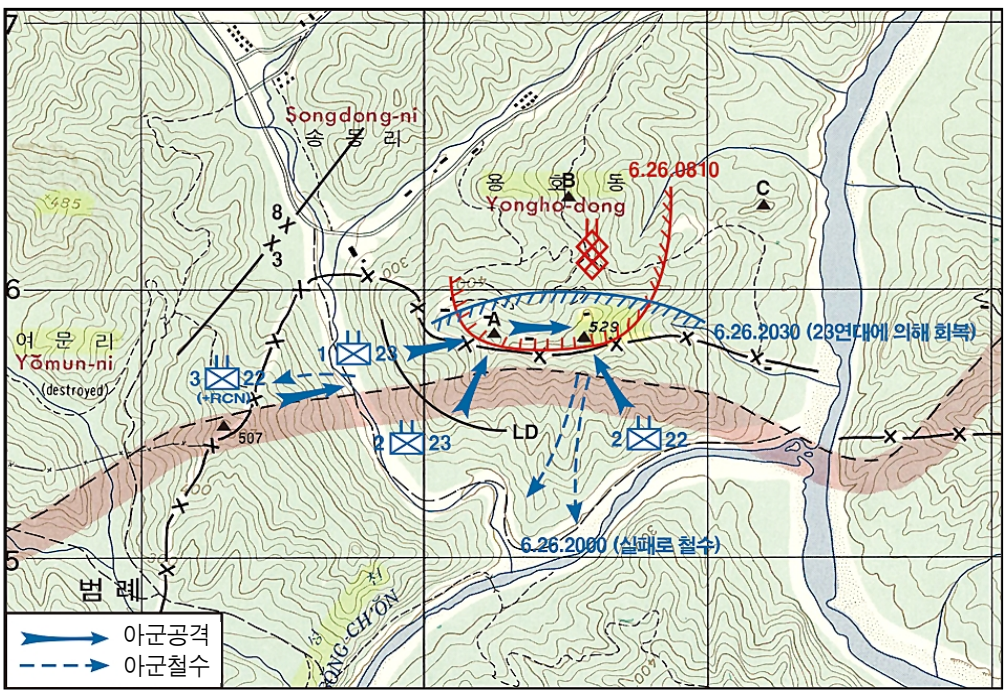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제3사단은 우일선인 제18연대의 방어지역을 제5사단에 인계하고 좌일선 제23연대 제1대대의 작전지역을 제8사단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은 축소된 전투정면에서 529고지 탈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단장은 목표탈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20]

① 제23연대(-)는 주력으로 529고지를 탈취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라.
② 제22연대는 제2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③ 제11포병단은 전 포병으로 공격연대를 화력 지원하라.
④ 전투간 요청에 의하여 항공지원할 것임.

명령을 받은 제23연대장은 A고지를 중간목표로, 그리고 529고지를 최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격개시선을 A고지 서쪽 300m 지점에 두고 좌일선에 제2대대, 우일선에 제1대대를 두어 병진공격토록 하는 한편 전투손실이 심한 제2대대에는 제3대대 제10중대와 연대수색중대를 배속하여 전투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제22연대장은 제2대대에 529고지 남쪽 300m 지점에서 공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3대대는 연대수색중대를 배속받아 제23연대(-)와 제22연대 간을 후속하며 화력지원을 실시하되, 전황에 따라 증원이나 초월공격을 단행토록 하였다.[121]

6월 26일 16시, 전투정면을 제8사단에 인계한 제23연대 제1대대와 529고지에서 물러났던 제2대대는 A고지를 협공하기 위해 각각 좌우로 전개하여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그러나 6,000여 발에 달하는 적의 탄막사격으로 양 대대의 진출은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A고지 남쪽으로 전환하여 돌진을 거듭한 끝에 탄막지대를 벗어나 적진 100m 앞까지 접근하였다. 이때 2개 편대의 아군 공군기가 출현하여 A고지와 529고지를 맹폭함에 따라 양 대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돌격을 감행한 끝에 A고지를 탈환하였다.

<상황도 4-7> 529고지 전투(제2차 역습)



A고지를 탈환한 직후 연대장은 제2대대에 529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제1대대는 제2대대의 공격을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가 공격의 선봉이 되어 목표 고지 100m 전방까지 도달하였으나, 적의 포격과 소화기사격이 집중되면서 진격이 둔화되고 있었다. 이때 뒤이어 도달한 제2대대장이 적의 특화점을 화염방사기와 포격을 유도해 공격하자 적의 저항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중대가 정상으로 돌격하고 또한 제2대대마저 공격에 가세하자,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20시 30분경 북쪽 능선과 계곡으로 퇴각하였다.[122]

한편 제22연대 제2대대는 공격대기지점을 떠나 강행군으로 529고지 남쪽 기슭에 이르렀으나, 적의 교란사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대대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17시에 529고지 남쪽 300m 지점을 통과, 급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적이 진지 밖으로 나와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써 대대는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통신망마저 두절됨에 따라

대대장은 3시간의 악전고투를 접고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여 20시에 고지 남쪽 기슭으로 철수하였다.[123]

목표고지를 향해 돌진하는 국군의 모습

529고지를 장악한 제23연대 제2대대장은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고지 동북쪽 능선에 제3중대를, 그리고 북쪽 능선에 제5중대를 전개시켜 전초진지로 삼았다. 6월 27일 01시를 기해 적은 9,000발에 달하는 포격을 고지에 집중시키며 역습을 가해 왔다. 포격이 시작되고 약 15분이 지나며 동북쪽 능선의 제3중대는 2개 중대규모의 적과 교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포격을 틈타 계곡으로 침투한 일단의 적이 529고지 정상으로 들이닥쳐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써 고지정상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더욱 강력해진 적의 포격으로 인해 구축된 호가 파괴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대장은 병력을 고지의 9부 능선으로 철수시켰다.[124]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임선하 소장은 증강된 1개 대대로 529고지를 남쪽에서 정면공격하는 한편 또 다른 증강된 1개 대대로는 A고지를 발판으로 측방공격을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25]

① 제23연대는 현 접촉선(529고지 9부 능선)과 A고지를 계속 확보하다가 제22연대에 임무를 인계하라.

② 제22연대(사단수색중대 배속)는 529고지를 탈환하고 일부 병력으로 제23연대의 작전지역(A고지)을 인수하라.

이에 따라 제22연대장은 03시를 기해 예하 대대에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제2대대는 529고지를 직접 공격하고, 제1대대는 A고지를 방어중인 제23연대 제1대대를 초월 공격하는 한편 예비인 제3대대는 529고지 서남쪽 기슭에서 양 대대의 상황에 따라 대응토록 하였다.

제2대대는 야간을 이용하여 은밀히 529고지 남쪽 200m 지점까지 접근하여 적진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대대의 침투를 간파한 적이 일제히 포격과 소화기 사격을 가함에 따라 대대장은 포병의 지원사격을 요청한 후 돌격을 개시하였다. 대대가 50m까지 접근하자, 적이 투척한 수류탄이 머리 위에서 폭발함으로써 공격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126]

한편 사단장은 6월 27일 08시를 기해 제22연대와 제23연대에 529고지와 A고지를 협동 공격하여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함께 전 포병은 공격준비사격을 일제히 양 고지에 집중하였다. 529고지 남쪽의 9부 능선에서 공격명령을 받은 제22연대 제2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여 적전 50m까지 육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적의 수류탄 투척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격이 중단된 채 혼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A고지에서 격전을 벌이던 제23연대 제3대대 쪽에서 함성이 울려 퍼지자, 고지가 피탈된 것으로 착각한 적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간파한 제22연대 제2대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리자, 대대 장병들은 일제히 고지 정상으로 내달려 전의를 상실한 적을 격퇴하고 10시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 제3대대가 격전 중에 있는 A고지를 향해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엄호사격을 가하였다. 제3대대는 이와 함께 제9중대를 배후로 우회시켜 적을 기습하면서 정면공격을 개시함으로써 A고지마저 장악하였다.[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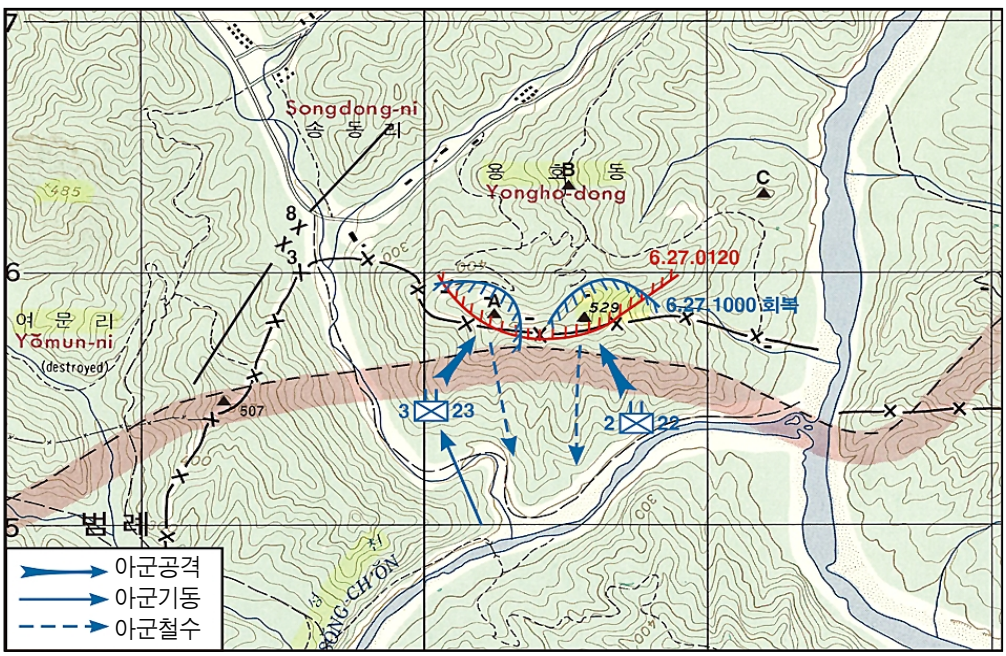
이처럼 529고지 일원에 대한 쟁탈전이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자, 사단장은 우일

선인 제18연대 제3대대의 작전지역을 제23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여 제23연대가 담당하도록 하고, 제18연대 제3대대를 원위치로 복귀시켰다. 따라서 제1선은 제22연대와 제23연대가, 제2선은 제18연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제22연대장은 A고지의 제3중대로 529고지의 제2대대를 증강시키고, 연대수색중대를 529고지 남쪽 기슭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15시 30분에 제2대대는 적의 협공을 받고 고지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던 연대장은 연대수색중대를 제2대대에 증원토록 명령하였다. 20시 40분경에는 2개 대대규모의 적이 야간공격을 위해 B고지의 양측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즉시 포격을 요청하여 적을 저지하고 나섰으나, 중공군 상당량의 포격을 고지에 집중하며 침투를 감행해 22시경에는 고지 북쪽 150m까지 도달하였다.[128]

국군의 저지선을 돌파하는 중공군

<상황도 4-8> 529고지 전투(제3차 역습)



그러나 3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물러났던 적은 6월 28일 05시 20분에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한 후 A고지와 529고지에 대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던 양 대대는 적이 가까운 거리에 도달하였을 때, 일제히 최후저지사격을 가해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은 병력을 증원하여 529고지를 다시 공격해옴에 따라 고지 일대의 전황은 시시각각으로 위급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06시 20분경 적의 공세가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양 대대는 병력을 수습하여 고지 남쪽 기슭으로 철수하였다.[129]

제22연대장 대리 장호진(張好珍) 대령은 529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제4차 역습을 계획하고 사단장의 승인을 구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를 주공부대로 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30]

① 제1대대(-)는 연대수색중대를 배속받아 529고지를 탈취하라.

② 배속된 제23연대 제2대대(-)는 A고지를 탈취하고 주공대대를 엄호하라.

이에 따라 제1대대는 16시에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고, 이에 맞추어 전 포병은 529고지의 정상을 맹폭하였다. 곧이어 대대는 적과 치열한 교전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1대대장은 A고지로부터의 측방사격으로 대대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23연대 제2대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의 좌일선으로 A고지를 공격하고 있던 제23연대 제2대대는 목표를 장악한 후 529고지 능선을 따라 진격하고 있었다.

그동안 제1대대는 두 차례에 걸친 협공에도 불구하고 적의 최후 저지사격에 부딪쳐 고전 중에 있었다. 이때 적의 저항을 뚫고 돌진한 제23연대 제2대대의 지원에 힘입어 양 대대는 다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이 급조한 호 안에서 일제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 대대는 연대장의 공격중지 명령에 따라 21시에 축차 철수를 단행하여 고지 남쪽 기슭에 집결하였다.[131]

다음날인 6월 29일에 사단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한 끝에 제23연대 제3대대로 제5차 역습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장의 명령을 받은 제23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32]

① 연대는 04:00를 기해 529고지 일원을 탈환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529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3대대는 A고지를 탈취하라.
④ 제2대대는 1개 중대(제5중대)를 차출하여 제3대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라.
⑤ 공격간 사단의 전 포병(미군 포함)은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임.
⑥ 연대 OP는 507고지 동남쪽 800m에 위치함.

이에 따라 연대는 04시 정각에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대포병사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제히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은밀한 행동으로 529고지 남쪽 100m 지점까지 접근한 제1대대는 이곳에서 적으로부터 치열한 집중사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A고지로 다가가던 제3대대도 9부 능선에서 적과 육박전을 벌였으나, 고지 앞에 가설된 철조망과 지뢰지대로 인해 더 이상의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장은 적의 배후를 기습하기로 작정하고 A고지로 이동하고 있던 제2대대 제5중대를 제3대대의 좌측으로 우회시켰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습을 받은 적은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포착한 제3대대는 지원된 공병이 철조망과 지뢰를 제거하자 고지로 뛰어들어 일대 격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529고지를 공격하던 제1대대 또한 돌격을 감행함에 따라 양 고지의 정상에서는 격렬한 백병전이 펼쳐지게 되었다.[133]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점점 전의를 잃고 무질서하게 북쪽으로 퇴각하였고, 이에 따라 연대(-)는 공격개시 4시간 20분만인 08시 20분에 529고지와 A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09시부터 포격의 강도를 높이며 2개 대대로 동북능선과 북쪽 능선을 따라 반격을 개시한 적은 제23연대의 저항이 완강하자 일부를 우회시켜 삼면에서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따라 후방로의 위협을 받게 된 제1대대는 연대장의 승인 하에 A고지를 방어중인 제3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고지 9부 능선으로 물러나 차후 공격에 대비하였다.[134]

한편 사단장은 각 연대장과 작전을 숙의한 후, 제23연대를 529고지 일원에 대한 역습에 전념시키는 한편 제22연대를 사단의 우일선에 그리고 제18연대를 사단 예비로 광대곡에 배치하였다. 사단장의 작전계획에 따라 전 연대는 6월 30일 19시를 전후하여 행동개시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23연대장은 역습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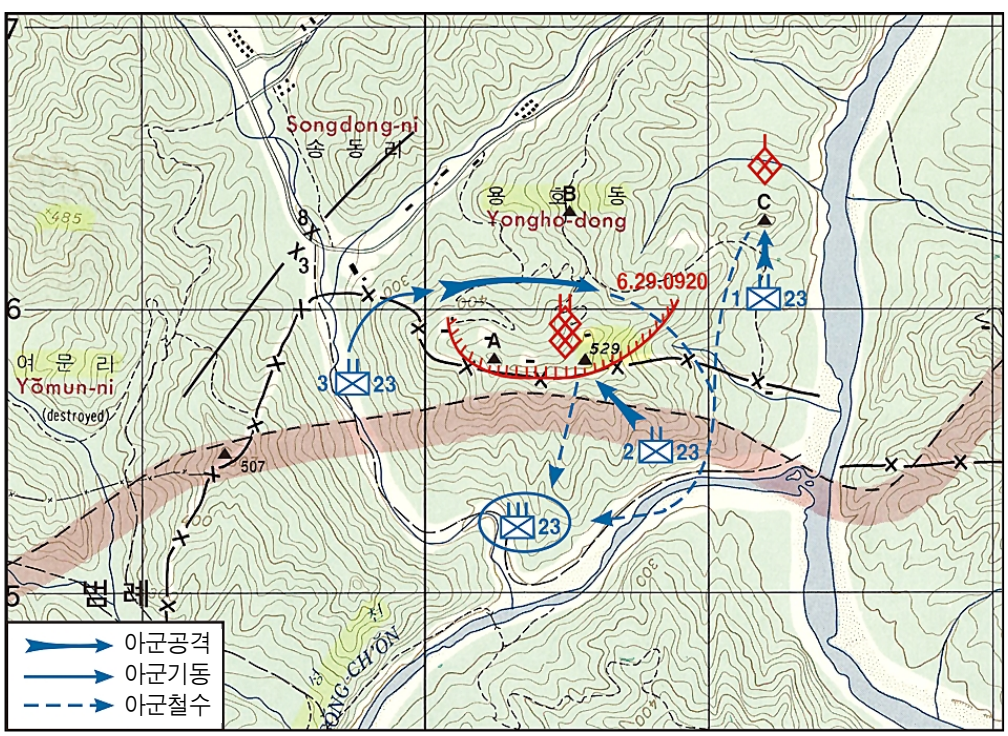
① 제1대대는 529고지 우측으로 우회하여 목표 C고지를 탈취하라.
② 제3대대는 용호동 계곡으로 돌파작전을 실시하여 529고지 일원의 적의 주 연락로를 차단하고 목표 C고지의 제1대대와 연계하라.
③ 제1대대와 제3대대는 C고지 점령과 동시에 명에 의거 529고지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
④ 제2대대는 양 대대가 우회공격 시 529고지 일원(A고지 포함)의 적을 고착 견제하되, 의명 탈취하라.

17시부터 강력한 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2대대는 529고지와 A고지간의 능선 남쪽 200m 지점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제6차 역습에 들어갔다. 또한

제1대대는 529고지 동쪽 400m 지점에, 그리고 용호동으로 우회한 제3대대는 529고지 서북쪽 기슭 500m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적은 정면으로 돌진하는 제2대대의 기만작전에 걸려 모든 화력을 제2대대에 집중하던 중 갑자기 좌우측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2대대가 고지에 가까이 접근하여 적을 견제하는 동안 제3대대는 적의 배후로 돌진하여 529고지 서북쪽 200m까지, 그리고 제1대대는 C고지의 근거리까지 육박하였다.

이 무렵 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난사를 시작하였다. 제1대대장은 적이 혼란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21시 30분에 목표 C고지에 대한 돌격을 감행하여 중대규모의 적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때 적의 배후로 우회한 제3대대는 진출 도중의 적의 저지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곧 병력을 수습하고 공격에 나서 적진 100m 앞의 산병호를 점령하였다.[136]

<상황도 4-9> 529고지 전투(제6차 역습)



이와 같이 연대의 포위작전에 걸려든 적은 7월 1일 0시 20분부터 소규모의 포위망 돌파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04시 30분부터 약 7,000발의 포격을 가한 후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C고지 동북능선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이때 고지를 방어하던 제1대대는 유리한 지세를 이용한 정확한 조준사격으로 적을 저지하고 격퇴시켰다. 이로부터 40분이 경과한 후 적은 3개 대대규모로 다시 반격을 실시하였다. 대대는 포병과 사단이 요청한 2개 편대의 공군기 지원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수많은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은 계속 이어져 결국 양 대대는 진내 근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점점 적에게 역포위된 채 각 대대가 고립되어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대장은 적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이탈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양 대대는 포격지원 아래 축차적인 지연작전으로 철수를 단행하여 13시에 A고지 남쪽 기슭에 집결하였다.[137]

제6차 역습에 실패한 제23연대장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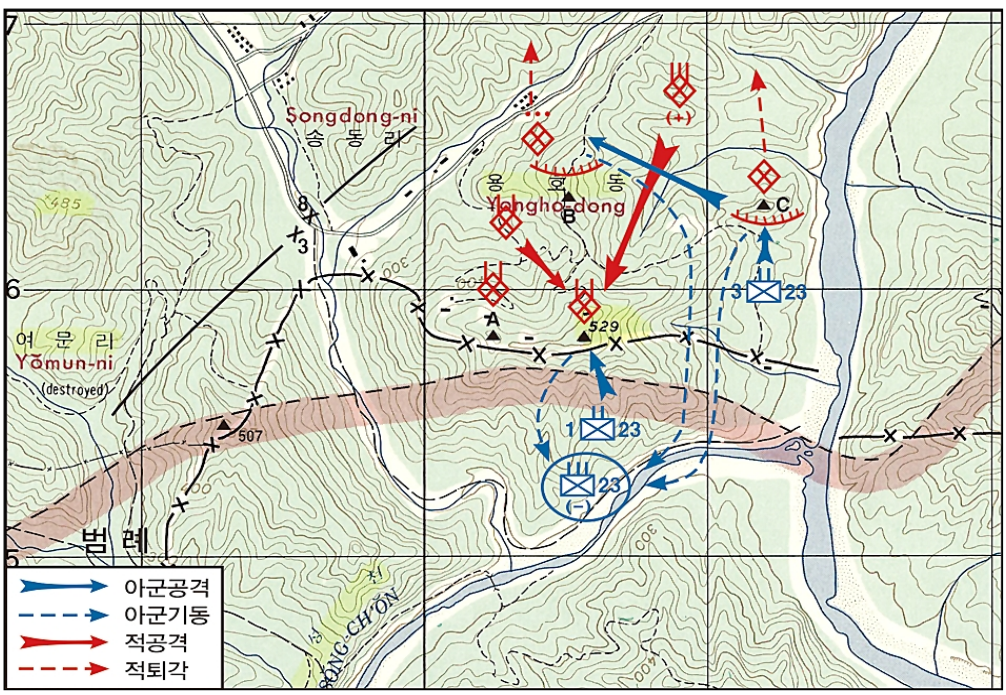
① 연대는 04:00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고 목표 529고지, B고지, C고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529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3대대는 C고지를 탈취하고 의명 B고지를 탈취하라.
④ 제2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포병지원사격은 LD통과 10분 전부터 실시한다.
⑥ LD는 다음과 같다. 제1대대 : 529고지 남쪽 300m, 제3대대 : C고지 남쪽 300m

이 계획은 제6차 역습에서 정면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제2대대를 공격제대에서 제외하고, 1개 대대는 529고지 정면에서 적을 견제하고 또한 1개 대대는 적의 배후를 차단하여 일출 전에 전투를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7월 3일 03시 50분에 사단의 전 포병이 목표 일대의 적진을 강타하는 가운데 제1대대와 제3대대는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C고지의 적은 제3대대가 40m 전방까지 육박하자, 진내사격과 소화기사격 등으로 대대의 접근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대장은 1개 중대를 정상 북쪽으로 침투시킨 후 돌격을 감행하여 04시 50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상황도 4-10> 529고지 전투(제7차 역습)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일부 병력으로 C고지를 방어하면서 B고지를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격에 나선 제3대대는 경미한 적의 저항을 제압하고 05시 30분에 B고지마저 탈취하였다. 이처럼 제3대대가 529고지의 주변을 장악하자, 연대장은 제1대대에 529고지 점령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529고지의 적은 삼면 포위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09시에 활발한 포격과 함께 반격을 가해 오던 적은 12시 30분을 기해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529고지 주변의 각 고지를 공격하였다. 병력규모나 공격방향 등을 판단한 제3대대장은 역포위 상태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B고지와 C고지의 병력을 축차 철수시켰다.[138]

3) 전투 결과

이로써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에 걸쳐 전개된 이번 공방전은 주 목표인 529고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간 채 종료되었다. 국군 제3사단은 529고지 일원에서 물러난 제22연대로 금성천 남안에서 사단의 우일선을 담당하게 하고, 제23연대로 좌일선을 방어하게 하면서 부대정비와 진지구축에 주력하였다.

반면에 중공군 제67군 예하 2개 사단은 이번 전투에서 약 40%에 달하는 인명 손실에도 불구하고 529고지를 점령함에 따라, 북한강 동안으로 침공한 제68군과 함께 고지 일대를 중심으로 병력 및 보급품을 추진하는 등 또 다른 공세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제3사단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우일선인 제23연대의 작전구역을 제5사단에 인계하고, 좌측의 제8사단 작전구역 일부를 인수하여 등대리 동북 1㎞의 금성천으로부터 여문리 북쪽 2㎞에 이르는 작전지역을 방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이 노리는 화천에 이르는 입구인 등대리 부근을 전담하게 되었다.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및 피해현황은 다음의 <표 4-30>과 같다.[139]

<표 4-30>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추정살상	포로	전사	전상
제18연대				11	71
제22연대	1,129	669		163	168
제23연대	1,827	1,306	6	247	1,038
사단직할대				7	71
계	2,956	1,975	6	428	1,348

5. 281고지 부근 전투(1953. 6. 29 ~ 7. 11)

1) 전투 개요

281고지(화살머리고지) 전투는 휴전이 조인되기 직전인 1953년 여름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와 281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23군 예하의 제73사단으로부터 281고지에 대한 공격을 받고 이를 격퇴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제1차 전투 당시인 1953년 6월 29일 밤에 국군 제2사단 제32연대는 중공군 제73사단의 공격을 받고 방어에 실패하여 281고지 일대의 주저항선이 돌파되자, 제17연대가 역습을 실시하여 진지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7월 6일의 제2차 전투에서 제32연대가 281고지를 다시 빼앗기자, 제17연대가 다시 역습을 실시하여 5일간의 격전 끝에 진지를 회복하였다.

1953년 6월 중순 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휴전협상이 조인될 전망이 짙어지자, 공산군은 접촉선상의 주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 전선에서 공세를 감행하였다. 중부전선의 철원평야에서는 백마고지(395고지)를 점령하려는 기도 아래 중공군 제23군 예하의 제73사단 주력이 281고지를 공격하였다.

중공군 제23군의 서측정면을 담당한 제73사단은 국군 제2사단 정면의 효성동(曉星洞)-원운동(遠雲洞)-은방동(銀房洞)-오동리(梧桐里)를 연하는 선상에 주력을 배치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산명동(山明洞)-384고지-279고지선까지 추진하여 제2사단 주저항선과의 거리는 1~2㎞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병력과 장비의 규모는 편제상의 수준을 거의 유지하였고, 지원화력은 일일 평균 7,000~8,000발의 포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140]

한편 국군 제2사단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미 제3사단의 전투지역을 인수함으로써 군단 좌익인 이 지역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제31연대를 중강리(中江里)-하진명동(下眞明洞) 간의 우일선에, 제32연대를 백마고지가 포함된 하진명동-281고지간의 좌일선에 전개하고 제17연대를 예비로 독서당리(讀書堂里)

부근에 위치시켰다.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대체로 편제상의 95%를 유지하였고, 화력지원은 기본화력 이외에 군단의 미 제12포병대대를 비롯한 3개 포병대대가 일반지원하고 미 제5공군의 수시지원도 가능하였다. 또한 일선대대까지 추진하는 보급이 원활하고 비교적 사기가 충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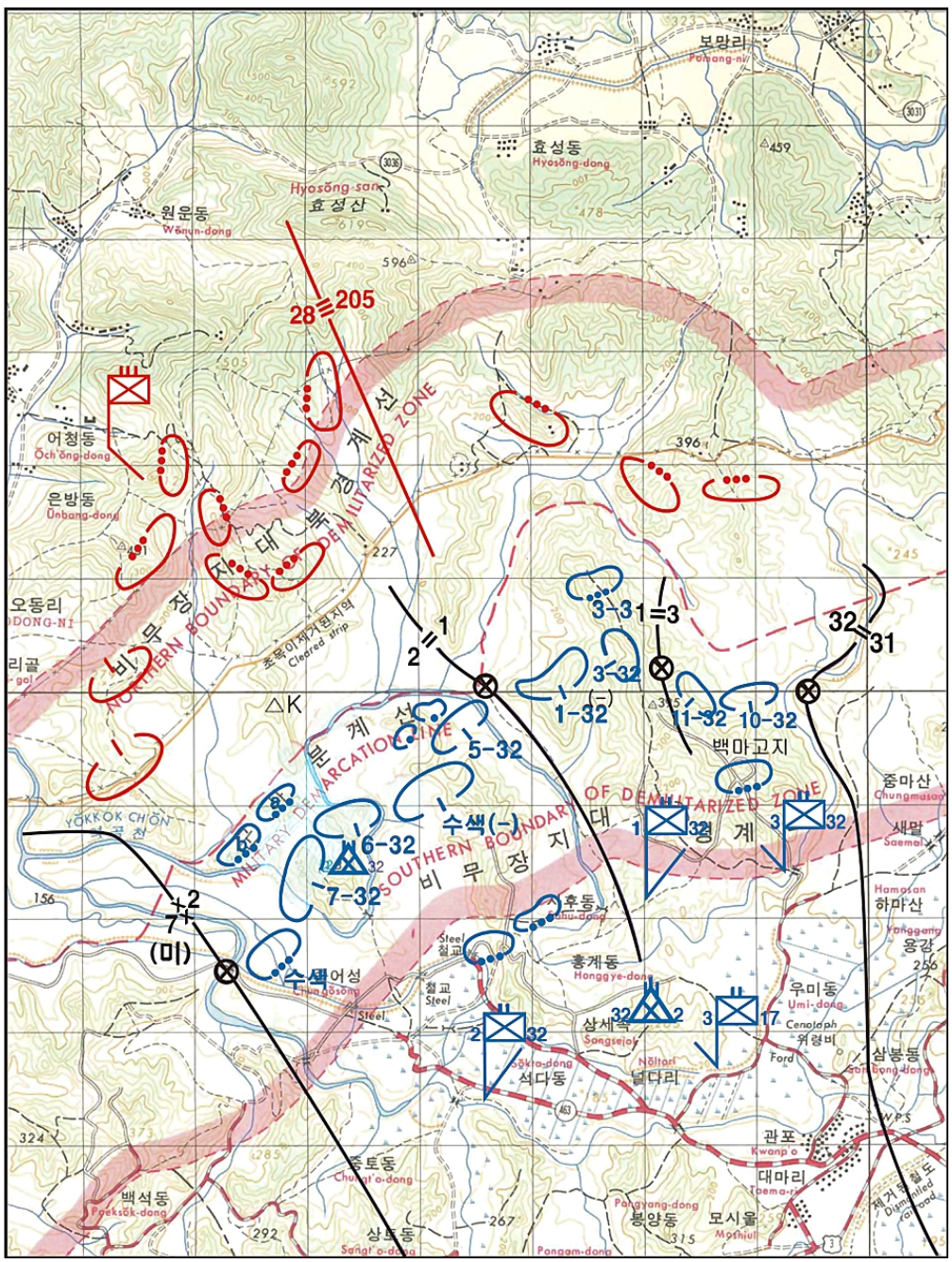
281고지는 철원에서 서북쪽 13㎞ 지점에서 양의 창자과 같이 굽이도는 역곡천(驛谷川) 북안에 돌출한 구릉으로서 철원분지의 일각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 고지는 지형이 마치 화살머리와 같다고 하여 일명 '화살머리고지'라 불리며, 적의 진지 279고지와 384고지로부터 감제되는 낮은 지형으로 아군의 행동에 많은 제한을 주었다.[141]

작전기간 중의 기상은 계절적으로 강우기에 있었으나, 당시에는 의외의 청명한 날씨로 인해 관측이 가능해져 포격지원 및 공중지원은 물론 부대의 야간행동도 용이하였다. 그러나 여름철 특유의 무더운 날씨는 공격부대의 행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142]

<표 4-31>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사단장	준장	김웅수(金雄洙)	
	제17연대장	대령	김필상(金弼相)	
	제3대대장	소령	김경식(金璟植)	
	제31연대장	대령	조성래(趙成來)	
	제1대대장	중령	고일섭(高日燮)	
	제2대대장	중령	민응식(閔應植)	
	제3대대장	중령	김상의(金相義)	
	제32연대장	대령	강홍모(姜弘模)	
	제2대대장	소령	송순근(宋淳根)	
		소령	안익섭(安翼燮)	1953. 7. 1부
	수색중대장	대위	은윤기(殷胤基)	
	사단포병단장	대령	박병주(朴秉柱)	
중공군	제23군장		종구오추(鍾國楚)	
	제73사단장		리앙주지(梁竹吉)	

<상황도 4-11> 28고지 전투 직전의 피아배치 현황



2) 전투 경과

(1) 제1차 공방전(6. 29~6. 30)

미 제9군단의 좌익으로 일선방어에 나서게 된 국군 제2사단은 현 전선을 고수하고 위력수색을 실시한다는 군단의 방침에 따라 제31연대와 제32연대를 좌우일선으로 하여 중강리-281고지 간에 배치하고, 제17연대를 예비로 철원 서북쪽 4㎞의 독서당리 부근에 두었다. 6월말에 접어들어 사단은 담당지역의 적을 파악하기 위해 주저항선상의 양 연대에 위력수색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2연대장은 방법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담당정면 가운데 적의 출몰이 가장 심한 좌일선 지역에서 적의 전진거점을 기습, 포로를 획득하여 적정을 파악하기로 하고 제2대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명령에 따라 제2대대장은 대대의 우일선으로 지형에 익숙한 제6중대장에게 적의 전초진지인 방송고지를 기습하도록 지시하였다.[143]

이에 따라 기습조로 편성된 37명은 18시 45분에 3개 조로 나누어 목표를 향해 진격하였다. 그러나 고지 주변에 도달한 기습조는 일대를 수색하였음에도 특별한 접적상황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즉시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들이 복귀하기 시작한 23시 05분에서 23시 15분 사이에 대대 주저항선 전방의 좌측 전초진지인 ⓑ진지 서북쪽의 제3청음초소에서 중대규모의 적이 접근중이라는 보고와 함께 ⓐ진지에서도 적이 출현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144]

적은 기습조의 복귀로를 차단하지 않고 ⓐ-ⓑ진지로 몰려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적의 포격이 이들 진지뿐 아니라 281고지 주저항선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자정이 지난 6월 30일 00시 15분에 상황을 파악한 사단포병대는 일제히 포문을 열고 이들 진지의 화집점에 진내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무렵 교신이 두절되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연대장은 위력수색대를 편성하여 적정을 수색한 바, ⓐ진지는 아군이 아직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진지는 이미 적이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새롭게 투입된 일단의 적이 281고지 북쪽 1.5㎞의 ⓚ고지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연대는 즉각 포격을 유도하여 이들을

저지하는 한편 ⓑ진지의 탈환을 강구하고 나섰다.

한편 6월 30일 아침, 사단장 김웅수 준장은 제32연대의 OP인 대마리(大馬里) 서북쪽의 266고지에서 ⓑ진지의 상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탈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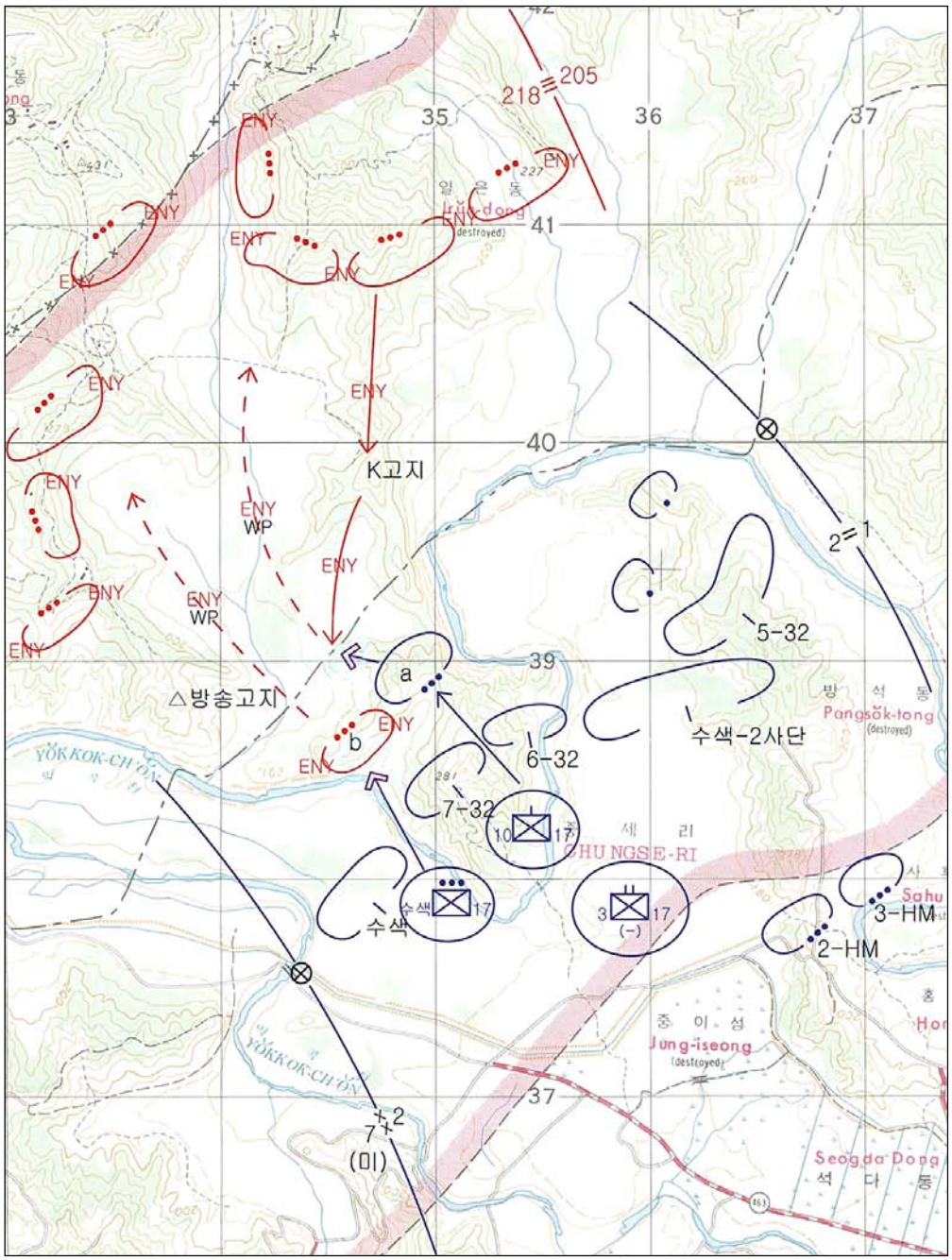
① 사단은 6월 30일 11:30을 기해 ⓑ진지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32연대는 제17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진지를 탈취하라.
③ 제17연대는 6월 30일 10:00부로 1개 대대를 제32연대에 배속시키라.

이와 같은 사단장의 조치는 현재 제32연대의 주력이 모두 주저항선에 배치된 것을 감안하여 적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집결된 병력으로 일거에 격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마리 부근에 대기하던 제17연대 제3대대가 증원부대로 선발되어 281고지를 향해 진격하자, 제18포병대대를 비롯한 제2중박격포중대 등 직접 지원부대들도 일시에 포격을 개시하였다.[146]

제32연대장은 배속된 대대의 제10중대에 1개 소대를 증강시켜 동서 양 방향에서 협공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날 11시 10분에 사단 포병단의 공격준비사격이 15분간 ⓑ진지와 그 후방의 ⓚ고지 및 방송고지 일대에 가해졌다. 이어 제10중대와 수색중대 제2소대는 11시 30분에 동서 양 방향에서 진격을 개시하였다.[147]

우일선의 제10중대가 281고지의 북쪽을 통해 ⓐ진지로 돌입하여 공격을 가하자, 방어를 하던 소대규모의 적이 한꺼번에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진지 서북단의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중대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다시 ⓑ진지의 동측으로 접근하였으나, 증강된 소대규모의 적이 동굴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할 뿐 아니라 적의 포화가 집중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는 진지 앞으로 육박하여 적의 화력거점과 동굴을 폭파하고 15시 무렵 수색중대 제2소대의 서측공격과 함께 돌격을 실시, 15시 15분에 ⓑ진지마저 탈환하였다.[148]

<상황도 4-12> 화살머리고지(281고지) 전투



한편 이날 밤 ⓐ진지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던 제6중대 제2소대는 23시경에 진지 중앙으로 돌진해오는 2개 소대규모의 적과 직면하였다. 소대는 40여 분간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적의 접근을 저지하자, 자정 무렵 적은 병력을 거두어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 후 적은 중대규모로 증강되어 ⓐ진지의 서쪽으로 파상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2시간에 걸쳐 집요한 공격을 계속하였고, 다음날 03시경에는 진내에서 육박전이 전개되었다. 중대원들은 혼신을 다해 진지를 회복하였고, 03시 30분에 원진지를 모두 장악하며 적을 격퇴하였다.[149]

(2) 제2차 공방전(7. 6~7. 11)

281고지에서 적의 반격을 격퇴한 국군 제2사단은 7월 2일 12시를 기해 제32연대에 배속된 제3대대를 원대 복귀시켜 대마리 부근에 예비로 두는 한편 ⓐ-ⓑ 양 진지를 포함한 화살머리고지 부근의 전초진지를 제32연대가 전담토록 하였다.[150] 이때 적은 주진지인 효성동-원운동-오동리를 연하는 선에서 병력을 수습한 후 서쪽의 제1선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의 공격기미가 뚜렷해지자 사단은 적의 공격이 좌일선으로 지향될 것으로 보고 전선의 재조정을 단행하였다.[151]

이로 인해 제32연대가 맡고 있던 사단의 좌일선 지역은 양분되어 백마고지-278고지 북쪽 1.5㎞의 선을 제32연대가, 좌측의 281고지 일대를 제31연대의 1개 대대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281고지를 담당할 부대교대를 앞두고 폭우가 쏟아져 역곡천의 수심이 깊어졌고, 뿐만 아니라 시계가 흐려 적정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81고지 일대의 방어를 담당한 제32연대 제2대대는 예하 제6중대와 제7중대로 ⓐ-ⓑ 양 진지를 포함한 전초선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7월 6일 22시 50분 중대규모의 적이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신속하게 접근하였다. 이들은 사단포병단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23시에는 ⓐ진지의 동쪽과 서쪽으로 돌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진지의 서쪽에서도 중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시작하였다.[152]

이와 같이 양 진지를 공격한 적의 병력은 대대규모가 넘었고, 이에 반해 제2

대대는 양 진지에 각각 1개 소대씩을 배치하고 있었다. 30여 분간의 수류탄전이 펼쳐진 뒤 진내에서 격전이 전개되었다. 전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제2대대에 281고지의 주저항선을 방어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연대수색중대로 ⓐ진지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색중대가 ⓐ진지 지원에 나섰으나, 그때는 이미 진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간 후였다.[153]

이에 사단장은 사단 예비로 대기중인 제17연대 제3대대를 제32연대에 배속한 후 양 진지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154]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집결지인 대마리를 떠나 7월 7일 04시 20분에 281고지 동남쪽의 중세리(中細里)에 도달하였다. 여기에서 대대장은 제9중대로 하여금 281고지 동쪽으로 우회하여 ⓐ진지를 확보하게 하고, 제11중대는 제32연대 제7중대를 초월 공격하여 ⓑ진지를 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명령에 따라 양 중대는 05시에 사단포병단의 공격준비사격 지원을 받으며 역곡천을 건너 적진으로 향하였다.[155]

우일선의 제9중대는 ⓐ진지의 동남쪽 능선으로 돌입하여 06시 30분부터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적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력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일진일퇴를 반복하였고, 두 차례의 돌격도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굴곡을 이루며 동서로 흘러 임진강과 합류하는 역곡천

오히려 적은 2개 소대규모의 증원 병력이 ⓐ진지에서 합류하였을 뿐 아니라 적의 포화가 집중되어 전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이에 대대장인 김경식(金璟植) 소령은 대대예비인 제10중대를 제6중대와 합류시켜 15시에 재공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함으로써 우일선의 공격은 사실상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156]

한편 역곡천 북안을 따라 ⓑ진지를 목표로 진격한 좌일선의 제11중대는 07시에 진지 앞에 다다르자, 병력을 좌우로 전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의 치열한 화망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대열이 흩어지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장은 1개 소대를 우회시키는 한편 자신은 진두지휘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정면공격을 담당한 제2소대장 김형호(金亨皓) 소위가 동굴로 연결된 적의 기관총 진지를 수류탄 공격으로 파괴하자, 우회한 제1소대가 서쪽으로 돌입하여 협공함으로써 12시 50분에 ⓑ진지 탈환에 성공하였다.[157]

그러나 ⓐ진지에서의 전투가 야간공격으로 이어지자, 사단장은 공격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58]

① 사단은 제32연대의 일부구역을 예비대에게 담당토록 하여 급속히 ⓐ진지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31연대는 제32연대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진지를 탈환하라. 7월 8일 08:00부로 아래 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 제32연대 제7중대, ㉯ 사단 수색중대, ㉰ 공병 제2중대, ㉱ 제2중포중대
③ 제32연대는 제2대대의 작전지역을 제31연대에 인계하라. 7월 8일 08:00부로 제17연대 제3대대를 원대로 복귀시키고 281고지를 점령중인 제7중대를 제31연대에 배속하라.
④ 앞의 2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한을 7월 8일 08:00부터 17:00까지로 예정한다.

이 명령은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 사실상 1개 대대를 증파하여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었다. 명령에 따라 새로이 전투지역을 인수하게 된 제31연대 제2대대장은 배속된 제32연대 제7중대에 281고지를 중심으로 한 주저항선을 전담시키고,

대대의 제6중대와 제7중대로 04시를 기해 ⓐ진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의 전선 상황은 02시 30분을 전후해 ⓐ진지에서의 전투는 중단된 상태였고, ⓑ진지에서는 제11중대가 2개 소대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예정대로 공격에 나선 우일선의 제6중대가 ⓐ진지의 동측으로 진격하는 동안 좌일선의 제7중대는 ⓑ진지 쪽으로 우회하여 서측으로 돌진하였다.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격전을 벌이던 대대는 제7중대 제2소대장 김수익(金洙翊) 소위가 적진으로 돌격하여 화력거점을 폭파하자, 적진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대대는 07시 무렵 ⓐ진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159]

이른 아침에 목표를 탈환하고 진지를 보강하던 제2대대는 이날 밤 양 진지를 탈환하려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격전이 전개되는 동안 적의 강력한 포격으로 ⓐ진지는 유무선이 모두 두절되고 말았다. 이어 다음날인 7월 9일 01시에는 ⓑ진지 서쪽의 162고지 부근에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밀어닥쳤다. 또한 통신두절로 ⓐ진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대대장은 ⓐ진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실시된 사단포병단과 군단포병의 진내사격으로 ⓐ진지 일원은 온통 불바다로 변하였다. ⓑ진지를 공격하던 중공군도 03시 30분경 공격을 중단하고 마침내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160]

한편 연대장은 ⓐ진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제1대대로 역습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 제2중대는 05시를 기해 공격에 나섰으나, ⓐ진지의 중공군의 저항이 너무나 완강해 두 차례의 돌격에도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06시에 공격을 중단시키고 중대를 281고지로 철수시켰다.

10시를 기해 사단의 집중포화가 ⓐ진지 일대를 30분간 강타한 후 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중대는 281고지에서 ⓐ진지 동측으로, 그리고 증원된 제5중대 2소대는 서측으로 돌입하여 목표를 양쪽에서 공격하였다. 이에 맞서 중공군도 강력한 포격을 집중하는 한편 발악적인 저항으로 끝내 진지탈환에 실패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제1중대마저 중앙으로 투입하여 3면에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중공군은 증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형세는 더욱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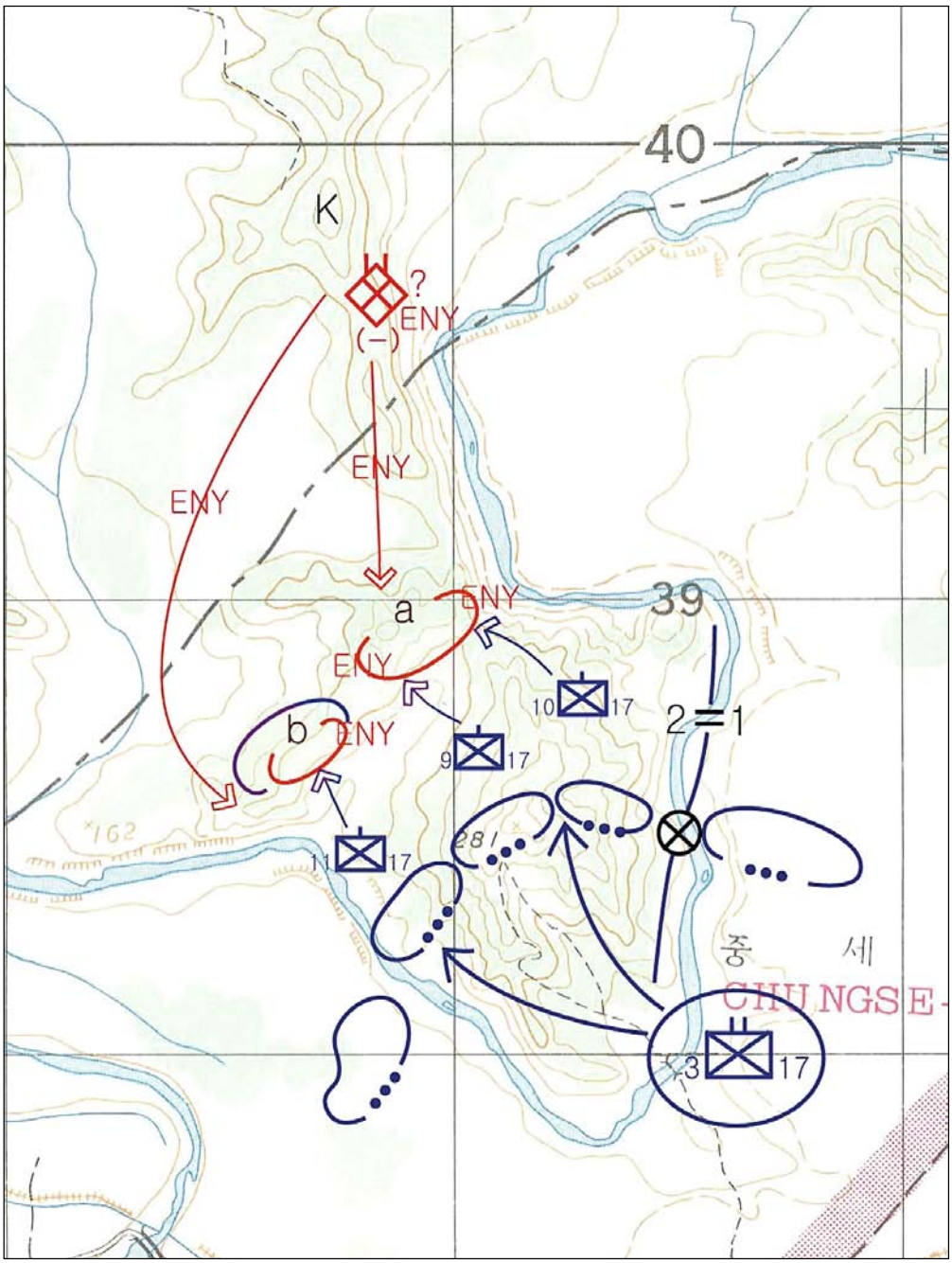
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21시를 기해 부득이 공격중단을 명령하였다.[161]

제31연대는 7월 10일 새벽에 ⓐ진지 탈환을 위한 제3차 공격에 착수하였다.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 제11중대는 04시에 집결지를 떠나 20분 후 ⓐ진지의 남쪽 기슭으로 진출하여 좌우로 병력을 전개하며 공격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격도 단숨에 8부 능선까지 접근하였으나, 급경사에 감제가 가능하고 엄호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적의 화망에 걸려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1시간 30분 만에 고지 아래로 내려온 중대는 병력을 수습하여 08시 40분에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끝내 진지탈환에 실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162] 이에 사단장은 새로운 방책을 숙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63]

① 제31연대는 최소 2개 중대의 정예 병력으로 7월 11일 02:00부터 공격을 재개하여 ⓐ진지를 탈취하라.
② 제32연대는 최소 2개 중대의 정예 병력으로 7월 11일 01:00부터 Ⓚ고지를 선점한 다음 적의 후속수단을 차단하라.
③ 포병단장은 1개 포병대대로 제31연대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게 하라.

역곡천을 건너 적진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모습

<상황도 4-13> 281고지 전투(제17연대 제3대대의 재반격)



이에 따라 제31연대는 제3대대를 공격개시 1시간 전까지 281고지 북쪽 기슭에 집결시킨 다음 동굴 공격을 위해 화염방사기를 일괄 지급하였다. 이와 아울러 적진 후방에 대한 차단공격임무를 맡은 제32연대는 연대수색중대를 281고지 동쪽에서 역곡천 서안을 따라 Ⓚ고지 남쪽으로 진격시키고, 제2대대 제6중대를 Ⓚ고지 뒤쪽에서 역곡천을 건너 측방에서 공격토록 하였다.

공격개시일인 7월 11일 01시에 사단포병단의 공격준비사격이 ⓐ진지를 비롯한 적진을 강타하는 가운데 제31연대와 제32연대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먼저 주공임무를 맡은 제31연대 제3대대는 01시 30분에 목표를 향해 출발하여 우일선의 제10중대로 ⓐ진지의 동측을, 제9중대로 ⓑ진지를 우회하여 서측을 공격하게 하였다.

02시 10분경 제9중대는 ⓐ진지 서사면의 적 2개 소대와 교전을 시작하였고, 곧이어 제10중대도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적의 중화기 사격으로 진격이 여의치 않았다. 1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제9중대 선봉이 화염방사기를 쏘아대며 8부 능선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투의 주도권을 잡게 된 양 중대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04시 40분에 ⓐ진지를 탈취하였다.[164]

한편 적진 후방의 ⓚ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제32연대는 우일선의 제6중대로 ⓚ고지 동쪽의 하천 만곡부의 상류와 하류에서 도강하여 목표고지 동남쪽 능선을 향해 돌입하였다. 그러나 도강과정에서 공격기도가 노출됨에 따라 03시가 넘도록 적과 교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03시 20분경 수색중대의 선봉이 ⓚ고지 남쪽 400m 지점의 돌출된 능선을 장악하면서부터 적은 급속도로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 기회를 포착한 제6중대가 격전 끝에 03시 50분에 ⓚ고지마저 장악하게 되었다.[165]

3) 전투 결과

이후 중공군은 국군 제2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고수 의지가 분명해지자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전선은 7월 11일을 고비로 교착상태로 접어들었고, 다시 전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며 정찰 내지는 위력수색만이 간헐적으로 전개되었다.

제2사단은 전투가 종료된 직후 전선을 재정비하여 유정리-중마산 간의 우익에 제17연대를, 백마고지를 포함한 역곡천 부근의 좌익에 제32연대를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31연대를 예비로 백마고지 남쪽의 대마리 부근에 위치시키고 제3대대로 화살머리고지의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제1차 및 제2차 공방전에서 사단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4-32> 및 <표 4-33>과 같다.[166]

<표 4-32> 제1차 공방전 전과 및 손실

전 과					손 실		
사살	추정사살	포로	자동소총	다발총	전사	전상	실종
192	200	3	1	16	1/31	2/42	3

<표 4-33> 제2차 공방전 전과 및 손실

구분	전 과					손 실		
	사살	포로	노 획			전사	부상	실종
			기관총	각종소총	수류탄			
제17연대	170	3	1	24		1/30	4/172	
제31연대	874	3	2	70	4,630	4/90	14/417	/12
제32연대	168	1		1		2/49	6/148	/4
기타부대	14					/1	/10	
계	1,226	7	3	95	4,630	7/173	24/747	/16

6. M1고지 전투(1953. 6. 10 ~ 6. 23)

1) 전투 개요

M1고지 전투는 휴전조인을 1개월 앞두고 북한군과 중공군이 마지막 공세를 감행하였을 때, 중동부전선의 938고지(선우고지)와 크리스마스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20사단이 크리스마스고지 우측방의 전초진지인 M1고지로 공격을 가해온 중공군 제33사단을 격퇴시킨 방어전투이다.

6월 10일 중공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투는 양측 모두 공격부대를 교대하며 14일간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중공군은 이 고지를 22회 공격하여 16회를 점령하였고, 국군은 18회에 걸쳐 반격을 실시하여 끝까지 진지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 지역에서 시작된 전투가 그 동쪽 지역의 미 제10군단 지역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다.

<표 4-34>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0사단장	준장	송석하(宋錫夏)	
	제61연대장	대령	김인철(金仁哲)	
	제1대대장	중령	조재준(趙在俊)	
	제2대대장	소령	최창욱(崔昌昱)	
	제3대대장	소령	이동진(李東晋)	
	사단포병단장	대령	이효성(李孝成)	
	제69포병대대장	중령	이기영(李基榮)	
	제70포병대대장	소령	이구형(李久亨)	
	제62연대장	대령	홍순용(洪淳龍)	인접부대
	제7사단포병단장	대령	강관룡(姜官龍)	지원부대
중공군	제60군장		장주량(張祖諒)	
	제33사단장		뚜안쭝테(段鍾鐵)	

2) 전투 경과

중공군 제60군 주력이 6월 10일 금성 돌출부 우견부인 국군 제5사단의 949고지-973고지-883고지 등을 집중 공격할 무렵, 배속된 중공군 제33사단은 이 우견부 동쪽의 국군 제20사단의 방어선인 1090고지를 중심으로 한 938고지와 M1고지를 공격해왔다. 국군 제20사단은 1953년 2월 9일에 창설되어 5월 15일에 전선을 제7사단으로부터 인수해 방어하고 있었으며, 6월 공세가 개시될 무렵에는 제62연대와 제61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제60연대를 예비로 두고 있었다.

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이 전선은 1951년 아군의 추계공세 당시 점령한 이래로 쟁탈전을 계속해 온 지역으로 938고지는 883고지에서 1220고지로, 1090고지(북)는 어은산에서 1220고지-백석산으로 이어지는 요충으로서 전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고지군이었다. 또한 M1고지는 1090고지(북)의 동쪽 능선에 딸린 무명고지였다.

당시 938고지는 주저항선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1090고지(북)와 M1고지는 전초진지로서 1개 중대규모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M1고지는 피아 주저항선 진지보다 표고가 낮으며 감제되는 지형으로서 전술적으로 1개 중대 이상의 운용이 어려운 곳이었다.

중공군 제33사단은 6월 10일 일몰 후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먼저 M1고지를 공격하여 방어부대인 제61연대 제6중대를 밀어붙이고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주저항선에 배치된 제5중대가 6월 11일 06시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역습이 너무 늦어 이미 적이 진지를 강화한 후였기 때문이었다. 연대는 다음날인 6월 12일 03시에 제1대대로 역습을 실시하였고, 예하의 제2중대와 제3중대가 주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밤마다 비가 내려 기동이 어려웠으며, 더구나 안개와 포연으로 시계도 좋지 않은데다 야간이라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공격부대는 가벼운 칼빈 소총을 휴대하고 수류탄을 20발씩 휴대하였다. 하지만 고지 정상을 공격한 제3중대는 적의 화력과 수류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때 한용택(韓龍澤) 일병이 수류탄의 집중 투척으로 적진 일각을 허물고 적과 난투극을 벌여 적을

무찌르는 감투정신을 발휘하자, 공격기세가 되살아난 중대원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목표를 탈환하였다.

이어 13일 03시에 제1중대가 투입되어 다시 고지를 탈취하였으나, 곧이어 실시된 적의 역습으로 고지 정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중대는 군단 및 사단 포병의 지원 아래 재역습을 실시하여 다시 고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북사면에 매복하고 있던 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으로 쇄도해옴으로써 백병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중대장이 중상을 입으며 고지를 적에게 다시 내어주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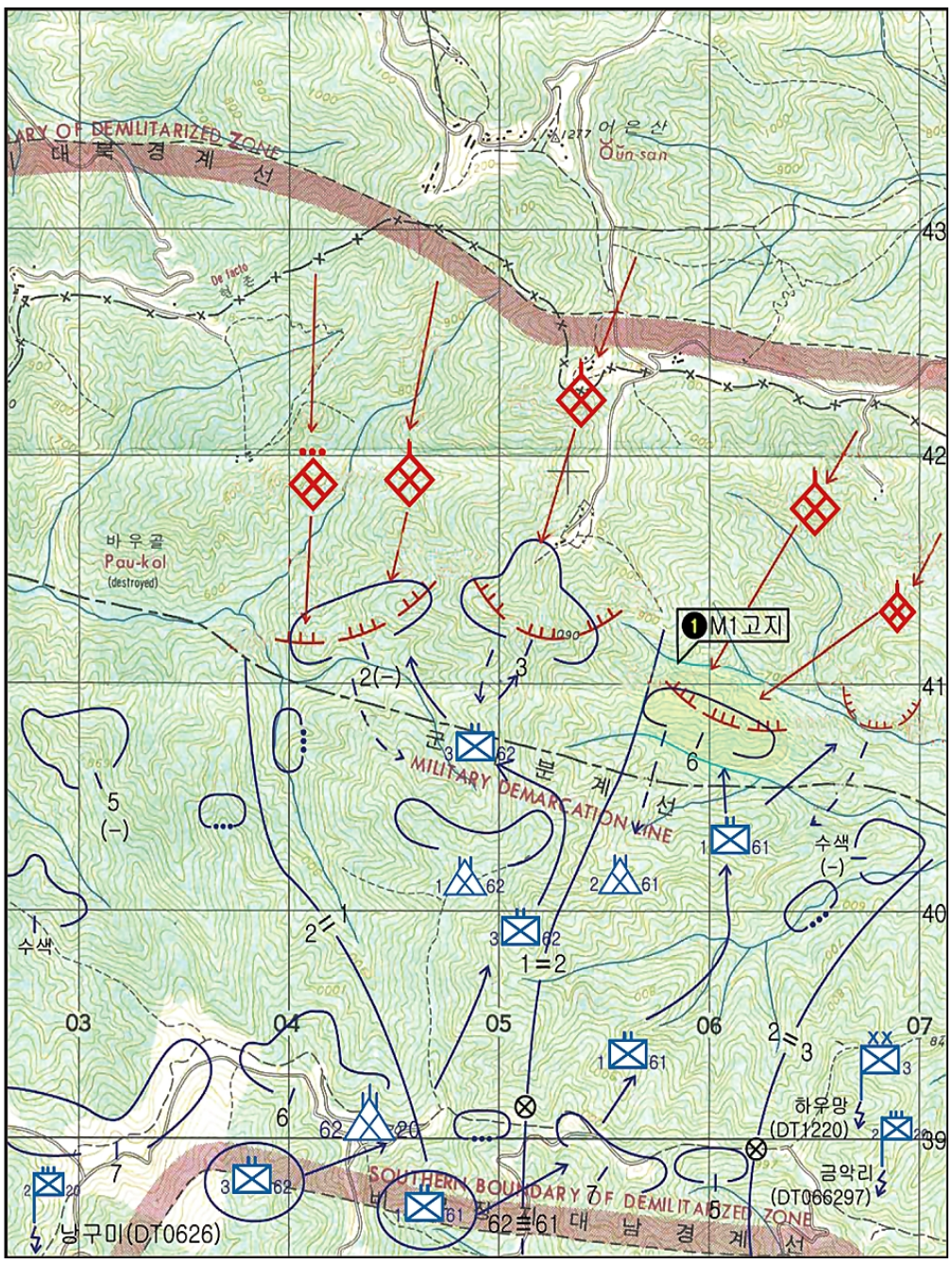
제1중대와 제3중대가 계속된 역습에도 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손실만 늘어가자, 이번에는 대대장이 제2중대를 이끌고 직접 역습에 나섰다. 제2중대는 13일 14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여 5부 능선에 도달하였으며, 적의 사격과 수류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30분간의 포병지원사격이 이어지는 동안 8부 능선까지 기어올라 사격을 연신하며 돌격을 감행한 끝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6월 14일 01시부터 다시 계속된 적의 파상적인 역습으로 인해 병력손실이 증가하고 수류탄이 바닥나는 상황이 되자, 대대장은 고지를 고수하겠다는 결심을 접고 물러났다. 대대는 일출 무렵에 지원된 사단수색중대와 더불어 역습을 실시하여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이날 밤 포격에 이은 적의 공격으로 고지를 다시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와 같이 M1고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고 있던 중 6월 14일부터 적은 938고지와 1090고지를 공격해옴으로써 전투가 사단의 전 정면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사단장 송석하(宋錫夏) 준장은 예비인 제60연대 제3대대를 제61연대에 배속하고 사단수색중대를 제62연대에 배속 전환하는 등 전방연대에 대한 전력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제61연대는 M1고지를 공격한 제1대대뿐만 아니라 제2대대와 제3대대를 투입하여 교대로 쟁탈전을 반복하였다.

제62연대는 14일 밤부터 포격과 더불어 적이 양측방 1090고지(북)와 938고지를 공격해옴으로써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적은 1090고지 탈취를 기도한 듯 1090고지와 고지 서쪽에 배치된 양개 중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고지 서쪽의 중대진지 일부가 돌파되었으나, 다음날 자체의 역습으로 진지를 회복하였다.

<상황도 4-14> M1고지 전투상황(1)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제3중대가 지원된 예비 병력과 함께 적의 공격에 맞서 육박전과 진내전을 전개하고 진내사격까지 실시하였으나, 결국 1090고지(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대대는 제1중대와 전방 진지를 교대한 제2중대로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역습에 실패함은 물론 1090고지를 점령한 적이 그 서쪽의 제1중대 진지까지 돌파구 확장을 기도하자 이를 저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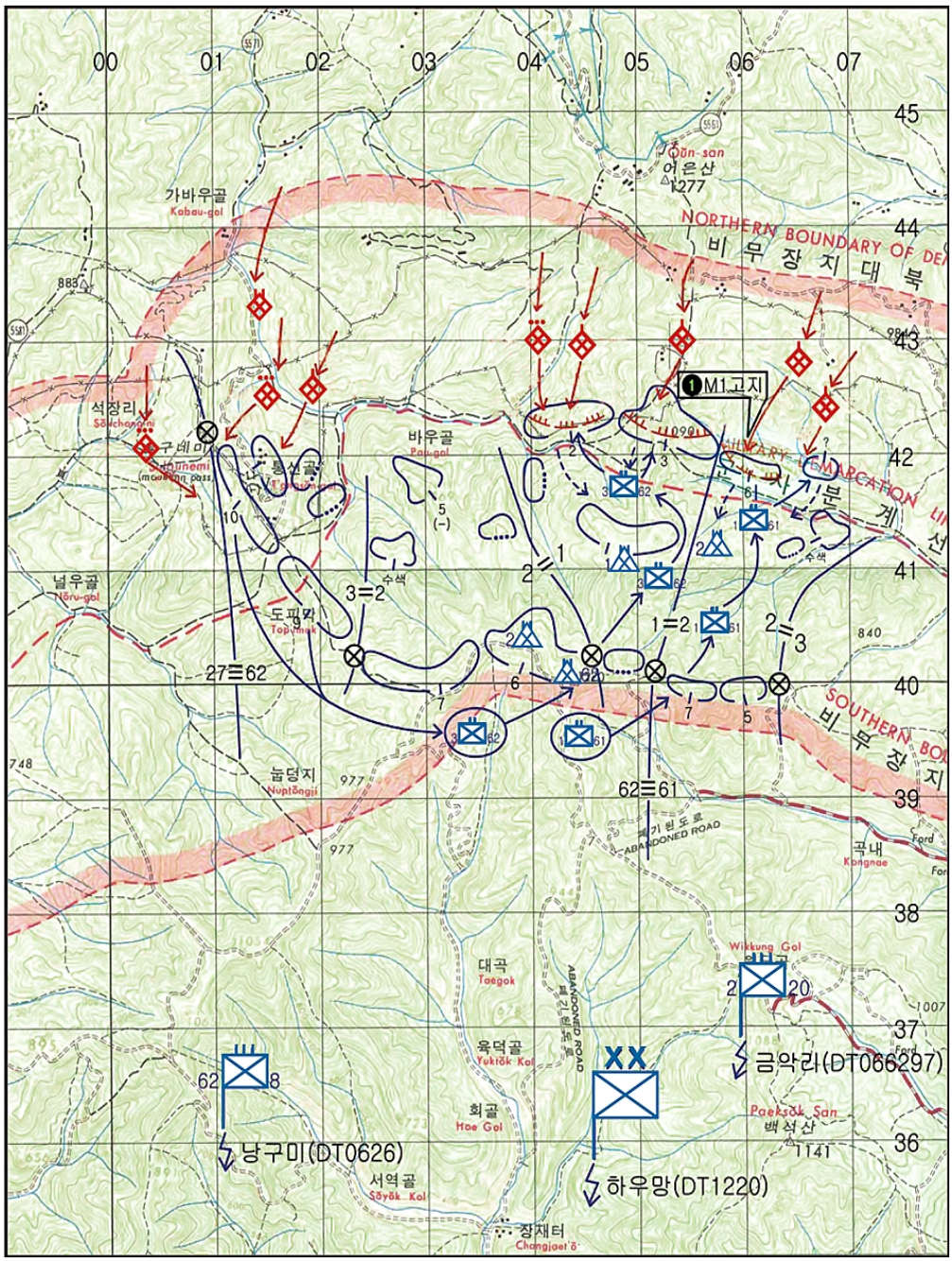
결국, 6월 16일에는 제1중대 진지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이날 오후부터 야간에 걸쳐 제3중대가 1090고지를 역습하여 4시간의 혈투 끝에 일시 고지를 확보하였으나, 양 측방으로부터 가해지는 적의 파상공격에 다시 고지를 내어주고 말았다. 하지만 전날에 빼앗겼던 938고지는 이날 탈환하였다.

이처럼 이미 적이 제5사단의 949고지-973고지-883고지를 점령하고 1090고지-1220고지 방향에 압력을 가중하자, 미 제10군단장은 군단 예비로 편입된 제7사단 제8연대로 하여금 제62연대 좌전방의 938고지 지역을 인수토록 하여 새로이 돌출된 이곳의 방어력 강화조치를 취하였다. 제62연대는 제8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제3대대를 1090고지(북) 남쪽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1대대와 교대시킨 후 17일부터 1090고지를 회복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에 제62연대 제3대대는 제10중대와 제11중대를 동서 양측방으로 기동시켜 고전 끝에 1090고지(북)를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시체 94구를 확인하였고, 이는 참전 이래 가장 큰 전과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적이 삼면으로 공격을 가해옴에 따라 전투 병력의 손실이 커지자 대대는 하는 수 없이 이곳에서 물러나 1090고지(남) 북쪽에서 적을 저지하였다.

제61연대 제10중대를 배속받은 제62연대 제3대대는 6월 18일 이른 아침에 1090고지(북)를 탈환하기 위한 재공격을 실시하였다. 전날 밤부터 쌍방간에 포격전이 계속되어 전투지역에는 많은 포탄이 낙하되고 있었다. 제3대대는 이날 오후 1차 역습에 실패한 후 제10중대를 돌격중대로 공격에 내세워 치열한 격돌 끝에 1090고지(북)를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송갑성 하사가 지휘한 특공조가 중간목표를 공격하던 중 위협적인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적 6명을 사살하여 목표탈취의

<상황도 4-15> M1고지 전투상황(2)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이 전공으로 일계급 특진과 함께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제62연대는 이 고지를 탈환한 후 18~19일에 작전지역을 제7사단(제5연대)에 인계하고 방산리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6월 19일부터 제7사단은 938고지-1090고지(북)에서 제20사단(제61연대)은 M1고지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제20사단은 10일간의 M1고지 전투에서 제61연대가 3개 대대를 교대로 투입하여 뺏고 빼앗기는 전투를 반복하는 동안 전력이 약화되자 21일부터 22일 사이에 제60연대와 임무교대를 실시하였다. 교대간이나 교대 후에도 M1고지에 대한 쟁탈전은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제61연대는 6월 22일 방어지역을 인계할 때까지 16차례에 걸쳐 뺏고 빼앗기는 격전과 혈전을 반복하였다. 제20사단은 제60연대가 쟁탈전을 되풀이하다가 책임지역을 7월 4일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해안분지 전선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은 금성 돌출부 우견부인 제5사단을 집중공격하면서 그 일부 부대가 1090고지-백석산 방향으로 공격하였으나, 제20사단 및 제7사단의 저항에 M1고지를 일시적으로 점령하였을 뿐 전혀 전선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 지역 전투 중에서도 가장 격전이 되풀이된 곳은 전술적으로 큰 의미부여가 어려운 M1고지였다. 이는 당시 이미 포로협정까지 체결된 시점이어서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제20사단은 신편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담당 전선의 방어는 물론 금성돌출부 우견부 방어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전투 결과

제61연대는 명령에 따라 고지를 제60연대에 인계하고 양구 심포리로 이동하였고, 제62연대는 1090고지와 938고지를 제7사단 제8연대 그리고 제5연대에 인계하고 양구 방산리로 이동하여 교육훈련에 들어갔다. M1고지의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제60연대 제1대대는 7월까지 소대 및 중대규모의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다. 이후 국군 제20사단은 7월 4일 진지를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양구 죽곡리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던 중 인제 천도리에서 미 제40사단으로부터 펀치볼 부근의 진지를 인수하였다.

반면에 정면의 중공군 제33사단은 아군 제20사단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2개 연대 이상의 병력을 상실하였으나,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이 고지전투에서 거둔 아군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4-35>와 같다.

<표 4-35>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추정 사살	노획				전사	부상	실종
				기관총	기관단총	다발총	수류탄			
제1대대	129	3	312	3	19	4	36	54	275	26
제2대대	510	1	346	3	6	6	80	31	200	35
제3대대	293	3	399	4	11	5	56	40	221	16
수색중대	48		98					15	106	4
계	980	7	1,156	10	36	15	172	140	802	81

7. 1090고지 전투(1953. 6. 14 ~ 6. 18)

1) 전투 개요

1090고지 전투는 신편 사단인 국군 제20사단이 휴전협정체결을 앞두고 양구 북방의 1090고지 부근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가해온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33사단을 맞아 1953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1953년 2월 9일 창설과 동시에 미 제10군단에 편성된 제20사단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양구 북방의 1090고지 부근 일대의 전선을 제7사단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사단은 예하의 제61연대를 우일선에, 제62연대를 좌일선에 배치하고 제60연대를 예비로 하여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제2사단이 담당한 양구 북방의 1090고지 부근 일대는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문등리 서쪽 어은산(1277고지)과 1㎞ 남쪽의 1218고지-1090고지 등이 작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봉들은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어 아군에 대한 감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1090고지는 적의 주진지인 1218고지로부터 1㎞ 남쪽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초의 거점인 크리스마스 고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M1능선과 서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단의 방어정면에는 중공군 제60군 중 가장 정예부대로 알려진 제33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미 제10군단장 화이트 중장은 제7사단 포병단을 제20사단에 배속하여 화력을 증강시키면서 1090고지의 방어에 관심을 기울였다.

<표 4-36>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0사단장	준장	송석하(宋錫夏)	
	제62연대장	대령	홍순룡(洪淳龍)	
	제1대대장	중령	최희대(崔熙大)	
	제2대대장	중령	홍재익(洪載翊)	
	제3대대장	중령	김윤환(金允煥)	
	사단포병단장	대령	이효성(李孝成)	
	제69포병대대장	중령	이기영(李基榮)	
	제70포병대대장	소령	이구형(李久亨)	
	제61연대장	대령	김인철(金仁哲)	인접부대
	제7사단포병단장	대령	강관룡(姜官龍)	지원부대
중공군	제60군장		장주량(張祖諒)	
	제33사단장		뚜안쭝테(段鍾鐵)	

전투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하루도 쾌청한 날이 없어 고지 부근 일대에는 연일 낮은 구름과 짙은 안개가 덮여 관측 및 기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연결도로는 대개 800~900m가 넘는 고지 중간이나 또는 계곡에 협로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적에게 노출되어 있어 보급운반은 주로 야간에 실시되었다.

2) 전투 경과

사단의 좌일선을 담당한 제62연대는 1090고지로부터 좌측의 제5사단 제27연대의 지경선까지를 주저항선으로 편성하였다.[167] 그리고 오른쪽에 제1대대를, 중앙에 제2대대를, 그리고 왼쪽에 제3대대를 전개하여 938고지를 주로 방어하면서 연대 CP를 1020고지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대 우일선 최첨단에 위치한 1090고지는 적의 주요 거점인 어은산과의 거리가 2㎞에 불과하였고, 주진지인 1218고지와는 1㎞ 그리고 전투전초진지인 크리스마스고지와는 300~400m 거리에 불과한 요충이었다. 따라서 적은 연대의 주저항선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 고지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1218고지에서 1220고지의 중간에 위치한 1090고지를 먼저 점령할 계획이었다.

한편 1090고지의 방어임무를 연대로부터 부여받은 제1대대장 최희대 중령은 1090고지 주봉에 제3대대를, 서쪽능선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중대를 고지 남쪽에 예비로 두어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우일선의 제3대대는 938고지에 제10중대를, 동쪽능선에 제11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9중대를 고지 남쪽의 도피막(都皮幕) 일대에 배치하였다.

1953년 6월 14일 밤, 중공군은 제62연대의 우일선 전초진지인 1090고지 일대와 좌일선인 도피막 일대에 치열한 포격을 가한 후 공격을 가해왔다. 이날 제1대대는 제3중대를 1090고지에 배치하였고, 제2중대를 고지 서쪽 능선에 배치하여 야간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21시 30분경 대대는 제2중대 경계조로부터 “2개 중대로 추산되는 적이 전방에 출현해 1090고지 서쪽으로 침입하고 있다”라는 급보를 접하였다.

이 보고가 있고 약 10분이 경과할 무렵, 1090고지 일대에 각종 포화가 집중됨에 따라 제3중대와 제2중대 전역은 삽시간에 화염이 치솟고 포연으로 휩싸였다. 적의

강력한 포격으로 제3중대와 제2중대는 진지가 파괴되고 적지 않은 병력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대대 OP와의 유선마저 단절되었다. 중공군은 이때를 틈타 제2중대 진지 앞으로 몰려들어 수류탄을 투척하며 진내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전세가 급박해지자 제2중대장은 긴급히 진내사격을 요청하고 전 중대원을 땅굴 속으로 대피시켰다. 진내로 몰려들던 적은 아군의 지원 포격을 받고 23시 10분에 퇴각하였으나, 얼마 후 후속병력과 합세하여 다시 공격을 가해왔다. 이에 중대가 진내사격을 재차 요청하자, 적은 포격과 동시에 물러났다 다시 공격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3회나 반복하였다.

전날 밤 제2중대의 일부 진지를 적에게 빼앗긴 제1대대장은 실지를 탈환하도록 제2중대에 명령하였다. 다음날인 6월 15일 새벽 4시 50분에 제2중대는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여 적진으로 다가갔다. 정면공격을 담당한 중대 주력은 적진 100m 지점까지 도달하였으나, 적의 집중포격으로 분산되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병력을 수습하여 일단 5부 능선으로 물러나 다시 반격준비를 갖춘 후 오전 9시를 기해 정면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적의 자동화기와 수류탄 공격에 걸려 공격에 실패하였다. 3번째 공격에 나선 중대는 병력을 양분하여 정면을 공격함과 동시에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 배후에서 공격을 실시하였다. 중대의 정면공격을 방어하던 적은 배후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우왕좌왕하다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168]

한편 실지를 회복한 대대는 3차에 걸친 적의 침공과 역습으로 인해 병력의 손실이 크고, 또한 1090고지를 장악하려는 적의 기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명령과 함께 부대재편에 착수하였다.[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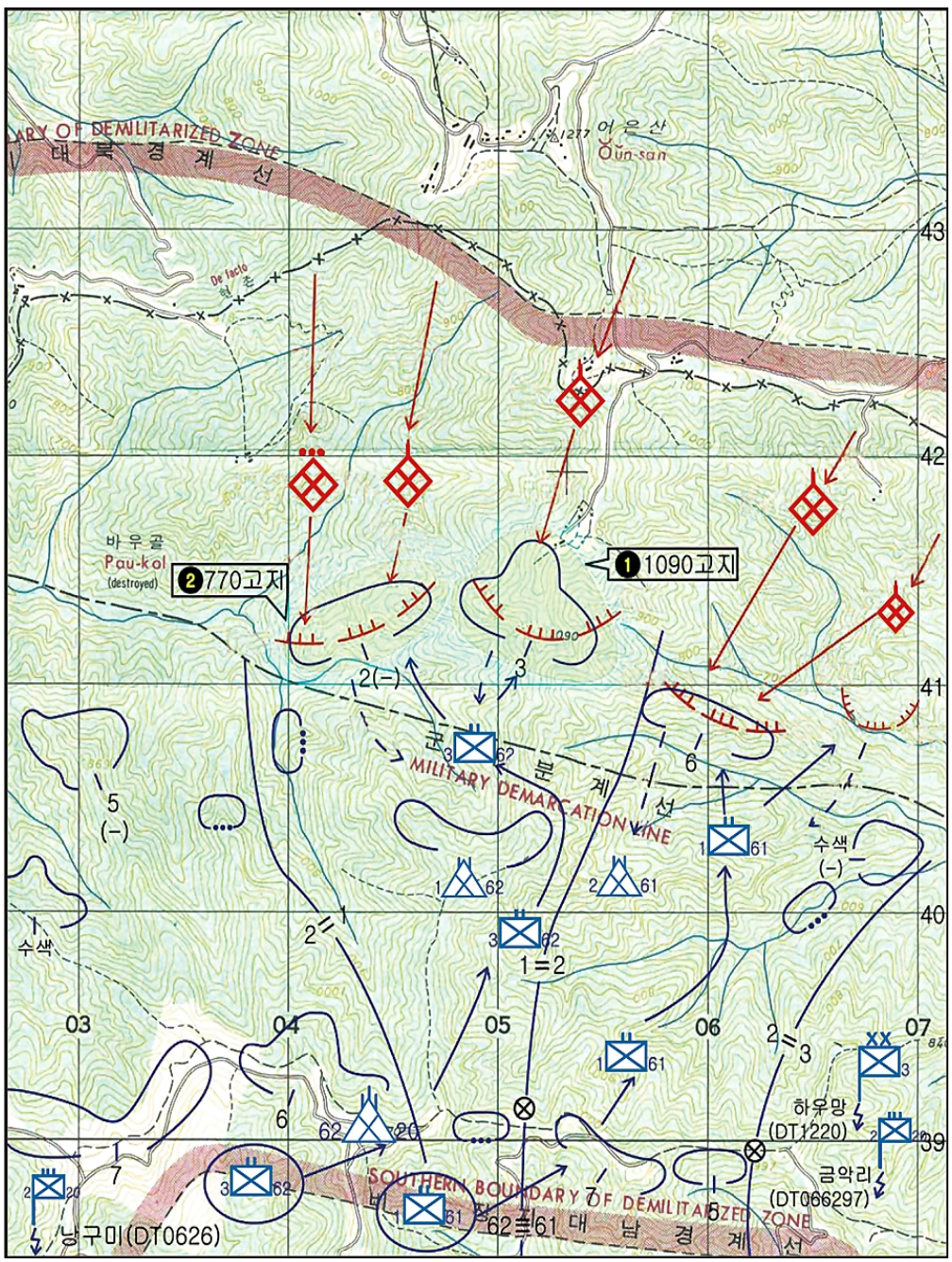
① 적은 1090고지를 탈취할 목적으로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동 고지 좌일선 제2중대를 위협하고 있다.
② 대대는 현 진지를 계속 고수하면서 침공하는 적을 진지 앞에서 격멸하려 한다.
③ 제1중대는 6월 15일 17:00까지 제2중대의 진지를 인수하라.
④ 제2중대는 6월 15일 17:00까지 현 진지를 제1중대에 인계하고 대대예비로써 남 1090고지에 집결하여 재편하라.

⑤ 제3중대는 1090고지를 중심으로 전투태세를 강화하라.
⑥ 전투간 제57포병대대가 직접 지원할 것이며, 군단 및 사단포병은 요청에 의거 지원한다.
⑦ 협조지시
  ㉠ 대대의 모든 화력은 1090고지에 집중 지원하라.
  ㉡ 각 중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라.
  ㉢ 상황진전을 신속히 보고하라.
⑧ 대대 OP는 계속 남 1090고지에 위치한다.

각 중대는 명령에 따라 부대재편을 완료하고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일몰시까지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던 적은 어둠이 짙을 무렵 1090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후 22시에 2개 중대규모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진지 앞으로 쇄도한 적은 후속한 병력과 합세하여 진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진지의 일부가 무너져 결국 1090고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국군의 돌격을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저지하는 중공군

<상황도 4-16> 1090고지 전투상황(1)



1090고지를 상실한 제1대대장은 병력을 증강한 다음 제3중대에 고지를 탈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는 6월 16일 새벽 4시를 기해 2개 소대로부터 화력지원을 받으며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적은 화력거점에서 경기관총 사격을 집중하며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중대의 역습은 실패하였다. 오히려 적은 제1중대 진지를 공격하여 06시 30분경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1대대에 일거에 1090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다시 제3중대에 공격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대장 자신도 공격개시선에 나가 공격을 지휘하기로 하였다. 13시 30분 제3중대는 각종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공격에 나선 중대는 앞 계곡에서 쏘아대는 적의 직사화기 공격을 물리치고 8부 능선까지 돌진하였으나, 그곳에서 다시 적의 수류탄 투척과 자동화기 공격에 막혀 5부 능선으로 내려왔다. 다시 공격에 나선 중대는 이후 3번의 반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17시 40분에 1090고지를 탈환하고 사주방어에 들어갔다.

그러나 1218고지로 물러났던 적은 30분간의 포격을 실시한 후 밤 10시를 기해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은 1개 중대병력이 고지 동쪽에서 공격을 실시함과 동시에 또 다른 병력이 서쪽으로부터 수류탄을 집중하며 돌진해왔다. 이와 같이 협공을 받은 중대는 1시간에 걸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고지 남쪽 기슭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제20사단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제62연대의 좌일선 진지인 938고지를 제7사단에 인계하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170]

① 사단은 군단작지 제385호에 의거하여 제62연대 주저항선의 일부를 제7사단에 인계하고 사단 좌측지경선을 변경한다.
② 제62연대는 6월 16일 17:00까지 좌일선 주진지(제3대대 주진지)를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하고 동 대대로써 1090고지에 침입한 적을 격멸하여 동 고지를 탈환하라.
③ 제7사단 제8연대는 6월 16일 17:00까지 제62연대 좌일선 주진지를 인수할 것이다.
④ 사단 포병단은 6월 16일 17:00부로 제7사단 중박격포중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원대복귀하게 하라. 이하 생략

이에 따라 제62연대는 좌일선의 제3대대 진지를 제7사단 제8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였다. 938고지를 인계한 제3대대는 1090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고 공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착수하였다. 대대의 공격계획은 제9중대가 우인접 제61연대와의 지경선을 우회하여 동측방에서 공격하고, 제11중대는 1090고지 서측방을 우회하여 측후방에서 협공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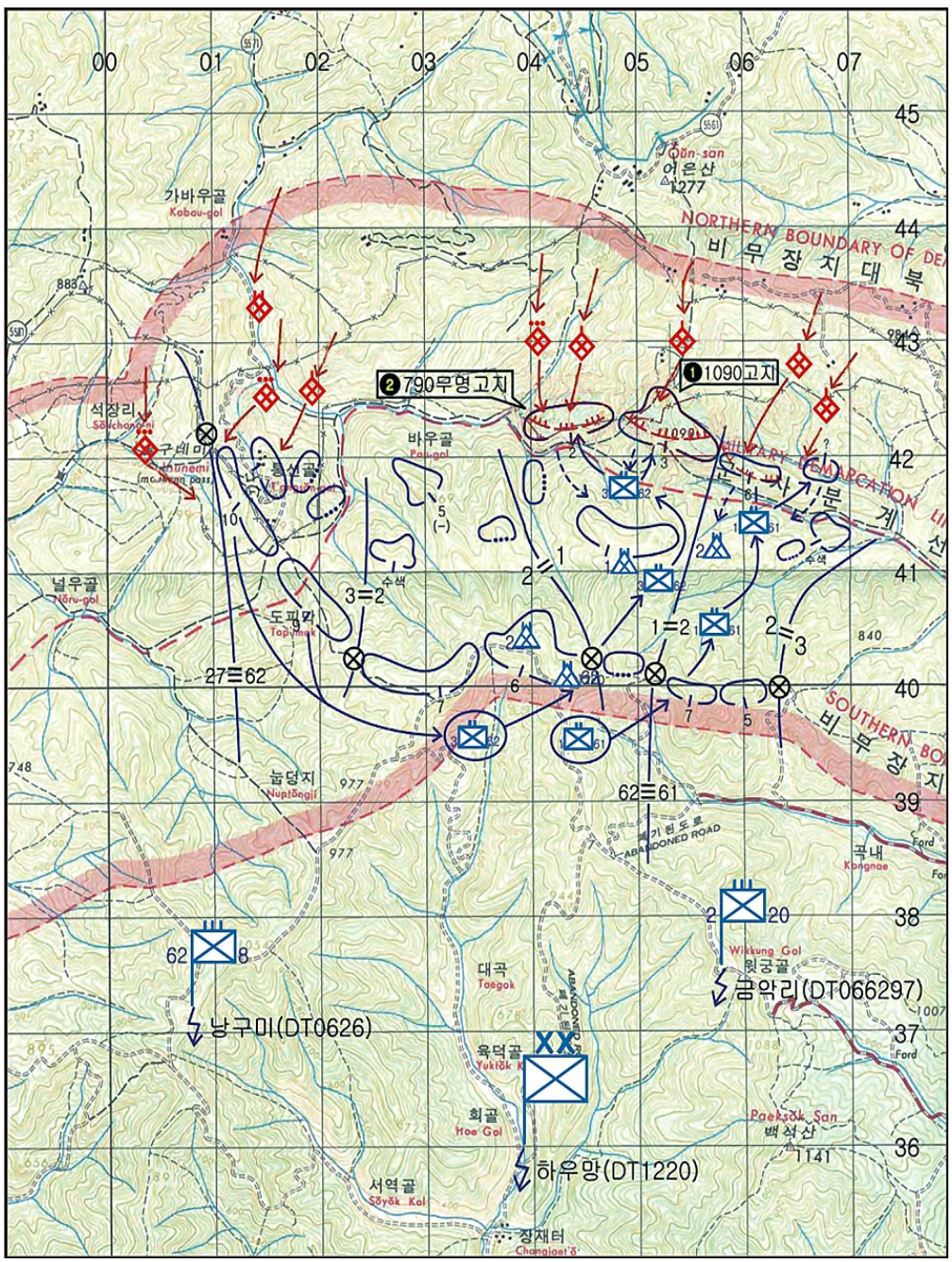
대대는 계획대로 6월 17일 04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각종 지원포화가 1090고지 일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제9중대는 1시간 후 고지의 8부 능선까지 진출하여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적은 기관총과 자동소총을 난사하며 수류탄을 집중 투척하는 등 집요하게 저항함으로써 고지 정상에서는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서측방을 우회한 제11중대가 협공을 가해오자 당황한 적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05시 30분경 마침내 대대는 1090고지를 성공적으로 탈환하였다.[171]

1090고지를 확보한 제3대대는 07시 30분에 고지 북방 150m 지점에 있는 무명고지를 공격하였다. 당시 무명고지에는 1개 소대 규모의 적이 방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저항도 없이 1218고지 쪽으로 후퇴함으로써 대대는 08시 40분경에 이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적은 대대 OP와 1090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13시 30분에는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1090고지 중앙과 동·서쪽으로 나누어 쇄도하였다. 세 방향으로부터 적의 역습을 받은 제3대대(-)는 강력하게 저항하였으나, 유무선의 두절로 지원포의 유도가 어려운데다 부상자가 속출하자 14시에 고지 남쪽 기슭으로 철수하여 병력수습에 임하였다.

1090고지가 다시 피탈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대대장은 병력을 증원하며 반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고지를 점령한 적이 다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일대 격전이 전개되었고, 대대(-)는 적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한 채 1090고지(남) 전방능선까지 철수하여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상황도 4-17> 1090고지 전투상황(2)



전세가 점점 불리해져 제3대대가 밀리게 되자, 연대장은 군단 및 사단 포병으로 1090고지와 그 전후방 일대를 공격하도록 요청하고 다음과 같이 작전을 지시하였다.[172]

① 연대는 1090고지에 침투한 적을 격멸하고 동 고지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57포병대대는 전투간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③ 미 제5공군 및 군단포병과 사단포병은 요청 시 수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대대는 17일 24:00부로 배속되는 제61연대 제10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아래에 의거 1090고지를 탈환하라.
  ㉮ 공격목표 A - 1090고지 남쪽 무명고지(150m 지점), B - 1090고지, C - 1090고지 북쪽 무명고지(200m 지점)
  ㉯ 공격개시선은 현 진지선이고, 공격개시 시간은 18일 03:30이다.
⑤ 제1대대
  ㉮ 제3대대의 좌제일선 진지를 12일 02:00까지 점령하고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 제61연대 제10중대의 배속을 17일 24:00부로 해제한다.
⑥ 제2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제61연대 제10중대는 17일 24:00부로 제1대대의 배속해제와 동시에 제3대대에 배속한다.
⑧ 통신은 현행 SOI에 의거한다.
⑨ 연대지휘소는 계속 1220고지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연대의 작전지시에 따라 제3대대는 병력을 증강하면서 공격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고, 제1대대 또한 제3대대 좌제일선 진지로 전입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이때 연대의 요청에 따라 군단 및 사단의 각종 지원 포격이 1090고지 일대에 집중되었고, 1218고지 부근의 적도 아군의 행동을 둔화시키기 위해 포격을 개시함으로써 쌍방간에 포격전이 벌어졌다.

한편 1090고지의 탈환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는 다음과 같이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173]

1090고지 일대에 포격을 실시하는 포병대원들

① 제9중대는 18일 03:30에 현 진지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A를 탈취한다.
② 제10중대는 제9중대가 목표 A를 탈취한 다음 18일 06:00에 현 진지선에서 출발하여 목표 A에 진출 즉시 이곳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목표 B를 탈취한 다음 계속 목표 C를 공격하여 점령한다.
③ 제11중대는 현 진지에서 제9중대와 제10중대의 공격을 지원하다가 제10중대를 초월 공격하여 목표를 탈환한다.
④ 제61연대에서 배속받은 제10중대는 대대예비로 제11중대 좌제일선에 18일 03:00까지 전진하여 공격중대를 화력으로 지원한다.
⑤ 중화기중대의 81㎜ 박격포는 제1대대의 중화기중대 박격포진지에서 이들과 같이 대대OP 후사면에서 지원한다.

이러한 공격계획에 따라 6월 18일 03시 30분에 제9중대는 북쪽 능선을 타고 목표 A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목표 A는 1090고지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능선상에

위치한 작은 무명고지로서 1090고지로부터 불과 150m 정도 떨어져 있어 감제가 가능한 고지였다. 따라서 이 고지를 탈환하지 않고는 1090고지를 점령할 수 없었고, 이를 감안한 적은 이곳에 병력을 증강시켜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는 적전 30m 지점까지 접근하여 돌격을 감행하려던 순간 적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다.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중대장마저 부상을 입게 됨에 따라 중대는 05시에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로써 제9중대의 목표 A에 대한 탈환은 실패하게 되었다. 제9중대의 공격이 실패하자 대대장은 계획을 바꿔 제10중대에 07시를 기해 목표 A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새롭게 명령을 받은 제10중대는 07시에 목표 A의 서쪽 능선을 우회하여 공격에 나섰다. 약 2시간 후 중대는 고지의 6부 능선까지 도달하였으나, 적이 정상에서 집중사격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적의 화력거점을 파괴할 특공대를 편성하기로 결심하고, "저 기관총을 격파할 용사는 앞으로 나오라!"라고 외쳤다. 이때 송갑성(宋甲成) 하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병사가 자원하고 나섰다. 중대장은 송갑성 하사를 조장으로 한 5명의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중대가 정면공격을 개시하는 동안 목표 A의 뒤편으로 잠입한 특공대가 수류탄을 투척한 후 화염방사기로 거점을 격파하였다. 이를 신호로 중대는 총공격을 개시하자, 당황한 적은 1090고지 쪽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렇게 목표 A를 점령한 중대는 목표 B인 1090고지를 공격하여 10시 50분에 이를 탈환하였다. 그리고 목표 C마저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실패하고 1090고지로 철수하였다.[174]

3) 전투 결과

1953년 6월 18일 1090고지를 확보한 제62연대는 병력을 증강하고 진지를 보강하면서 방어태세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이날 사단 명령에 따라 1090고지와 주진지를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하였다. 이로써 제62연대는 6월 14일부터 수행해온 1090고지 전투를 종료하였으며, 이후 양구 방산리로 이동하여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에 착수하였다.

반면 정면의 중공군 제33사단은 이번 전투에서 2개 대대 이상의 병력을 손실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대한 병력보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938고지 일대를 제179사단에 인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적은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1090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아군의 반격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물러나게 되었다. 이번 전투에서 연대가 거둔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4-37>과 같다.[175]

<표 4-37>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과					손실		
	사살	추정살상	노획			전사	부상	실종
			기관총	기관단총	수류탄			
제1대대	113	84	3	16	100	21	161	96
제3대대	502	270	1	5		19	119	51
기 타						13	46	
계	615	354	4	21	100	53	326	147

8. 선우고지 전투(1953. 6. 25 ~ 7. 1)

1) 전투 개요

선우고지 전투는 국군 제7사단이 양구 북방의 938고지(일명 선우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79사단과 전개한 공방전이다. 휴전을 한 달여 앞둔 1953년 6월 16일 미 제10군단장 화이트(Issac D. White) 중장은 국군 제5사단의 전선조정으로 돌출된 938고지의 서측방을 보전하기 위해 국군 제20사단의 좌일선 전투지역을 제7사단이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7사단은 938고지 정면의 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단의 방어정면에는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79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의 전선 병력은 약 6,600명으로 추산되었고, 제60군 직할의 122㎜ 야포 2개 대대를 포함한 76㎜ 야포 6개 대대와 120㎜ 박격포 3개 대대로부터 화력지원을 받고 있었다.

국군 제7사단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제20사단의 좌일선을 인수한 후 제5연대를 우일선으로 1220고지-938고지 동쪽 기슭에, 제8연대를 좌일선으로 938고지-노루곡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우측에 제20사단, 좌측에 제5사단과 연계하여 주저항선인 미네소타(Minnesota)선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었다.

우일선인 제5연대는 제2대대로 미네소타선 상의 1220고지를 중심으로 한 주 거점을 편성하고 1220고지 전방에 있는 1090고지에 제3대대를 배치하여 어은산-1090고지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방어토록 하였다. 그리고 1220고지의 좌측 전방에 있는 869고지에는 제1대대를 배치하여 869고지의 동측방을 엄호하는 동시에 암동(바우골)-869고지간의 접근로를 방어하게 하였다. 또한 좌일선인 제8연대는 938고지를 중심으로 한 주 거점을 2개 대대로 편성하여 통선곡(通先谷)-938고지간의 방어에 주력하였다.

<표 4-38>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7사단장	소장	김용배(金容培)	
	제3연대장	대령	유중수(柳重秀)	
	제1대대장	소령	나도일(羅燾日)	
	제2대대장	소령	장용남(張用南)	
	제3대대장	중령	박규화(朴圭華)	
	제5연대장	대령	손창규(孫昌奎)	
	제1대대장	중령	유홍식(柳洪植)	
	제2대대장	중령	임동섭(林東燮)	
	제3대대장	중령	이갑영(李甲榮)	
	제8연대장	대령	이병형(李秉衡)	
	제1대대장	중령	박 일(朴 一)	
	제2대대장	소령	선우용(鮮于容)	
		대위	이규식(李圭植)	1953.6.26부
	제3대대장	소령	공행근(孔行根)	
	사단포병단장	대령	강관룡(姜官龍)	
	제69포병대대장	중령	이기영(李基榮)	배속부대
중공군	제60군장		웨이지에(韋 杰)	
	제179사단장		우시홍(吳識洪)	

한편 작전지역인 938고지는 능선과 암석지대를 제외하고는 초목이 울창하여 사계가 불량하였다. 또한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관측과 항공지원에 제한을 주었다. 938고지 전투에서 양측의 전투서열 및 주요 지휘관을 살펴보면 <표 4-38>과 같다.

2) 전투 경과

1953년 6월 19일 제20사단의 좌일선 전투지역을 인수한 제7사단장 김용배 소장은 휴전을 앞두고 적이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938고지의 방어를 담당한 제8연대에 진지보강을 지시하였다.[176] 그리고 다음날에는 적의 공격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하달하였다.[177]

① 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938고지 및 1220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역습을 준비하려 한다.
② 제5연대는 1220고지의 전세가 위급할 때, 명령에 따라 제8연대 제1대대(사단예비)를 지휘하여 역습할 준비를 하라.
③ 제8연대는 938고지의 전세가 위급할 때, 명령에 따라 제1대대(사단예비)를 지휘하여 역습할 준비를 하라.
④ 중박격포(4.2인치) 중대
  ㉮ 사단 일반 지원을 계속하라.
  ㉯ 명령에 따라 역습부대를 직접 지원하라.
⑤ 사단 포병단 : 경포 2개 대대로 양 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경포 1개 대대와 중포 1개 대대로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이에 따라 제8연대장 이병형(李秉衡) 대령은 연대 우일선으로 938고지-938고지 동쪽 기슭에 배치된 제2대대와 좌일선으로 938고지 서측 9부능선-938고지 서쪽 기슭에 배치된 제3대대에 진지보강공사를 지시하는 한편 사단예비인 제1대대로 938고지에 대한 역습을 준비하였다. 특히, 통선곡의 적 진지와 지근거리인 938고지의 접근로 상에는 사단포병의 화력을 집중시켜 놓았다.

이런 가운데 중공군은 6월 26일 밤 9시 15분을 기해 938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30분이 경과할 무렵 고지 서북쪽 기슭에서 3개 대대병력이 무성한 잡초를 헤치며 고지를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제56포병대대의 제압사격이 개시되었으나, 적의 집중포화는 오히려 더욱 강력해져 연대의 전방지휘소는 물론 사단의 포병진지와 전방지휘소까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의 강력한 포격으로 인해 연대 전방지휘소의 통신망이 두절되었다.

한편 연대로부터 "비상태세로 돌입하라!"는 긴급명령을 받은 제2대대는 연대방어지역의 요충인 938고지의 주봉을 중심으로 2개 중대를 좌우일선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 중 좌일선인 제6중대지역은 938고지 전면에서 적측인 통선곡 쪽으로 뻗은 능선이 비교적 평탄하여 적이 이곳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어력을 집중시켜 놓았다. 그러나 적의 포격은 진지 전면에 부설해 놓은 지뢰와 철조망 등 각종 장애물을 파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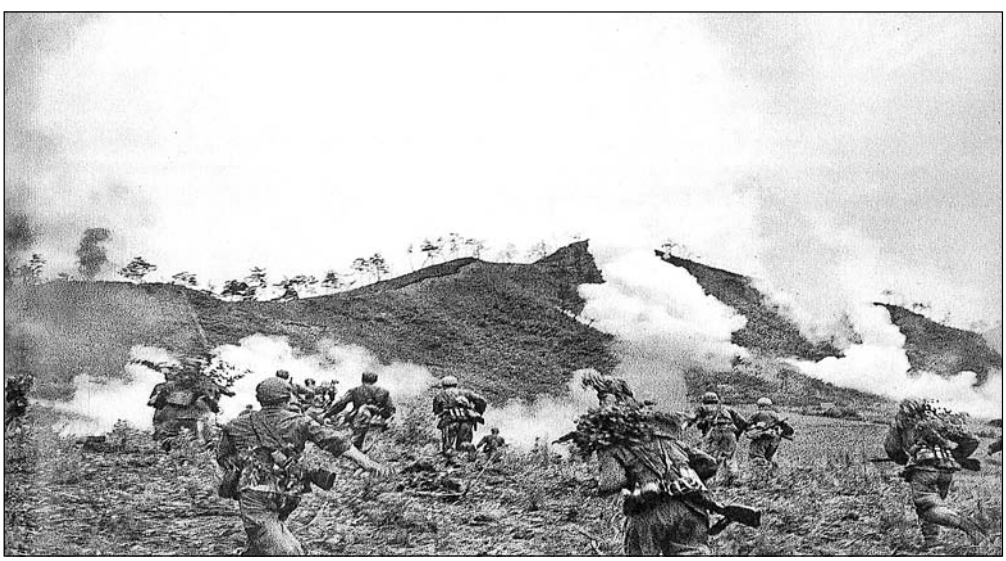
21시 45분에 적은 집중포격에 이어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제6중대 정면과 서측방에서 일제히 소총사격을 가하며 진지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때 최후저지사격 신호와 함께 제6중대의 모든 화력이 최후저지선에 집중되었다. 대대관측소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던 대대장 선우용(鮮于容) 소령의 지시에 따라 938고지 뒤편에 배치해놓은 81㎜ 박격포가 불을 뿜었다. 이와 함께 연대의 4.2인치 박격포가 합세하여 938고지 일대는 굉음과 폭염이 진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공격은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제파식 공격이 계속되었다. 진지 앞에서는 수류탄 투척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중대를 우회한 적의 일부가 대대관측소 부근으로 접근하여 연대 수색중대를 기습함으로써 대대는 포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상황을 파악한 대대장은 관측소 밖의 진지로 나와서 "철수하지 마라! 현 전선을 그대로 지켜라!"라고 외치며 장병들을 진두지휘하였다. 그러나 적이 이를 목격하고 그를 향해 수류탄을 집중 투척함으로써 대대장 선우용 소령은 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22시 30분경 중공군은 또 한 차례의 집중포격을 실시한 후 증원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을 가해왔다. 중대는 더 이상 고지를 지탱하지 못한 채, 우일선의 제5중대

를 따라 938고지 남사면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6월 27일 01시에 제2대대는 도피막 남쪽 500m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938고지에 이르는 도로로부터 830고지 간에서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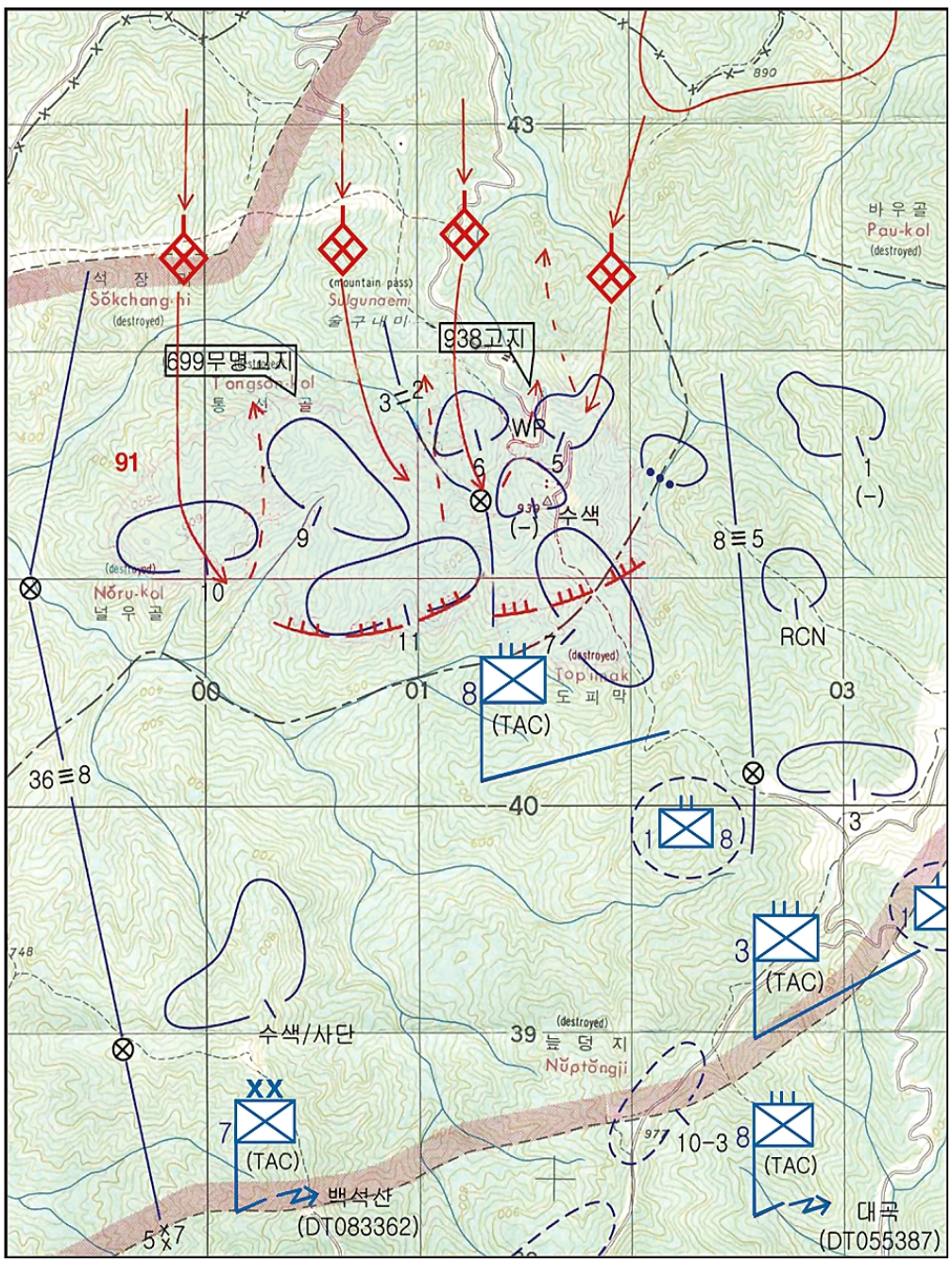
한편 제3대대는 938고지의 서측 9부 능선에서 서쪽 기슭에 2개 중대를 배치하고 대대예비인 1개 중대를 우일선 뒤편에 배치함으로써 대대의 동측방, 즉 제2대대의 서측방을 2개 중대로 보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3대대의 방어력이 유지되는 한 서측방에서 938고지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고, 설령 공격하더라도 938고지의 주봉을 확보하고 있으면 적을 감제 하에 둔 채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제2대대가 938고지의 주봉을 상실할 경우 제3대대는 적에게 고립되거나 포위될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포격지원 아래 국군의 진지를 공격중인 중공군

제2대대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직후 제3대대 또한 전면과 측방으로부터 양면협공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하고, 게다가 적으로부터 포위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야간철수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대대 OP주변의 무명 봉우리를 점령하였고, 대대는 도피막 남쪽의 아이슬란드선의 830고지에 제2대대와 함께 재배치되었다.

<상황도 4-18> 938고지 전투(1953. 6. 26. ~ 6. 27.)



예하 각 대대의 상황을 파악한 연대장 이병형 대령은 사단 통제 하에 있는 제1대대를 사단의 승인 하에 도피막 부근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178]

① 연대는 6월 27일 02:30에 공격을 개시하여 938고지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1대대
  ㉮ 6월 27일 02:30에 공격, 938고지를 탈취하고 지역 내의 적을 격멸하라.
  ㉯ 명령에 따라 원진지를 제2대대에 인계할 준비를 갖추라.
③ 제2대대
  ㉮ 제1대대의 초월공격을 지원하라.
  ㉯ 명령에 따라 원진지를 제1대대로부터 인수 방어할 준비를 갖추라.
④ 협조지시
  ㉮ 화력의 우선은 역습부대에 있다.
  ㉯ 공격준비사격은 H-15부터 실시한다.

이와 같은 연대의 역습명령에 따라 제1대대장 박일 중령은 6월 27일 02시 30분에 제2대대를 초월공격하여 목표인 938고지를 탈환하고 지역 내의 적을 격멸한다는 명령을 각 중대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제1중대에 938고지의 주봉을, 제2중대에 938고지 서측의 '빵고지'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대대는 각 중대별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23시 20분에 도피막 부근의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제1대대는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2시 30분에 공격개시시선을 출발하였다. 대대의 우일선인 제1중대는 중대장 김한준(金漢俊) 대위의 지휘 하에 적의 크고 작은 저항을 물리치고 후일 바위모양이 비석처럼 생겼다 하여 '비석고지'라 불린 8부 능선의 바위에 도달하였다. 이곳에서 중대는 바위틈에 잠복하여 사격을 가하던 적의 자동화기를 제압하고 바로 9부 능선에 올라 격렬한 육박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도피막을 돌아 938고지 서측능선(빵고지) 남쪽 기슭으로 진출한 좌일선의 제2중대는 어둠을 이용하여 8부 능선에 이르렀으나, 이곳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대는 중대장 강익모(姜翼模) 대위의 명령에 따라 돌격을 감행하여 백병전을 펼쳤다. 이와 같이 대대는 938고지 주봉과 빵고지 일대에서 격렬한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병력이 점차 증강됨에 따라 수세에 몰리게 되어 05시 30분에 938고지 남쪽 기슭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제1대대의 역습이 좌절되자 연대장은 도피막 남쪽의 830고지에 배치된 제3대대의 일부 병력으로 다시 역습을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제10중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중대는 사단포병의 집중포화의 지원을 받으며 13시 30분 공격에 나섰다. 중대도 앞선 1차 역습 때와 마찬가지로 8부 능선에 진출하여 비석고지에 배치된 적의 자동화기를 제압하고 9부 능선으로 돌진하였다. 그러나 백병전을 벌이던 중대는 갑작스런 적의 포격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938고지의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연대장은 1차에 이어 2차 역습마저 실패하자 938고지 남쪽 기슭에서 급편방어를 하고 있던 제1대대 예비인 제3중대에 제3차 역습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도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15시에 938고지 서측의 빵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고 18시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한편 사단장 김용배 소장은 3차에 걸친 역습이 모두 실패하자 사단예비대에 의한 차후역습계획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작전통제로부터 복귀한 제3연대에 "즉시 예하대대를 저지선(아이슬란드선)에서 방어중인 제8연대 직후방으로 추진하여 차후명령을 대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179] 이에 따라 제3연대 예하대대는 6월 28일 00시 30분을 기해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사단장은 제3연대 전방지휘소에서 작전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80]

① 사단은 6월 29일 05:00에 1개 연대(-)로써 938고지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여 이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3연대

㉮ 2개 대대로써 제5연대 및 제8연대를 초월, 938고지를 탈취하라.

㉯ 1개 대대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방어중인 저지진지를 제8연대에 인계하고 1015고지(1220고지 서쪽 1㎞) 부근에 집결시켜 연대의 예비로써 위치하라.

③ 제5연대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8연대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고 제5연대 및 사단수색중대와 접촉을 유지하라.

㉰ 제3연대의 공격개시와 동시에 동 연대가 확보중인 저지진지를 인수하라.

⑤ 사단수색중대 : 사단 서측방(눕덩지 서쪽 1.5㎞)에서 측방경계 및 제5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⑥ 중박격포(4.2인치)중대 : 제3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⑦ 사단 포병단 : 경포 3개 대대로 제3, 제5, 제8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중포로서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⑧ 공병대대 : 증강된 1개 소대로써 제3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⑨ 협조지시

㉮ 화력지원 우선권은 역습부대에 있다.

㉯ 공격준비사격 : H-20분

㉰ 공격개시 전 기도비닉에 유의하라.

⑩ 지휘소는 변동 없이 백석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명령에 따라 6월 29일 05시를 기해 제3연대 제2대대와 제1대대는 공격준비사격이 개시되자 일제히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연대의 우일선으로 공격을 담당한 제2대대는 도피막-938고지 간 능선 기동로를 중심으로 제7중대와 제5중대를 각각 좌우일선에 전개하였다. 그리고 대대예비인 제6중대는 제7중대를 후속토록 하여 2개 중대 병진대형으로 938고지의 우측을 향해 공격에 나섰다.

이때 적은 아군의 공격을 예상한 듯 대대의 기동로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우일선의 제5중대는 적의 포격을 피해 공격개시선으로부터 300m 정도까지 진출하였으나, 938고지 우측 부근에 설치된 적 자동화기의 저지사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공격개시 2시간 만에 목표 300m 전방에서 공격이 중단되었고, 능선 뒤편에서 재편성에 들어갔다.[181]

좌일선의 제7중대 또한 도피막 좌단-938고지 간 도로를 따라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목표를 향해 능선을 오르던 중대는 도중에 고지 정면의 적으로부터 직사화기 공격을 받고 이를 격퇴하며 가까스로 목표 200m 전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938고지 서단 능선상의 적 측방화기의 사격이 집중되고, 동시에 적의 포화가 중대의 진출선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적의 탄막지대에 들어선 중대는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인근에서 급편방어에 들어갔다. 이처럼 제5중대의 진출이 좌절되자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제6중대가 초월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직사화기 공격으로 인해 공격개시 40분 만에 실패하고 재편성에 들어갔다.[182]

한편 도피막 서쪽의 능선을 따라 938고지 좌측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1대대는 제3중대와 제1중대를 각각 좌우일선에 전개하고 제2중대는 도피막 남쪽 500m 지점에서 제1중대를 후속토록 조치하였다. 양 중대는 진출로에 집중되는 적의 포화를 헤치고 목표의 6부 능선에 도달하였으나, 여기에서 적의 저지사격에 막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제2대대가 예비대를 투입하였음에도 공격에 실패하고, 제1대대도 6부 능선에서 고착상태에 빠지자, 연대장 유중수(柳重秀) 대령은 타개책을 강구하였다. 즉, 현 진출선에 있는 제1대대와 제2대대로 적을 양면에서 계속 견제하고 새로운 병력으로 적의 중앙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연대장은 즉각 제1대대장에게 대대예비인 제2중대로 적의 중앙부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07시 30분에 행동을 개시한 제2중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공격하며 진격에 나섰다. 그러나 적진 100m 지점에서 적 포화의 탄막에 들어 진격을 중단하고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전개한 제1중대의 공격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게 되어 진지를 급편하였다. 이처럼 제3연대는 역습을 개시한 지 5시간 만에 전 부대가 현 진출선에서 급편방어에 들어가 차후 명령을 대기하였다.[183]

제3연대가 역습에 실패하자 사단장 김용배 소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역습재개를 지시하였다.[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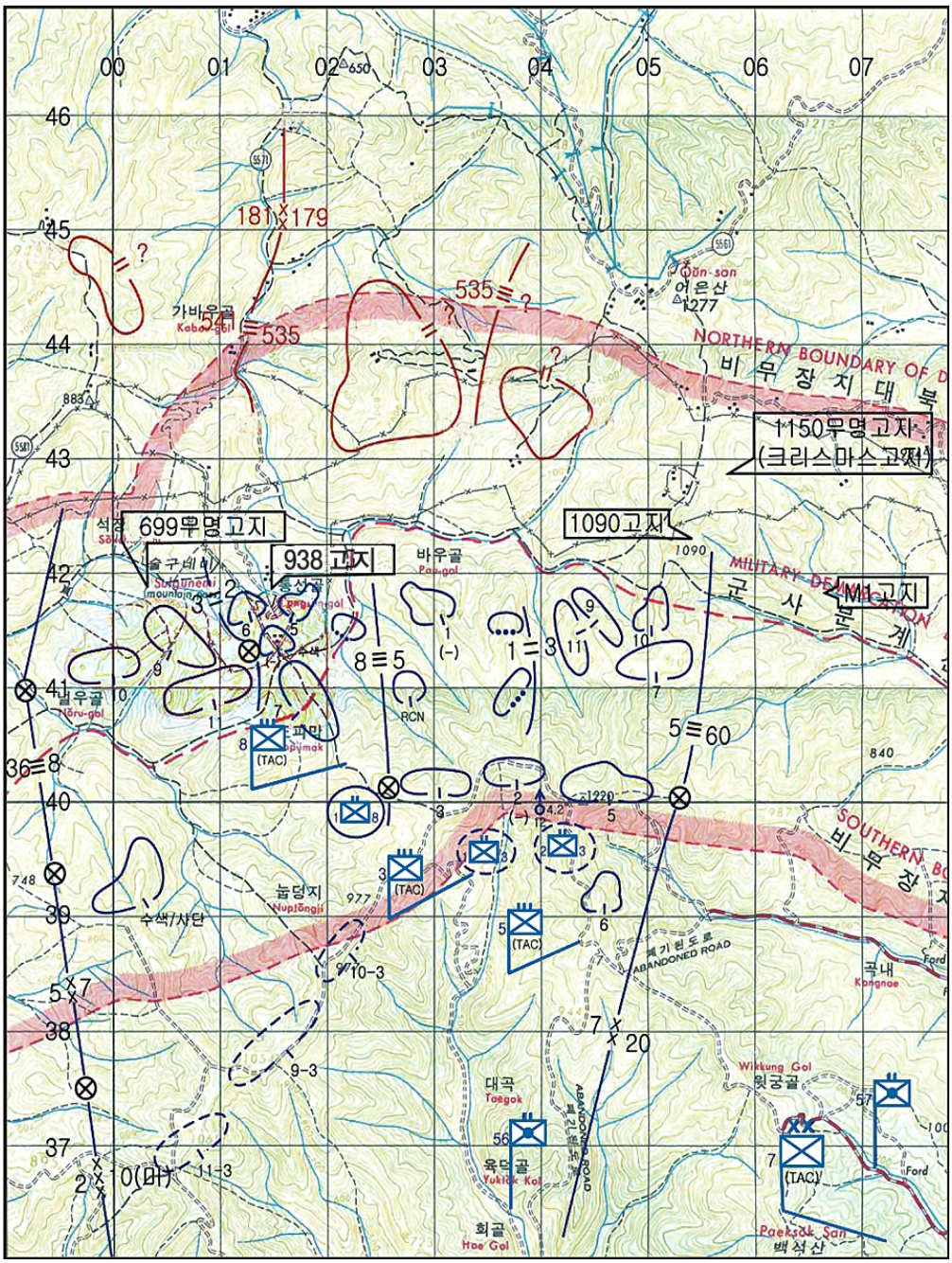
① 사단은 1개 연대(-)로 6월 30일 03:00를 기해 공격을 재개, 938고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8연대는 현 진지를 6월 30일 01:00까지 제3연대에 인계하고 03:00를 기해 목표 A, B, C를 탈취하라.
③ 제3연대는 6월 29일 일몰과 동시에 제8연대 진지로 이동하여 방어에 임하고 화력으로서 제8연대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5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제8연대의 공격을 화력으로 지원하라.
⑤ 사단수색중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⑥ 중포중대는 6월 29일 20:00부로 제8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⑦ 사단포병은 변동 없이 직접 및 일반지원을 계속하라.
⑧ 사단예비대 : 제3연대 제3대대

이에 따라 제3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20시를 기해 아이슬란드선의 제8연대 방어진지를 인수하기 위해 철수를 단행하였고, 제8연대(-)는 역습을 위한 최종준비에 착수하였다. 작전개시에 앞서 제8연대장 이병형 대령은 938고지 남사면에 있는 적의 전초진지인 비석고지에 설치된 자동화기를 파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목표 C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장 이규식 대위는 일장 연설로 대대원의 사기를 고취시킨 다음 소대 규모의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출발에 앞서 대대장은 “우리는 기필코 비석고지를 점령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철모대신 흰 띠를 두른 채 02시에 특공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침투하였다. 대대장은 목표를 세 방향에서 협공하기 위해 특공대를 3개분대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협공에 성공한 특공대는 적의 자동화기를 제압하고 기습 30분 만에 비석고지를 장악하였다.[185]

전날 연대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3대대장 공행근 소령은 각 중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938고지를 측면에서, 제10중대는 정면에서 공격하게 되었다. 또한 제9중대는 938고지 서쪽 능선의 빵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맡게 되었다.

<상황도 4-19> 938고지 전투(제3연대의 역습)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국군병사

대대는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6월 30일 02시 40분을 기해 행동을 개시하였다. 잠시 후 적의 포화가 집중되는 가운데 대대의 좌우일선 중대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목표로 향하였다. 이때 938고지 주봉 쪽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은 제11중대는 편성된 특공대를 우회시켜 이들을 기습하였다.

아울러 938고지 동측방으로 우회한 병력이 9부 능선에서 적진으로 돌격하여 육박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지 남사면으로 접근한 제10중대가 합세하면서 적은 고지에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6월 30일 04시 15분에 938고지의 주봉을 상실한 지 4일 만에 되찾게 되었다.[186)]

이에 앞서 제9중대는 938고지 서측능선을 공격하여 목표 B인 빵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04시 30분경 2개 중대규모로 추산되는 적이 반격을 가해옴에 따라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05시 15분에 고지 아래로 철수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목표 C를 점령하기 위해 05시에 도피막의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그러나 진출 도중에 적의 저지사격에 의해 중단되자, 07시 30분에 현 진출

선에서 병력을 철수시켜 새로운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런 가운데 적 1개 대대규모가 08시에 938고지의 북사면을 따라 주봉으로 몰려들었다. 앞선 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상실한 양 중대는 진지 앞으로 들이닥친 적과 백병전을 펼쳤으나, 점점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연대의 지원 하에 10시경 도피막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약 30분 후 제2대대가 다시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탈환에 실패하자 군단장은 공격중지를 지시하였다.[187]

938고지의 탈환을 피력한 사단장은 제3연대 제3대대에 이 임무를 부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88]

① 사단은 제3연대(-)로써 7월 1일 02:30에 938고지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일부 병력으로써 7월 1일 02:30을 기해 목표 938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5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④ 제8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명령에 따라 현 제3연대의 진지를 점령할 준비를 하라.
⑤ 중박격포중대는 6월 30일 18:00부로 제8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역습명령을 받은 제3연대 제3대대는 7월 1일 02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기존의 역습과는 다른 경로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조명에 지원공격도 없이 공격에 나섰다. 제3대대는 제11중대와 제10중대를 각각 좌우일선에 전개하고 제9중대를 대대예비로 편성하였다.

우일선의 제10중대는 접적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적의 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좌일선의 제11중대는 비석고지 동측방에 접근할 즈음 적으로부터 일제사격을 받게 되었다. 때마침 제11중대를 엄호하기 위해 진출한 제9중대의 도움으로 적을 격퇴하였다. 이에 대대장 박규화(朴奎華) 중령은 제9중대에 938고지의 정면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적은 비석고지 남쪽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는가 하면 서측의 빵고지에서 직사화기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9중대는 부득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접적 없이 9부 능선까지 도달한 제10중대는 중대원 모두가 사격을 가하며

돌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당황한 적은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항하였으나, 때마침 정면으로 돌진한 제9중대와 함께 육박전을 전개하여 격퇴하고 938고지 주봉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적은 고지 주봉에 포격을 집중하며 대대규모로 반격을 가해왔다. 이에 제3대대는 몇 차례의 진내사격까지 요청하며 3시간에 걸쳐 격전을 벌였으나, 08시 무렵 어쩔 수 없이 철수를 단행하여 1시간 후 원집결지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역습에도 938고지 탈환에 실패하고 차후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189]

3) 전투 결과

국군 제7사단은 7월 1일 제3연대 제3대대가 철수한 다음 군단 작전지시에 따라 이날 17시부로 우일선 제5연대를 미 제45사단에 배속시켜 동 연대의 전투지역을 미 제45사단 제180연대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사단 전방CP를 양구 천미리로 이동하고 사단 좌일선인 제3연대가 배치된 주진지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우측에 제3연대 제1대대, 좌측에 제5연대 제2대대를 배치하여 종래의 1개 연대방어지역만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주진지 후방 1090고지-977고지-1065고지를 연한 차후저지선에 배치된 제8연대와 도피막 부근에서 집결한 제3연대 제2대대를 새로운 집결지인 양구 학도리로 이동시켰다.

반면에 중공군 제60군은 제21군과 교대하여 후방으로 이동하였고, 제7사단 정면에는 적 제21군 예하의 제61사단이 새로이 배치된 가운데 전선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및 손실은 <표 4-39>과 같다.[190]

<표 4-39>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추정살상	포로	전사	부상	실종
제3연대	315	1,027		5/104	17/381	
제8연대	232	747	2	3/67	22/566	2/180
계	547	1,774	2	8/171	39/947	2/180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1) 요약

1953년 6월 포로송환협상이 타결되면서 휴전회담은 조인단계로 급진전을 이루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보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후의 공세를 감행하여 점령지역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는 곧 '중공군 6월 공세'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공산군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북진주장과 휴전반대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한국군 제2군단이 담당하고 있는 화천 북방의 금성돌출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공세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중공군이 금성지역을 공격목표로 설정한 배경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지형이 험준하여 기갑 및 화력지원이 취약하고,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작전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전초전으로 5월에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단행하여 한국군의 방어준비태세 등을 시험한 바 있었다.

1953년 6월 10일 밤, 중공군은 금성지역에 대한 공세를 개시하였다. 중공군의 최후공세였다. 중공군은 1개 군을 투입하여 한국군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수도고지와 그 우측의 제5사단 방어지역인 949고지-973고지-883고지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산악전술과 인해전술, 그리고 야간전술을 운용하여 9일 동안에 13㎞의 공격정면에서 4㎞를 남진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은 북한강 남안까지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유엔공군의 지원으로 중공군의 공세는 일단 둔화되었고, 6월 18일 전선은 안정을 되찾았다. 공세를 중단한 공산군 측은 최후 공세의 성공적인 결과에 고무되었고, 6월 18일 전후로 예정된 휴전협정 조인을 준비하였다.

2) 성격과 의의

중공군 6월 공세의 최초 단계의 공격에서 중공군은 18개월간에 걸친 전선의 소강상태를 벗어나 미 제8군 전선의 주저항선인 미주리선의 중앙부에 폭 9마일과 종심 4마일의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어떠한 적의 공세도 분쇄격파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 미 제8군의 위신도 손상되었고, 국군의 정예사단으로 구성되었던 제2군단의 체면도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번 작전의 특징은 효과적인 공중지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중공군의 풍부한 인적자원에 의한 인해전술의 구사, 비효과적인 아군의 진지축성과 과도한 전초진지의 보유에서 오는 병력분산 등이 공산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당초 계획하고 예상했던 만큼의 지역 획득에는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병력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공군의 6월 공세를 엄밀히 평가한다면 '절반의 성공'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초기와는 달리 한국군의 전투능력이 급속도로 향상된 데에 따른 것이었다.

2. 작전의 주요 특징과 요약

1) 공산군 측 관점

중공군 6월 공세의 특징에 대한 중공군의 시각은 중국군사과학원에서 발간한

『항미원조전사』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공군 지휘부는 6월 공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6월 공세 제2단계 작전의 특징은 휴전회담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정확하게 공격목표를 설정하였고, 작전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소대 및 중대급 진지에서 대대 및 연대급 진지로 확대되었다. 포병의 화력도 상당 수준 증강되었고, 보병과 포병간의 협력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작전의 수행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적의 진지 전방에 은신처와 매복지를 확보하였고, 공격부대는 작전에 앞서 작전지역에 침투하여 잠복함으로써 공격이 개시되면 신속하게 목표진지를 돌파할 수 있었다. 또한 공격형태 측면에서는 공격시 병력을 여럿으로 분할하여 진지를 사방에서 돌파하였고, 제대를 여럿으로 편성하여 연속공격을 진행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개 격파하였고, 속전속결을 실행할 수 있었다. 목표진지를 점령한 후 적의 반격에 대한 대비는 공격할 때의 병력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하였다."

한편 중공군 지휘부는 6월 공세 제2단계에 대한 결과를 "대량의 적을 섬멸하고 부대를 단련시켰으며, 진지 개선과 휴전회담과의 연계 목표를 훌륭하게 실현한 대승리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번 작전이 견고한 방어진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후의 금성전역 즉 중공군의 7월 공세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2) 유엔군 측 관점

한국군 정면에 집중되었던 이번 공세는 한국군의 전투력과 지휘관의 지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당시 국군에 배속되었던 미 군사고문관들이 중공군의 6월 공세에 대응하는 국군의 능력을 미 육군전사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중공군의 공세가 단행되자 한국군 부대들은 용감하게 저항을 계속함으로써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였다. 중공군의 압력이 가중되는 단계에서 국군은 즉시 후방에 편성된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침공을 저지하였다. 한국군은 1951년의 중공군 공세 당시에 비해 전투력이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고, 그동안의 훈련과 실전경험을 통한 지식이 이제 전투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군 장교들은 한 가지의 통신수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통신선이 절단될 경우 인접부대나 지원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상호협조가 불가능상태를 초래하였다. 한국군 지휘관들은 야포화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황에 따라 소화기 또는 박격포 사격이 보다 효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포병지원에 의존하였다.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 한국군 장교들은 ‘체면’을 중시함으로써 부대 운용에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이를 상급 지휘관에게 사실대로 신속히 보고하여 적절한 대응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한국군이 향후 공산군의 전면공세를 독자적으로 저지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군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집필 : 손규석)

주(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3-15쪽.
2) 위의 책, 16-17쪽.
3) 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강원도』, 평화당, 1988, 174-175쪽.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양구전투(피의 능선·단장의 능선 전투)』, 1989, 8쪽.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 1990, 14-15쪽.
6) 중국 수뇌부는 "유엔군은 정면 전장에서 방어에만 급급하고 반격의 여력이 없으며, 공산군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후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593쪽.
7)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세경사, 1991, 264-265쪽.
8) 위의 책, 268-269쪽.
9) 위의 책, 274-275쪽.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593-594쪽.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598-600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495-496쪽.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602-603쪽.
13) 중공군이 '방형산'으로 지칭한 이 고지는 국군 제5사단의 주진지인 949고지에서 약 2㎞ 북방에 위치한 무명고지이며, 949고지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의 최북단에서 949고지를 병풍처럼 엄호하는 형세를 지니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616쪽.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604쪽.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603쪽.
16) 연합사령부가 편성된 이후 작전문제 및 전방전선과 관계된 모든 활동은 일체 연합사령부의 관할 하에서 해결토록 하였다. 후방에서의 동원과 훈련, 군사행정, 경비 등은 북한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고 연합사령부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권고나 건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정문사, 2002, 593-594쪽.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157, 235쪽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855-861쪽.
19)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중조연합사령부에 이양한 김일성은 정전시까지 자신의 군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는 명목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책, 235쪽.
20)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861쪽.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855-861쪽.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861쪽.
23)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46-149쪽;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2001, 252-255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오비기획, 2002, 139-141쪽.

24)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2 7.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005, 572쪽; 김중생,『조선의 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121-134, 175-177쪽.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601쪽.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602쪽.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857-861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2002, 150-151쪽.
28) (U) Msg, CINCUNC (ADV) HNC 340 to CINCUNC, 7 Oct 51, DA IN 4594.
2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1997, 486쪽.
30)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1), pp. 330-332.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336-337쪽.
32)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Office of the CMH, U.S.A., 1988), pp. 410-411.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332-333쪽.
34) 클라크 대장은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 전쟁이 계속될 경우 군사적 해결을 추구할 수단을 제공하고, 일부 유엔군부대의 철수를 가능하게 하며, 전쟁이 종결될 경우에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Office of the CMH, U.S.A., 1988), pp.41-42.
35)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1997, 488쪽.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351-352쪽;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1), p.332.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356쪽.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357쪽.
39) 1951년 9월 15일자 극동군사령부의 '핵표적분석(Atomic Target Analysis)'이라는 극비문서에 의하면, 극동미군은 당시 피아의 접촉선 북방 10㎞ 평강지역을 핵 표적의 하나로 선정하고 가상의 핵타격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GHQ, FEC, G-3, Commander's Atomic Target Analysis(1951, Sep.).
40)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p. 243.
41)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1), p. 154.
42)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1), 1991, p.333.
43)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교학사, 1984, 916-918쪽.
44)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p.24-26.
45) 미 제25보병사단은 제27·35보병연대와 흑인연대인 제24보병연대로 창설되었으나, 1951년 10월 1일 미 제8군의 인종차별 폐지지시로 제24보병연대를 해체하고 제14보병연대로 교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신오성기획인쇄사, 2002, 421쪽.

46) 육군작전교육국,「정기작전보고 제169호」(4283. 7. 1);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5;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p.1-2.
47)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Office of the CMH, U.S.A., 1988), pp.462-463.
48)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5;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p.2-3.
49) Paul M. Edwards, The Korean War; A Historical Dictionary(Maryland: The Scarecrow Press, Inc.. 2003), p.297.
50)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May 1953, p.38.
51)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May 1953, p.38; HQS, X Corps, Command Report, June 1953, pp.17-19(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D 01561).
52) HQS, XCorps, Command Report, June 1953, pp.5-8(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D 01561).
53)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May 1953, p.38.
54)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May 1953, p.38.
55) HQS, EUSAK, 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37, 9 May 1953;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May 1953, p.38.
56) HQS, EUSAK, 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37, 9 May 1953
57)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May 1953, p.28.
5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1997, 5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2002.
59) 보병 제8사단사령부,『오뚜기약사』 제1집, 1969, 421-434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1987, 34쪽.
60) 『항미원조전사』,283쪽.
61) 위의 책, 283쪽.
62) 위의 책, 283-284쪽.
63) 국방부,『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81쪽.
64)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4호」(1952. 12. 30).
65)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31쪽.
6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21-623쪽.
6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24-625쪽.
68) 국방부,『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80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16-617쪽.
69)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5호」(1953. 1. 12).
70)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0호」(1953. 5. 29).
71)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3호」(1953. 6. 1, 18:00).
7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36쪽.
7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27쪽.
7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98쪽.
75)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98-699쪽; 국방부,『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89쪽.

76)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92쪽.
7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00-701쪽.
78)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호」(1953. 6. 4, 12:0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646-648쪽.
79)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계획 제9호」(1953. 6. 4, 12:00).
80) 미 제10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369호」(1953. 6. 5).
81)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6호」(1953. 6. 5, 18:00).
8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04-705쪽.
8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07쪽.
84)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7호」(1953. 6. 7, 12:00).
85)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09쪽.
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10쪽.
87)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3호」(1953. 6. 12, 12:00).
8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13쪽.
8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87쪽.
9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88쪽.
9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90쪽.
9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90-793쪽.
93) 박완식 증언, 1976. 4. 23.
94) 박정인,『박정인 회고록,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4, 276-280쪽.
9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559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2사단 제37, 38, 51연대)』(60), 1987, 724-725쪽.
96)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243쪽.
97)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244쪽.
98)『항미원조전사』284쪽; EUSAK, Command Report, Map. Jun 1951.
99)『항미원조전사』284쪽.
100)『항미원조전사』284쪽.
1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1976, 271쪽.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1976, 756쪽.
1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1976, 755쪽.
1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1976, 756쪽.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1976, 757쪽.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1976, 765쪽.
107) 보병 제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97호」(1953. 6. 25, 21:00).
1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1976, 793쪽.
10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29쪽.
110)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호」(1953. 6. 15, 08:00).
11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22-23쪽.
11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15-17쪽.
11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0-41쪽.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14쪽.

1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14쪽.
1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15쪽.
11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2쪽.
118) 제22연대 제3대대의 B고지 탈취목적은 첫째, 제2대대의 529고지 탈환을 위해 적의 병력과 화력을 분산시키는 것과, 둘째, 529고지 점령 후 퇴각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제3대대가 B고지를 점령했을 때에는 이미 529고지가 적의 수중에 있어 오히려 제3대대가 적중에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18쪽.
119)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3호」(1953. 6. 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31쪽.
1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18쪽.
1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18-319쪽.
12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3쪽.
1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20-321쪽.
12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3쪽.
1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23쪽.
12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4쪽.
12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4-45쪽.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26쪽.
12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4-46쪽.
1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27-328쪽.
1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28-329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6쪽.
1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29-330쪽.
1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30-331쪽.
13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7-48쪽.
1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32쪽.
13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49쪽.
1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34쪽.
13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51-52쪽.
13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22연대, 23연대, 제3사단 포병, 5사단)』(50), 1986, 69-70쪽.
14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직할대, 제2사단, 17연대)』(47), 1986, 861-862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41쪽.
14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14쪽
14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14쪽
1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45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20쪽
14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20쪽
145)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1호」(1953. 6. 30, 09:0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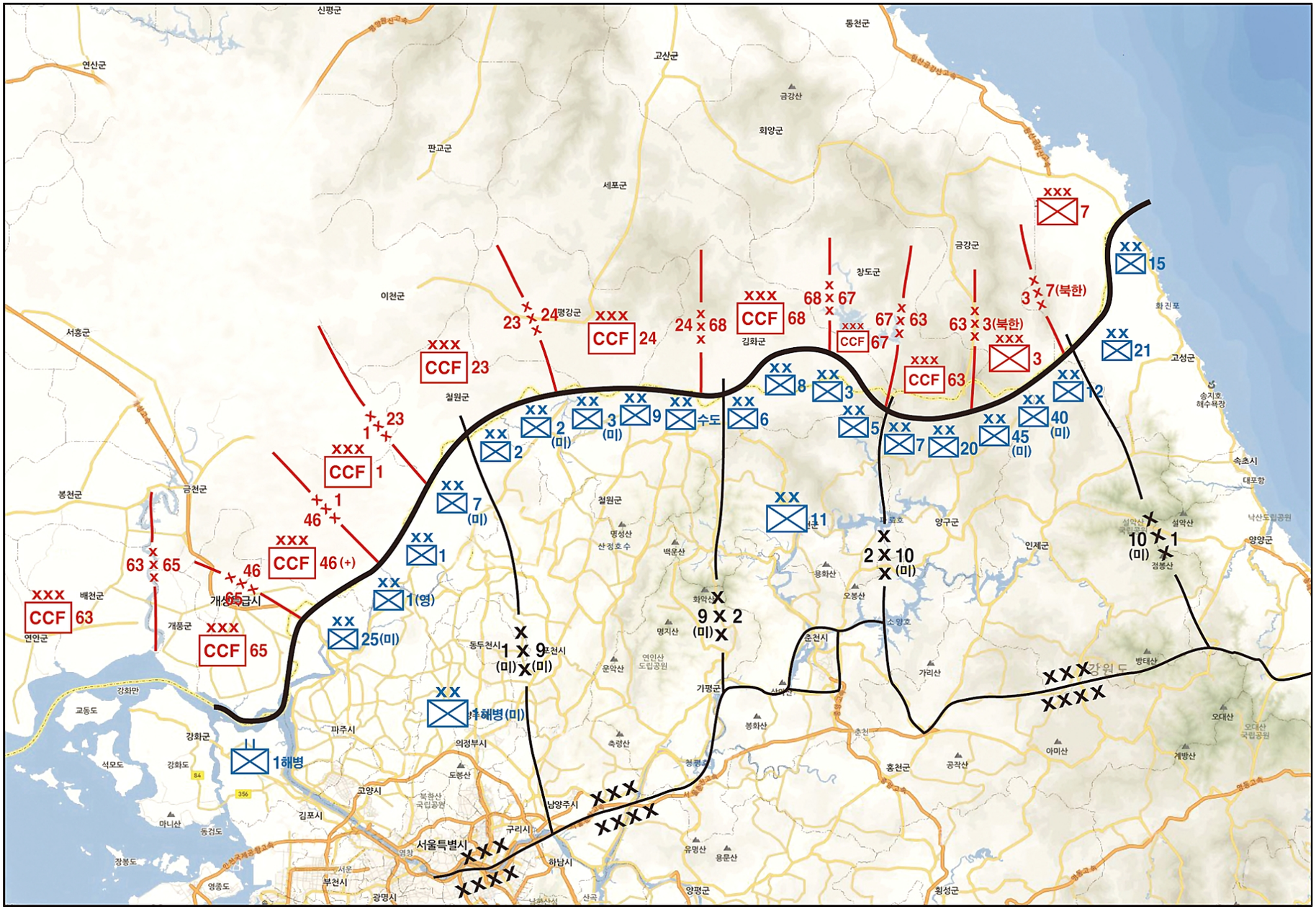
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21쪽
1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47쪽.
14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22쪽
1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48-349쪽.
14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23쪽
150)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2호」(1953. 7. 2, 12:00).
151)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0호」(1953. 7. 5, 12:00).
15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직할대, 제2사단, 17연대)』(47), 1986, 868쪽
1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52-353쪽.
154)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3호」(1953. 7. 7, 09:00).
1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53쪽.
15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직할대, 제2사단, 17연대)』(47), 1986, 868-869쪽
1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54쪽.
158)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1호」(1953. 7. 8, 03:00).
15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직할대, 제2사단, 17연대)』(47), 1986, 870쪽
16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47), 1986, 871쪽
16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47), 1986, 872쪽
1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60쪽.
1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61쪽.
16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직할대, 제2사단, 17연대)』(47), 1986, 872-873쪽
165)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직할대, 제2사단, 17연대)』(47), 1986, 873쪽
16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직할대, 제2사단, 17연대)』(47), 1986, 886쪽;『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2사단 17연대, 31연대, 32연대, 제2사단 직할대)』(48), 1986, 928쪽
167) 보병 제20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4호」(1953. 5. 11, 12:00).
16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60-161쪽.
16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62쪽.
170) 보병 제20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43호」(1953. 6. 16, 10:00).
17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66-167쪽.
172) 보병 제20사단 제62연대, 「작전지시 제15호」(1953. 6. 17, 20:00).
173)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69쪽.
17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72쪽.
17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73쪽.
176)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238호」(1953. 6. 19, 17:00).
177)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239호」(1953. 6. 20, 17:00).
17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85쪽.
17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91쪽.
180)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9호」(1953. 6. 28, 12:00).
18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94-195쪽.
182)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95-196쪽.
183)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198쪽.
184)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30호」(1953. 6. 29, 20:00).

185)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199-200쪽.
18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200-201쪽.
18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203쪽.
188) 보병 제7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31호」(1953. 6. 30).
189)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205-206쪽.
19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9권(대진말기), 1976, 207쪽.

제 5 장 중공군의 7월 공세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제 3 절	중공군의 7월 공세와 국군의 재반격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상황도 5-1> 중공군 7월 공세의 피아배치 현황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상황 요약

중공군의 6월 공세는 금성돌출부 우견부의 금성천-북한강선(아이슬란드선)에 설치된 새로운 방어선에서 저지되었으나, 선우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7월초까지도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공군 수뇌부는 1953년 6월 23일까지 6월 공세를 종결짓고 6월 24일부로 7월 공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는 중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6·18 반공포로석방'에 의해 6월 군사작전의 결과가 무색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선전효과가 퇴색됨에 따라 한국 정부에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휴전을 앞두고 전장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이미 6월 19일에 한국군 부대에 대해 새로운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지령이 하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령을 접한 펑더화이는 다음날 휴전협정 조인을 지연시키고 한국군 부대를 공격하겠다는 건의를 승인받아 하계 제3차 공격작전을 7월 10일경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른바 '7월 공세'를 준비하였다.

중공군 지휘부는 7월 공세에서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국군 4개 사단(수도·제6·제8·제3사단)을 섬멸하기로 목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선이 돌출되어 있어 공격에 유리하고, 1차전(전초전)과 2차전인 6월 공세를 통해 이 지역에 익숙해져 있으며, 국군 방어선의 특징도 잘 파악하고 있음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곳에 집중적인 공격을 계속 가하는 결정적 이유는 방어선의 개선과 더불어 화천을 점령하여 수력발전소를 되찾으려는 전략적 기도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

공산군은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 탐색활동을 전개하였다. 6월 24일 중공군 제70사단은 미 제9군단 중앙우익에 배치되어 김화 북쪽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 제29연대의 전투전초진지를 대대규모로 공격한 다음 다시 미 제1군단 중앙우익인 국군 제1사단의 전투전초진지를 2개 연대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며칠간의 소강상태를 보이다 7월 6일에 철원 북쪽 백마고지의 동서 일대를 고수하던 제2사단의 2개 전진거점과 그 좌인접인 미 제7사단의 1개 전투전초진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들 고지는 전술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271고지(화살머리고지)는 방어에 성공하였으나, 255고지(포크찹 고지)는 미 제7사단의 임의 철수로 공산군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탐색을 마친 공산군은 7월 13일을 기해 본격적인 최후공세를 감행하였다. 펑더화이는 최후공세의 지침을 하달함과 동시에 주공부대인 제20병단(제54·제60·제67·제68군)에 제21군의 배속을 비롯해 전차·포병·공병 등 여러 병종의 부대를 지원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다. 중공군은 금성돌출부 정면에 제60군, 제67군, 제68군, 제24군, 제23군 등 5개 군을 투입하여 국군 제2군단 예하인 제5사단, 제3사단, 제8사단, 제6사단의 4개 사단과 미 제9군단 우익인 수도사단과 제9사단 등 총 6개 사단 정면에 대규모의 공세를 가하였다.

한편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로 인해 전세가 악화되자, 유엔군사령관은 7월 14일에 신속히 북한강과 금성천 그리고 저격능선의 기저에 설정한 아이슬란드선을 점령하도록 국군 제2군단장과 미 제9군단장에게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5사단, 제3사단, 제8사단, 제6사단 그리고 수도사단 등 5개 사단이 새로운 방어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로써 방어정면은 거의 직선으로 단축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2사단 등 증원 병력으로 일부 진지를 인수하고 전선을 보강토록 하는 등 반격준비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격준비가 완료된 7월 15일을 기해 국군 제2군단장과 미 제9군단장에게 금성천 방어선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반격에 나선 제2군단 예하의 제5사단과 제8사단 그리고 제11사단 등 3개 사단은 진격을 거듭한 끝에 7월 19일 금성천 남쪽까지 진출하였고, 이를 뒤이어 제7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제6사단도 이들과 연계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금성천 북안에서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격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선은 다시 소규모의 탐색전만 되풀이하다 7월 27일 휴전의 성립으로 모든 교전을 중단하였다.

2. 작전지역의 특징

1) 지형

중공군 7월 공세의 주 격전장인 중부전선의 '금성돌출부'는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의 철원-평강-김화를 잇는 '철의 삼각지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김화군의 금성면과 원남면, 원동면 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광주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 내려 매우 가파르고 험한 지형이다.[1)]

그러나 지역 내에는 금성분지라 불리는 소규모의 분지형 평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분지를 중심으로 이남의 백암산 일대에는 800~1,200m의 고지들이, 북쪽의 교암산(轎岩山) 일대에는 500~750m 내외의 고지들이 이어져 있다. 주요 고지는 교암산, 용학산(867m), 성산(533m), 수리봉(642m), 오성산(1,062m), 백암산(1,178m), 소백암산(1,048m), 대성산(1,175m), 삼천봉, 적근산(1,073m) 등이 있다. 특히 이들 고지는 북한강까지 횡격실 능선을 이루고 있어 방어선 형성에 매우 적합한 지형이었다.

또한 지역 내에는 금성 북방에서 발원한 금성천이 여러 소하천과 더불어 금성분지에서 합류되어 곡류를 이루면서 남으로 흐르다가 별우리(別隅里)에서 동으로 흘러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합류한다. 길이가 41㎞에 이르는 금성천은 폭이 150~200m, 수심 60~80㎝ 내외로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도섭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강 대안은 거의 절벽으로 형성되어 도하에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작전지역 내의 도로망은 화천-사방거리-주파령-금성을 잇는 17번 국도가 작전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월봉리-북정령-말고개를 잇는 119번 도로가, 우측에는 장재-수상리-구만리를 연결하는 103번 도로가 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이외에도 17번 도로상의 사방거리에서 북서쪽으로 말고개를 넘어 김화로 이어지는 6번 도로가 있었다. 이들 도로 중 17번 도로와 6번 도로는 기갑부대의 기동이

가능한 군사도로였다.[2)]

교암산을 맴돌아 금성분지를 남북으로 나누며 흐르는 금성천의 모습

2) 기상

이 지역의 기후는 내륙 산간지대에 위치함으로써 겨울과 여름은 물론 아침과 저녁 간의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영서지역의 전형적인 기후로서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작전기간 중의 기상은 7월의 장마철로 인해 발생한 낮은 구름과 안개로 항공지원에 많은 제한을 주었고, 이러한 기상의 영향으로 7월 중 항공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수는 단 7일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원거리 관측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기간 중 풍속과 풍향은 10~20노트의 서북풍이었다. 또한 연평균 기온은 섭씨 9.4도이었고, 작전기간인 7월의 평균기온은 섭씨 24.8도에 최고 섭씨 29.5도와 최저 섭씨 10도였다. 국내 다우지 중의 하나인 이 지역의 연강수량은 1,229㎜이었고, 7월의 평균 강우량은 약 130㎜이었다. 또한 계속되는 강우로 하천의 수심이 깊어져 피아간 작전에 적지 않은 제한을 주었다.[3)]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 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 목표와 방침

휴전회담에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 서명을 앞둔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한편 단독북진을 주장하면서 휴전을 거부하였다. 미국정부는 이번 사태는 미국과 무관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마오쩌둥은 정전협정의 서명을 유보하는 한편 한국군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 "우리는 이때 반드시 행동으로 중대한 표시를 보여야 하며, 적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라."[4]

이에 따라 펑더화이와 김일성은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 "유엔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석방된 모든 포로들이 필히 다시 되돌려져야 하고, 이후에는 절대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군대를 장악하는 문제와 휴전협정의 실시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회답해야 한다."[5]

그리고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의 지시대로, 유엔군 측의 내부갈등을 증대시키고,

보다 큰 압력을 가하기 위해 휴전협정의 서명시간을 미루고, 한국군을 집중공격하여 10,000명을 섬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1선의 각급부대에 하달하였다.

> "한국 정부가 전쟁포로에 관한 협의를 파괴하고 다수의 북한군 전쟁포로를 석방하였다. 이런 행동은 정전협정의 서명을 늦춰지게 할 것이고, 세계여론도 이미 큰 반향을 보이고 있다. 적에게 더욱 큰 압력을 가하여 판문점 회담과 연계시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계속 한국군을 타격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를 위해 각 군은 즉각 미리 선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즉각 적을 공격해 섬멸하라. 만일 새로운 목표를 선정하였으면 조속히 준비를 진행하라. 새로운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고, 적의 반격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적을 섬멸하라. 미군과 외국군은 주도적으로 공격하지 말되, 우리를 공격할 경우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결사적으로 공격하라."[6]

이와 같은 의도에 따라, 중공군 제20병단이 설정한 구체적인 목적은 김화에서 북한강 서안에 이르는 금성 남쪽지역의 돌출된 접촉선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6사단 및 제8사단, 그리고 제3사단의 4개 사단을 공격, 섬멸하는 것이었다. 제20병단은 작전을 대담하게 전개하고, 공격의 성공으로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한국군의 종심으로 제한적인 전과확대를 실시하는 지침도 하달하였다. 또한 기타 정면의 각 군에 대해서는 공격준비만 하고 기본적으로 방어태세를 취하되, 한국군이 공격하면 단호히 섬멸할 것을 지시하였다.[7]

2) 작전 계획

중공군사령부의 제3단계 작전방침에 따라 제20병단장은 6월 30일 이전에 소규모 전투임무를 완료한 후 7월 5일까지 대규모 공세준비를 마치고, 7월 10일을 전후로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0병단은 7월 5일과 6일에 예하 5개 군의 사단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작전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세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작전 집단별 구성과 임무 등을 조정하였다. 아울러 작전개시일자를 7월 13일 저녁으로 확정하고, 작전기간은 5~10일로 결정하였다.

7월 10일 각 군과 작전 집단에 하달된 작전계획은 5개 군으로 3개 작전 집단(서·중·동부 작전 집단)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3개 방향에서 금성돌출부의 국군부대를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동부와 서부집단이 견부에서 돌파공격을 실시한 다음 중앙 집단과 협조하여 돌출부 중앙의 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8)]

제1단계로 금성 서남쪽 이실동(梨室洞)-북정령(北亭嶺)-배선골과 금성천 이북의 국군을 공격 섬멸하며, 전선을 직선으로 만든 다음 이후의 상황에 따라 제2단계로 삼천봉(三天峰)-적근산(赤根山)-장고봉(長古峰)-흑운토령(黑雲吐嶺) 및 백암산(白岩山)으로 공격해 나가며,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는 적의 반격을 격퇴할 준비를 하되 이 기간 중에 다시 대량의 적군을 섬멸한다.

서부집단은 제68군(제202사단 결)과 제54군 제130사단으로 편성하고 외야동(外也洞)-회고개(灰古介) 간의 공격을 담당한다. 제1단계는 522고지와 552고지 일대의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를 섬멸하고 이어 이실동-북정령-월봉산(月峰山)-개야리(開野里) 이북지역의 적을 공격한다. 제2단계는 중부 및 동부집단과 협조하여 배선골 서쪽과 서북쪽의 적을 공격한다.

중부집단은 제67군과 제54군 제135사단, 제68군 제202사단(-1)으로 편성하여 관대리(官垈里)-교암산 간의 공격을 담당한다. 제1단계는 교암산 일대의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와 제6사단 제19연대 1개 대대 등을 섬멸하고, 이어 동산리-상산리 일대의 적을 공격한다. 제2단계는 동부 및 서부집단과 협조하여 배선골 서쪽 및 서북지역의 적을 섬멸한다.

동부집단은 제60군과 제21군(-1, 제33사단 배속), 제68군 제605연대로 구성하여 송실리-용호동 간의 공격을 담당한다. 제1단계는 송실리 및 용호동 서쪽고지의 적을 섬멸한다. 이어 광대동-세현리 방향으로 공격을 확대하여 금성천의 교량과 포구 및 금성-화천 간 도로를 장악하고 적의 반격 및 증원을 차단한다. 제2단계는 중부 및 서부집단과 협조하여 동쪽 및 동남쪽으로부터 배선골의 적을 공격한다.

제54군 제134사단은 병단의 예비대로 편성하고 세포리 부근에 위치한다.

<표 5-1> 중공군 제20병단 집단별 작전계획

구 분	서 부	중 부	동 부
지휘관	제68부군장 숭위린	제67군장 쥬웨이	제60군장 장주량
편 성	제68군(-제202사단) 제54군 제130사단	제67군 제54군 제135사단 제68군 제202사단(-1)	제60군 제21군(-1) 제33사단 배속
작전지역	외야동-회고개	관대리-교암산	송실리-용호동
공격대상	수도사단 제1연대	제8사단 제10연대 제6사단 제19연대	제3사단 제22연대
작전임무	• 이실동-북정령 일대공격 • 배선골 서쪽 공격	• 동산리-상산리 일대공격 • 배선골 서쪽 공격	• 광대동-세현리 공격 • 배선골 일대 공격

한편 중공군사령관은 주공인 제20병단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좌인접 제9병단 제24군의 제74사단과 제72사단 2개 연대로 양지촌(陽地村)-행정(杏亭)간에서 수도사단 제26연대를 공격하여 섬멸하고, 상구정과 하구정 간 도로를 통제하여 김화 방향으로부터 국군의 증원을 저지하도록 계획하였다.[9)]

3) 지휘체계 및 전투편성

(1) 지휘체계

작전기간 중 공산군의 지휘체계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연합기구인 '조중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지휘 및 통제는 조중연합사령관 겸 중공지원군사령관인 펑더화이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이 기간 중의 중공지원군사령부는 후방병참·공군·방공·전방철도운수·서해안 및 동해안의 6개 사령부와 포병·장갑·공병의 3개 지휘소, 그리고 제3·제9·제19·제20의 4개 병단과 지원군 예비대로 이루어졌고[10], 이들 조직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 병단장은 예하 각 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북한군의 경우, 전쟁 전반에 대한 지휘 및 통제는 최고사령부에서 총참모부를 거쳐 전선사령부를 비롯한 해군사령부 및 공군사령부, 포병사령부 및 후방행정사령부의 계선을 유지하였다.[11] 그리고 전선작전의 총괄을 담당한 전선사령부는 정면부대와 서해안 및 동해안사령부에 편성된 북한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12]

(2) 전투편성

하계공세 제3단계 임무를 담당한 중공군 제20병단은 제60·제67·제68·제54·제21군 등 5개 군과 1개 직할사단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각 군은 예하에 3개 사단을 두었다. 병단은 원활한 지휘를 위해 이를 중부와 동부 그리고 서부의 3개 작전 집단으로 조직하였다.[13] 각 작전 집단은 보병은 물론 포병과 공병, 그리고 대전차 및 전차부대로 구성되었는데, 집단별 편성은 다음과 같다.

중부집단은 제54·제67·제68군 예하의 5개 사단, 포병 2개 연대와 별도의 5개 대대, 고사포 1개 연대와 별도의 1개 대대, 공병 2개 대대, 대전차포 1개 대대, 그리고 탱크 1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군별 편성은 제54군 예하의 제135사단과 제67군 예하의 제199·제200·제210사단, 그리고 제68군 예하의 제202사단(-1)으로 이루어졌다.

동부집단은 제21·제60·제68군 예하의 7개 사단, 포병 3개 대대, 고사포 1개 대대,

공병 2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군별 편성은 제21군 예하의 제61·제63·제33사단과 제60군 예하의 제179·제180·제181사단, 그리고 제68군 예하의 202사단(-2)으로 이루어졌다.

서부집단은 제54군과 제68군 예하의 3개 사단, 포병 2개 연대와 별도의 8개 대대 및 4개 중대, 고사포 1개 연대와 1개 대대, 공병 2개 대대, 대전차포 1개 대대, 전차 1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군별 편성은 제54군 예하의 제130사단과 제68군 예하의 제203·제204사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제54군 예하의 제134사단을 제20병단의 예비대로 편성하였다. 각 작전 집단별 사단 편성은 <표 5-2>와 같다.

<표 5-2> 중공군 제20병단 작전 집단별 편성

병 단	군	사 단	비 고
중부집단	제54군	제135사단	
	제67군	제199·제200·제201사단	
	제68군	제202사단	제605연대 제외
동부집단	제21군	제61·제63·제33사단	제33사단 예속
	제60군	제179·제180·제181사단	
	제68군	제202사단	제604·제605연대
서부집단	제54군	제130사단	
	제68군	제203·제204사단	
예비대	제54군	제134사단	

한편 작전의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한 제20병단의 주요 지휘관은 병단장 양용을 비롯하여 정치위원 왕핑과 참모장 샤오원쥬 그리고 부참모장 자오관잉이었다. 그리고 각 군의 주요 지휘관은 제21군장 우용샹과 정치위원 셰푸린, 제54군장 딩성과 정치위원 셰밍, 제60군장 장주량과 부정치위원 자오란톈, 제67군장 츄웨이와 정치위원 쾅푸자오, 제68군장 천팡런과 정치위원 리청루이였다.

<표 5-3> 중공군 제20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병단사령부	사령관	양 용(楊 勇)	
	정치위원	왕 핑(王 平)	
	참모장	샤오원쥬(蕭文玖)	
	부참모장	자오관잉(趙冠英)	
제21군	군장	우용샹(吳泳湘)	
	정치위원	셰푸린(謝福林)	
	부군장	저우창셩(周長勝)	
	참모장	후웨이(胡煒)	
제54군	군장	딩 셩(丁 盛)	
	정치위원	셰 밍(謝 明)	
	부군장	우루이산(吳瑞山)	
	정치부주임	셰쟈샹(謝家祥)	
제60군	군장	장주량(張祖諒)	
	부군장	왕청한(王誠漢)	
	참모장	덩스쥔(鄧仕俊)	부군장 겸임
	부정치위원	자오란톈(趙蘭田)	
제67군	군장	츄웨이(邱尉)	
	정치위원	쾅부자오(曠伏兆)	
	부군장	류루린(劉儒林)	
	참모장	류 수(劉 蘇)	
제68군	군장	천팡런(陳仿仁)	
	정치위원	리청루이(李呈瑞)	
	부군장	숭위린(宋玉林)	
	참모장	숭쉐페이(宋學飛)	

작전 집단별 지휘관 중 중앙집단은 제67군장 츄웨이와 정치위원 쾅부자오, 제54군장 딩셩과 정치위원 셰밍 등이었다. 또한 동부집단은 제60군장 장주량과 부군장 왕청한, 부정치위원 자오란톈, 부군장 겸 참모장 덩스쥔이 지휘하였다. 그리고 서부집단은 제68군 부군장 숭위린과 부정치위원 리즈웬 그리고 부참모장 랴오딩샹, 제54군 부군장 우루이산 등이었다.[14] 제20병단의 주요 지휘관 편성은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 5-4> 중공군 제20병단 작전집단별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중앙집단	제67군	군장	츄웨이(邱蔚)	
		정치위원	콩부자오(矿伏兆)	
	제54군	군장	딩 셩(丁 盛)	
		정치위원	셰 밍(謝 明)	
동부집단	제60군	군장	장주량(張祖諒)	
		부군장	왕청한(王誠漢)	
		참모장	덩스쥔(鄧仕俊)	부군장 겸임
		부정치위원	자오란톈(趙蘭田)	
서부집단	제54군	부군장	우루이산(吳瑞山)	
	제68군	부군장	숭위린(宋玉林)	
		부정치위원	리즈웬(李致遠)	
		부참모장	랴오딩샹(廖鼎祥)	

북한군은 전선작전의 총괄을 담당한 전선사령부 예하에 제1·제2·제3·제4·제5·제7군단 등 6개 군단이 편성되어 있었다. 각 군단은 전선의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정면부대와 동서해안의 방어가 주 임무인 동해안 및 서해안사령부에 속해 있었다. 정면부대에는 제1·제3·제7군단의 3개 군단이, 동해안사령부에는 제2·제5군단의 2개 군단이, 그리고 서해안사령부에는 제4군단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최고사령부는 3개 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15] 북한군의 군단별 편성은 다음의 <표 5-5>와 같다.[16]

<표 5-5>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구 분	군 단	사 단	연 대
전선사령부	제1군단	제8보병사단	제81·제82·제83보병연대, 제8포병연대
		제47보병사단	제113·제123·제124보병연대, 제35포병연대
	제3군단	제1보병사단	제2·제3·제14보병연대, 제1포병연대
		제15보병사단	제45·제48·제50보병연대, 제15포병연대
		제37보병사단	제74·제75·제76보병연대, 제31포병연대
		제45보병사단	제89·제90·제91보병연대, 제51포병연대
	제7군단	제3보병사단	제7·제8·제9보병연대, 제3포병연대
		제7보병사단	제51·제53·제54보병연대, 제7포병연대
		제9보병사단	제85·제86·제87보병연대, 제9포병연대
동해안 사령부	제2군단	제2보병사단	제4·제6·제17보병연대, 제2포병연대
		제13보병사단	제19·제21·제23보병연대, 제13포병연대
		제27보병사단	제172·제173·제174보병연대, 제25포병연대
		제24육전여단	
	제5군단	제6보병사단	제1·제13·제15보병연대, 제6포병연대
		제12보병사단	제30·제31·제32보병연대, 제12포병연대
		제46보병사단	제93·제94·제95보병연대, 제66포병연대
		제20육전여단	
		제22육전여단	
		제25육전여단	
서해안 사령부	제4군단	제4보병사단	제5·제16·제18보병연대, 제4포병연대
		제5보병사단	제10·제11·제12보병연대, 제5포병연대
		제10보병사단	제25·제27·제29보병연대, 포병연대
최고사령부	직할	제21여단	
		제23여단	
		제26여단	

한편 작전기간 중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총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민족보위상 겸 부사령관인 김웅, 총참모장 남일,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광협 등이며,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 이권무, 제2군단장 최현, 제3군단장 유경수, 제4군단장 박정덕, 제5군단장 방호산, 제7군단장 이이법으로 다음의 <표 5-6>과 같다.[17]

<표 5-6>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총사령관	원수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부원수	김 웅(金 雄)	서해안사령부 부사령관 겸임
총참모부	총참모장	상장	남 일(南 一)	
전선사령부	사령관	상장	김광협(金光俠)	
	참모장	중장	최 광(崔 洸)	
	제1군단장	중장	이권무(李權武)	
	제2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3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4군단장	중장	박정덕(朴正德)	
	제5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7군단장	중장	이이법(李離法)	
포병사령부	사령관	-	-	
후방행정사령부	사령관	-	-	

4) 전투력 수준

하계공세 제3단계 작전기간 중 북한지역에 대한 공산군의 부대배치는 76개 사단과 7개 여단이었고, 구성은 중공군 58개 사단과 북한군 18개 사단 및 7개 여단이었다.

전선정면에 대한 공산군의 병력 전개는 예성강 하구로부터 북한강 서안(춘심포)에 이르는 170㎞ 지역은 중공군 제19병단과 제9병단 그리고 제20병단 예하의 10개 군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북한강 동안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55㎞ 지역은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의 2개 군단이 담당하였다.

군별 배치현황은 서쪽으로부터 제19병단 예하의 제65·제46·제1군, 제9병단 예하의 제23·제16·제24군, 제20병단 예하의 제67·제60·제68·제21군 순이었다. 그리고 북한강 동안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지역은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의 제3·제7군단이 담당하였다. 또한 중공군의 주 작전지역인 김화-북한강 서안은 제54군이, 그 이동지역은 북한군 제1군단이 제2제대로 위치하였다.

전체 225㎞의 전선 정면에는 중공군 32개 사단과 북한군 6개 사단 등 38개 사단이 배치되었고, 서해안(도구산~예성강 하구)에는 서해안사령부 예하 제39·제50·제40·제47군과 제19병단 예하 제64·제63군, 북한군 제4군단 3개 사단과 3개 여단이 위치하였다. 동해안(우남리~유기)에는 중공군 제3병단 예하 제12·제15군과 북한군 제2·제5군단 예하 15개 사단 및 4개 여단이 전개되었다.[18]

한편 작전기간 중 연합사령부 예하의 전체 병력은 중공군 122만 1천여 명과 북한군 38만 3천여 명 등이었다.[19]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요 장비 및 무기는 야포 3,000여 문과 박격포 8,700여 문, 전차 및 자주포 770여 대 등으로 다음의 <표 5-7>과 같다. 이와 같이 공산군의 전투력 수준은 국군 및 유엔군에 비해 병력과 포병 및 박격포부분에서 우세하였으나, 전차와 공군력에서는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20]

<표 5-7> 공산군 측 인원 및 장비현황

구 분	중공군	북한군	총 계	비 고
병 력(명)	1,221,058	383,384	1,604,442	
야 포(문)	2,018	1,060	3,078	
박 격 포(문)	5,184	3,527	8,711	
대전차포(문)	2,843	720	3,563	
고 사 포(문)	1,135	736	1,871	
전차/자주포(대)	391	382	773	
항 공 기(대)	480	412	892	전투기 635대

중공군사령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제20병단에 포병 제2사단 제28연대와 제30연대 1개 대대, 방사포 제201연대, 고사포 제601연대, 대전차포 3개 중대 및 공병 4개 대대를 증원하였다. 이로써 제20병단은 82㎜ 박격포 이상의 지상화포 1,100여 문과 전차 20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도하장비와 통신기재 등을 지원하였고, 10개 차량연대 2,0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포탄 700만 발과 폭약 124톤을 포함한 15,000톤의 작전물자를 운송하였다. 또한 10,000여 명의 병력으로 피아 중간지대에 둔병동(屯兵洞)을 구축하고, 13개 보병연대를 동원하여 수송도로를 보수하였다.[21]

2. 유엔군 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방침 및 계획

유엔군 측은 공산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통해 적의 공세가 임박했음은 물론 주공이 화천저수지로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기상불순으로 인한 관측의 제한과 중공군의 철저한 기도비닉으로 공격부대의 규모와 보급품의 집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중공군 주공의 공격목표였던 화천저수지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각 군단장에게 공산군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중공군의 6월 공세로 붕괴된 국군 제2군단 우익 방어선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부대재배치를 단행하였다.

미 제8군은 그 동안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5사단을 6월 20일부로 국군 제2군단으로 복귀시켰다. 또한 미 제10군단장은 문등리를 방어하고 있는 미 제45사단이 제7사단 우익연대의 방어지역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국군 제2군단과 인접한 제7사단의 방어정면을 좁혀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은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5연대 전투단을 배속받아 예비로 확보하였다.

특히 휴전이 임박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 제8군은 일본에서 정박하고 있는 미 제24사단을 7월 3일부터 12일 사이에 한국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방어와 포로경비에 투입하였다.[22]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대장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접경지역인 금성돌출부 우견부 지역은 방어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금성돌출부에는 미 제9군단 예하의 국군 제9사단 일부 및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의 제6·제8·제3·제5사단 및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7사단 등 국군 7개 사단이 배치되었으며, 제11사단은 군 예비로 화천 북쪽에 집결하여 전방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23]

2) 지휘체계 및 전투편성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모든 유엔군의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는 극동군 및 유엔군사령부로서 예하에 미 제8군을 편성하고 있었다. 극동군 및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은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겸 참모장인 히키(Doyle O. Hickey) 중장,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Maxwell D. Taylor) 대장, 그리고 극동해군사령관 브리스코(Robert C. Briscoe) 중장과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대장 등이었다.[24]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는 미 제8군사령부는 예하에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제10군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의 5개 군단을 편성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7월 공세 중 서부전선의 방어정면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제25보병사단, 영국군 제1사단과 국군 제1사단, 그리고 국군 제1해병전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예하에 제1·제5·제7 및 제11포병연대를, 미 제7사단은 예하에 제17·제31·제32연대와 배속된 콜롬비아 대대 및 에티오피아 대대를, 그리고 미 제25보병사단은 제24·제27·제35연대와 배속된 터키 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 제28·제29보병여단과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을, 그리고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를 예하에 두었다.[25]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클라크(Bruce C. Clarke)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1해병사단장 페이트(Randolph C. Pate) 소장, 미 제7보병사단장 트루도(Arthur G. Trudeau) 소장과 제25보병사단장 헤스(Louis T. Heath) 소장, 영연방 제1사단장 웨스트(M.M.A.R. West) 소장과 국군 제1사단장 김동빈 준장 등이었다. 미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8>과 같다.

중서부전선의 방어정면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2·제3보병사단과 국군 수도사단·제2·제9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보병사단은 예하에 제9·제23·제38연대와 배속된 프랑스 대대 및 네덜란드 대대 그리고 타일랜드 대대를, 미 제3보병사단은 제7·제15·제65보병연대를 두었다. 또한 국군 수도사단은 제1·제26보병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제2보병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그리고 제9사단은 제28·제29·제30연대를 예하에 편성하였다.

<표 5-8> 미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군단	군단장	중장	Bruce C. Clarke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Randolph C. Pate	
	제1연대장	대령	Walter F. Layer	
	제5연대장	대령	Lewis W. Walt	
	제7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제11포병연대장	대령	James E. Mills	배속부대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Arthur G. Trudeau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에티오피아대대장	중령	Wolde Y. Shitta	배속부대
	콜롬비아대대장	중령	Carlos Ortiz Torres	배속부대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Louis T. Heath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터키사단장	준장	Sirri Acar	배속부대
영연방 제1사단	사단장	소장	M.M.A.R. West	
	제28여단장	준장	T. J. Daly	
	제29여단장	준장	D. A. Kendrew	
	제25여단장	준장	J. V. Allard	캐나다군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김동빈(金東斌)	
	제11연대장	대령	최주종(崔周鍾)	
	제12연대장	대령	이길영(李吉泳)	
	제15연대장	대령	송호림(宋虎林)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젠킨스(Reuben E. Jenkins)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2사단장 배리거(William L. Barriger) 소장, 미 제3사단장 리딩스(Eugean W. Riddings) 소장, 국군 수도사단장 최창언 준장과 제2사단장 김웅수 준장 그리고 제9사단장 이한림 소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의 미 제9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9>와 같다.

<표 5-9> 미 제9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Reuben E. Jenkins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William L. Barriger	
	제9연대장	대령	Wilbur Wilson	
	제23연대장	대령	George C. Mergens	
	제38연대장	대령	William F. Kernan	
	프랑스대대장	중령	Germiny	배속부대
	네덜란드대대장	중령	C. M. Schilperoord	배속부대
	타일랜드대대장	중령	Parti Yotesakrai	배속부대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Eugene W. Ridings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벨지움대대장	중령	Gathy	
	그리스대대장	중령	Georgios Koumanakos	
국군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최창언(崔昌彦)	
	제1연대장	대령	최세인(崔世寅)	
	제26연대장	대령	은석표(殷碩杓)	
	기갑연대장	대령	육근수(陸根洙)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김웅수(金雄洙)	
	제17연대장	대령	김필상(金弼相)	
	제31연대장	대령	조성래(趙成來)	
	제32연대장	대령	강홍모(姜弘模)	
국군 제9사단	사단장	소장	이한림(李翰林)	
	제28연대장	대령	윤태호(尹泰皓)	
	제29연대장	대령	문중섭(文重燮)	
	제30연대장	대령	조연표(趙淵表)	

중동부전선의 좌전방 방어정면을 부여받은 국군 제2군단은 국군 제3·제5·제6·제8·제1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국군 제3사단은 예하에 제18·제22·제23연대를,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그리고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국군 제2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인 정일권 중장을 비롯하여 제3사단장 임선하 소장과 제5사단장 김종갑 소장과 후임인 장도영 소장, 제6사단장 김점곤 준장과 제8사단장 송요찬 소장, 그리고 군단예비인 제11사단장은 임부택 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의 국군 제2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10>과 같다.

<표 5-10> 국군 제2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2군단	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3사단	사단장	준장	임선하(林善河)	
	제18연대장	대령	박경원(朴敬遠)	
	제22연대장	대령	최병순(崔炳淳)	
	제23연대장	대령	장호진(張好珍)	
제5사단	사단장	소장	김종갑(金鍾甲	
		소장	장도영(張都暎)	1953.7.16부
	제27연대장	대령	최영규(崔英圭)	
	제35연대장	대령	박창원(朴昌遠)	
	제36연대장	대령	고광도(高光道)	
제6사단	사단장	준장	김점곤(金點坤)	
	제2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7연대장	대령	한관흥(韓官興)	
	제19연대장	대령	김한주(金漢柱)	
제8사단	사단장	소장	송요찬(宋堯讚)	
	제10연대장	대령	조시형(趙始衡)	
	제16연대장	대령	안병건(安秉健)	
	제21연대장	대령	성정모(成正模)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임부택(林富澤)	군단 예비
	제9연대장	대령	김영하(金永夏)	
	제13연대장	대령	박응규(朴應奎)	
	제20연대장	대령	유원식(柳原植)	

중동부전선의 우전방 방어정면을 부여받은 미 제10군단은 미 제40·제45보병사단과 국군 제7·제12·제20보병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40사단은 예하에 제160·제223·제224연대를 두었으며, 미 제45보병사단은 예하에 제179·제180·제279연대와 배속된 필리핀 제14대대전투단을 두었다. 또한 국군 제7보병사단은 제3·제5·제8연대를, 제12사단은 제37·제51·제52연대를, 그리고 제20사단은 제60·제61·제62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표 5-11>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중장	Issac D. White	
미 제40사단	사단장	소장	J. P. Cleland	
	제160연대장	대령	John M. Lynch	
	제223연대장	대령	James Y. Adams	
	제224연대장	대령	Frank T. Mildren	
미 제45사단	사단장	준장	Philip D. Ginder	
	제179연대장	대령	Joseph C. Sandlin	
	제180연대장	대령	Ellis B. Ritchie	
	제279연대장	대령	Preston J.C. Murphy	
	필리핀대대장	중령	Nicanor Jimenez	배속부대
국군 제7사단	사단장	준장	김용배(金容培)	
	제3연대장	대령	유중수(柳重秀)	
	제5연대장	대령	손창규(孫昌圭)	
	제8연대장	대령	이병형(李秉衡)	
국군 제12사단	사단장	준장	윤춘근(尹春根)	
	제37연대장	대령	김재명(金在明)	
	제51연대장	대령	김 헌(金 憲)	
	제52연대장	대령	장호강(張虎崗)	
국군 제20사단	사단장	준장	송석하(宋錫夏)	
	제60연대장	대령	채명신(蔡命新)	
	제61연대장	대령	김인철(金仁哲)	
	제62연대장	대령	이재기(李再起)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화이트(Issac D. White)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40사단장 클리랜드(J. P. Cleland) 소장, 미 제45보병사단장 긴더(Philip D. Ginder) 준장, 국군 제7사단장 김용배 준장과 제12사단장 윤춘근 준장, 그리고 제20사단장 송석하 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의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표 5-11>과 같다.[26]

소양강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동부전선의 방어정면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제15 및 제21보병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제15보병사단은 제38·제39·제50연대를, 제21사단은 제63·제65·제66연대를 예하에 각각 두었다.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이형근 중장을 비롯하여 제15사단장 최영희 소장과 제21사단장 민기식 소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 국군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12>와 같다.

<표 5-12>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중장	이형근(李亨根)	
제15사단	사단장	소장	최영희(崔榮喜)	
	제38연대장	대령	유재성(劉載成)	
	제39연대장	대령	박인용(朴仁勇)	
	제50연대장	대령	김진위(金振暐)	
제21사단	사단장	소장	민기식(閔機植)	
	제63연대장	대령	한순화(韓順華)	
	제65연대장	대령	김선규(金璿圭)	
	제66연대장	대령	안민일(安玟一)	

3) 전투력 수준

중공군의 7월 공세가 단행될 무렵의 유엔군의 전력은 한국군 3개 군단 18개 사단과 미군 3개 군단 7개 사단이 주력을 이루었다. 그리고 영국군 2개 여단과 캐나다군 1개 여단으로 편성된 영연방 1개 사단, 터키여단, 그리고 대대 및 연대규모의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태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부대가 참전하고 있었다.[27]

이 무렵의 유엔군의 총병력은 743,600여 명으로 중공군의 6월 공세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보유 무기와 장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 3 절 중공군의 7월 공세와 국군의 재반격

1. 교암산 부근 전투(1953. 7. 10 ~ 7. 14)

1) 전투 개요

교암산(轎岩山) 부근 전투는 1953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사단이 이른바 '7.13공세'에 앞서 가해온 중공군의 공격을 맞아 교암산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격전을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군단의 좌익으로 금성돌출부의 주요 지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6사단은 미주리선을 확보하고 야간잠복과 위력수색을 강화하여 전투정보 수집을 위한 포로획득에 주력하였다. 또한 사단은 전초진지와 주진지를 보강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부대의 재정비를 위해 부대교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예하의 제7연대를 좌일선에, 제19연대를 우일선에, 그리고 제2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사단은 공세로 전환한 중공군이 군단 우익과 중앙에 공격을 집중해 일부 진지를 미주리 선으로부터 아이슬란드 선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 대공세의 징후를 보이자, 각 연대에 공병 1개 중대씩을 배속하여 7월 7일까지 주진지 및 전진진지의 동굴과 엄체호 그리고 교통호를 보강하고 장애물지대를 강화하였다.[28]

한편 당면한 적은 중공군 제67군 예하의 제199사단과 제200사단으로서, 제200사단은 제598연대를 우일선으로 성산(533고지)-옥녀봉-562고지-장연리-672고지를 연한 일대에 주 거점을 형성한 후 탐색전을 벌여오던 중 제199사단이 이동해오자 이들과 합세하여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들의 병력은 양개 사단을 합해 18,200명에 달하였고, 화력은 105㎜포와 76㎜포 각 36문 등 144문을 보유하였으며, 기타 장비는 편제의 80% 수준이었다. 또한 보급 및 사기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29]

당시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발생하여 관측과 사계가 불량하였고, 계속적인 강우로 인해 항공지원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표 5-13>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6사단장	소장	백인엽(白仁燁)	
		준장	김점곤(金點坤)	
	제2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1대대장	중령	김세돈(金世暾)	
	제2대대장	중령	김두일(金斗逸)	
	제3대대장	중령	양병환(梁炳煥)	
	제7연대장	대령	한관흥(韓官興)	
	제1대대장	중령	민방목(閔邦穆)	
	제2대대장	소령	소병렬(蘇炳烈)	
	제3대대장	중령	남백봉(南白奉)	
	제19연대장	대령	김한주(金漢柱)	
	제1대대장	중령	육장균(陸璋均)	
	제2대대장	중령	정재갑(鄭在甲)	
		소령	김윤욱(金潤煜)	1953.7.14부
	제3대대장	중령	류승원(柳承源)	
	제9연대장	대령	김영하(金永夏)	배속부대
	제1대대장	중령	원용오(元容五)	
	제2대대장	중령	이춘배(李春培)	
	제3대대장	중령	최규현(崔圭鉉)	
	제20포병단장	대령	이춘경(李春景)	지원부대
중공군	제67군장		마 시(馬 襲)	
	제199사단장		지 우(齊 武)	
	제200사단장		리 징(李 靜)	

2) 전투 경과

제6사단은 제7연대가 회고개-사천리(泗川里)를, 제19연대가 사천리-교암산 지역을 방어하고 제2연대를 예비로 선단지역 좌반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7월로 접어

들어 점차 적의 새로운 공격징후가 농후해지면서 교암산 전초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이 빈번해지자, 사단장 백인엽(白仁燁) 소장은 주저항선의 요충인 교암산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30]

① 적의 공세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사단은 일부 병력을 주저항선에 증강하여 전투전초진지 및 주진지를 강화하여 적의 공세를 저지격멸하려 한다.
③ 제19연대는
  ㉮ 우일선으로서 교암산-사천리에 이르는 주저항선과 가고지-394고지-마고지-407고지 일대의 전투전초진지를 확보하라.
  ㉯ 7월 9일 19:00를 기해 제2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 교암산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라.
④ 제7연대는 좌일선으로서 사천리-회고개에 이르는 주저항선과 418고지-후천리-424고지 일대의 전투전초진지를 확보하라.
⑤ 제2연대는
  ㉮ 7월 9일 19:00부로 1개 대대를 제19연대에 배속하라.
  ㉯ 주력은 노동리에 집결하여 측후방경계를 강화하고 출동태세를 갖추라.
⑥ 제20포병단은
  ㉮ 미 제5포병단과 긴밀한 화력협조를 이루라.
  ㉯ 각 연대를 105㎜ 포병 1개 대대씩으로 직접 지원하게 하고, 155㎜ 포병은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 화력의 우선권은 제19연대에 부여한다.
⑦ 제2전차중대는 2개 소대가 제19연대를, 1개 소대가 제7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하라.
⑧ 제6박격포중대는 2개 소대로 제19연대를, 1개 소대로 제7연대를 지원하게 하라.
⑨ 공병대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남리 남쪽 금성천 지류의 가교공사를 완료하고 주보급로와 금성천의 교량 및 가교의 확보에 주력하라.
⑩ 협조지시
  ㉮ 전투전초진지도 별명이 없는 한 주진지와 같이 고수한다.

㈏ 동굴을 이용하여 진내사격을 적절히 활용하라.

㈐ 전투전초진지에는 적의 관측을 피해 대공표식을 하라.

⑪ 통신은 현행 SOI에 의거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토록 하라.

⑫ 사단 CP는 거리실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19연대장 김한주 대령은 배속된 제2연대 제3대대를 우일선으로 하여 바고지의 주진지와 407고지의 전초진지를 인수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교암산 서북쪽 능선으로 진입시켜 442고지의 주진지를 담당시킴으로써 우일선인 제3대대의 방어정면을 좁혀 교암산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제2대대를 중앙일선으로 계암 일대에 주진지를, 394고지-마고지에 전투전초진지를 각각 점령토록 함으로써 창도리로부터 주저항선에 이르는 작전도로와 개활지를 제압하도록 조치하였다. 새로이 좌일선을 담당한 제2연대 제3대대는 고직목리-오리동으로부터 주진지에 이르는 양호한 접근로를 차단시킴으로써 예상되는 적의 공격에 만전의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사단 좌일선인 제7연대는 제1대대를 우일선으로 하여 금성천 동서 양안의 사천리 북쪽 능선과 374고지 북쪽 능선에 주진지를, 418고지에 전투전초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고 좌일선인 제2대대에게는 봉화동-회고개에 이르는 일대에 주진지를, 후천리-424고지 일대에 전투전초진지를 각각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예비인 제3대대를 봉화산과 하고개 북쪽 능선에 예비진지를 확보토록 하여 제2대대에 대한 근접지원태세와 측방엄호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무렵 사단예비인 제2연대는 제3대대를 제19연대에 배속하고, 주력은 노동리에서 출동태세를 갖춘 채 측후방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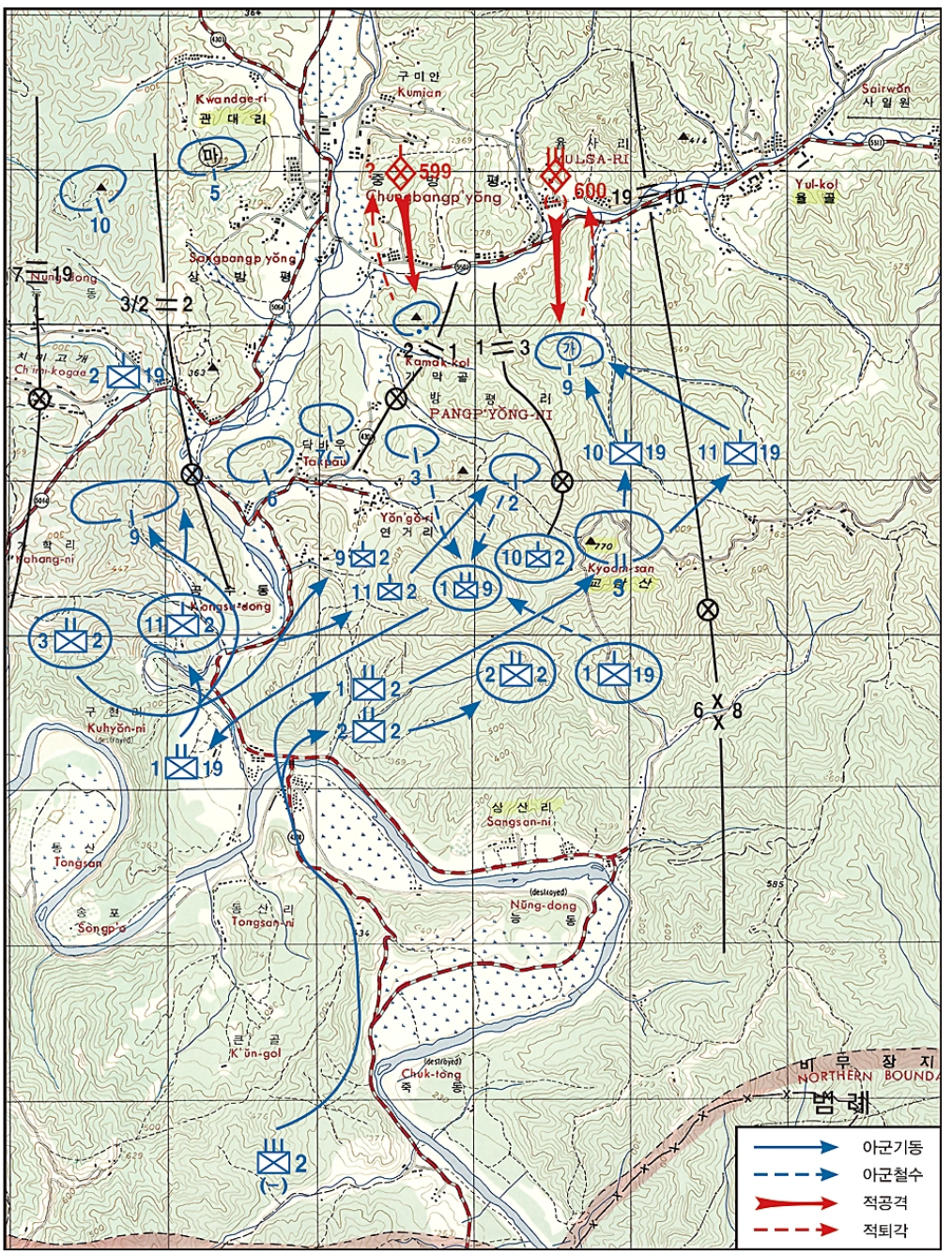
1953년 7월 10일 아침 07시, 중공군은 사단의 전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포격을 실시한 후, 21시 30분을 기해 제19연대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침공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이는 연대를 교란시키려는 양공에 불과할 뿐 주공은 교암산으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에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고 가고지의 전초진지를 확보되도록 지시하였다.

교암산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3대대장 유승원 중령은 중대규모의 적이 가고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제9중대의 보고를 받고 무전으로 중대를 독려하는 한편 포병의 차단사격을 유도하였다. 중대는 포병의 차단사격 하에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여 쇄도하는 적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은 직사포와 기관총의 집중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계속하였고, 23시 20분에는 대대규모의 새로운 적이 공격에 가세하였다. 이때 제96포병대대와 미 제300자주포대대가 적을 강타하고 진지를 방어하던 제2소대가 완강히 저항을 함에 따라 적은 물러나게 되었다.

방어태세에 돌입한 국군병사의 모습

한편 연대의 중앙일선으로 계암 일대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2대대는 21시 30분경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적은 제7중대가 방어하고 있던 394고지를 향해 쇄도하였다. 제7중대는 진내로 밀려들어 온 적과 백병전을 펼치던 중 중과부적의 상태가 되자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중대 OP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대대장 정재갑 중령은 진내사격을 직접 통제하는 한편 대대수색대를 394고지로 보내 지원하였다.

<상황도 5-2> 교암산 부근 전투(1953. 7. 10. ~ 7. 12.)



이처럼 제19연대 정면에서 격전이 전개되자, 이를 적의 양공으로 판단한 사단장은 교암산과 가고지의 전초진지를 보강하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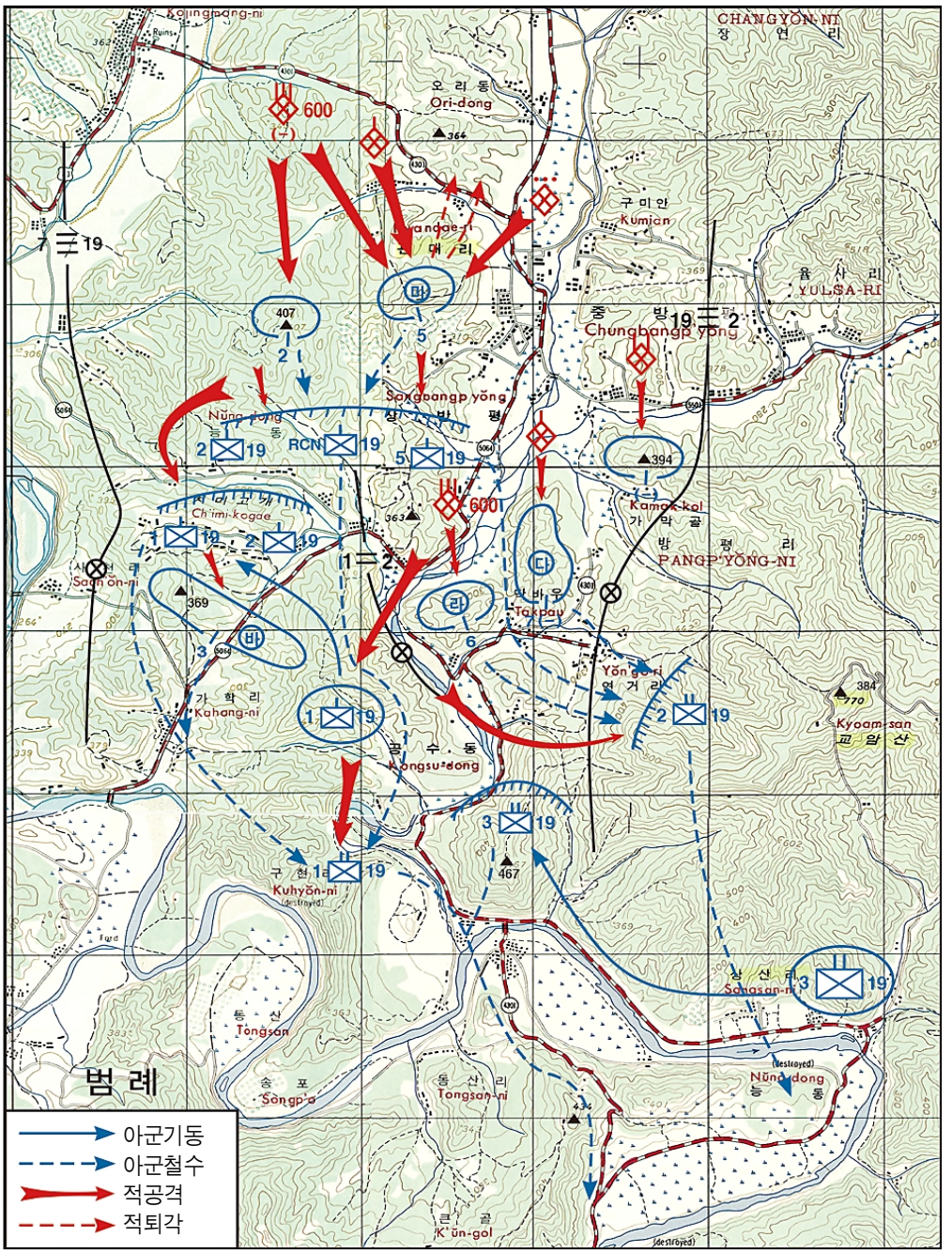
① 적의 공세는 확대일로에 있다.
② 이는 적의 양공 견제책으로 판단되나, 그 적세로 미루어보아 교암산에 대한 집중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사단은 일부 병력을 증원하여 교암산 및 가고지의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④ 제19연대는 7월 11일 12시부로 교암산으로 진출하는 제2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가고지의 전초진지를 강화하라.
⑤ 제2연대는 7월 11일 12시부로 1개 대대를 제19연대에 배속하고 잔여병력으로 출동태세를 갖추라.
⑥ 제7연대는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다음날인 7월 11일 연대규모로 증강된 적의 공세가 가고지로 집중되어 일시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포병의 집중지원과 제19연대 제3대대의 분전으로 08시에 적을 격퇴하였다. 사단장은 적의 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인 제2연대의 잔여병력을 교암산으로 진출시켜 제19연대에 배속하였다가 제2연대로 주저항선의 일부를 담당시키기로 하고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32]

제19연대는 연대규모로 증강된 중공군의 공격을 제3대대의 분전과 포병의 지원으로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이 계속적인 공세징후를 보임에 따라 배속된 제2연대 제1대대에 교암산의 주진지를 맡게 하고 제3대대 주력을 가고지로 진출시켜 전초진지를 보강하였다. 그리고 제2연대 제2대대를 예비대로서 교암산 서남쪽 능선에 배치하였다.[33]

한편 제6사단장 백인엽 소장은 교암산 지구의 방어임무를 제19연대로부터 제2연대가 인수하도록 명령하였다.[34] 이에 따라 제2연대장 고백규 대령은 제19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된 예하의 각 대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제1대대는 교암산의 주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제2대대는 명령에 따라 제19연대 제3대대로부터 전초진지를 인수하며, 제3대대는 7월 12일 21시부로 제19연대 제1대대의 주진지를 인수토록 하였다.

<상황도 5-3> 제19연대의 전투상황(1953. 7. 13. ~ 7. 14.)



7월 13일 21시 30분에 포격을 개시한 적은 22시를 기해 제5사단을 제외한 군단의 전 정면으로 공세를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23시에는 좌인접인 수도사단의 전황이 점차 악화되었다. 이에 측방노출을 우려한 사단장은 서측방을 방어하면서 좌일선을 보강하기 위해 배속된 제11사단 제9연대에 즉시 진지 진입을 명령하였다.[35]

제19연대 제3대대의 작전임무를 인수한 제2연대는 제2대대에 가고지-가막동으로 전투전초진지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는 주력으로 가고지를 중심으로 전투전초진지를 재편하였다. 그러나 21시 30분부터 포격을 계속하던 적은 22시부터 가고지를 비롯한 주저항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교암산에서 전방으로 뻗은 능선에는 제2대대가 3개 중대로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초저녁에 좌전방의 제7중대에 압력을 가한 다음 21시경 제6중대 분초를 유린한 다음 1시간 후에는 2개 대대로 제6중대와 제5중대를 공격하였다. 이들의 병력은 4개 대대로 증강되었고, 곧이어 제6중대에서는 진내전이 전개되었다.

증강된 병력으로 국군의 진지를 공격하는 중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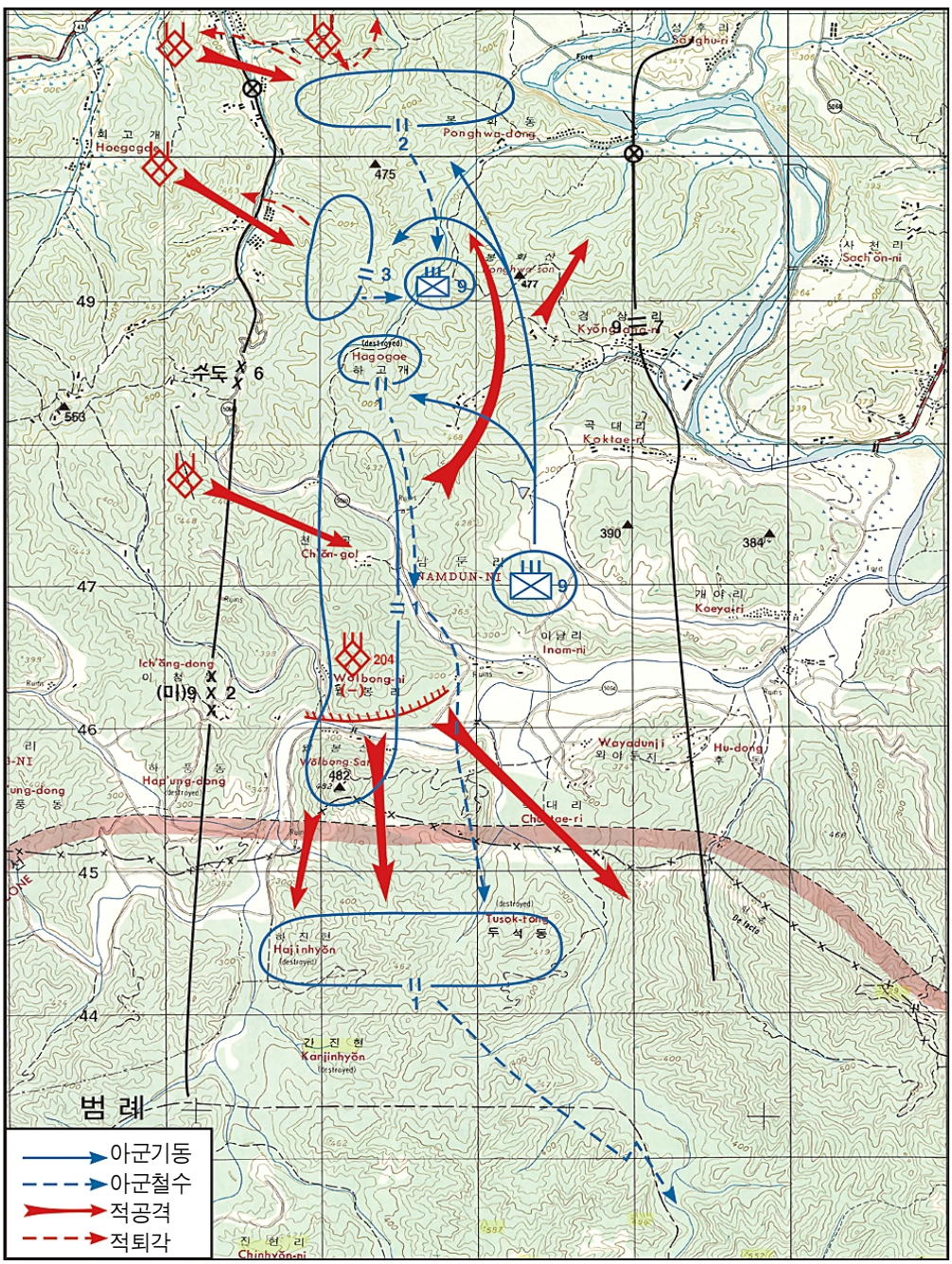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자정 무렵에는 전초를 우회한 중공군이 교암산의 주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6중대는 이날 밤 6차례나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적을 격퇴하였으나, 이후에 계속된 전투에서 중대장 김교수(金敎洙) 대위를 비롯한 전 장교 및 중대원이 전사하고 단지 10명 미만이 7월 14일 아침에 탈출할 수 있었다. 제5중대도 무전기마저 파괴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류탄마저 바닥나자 이날 새벽 후방으로 탈출해 나왔다. 이날 제5중대와 제6중대가 이런 희생을 겪으며 약 9시간 동안 적을 교착 견제함으로써 사단은 지원부대를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접부대들도 유리하게 철수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공으로 김교수 대위에게는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36]

한편 사단 전초진지를 돌파한 중공군은 좌단의 하고개, 중앙의 능동, 그리고 우단의 교암산 방향으로 주저항선을 공격하였다. 이 중 17번 도로를 방어하던 중앙의 제19연대 주저항선이 가장 먼저 돌파되었다. 적은 4개 대대로 금성 남동쪽 3㎞ 지역까지 추진된 제19연대의 2개 중대 전초를 해가 뜨기 전에 점령한 다음 이 중 1개 대대가 금성천 지류를 따라 17번 도로에 배치된 제2대대 측후방으로 침투하여 전후방에서 전방대대에 협공을 가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사주방어로 전환하며 저항하였으나, 인해전술에 밀려 08시 20분에는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저지진지를 점령한 예비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철수하였다. 이들은 교암산 서쪽을 잠시 방어하다가 다시 금성천을 건너 일단 노동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사단 좌익의 제9연대는 7월 13일 야간에 하고개 북방의 제7연대 좌전방 진지를 인수한 제2대대가 밤새 적의 파상공격을 방어하며 주저항선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침투한 적이 14일 02시 30분부터 하고개 전방 예비진지에 배치된 제3대대로 측방공격을 하였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적의 측후방 침투가 확대되었다. 연대장은 월봉리의 제1대대를 하고개-월봉산에 배치하여 서측방 방어를 강화하였다.[37]

<상황도 5-4> 제9연대 전투상황(1953. 7. 13. ~ 7. 14.)



그러나 09시 무렵 연대 후방의 월봉산에서 적이 출현하는가 하면 하고개 일대의 제3대대 지휘소와 지원시설이 기습을 받았으며, 이보다 1시간 후에는 죽대리의 연대지휘소도 적의 기습을 받았다. 연대는 11시에 철수 승인을 받아 좌인접 수도사단과 연계하여 진현리-삼현선에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한편 교암산에 주진지를 편성한 제2연대 제1대대도 연대 전초중대가 공격을 받기 시작한 후 곧이어 그 남쪽으로 추진 배치한 제3중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자정 무렵부터 고지에 배치된 대대주력도 전투에 들어가 적의 파상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대대는 진내전을 치르며 14일 일출시까지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 동안 적의 돌격과 아군의 진내사격이 반복되었다. 일출 무렵 적의 규모는 10개 대대로 확대되었으나, 아군은 이에 대처할 연대예비나 사단예비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 좌인접 제19연대의 철수로 인한 측방노출로 제3대대도 교암산 서쪽으로 밀려나 그 외곽에 증강 배치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집중적이고 파상적인 공격에 교암산 외곽의 진지가 차례로 무너지자, 08시 20분에 제2연대는 교암산을 중심으로 한 전면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교암산 진지는 우인접 제8사단 지역의 765고지를 점령한 2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결국 교암산의 제2연대는 좌인접 제19연대의 우인접 제8사단으로 쇄도하는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장은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교암산을 포기하고 금성천을 건너 12시 50분에 일단 노동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38] 이에 앞서 제7연대는 전방진지를 점령한 제1대대를 노동리로 철수시키고 연대(-)는 금성천 남쪽의 729고지-배선골-큰골 남쪽 371고지 선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전방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7월 14일 오전에 진현리-삼현-배선골-큰골에 저지진지를 편성한 제9연대와 제7연대(-)의 엄호 아래 금성천을 건너 노동리에서 부대수습에 들어갔다.

3) 전투 결과

미주리 선으로부터 철수한 사단은 7월 15일 제2연대를 우일선, 제19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주파령-장고봉-683고지-799고지-적근산-926고지를 연하는 와이오

밍선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제7연대로 추동 부근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주요 작전로인 17번 도로를 방어하였다. 이어 사단은 제7연대를 군단명령에 따라 제8사단에 배속하고, 주파리-적근동으로 진출한 제11사단에 반격임무를 인계한 후 군단예비로 와이오밍선 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7월 21일 군단의 우익이 된 사단은 제7연대를 우일선, 제2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북한강 동서 양안에 주진지를 확보하면서 제15포병단의 지원 아래 야간잠복과 위력수색을 강화하여 적의 침공에 대비하던 중 휴전을 맞게 되었다. 반면에 백암산-흑운토령-후동리-삼현-간진현에 이르는 선까지 남하했던 중공군은 7월 16일에 단행된 제2군단의 반격으로 금성천 너머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번 전투에서 사단이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5-14>와 같다.[39]

<표 5-14>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추정살상	포로	전사	전상	실종
제2연대	3,500	1,900	12	339	296	119
제7연대	861	1,500	12	93	449	70
제19연대	2,407	2,020	18	256	341	209
제9연대	150	170		12	28	
계	6,918	5,590	42	760	1,114	398

2. 백암산 부근 전투(1953. 7. 14 ~ 7. 18)

1) 전투 개요

백암산(白岩山) 전투는 휴전협정의 조인을 앞두고 감행된 공산군의 최후 공세

당시인 1953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화천 북방의 백암산(1179고지) 부근에서 국군 제2군단 예하 제5사단이 중공군 제60군의 주력인 제180사단과 제181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금성천 북쪽으로 격퇴시킨 방어전투이다.

<표 5-15>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5사단장	소장	김종갑(金鍾甲)	
		소장	장도영(張都暎)	1953.7.16부
	제27연대장	대령	최영규(崔英圭)	
	제1대대장	중령	최규선(崔奎瑄)	
	제2대대장	중령	윤필룡(尹泌龍)	
	제3대대장	중령	차규헌(車圭憲)	
	제35연대장	대령	박창원(朴昌源)	
	제1대대장	소령	조성칠(趙誠七)	
	제2대대장	소령	정인순(鄭仁淳)	
	제3대대장	중령	손진곤(孫鎭坤)	
	제36연대장	대령	고광도(高光道)	
	제1대대장	소령	박태송(朴泰松)	
	제2대대장	중령	이재전(李在田)	
	제3대대장	중령	박영극(朴英極)	
	사단공병대대장	소령	오성룡(吳成龍)	배속부대
	제7연대장	대령	한광흥(韓官興)	
	제1대대장	중령	민방목(閔邦穆)	
	제2대대장	소령	소병렬(蘇炳烈)	
	제3대대장	중령	남백봉(南白奉)	지원부대
	제15포병단장	대령	김동수(金東洙)	
중공군	제60군장		웨이지에(韋 杰)	
	제180사단장		구안준팅(官峻亭)	
	제181사단장		왕쳉한(王誠漢)	
	제179사단장		우시홍(吳仕宏)	

7·13공세 당시 중공군 제20병단은 제21병단 예하의 제60군을 증원받아 금성지구에서 국군 제2군단과 미 제9군단 우익의 방어정면을 뚫고 화천 방면으로 침공한 후 산악기동으로 백암산과 적근산 쪽으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제2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제5사단은 백암산 부근에서 동쪽으로 접근한 중공군 제60군과 격돌하게 되었다.

중공군 제60군은 6월 공세 당시 국군 제2군단의 미주리 선을 침공하여 제5사단과 북한강 동쪽의 884고지-973고지-949고지 일대에서 4일 동안 격전을 벌인 후 금성 부근에 집결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이때 아이슬란드선으로 철수한 제5사단은 군단 우익의 담당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하고 전석(轉石)-감우리(甘雨里) 부근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 이후 사단은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한신전투부대'[40]를 편성하여 북한강 동쪽의 군단지역을 전담 방어하는 한편 주력을 화천 부근으로 이동시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사단은 적의 공세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6월 26일 군단의 계획에 따라 제3사단의 일부 지역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35연대가 제3사단 제18연대의 후동(後洞)-구대(舊垈)간 진지를 인수하고, 한신전투부대를 해체하여 제36연대를 현지에 배치하는 한편 제27연대를 예비로 하여 군단의 우익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748고지-후동-구대-양지촌(陽地村)간의 아이슬란드선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게 되었다.

이 무렵 사단의 병력은 장교 535명과 사병 1,1080명, 편제상의 기본 장비는 95% 수준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제15포병단을 비롯한 전차 1개 소대와 중박격포중대 등이 지원하였고, 미 제5공군의 수시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보급과 탄약은 여러 제한조건이 많았으나, 기간 중 대체로 무난하게 보급되었다.[41]

2) 전투 경과

1953년 6월말에 접어들며 적의 공세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자 군단장 정일권 중장은 군단우익의 광정면을 담당하고 있는 제3사단의 책임구역을 축소하여 동반부를 제5사단이 담당하고, 제3사단은 좌인접 제8사단의 일부 진지를 인수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한신전투부대를 해체하여 제36연대를 사단에 복귀시키면서 제5사단이 군단의 우익을 전담 방어하게 하였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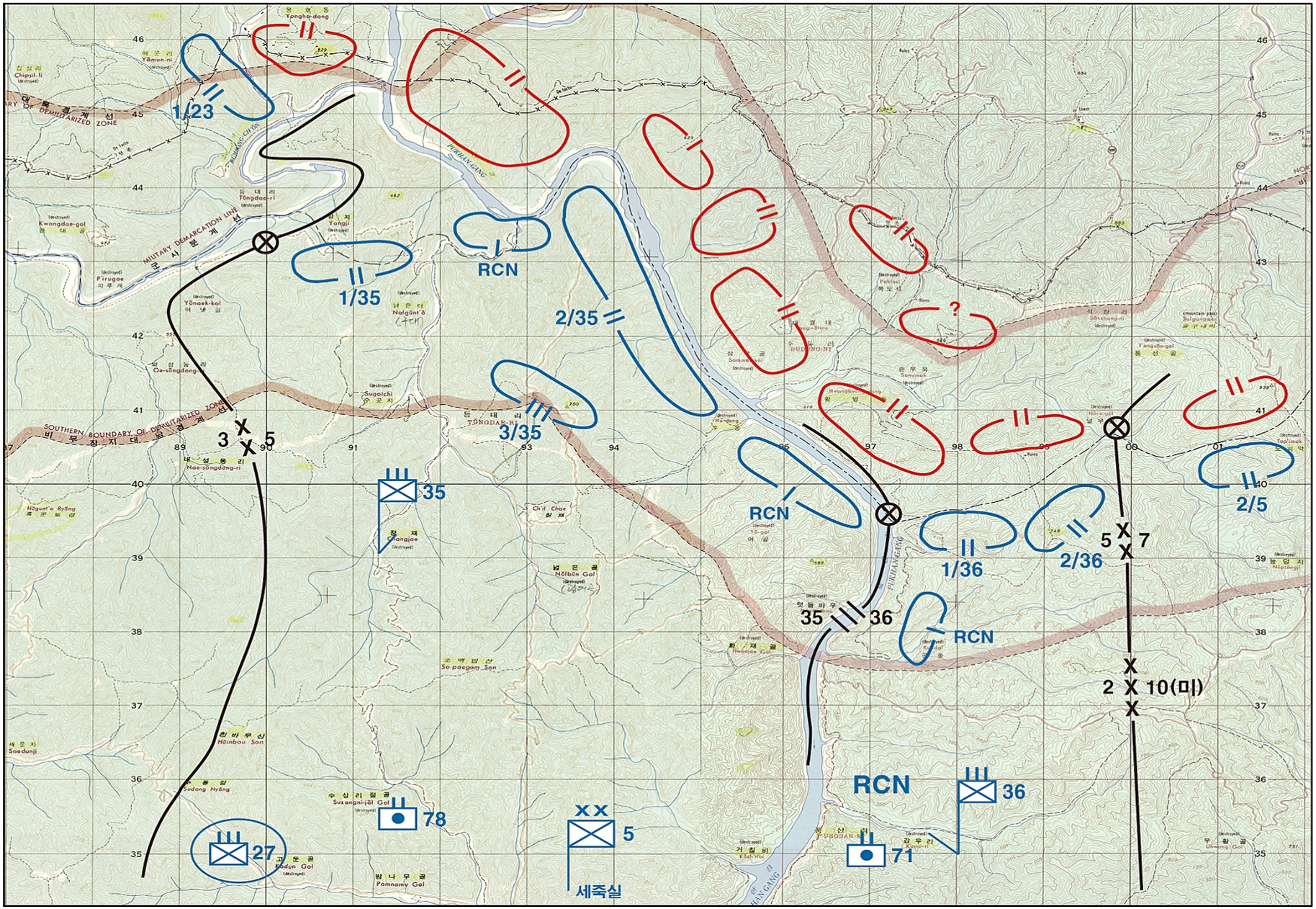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사단장 김종갑(金鍾甲) 소장은 각 연대의 임무와 병력배치 등을 명시한 작전명령을 통해 북한강 동쪽의 제36연대를 우일선 그리고 그 서쪽의 제35연대를 좌일선에 배치하는 한편 제27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43] 그리고 군단의 방침에 따라 현 전선의 고수에 중점을 두고 진지보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군단은 7월 10일에 명령을 통해 백암산을 포함한 제3사단의 우단지역 일부를 제5사단이 담당토록 조정하는 등 일부 전선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도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병력과 화력의 배치를 재조정하였다.[44]

① 사단은 군단작명에 의거하여 일부의 전투지경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제27연대(-)를 어두은동(於斗隱洞)으로 이동하려 한다.
② 제27연대
  ㉮ 연대(1개 대대결)는 7월 11일 02:00를 기해 수상리(水上里)에 집결하는 즉시로 어두은동으로 이동하라.
  ㉯ 이동 후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부대정비와 교육에 임하라.
  ㉰ 잔류 1개 대대(1개 대대+수색중대)는 7월 11일 08:00부로 제36연대에 배속하라.
  ㉱ 배속중인 공병소대는 현 위치에서 잔류대대를 지원토록 하라.
③ 제35연대는 7월 12일 02:00까지 예하 1개 대대로써 제3사단 제23연대(+2)의 진지를 인수하여 현 전선에 연한 방어진지를 편성하라.
④ 제36연대는 제27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현 임무를 계속하라.
⑤ 제15포병단은 2개 대대를 분할하여 제35연대와 제36연대를 1개 대대씩 각각 직접 지원토록 하고 1개 대대는 사단을 일반지원토록 준비하라.
⑥ 기타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사단 전방지휘소는 세죽대(細竹垈)에 위치한다.

명령에 따라 각 연대가 부여된 임무에 착수한 가운데, 제15포병단은 제71포병대대를 감우리로 추진시켜 제36연대를, 제78포병대대를 수상리 사동(寺洞) 부근에 방렬시켜 제35연대를 직접 지원토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61포병대대는 사단의 일반지원을 담당토록 하였다.

<상황도 5-5> 백암산 전투 피아배치 현황



1953년 7월 13일 야간에 중공군은 금성천으로부터 김화에 이르는 지역에서 마지막 공세인 이른바 '7·13공세'를 단행하였다. 이때 군단의 우익으로 아이슬란드선에서 북한강과 금성천 남안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사단 좌일선인 제35연대는 자정을 조금 넘긴 00시 45분에 적으로부터 정면공격을 받았다.

연대 정면을 공격한 적은 중공군 제60군 예하의 제180사단 소속으로 용호동(龍湖洞) 계곡에서 금성천을 건너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이와 동시에 적의 포격이 양지촌 부근에 집중되었다. 적은 제5사단과 제3사단의 지경을 뚫고 백암산 쪽으로 진출하려 하였는데, 이 지역은 제35연대 제1대대가 방어를 맡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사단은 배속중인 제15포병단 예하의 각 포병대대에 차단사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진지 앞에 매설된 지뢰지대를 통과하여 진지를 향해 쇄도함에 따라 수류탄전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적의 포격이 연대지휘소가 설치된 장재동(長財洞) 부근까지 연신됨으로써 유선이 두절었다.

이처럼 적의 공격이 좌일선에 집중되자, 연대장 박창원(朴昌源) 대령은 예비인 제3대대의 일부 병력을 증파하도록 지시하였다.[45] 이에 제3대대장은 제2선의 제10중대를 구대 남쪽 계곡으로 이동시켜 103번 도로 서쪽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전반적인 전황을 검토한 결과 적의 공격방향이 군단우익의 백암산 지역으로 집중하는 것을 간파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는 군단장의 승인 아래 어두은동에 대기중인 제27연대(-2)를 백석산 서쪽의 파수골 부근으로, 제36연대에 배속중인 수색중대를 배속해제와 함께 백암산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북한강 이동의 우일선을 담당한 제36연대로 강 동쪽의 사단 책임지역을 전담시키는 한편 연대 예하 제3대대를 감우리로 이동 조치하였다.[46]

이처럼 사단이 전선을 재조정하고 있던 16시경에 중공군 제180사단은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462고지에서 양지촌으로 우회하여 제3중대 진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이들은 양지촌 부근의 탄막지대에서 무수한 손상을 입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 앞으로 몰려들었다. 뒤를 이어 또 다른 무리가 대대의 서측으로 침투하여 후방을 기습함으로써 중대는 고립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는 용호동 서쪽에서 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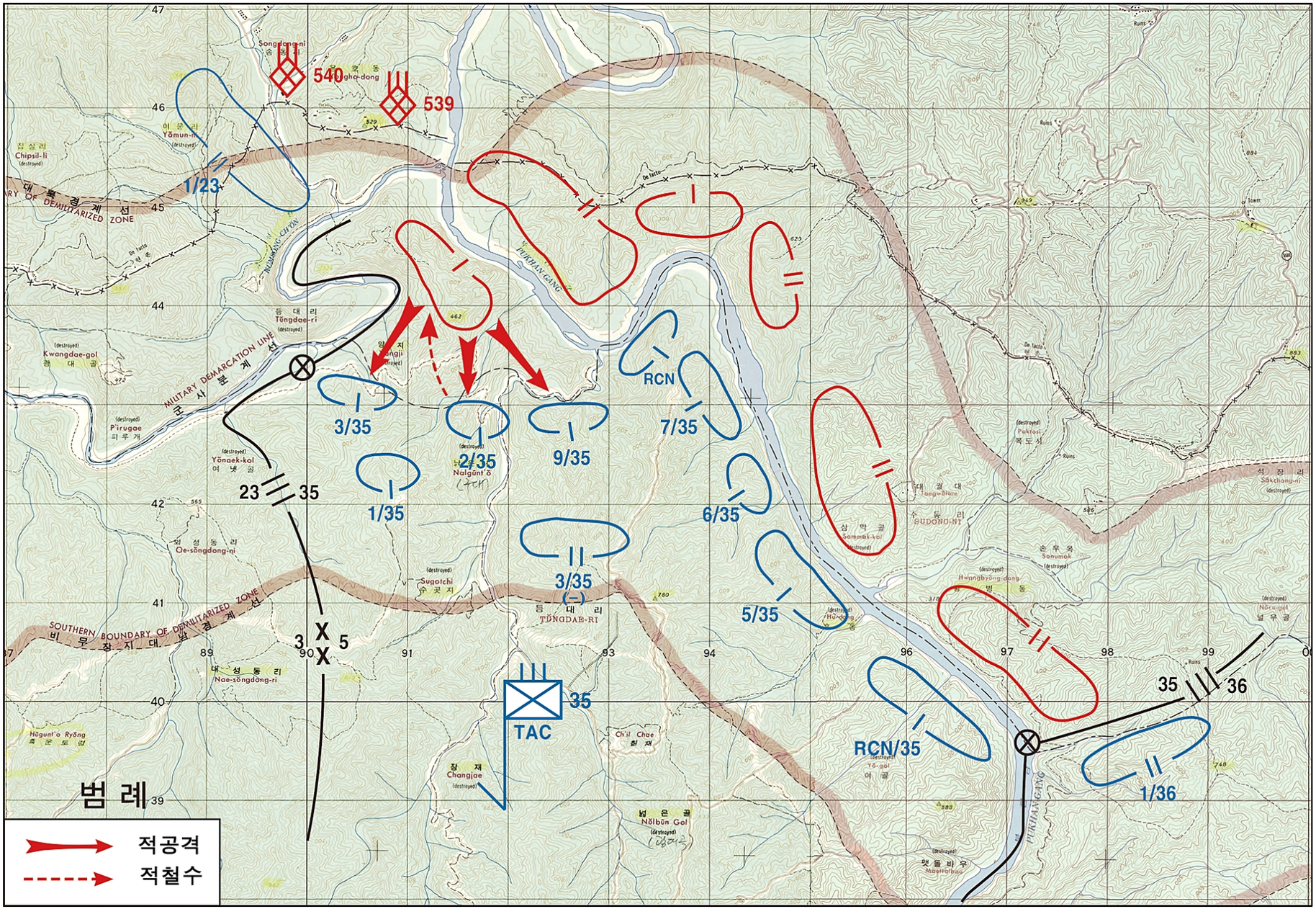
을 벌이던 제23연대가 별우 동북쪽 3㎞ 지점의 광대곡(廣大谷)으로 이동함으로써 공백지대가 된 양 사단의 지경으로 적 주력이 손쉽게 금성천을 건넜기 때문이었다.

연대는 이와 같이 전황이 악화되자 구대 남쪽에서 대기중인 제3대대(-)를 819고지 부근에서 저지진지를 편성토록 조치하고 제1대대 주력을 장재동으로 철수시켰다. 이와 함께 포병에 엄호사격을 요청하면서 우일선의 제2대대에게 적의 공격예상지역인 수곳지-780고지선에 진지를 점령토록 하는 등 제2저지선 형성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구대 남쪽에서 출발한 제3대대는 성동고개를 넘어 819고지에 도달하여 내성동리 부근과 그 우측의 879고지 북쪽 기슭에 제10중대와 제11중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강안 진지를 떠난 제2대대는 780고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제6중대와 제5중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장재동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증강된 대대규모의 적이 구대 쪽으로 침공해옴에 따라 이곳을 방어하던 제2대대 제6중대와 수곳지 북쪽 계곡에서 격전을 벌였다. 동쪽의 제7중대가 적을 역공하면서 약 1시간에 걸친 전투는 끝이 나고 적은 물러나게 되었다.[47]

지원포격을 실시중인 포병대원

<상황도 5-6> 중공군 제180사단의 제1차 침공



이 무렵 적정을 분석한 사단은 적의 공격을 일단 저지하였으나, 새로운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장재동-백암산 선에 대한 보강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제27연대 주력을 백암산 북쪽 기슭에 배치함과 동시에 연대 수색중대를 그 서쪽의 신둔지에 배치해 서측방을 엄호하게 하고 사단 수색중대를 제35연대에 배속시켜 장재동 서쪽 능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5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연계된 수곳지 부근의 진지를 자대 병력으로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형성된 호형방어진은 제35연대 제2대대가 780고지 부근에, 제35연대 제1대대와 수색중대는 장재동 부근에, 제27연대 제3대대는 백암산 동측에, 그리고 제1대대와 수색중대는 그 서측에 각각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후 사단은 수곳지-819고지간의 중앙부에서 수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한편 819고지 부근에서 격전을 펼친 제35연대 제3대대가 7월 15일 새벽 4시경 장재동 북쪽의 103번 도로 부근으로 후퇴하면서 제2선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적은 구대와 장재동간 103번 도로 서측을 장악하여 백암산으로 직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데 반해 사단의 방어선은 전투정면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험한 고지대에서 방어에 임하게 되어 유기적인 전선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03번 도로의 동쪽과 서쪽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던 제35연대와 제27연대는 7월 14일 14시부터 적의 세 번째 공격을 받게 되었다. 적의 선봉인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수곳지 서쪽의 제35연대 제3대대 정면을 공격한데 이어 10분 후 2개 대대병력이 741고지의 제2대대 진지로 돌진해왔다. 그리고 또 다른 2개 대대병력이 백암산을 향해 제27연대 제3대대를 공격해왔다.

따라서 제35연대와 제27연대는 거의 전 지역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었고, 2시간 동안의 혈전 끝에 제35연대 제3대대 진지가 와해되어 장재동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전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780고지를 담당한 제35연대 제2대대가 동북쪽에서 고립되어 서쪽에 있는 제27연대 제3대대의 동측방이 노출되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제35연대장은 103번 도로 동쪽의 주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쪽의 제2대대를 장재동 북쪽 2㎞ 지점의 광동(廣洞)으로 이동시키고 제3대대의 수습에 나섰다. 이때 사단장의 다음과 같은 명령이

하달되었다.[48]

① 사단은 폴라선(876고지-1051고지-백암산)에서 당면의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15일 18시를 기해 사용 가능한 모든 병력으로 백암산을 점령 방어하라. 최단시간 내에 동측에서는 103번 도로에서 제35연대와, 서측에서는 1118고지(백암산 서쪽 1.8㎞)에서 좌인접인 제3사단과 각각 전선을 연계하라.
③ 제35연대는 15일 18시를 기해 현재 장악한 병력으로 588고지-876고지-1051고지 간을 방어하라. 사단수색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④ 제36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각 연대는 진지 점령과 동시에 강력한 경계부대를 운용하라.

이에 따라 제35연대는 19시부터 20시 사이에 수색중대를 588고지에 그리고 이에 연해 제2대대를 876고지(백암산 동쪽 4㎞)에 배치하면서 장재동 남쪽에서 수습한 제1대대와 제3대대를 1051고지에 전개시켰다. 또한 배속중인 사단 수색중대에 103번 도로의 방어를 전담시켰다. 마찬가지로 좌일선인 제27연대도 제1대대와 수색중대를 백암산 북쪽 기슭에 전개하는 한편 동북쪽 3㎞ 전방의 제3대대를 백암산 동측으로 이동 집결시켰다.[49]

이처럼 사단이 폴라선 상의 진지보강에 주력하던 20시 10분에 적은 연대병력으로 장재동 일대를 휩쓴 여세를 몰아 1051고지를 공격해왔다. 이곳을 방어하던 제35연대 제3대대는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던 중 어쩔 수 없이 사동 부근으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백암산 동남 기슭의 제27연대 제3대대도 율동(栗洞)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폴라선의 중앙부가 이와 같이 돌파되면서 적 주력의 선두가 사동 부근까지 밀고 내려옴으로써 아군의 방어진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좌인접인 제3사단도 흑운토령을 넘은 중공군 제179사단이 백암산 서쪽의 백암골 부근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격전 끝에 1057고지-산양리 간의 와이오밍선으로 철수, 사실상 백암산은 적에게 포위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와이오밍선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공세를 재개하기로 작정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50]

① 사단은 와이오밍선에서 부대를 정비한 다음 전세를 기필코 만회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1개 대대를 478고지(소고비운리 서북쪽 1.2㎞)로 급파하여 제35연대의 철수를 엄호케 하는 동시에 주력으로써 고둔지-수동령 간의 좌일선을 방어하라. 15일 21시 30분부로 사단에 배속중인 전차소대(5대)를 통합 지휘하라.
③ 제35연대는 단시간 내에 병력을 수습하여 당거리-782고지(당거리 서북쪽 2㎞) 간의 와이오밍 선을 점령하라. 876고지(백암산 동쪽 4㎞)를 확보 중인 1개 대대를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전면 방어하게 하라.
④ 제36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감우리에 대기중인 예비대로써 북한강 동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라.
⑤ 사단의 수용선은 소고비운리-수상리-율목동-고둔지이다. 각 연대는 낙오병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

명령을 접한 제27연대장 최영규(崔英圭) 대령은 제36연대에서 배속 해제된 제2대대로 478고지를 중심으로 엄호진지를 편성토록 하였다. 제35연대장 또한 876고지의 제2대대로 1051고지까지 접근한 적을 그 동쪽에서 견제하게 하면서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여 와이오밍 선상에서 진지구축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제36연대장은 감우리의 제3대대를 전석-감우리간 강안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수색중대는 그 북쪽의 748고지에 연한 진지를 점령하게 하였고, 제2대대(-)는 748고지 남쪽에 배치하였다.

백암산과 흑운토령이 적의 수중에 넘어가자 군단장은 7월 16일에 예하의 각 사단에 더 이상의 철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엄명과 함께 현 접촉선에서 반격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앞서 군단은 전투지경선을 일부 조정하여 금성천 부근에서 격전을 치룬 제3사단을 예비로 두고 제8사단이 그 지역을 전담하게 하면서 새로이 군단에 예속된 제11사단을 좌익으로 돌려 7월 15일 05시부로 제6사단의 진지를 인수토록 하였다.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사단은 감우리-고비운리-당거리-1057고지 부근에서 부대를 수습하고 회복작전을 계획하던 중 사단장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신임 사단장인 장도영(張都暎) 소장은 전황을 파악한 후 백암산과 1051고지를 탈환

하는데 주안을 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51]

① 사단은 현 전선을 고수하면서 일부의 병력으로 다음 목표 ㉮-㉯-㉰-㉱를 탈환하려 한다. ㉮ 백암산, ㉯ 백암산 북쪽의 1070고지, ㉰ 1051고지, ㉱ 1051고지의 서북쪽 돌출능선
② 제27연대는 16일 06시를 기해 1개 대대병력으로 목표 ㉮-㉯를 탈취하라.
③ 제35연대는 16일 06시를 기해 1개 대대병력으로 목표 ㉰-㉱를 탈취하라.
④ 제36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우일선의 제35연대는 1051고지(소백암산)와 그 서북쪽의 돌출능선에 연해 설정된 목표 ㉰-㉱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병력배치 상황은 연대 주력이 목표에서 6㎞ 떨어진 소고비운리(小高飛雲里) 부근에 위치한데 반해 제2대대는 그 동쪽 1.5㎞ 지점의 876고지에서 적의 강안진출을 견제하고 있어 공격임무를 제2대대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876고지의 제2대대는 제6중대와 제7중대를 좌우일선으로 하고 제5중대를 예비로 현지에 대기시킨 후 목표 ㉰(1051고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들은 목표의 동쪽으로 진격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돌격선에 도달하였다. 그런 다음 적진을 향해 기습적인 돌격을 감행하자, 증강된 중대규모의 적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11시 50분에 1051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적은 12시 30분경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역습을 감행하여 고지의 북쪽 기슭을 침공하였다. 이에 대대는 적을 몰아내기 위해 목표 ㉱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이 증가된 적에게 양 중대가 포위되었을 뿐 아니라 제5중대가 맡고 있던 876고지도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제2대대의 임무를 전환하여 876고지와 1051고지의 고수를 지시하였고, 목표 ㉱에 대한 공격을 제1대대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날 제2대대는 적의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단의 명령에 따라 단독으로

공격에 나섬에 따라 스스로 적진에 고립되고 말았다. 이로 이해 876고지의 제5중대는 40분간의 혈전 끝에 분산되었고, 1051고지의 대대 주력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목표 ㉲의 공격에 나선 제1대대도 수상리 계곡에서 적의 저항에 부딪쳐 진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16시를 기해 공격을 중지하고 수상리 부근에 집결하여 다음 전투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제35연대에 하달하였다. 이에 연대는 제2대대를 1051고지에서 사동을 통해 수상리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제1대대(-)를 사동 남쪽으로 급파하여 제2대대를 엄호하게 하였다.[52]

한편 좌일선에서 백암산 부근의 목표 ㉮-㉯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27연대는 이 임무를 제2대대에 부여하였다. 제2대대는 목표 ㉮(백암산)를 먼저 공격하기로 하고 제5중대와 제6중대를 좌우일선으로 수동령을 넘어 10시경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험한 지형으로 인한 기동의 제한과 2개 중대규모로 추산되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12시가 넘도록 진격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집중포화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대대장은 13시를 기해 병력을 수동령 부근으로 임의 철수시켰다.

전열을 가다듬은 대대는 14시 30분을 기해 제7중대를 선봉으로 2개의 특공조로 재공격을 단행하였으나, 특공조가 적의 역습에 밀려 수동령 쪽으로 되돌아옴에 따라 목표 점령에 실패하였다. 이런 가운데 연대는 사단의 방침에 따른 공격중지 명령을 하달하였고, 대대는 수동령 부근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제35연대와 제27연대의 공격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 사단은 제6사단 제7연대가 배속되자 새로운 반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53]

① 사단은 17일 05:00를 기해 다음 목표 ⓐ-ⓑ-ⓒ-ⓓ-ⓔ를 탈환한 연후에 계속 전과를 확대하여 금성천까지 진격하려 한다. 목표 ⓐ 백암산 북쪽 2.3㎞의 무명고지, ⓑ 백암산 동북쪽 2㎞의 무명고지, ⓒ 1051고지, ⓓ 876고지, ⓔ 환재곡(還財谷) 남쪽의 무명고지

② 제27연대는 목표 ⓑ를 탈취한 다음 장재동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③ 제35연대(수색중대 배속)는 ⓒ-ⓓ-ⓔ를 탈취한 다음 광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④ 제7연대는 ⓐ를 탈취한 다음 별도명령을 대기토록 하라.
⑤ 제36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⑥ 제15포병단은 사단을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제7연대에 두라.
⑦ 제5중박격포중대는 제27연대와 제35연대에 1개 소대씩 분할 배속하고 중대본부는 제36연대지역에 위치하라.
⑧ 공격준비사격은 04:30부터 30분간 실시하라. 화력통제선은 596고지-사동-수동령 북쪽 1㎞선이다.
⑨ 공격개시 후 사단장은 당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7월 17일 05시를 기해 사단 예하의 3개 연대는 제15포병단의 포격지원 아래 일제히 공격을 이전하였다. 우일선의 3개 목표를 공격하게 된 제35연대는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에 목표 ⓔ를, 제1대대에 목표 ⓓ를 그리고 제3대대에 목표 ⓒ를 부여하는 한편 전날 1051고지에서 전투를 치룬 제2대대를 예비로 후속토록 조치하였다.

사단수색중대가 담당한 목표 ⓔ는 목표물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무명고지로 제한된 지형조건으로 인해 적정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대는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자 04시 30분에 기동을 시작하여 05시를 기해 수상리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동북쪽을 향해 출발한 중대는 산간소로를 따라 613고지의 남쪽 기슭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수 미상의 적과 2시간 30여 분 동안 격전을 펼쳤다. 마침내 중대는 적의 화력거점을 격파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며 돌격을 감행한 끝에 고지점령에 성공하였다. 여세를 몰아 목표 ⓔ에 대한 공격에 나선 중대는 양측방에서 협공을 가해 17시 무렵에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환재곡 남쪽의 강안 주요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54]

제1대대가 담당한 목표 ⓓ인 876고지는 1051고지와 함께 연대 정면의 2대봉으로 전날까지 제2대대가 장악하고 있던 중 적의 공격으로 빼앗긴 고지였다. 따라서 연대는 이를 공격하기에 앞서 제1대대에 남쪽으로 연한 596고지를 탈취한 다음

702고지-876고지 축선으로 진격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다. 공격에 들어간 대대는 596고지 전방 200m 지점까지 전진하였으나, 그곳에서 기관총과 박격포 공격을 가하는 중대규모의 적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그럼에도 좀처럼 돌파선을 넘지 못하자, 대대장은 고지 동쪽으로 우회하여 배후를 기습하도록 제2중대에 지시하였다. 3개 공격조로 재편하여 적진 깊숙이 우회한 중대는 고지의 동북사면으로 접근하여 좌우에서 동시에 기습을 가하자, 적은 저항을 중단한 채 분산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596고지를 점령한 대대는 12시 30분에 북쪽의 702고지에 대한 탈환에 나섰다. 그러나 목표 500m 전방의 무명고지에서 일단의 적으로부터 저지사격을 받고 2시간의 격전을 벌인 끝에 적이 전선을 이탈함으로써 고지를 탈취하였다. 이어 17시에 702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선 대대는 전진 도중 연대로부터 공격중지명령을 받고 진출선에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목표 ⓒ는 연대 정면에서 가장 높은 1051고지를 포함한 그 일대로 적의 연대 OP와 함께 대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대는 공격임무를 제3대대에 부여하는 한편 예비인 제2대대를 후속토록 조치하였다. 공격에 나선 제3대대는 먼저 사동 북쪽의 무명고지를 중간목표로 선정하여 점령한 후 목표를 향해 서남쪽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고 전진하였다. 사동 계곡에 들어선 선두부대는 무명고지 남쪽 기슭에 있던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중간목표를 점령하였다.

이어 목표 ⓒ의 공격에 나선 대대는 1시간 걸친 적의 탄막사격에 걸려 더 이상의 진격도 하지 못한 채 분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은 병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병력을 수습한 후 다시 진격에 나서 목표고지의 8부 능선까지 접근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유리한 지형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다. 이후 대대는 3차에 걸친 공격을 거듭하였지만 끝내 고지를 탈환하지 못한 채 날이 어두워졌고, 연대의 공격중지명령에 따라 능선에 진지를 급편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3대대를 후속한 제2대대는 사동 동쪽으로 진출하여 596고지-사동간을 연계하는 거점을 확보하였다.[55]

한편 중앙일선의 제27연대는 백암산 동북쪽 2㎞ 지점의 무명고지인 목표 ⓑ의 탈취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는 불리한 지형조건 하에서 백암산을 정면공격하기 보다는 우회하여 동남쪽의 ⓑ를 공격하고, 좌일선인 제7연대로 직후방의 ⓐ를 공격하여 적의 철퇴를 강요하려는 사단의 의도였다. 이에 따라 제27연대는 ⓑ와 백암산을 병진공격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에 대한 공격임무를 제3대대에 부여하면서 전날 백암산 공격작전을 수행한 제2대대에 다시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7월 17일 03시 30분을 기해 제3대대는 율목동을 출발하여 북쪽의 험로를 넘어 07시 10분에 선두가 사동 서쪽의 103번 본도 부근에 도달하였다. 계속하여 목표를 향해 진격에 나선 대대는 행군 도중 1070고지에서 화력을 집중하며 관문을 사수하려는 중대규모의 적과 마주하였다. 이에 대대는 병력을 양분하여 협공을 가하는 한편 103번 본도를 따라 전진한 전차 2대와 함께 보전협동공격을 펼치자, 당황한 적이 전선을 이탈함으로써 1090고지를 점령하였다. 여세를 몰아 목표 ⓑ로 향한 대대는 목표를 불과 1㎞ 남겨놓은 지점에서 연대의 공격중지명령을 받고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56]

진지를 방어중인 중공군의 모습

제3대대와 동시에 백암산 공격에 임한 제2대대는 좌우측에서 협공을 가하기 위해 병력을 나누어 전진하였다. 그러나 백암산 공격에 나선 대대는 험준한 지세로 인해 기동의 제한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혼신을 다해 공격을 실시하였음에도 돌격선을 넘는데 실패하자, 대대는 병력을 임의 철수시킨 후 돌격대를 편성하여 16시에 재공격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면서 돌격대가 적진으로 돌격을 시작하자,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 적은 후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19시에 정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곧이어 정상공격에 나선 대대는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공격을 일단 중단하였다.[57]

좌일선의 제7연대가 공격을 맡은 목표 ⓐ는 백암산 북쪽 2.3㎞의 무명고지이나 흑운토령과 함께 군단 우측의 주요 고지로서 이들 고지를 장악할 경우 금성천까지의 진격이 가능한 곳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이 고지를 목표로 우회하여 백암산을 무혈점령하기로 작정하였다.[58] ⓐ로 진격을 시작한 연대는 중간목표인 1118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기동하면서 제2대대 제6중대에 백암산 서쪽의 삼차로 부근에 엄호진지를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삼차로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엄호진지의 점령이 지연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한관흥(韓官興) 대령은 제2대대에 주력으로 적을 격퇴하게 하면서 06시를 기해 제1대대와 제3대대로 1118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제2대대는 삼차로 부근으로 나가 30분간의 교전을 통해 적을 격퇴한 후 백암산과 1118고지의 중앙지대로 진출하였다.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제1대대와 제3대대는 1118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혼전이 거듭되었다. 이때 제3대대가 서쪽으로 우회하여 배후를 공격하자, 당황한 적은 대열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양 대대는 이를 포착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여 15시 10분에 1118고지를 비롯한 좌우측의 능선을 장악하였다.

이와 같이 중간목표를 점령한 연대는 제1대대를 선봉으로 16시 30분을 기해 ⓐ의 공격에 나서 백암산 북쪽 1.5㎞ 지점의 962고지에 도달하였으나, 이곳에서 공격을 중지하라는 사단의 명령을 받았다.[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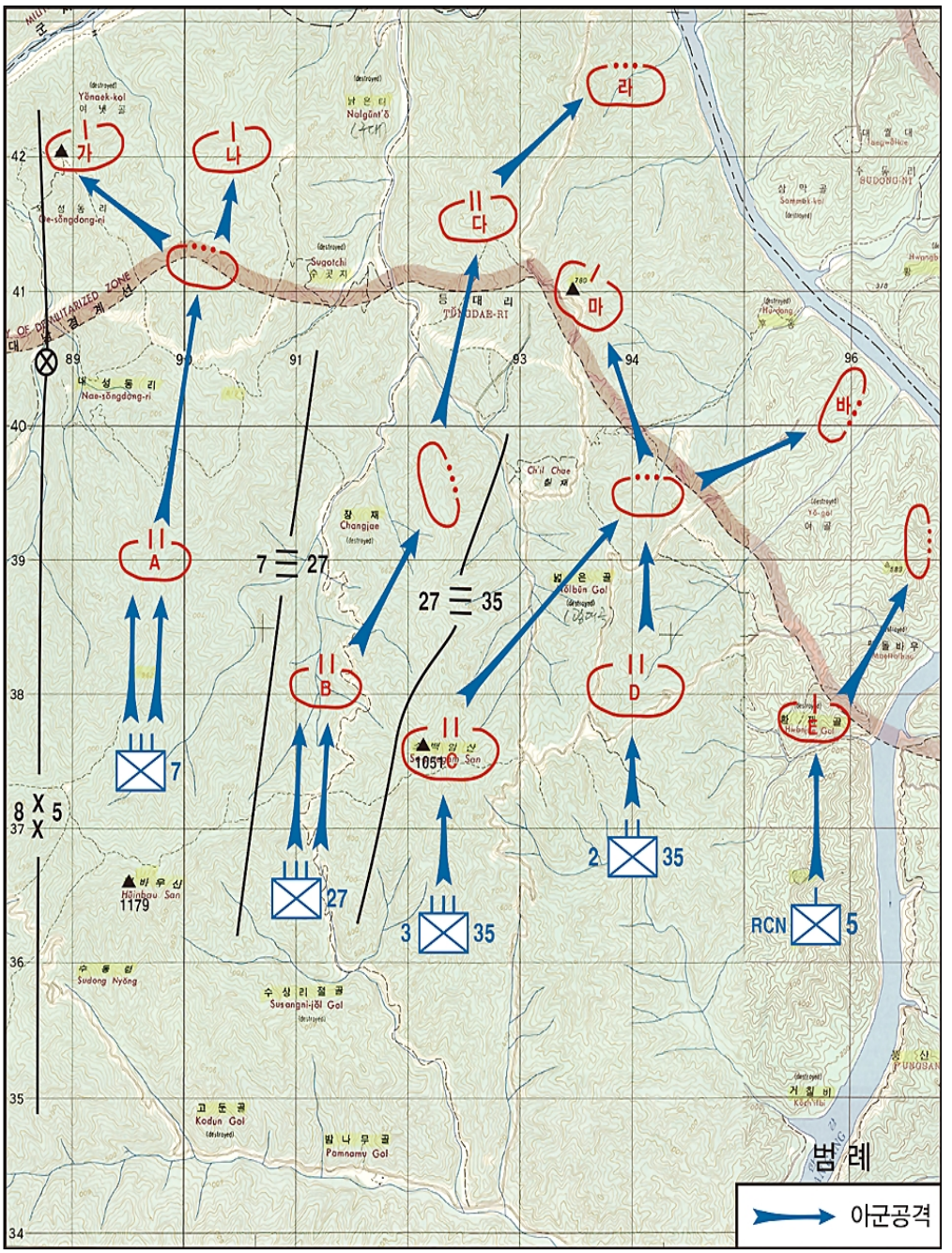
한편 이날 실시된 반격으로 고무된 사단은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강과 금성천 남안의 주요 지역을 목표로 한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8일 05:00를 기해 다음 목표 ㉮-㉯-㉰-㉱-㉲-㉳를 탈환한 후 아이슬란드선까지 진출하려 한다. 목표 ㉮ 595고지(외성동리 동쪽 고지), ㉯ 819고지 북쪽 1㎞ 무명고지, ㉰ 741고지(수곳지 동쪽), ㉱ 구대 동쪽 무명고지, ㉲ 780고지, ㉳ 광동 북쪽 무명고지
② 제35연대는 ㉲-㉳를 탈취한 다음 후동-구대간의 북한강 서안으로 진격하라.
③ 제27연대는 ㉰-㉱를 탈취한 다음 구대 북쪽으로 1개 대대의 전투정찰대를 진출시켜 강안까지 수색하게 하라.
④ 제7연대는 ㉮-㉯를 탈취한 다음 금성천으로 진격하라.
⑤ 제11포병단은 사단을 일반 지원하되, 사격의 우선을 제35연대의 정면에 두라.
⑥ 제36연대는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⑦ 폴라선 상의 중간목표 ⓐ-ⓑ-ⓒ-ⓓ를 탈취한 직후부터 각 연대간의 전투지경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35, 제27연대간 : 소백산(1051고지)-광동 서쪽 500m-780고지 서쪽 300m-그 동북쪽의 북한강 서안
제27, 제7연대간 : 백암산 - 장재동 서쪽 1㎞-수곳지-구대 서쪽 200m-그 북쪽의 북한강 서안
⑧ 각 연대는 목표를 탈취하면 즉시 진지를 구축하고 담당정면의 적정을 보고하라.

7월 18일 사단의 명령에 따라 목표 ㉲-㉳를 공격하게 된 제35연대는 이에 앞서 전날 공격에서 탈환하지 못한 ⓒ-ⓓ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대는 제2대대에 ⓓ를, 그리고 제3대대에 ⓒ에 대한 공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동측으로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단숨에 702고지를 장악한 후 목표인 976고지로 돌진하여 증강된 소대규모의 적을 물리치고 11시 20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좌일선의 제3대대는 목표인 1051고지로 접근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뒤이은 적의 역습을 받고 혼전을 벌이고 있었다.

<상황도 5-7> 국군 제5사단의 진격상황



이에 연대장은 수색중대를 그곳으로 보내 제3대대와 함께 적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제2대대는 현 진지를 제1대대에 넘겨주고 목표 ㉮를 탈취하도록 지시하였다.[60]

새로운 공격목표인 780고지의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선두가 광동 부근에 도달하여 소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진격을 거듭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2대대에 목표 ㉮와 함께 ㉯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대는 동서로 병력을 나누어 공격한 끝에 17시 50분에 목표 ㉯인 501고지를 탈취한 데 이어 18시에 ㉮인 780고지마저 점령하였다. 그리고 수색대를 강안까지 진출시켜 담당지역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61]

한편 구대 부근의 목표 ㉰-㉱의 공격을 맡은 제27연대는 전날 점령에 실패한 목표 ⓑ를 선점한 후 장재동-수곳지-구대 축선을 따라 진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날 백암산을 탈환한 제2대대는 현지에서 1070고지-백암산 간의 기존 진지를 방어하도록 하였고, 제3대대가 선봉으로 ⓑ를 공격하여 탈취하면 그 즉시 제1대대가 축차로 ㉰-㉱를 공격하도록 하였다.[62]

적진을 향해 사격을 실시중인 국군병사들

7월 18일 05시를 기해 연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백암산 동쪽으로 진격한 제3대대가 07시 20분에 ⓑ로 돌진하여 적을 물리치자, 제1대대도 103번 도로의 동쪽에서 장재동을 향해 진격하였다. 목표 ㉰를 향해 진격에 나선 제1대대는 장재동 동남쪽의 662고지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중대규모의 적을 약 두 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물리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연대는 명령을 수정하여 제3대대가 ㉰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제1대대의 공격선을 초월하여 별다른 저항없이 진격을 계속하여 목표 ㉰인 741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1대대도 780고지 서쪽까지 진출하여 연대의 주력과 합세함으로써 목표 ㉱의 점령은 단지 시간문제로 남게 되었다.[63]

목표 ㉮-㉯의 공격을 맡은 제7연대는 제1대대에 수색중대를 배속시켜 전날의 목표인 ⓐ를 공격토록 하여 이의 탈취에 성공하면 즉시 제2대대와 제3대대로 본 공격에 임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05시에 ⓐ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수색중대가 적의 퇴로를 차단한 가운데 대대 주력이 중앙을 통해 돌격을 감행하여 적을 격퇴하고 비교적 손쉽게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어 ㉮-㉯의 공격에 나선 연대는 중간에 위치한 819고지를 점령한 다음 제2대대에 ㉯를, 제3대대에 ㉮를 공격하게 하였다. 부여된 목표를 향해 나가던 양 대대는 적의 탄막에 걸려 고전을 하였으나, 신속한 기동으로 이를 벗어나 제2대대가 17시 20분에 ㉯를 장악하였고, 이어 20분 후에 제3대대가 ㉮인 595고지마저 탈취하였다. 이에 연대는 일부 병력을 금성천으로 진출시켜 위력수색을 실시하며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64]

3) 전투 결과

이번 작전으로 사단은 3개 연대가 아이슬란드선까지 진출하며 실지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때 좌측의 제8사단도 흑운토령을 넘어 광대곡-신촌-방성곡-후동 북쪽 1㎞선에서 제5사단과 전선을 연계하였다. 또한 동쪽의 제36연대도 사단 주력의 진출과 함께 병진하여 748고지-전선 북쪽 1.8㎞간의 이전의 진지를 확보함으로써 오늘날의 휴전선을 갖추게 하였다.

전투가 종료된 7월 18일 이후 사단의 방어지역에서는 북한강과 금성천을 사이에 두고 양측간의 위력수색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사단은 전선의 정비와 진지보강에 주력하던 중 군단의 명령에 따라 작전지역을 제6사단에 인계하고 춘천 북쪽으로 이동하여 부대교육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및 피해현황은 다음의 <표 5-16>과 같다.[65]

<표 5-16>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추정사살	노획				전사	부상	실종
				기관총	각종소총	박격포	각종탄			
제27연대	637	11	695	3	24			53	312	86
제35연대	423	20	530	14	44	1		42	387	205
제7연대	861	16	544	7	36	2		93	449	70
기 타	13	4	7		4			21	54	
계	1,934	51	1,776	24	108	3	2,101	209	1,202	361

3. 여문리 부근 전투(1953. 7. 13 ~ 7. 15)

1) 전투 개요

여문리(汝文里) 부근 전투(일명, 금성천 부근 전투)는 중공군의 최후 공세 당시인 1953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성돌출부의 우견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2군단 예하 제3사단이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201사단 등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펼친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3사단이 금성돌출부의 우견부 방어를 담당하게 된 시점은 중공군의 6월

공세였다. 당시 미 제8군은 이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군 예비인 제3사단을 국군 제2군단에 배속시켜 제8사단의 우일선 연대인 제21연대의 지역과 제5사단의 좌일선인 제27연대의 지역을 인수토록 하여 새로운 책임지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제3사단은 6월 25일부터 9일간 격렬하게 전개된 관망산(529고지)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제2군단장은 제3사단이 관망산 탈환전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부대정비와 병력보충을 완료한 제5사단이 제3사단의 우일선연대인 제18연대의 지역을 인수하게 하였다.[66]

이에 따라 제3사단은 제18연대의 426고지-후동 간의 책임지역을 우인접 제5사단에 인계하고 금성천 서안의 4㎞에 달하는 협소한 정면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사단의 방어편성은 CP를 주파령 부근의 동막동에 두고, 우일선인 관망산 지역에 제23연대를, 좌일선인 485고지 지역에 제22연대를 배치하여 2개 연대로 주저항선을 편성하면서 제18연대를 예비로 운영하였다.

제18연대는 제1대대를 주저항선 약 2㎞ 후방 사단지역의 중심부에 높이 솟아있는 551고지에 배치하고,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광대곡에 집결시켜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선의 양 연대는 주저항선에 각각 2개 대대를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확보하였다.

사단의 병력 현황은 장교 342명을 포함한 9,069명으로, 82㎜ 및 60㎜ 박격포 각 24문과 42문 그리고 3.5인치 로켓포 23문 등을 장비하였으며, 지원화력은 4.2인치 중박격포 12문과 105㎜ 유탄포 96문, 전차 5대 등이었다.[67]

반면에 제3사단과 대치하고 있는 중공군은 제67군 제201사단으로 관망산 전투 직후 부대재편이 불가피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은 제68군 예하 제202사단과 교대하여 이 지역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67군의 후방지역에 있는 제60군 제181사단이 일선사단을 초월 공격할 준비를 갖춘 채 공격개시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68] 이들의 병력은 약 36,000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신병이 약 50%를 차지함으로써 전투력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은 120㎜ 직사포 8문과 122㎜ 박격포 18문 등 90문의 각종 포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장총 및 다발총과 함께 개인당 6~8발의 수류탄을 보유하였다.[69]

작전지역인 금성천 남안으로부터 주파령-백암산을 연하는 지대는 해발 500~1,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고, 북한강과 금성천을 연계하듯 동서로 가로지른 백암산-주파령간 능선은 남북으로 분수령을 이뤄 급경사와 협소한 계곡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 능선의 전술적 가치는 금성천 이북은 물론 남으로는 화천에 이르기까지 감제가 됨으로써 중공군이 이를 장악할 경우 3개 사단의 병참 및 작전상 주요 도로인 17번과 103번 도로, 화천에서 북한강 상류에 이르는 선박보급로가 차단되어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였다.[70]

<표 5-17>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3사단장	소장	임선하(林善河)	
	제18연대장	대령	박경원(朴敬遠)	
	제1대대장	중령	김종민(金鍾敏)	
	제2대대장	중령	이은식(李恩植)	
		대위	지선복(池善福)	1953. 7. 13부
	제3대대장	중령	김인걸(金仁杰)	
	수색중대장	중위	황무훈(黃武勳)	
	제22연대장	대령	최택원(崔澤元)	
	제1대대장	중령	이재신(李在信)	
	제2대대장	중령	권익검(權益檢)	
	제3대대장	대위	임판길(林判吉)	대리
	수색중대장	대위	고근영(高根榮)	
	제23연대장	대령	박 철(朴 徹)	
	제1대대장	중령	김재룡(金載龍)	
	제2대대장	대위	강흥중(姜興中)	대리
	제3대대장	중령	김경철(金慶哲)	
	수색중대장	중위	김택룡(金澤龍)	
	사단공병대대장	중령	한광수(韓珖洙)	
	제11포병단장	대령	김 성(金 聖)	배속부대
중공군	제60군장		웨이지에(韋 杰)	
	제180사단장		구안준팅(官峻亭)	
	제181사단장		왕쳉한(王誠漢)	
	제179사단장		우시홍(吳仕宏)	

이 기간 중의 기상은 여름 계절풍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도가 높았으며, 계속되는 강우와 아침저녁으로 발생하는 짙은 안개로 시계는 40m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항공지원은 물론 소로나 신설도로가 진흙탕이 될 뿐만 아니라 산길이 차단되어 부대기동에 제한을 주었다.

2) 전투 경과

금성돌출부의 우견부에 배치된 중공군은 7월 3일을 기해 529고지(관망산)를 확보하자, 대규모의 공격작전을 중지하고 소규모의 정찰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제3사단은 7월 6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된 중공군의 정찰활동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관망산 지역을 담당한 우일선의 제23연대 지역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공군이 자신들의 공격대상으로 삼은 제23연대의 방어편성상의 취약점을 찾으려는 행동이었다.[71]

제3사단은 중공군의 이러한 정찰활동 외에도 심상치 않은 활동을 포착하였다. 중공군이 이 지역의 여름철 기상 특징인 일출 무렵의 안개를 이용하여 북한강 계곡에서 일선 연대에 이르는 하판(下板)-과호동(科湖洞)간 도로의 연장 작업을 실시중인 것과 7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2개 연대로 추산되는 병력이 남하한 것, 그리고 7일부터 12일 사이에 보급품을 만재한 차량 62대가 남하하는 것 등을 관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항공관측으로 적이 포진지를 전방으로 추진 중인 것과 13일 T-34 전차 4대가 과호동 부근에 출현한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72]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사단장은 중공군의 공세가 임박하였음을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73]

> 당면한 적은 근간에 이르러 화력과 장비를 계속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23연대 전투지역에 대한 탐색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들의 침공은 절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의 주공은 제23연대 정면으로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사단은 방어중점을 우일선인 제23연대에 두고 적을 진지 앞에서 분쇄하려 한다.
> ① 제23연대는 적의 주공방향으로 예측되는 100번 도로를 제압하기 위해 대전차방

어계획을 추진하고 철저한 야간경계를 실시하는 한편 적의 조기와해를 위해 529고지 남록의 전진진지를 강화하라. 화력의 우선권은 제23연대에 둔다.

② 제22연대는 현 진지를 보강하고 인접부대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되, 공용화기는 명령에 의해 우일선인 제23연대를 증원할 태세를 갖추라.

③ 제18연대는 저지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역습계획 "가"안(제23연대 정면)에 의한 출동태세를 갖추라.

④ 제11포병단은 사격의 우선권을 제23연대에 두라.

⑤ 전차중대(-)는 제23연대지역에서 대전차방어에 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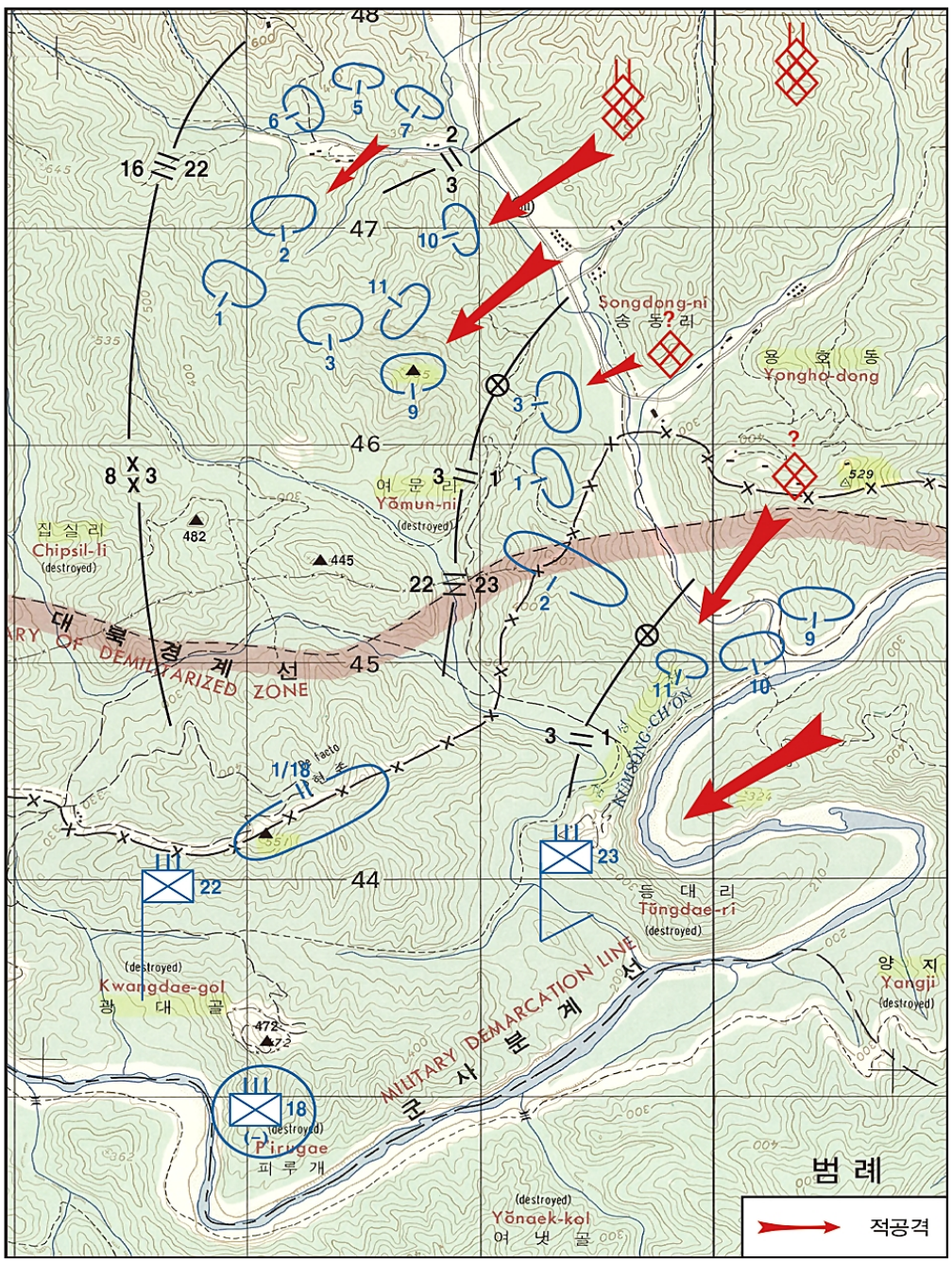
⑥ 공병대대는 제23연대에 2개 중대를 직접 지원하여 진지구축과 전차진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적 기계화부대의 침공을 격파할 장애물을 설치하라. 또한 1개 중대는 제22연대를 직접 지원하여 진지구축과 적의 접근을 방해할 장애물을 설치하라.

중공군은 7월 9일부터 수십 문의 직사포로 국군 주저항선에 구축된 각종 호에 대한 파괴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3사단 장병들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여러 징후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맞서 싸우기에는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었다. 이는 관망산 전투에서 많은 병력손실이 발생하였고, 특히 이들 중 고참병이 3/4을 차지한데 원인이 있었다.

1953년 7월 13일 21시를 기해 중공군의 포격이 제3사단의 주진지인 507고지와 485고지 일대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적의 포격은 평소와 달리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사단의 주저항선뿐만 아니라 사단의 예비연대 지역까지 강타하였다. 이로 인해 예비연대인 제18연대 제2대대장이 중상을 입었고, 일부 대대 OP와 연대 OP간의 유선이 단절되었다.

중공군의 포격은 점점 주저항선 후방지역으로 연신되었으며, 21시 15분에는 사단의 방어지역 좌단에 배치된 제23연대 제9중대 청음초에서 우인접 제5사단 제35연대 전방의 북한강 연안에서 드럼통을 굴리는 듯한 금속성을 청취하였다. 그로부터 5분 후 사단의 좌일선인 제22연대 지역에서는 제6중대의 1개 소대가 포로획득을 위해 진지 앞에 위치한 송정리 계곡으로 진출하던 중 전방에서 이동하고 있는 중공군 2개 중대를 발견하고 포격을 요청하여 이를 분산시켰다.[74]

<상황도 5-8> 여문리 부근 전투시 중공군의 침공



또한 21시 40분에 사단 FSCC는 주저항선 전방 300~500m 거리에 있는 송동리(松洞里)-용호동 계곡에 배치된 제22연대 청음초에서 적 발견을 알리는 신호탄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그 우측방의 용호동 쪽으로 나간 제23연대 제3중대의 잠복조로부터 진지 앞에 출현한 중공군 1개 소대와 교전이 개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포병의 제압사격을 이 두 곳에 집중하였다.[75]

중공군이 출현한 이곳에는 사단의 주저항선 중앙부를 절토하여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가 있었다. 이 도로는 주저항선으로부터 포병진지를 거쳐 후방의 17번 국도와 연결된 제3사단의 생명선으로서 제23연대 제1대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이 도로가 중공군의 돌파목표였다. 제23연대는 이때의 포격과 교전을 대규모 공격의 전초전으로 보고 예비대대인 제2대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제1대대의 후사면으로 진출시켜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사단장은 예비연대인 제18연대에 출동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76]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감행하는 중공군

22시에 중공군은 사단의 예상을 뒤엎고 좌일선 제22연대의 제1대대와 제3대대 정면을 각각 1개 대대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우일선 제23연대 지역은 중대규모

이하의 공격만 보고될 뿐 큰 접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단은 제23연대에 대한 공격을 양공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공군 제181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제22연대 제3대대 방어지역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한편 제23연대를 포위공격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우인접 제5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쪽으로 우회시켰다.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한 지 25분이 지난 22시 25분에 갑자기 수 미상의 중공군 무리가 제23연대의 주저항선 후방에 출현하였다. 이들은 제23연대에 우인접한 제5사단 제35연대 제1대대의 전초선 쪽으로 금성천을 도하하여 배후로 침투한 병력이었다. 이들은 때마침 507고지 남쪽에서 사격 중이던 제3중박격포중대 진지를 기습하여 불을 지르고, 이어 부근에 위치한 연대 CP마저 기습하여 기능을 마비시켰다.[77]

이와 동시에 중공군은 제23연대 주저항선 정면에도 대대규모 이상의 대부대를 투입시켜 제1대대 전초선을 돌파하고 계속 주저항선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시켰다. 그리고 공격개시 1시간 후에는 제23연대 제3대대의 주저항선에 배치된 제10중대와 제11중대 주저항선 1㎞ 전방의 관망산 8부 능선에 추진 배치된 제9중대 사이로 깊숙이 침투하였다. 이로 인해 제9중대는 완전히 적중에 고립되고 말았다. 이 무렵 제23연대의 우인접 제5사단 진지는 건재하였지만, 좌인접 제22연대의 485고지에서는 중공군이 이미 주저항선을 점령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오르고 있었다.

7월 1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제9중대의 안전한 철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제23연대 제3대대장은 대대의 81㎜ 박격포진지와의 유무선이 일시에 두절되어 대대의 화력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제23연대의 배후로 진출한 중공군이 제3대대의 81㎜ 박격포진지뿐만 아니라 그 300m 좌측에 있는 제3대대의 전방탄약고를 기습 점령함으로서 야기된 것이었다. 이처럼 제23연대 CP 부근이 초토화되자, 연대는 후방지역의 방어력을 중강하기 위하여 507고지 쪽으로 출동시킨 제2대대에서 1개 중대를 차출하여 연대 후방에 출현한 중공군을 섬멸하고 연대의 후방지역의 경계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78]

한편 주저항선 정면의 중공군은 그동안의 파상공격에서 손실을 입은 병력을 보충한 듯 02시가 넘자, 맹렬한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맞서

제9중대는 사격방향을 뒤로 전환하여 후방 주저항선의 양 중대를 공격하고 있는 적의 배후에 일격을 가하였다. 이때 때마침 제10중대의 좌측방으로 진출한 제1전차소대의 전차가 주저항선과 관망산의 제9중대 사이의 계곡으로 진입하여 직사포화를 적에게 집중하였다. 그리고 주저항선의 양 중대는 산 중턱에 설치해놓은 네이팜통을 터뜨려 몰려드는 중공군에게 화공을 가하였다.[79]

이와 같이 양 중대가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화공으로 중공군을 격퇴하는 동안 관망산 8부 능선의 제9중대는 재빨리 주저항선의 대대 OP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이는 제10중대를 공격하고 있는 중공군의 후미를 역포위하기 위한 기동이었다. 이 철수는 제3대대가 점증하는 중공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하기 직전에 완료되었다.

제3사단 제22연대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중공군

한편 중공군은 좌일선 제22연대가 일선에 배치한 제2대대와 제3대대 정면 중 좌일선 제2대대 정면에는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견제만 하는 동안 우일선 제3대대 진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일거에 주저항선을 돌파하였다. 이는 인접부대와의

전투지경선을 이루고 있는 취약지점인 금성천을 통해 우일선 제23연대의 주저항선 공격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었다.[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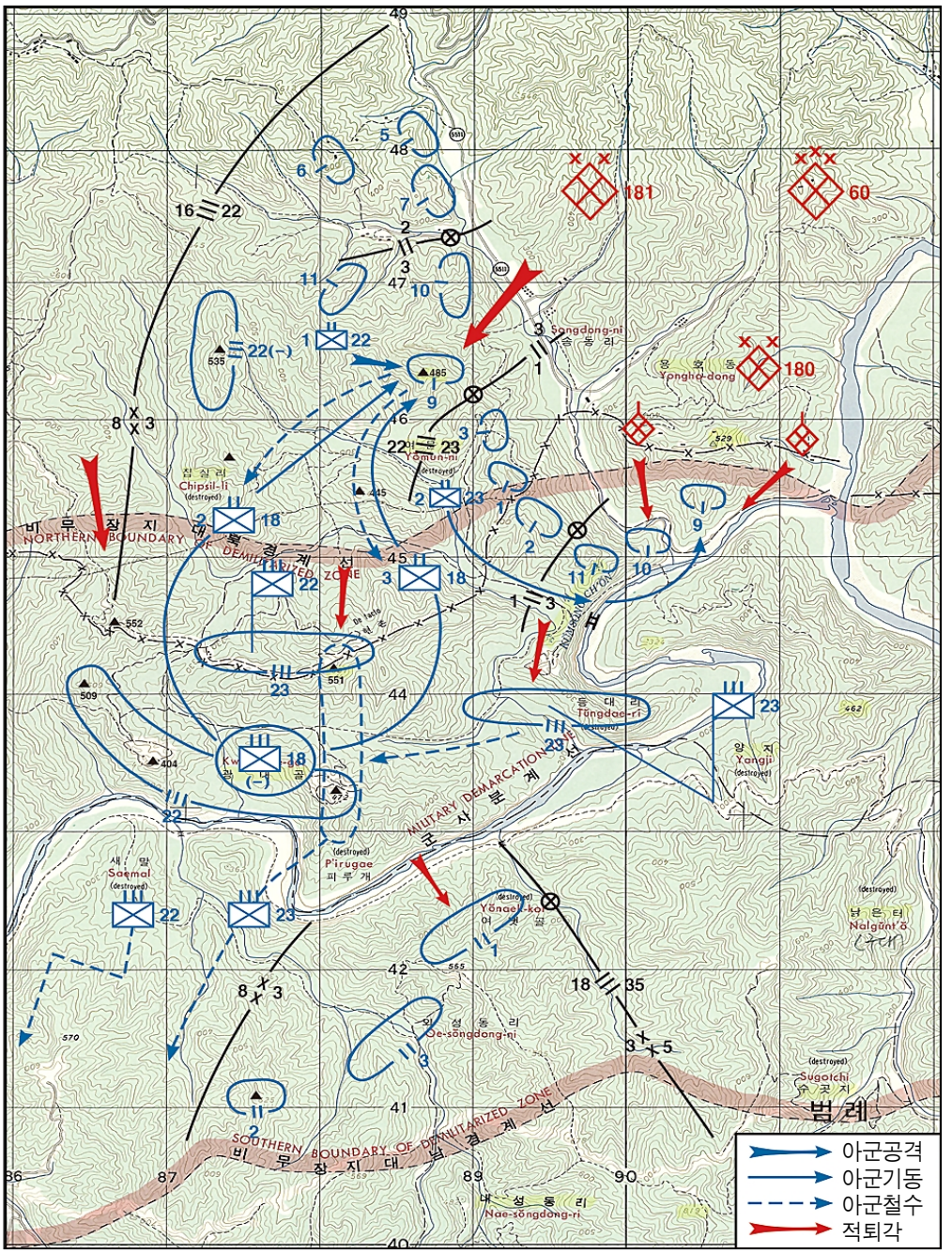
중공군은 공격개시 2시간 만에 제22연대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후방지역을 완전히 교란하였다. 제22연대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은 7월 13일 21시 40분에 우인접 제23연대와 인접한 제9중대 정면의 잠복조가 접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시작되었다. 연대는 직접지원포병 제11대대에 제압사격을 요청하여 포격을 집중하였다.

22시에 제3대대 제9중대와 제10중대는 각각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맹렬한 포격을 수반한 기습적이면서도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이로써 양 중대는 교전이 벌어짐과 동시에 수류탄전으로 돌입하였다. 그리고 교전이 개시된 지 10분 만에 제3대대는 인해공격으로 밀어붙이는 적을 격퇴하기 위해 최후저지사격에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공군은 제10중대의 주진지 일각을 돌파한 후 진내로 돌입하였다.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즉각 예비대인 제1대대에 역습을 명령하였고, 22시 10분에는 제10중대의 요청에 의해 포병의 진내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약 10분도 안된 시점에 제10중대의 진지 일부가 피탈되면서 중대 진지의 균형이 와해되었다. 이때 중공군의 포격이 더욱 치열해져 제22연대 OP와 제23연대 OP간의 유무선이 두절되어 일선 중대의 상황파악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자정 무렵까지 제3대대의 일선 3개 중대진지는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증강된 적에 의해 차례로 돌파되었고, 목표 점령을 알리는 중공군의 신호탄이 연속하여 솟아올랐다. 이와 동시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역습을 위해 제3대대 진지로 이동하고 있던 제1대대마저 좌인접 제8사단의 지형능선 쪽으로부터 쇄도한 적의 기습을 받고 분산되었다. 또한 제1대대 OP가 중공군 2개 소대의 기습공격으로 교전 끝에 철수하였다.[81] 이로써 제22연대는 7월 13일 자정을 전후하여 제2대대만이 적중에 고립되어 진지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주저항선으로부터 전면 철수를 개시하였다.[82] 이로 인해 제22연대의 우일선 대대지역에 중공군의 돌파구가 형성되자, 제3사단장은 7월 14일 00시 20분을 기해 제18연대장 박경원(朴敬遠) 대령에게 즉각 이를 봉쇄하도록 지시하였다.

<상황도 5-9> 여문리 부근 전투(지연전)



한편 주저항선에서 전면철수를 개시한 485고지 지역의 제3대대와 역습 도중에 중공군의 역공으로 분산된 제1대대는 약 1.5㎞ 후퇴하여 연대 CP 우측방 일대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 대대의 철수와 집결은 이미 그곳까지 진출한 중공군의 침투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그 결과 대다수의 병력이 분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통신이 두절된 데다 어둠 그리고 무질서한 철수 등으로 인해 포병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제3사단의 주저항선 중앙부 1개 대대 진지가 돌파되어 적의 선봉이 제2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사단은 다음날인 14일 동이 틀 무렵까지 나머지 주저항선은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인접 제5사단 지역으로 우회한 중공군이 우일선 제23연대의 후방지휘부와 지원시설을 유린한 후 좌일선 제22연대의 제3대대 진지를 돌파한 중공군과 05시에 상호 연결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제3사단의 주저항선 배후가 완전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단장은 06시를 기해 전면적인 철수를 명령하였다.

한편 예비연대인 제18연대는 제1대대를 주저항선 1.6㎞ 후방의 482고지-551고지를 잇는 제2방어선에 배치하고, 제2대대와 제3대대를 551고지 1㎞ 후방의 광대골에 집결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7·13공세가 개시되었을 때, 제3사단장은 중공군의 주공방향을 판단할 수가 없어 14일 00시 20분에 예비연대의 제2대대를 좌일선 연대지역으로, 제3대대를 우일선 연대지역으로 각각 진출시켰다. 이때 사단의 제2선에 배치된 제1대대 지역에 각종 포탄 6,000여 발이 집중되어 각 중대의 유선이 두절되었고, 지휘연락은 무선으로만 가능하였다.[83]

7월 14일 02시 20분, 제23연대 지역으로 진입한 제3대대의 전위인 제9중대는 552고지 동측방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곳까지 침투한 수 미상의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제9중대가 40분에 걸친 교전을 벌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대대장은 제10중대를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의 진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대장은 551고지에 배치된 제1대대와 연계한 선에 대대를 전개하였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날 무렵 대대규모로 보이는 중공군 공격 선봉이 주저항선에서

밀린 일선 대대들이 철수하여 편성한 제2방어선까지 진출함으로써 쌍방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때 사단장은 때마침 소통된 무전으로 제22연대의 485고지 지역이 돌파되어 그곳의 봉쇄가 시급함으로 제3대대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제18연대장에게 하달하였다.[84]

이에 따라 제3대대는 04시 45분에 551고지 우측방 방어를 제1대대 제1중대에 인계하고 제22연대 쪽으로 출발하였다. 대대는 빗속에 강행된 야간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07시에 지시된 여문리 부근에 진출하여 제2대대와 합류하였다. 여기에서 양 대대는 485고지를 공격하기 위한 대형으로 전개하였으나, 중공군의 집중포격을 받은 데다 일부병력이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제22연대의 낙오병에 휩쓸려 혼란이 야기되었다.[85]

이때 제18연대의 상황은 전방 주저항선상의 485고지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후방의 제2저지선인 551고지선까지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역포위를 당하기 직전이었으므로, 이 위험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연대장은 10시에 사단장의 승인을 받아 역습을 중단하고 철수를 단행하였다.[86]

이 무렵 사단의 상황을 보면, 사단의 좌단 진지는 제22연대 제2대대가 화기중대도 없는 상태에서 사주방어에 임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강력한 포병지원을 받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좌일선 제22연대의 485고지 진지가 돌파되어 이를 회복하려던 제18연대의 역습마저 실패한 상태였다. 또한 우일선 제23연대도 배후를 찔린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대처방안으로 일선 연대와 예비연대를 교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87]

① 사단은 일부 주저항선 병력을 교대시키려 한다.
② 제18연대는 좌일선 제22연대의 우일선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551고지 일원으로부터 무명고지(509고지 북쪽 0.5㎞)에 이르는 선을 점령 확보하라. 제22연대 제2대대와의 교대 시기는 별도로 지시한다.
③ 제22연대는 계속 제2방어선(509고지-434고지-472고지)을 확보하고 측방경계에 임하라.

④ 제23연대는 현 진지로부터 축차 철수하여 제18연대와 연계하여 등대리에 이르는 선을 점령하고 우측방 경계에 임하라.

⑤ 제11포병단은 각 연대의 진지 진입 간 화력지원하고 11:00까지 주파리(동북쪽 1㎞)의 신진지로 전환하라.

이에 따라 제23연대가 우일선, 그리고 제18연대가 좌일선을 담당한 가운데 제22연대는 저지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사단은 금성천 북안에 최후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각 연대에 현 진지를 고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제18연대에 좌측방의 504고지를 위협하는 적을 격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제18연대장은 제3대대에 이 임무를 부여하였다. 명령에 따라 목표 고지로 향하던 제3대대는 좌인접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인 504고지-509고지 능선을 타고 종대로 남하하는 대대규모의 중공군을 관측하였다.

대대는 09시에 포병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긴급항공지원을 요청하여 F-81전폭기 2개 편대의 근접지원을 받아 기총소사와 네이팜탄 공격으로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물러났던 적은 30분도 안되어 전열을 정비한 듯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고, 얼마 후에는 그 규모가 2개 대대로 증강되었다.[88]

같은 시각에 우일선 제23연대는 증강된 2개 연대의 포위공격을 받아 08시 30분에 완전 분산되었다. 여기에 또 한 무리의 적이 제23연대의 우측방으로 금성천변을 따라 배후로 침투함으로써 전세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89] 부대를 수습할 겨를도 없이 일부병력은 금성천을 넘어 무작정 남쪽을 향해 남하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들은 포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계급장을 제거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사병들은 지도나 쌍안경 등을 휴대한 자를 장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사단장은 제23연대가 이탈 직전의 위협에 직면하자 저지진지(509고지-472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22연대를 남안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축차 철수중인 제23연대에 551고지-472고지 간을 점령하여 제18연대와 연계를 이루게 하였다. 이는 우측방으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여 금성천 북안에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의도였다.[90]

이에 따라 제23연대장은 제1대대에 551고지-472고지 간을 방어하여 제18연대와 함께 계곡으로 접근하는 적을, 그리고 제3대대는 472고지 주봉을 포함하여 금성천 강변로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중공군 제60군이 사단의 교두보를 목표로 세 방향에서 협공을 가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비단 제3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단 전역에 해당되어 금성천 북안에서의 철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단은 전선을 조정하기 위해 작전명령을 발령하였고[91], 사단은 이를 근거로 작전지시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하달하였다.[92]

사단은 7월 14일 12:00부로 신주저항선을 점령 확보하려 한다.
① 제18연대는 여내곡을 중심으로 하여 신진지를 점령 확보하라.
② 제23연대는 제2방어선의 우일선에서 무명고지(689고지 0.4㎞)를 고수하며, 사단 예비로써 대기하라.
③ 제22연대는 제2방어선의 좌일선에서 529고지를 확보하며 사단예비에 임하라.

이 지시에 따라 제23연대는 제18연대의 엄호 아래 소성동 목교를 건너 남안으로 철수한 후 재편성에 들어갔으나, 적의 집중포화로 인해 병력이 분산되고 말았다.

한편 제23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제18연대는 집요하게 압축해오는 적의 포위망을 뚫고 13시에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제22연대 제2대대를 제외한 모든 병력이 13시 20분에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신진지를 점령한 제18연대는 연대 OP를 625고지에 두고 우일선에 제1대대를 여내곡(汝乃谷) 부근에, 제3대대를 이와 연계하여 565고지 북쪽 기슭에, 그리고 제2대대를 625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소성동(小城洞)으로부터의 계곡접근을 차단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제1대대는 여내곡으로 침입한 적과, 제2대대는 소성동 계곡으로 접근한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93]

새로운 진지를 점령중인 국군병사들

사단의 명령에 따라 제18연대는 신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으나, 분산 상태에 있던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저지진지 점령에 실패하고 소부대별로 동막동으로 철수하여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자, 금성천 남안의 소성동 부근에서 지원하고 있던 제11포병대대는 09시를 기해 남서쪽 17번 도로상의 추동에 선정된 예비진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포병대대의 이동은 2시간 후인 11시에 완료되었고, 이로 인해 지원화력은 2시간 동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적중에 고립된 제22연대 제2대대는 7월 14일 오후까지 밀려오는 중공군을 계속적으로 격퇴하며 진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탄약과 식량이 고갈되어 더 이상의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대대장은 적중 철수를 결심하고 14시 45분에 순차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 대대는 비교적 격전이 덜한 좌인접 제8사단 지역으로 우회하여 무사히 탈출하였고, 20시에 주파령 부근의 동막동에서 연대주력과 합세하였다.[94]

전반적인 전황을 주시하던 군단은 제3사단이 적의 공세에 직면한 것을 인식하고 금성천 남안에 점령예정인 주진지가 광정면이므로 군단예비인 제5사단 제27

연대를 제5사단 좌일선인 제35연대 제1대대와 제18연대와의 간격에 배치하려 하였다.[95] 그러나 이때는 제5사단이 이미 전투를 수행 중에 있어 작전구역의 방어는 이전 상태로 유지되었다.

금성천 남안의 신진지를 점령한 제18연대는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중공군의 공격을 수차에 걸쳐 격퇴하였다. 중공군은 계속된 중앙돌파가 인명손실만 가져온 채 실패하자, 병력의 일부를 819고지로 우회시켜 배후를 기습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증원 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사단장의 승인 하에 백암산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연대는 7월 15일 05시 30분에 백암산에 이르러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7월 14일 21시에 신진지인 666고지-723고지에 진입한 제22연대는 다음날인 15일 06시에 2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지세를 이용하여 30분간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후방으로 철수하여 집결하였다. 또한 제23연대도 새로운 저지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같은 시각에 동막동을 출발하여 백암산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였다.[96]

이러한 상황에서 군단은 지연전을 도모하는 한편 반격을 준비하면서 제11사단과 제7사단을 새로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군단예비로 제2선 방어에 착수하였다.[97] 이와 함께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예하에 하달하였다.[98]

① 사단은 군단예비가 되어 제2방어선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18연대는 996고지-무명고지(989고지 서북쪽 0.5㎞)간을 12:00까지 확보하라.
③ 제22연대는 895고지-534고지-645고지 간을 12:00까지 확보하라.
④ 제23연대는 758고지-913고지-859고지 간을 18:00까지 확보하라.

이에 따라 제3사단은 지금까지 담당해온 전투정면을 좌우인접 사단인 제8사단과 제5사단에 인계하였고, 이로써 금성천 부근 전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3) 전투 결과

사단은 1953년 7월 15일 19시를 전후하여 예하의 각 연대를 현 집결지인 수상리-어두음리-고둔곡에서 제2방어선인 백암산 일대의 저지진지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제18연대는 996고지를 중심으로 우일선에 제1대대를, 중앙에 제3대대를 그리고 좌일선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여 백암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주파령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사단의 우일선인 제23연대는 제2대대로 758고지-1048고지 간을, 그리고 제3대대는 이와 연계하여 859고지에 이르는 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예비인 제1대대는 1035고지에 위치시켰다. 또한 제22연대는 우일선의 제1대대로 895고지-무명고지 간을, 그리고 좌일선의 제2대대가 이로부터 645고지 간의 능선을 확보하여 주파령과 17번 주보급로를 방어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예비로 어두음리에 두었다. 이와 같이 각 연대가 신진지를 점령하자, 사단은 각 연대에 공병을 지원하여 진지구축과 부대정비에 주력하였다. 이번 전투의 결과, 제3사단이 거둔 종합전과 및 피해는 다음의 <표 5-18>과 같다.[99]

<표 5-18>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추정살상	포로	전사	전상	실종
제18연대	200	800	5	16	86	150
제22연대	1,150	1,000	4	39	189	287
제23연대	1,000	600	4	71	105	199
기 타				8	42	
계	2,350	3,500	13	134	422	636

4. 금성 동남지구 전투(1953. 7. 13 ~ 7. 18)

1) 전투 개요

금성 동남지구 전투는 휴전협정의 체결 직전인 1953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쟁의 최후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중부전선의 국군전선으로부터 위협을 제거하려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중공군 제20병단 제67·제54·제68군과 제3병단 제60군 예하의 4개 사단이 국군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이 방어중인 금성돌출부 선단지역을 침공함에 따라 전개된 지형능선 방어전과 금성천 철수작전 그리고 별우지구 반격작전을 의미한다.

중공군의 최후 공세인 '7·13공세'로 국군 5개 사단은 금성돌출부가 돌파되고 지휘부가 피습되는 등 상황이 위급해짐에 따라 금성천 남안의 백암산과 주파령, 그리고 적근산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신주저항선에서 전열을 정비한 국군 제2군단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미 제8군의 공격목표인 간진현-금성천-462고지를 연하는 아이슬란드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군단은 최초의 진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이 선에 머물게 되었다.

이번 공세의 주공을 담당한 적은 중공군 제20병단 제67군 예하의 제199사단과 제201사단, 제60군 예하의 제181사단이었다. 이들의 병력은 제199사단이 10,200명, 제201사단이 9,500명, 제181사단이 6,000명이었고, 이들은 12개 대대로부터 야포 116문과 박격포 270문의 화력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들 중 제181사단과 제201사단은 장기간에 걸친 전투로 병력소모가 심해 신병보충이 많았으나, 제199사단은 절반 이상이 전투경험이 많은 고참병으로 구성되었다.[100]

반면에 국군 제8사단은 송실리-612고지-690고지 간 약 4㎞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다. 사단은 송실리 계곡과 여문리의 500고지에서 우인접 제3사단과 협조하고, 690고지 서쪽 능선에서 좌인접 제6사단과 연계하였다. 또한 사단은 제16연대를 우일선에, 제10연대를 좌일선에, 그리고 제21연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제16연대는 우일선에 제2대대를, 좌일선의 제3대대를 612고지에, 그리고 612고

지의 북사면에 제1대대를 배치하였다. 제10연대는 우일선에 제3대대를, 좌일선에 제1대대를 그리고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585고지에 배치하였다. 제21연대는 송실리-상산리 간의 일련의 능선에 예비진지를 급편하고 우일선에 제1대대를, 좌일선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광대곡에 예비인 제2대대를 두었다.[101]

<표 5-19>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8사단장	소장	송요찬(宋堯讚)	
	제10연대장	대령	이관식(李寬植)	
	제1대대장	소령	김학동(金學東)	
	제2대대장	소령	최태수(崔泰守)	
	제3대대장	중령	김이수(金二洙)	
	제16연대장	대령	안병건(安秉健)	
	제1대대장	중령	오형근(吳衡根)	
	제2대대장	중령	이수춘(李秀春)	
	제3대대장	중령	박두성(朴斗成)	
	제21연대장	대령	성정모(成正模)	
	제1대대장	중령	송제근(宋濟根)	
	제2대대장	중령	김찬성(金粲聲)	
	제3대대장	중령	김봉서(金鳳棲)	
		소령	문무상(文武相)	1953. 7. 20부
	제8중포중대장	대위	이계형(李啓亨)	
	사단수색중대장	중위	홍종헌(洪鍾憲)	1953. 7. 13한
	사단공병대대장	중령	구명회(具明會)	
	제12포병단장	대령	이백우(李白雨)	배속부대
중공군	제67군장		마 룡(馬 龍)	
	제199사단장		리슈이칭(李水淸)	
	제200사단장		리 징(李 靜)	
	제201사단장		마후이(馬 輝)	
	54군장		리후아밍(李化民)	
	제135사단장		겡즈강(耿志剛)	
	제60군장		웨이지에(韋 杰)	
	제180사단장		구안준팅(官峻亭)	
	제181사단장		왕쳉한(王誠漢)	

작전지역의 주요 지형은 690고지-교암산을 연하는 능선과 867고지-백암산, 적근산 그리고 북한강과 금성천 등을 들 수 있다. 사단의 주저항선인 663고지-690고지-교암산 능선은 방자에 유리한 횡격실을 이루고 있어 효과적으로 화력을 운용할 경우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강요할 수 있었다. 또한 작전기간 중 기상조건은 하기계절풍이 습기찬 열대성 기류를 동반하여 짙은 구름과 장시간에 걸친 강우로 시계의 제한을 주었고, 금성천 계곡의 수량 증가로 기동에 큰 장애가 되었다.[102]

2) 전투 경과

(1) 지형능선 방어전(7. 13 ~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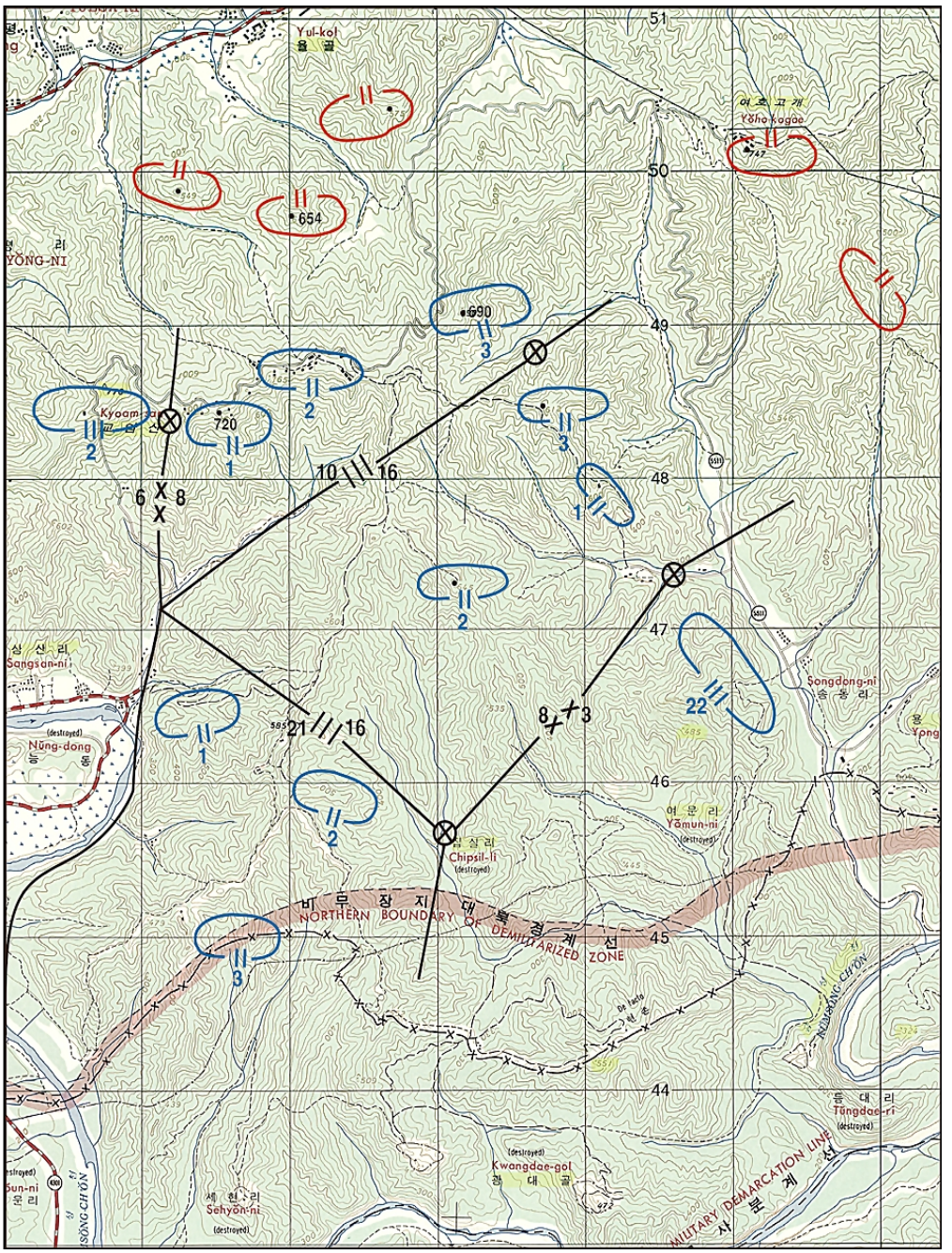
지형능선 전투는 금성돌출부 선단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제3사단과 제8사단 중 오른쪽 제8사단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제8사단의 주저항선은 이 지형능선을 중심으로 대략 십자형으로 형성된 능선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부의 교차지점에 690고지가 위치하고 있다.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지형능선이, 동쪽으로 612고지 능선이, 남쪽으로 605고지-585고지-479고지 능선이 그리고 서쪽으로 765고지를 거쳐 교암산에 이르는 능선이 뻗어 있다.

제8사단 지역 내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좌일선 제10연대는 좌인접 사단인 제6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이루는 금성천 좌안의 17번 도로를, 우일선 제16연대는 우인접 사단인 제3사단 지역 내에 있는 집실리-광대골 도로를 주보급로로 이용하였다.

제8사단장 송요찬 소장은 690고지를 포함한 좌측의 765고지 능선에 제10연대, 우측의 612고지 능선에 제16연대 등 2개 연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고 제21연대를 690고지의 남쪽 능선인 585고지-479고지 지역에 예비로 배치하였다.

한편 7·13공세에서 제8사단 정면에 출현한 중공군은 제67군 예하의 제199사단 및 제201사단 일부와 우인접 제3사단 지역을 돌파하여 제8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침투한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81사단이었다.

<상황도 5-10> 국군 제8사단의 배치 현황



7월 13일 22시에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이 제8사단의 주저항선 전역에 집중되어 사단 내의 거의 모든 유선이 두절되었다. 중공군의 포격은 특히 지형능선 지역을 담당한 제10연대의 연대 OP가 위치한 좌일선 제2대대 지역과 지형능선을 방어하고 있는 제3대대 지역에 집중되었다.

중공군은 치열한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이에 돌격선으로 접근한 다음 사격연신과 함께 국군의 전초와 주저항선을 동시에 공격하는 상용전법을 제8사단 지역의 공격에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제10연대는 좌로부터 제7중대, 제21연대 수색중대 및 제11중대 등의 중대 전초와 제10중대의 제1소대 또는 제11중대의 제1소대와 같은 여러 개의 소대 전초를 주저항선 200~700m 전방 능선에 배치하여 전초선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들 전초 중 지형능선에 배치된 제3대대 제10중대 제1소대가 중대 진지에서 북쪽의 중공군 전초인 575고지 쪽으로 뻗은 돌출 능선에 나가 있었다.

이 소대 전초는 7·13공세 개시와 함께 집중된 중공군의 치열한 포격으로 중대와의 유선이 두절되었다. 이후 소대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백병전과 진내사격으로 격퇴하여 진지를 고수하였다. 소대는 진지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소대원의 1/3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소대는 일출 때까지 10여 명의 중공군을 생포하였으며, 수없이 많은 중공군의 시체를 5중 철조망 부근에서 발견하였다.[103]

일출직전에 소대장이 상황파악을 위해 중대로 보낸 전령은 무사히 돌아왔으나, 일출 후 다시 보낸 전령은 중공군의 사격을 받고 되돌아왔다. 포위된 것을 직감한 소대장은 전초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소대를 이끌고 중대가 배치된 주능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그곳까지 진출한 중공군의 기습적인 집중사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다행히 분산된 소대원들은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피신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 피신한 소대원들은 이틀 동안 낮에는 숨고 밤에만 남쪽으로 이동한 끝에 금성천을 건너 본대와 합류하였으나, 북쪽으로 철수한 소대원들은 끝내 탈출하지 못하였다.[104]

이러한 상황은 다른 전초에서도 일어났다. 대부분의 중대 및 소대 전초들도

주저항선 부대가 철수할 때, 고립된 이들 전초를 구출하지 못하거나 혹은 철수명령을 내려주지 않은 채 철수함으로써 최후까지 싸우다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이는 우일선의 제16연대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전초진지가 격전을 치루고 있는 동안 주저항선의 전황은 초전부터 수습이 힘들 정도로 악화되어 갔다. 교전 1시간 30분 만에 제10연대 주저항선 우단에 있는 690고지 전초가 중공군 2개 대대의 인해공격을 받아 피탈되었고, 좌단 제1대대의 진지와 같이 있던 연대 OP가 중공군의 포격과 별동대의 기습을 받았다. 이때 연대 OP에 나가 있던 연대장과 지휘부는 중공군이 호 속으로 투척한 수류탄 폭발로 대부분이 부상을 입어 연대가 직면한 위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산 아래로 철수하였다.

제9중대가 69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역습을 실시했으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전황은 더욱 악화되어 오히려 제10연대가 확보하고 있던 미주리선의 최고봉인 765고지가 15분간의 백병전 끝에 7월 14일 02시 30분에 피탈되었다. 제10연대는 피탈된 765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02시부터 제2대대의 2개 중대와 제1대대의 2개 중대로 역습을 개시하는 한편 주저항선 전체가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연대인 제21연대 제2대대를 주저항선 1.5㎞ 후방의 606고지로 연하는 동서 능선에 추진 배치시켜 제16연대 예비대대 진지와 연결된 제2저지선을 구축하였다.

한편 역습에 나선 4개 중대는 일기와 지형 등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04시 25분에 765고지를 탈환하였으며, 05시 20분경에는 군단 내의 가용한 모든 포병화력을 이곳에 집중한 화력지원에 힘입어 제10연대 주저항선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에서 700m 전방에 나가 있던 제7중대 전초는 피탈되어 07시 40분에 제5중대가 역습에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사단 우일선 제16연대 지역에서는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마자 중공군 2개 대대가 주저항선의 제3대대 진지 정면에 출현하고, 동시에 주저항선 중앙부에서 V자형으로 뻗은 능선에 전초로 추진 배치된 제1대대 정면에 1개 대대가 출현하여 격전이 벌어졌다. 중공군의 공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병력을 증강하며

격렬해졌고, 자정 무렵에는 주저항선의 제3대대의 최후 저지사격과 탄막사격이 실시되었다.

연대의 전황이 점차 악화되자 연대장 안병건 대령은 예비대대장을 불러 예비대대의 출동준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16연대장은 그때 이미 일부 주저항선이 피탈된 좌인접 제10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있어 일선 대대장들의 간절한 증원요청에도 끝내 예비대대를 투입하지 못하였다.[105]

고지탈환을 위해 역습에 나선 국군병사들

자정이 지나고 7월 14일 00시 30분에 제16연대의 전초대대인 제1대대 OP가 포위되고, 제1중대와 제2중대 진지로 진입한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한 진내사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6연대 진지 일부가 피탈되었으며, 이를 탈환하기 위하여 제3중대가 01시에 역습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전초대대가 고전을 치르고 있을 때 연대의 주저항선에서는 좌단에 배치된 수색중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중공군의 기세는 한풀 꺾였으며, 04시 30분에는 제3중대의 역습도

성공하였다. 30분이 지난 후 제16연대 정면의 중공군은 부대를 재편성하려는 듯 일시 공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일출 후 제16연대의 상황은 주저항선 정면의 교전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대신 07시 35분에는 제16연대가 좌인접 제3사단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주보급로상의 여문리 일대에 일단의 중공군이 출현한 것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1시간 후에는 또 다른 중공군이 예비연대인 제21연대 진지의 측방을 공격할 수 있는 집실리까지 남진한 것이 관측되었다.

연대장은 연대의 주보급로가 완전 차단되고, 연대의 퇴로마저 봉쇄될 위기에 직면하자, 10시 30분을 기해 전초대대인 제1대대를 제3대대의 엄호 하에 주저항선 후방으로 철수시켰다. 11시경 군단장은 군단의 양견부가 완전히 붕괴되고 돌출부 선단지역의 양 사단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예하 사단장들에게 현 주저항선에서 즉각 철수하여 7월 14일 15시까지 금성천 남안에 신주저항선을 편성 완료하라는 철수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106)]

① 제6사단
  ㉮ 7월 14일 14:00까지 신주저항선을 점령하라.
  ㉯ 7월 7일~15일 18:00부로 제11사단에게 현 임무를 인계하라.
② 제11사단
  ㉮ 7월 15일 18:00부로 제6사단의 방어지역을 인수하라.
  ㉯ 기동은 17번 도로를 이용하라.
③ 제8사단
  ㉮ 7월 14일 15:00까지 신주저항선을 점령하라.
  ㉯ 기동 간에 17번 도로를 확보하라.
④ 제3사단은 7월 14일 14:00까지 신주저항선을 점령하라.
⑤ 제5사단은 현 임무를 속행하라.
⑥ 제5포병단은 7월 14일 16:00까지 신주저항선에 대한 화력계획을 재편하라.
⑦ 각 사단은 CP의 위치를 선정한 뒤 즉시 보고하라.

이에 따라 제8사단장 송요찬 소장은 각 연대의 철수시한에 관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107]

① 사단은 군단명령으로 신주저항선의 점령을 7월 14일 15:00까지 완료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14일 11:30에 현 주저항선에서 철수하라.
③ 제16연대는 14일 12:00에 현 주저항선에서 철수하라.
④ 제21연대는 14일 12:00부터 부사단장의 지휘를 받을 것.
⑤ 사단수색중대는 14일 15:00까지 428고지에 집결하라.
⑥ 제8중박격포중대는 14일 09:00에 현 진지를 철수하여 엄호임무를 수행하라.
⑦ 공병대대는 14일 10:00에 각 1개 소대를 각 연대에 배속하라.

(2) 금성천 철수전(7. 14 ~ 7. 15)

군단장의 철수명령이 하달될 무렵의 제8사단 상황은 주저항선의 주력부대가 가중되는 중공군이 압력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황은 주저항선의 상황일 뿐 후방지역의 상황은 이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중공군은 금성돌출부의 우견부를 돌파하여 국군 주력 3개 사단의 병력과 장비가 철수할 유일한 도로인 17번 국도를 차단하기 위해 별우(別隅)로 치닫고 있었다.

국군 제3사단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가 이미 08시 40분에 집실리로 진출하고, 제8사단이 전면 철수를 시작할 무렵에 제16연대 지역 후방의 예비대대 지역 동측방에 위치한 535고지에 1개 중대가 출현하여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수색중대가 출동하였다. 그리고 11시 10분에는 수 미상의 중공군이 예비연대인 제21연대의 후미부대인 제3대대 지역의 동측방에 있는 주요 감제고지인 504고지를 점령하였다.[108]

이의 탈환을 위해 제3대대가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15시 30분에야 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다. 이로써 사단은 주저항선 4㎞ 후방에 동서로 1.5㎞ 간격을 두고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감제고지인 479고지와 504고지 중 우측

고지를 상실함으로써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때 사단이 수립한 철수계획은 제16연대의 예비대대인 제2대대와 예비연대인 제21연대의 엄호 하에 좌일선 제10연대가 주파리로 철수하고, 이어 우일선 제16연대가 철수하여 금성천 남안에 596고지를 연하는 저지진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또한 예비인 제21연대는 596고지의 제16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금성천 남안의 다리골로 철수 집결하게 되어 있었다.

사단장은 철수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사단장인 이용(李龍) 대령에게 제21연대의 전방지휘소인 479고지에서 작전을 통제하게 조치하였다. 부사단장은 각 연대의 철수시간과 경로 등 작전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및 통제하였다.[109]

① 대대단위로 계차 철수하라.
② 제16연대는 우인접인 여문리로부터의 측방충격을 견제하기 위하여 1개 대대로 640고지의 동측을 방어한 다음 집실리-세현리의 경로를 이용하여 철수하라.
③ 제10연대는 640고지-585고지-479고지의 경로와 제17번 도로를 이용하여 철수하라.
④ 제21연대는 엄호가 끝나는 즉시로 479고지-세현리의 경로를 이용하여 철수하라.
⑤ 중장비의 철수를 우선하라.

사단의 철수계획에 따라 철수하고 있는 병사들

이와 같은 부사단장의 통제에 따라 제10연대는 제16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11시 30분에 우일선 제2대대가 먼저 철수한 후 뒤이어 중앙일선 제1대대와 좌일선 제2대대가 차례로 상산리(商山里)로 철수하여 제17번 도로를 따라 주파리로 향하였다.

이어 제16연대는 11시 50분부터 주저항선의 제3대대를 먼저 철수시키고, 뒤이어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철수시켜 14시 30분에 금성천 남안의 596고지를 연한 저지선을 점령하기 위해 집결지로 정한 밤성골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1연대는 주저항선 상의 제10연대와 제16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이들을 추격하는 중공군과 맞서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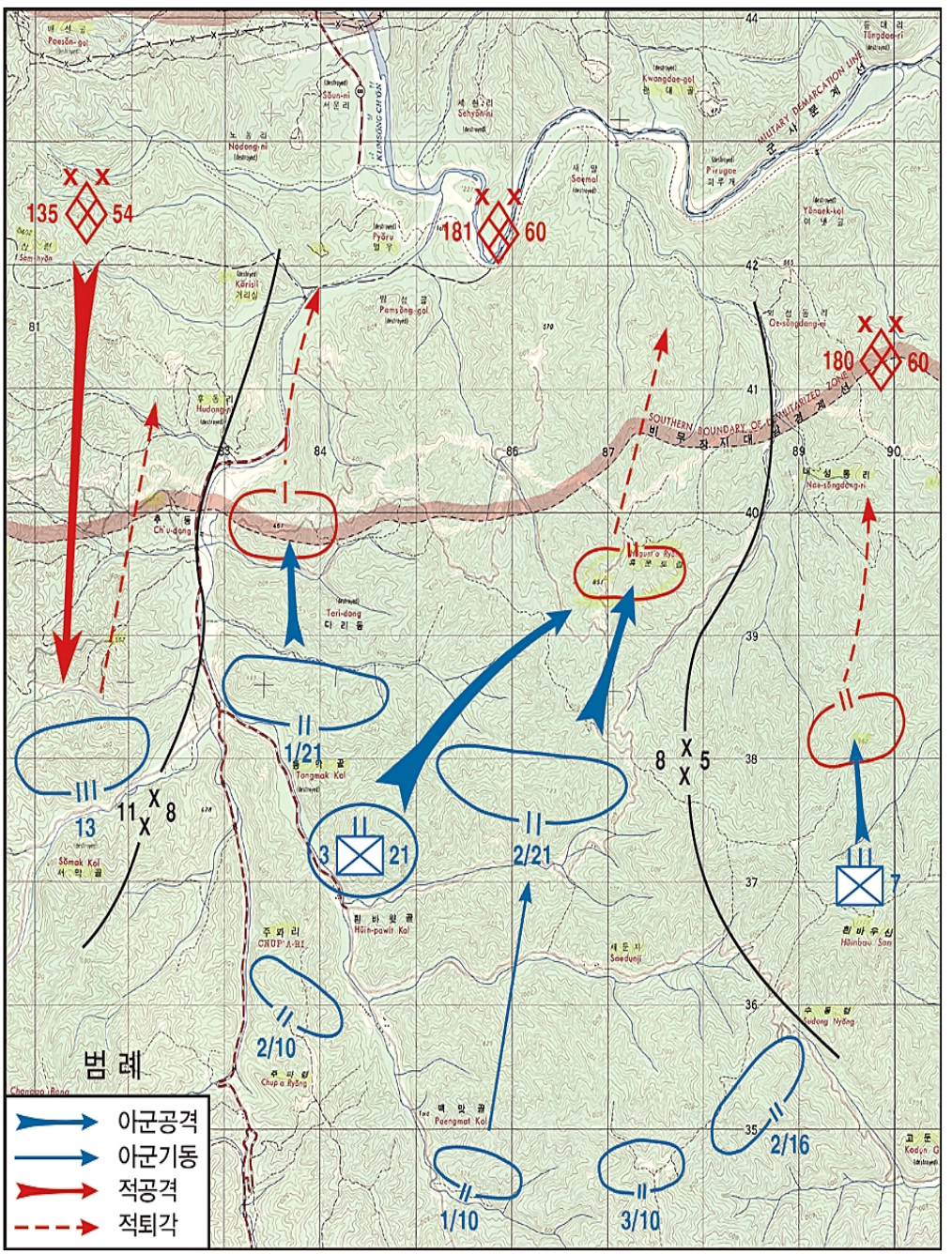
이후 연대는 지형능선을 점령한 다음 십자능선의 남쪽능선으로 남진하여 약 2㎞ 남쪽의 606고지에 출현한 중공군 3개 대대를 제2대대로 저지토록 하였다. 그리고 606고지 뒤의 585고지에 배치된 제1대대 제7중대로 17번 도로쪽 상산리에 출현한 중공군 1개 중대를 격퇴시켰다. 이후 제21연대는 사단의 모든 부대가 금성천 이남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한 후 18시에 마지막으로 금성천을 도하하여 연대가 확보해야 할 주파령의 저지진지를 향해 1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였다.

이때 17번 도로는 15시 45분에 철수를 시작한 제8사단 포병을 비롯한 4개 사단의 포병과 한미 지원부대의 차량 등 3열로 늘어선 차량들로 가득 메워졌으며, 이들 차량 대열의 철수속도는 도보속도보다 느렸다. 또한 곳곳에서 군단이나 사단의 헌병이 낙오자 수습과 차량정리에 나섰으나, 봇물 터지듯 밀려 내려오는 철수 대열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110]

(3) 별우지구 반격전(7. 15 ~ 7. 18)

군단은 주저항선에서 철수하여 와이오밍선에서 전력을 정비한 다음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군단장은 별우를 포함한 그 동쪽 5㎞에 연한 금성천 남안을 제8사단의 목표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반격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11]

<상황도 5-11> 별우지구 반격전(1)



① 사단은 7월 15일 19:00를 기해 공격으로 이전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흑운토령과 461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10연대
  ㉮ 2개 대대로써 제21연대의 진지를 인수하라.
  ㉯ 1개 대대로써 와이오밍선의 좌익을 계속 방어하라.
④ 제16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12포병단은 사단을 일반지원 중인 화력으로 제21연대의 직접지원을 강화하라.
⑥ 기타 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이에 따라 제8사단은 1953년 7월 15일 19시를 기해 주파리 서측방에 진입한 제11사단 제13연대와 연결하여 541고지-666고지-723고지를 잇는 신주저항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의 공격목표는 5㎞ 전방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금성천이었다. 사단이 그곳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851고지(흑운토령)와 그 1.5㎞ 좌측방에 있는 682고지, 그리고 682고지의 1.8㎞ 서측방에 17번 도로를 감제하고 있는 461고지 등의 중간목표를 통과해야만 하였다. 이 공격작전은 흑운토령(黑雲土嶺)을 점령할 경우 이후의 진격은 내리막능선을 따라 일거에 금성천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112]

요충인 흑운토령의 점령임무는 신주저항선에 배치된 제21연대에 부여되었다. 제21연대의 우일선 제2대대가 흑운토령을 공격하고, 중앙일선의 제3대대가 좌측의 682고지를 그리고 좌일선 제1대대가 좌측 끝에 있는 461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이날 제21연대의 야간공격은 제1대대가 좌측방의 461고지를 20시 30분에 점령하고, 우측의 제2대대가 682고지의 1㎞ 서쪽능선을 그리고 제3대대가 흑운토령 1.2㎞ 남쪽의 표고 810m의 'ㄱ'형 무명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13]

① 사단은 반격위세를 강화하려 한다.
② 제16연대

㉮ 주력으로 760고지를 점령하라.

㉯ 7월 16일 13:00에 공병 1개 소대와 제1전차중대의 2개 소대를 통합 지휘하라.

③ 제21연대

㉮ 주력으로 625고지 및 596고지를 탈취하라.

㉯ 7월 16일 13:00에 공병 1개 소대와 제1 및 제3전차중대의 각 1개 소대를 통합 지휘하라.

④ 제10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461중박격포대대의 제4중대는 7월 16일 13:00부터 제16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제1전차중대

㉮ 7월 16일 13:00에 1개 소대를 제16연대에 배속시키라.

㉯ 동일부로 1개 소대를 제21연대에 배속시키라.

⑦ 제3전차중대는 7월 16일 13:00에 1개 소대를 제21연대에 배속시키라.

⑧ 사단공병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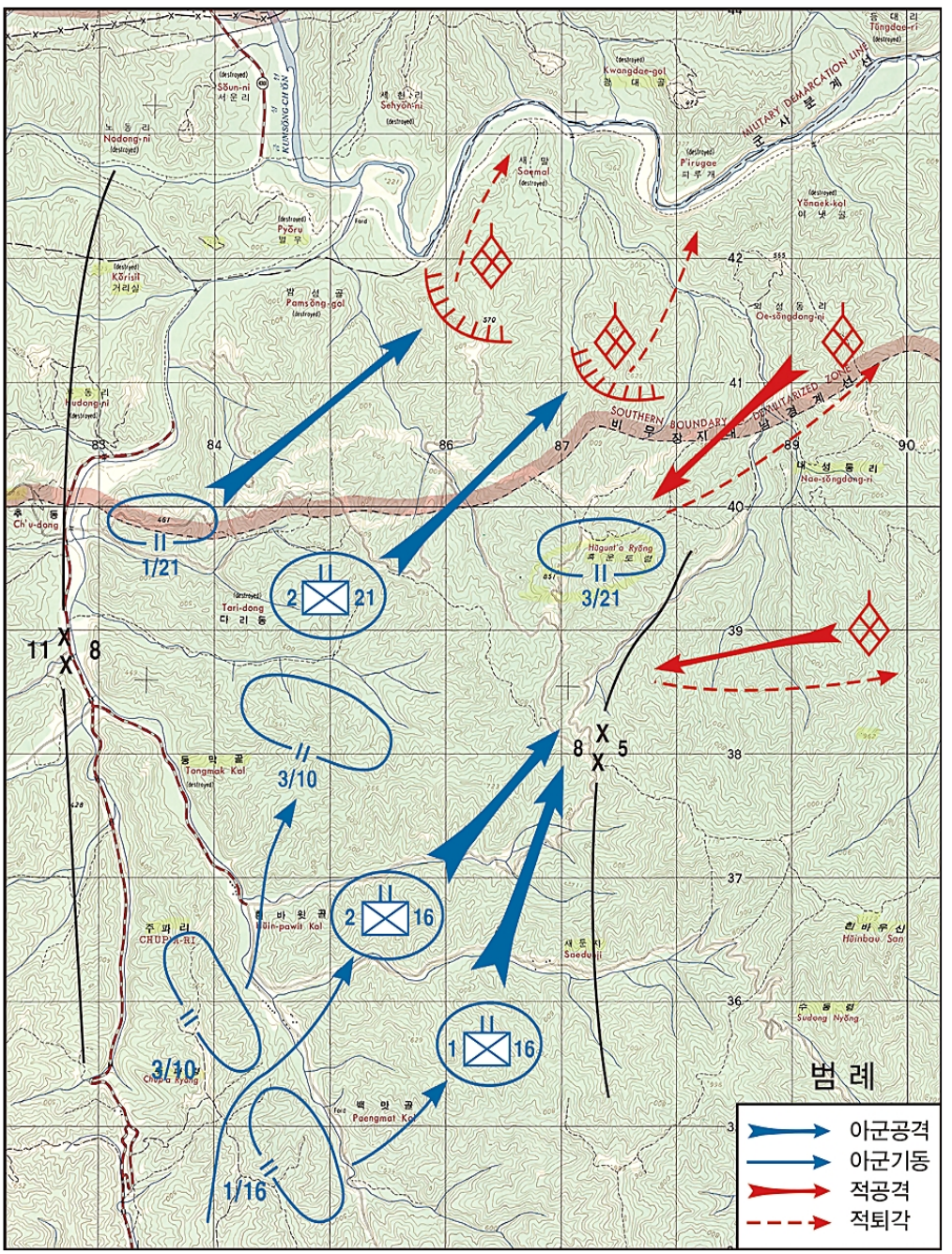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7월 16일 13:00에 각 1개 소대를 각 연대에 배속시키라.

다음날인 7월 16일 사단은 공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제21연대에 흑운토령과 그 북서쪽의 596고지로 이어진 능선을 목표로 계속 공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16연대를 흑운토령 우측방으로 새로 투입하여 무명고지에서 남동쪽으로, 600m 떨어져 있는 안부(760m)와 1.2㎞ 떨어져 있는 백암산 좌측 지봉(1118m)을 목표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날 아침 'ㄱ'형 무명고지의 제2대대 제6중대는 0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집요하게 공격해 온 중공군의 역습으로 고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부대를 수습한 다음 10시 40분을 기해 반격을 개시하여 종일토록 격전을 펼친 끝에 17시경 'ㄱ'형 고지를 탈환하였다. 하지만 2시간 후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격렬한 전투 끝에 다시 고지를 상실하였다.

<상황도 5-12> 별우지구 반격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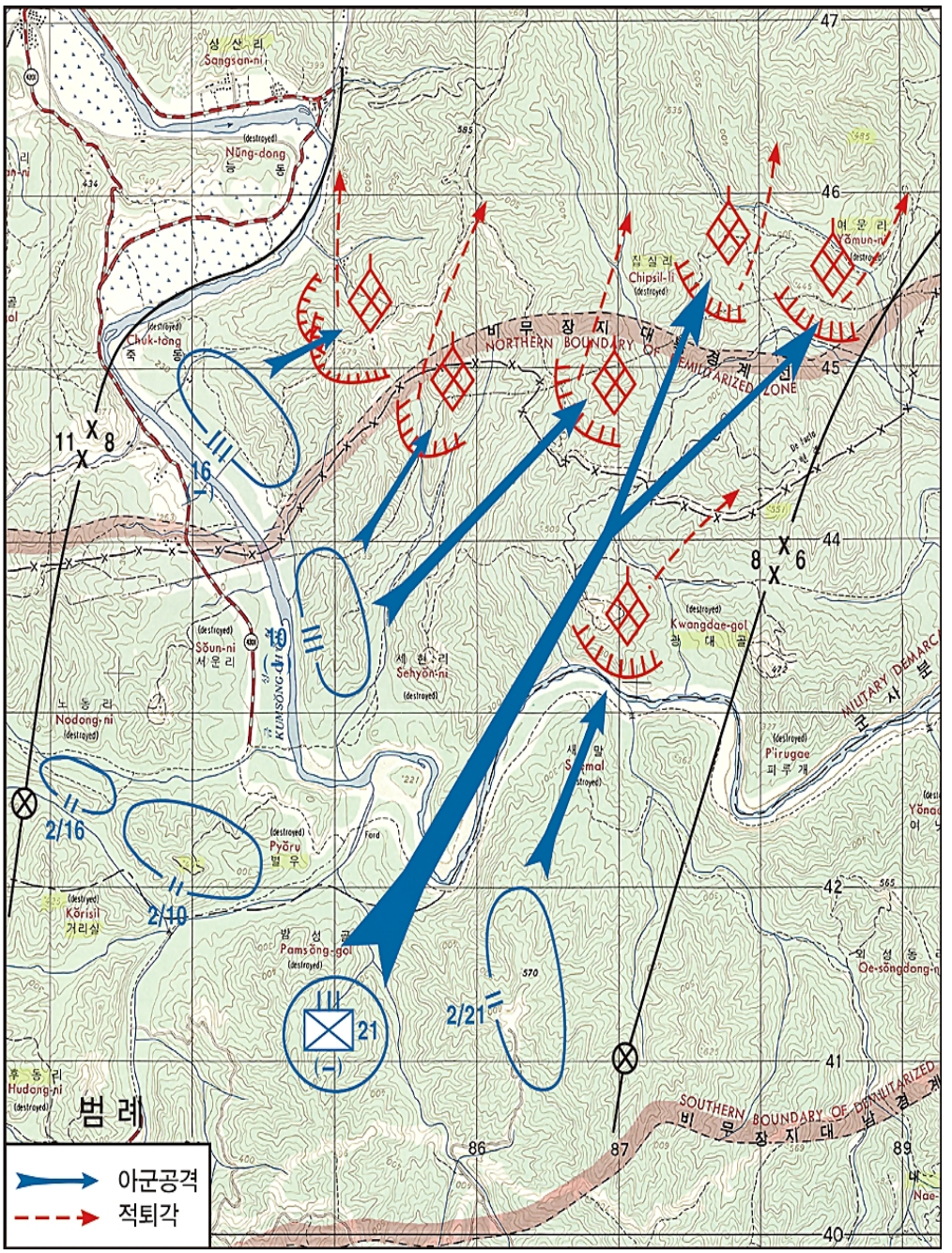
이날 제21연대는 제2대대가 흑운토령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격의 발판인 'ㄱ'형 무명고지를 상실하였으나, 제3대대가 흑운토령 좌측의 695고지와 682고지를, 제1대대가 682고지 북쪽 1.1㎞ 지점의 596고지를 점령함으로써 흑운토령의 배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한편 제16연대는 목표고지 산기슭의 공격대기 지점으로 진출하여 다음날에 있을 여명 공격을 준비하였다.

반격 3일째인 7월 17일 정면공격만으로는 흑운토령을 점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제21연대를 흑운토령의 배후로 우회 기동시켜 중공군의 증원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동시에 제16연대를 정면으로 기동시켜 흑운토령을 양면에서 협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제21연대는 05시를 기해 596고지와 682고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13시에 흑운토령의 북쪽으로 뻗은 V자형 능선의 569고지와 625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계획대로 흑운토령의 배후를 차단하였다.

한편 정면공격을 담당한 제16연대는 제3대대로 1118고지를 공격 점령하여 백암산 쪽을 차단한 다음 제1대대로 'ㄱ'형 무명고지를 공격하였다. 대대는 2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14시경 무명고지를 탈취하고 북쪽의 흑운토령 쪽으로 도주하는 중공군을 추격하여 16시 30분에 흑운토령마저 점령하였다.

금성지구 전투전적비

<상황도 5-13> 별우지구 반격전(3)



이와 같이 흑운토령 점령에 성공한 사단은 일단 이 선에서 공격대형을 재정비하였다. 사단은 제16연대를 우일선으로 하여 계속 흑운토령 이동(以東)지역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흑운토령 배후로 진출한 제21연대의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좌측으로 이동시켜 별우지구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단 예비인 제10연대를 사단의 중앙일선에 투입하여 제21연대의 569고지 지역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114]

3) 전투 결과

사단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16연대를 우일선, 제10연대를 좌일선으로 금성천 남안까지 진출시켜 사단의 반격목표를 완전 점령하였다. 이후 사단은 좌인접 제11사단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406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적정파악을 위한 정찰전으로 전환하였다. 사단은 군단의 전선조정계획에 따라 7월 20일에 좌측방의 596고지 지역을 제7사단 제3연대에 인계하고, 우측방의 462고지 지역을 제6사단으로부터 인수한 후 전선의 변동 없이 금성천을 경계로 중공군과 대치하며 휴전을 맞았다.

5. 적근산-삼현지구 반격전(1953. 7. 15 ~ 7. 19)

1) 전투 개요

적근산-삼현지구 반격전은 국군 제2군단 예하 제11사단이 1953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화천 북방에서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199사단 및 제200사단, 제68군 예하 제204사단, 제54군 예하 제135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여 602고지-금성천 만곡부를 연하는 선을 점령한 공격작전이다.

제11사단은 국군 제2군단의 명령에 따라 1953년 7월 14일부로 주파령(注坡嶺)

및 적근산 일대의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군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다.[115] 이에 따라 군단 예하의 각 사단이 예정된 철수선에 집결하여 재편과 동시에 역습을 준비하는 사이에 사단은 신주저항선에서 적을 저지하여 후방보급로를 차단하고 반격함으로써 군단 우익을 밀고 백암산까지 침입한 적을 고립시키는 한편 국군 제8사단의 역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표 5-20>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11사단장	준장	임부택(林富澤)	
	제9연대장	대령	김영하(金永夏)	
	제1대대장	중령	원용오(元容五)	
	제2대대장	중령	이춘배(李春倍)	
	제3대대장	중령	최규현(崔圭鉉)	
		소령	이헌수(李憲洙)	1953. 7. 15부
	제13연대장	대령	박응규(朴應奎)	
	제1대대장	중령	백경석(白景奭)	
		소령	유동렬(劉東烈)	1953. 7. 15부
	제2대대장	중령	오신춘(吳新春)	
	제3대대장	중령	김유진(金裕鎭)	
	제20연대장	대령	유원식(柳原植)	
	제1대대장	중령	김동옥(金同玉)	
	제2대대장	중령	김명익(金明益)	
	제3대대장	중령	우태화(禹泰華)	
		소령	이인수(李仁洙)	1953. 7. 16부
	연대수색중대장	대위	김이균(金俐均)	
	제55전차중대장	소령	조칠성(趙七星)	
	제20포병단장	대령	이춘경(李春景)	지원부대
중공군	제67군장		마 롱(馬 龍)	
	제199사단장		자이우(齊 武)	
	제200사단장		리 징(李 靜)	
	제68군장		첸팡런(陳坊仁)	
	제204사단장		카오유칭(曹玉淸)	
	제54군장		젱 셍(丁 勝)	
	제135사단장		웨이통타이(韋統泰)	

이때 사단은 우일선의 제13연대를 화천 하로곡(下蘆谷)에서 주파리로 이동시켜 새로운 주저항선을 점령토록 하고, 제20연대를 화천 동지화(東芝化)에서 적근동(赤根洞)으로 이동시켜 예비로 두었다.[116] 또한 제6사단 제7연대로부터 봉화동(烽火洞) 475고지 일대를 인수했던 제9연대는 원대로 복귀하여 현 진지선에서 사단의 좌일선이 되었다. 이어 사단은 7월 15일을 기해 반격을 개시하여 602고지와 금성천 만곡부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함으로써 백암산 정면으로 침입한 중공군의 보급로를 완전 차단하였으며,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이 선에서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사단이 반격을 단행할 때 정면의 중공군은 거의 최종단계에 이른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종결짓기 위해 현 전선에서 대규모적인 공세를 감행한 제60군과 제67군 그리고 제68군 예하의 사단과 새로 투입된 제54군 제135사단 및 제68군 제204사단이었다. 이들은 군단 정면의 넓은 전선으로 침입하여 교암산과 적근산 북쪽지대의 점령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전투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엔공군의 항공작전으로 인해 보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는 저하된 상태였다. 따라서 사단이 금성천 만곡부에서 중공군의 후방로를 차단했을 당시에는 전투력이 거의 마비상태였다.[117]

작전지역은 금성천이 남쪽으로부터 동북쪽으로 흐르고 이와 더불어 주파령의 지맥이 남북으로 뻗어 이 지역일대 해발 500~600m의 능선과 깊은 계곡들이 급경사를 이루었다. 따라서 기동과 보급수송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602고지와 552고지는 양측의 포화로 거의 초토화되어 공격시에 이용가능한 지형지물이 희소하였고, 적의 729고지와 단일선상에 놓여 감제됨으로써 공격에 더욱 불리하였다.

작전기간 중의 기상은 연일 흐린 날씨로 비가 계속되었고, 짙은 안개로 지형판단과 관측이 불가능하여 보포협동작전 및 항공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118]

2) 전투 경과

미 제8군 직할로 화천 일대에서 부대훈련 중에 있던 제11사단은 국군 제2군단에 배속된 후 1개 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는 한편 군단역습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19]

① 사단은 군단 역습에 가담을 준비하려 한다.
② 제13연대는 7월 14일 24:00까지 425고지에서부터 547고지 사이(729고지 및 노동리 일대)에 대한 정찰을 완결하라.
③ 제20연대
  ㉮ 7월 14일 24:00까지 729고지에서부터 하현리 사이에 대한 정찰을 완결하라.
  ㉯ 1개 중대로써 7월 14일 24:00까지 마현 및 삼천봉 일대에 대한 기동수색을 완료하라.

이에 따라 군단의 역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사단은 제6사단의 방어지역을 인수하여 신주저항선을 점령하라는 군단의 새로운 작전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20]

① 사단은 제6사단 방어지역을 인수하고 군단작명에 의거 신주저항선을 공격, 점령하려 한다.
② 미 제5공군 및 군단포병은 요청에 의하여 사단을 지원할 것이다.
③ 제13연대장
  ㉮ 7월 15일 04:00까지 주파리에 이동 즉시 신주저항선 A의 우일선을 점령하라.
  ㉯ D일 H시를 기하여 신주저항선 B(425고지에서 602고지에 이르는 선)을 공격 점령하라.
④ 제9연대장
  ㉮ 연대는 7월 15일 18:00부로 원대복귀와 동시에 적근산 북쪽 두목동 일대의 신주저항선 A의 좌일선을 점령하라.

㉯ D일 H시를 기하여 신주저항선 B(552고지에서 462고지를 연결하는 선)를 공격 점령하라.

⑤ 제20연대는 7월 15일 05:00까지 화천 적근동에 이동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되라.

⑥ D일 H시는 7월 15일 18:00이다.

⑦ 통신은 현행 SOI에 의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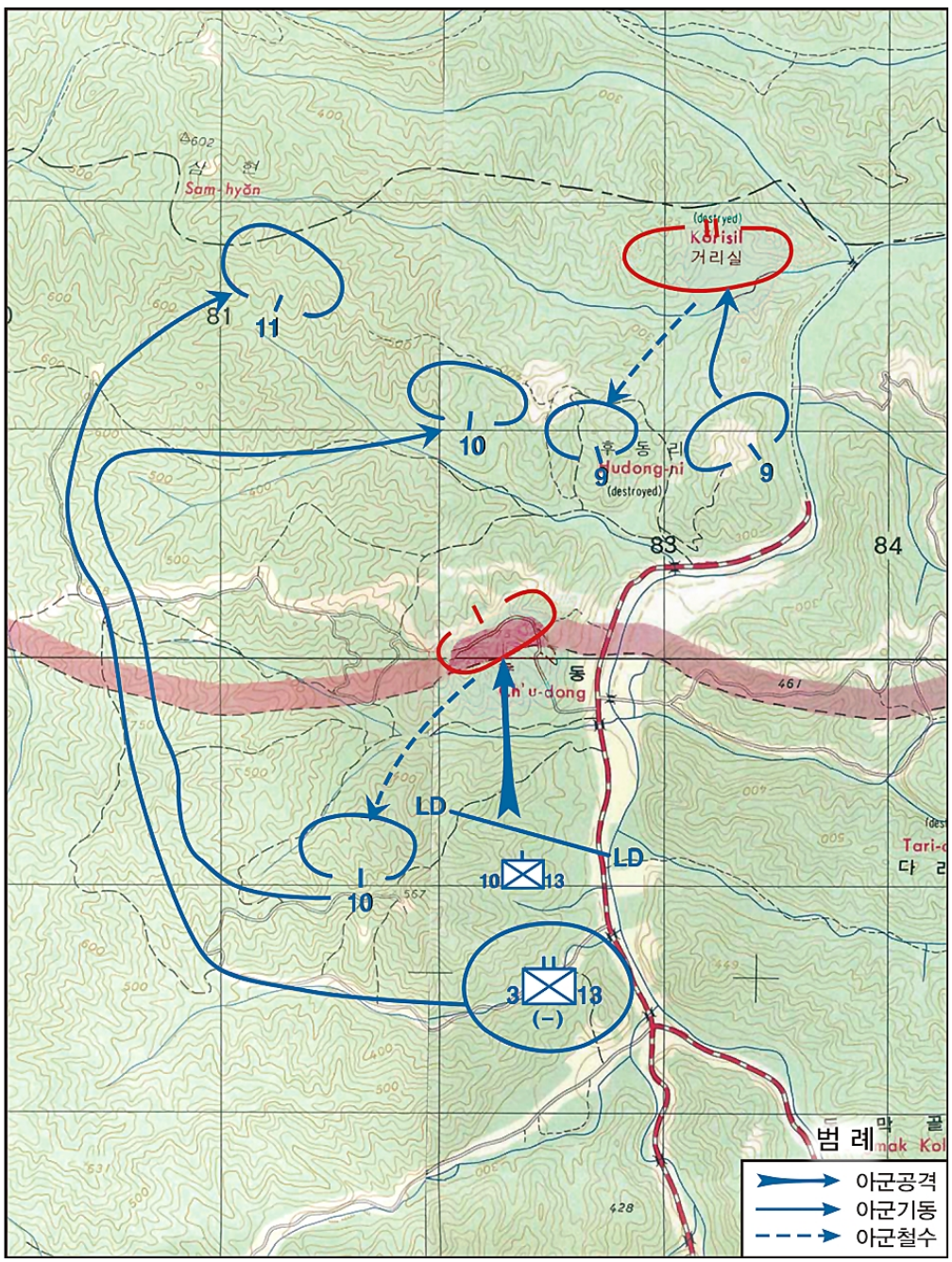
⑧ 사단 전방지휘소는 화천 상서면 산양리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13연대는 7월 15일 04시에 화천 주파리에 진입한 후 제1대대를 750고지-567고지간에, 제2대대를 750고지-797고지 서북쪽 500m선에 각각 배치하고 제3대대를 장고봉(杖鼓峰) 서쪽 기슭에 두었다. 군단명령에 따라 제6사단에 배속된 제9연대는 제7연대의 진지를 인수한 후 중공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7월 15일 05시에 원대 복귀하여 사단의 좌일선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신주저항선 A를 점령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7월 15일 18시까지 신주저항선을 점령 확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121]

사단은 7월 15일 05시를 기해 제13연대에 신주저항선 A의 우일선을 점령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반해 전날 밤에 신주저항선 A의 좌일선을 점령한 제9연대는 좌측의 수도사단을 밀고 내려온 중공군을 측방에서 저지하고 있었다. 사단장 임부택 준장은 반격에 앞서 미 고문관과 함께 미 제3사단을 방문하여 제9연대에 대한 포병지원을 요청한 결과, 사단중박격포중대가 제13연대에 배속되어 직접 지원을 하게 되었다.[122]

제13연대는 제1대대를 우일선의 주파리 서북쪽 567고지-750고지 간에 전개시켰다. 그리고 이 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추동(楸洞) 좌측방 무명고지의 적을 물리치고 일대를 점령한 다음 425고지선까지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제3대대를 중앙일선의 서막동(西幕洞) 북쪽 능선에 전개시켜 425고지 서쪽 1㎞ 지점의 무명고지와 그 일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를 좌일선으로 750고지-793고지 간을 점령한 후 658고지와 602고지를 탈취하도록 지시하였다.[123]

<상황도 5-14> 후동리 부근 전투(1953. 7. 16. ~ 7. 17.)



적정을 탐색한 연대는 좌일선의 제2대대에 602고지(三峴) 일대에 거점을 두고 침입을 기도하는 중공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16시에 제6중대를 750고지 북쪽 하단으로 추진시켜 공격을 개시하였다. 700고지까지 도달한 이들은 진격을 저지하는 2개 소대규모의 적을 제압하고 8부 능선까지 돌진하였다. 그리고 고지정상으로 돌격을 감행하여 백병전을 펼친 끝에 20시 30분에 고지를 탈취하고, 여세를 몰아 200m 북쪽의 무명고지마저 장악하였다.[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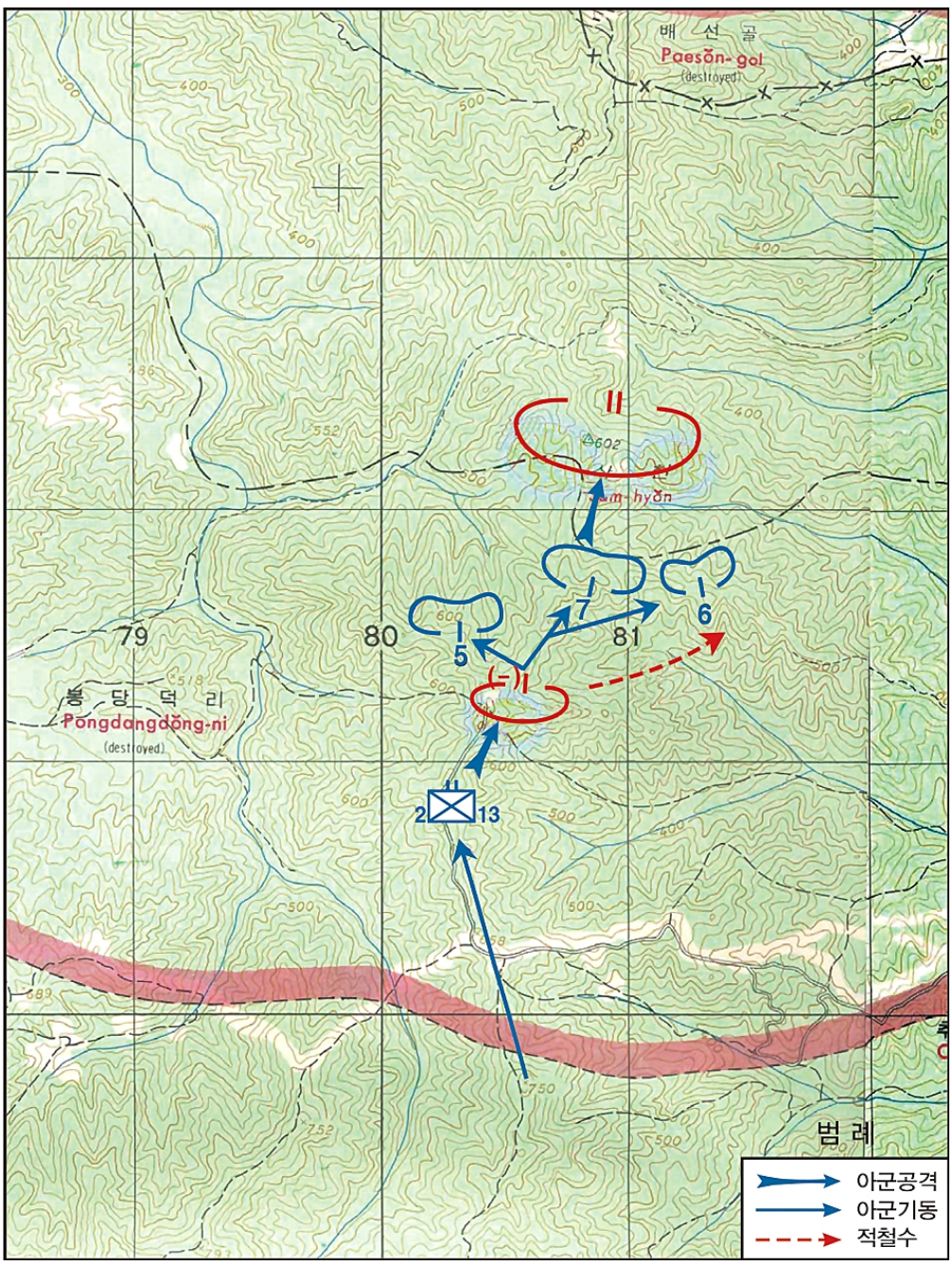
다음날인 7월 16일 제13연대장 박응규 대령은 제2대대에 602고지를, 제3대대에 602고지 동쪽 1㎞ 지점의 무명고지를 각각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제3대대장은 06시를 기해 우일선의 제9중대를 동막동 서쪽의 금성천 연안을 따라 진격토록 지시하였다. 중대는 금성천 서안의 만곡부까지 진출하여 전차로 적을 제압하고 10시에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125]

이 무렵 목표 475고지를 향해 공격에 나선 제10중대는 475고지 남쪽 기슭에서 적의 집중포화로 공격이 좌절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중대를 475고지 서측방으로 멀리 우회시켜 21시 50분에 목표인 무명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퇴로가 차단된 475고지의 적은 야간을 틈타 금성천 너머로 퇴각하던 중 아군의 매복조에 걸려 많은 인명손실을 보게 되었다. 또한 제11중대도 15시에 602고지 동남쪽의 무명고지를 탈취함으로써 대대는 예정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전날 밤 602고지 남쪽의 700고지를 탈취한 제2대대장은 연대장의 승인 하에 야간공격을 실시하기로 작정하였다. 23시에 대대는 포병의 지원으로 목표인 602고지 일대는 물론 그 후방보급로를 차단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제대로 나선 제7중대는 병력을 동서로 우회시켜 공격에 나섰으나, 적의 수류탄투척과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제7중대가 공격한 지점은 이날 전선에 새로 투입된 중공군 제54군 제135사단의 견고한 주저항선이었다.[126]

한편 제9연대는 7월 16일 09시까지 제3대대를 봉당덕리(鳳堂德里)-633고지에, 제1대대를 633고지 북단-간진현(間榛峴)까지 전개하고, 제2대대를 633고지-735고지 간에 종심으로 배치하여 적의 침투에 대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633고지와 462고지 사이에 돌출한 587고지에 1개 중대의 중공군이 위치하고 있었다.

<상황도 5-15> 602고지 전투(1953. 7. 15. ~ 7. 18.)



이에 따라 연대장 김영하 대령은 제3대대에 587고지의 적을 격퇴하도록 지시하였다. 14시를 기해 공격에 나선 제3대대 제11중대는 8부 능선까지 돌진한 후 30분간에 걸친 격전으로 적의 완강한 저항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127]

작전 개시 3일째인 7월 17일의 사단의 전황은 우일선인 제13연대가 602고지 탈환에 실패하고 고지 남쪽 기슭에서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좌일선의 제9연대는 633고지에서 간진현 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3연대의 좌측 북단의 602고지 일대와 제9연대 우측 동북쪽 552고지는 탈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장은 제13연대에 602고지를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제9연대에는 633고지 서측방의 462고지를 점령하여 미 제3사단과 연결하고 552고지에 대한 공격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3연대장은 우일선의 제1대대로 거리실(巨里室)과 금성천 만곡부 서안에 접한 406고지까지를 탈취하도록 하고, 중앙의 제3대대는 425고지를 그리고 좌일선의 제2대대는 602고지를 공격토록 지시하였다.[128]

목표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공격에 나선 국군병사들

이 순간 서측방으로 우회한 일부 병력이 적의 뒤편으로 잠입하여 돌격을 감행하고, 이와 동시에 대대 주력이 정면공격을 실시하자 적은 고지를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20시에 고지를 점령하였다.[129] 또한 거리실 동북쪽의 무명고지 공격에 나선 제3중대도 대대 주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목표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제1대대는 425고지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전날 602고지에 대한 공격에 실패했던 제2대대는 지원 포격이 목표 고지 정상에 작렬하는 가운데 02시 50분부터 제7중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고지의 중공군은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소총과 다발총을 집중사격하며 제7중대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지원포의 사정 연신과 더불어 백병전을 감행하여 적진을 돌파함으로써 04시에 602고지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130] 이후 적의 반격을 격퇴한 대대는 고지 북쪽의 A, B, C고지마저 점령하였다.[131]

공격부대에 대한 포격지원 임무를 수행중인 포병대원들

그러나 17시 30분경 적의 포격이 개시된 이래 22시경에는 3,000여 발의 포탄이 602고지와 대대 OP 일대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0분이 지날 무렵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602고지와 A, B, C고지 정면으로 몰려들어 3면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에 대대장은 A, B, C고지를 방어하던 제5중대에 602고지로 철수하여 제6중대와 함께 적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602고지의 제6중대는 제5중대가 합류하기 전에 고지 동측방으로 침투한 또 다른 중공군에게 고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로써 제5중대는 오히려 적에게 포위되었고, 중대장이 전사하는 어려움 속에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복귀할 수 있었다.[132]

425고지를 탈취하고 602고지를 장악한 제13연대는 어둠을 틈타 역습을 시도한 중공군을 격전 끝에 물리치고 고지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적의 역습을 물리친 연대는 7월 18일 08시 30분에 제1대대 OP를 406고지 서남쪽의 무명고지로 추진시켜 425고지에서 동북쪽 500m선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중앙의 제3대대 OP를 425고지 서쪽 500m 지점의 무명고지로 추진시켜 거리실에서 서측방 1.5㎞선에서 방어에 임하게 하였다.[133]

그러나 전날의 야간공격으로 602고지를 점령한 좌일선의 제2대대는 자정 무렵 증강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다음날인 18일 02시 30분에 602고지를 다시 빼앗기고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 역습준비에 착수하였다.[134] 그러나 연대장은 제반 여건상 제2대대가 602고지를 다시 탈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반격을 유보시키는 한편 사단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제13연대의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구두로 하달하였다.[135]

① 사단은 7월 D일 H시를 기하여 602고지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13연대장
  ㉮ 7월 18일 12:00부로 제20연대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 7월 D일 H시를 기하여 602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20연대장은 7월 18일 12:00부로 예하 1개 대대를 제13연대에 배속하라.
④ D일 H시는 7월 18일 16:00이다.

이에 따라 제13연대장은 배속된 제20연대 제3대대를 15시까지 602고지 남쪽 500m 무명고지로 추진시켰다. 제3대대는 지원 포격이 602고지 일대를 강타하는 가운데 16시를 기해 공격에 돌입하였다. 대대 주력은 3시간이 경과한 후 고지의 8부 능선까지 접근하였으나, 이때 고지 뒤편에 숨어 있던 적이 수류탄을 투척하고 기관총을 난사하며 저항함으로써 부득이 6부 능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30분 후 포격의 지원 아래 공격을 재개하여 백병전을 펼친 끝에 20시 30분경 적을 격퇴하고 602고지를 탈환하였다.[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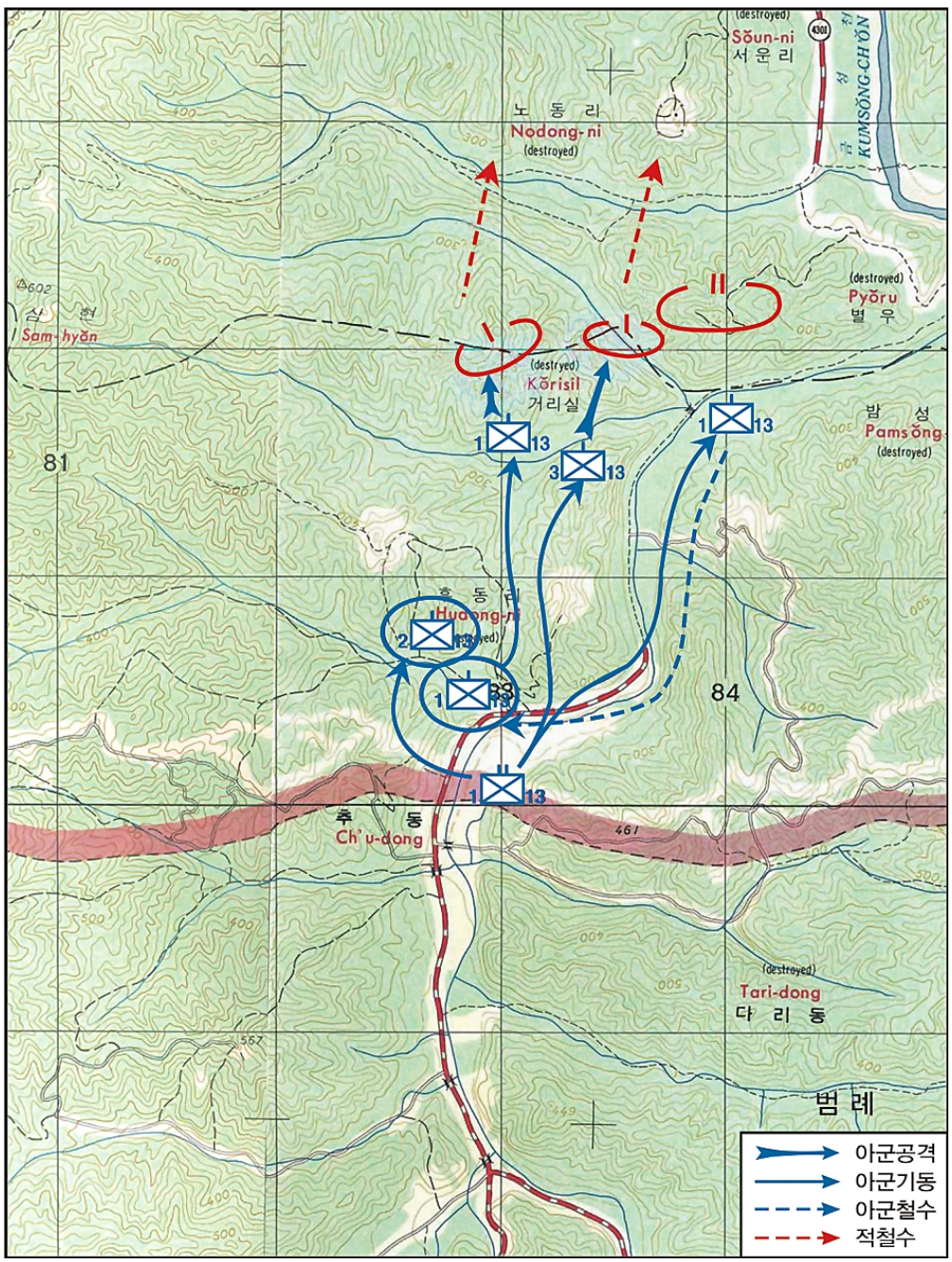
그러나 1시간 후 도주하던 적은 후속병력과 합세한 다음 3면에서 압박을 가하며 진내로 육박하였다. 대대(-1)는 박격포를 이용하여 적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탈취한지 2시간도 못되는 23시 30분에 고지 남쪽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에 사단장은 격노하여 연대장을 힐책하는 한편 602고지의 탈환작전임무를 제20연대에 부여하였다.[137] 사단의 명령에 따라 제20연대장 유원식 대령은 제1대대를 602고지의 남단인 삼현으로 출동시켰다.

한편 제9연대는 01시 30분에 587고지와 663고지 서북쪽에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제2대대와 제3대대가 포병의 지원 아래 이를 격퇴하였다. 연대 수색중대는 아침나절에 519고지로 이동하여 552고지에 대한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552고지는 602고지 못지않은 요충으로서, 방어에는 유리하나 공격에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따라서 중대장은 정면공격과 동시에 동서 양측방에서 배후를 공격하기로 하고 병력을 산개하였다. 이어 지원 포격이 시작되고, 목표 일대에 대한 공군기의 폭격이 실시되는 가운데 20시를 기해 중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고지의 남단에 진출한 중대는 가파른 능선을 기어올라 22시 30분경 8부 능선까지 접근하였다. 이때부터 적은 수류탄과 바위덩어리를 굴리고 기관총을 난사하여 중대의 돌진을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돌격은 불가능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하다고 상황을 판단한 중대장은 특공대를 편성하여 적의 배후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선발된 7명의 특공대가 포복으로 적의 배후로 잠입하여 돌격을 감행하고, 동시에 정면에서 중대 주력이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고지 정상에서 격전이 벌어졌고, 끝내 중대는 23시 50분에 적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138]

<상황도 5-16> 후동리 부근 425고지 전투(1953. 7. 15. ~ 7. 17.)



한편 군단장 정일권 중장은 정면의 적이 후방보급과 함께 병력을 증원하여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단 예비인 제7사단을 투입하여 제11사단의 우일선의 일부 주진지와 제8사단 좌일선의 일부 진지를 인수토록 명령하였다.[139] 군단의 명령에 따라 사단은 우일선의 제13연대 진지를 제7사단에 인계하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예하에 하달하였다.[140]

① 사단은 군단작명 제8호에 의거 제13연대의 작전임무를 제7사단에 인계하려 한다.
② 제13연대장
  ㉮ 7월 20일 04:00까지 주진지를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하라.
  ㉯ 교대완료 후 서막동에 집결하여 사단 예비가 되라.
  ㉰ 7월 19일 06:00부로 예하 1개 대대를 제20연대에 배속하라.
  ㉱ 7월 20일 08:00부로 사단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③ 제20연대장
  ㉮ 연대는 현 담당지역을 조속히 점령 확보하라.
  ㉯ 제13연대에서 7월 19일 06:00부로 배속되는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④ 제9연대장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사단수색중대는 7월 20일 08:00부로 제13연대로부터 배속을 해제, 사단 지휘 하에 복귀하라.

제13연대장은 사단의 명령에 따라 04시에 602고지의 공격임무를 제20연대에 인계하고, 동시에 제20연대 제3대대도 원대복귀 조치하였다. 한편 공격임무를 인수한 제20연대는 제1대대를 602고지 남단 500m까지 진입시키고, 연대 전방지휘소도 658고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사단 박격포중대를 배속받아 화력지원을 증강하였다.

아울러 연대장은 602고지에 대한 제반 상황을 검토한 후 제1대대에 602고지 남쪽 기슭에서 역습을 준비 중인 제3대대와 합세하여 목표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은 제1중대와 제3중대에 공격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존 병력이 1개 중대에 불과한 제3대대에게는 측방지원을 요청하였다.[141]

12시 30분 각종 포화가 602고지 정상에 집중된 가운데 제1대대 제1중대는 목표 고지 정면으로 진격하여 100m 전방에 도달하였으나, 적의 측방화력에 의해 7부 능선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제1중대는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공격에 나섰으나, 적의 화망을 뚫지 못하고 다시 물러나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2차에 걸친 공격이 무위로 끝나자, 대대장은 제3중대를 합류시켜 돌격을 명령하였다. 또한 상황을 주시하던 연대장도 제3대대에 서측방에서 돌격을 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지원요청에 따라 출격한 미 제5공군 F-51기 편대가 3차에 걸쳐 적 후방을 폭격하였다.

이런 가운데 14시 50에 제1대대의 양 중대는 정면과 동측방에서, 제3대대는 서측방에서 돌격을 감행하자, 완강히 저항하던 적은 뿔뿔이 흩어져 A고지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양 대대는 15시 40분에 602고지를 성공적으로 탈환하였다. 이어 제1대대는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며 A고지와 B고지마저 점령하게 되었다.[142]

한편 사단 좌일선의 제9연대 수색중대는 02시 30분부터 3,000여 발의 각종 포탄이 552고지 일대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증강된 2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반격을 받았다. 중대는 포격으로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진지 앞으로 쇄도해오는 적을 맞아 결사적으로 대항하였으나, 탄약이 고갈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 탄약을 보급받은 중대는 07시에 다시 고지탈환에 임하였으나, 고지를 장악한 적이 진지를 보강하고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518고지로 철수하였다.[143]

이처럼 불리한 전세를 판단해 수색중대를 철수시킨 연대장은 07시에 587고지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제3대대의 일부 병력으로 552고지를 탈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은 제9중대를 486고지 남단으로 이동시켜 10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대가 70m 전방까지 진출했을 때 적이 양 측방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집중사격을 가함으로써 중대의 돌격은 교착되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은 5명의 특공조를 선발하여 적의 배후로 침투시켰고, 이들이 적의 기관총 진지를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로 공격하였다. 이 순간을 포착한 중대 주력이 적진

으로 돌격하자, 적은 다음날 00시 50분에 고지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144]

3) 전투 결과

제11사단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우일선 제13연대의 주진지를 7월 20일 04시부로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03시에 425고지 정면에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역습을 가해옴에 따라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3연대는 제1대대가 적의 반격을 격퇴함으로써 06시 40분에 진지를 제8연대에 인계하고 서막동으로 이동하여 사단 예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은 우일선의 제20연대가 602고지 일대를 담당하고 좌일선의 제9연대가 미 제3사단과의 전투지경선에 접한 462고지 선까지 담당하였다.

그러나 7월 20일 02시 50분에 증강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강력한 포격지원과 함께 602고지에 대한 역습을 기도함으로써 제20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로 이를 저지하였으나, 끝내 방어에 실패하고 04시에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좌일선의 제9연대가 방어중인 552고지에서도 03시 50분부터 대대규모의 적이 진지 앞으로 쇄도함에 따라 진내 백병전이 전개되었으나, 점차로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연대는 병력을 고지 서쪽 기슭으로 철수시켰다.

<표 5-21>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실종
			3.5″ 로켓포	HMG	SMG	LMG	60㎜ 박격포			
제9연대	913	9	2		7	5	3	98	479	67
제13연대	1,332	18	3	1	12	23	4	156	739	61
제20연대	879	8	1	3	7	17	2	113	504	59
계	3,124	35	6	4	26	45	7	367	1,722	187

이와 같이 한번에 602고지와 552고지를 빼앗긴 사단은 예비인 제13연대로 이들 고지를 탈환하기로 계획하였다. 명령에 따라 제13연대는 7월 23일 04시에 제1대대로 602고지를, 제3대대로 552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공격에 나선 이들 대대는 목표를 일시 탈환하였으나, 적의 반격에 다시 고지를 내어주고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후 사단은 이들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이들 고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번 작전기간 중 사단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표 5-21>에서 보는 바와 같다.[145]

6. 351고지 전투(1953. 6. 2 ~ 7. 18)

1) 전투 개요

351고지 전투는 휴전협정의 체결을 앞둔 1953년 6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15사단이 351고지를 장악하려는 북한군 제7군단 예하의 제3사단 및 제7사단을 맞아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15사단은 1953년 1월 12일부로 제1군단에 예속됨과 동시에 간성으로 이동하여 부대종합훈련과 정비를 완료하고 차기임무를 대기하던 중 군단명령에 따라 제5사단이 수행하던 동해안지구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146] 사단장 이정석 준장은 방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해안-554고지간의 16㎞에 달하는 방어정면을 양분하여 외면현(外面縣) 이동(以東)에는 제50연대를, 수령(水嶺) 이남에는 제38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39연대를 산정리와 송현리에 예비로 배치하였다. 이후 사단은 부대교대계획에 따라 제39연대를 좌일선에, 그리고 제38연대를 우일선에 재배치하였다.

반면에 당면의 적은 북한군 제7군단 예하의 제3사단과 제7사단으로써 원산지역에서의 해안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제1군단의 뒤를 이어 동부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제3사단을 우익으로 하여 남강 서안의 산악지대에, 제7사단을 좌익으로

하여 그 동편의 구릉지대에 전개하는 한편 제9사단을 통천에 배치하여 예비로 하고 국군 제1군단과 대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단한 탐색과 기습으로 사단정면을 침범하였으나 그때마다 패배를 거듭한 끝에 5월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단과의 접촉을 피하는 듯하였다. 적은 그동안 손실된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고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전투 및 지원부대를 증강하면서 휴전회담의 성숙과 때를 같이하여 351고지를 탈취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 적은 전선에 병력과 부대를 증강하였는데 그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22> 북한군 부대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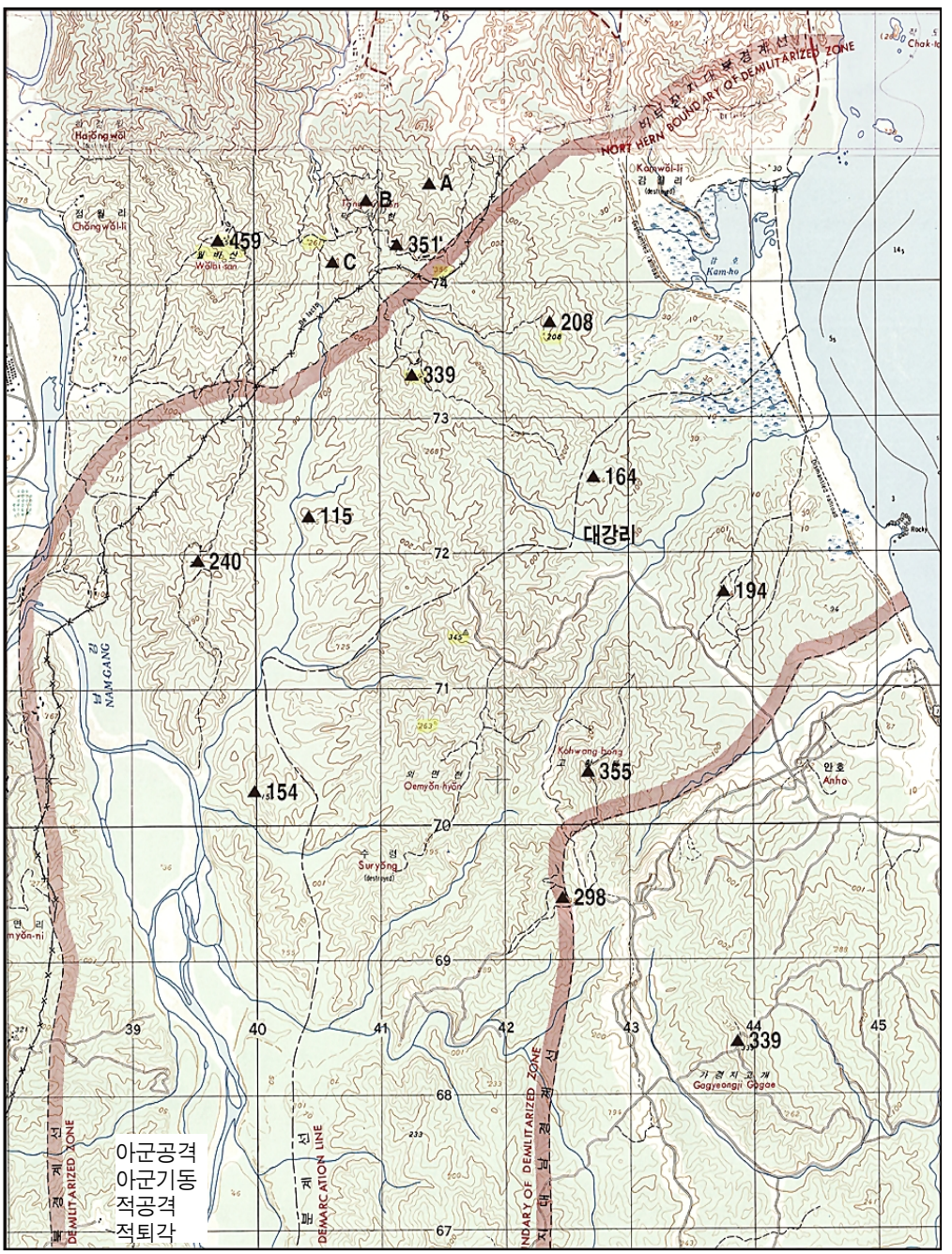
구 분		4월 이전		5월 이후	
		전선	예비	전선	예비
보병	전선사령부 보충대대		3	1	2
	제3사단	4	5	5	4
	제7사단	3	6	4	5
	제9사단				9
	수색대대			1	
	합 계	7	14	11	20
포병	제3사단 포병연대	2		2	
	제7사단 포병연대	3		3	
	제9사단 포병연대		3		4
	합 계	5	3	5	4
증원	제7군단 직속 박격포여단				4
	제7군단 직속 자주포대대				1
	제37사단 포병연대				4
	합 계				9
총 계		12	17	16	33

한편 작전기간 중의 평균기온은 섭씨 15~29도였다. 작전지역의 지형은 남강을 경계로 동저서고(東底西高)를 이루는데, 특히 적이 점령하고 있는 남강 서쪽은 금강산맥이 동서로 뻗어 내린 700~1,000m가 넘는 험준한 연봉들로서 방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저지대를 감제할 수 있는 지형적인 이점이 있었다.

<표 5-23> 국군 제15사단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군단장	중장	이형근(李亨根)	
	제15사단장	준장	이정석(李貞錫)	
		소장	백인엽(白仁燁)	53.6.13부
		소장	최영희(崔榮喜)	53.6.26부
	제38연대장	대령	이동화(李東和)	
		중령	함성렬(咸晟烈)	53.6.4부
		대령	유재성(劉載成)	53.6.17부
	제1대대장	소령	김종구(金鍾九)	
			장익재(張翊梓)	53.6.15부
	제2대대장	소령	황병우(黃炳宇)	
		소령	김종구(金鍾九)	53.6.15부
	제3대대장	소령	이영호(李永護)	
		중령	안택환(安宅煥)	53.6.6부
	제39연대장	대령	박인용(朴仁勇)	
	제1대대장	소령	김창렬(金昌烈)	
	제2대대장	소령	오윤석(吳允石)	
	제3대대장	중령	이홍근(李弘根)	
	제50연대장	대령	조원영(趙原英)	배속부대
	제1대대장	소령	권보형(權保衡)	
	제2대대장	소령	옥창호(玉昌鎬)	
	제3대대장	소령	류치문(柳致文)	
	사단수색중대장	대위	이갑순(李甲淳)	
	제26포병대대장	소령	안병선(安炳善)	지원부대
	제68포병대대장	소령	김창건(金昌建)	
	제99포병중대장	중령	선우순(鮮宇淳)	
	제106중박격포중대장	대위	최순기(崔順基)	
	제56전차중대장	대위	이근화(李根華)	

<상황도 5-17> 351고지 지역 지형도



반면에 아군 지역 내에는 표고 300m 내외의 구릉으로 이루어졌고, 남강이 S자형을 이루며 피아를 동서로 갈라놓아 기동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보급로인 7번 도로가 적에게 노출되고 있었다. 작전지역 내의 주요 지형은 표고 459m의 월비산이 최고봉을 이루고 있으며, 149고지-185고지는 동해에 접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작전지역 내의 도로망은 동해안으로 연해 남북으로 뻗은 7번 도로가 아군의 주요 기동로를 이루고 있었으며, 각 요소요소에는 계곡과 산악을 개척하여 개설한 무명도로가 있어 보급수송에 이용되었다. 한편 작전지역의 기상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가끔 비가 내리고 09시까지는 짙은 안개로 관측과 항공지원에 불리하였다.

2) 전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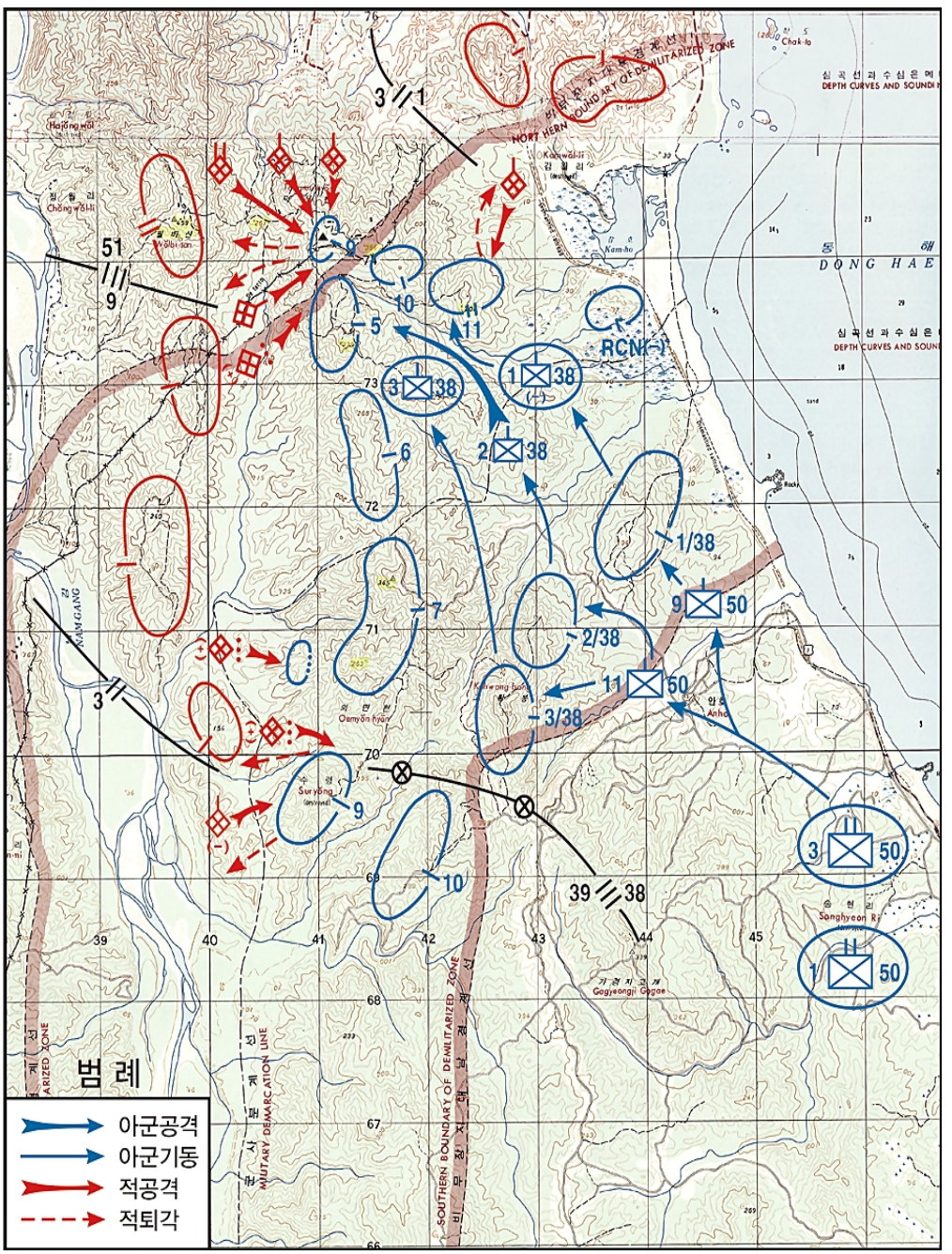
(1) 제1차전(6. 2 ~6. 6)

북한군은 6월 본 공세에 앞서 동해안의 351고지 일대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351고지는 월비산과 더불어 1951년 추계공세 당시 수도사단이 점령한 이래 제11사단과 제5사단으로 방어임무가 인계되는 동안 쟁탈전이 계속된 고지였다. 월비산은 제11사단이 방어할 당시 상실하였으나 351고지는 확보한 채 1953년 1월 30일 새로이 이곳에 투입된 제15사단이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

제15사단은 1952년 11월 8일 창설된 후 편성과 부대교육과정을 거쳐 동해안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이 전투가 전개될 당시에는 제39연대와 제38연대를 남강 남안의 554고지-339고지-351고지-감호선에 배치하고, 제50연대를 예비로 한 채 북한군 제7군단 예하 제3사단 및 제7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당시 351고지에는 동굴화된 벙커와 분대단위의 대피호 및 교통호로 연결된 진지가 편성되어 있었다.

1953년 6월 2일 자정 무렵 북한군 제7사단은 전례에 보기 드문 각종 포화의 맹렬한 지원을 받으면서 제13연대 제2대대가 정면과 측방으로 351고지로 육박하였다. 이 전투에서 생포된 포로에 의하면, “이 대대는 약 2개월 전부터 351고지와 유사한 지형에서 공격예행연습을 실시한 다음 이곳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상황도 5-18> 351고지 전투상황(1953.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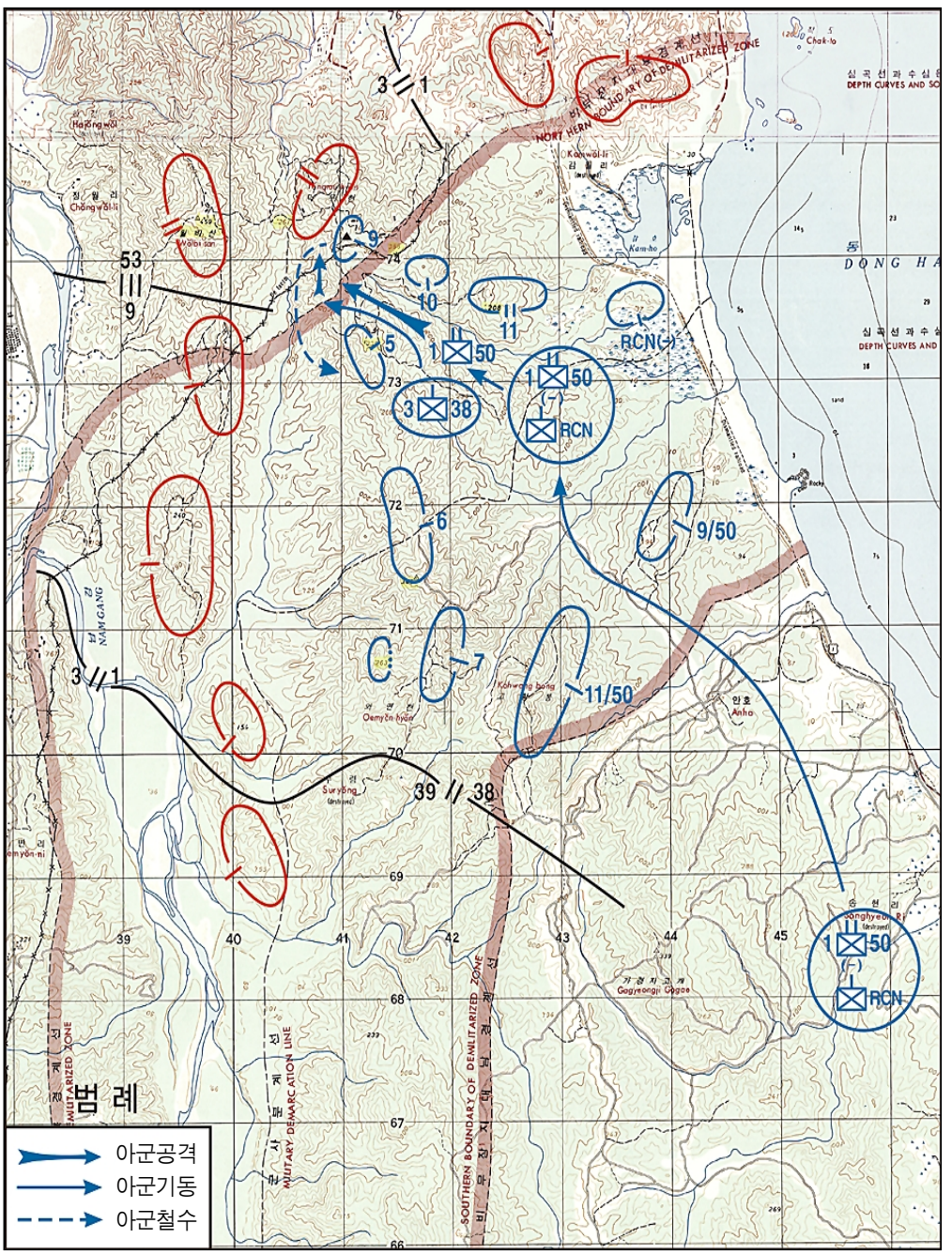
351고지 방어부대인 제38연대 제9중대는 육박전을 벌이다 적이 진지내로 진입하자 01시 30분에 동굴진지로 엄폐한 후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147]

제38연대는 일부 부대로 351고지를 지원하여 방어하였으나 도중에 적의 포격에 실패하고 사단예비인 제50연대 제1대대를 배속받아 6월 3일 03시 20분에 역습을 실시하였다. 적이 진내에 진입한 지 26시간이 경과한 후였다. 제1대대는 사단 포병과 B-29편대의 공중지원까지 받아가며 역습을 펼쳤으나 이미 적이 진지를 점령하고 재편성을 완료한 후여서 많은 사상자만 발생한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148]

제50연대 제1대대는 동해안의 제77 및 제95기동함대의 함포와 함재기는 물론 지원포병이 월비산과 351고지, 그리고 351고지를 위협하는 148고지-187고지 일대에 맹렬한 포격과 폭격을 가하는 동안 재편성을 마치고 6월 3일 14시 30분에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군단장 이형근 준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번에는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이 진두에서 공격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은폐물이 없어 노출된 지형을 횡단할 때 적의 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병사들은 서로 부상자를 후송하려 함에 따라 공격대형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어 공격대기 진지로 철수하였다.[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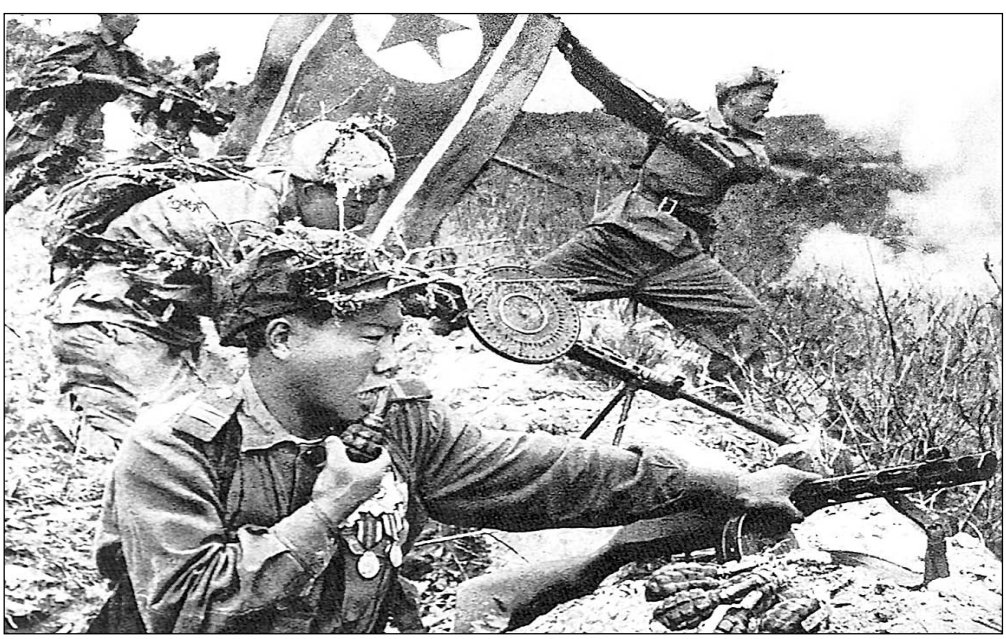
북한군이 구축한 대피호의 모습

<상황도 5-19> 351고지 전투상황(1953.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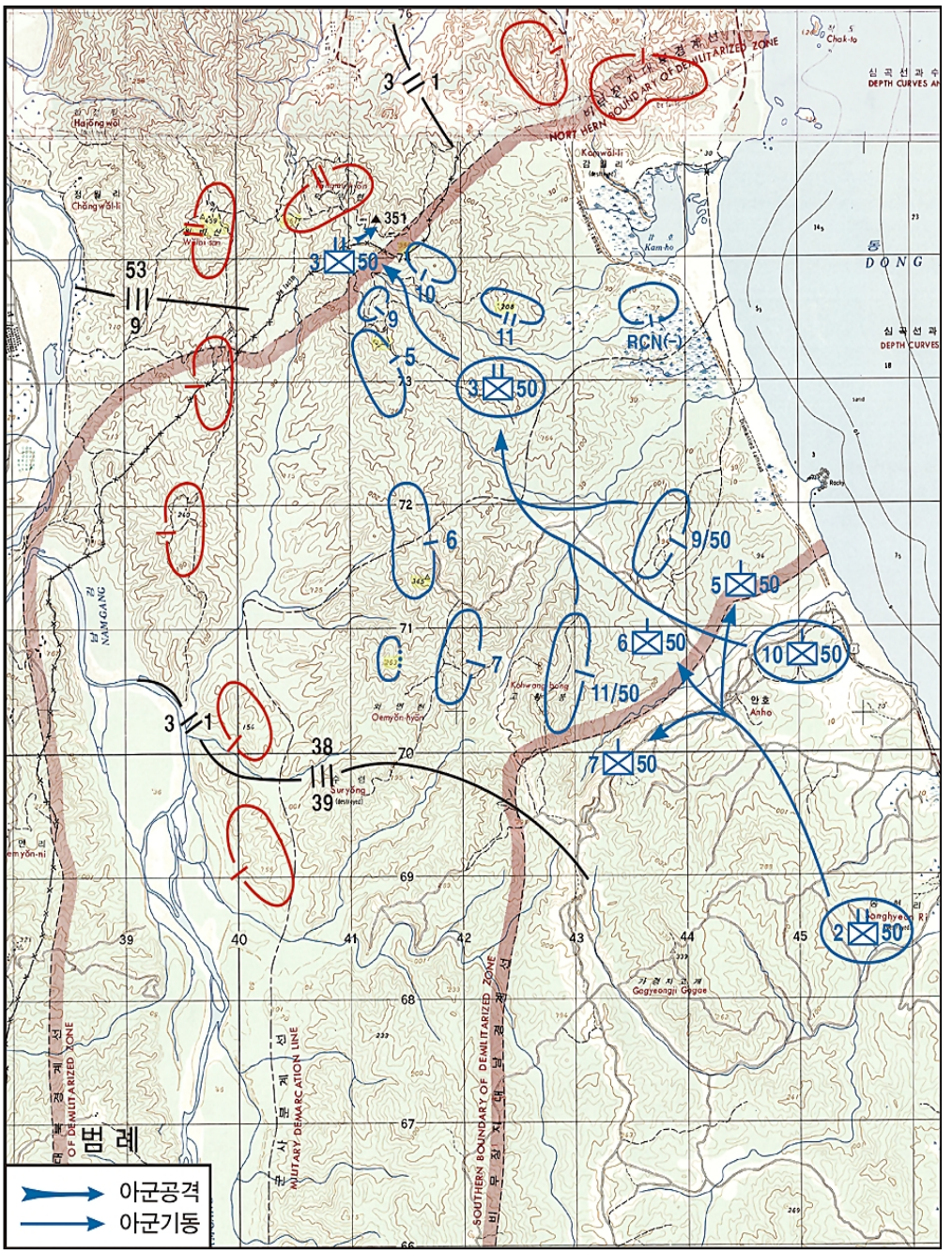
제50연대 제1대대는 병력보충을 받은 후 다음날인 6월 4일 07시에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야간처럼 행동하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번에는 적진에 도달하여 각 중대 특공조가 적의 화기 엄체호를 파괴하고 후속하던 중대원들이 고지 정상으로 육박하였다. 이때 적이 수류탄을 아래로 굴리고 351고지 측후방의 148고지-187고지로부터 지원화력이 집중되자 신병들은 겁에 질려 아래로 내닫기 시작함으로써 다시 8부 능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제50연대 제1대대의 역습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제9중대장과 일부 병력은 진지의 일부를 유지한 채 동굴 내에서 저항하고 있었다. 연대장 이동화 대령은 사단장의 승인 아래 3일 19시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중대는 진내사격이 실시되는 틈을 타 남쪽의 339고지 방향으로 철수하였다.[150] 철수과정에서 11명이 실종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중대원은 무사히 복귀하였다. 사단장은 기필코 351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6월 4일에 사단작전참모인 함성렬 중령을 연대장 대리에 임명하고 351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진지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

<상황도 5-20> 351고지 전투상황(1953. 6. 5.)



신임 연대장은 배속된 제50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로 6월 5일 01시에 야간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대대는 은밀히 전진하여 돌격선까지 진출한 후 적진으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때 적의 진내사격이 집중되고 측방으로부터의 사격에 제3대대는 사상자가 속출하며 혼란이 일어나 목표탈취 일보직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51]

제3대대는 이후에도 2차례나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역시 무위로 끝나게 되었다. 사단장은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사단예비를 모두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음에도 많은 사상자만 발생하였을 뿐 목표인 351고지 탈환에 실패하자 일단 공격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제38연대는 351고지 남쪽 능선을 방어토록 지시하고, 제50연대는 사단예비로 원대 복귀시켜 재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152]

(2) 제2차전(6. 15)

사단장 이정석 준장은 사단에 배속된 제21사단 제63연대에 제39연대를 대신하여 사단의 좌일선 방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39연대(-)를 지경부근에 집결시켜 351고지 공격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토록 한 후 6월 8일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153]

① 사단은 D일 H시 지역 내를 공격하여 주진지를 회복하고, 계속 A, B고지 및 C고지의 적진을 공격하려 함.
② 제39연대(배속 : 사단 중박격포중대, 사단 공병 1개 중대, 제38연대 1개 중대)
  ㉮ 주진지를 회복하고 계속 목표 A, B를 공격하라.
  ㉯ 목표점령과 동시에 진지를 강화하라.
③ 제38연대(배속 : 제21사단 중박격포중대)
  ㉮ 현 진지를 계속 방어하라.
  ㉯ 사격으로서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50연대
  ㉮ 현 수복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부대훈련을 실시하라.
  ㉯ 의명 역습을 감행하라.

⑤ 제63연대(배속 : 제39연대 1개 대대)
  ㉮ 현 진지방어를 속행하라.
  ㉯ 사격으로서 공격을 지원하라.
⑥ 사단 포병단
  ㉮ 제68대대 : 제39연대 직접지원
  ㉯ 제26대대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제68대대를 화력증원하라.
  ㉰ 제67대대 : 제63연대 직접지원
  ㉱ 제99대대 : 일반지원

이에 따라 사단의 전 부대와 배속 및 지원부대는 6월 12일을 기해 집결지로 이동을 완료하고 공격준비에 전념하였다. 이때 이정석 준장의 후임으로 사단장에 보임된 백인엽 소장은 공격개시일을 6월 15일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제39연대의 공격준비상황을 확인하였다.

① 제1대대는 351고지를 탈취하고 계속 B고지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
② 제2대대는 A고지를 탈취확보하고 명령에 따라 제1대대의 B고지 공격을 사격으로 지원하라.
③ 제38연대 제5중대는 C고지를 탈취 확보하라.
④ 공병 제1중대는 최초 208고지에 있다가 제2대대를 뒤따라 근접지원하라.[154]

이어 사단장은 제63연대에 배속한 제3대대를 연대 예비로 확보하고 제50연대 제2대대를 배치하는 한편 화염방사기 조를 편성하여 공격중대에 편입시켰다. 한편 351고지를 확보한 북한군 제7군단은 병력과 장비를 충원하면서 저하된 사기를 회복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진지공사와 보급품 수송에 주력하고 있었다.

계획대로 6월 15일 유엔해군 함대와 유엔공군의 B-29 중폭격기 편대는 공격개시 30분전까지 월비산을 포함한 고성 일대를 초토화하였다. 그리고 각종 지원포병과 전차는 351고지에 근접된 적의 진지를 포격하였다. 10시를 기해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제39연대 제1대대는 30분이 지날 무렵 월비산과 A, B고지 그리고

149고지-185고지로부터 기관총과 직사포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대대는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여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하였다.

제1대대장은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단독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3대대의 지원을 연대장에게 건의하였다. 함재기와 포병의 지원사격에도 제1대대의 공격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지원 병력인 제3대대도 대대장이 부상을 입어 후송되자 사단장은 20시를 기해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에 따라 대대는 철수에 돌입하여 22시에 집결지인 고황봉 동쪽에서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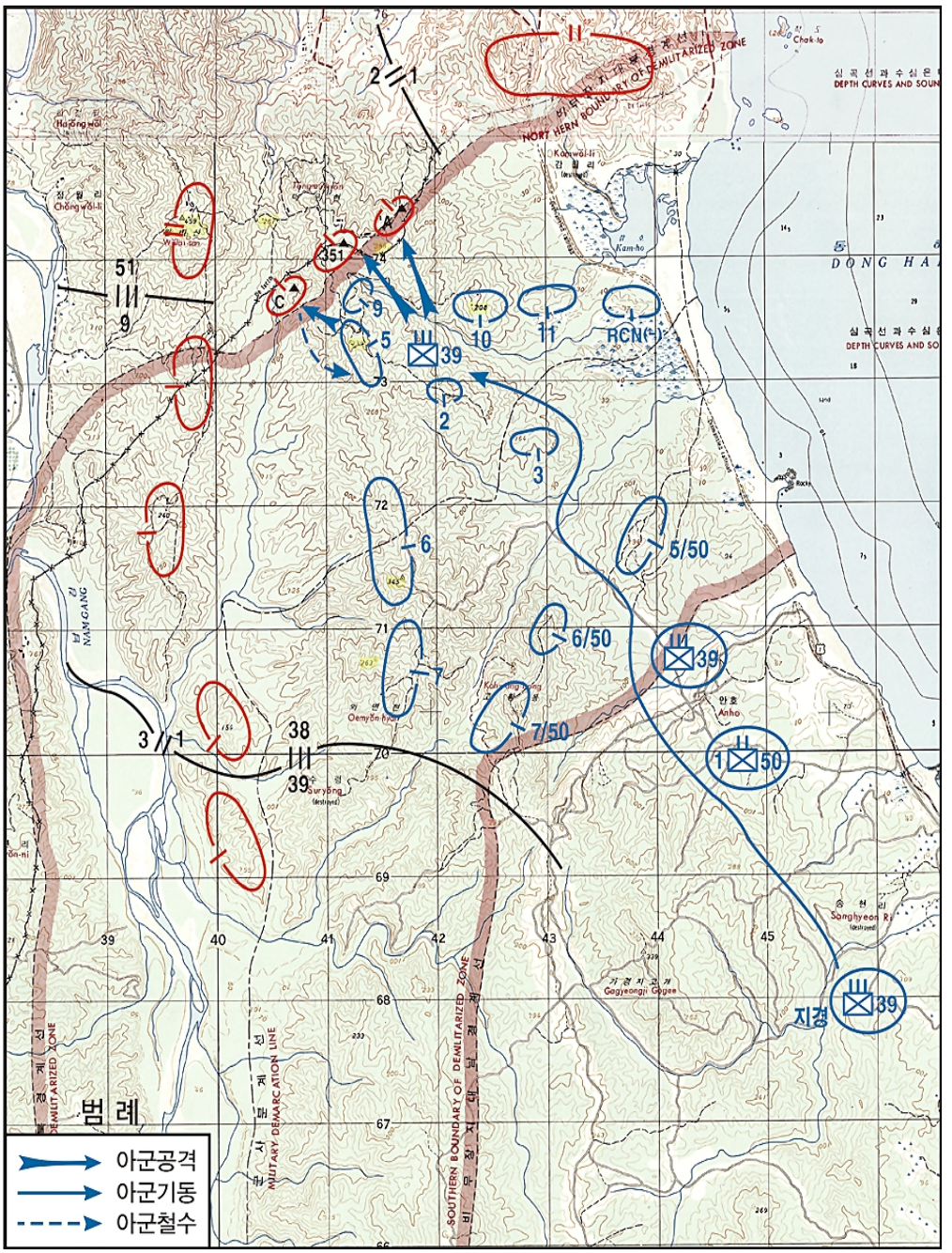
한편 A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제2대대는 약 20분이 경과할 무렵 149고지-185고지로부터 쏘아대는 적의 강력한 사격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4부 능선에서 대열을 정비하였다. 15시에 제2대대장은 공병중대(-)를 흡수하여 다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공병중대장이 특공대를 조직하여 적의 기관총진지를 파괴하자, 병사들은 적진으로 돌진하여 쌍방간에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무려 9시간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대대는 A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고 부대재편에 들어갔다.

그러나 19시 30분에 적은 다시 포격을 집중하고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반격을 감행해왔다. 이때 대대는 병력이 256명에 불과한데다 탄약과 수류탄마저 고갈된 상태로 도저히 전투를 지속할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대대장은 대대를 무명고지의 뒤편으로 임의 철수시킨 후 병력수습에 착수하였다.[156] 이 무렵 C고지 공격에 나선 제38연대 제2대대도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끝내 고지탈취에 실패하고 339고지로 복귀하였다.[157]

한편 이날의 작전을 종결하고 부대를 철수시킨 사단장 백인엽 소장은 휴전협정 체결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351고지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방어선을 방어하는 것이 상책이라 상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351고지 탈환을 위한 공격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상황도 5-21> 351고지 제2차전 상황(1953. 6. 15.)



(3) 제3차전(7. 17 ~ 7. 18)

사단의 전력강화에 전력을 경주하던 신임 사단장 최영희 소장은 6월 29일을 기해 제50연대를 예비로 하는 동시에 제39연대를 우일선에 배치하고 사단수색중대를 대강리에 둠으로써 우일선 방어정면의 보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38연대장 유재성 대령은 제3대대를 우일선인 동해안에서 351고지의 남쪽 기슭까지, 제2대대를 좌일선인 345고지의 우측에서 외면현까지, 그리고 제1대대는 제3대대와 병행하여 339고지-234고지-164고지에 전개하여 북측 정면의 방어종심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로 339고지에 중점을 두어 351고지의 적을 견제토록 하였다.[158]

반면에 351고지를 장악한 북한군 제7사단은 예하의 제53연대를 예비로 전환하고 제51연대를 투입하여 351고지와 그 주변의 A, B, C고지를 1개 대대 병력으로 강화하는 한편 351고지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진지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처럼 진지를 강화한 북한군은 7월 17일 자정 무렵 제38연대 지역에 50분에 걸쳐 1,500여 발의 포격을 가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각 대대장에게 진지를 고수하고 출현하는 적은 진지 앞에서 저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26포병대대에 대포병전을 명령하였다.

이로써 포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연대에는 각 진지 전면에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했다는 보고가 잇달았다. 곧이어 제1대대와 제3대대간의 유선이 두절된데 이어 사단과의 통신마저 단절되었다. 그리고 20여 분이 지난 뒤 제38연대와 제29연대간의 공백을 따라 소대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연대관측소를 공격하였으나 연대직할대가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39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대대 제3중대는 351고지와 C고지로부터 지원사격을 받는 증강된 대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감행해오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적은 많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교통호선까지 접근해왔고, 중대는 치열한 격전을 벌여 03시경에 이들을 서쪽 계곡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함께 제2대대와 제3대대도 방어정면으로 접근한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야간기습을 시도하였으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 제3사단은 7월 18일 23시 40분부터 소규모의 병력으로 정찰활동을 전개한 후 339고지를 포함한 제38연대 제1대대의 방어진지에 대해 2개 대대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159] 339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3중대가 중대장의 부상으로 전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대대장은 제1중대의 잔류 병력을 339고지에 투입하는 한편 제2중대로 역습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C고지와 월비산에서 쏘아대는 적의 사격으로 인해 진격이 중단되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즉시 진지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은 우측에 제1중대를, 좌측에 제2중대를 그리고 중앙에 제3중대를 전개시켜 포격지원을 받으며 일제히 돌격을 감행한 끝에 03시 40분에 진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격전을 펼쳤으나, C고지로부터 계속되는 적의 기관총사격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부득이 고지 뒤편으로 철수하였다.

351고지 전투전적비(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내)

한편 대강리에 집결하고 있던 사단 수색중대는 3시 10분에 339고지에 대한 역습명령을 받고 06시 30분에 339고지 인근까지 진출하였으나 고지 정상에서 가해지는 적의 무차별사격으로 더 이상의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중대는 제1대대와 합세하여 고지 정상을 공격하였으나, C고지와 월비산의 적 화기공격으로 결국 진지회복에 실패하였다.[160]

3) 전투 결과

제15사단은 1953년 6월초부터 7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한 달여에 걸쳐 북한군 제7군단 예하의 제3사단 및 제7사단과 351고지와 339고지의 쟁탈을 위해 치열한 혈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투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불리함과 휴전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약으로 과감한 작전을 전개할 수 없었다. 이로써 사단은 351고지와 339고지를 북한군에게 넘겨준 채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전투를 종료하였다. 이후 사단은 캔사스선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부대교육 및 정비에 주력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제15사단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5-24>와 같다.

<표 5-24> 종합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과						손실		
	사살	추정 살상	포로	야포	기관총	다발총	전사	전상	실종
제38연대	529	801	13	-	4	20	220	571	14
제39연대	107	385	1	13	1	3	153	478	-
제50연대	-	-	-	-	-	-	105	272	-
포 병 단	-	-	-	-	-	-	-	16	-
공병대대	-	-	-	-	-	-	-	28	-
수색중대	-	-	-	-	-	-	-	48	-
계	636	1,186	14	13	5	23	478	1,413	14

7. 베티고지 전투(1953. 7. 15 ~ 7. 16)

1) 전투 개요

베티(Betty)고지 전투는 중공군의 최후공세인 '7·13공세' 당시 중공군 제1군 예하 제1사단이 임진강 서안 고양대 부근의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의 전초인 베티고지를 공격함에 따라 1953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만술 소위를 비롯한 소대병력이 진내사격을 요청하고 백병전을 펼친 끝에 대대규모의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제1사단은 250고지-199고지 전투 이후 제11연대로 해병 제1연대전투단의 고양대-고왕산 부근의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우일선 제15연대, 중앙일선 제12연대, 그리고 좌일선 제11연대로 어적산리(魚積山里) 부근에서 고왕산 동쪽 기슭의 진지를 방어하게 되었다. 중공군 제1사단은 7·13공세가 개시되자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에 나서 예하의 제1연대로 베티고지를 공격하였다.

베티고지를 중심으로 한 고양대 일대는 남으로 흐르는 임진강이 이 일대에서 등파리 부근까지 몇 갈래의 지류를 끼고 굽이치는데, 그 서안은 마량산(315고지)으로부터 동쪽으로 연결된 고지군이 이어진다. 특히 베티고지는 임진강의 지류가 남북으로 흐르는 가운데 아군의 주진지와는 남쪽의 지류를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져 이어진 표고 150~200m의 세 봉우리로 된 구릉지이다. 따라서 마량산 일대의 중공군은 그대로 고지까지 접근할 수 있으나, 아군은 주진지로부터의 병력증원과 보급지원할 경우 우회 도하해야만 하였다.

이때 제11연대는 제2대대로 베티고지와 남쪽의 중고잔(中高棧) 동북 일대의 고지를 유지하고 있었고, 연대 우일선인 대대는 OP를 209고지에 두고 주위에 제6중대와 제7중대 그리고 중화기중대를, 209고지 북쪽 500m의 베티남쪽 고지에 제5중대로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고 베티고지는 제7중대가 담당하였다.

연대 좌일선인 제3대대는 중고잔-고왕산 동쪽 기슭을, 제1대대는 고잔리 부근의 저지진지를 각각 점령하고 있었다. 제3대대는 전투지경선의 변경에 따라 7월 13일

01시 30분부로 고왕산 동북 기슭의 진지를 영연방 제1사단 제3대대에 인계함과 동시에 제1중대와 제2중대를 원대 복귀시켜 축소된 전투지경을 담당하였다.

<표 5-25>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사단장	준장	김동빈(金東斌)	
	제11연대장	대령	최주종(崔周鍾)	
	제1대대장	중령	박춘광(朴春光)	
	제2대대장	중령	김봉건(金奉健)	
	제5중대장	대위	정종철(鄭宗哲)	
	제6중대장	대위	정대선(鄭大善)	
	제7중대장	대위	박태곤(朴泰坤)	
	제3대대장	중령	김형록(金衡祿)	좌인접부대
	제12연대장	대령	이길영(李吉泳)	우인접부대
	제15연대장	대령	송호림(宋虎林)	
	사단포병단장	대령	송찬호(宋贊鎬)	
	사단통신부장	중령	허건공(許建功)	지원부대
중공군	제1군장		류쥬안롄(劉轉連)	
	제1사단장		요하오양(游好揚)	

2) 전투 경과

7월 13일 23시를 지날 무렵 중공군은 어둠을 틈타 증강된 소대규모로 베티고지를 공격해왔다. 베티고지 경계소대는 포병의 지원 아래 완강하게 저항하며 수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적은 부대를 새로 교체하며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지의 전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베티고지는 중대규모로 설정된 전초진지로서 마량산 일대에서 임진강을 향해 뻗은 능선의 동단에 해당되어 아군으로서는 주진지와 격리되어 있었다. 또한

세 연봉 사이의 거리도 150m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다 큰 규모의 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적은 병력으로 고지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으며, 포병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161]

사단장 김동빈(金東斌) 준장은 제11연대가 다시 고양대 일대의 진지를 인수한 후 군단의 지시에 따라 중대규모인 베티고지의 경계부대를 소대규모로 축소하도록 연대장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제2대대장에게 베티고지의 제7중대를 1개 소대만 남겨두고 모두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중대 주력은 대대 OP가 있는 209고지의 남쪽 기슭으로 이동하고 1개 소대만 남아 있었다.

한편 포병의 지원은 이미 사단포병과 배속된 전차포 및 군단포병까지 고지 일대에 대한 화망구성을 완료하고 VT신관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포탄에 의한 화력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적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전투지경을 축소하여 일부 진지를 영연방 제1사단에 인계하면서 포병의 지원을 받게 하였다.[162]

이런 상황에서 중공군은 7월 15일 02시를 기해 2개 소대규모를 투입하여 베티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때 아군은 1시간 여에 걸친 포격으로 격퇴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은 3일째로 접어들며 공격지속시간이 24시간을 넘게 되어 제7중대의 1개 소대는 사상율이 50%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중공군은 07시부터 증강된 분대규모가 고지 서봉에서 중앙봉을 향해 접근하였다. 소대는 병력의 부족으로 계속 접전을 벌일 경우 불리하기 때문에 모두 호 속으로 들어가 모래주머니로 입구를 막고 포격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포탄이 호 일대에 집중되자 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서봉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10시가 지날 무렵 소대는 적정파악을 위해 수색조를 서봉으로 보냈는데, 동쪽 능선에서 적을 만나 수류탄전을 벌인 후 귀환하였다.

한편 주진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2대대는 제7중대의 소대가 더 이상 고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제6중대 제2소대로 부대를 교체하였다.[163] 제2소대장인 김만술(金萬述) 소위는 특무상사로 대대 중화기중대의 인사계를 맡고 있던 중 7월 6일 현지 임관하여 소대장에 임명되었다.

소대장을 비롯한 34명의 제2소대원은 12시 30분에 중대를 떠나 강변에 도달한 후 단정으로 1개 분대씩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소대는 이를 알게 된 적의 포격으로 한때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지만 도하에 성공하여 15시 30분경에 베티고지 중앙봉으로 진출하여 제7중대의 경계소대와 합세하였다. 이어 소대장은 2개 분대를 중앙봉에 배치하는 한편 적의 정면공격에 대비하여 1개 분대를 동쪽 기슭에 두었다. 그리고 2개 분대는 중앙봉의 유개호에서 직접 지휘하였다.[164]

제2소대장 김만술 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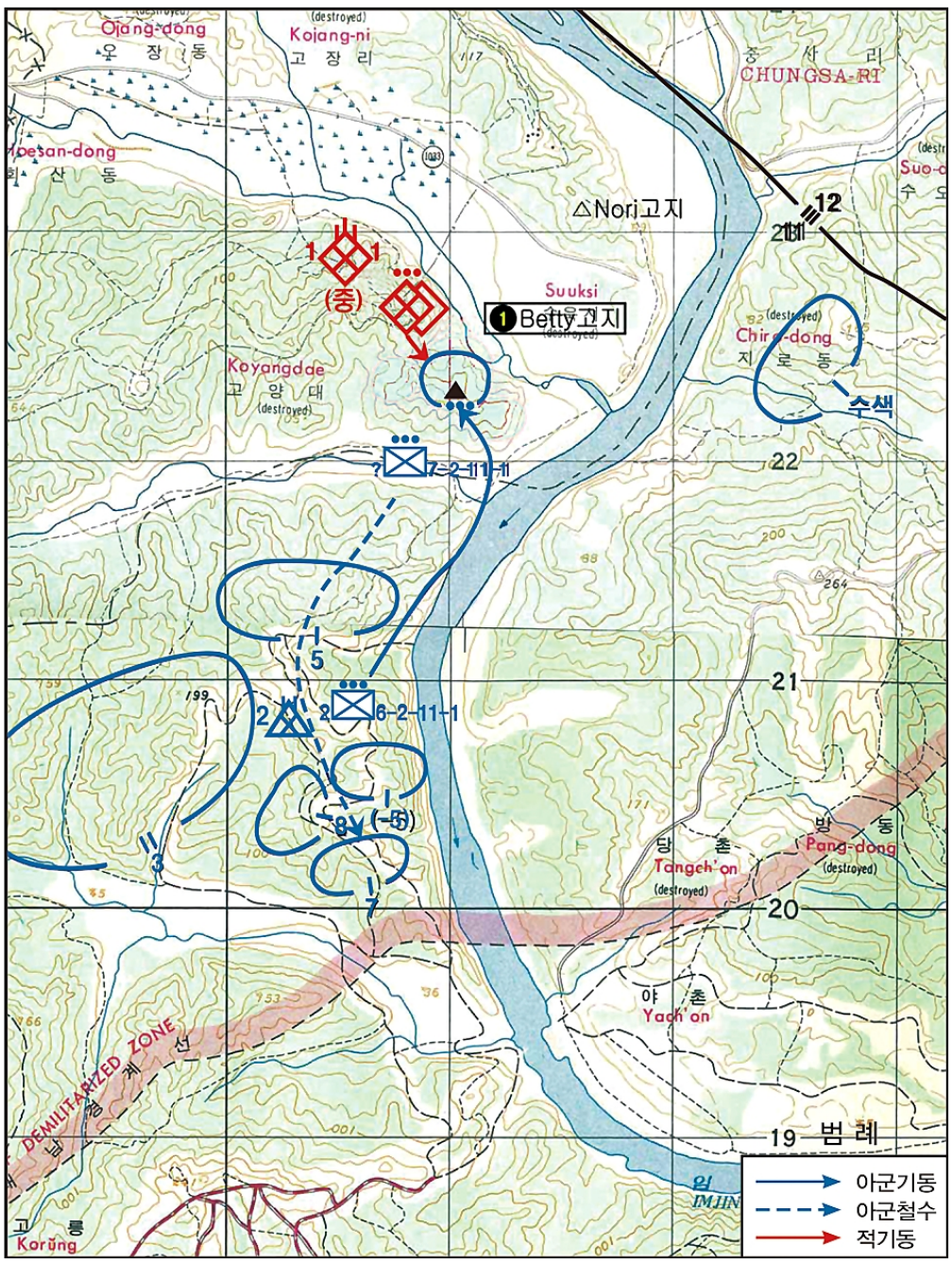
대대 OP에서 제6중대장과 함께 베티고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대대장 김봉건(金奉健) 중령은 소대로부터 교대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서봉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는 17시 30분에 1개 분대로 서봉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분대는 서봉 동북쪽 기슭으로 전진하여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정상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8부 능선에서 적을 공격하려는 순간 고지 중간에 있던 적의 역습으로 포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분대를 구하기 위해 중앙봉 소대의 일부 병력이 서봉으로 출동하여 고지 중간의 적을 공격하고 분대와 함께 중앙봉으로 복귀하였다.

한동안 조용하던 중공군은 다시 베티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진지를 보수한 다음 경계 중이던 제2소대는 어둠이 점차 짙어지며 고지 아래로부터 인기척이 들려옴에 따라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대대에 포격지원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적이 중앙봉을 향해 몰려들었고, 소대는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때 지원 포격이 개시되자 소대는 유개호로 들어갔다.[165]

중공군은 강력한 아군의 포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교통호로 몰려들어 유개호 입구의 경계병과 총격전을 벌였다. 소대장은 호 입구로 나가 수류탄을 투척하며 적의 접근을 차단하자, 결국 적은 그 자리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소대는 20시경에 무선으로 포격중지를 대대에 요청하고 진지일대를 수색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중앙봉의 서사면에 모여 있었다.[166]

<상황도 5-22> 베티고지 전투상황



22시경 적은 중앙봉의 좌우 양쪽에서 각각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소대는 다시 포격을 요청하고 유개호로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적의 일부가 교통호를 넘어 호 입구까지 접근하여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그 중 1발이 폭발하여 소대는 유무선이 모두 두절되었다. 소대장은 호 입구로 나가 적을 총검으로 무찌르고 수류탄을 투척하자, 호로 몰려들던 적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진내사격을 준비중인 포병대원들

그러나 소대는 유무선이 두절됨으로써 적시적절한 포격지원이 불가능해 부족한 병력으로 고지를 고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대는 무선통신기를 소지한 4명의 통신병을 베티고지로 급파하였다. 이들은 강을 건너 다음날인 7월 16일 02시 30분에 고지에 도착함으로써 고지와 대대 OP 사이의 통신이 재개되었다.

적은 04시가 지나면서 중앙봉 서북쪽과 서쪽에서 각각 소대병력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소대는 지원 포격이 집중됨과 동시에 호로 들어간 다음 호 입구에서 적이 교통호를 넘지 못하도록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지하였다. 아군의 포격을 견디지

못한 적은 다시 북쪽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적은 1시간여가 지난 후 다시 중대규모로 중앙봉 북사면을 통해 공격을 가해왔다.

소대장 김만술 소위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 소대원들과 함께 교통호에서 수류탄으로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자 소대원을 이끌고 호 속으로 들어가 포격을 유도하였다. 날이 밝으며 적은 다시 북쪽 및 동동 북쪽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일단 물러났던 적은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06시 40분에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고, 소대는 수류탄을 투척하고, 그리고 근접한 적과는 백병전을 펼치면서 진지를 고수하였다. 제2소대는 08시를 기해 제3소대와 임무를 교대하였으나, 소대원 중 생존자는 경상자를 포함하여 12명에 불과하였다.[167]

3) 전투 결과

경계부대가 교체된 이후에도 베티고지는 간헐적인 전투 속에서도 계속 고수하였으나,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면서 고지가 북쪽에 포함되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7월 30일 사단은 사령부를 전곡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베티고지를 끝내 고수한 제2소대장 김만술 소위는 전투의 공로로 1954년 2월 21일 서울운동장에서 유엔군사령관 테일러 대장으로부터 미국의 최고훈장인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5일 한국의 최고무공훈장인 금성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제2소대의 뛰어난 용전감투를 기렸다. 이번 전투에서 소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5-25>와 같다.[168]

<표 5-26> 전과 및 손실

전과					손실	
사살	추정살상	노획			전사	부상
		무전기	수류탄	다발총		
314	450	1	155	1	6	18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미

1) 요약

휴전협정의 조인을 목전에 둔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으로 휴전회담이 중단되고 전국(戰局)은 다시 초긴장상태로 전개되었다. 이 무렵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행동은 자제하는 듯하였지만, 전선에서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중공군은 "6월 공세에서 얻은 효과가 한국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상쇄되었다"고 판단하고, "구겨진 자신들의 이미지를 군사작전을 통해 회복하겠다"는 의도였다. 중공군은 최후 공세를 통해 화천저수지를 점령할 수 있다면 1951년 5월의 현리 지구에서의 패전을 만회하고, 한국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북진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군에게 패배를 안겨주어 휴전에 순순히 응하게 함과 동시에 휴전 후의 도발 가능성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미 제8군의 정보보고에서도 중공군이 화천저수지를 목표로 한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 정면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이른바 '하이크작전(Operation of Hike)'을 명령하여 국군 제2군단 우측지역에 대한 강화를 주안점으로 한 부대의 재배치 등 일련의 방어력 강화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7월 1일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미 제5연대전투단을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배속을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2군단은 금성돌출부 작전에서 백암산까지 상실하고 와이오밍선 전방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한 다음 반격으로 이전하여 그 중간지역인 금성천을 확보함으로써 돌출부가 제거된 전선을 확보한 채 휴전에 이르렀다.

2) 성격과 의미

중공군 7월 공세는 중공군이 진지전으로 돌입한 이래 가장 큰 전역이었고, 견고한 국군 및 유엔군의 진지에 대해 실시한 최대 규모의 공격작전이었다. 이 전투는 6·25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을 모두 합해 군단급 부대가 동일한 작전지역에서 방어와 철수 그리고 반격 등 일련의 작전형태를 전환해 가면서 전개한 유일한 전투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전투는 국군 제2군단이 비록 금성돌출부를 상실하였지만 중공군 5개 군 15개 사단의 집중 공세를 저지하고 대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금성천을 회복함으로써 전쟁의 최후 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국군은 화천은 물론 수력발전소를 탈환하려는 공산군의 전역목표를 분쇄함은 물론 휴전선의 확정에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번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국군의 전투 능력과 지휘관의 전장지도력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되었다.

2. 작전의 주요 특징 및 요약

1) 공산군 측 관점

중공군 7월 공세의 특징에 대한 중공군의 시각은 중국군사과학원에서 발간한 『항미원조전사』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공군 지휘부는 7월 공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7월 공세의 지도 방침은 확실한 준비로 철저하게 타격하는 것이었다. 이는

6월 공세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작전에서 이미 적의 견고한 진지를 이용하여 방어하는 대대와 연대급 진지에 대해 공격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선택한 돌격방향은 6월 공세의 작전경험을 토대로 결정되었고, 모두가 적의 돌출부였다.

둘째, 작전목표가 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작전결심이 매우 확고하였다. 작전목표는 국군의 금성이남 돌출부에 대한 공격과 금성천 이북 일선 진지의 점령으로서 이 지역에 주둔한 국군 4개 사단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었다. 작전목표를 달성한 후의 조치는 신속하게 구조물을 구축하여 견고하게 방어하였고, 적정의 변화에 따라 공격을 제한적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작전 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결심을 확정한 후 부대배치와 이동에서부터 전술 준비까지 전투준비를 확실하게 진행하였고, 물자비축과 도로정비는 물론 우기에 대비한 수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치동원 등의 제반 준비가 비교적 충분하게 진행되었다.

넷째, 화포와 포화의 밀도가 참전 이래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성이남 25㎞의 정면에서 제20병단과 제24군은 82㎜ 이상의 각종 화포 1,000문을 집중 운용하였고, 평균 1㎞당 45문을 배치하였다. 이번 7월 공세에서 소비한 포탄은 19,000톤으로, 지난 1~5차 공세 중 소비한 포탄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2) 유엔군 측 관점

휴전 직전의 공산군의 최후 공세는 중공군에 의한 공격으로 시작되어 국군의 반격으로 종결된 작전이었다. 중공군은 전 전선의 중앙부를 폭 23마일, 종심 7마일을 돌파함으로써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약화된 보급 상황과 국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돌파구가 폭 17마일, 종심 5.5마일로 축소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공군은 25,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중공군은 초기 목표였던 화천발전소의 장악에 실패하였으나 평강의 접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전을 초기에 성립시키려던 계획은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다. 국군이 주저항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퇴한 것은 국군의 여러 가지 전술적 결함

이 원인이었지만, 휴전을 성립시키려는 유엔군 수뇌부의 기본적인 시각과 방침이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국군의 작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정부의 휴전반대와 국군에 의한 북진작전을 억제하려는 유엔군사령부의 압력은 국군의 전투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압력은 특히 탄약보급면에서 구체화되었다. 포로획득과 적의 진지파괴를 목적으로 수행된 '스맥(Smack) 작전'에서 국군에 대한 포탄의 보급은 일일의 작전기준량을 겨우 충족할 정도로 최소로 유지됨에 따라 적의 강력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량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공군의 최후 공세에서 제2군단은 적의 막대한 집중포화에 효과적인 방어지원 사격을 실시할 수 없었다.

유엔군사령부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압력은 상병포로교환과 동시에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더욱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군의 작전수행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집필 : 손규석)

주(註)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삼화인쇄, 1989, 68-69, 72-73쪽; 뿌리 깊은 나무,『한국의 발견, 강원도』, 평화당 인쇄주식회사, 1988, 31-32쪽.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동원문화사, 1987, 14-15쪽;『한국전쟁전투사 : 교암산전투』,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4, 14-15쪽.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89, 68-69, 72-73쪽; 뿌리 깊은 나무,『한국의 발견, 강원도』, 1988, 31-32쪽.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650-651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세경사, 1991, 287쪽.
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1991, 287쪽.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650쪽.
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1991, 288쪽.
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1997, 53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656-657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1991, 289-290쪽.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657쪽.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862-864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1991, 354-360쪽.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3, 2001, 210-215쪽.
12)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2. 7.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146-14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 2001, 73쪽.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655-656쪽; 육군본부,『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상), 2009, 51-53쪽.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862-863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1991, 358-359쪽.
15) HQS, EUSAK, COMMAND REPORT, May 19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861쪽.
16)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HQS, EUSAK, COMMAND REPORT, May 19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861쪽;『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3, 2001, 252-255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오비기획, 2002, 139-141쪽;
17)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2. 7.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005, 572쪽;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121-134, 175-177쪽. 공산군의 최후공세 당시 북한군의 전투서열은 관련 자료의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미제부분임.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857-861쪽;『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

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73-74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2002, 164-165쪽.

19) 이들 전투사단 및 여단 중 51개 사단은 중공군, 23개 사단과 4개 여단은 북한군이었다.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2002, 165쪽.
20)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2002, 165쪽.
2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1991, 288-289쪽.
22) HQS, X Corps, US Army, Command Report, July 1953.
2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1997, 536-538쪽.
24)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p.24-26.
25) 육군작전교육국, 「정기작전보고 제169호」(4283. 7. 1);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5;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p.1-2.
26) HQS, XCorps, Command Report, 1 June to 30 July 1951, pp.5-8(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 01541).
27) HQS, EUSAK, 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37, 9 May 1953;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May 1953, p.38.
28) 보병 제6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6호」(1953. 6. 15, 18:00).
2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71쪽.
30) 보병 제6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23호」(1953. 7. 9, 18:00).
31) 보병 제6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78호」(1953. 7. 10).
32) 보병 제6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79호」(1953. 7. 11).
33)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379쪽.
34) 보병 제6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24호」(1953. 7. 12).
35)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4호」(1953. 7. 12, 06:00).
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433-436.
37)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409-411쪽.
3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401쪽.
3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412-413쪽.
40) 이 부대는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5사단이 1953년 6월 21일부로 국군 제2군단에 복귀함과 동시에 군단장 정일권 중장의 지시에 따라 창설된 특수임무부대이다. 부대편성은 제5사단 부사단장인 한신(韓信) 대령의 지휘 하에 제36연대를 주축으로 사단 수색중대와 공병 1개 중대, 그리고 전차소대의 통합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19쪽.
4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19-420쪽.
42)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3호」(1953. 6. 26).
43) 보병 제5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84호」(1953. 6. 26, 14:00).
44) 보병 제5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85호」(1953. 7. 10, 24:00).
4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24쪽.
46)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25쪽.
47)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26쪽.
48) 보병 제5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88호」(1953. 7. 15).

4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28쪽.
50)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29쪽.
5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31쪽.
52)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32-433쪽.
5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27연대, 35연대)』(51), 1986, 62쪽.
5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35-436쪽.
5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39쪽.
56)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40쪽.
57)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41쪽.
5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42쪽.
5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43쪽.
6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27연대, 35연대)』(51), 1986, 64쪽.
6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46쪽.
6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27연대, 35연대)』(51), 1986, 65쪽.
63)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47쪽.
6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48쪽.
65)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27연대, 35연대)』(51), 1986, 70쪽.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36쪽.
6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13쪽.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37쪽.
6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11쪽.
7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09쪽;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56쪽.
7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57쪽.
7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10-611쪽.
73)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57쪽.
7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24쪽.
7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59쪽.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40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24쪽.
77)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58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27쪽.
7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27쪽.
7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1쪽.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43쪽.
8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0쪽.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44-145쪽.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48쪽.
8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4쪽.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49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28쪽.
86)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5쪽.

87) 보병 제3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0호」(1953. 7. 14, 08:0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17쪽.
8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6쪽.
8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7쪽.
90)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7쪽.
91)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5호」(1953. 7. 14, 11:30).
92) 보병 제3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1호」(1953. 7. 14, 12:0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17-618쪽.
93)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8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33쪽.
9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68-469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151쪽.
95)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62호」(1953. 7. 14, 12:0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18쪽.
96)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73쪽.
97)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6호」(1953. 7. 15, 12:00).
98) 보병 제3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4호」(1953. 7. 15, 12:0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18-619쪽.
9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75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3사단, 18연대, 22연대)』(49), 1986, 642쪽
100)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80쪽.
10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81쪽.
102) 육군본부,『전장사례연구』(제4집), 1988,
1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66쪽.
1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67쪽.
10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91쪽.
106)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5호』(1953. 7. 14).
107) 보병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80호」(1953. 7. 14, 11:00).
1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71-172쪽.
10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496쪽.
1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73쪽.
111) 보병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82호」(1953. 7. 15, 15:00).
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86쪽.
113) 보병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83호」(1953. 7. 16, 12:00).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88쪽.
115)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5호」(1953. 7. 14, 12:00).
116)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98호」(1953. 7. 1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 포병대대, 전차공격대대, 직할대)』(60), 1987, 214-215쪽.
117)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646쪽.
11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 포병대대, 전차공격대대, 직할대)』(60), 1987, 210쪽.

119)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4호」(1953. 7. 12, 12:0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97호」(1953. 7. 14, 11:00).
12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98호」(1953. 7. 14, 15:00).
121)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6호」(1953. 7. 15, 12:00).
122)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06호」(1953. 7. 15, 12:00).
12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895쪽.
12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652쪽.
125)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895쪽.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 1987, 183쪽.
127)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655-656쪽.
12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895쪽.
12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896쪽.
13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904-905쪽.
13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905쪽.
13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905-906쪽.
133)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663쪽.
13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26쪽.
135)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2호」(1953. 7. 18).
13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26쪽.
137)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3호」(1953. 7. 18).
13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26쪽.
139)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8호」(1953. 7. 19, 16:00).
14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00호」(1953. 7. 19, 23:00).
14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669-670쪽.
14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27쪽.
14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567쪽.
14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672-673쪽.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32, 570쪽.
14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 1976, 674쪽;
146) 국군 제1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70호」(1953. 1. 26).
14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61), 1987. 70쪽.
14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49-50쪽.
149)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61), 1987. 70-71쪽.
150)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54쪽.
151)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58-60쪽.
15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61), 1987. 72쪽.
153) 보병 제15사단사령부,「작전계획 제10호」(1953. 6. 8).
154)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63쪽.
155)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65-66쪽
156)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67-68쪽.
157)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68쪽.

158)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69-70쪽.
159)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72쪽.
160) 국방부,『한국전쟁사』제9권(대진말기), 1976, 73쪽.
161)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 1973, 799쪽.
162) 보병 제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246호」(1953. 7. 12, 16:00).
163)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 1973, 800쪽.
164)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 1973, 801쪽.
165)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 1973, 801-802쪽.
166)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 1973, 802쪽.
167)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 1973, 804쪽.
168) 국방부,『한국전쟁사』제6권, 1973, 805쪽.

제 6 장 해군작전

제 1 절	전쟁진행 상황
제 2 절	북한(공산)해군 작전
제 3 절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 작전
제 4 절	서해북방한계선(NLL) 설정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전쟁진행 상황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재 반격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접촉선에서 대치하게 된 1951년 6월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모두 이제 더 이상 무력에 의해서는 전쟁을 종결할 수 없고 협상에 의해 전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막되었고, 회담은 이후 중단과 휴회, 재개 등을 반복하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휴전회담은 진행과정에서 유엔군 측 보도진 출입문제, 공산군 측의 중립협정위반 날조 사건, 휴전회담 장소의 이전(개성에서 판문점), 세균전 논란 등과 함께 특히 포로교환문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의 전쟁상황은 양측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휴전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면서 전개되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였으나,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군사작전의 목표를 휴전협상에서의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1952년에 전개된 백마고지 및 저격능선 전투와 1953년에 금성지구에서 진행된 중공군의 이른바 6월과 7월공세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확대된 공방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전이 고지쟁탈전의 규모로 진행되는 제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쌍방 모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선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한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엔 및 한국공군은 1950년 6월 29일부터 한만 국경지역에 형성된 미그회랑을 제외한 한반도 내의 전 지역에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전략폭격 및 후방차단, 근접항공지원 등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에 기여하였다. 유엔 및 한국해군 역시 1950년 6월 27일 이후부터 한반도 내의 모든 해역

에서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함재기의 공중폭격과 해상봉쇄, 소해작전, 공중초계 등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1년 7월 10일을 기해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간 휴전회담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바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이 반영되어 1951년 11월에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8개월이 더 걸렸는데 이때 양측 간에 제기된 핵심적인 이슈는 포로교환 협상이었으며, 정전협정체결 이후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문제 역시 회담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J. Stalin)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자 전쟁은 급격히 종결로 치달으며 휴전협상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엔군 측이 제시한 일괄타결안과 선택적 타결안 모두에 대해 공산군 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난항을 계속하던 포로교환 협상은 양측이 귀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에 대해 중립국 감독위원회 주관 하에 90일 간에 걸쳐 각 개인의 의사를 타진한 다음 그래도 귀환을 불원하는 인원은 제3국으로 보내는 안에 합의하고 1953년 6월 8일을 기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로 송환협정이 서명되자 이에 대응하여 그동안 줄기차게 휴전을 반대해 왔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전후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장과 함께 전후복구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6월 18일에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사태 수습을 위해 6월 25일,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국무차관보를 한국에 보내 한국 정부와의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7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후복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10시에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간에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같은 날 22시를 기해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6·25전쟁은 쌍방 공히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황에서 전투행위가 일단 중지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다양한 후속조치가 강구되었다.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유엔군사령관은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목적으로 동·서해상에 북방한계선(NLL, NBL)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송환희망포로

의 교환도 계속되어 1954년 1월 28일에 잔여 포로 347명이 공산측에 인계되고, 중립국을 선택한 88명의 포로들은 2월 8일 인천항에서 인도의 군용 수송선을 타고 인도로 떠나면서 포로 송환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양측은 6·25전쟁을 정치적으로 종결짓기 위한 정치회담을 1954년 4월 26일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하여 2개월 동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및 국제적인 감독, 외국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회담은 1954년 6월 15일에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제 2 절 북한(공산)해군 작전

1. 작전개요

6·25전쟁을 시작하면서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최단시간 내에 점령한 후 한강 이남으로 신속히 전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유리한 환경과 여건 하에서 동·서해안과 남해안 일대를 조기에 제압한 다음, 부산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남한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군사작전을 종결한다는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군이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채택한 전력증강 및 작전의 중점은 지상군에 부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해군은 함정세력이나 해군 정규군의 강화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습상륙을 위한 수송선단과 육전대 양성에 주력하였다.[1)]

아울러 6·25전쟁 초기에 북한해군이 채택한 작전개념은 함대결전 또는 함포지원사격을 통한 지상군의 측방지원 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북한 지상군의 진격에 호응하여 남한지역에 상륙작전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동·서·남해안의 주요 항구와 도시를 기습 점령하여 해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후방교란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2)] 그리고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북한해군은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하여 766부대를 강릉과 삼척지역 해안에 상륙시키고, 무장수송선에 게릴라를 승선시켜 남해안에 침투를 시도하는 등의 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해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북한해군의 작전개념도 기존의 후방지역교란을 위한 상륙기습작전에서 해안방어작전으로 바뀌었다. 이는 소규모로 운용되던 북한해군이 전쟁초기에 대부분의 전투함을 손실하게 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북한해군이 작전의 중점을 아군의 후방지역 침투를 통한 교란에서 기뢰전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국군과 유엔해군도 이에 대항하기 위한 소해작전에 보다 많은 작전의 중점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유엔해군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양측이 마지막 단계의 휴전회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1953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북한해군은 기뢰부설과 병행하여 육상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해안포를 증강 배치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안포병부대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1950년 9월에 단행된 인천상륙작전 이후 1953년 7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북한해군이 채택한 2대 주요작전 개념은 해안방어작전의 일환인 기뢰전과 해안포병부대 운용이었다.

2. 기뢰전

6·25전쟁 초기에 한국해군과 북한해군의 전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북한해군은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경비함정과 지원함정 등 모두 3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병력은 1만 5,570명이었다.[3] 그리고 한국해군은 경비함정, 소해함정, 수송함정, 유조함정, 상륙함정 등 36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병력은 6,956명이었다.[4] 그러나 1950년 6월 29일,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결정에 따라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소해함 등의 강력한 전력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됨으로써 한국해군을 포함한 유엔해군 대 북한해군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엔해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의 전력은 전쟁 초기부터 북한해군을 무력화시켰으며, 전쟁기간 내내 한반도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였다.

6·25전쟁에서 유엔해군과 북한해군 간의 최초 해전은 1950년 7월 2일에 발생했다. 이날 미 주노함(Juneau)이 영국의 자메이카함(Jamaica) 및 블랙 스완함(Black Swan)과 함께 동해안에서 초계작전을 수행하던 중 주문진 근해에서 북한 어뢰정(PT) 4척을 발견했다. 이 어뢰정들은 포함(PGM) 2척과 함께 탄약을 운반하고 있는 트롤 어선 10척을 호송한 후 주문진에서 북상하는 중이었다. 이날 일출 직후인 오전 6시 15분에 주노함이 해안 가까이에서 북한 어뢰정의 선수파(船首波)가 퍼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속력을 증가하여 접근할 때, 북한 어뢰정들이 유엔해군의 함정들을 발견하고 소구경포를 발사하자 주노함이 근접신관(VT) 포탄으로 일제사격을 개시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해전에서 주노함을 비롯한 유엔해군은 북한해군의 어뢰정 3척과 포함 2척을 격침시키고, 2명의 북한군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5)]

이 해전은 유엔해군함정과 북한해군함정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전이었다. 이후 유엔해군은 북한해역을 봉쇄함에 있어 북한의 항공기로부터 몇 차례의 공격을 받았으나, 수상함·잠수함 등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다. 따라서 미 해군의 주도하에 유엔해군은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의 500여 마일에 이르는 전 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엔해군은 전쟁기간 내내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해상봉쇄작전, 함포지원작전, 항공강습작전 등을 수행했는데, 이에 대항하여 북한해군이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전은 기뢰를 부설하여 유엔해군의 함정이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뢰전뿐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해군은 전쟁초기부터 지상군의 진격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협조를 통해 기뢰전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전력을 투사하는 유엔군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1950년 후반기부터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뢰전을 실시하였다.

북한해군은 먼저 1950년 7월 10~20일 사이에 소련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까지 주로 철도를 이용하여 기뢰를 수송하였으며, 일부는 해상으로 수송하였다. 이어서 1주일 뒤에는 소련 해군요원들이 북한해군의 기뢰전 준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원산과 진남포에 도착하였으며, 북한해군을 대상으로 기뢰전을 교육하기 위해 기뢰전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소련해군의 교관들은 북한군에게 기뢰작동과 설치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1950년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원산과 진남포에서 북한해군의 기뢰조립을 감독했으며, 원산에서는 자기기뢰(magnetic mine) 부설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해군의 기뢰전 준비는 미 제7함대와 극동해군이 한반도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작전을 실시하기 전

에 수행되었고, 그 결과 북한해군은 개전초기에 약 4,000개의 기뢰를 신속하게 북한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약 3,000개가 원산 근해에 부설되었고[6] 나머지 1,000개는 열차나 화물차로 진남포, 해주, 인천, 군산, 목포 등 서해안으로 이송되었다.[7]

소련으로부터 기뢰를 반입한 북한해군은 1950년 8월 1일부터 원산과 진남포에서 기뢰부설에 착수하였으며, 유엔해군의 작전을 방해 또는 거부하기 위한 기뢰 부설은 유엔군의 상륙 가능 예상 해안인 청진, 성진, 원산 및 진남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해군은 인천수로에 다량의 기뢰를 부설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저지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하여 1950년 9월 이후부터는 북한의 동·서해안에 많은 수의 기뢰를 계획적으로 부설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할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진남포, 청진, 성진 및 흥남에 기뢰보관시설을 설치, 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뢰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북한군은 유엔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에 기뢰를 설치하여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연안 해역에도 기뢰를 부설해 유엔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을 방해하고자 기도했다.

한편 유엔해군의 정보부서는 일선 함정에게 북한해군의 기뢰부설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첩보를 줄 수는 있었지만 기뢰가 부설된 해역과 재부설된 해역 또는 북한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뢰의 수량 등에 대한 첩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다만 북한군 포로와 피난민, 나포한 어부들로부터 북한해군의 기뢰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북한해군이 어선, 소형선박 및 뗏목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집중적으로 기뢰를 부설한다는 첩보였다. 또한 소련에서 제작된 기뢰부설함 1척이 운용되고 있다는 첩보와 함께 북한해군이 선박에 보관된 기뢰를 굴려서 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는 나무로 된 선반을 선박에 설치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즉 북한해군은 소형어선을 이용하는 원시적인 기뢰부설 방법으로 현대화된 유엔해군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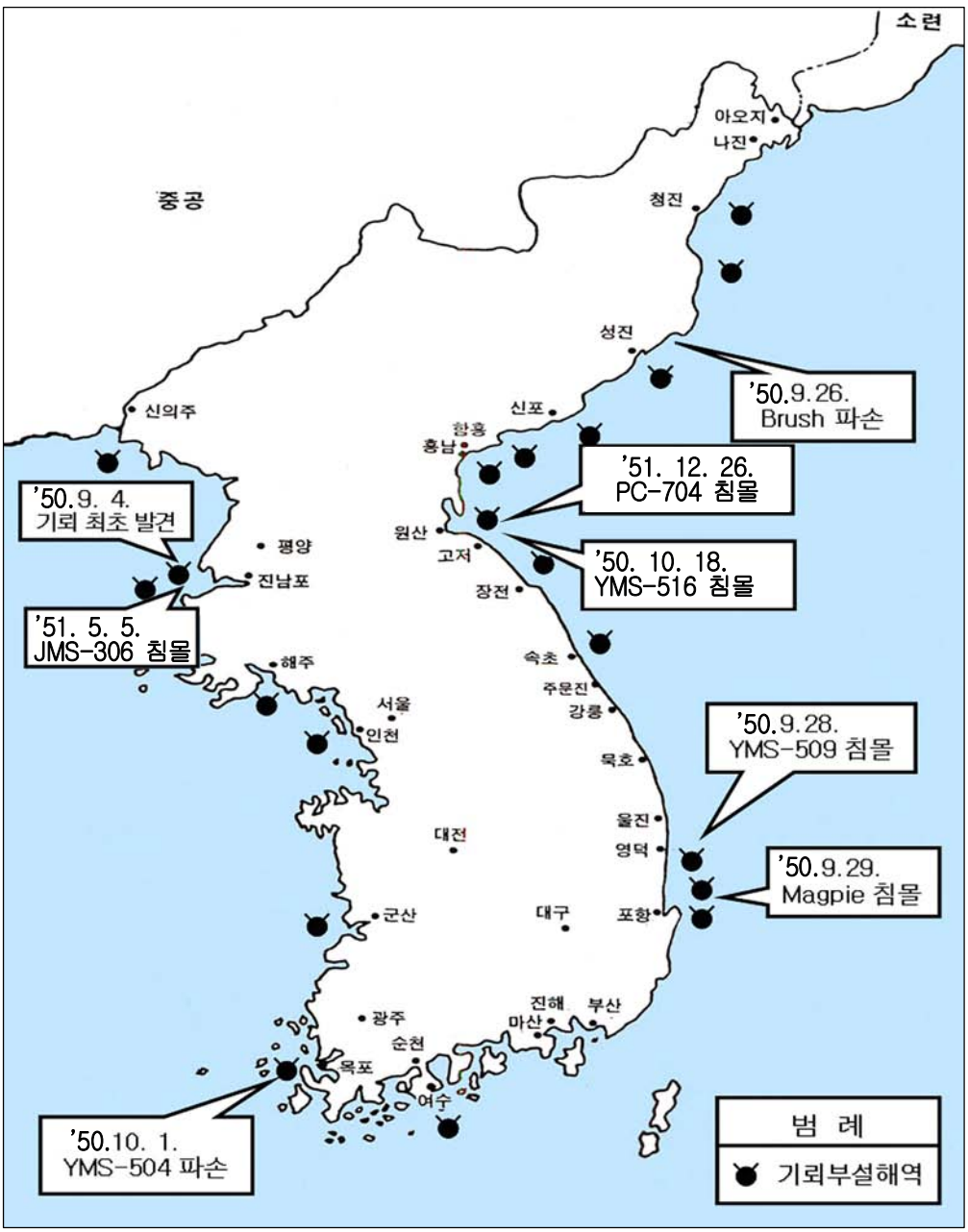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유엔해군은 북한의 기뢰전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첩보를 1952년 9월 22일에 캐나다 구축함 누투카함(Nootka, 함장 : 중령 Richard M. Steele)에 의해

나포된 북한 기뢰부설정 승조원들의 진술을 통해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당시 나포된 북한 포로들은 북한군이 진남포 해군기지에서 기뢰과 및 어뢰과를 편성한 후 1950년 9월 13일 밤부터 기뢰부설 작전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해군은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레이더에 피탐이 되지 않는 기뢰부설선을 건조하려고 시도했다. 아울러 선박에 엔진을 설치하는 대신 노 젓는 사람을 태우고 선박의 상갑판을 흘수선에서 18인치 이내의 높이로 만들어 시각이나 전탐탐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선박에 세로로 목재지주들을 설치하여 기뢰부설 궤도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항해사는 항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월광을 이용하여 육상의 뚜렷한 물표에 대한 목측으로 방위를 판단하고 선박의 속력을 1노트로 유지했다.

한편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북한해군의 기뢰전에 대응하여 소해부대를 창설, 기뢰부설해역을 지속적으로 소해하는 등[8] 적극적으로 기뢰대항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해군의 기뢰부설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되고 북한해군이 소해된 해역에 기뢰를 재부설함으로써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9] 또한 북한해군이 북한해역뿐만 아니라 남한해역까지도 기뢰를 부설하여 유엔해군의 해상작전을 방해함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컸다. 6·25전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아군의 대표적인 기뢰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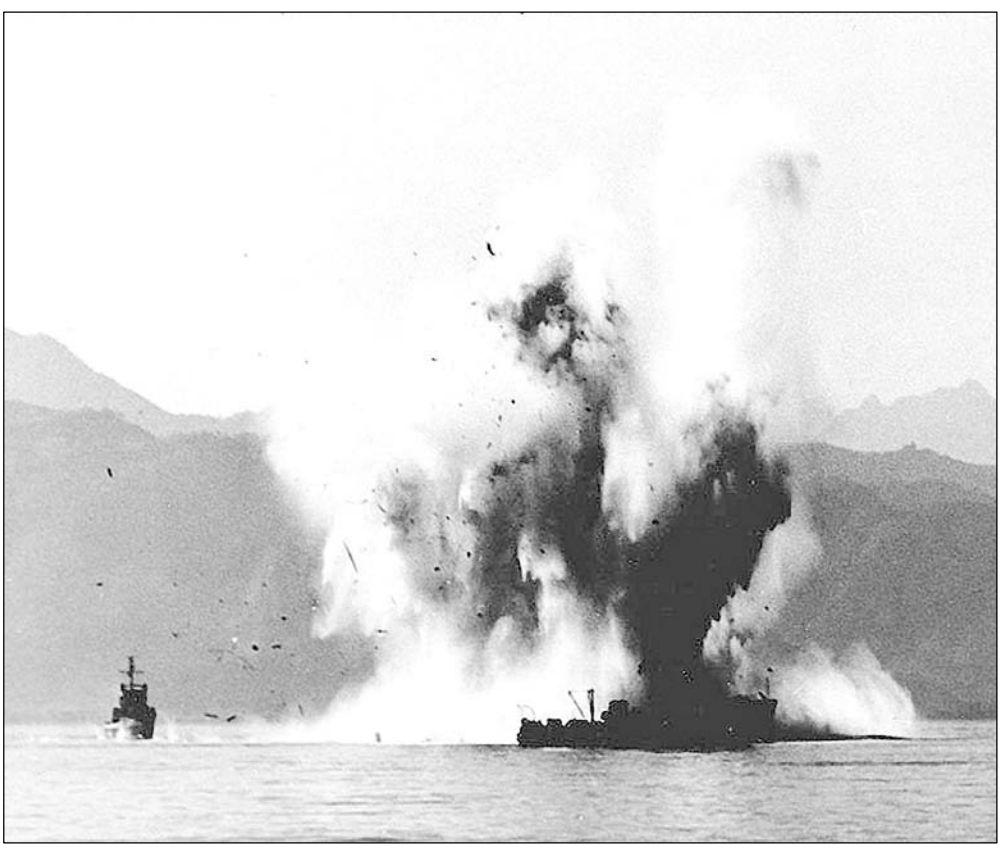
유엔 및 한국해군의 피해는 1950년 9월 4일 미 구축함 매킨함(McKean)이 서해의 진남포 입구에서 적의 기뢰를 최초로 발견한 후 9월 26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속출하기 시작했다. 먼저 1950년 9월 26일, 미 구축함 브러시함(Bursh)이 동해 단천 근해에서 적 해안포대를 탐색하다 6·25전쟁에서 최초로 기뢰접촉으로 인해 함이 파손되어 전사자 13명, 부상자 34명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어 9월 29일에는 미 연안소해정인 맥피정(magpie)이 포항 근해에서 역시 북한해군이 설치한 기뢰로 인해 침몰되어 실종 21명과 부상 12명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9월 30일에는 미 구축함 맨스필드함(Mansfield)이 동해 장전항에서 격추된 공군조종사를 탐색하다 기뢰접촉으로 함 파손과 함께 부상자 28명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월 12일 미 소해함 파이어럿함(Pirate)과 플레즈함(Pledge)이 원산 근해

<상황도 6-1> 북한의 기뢰부설 해역 및 아군의 주요 피해



출처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298쪽.

에서 기뢰접촉으로 침몰하면서 전사·실종 13명과 부상자 79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1951년 6월 12일 미 구축함 워커함(Walker)이 홍남 근해에서 기뢰접촉으로 함 파손과 함께 사상자 61명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1952년에도 유엔해군의 피해가 계속되었는데 먼저 대양 예인선인 ATF-111이 2월 30일 야간에 홍남 연안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이 설치한 기뢰에 충돌하여 침몰하면서 사병 2명이 전사하였다. 그리고 9월 16일, 원산 동쪽 90마일 해상에서 제77항모기동부대를 엄호하던 미 구축함 바톤함(Barton)도 기뢰에 접촉되어 함 파손과 함께 11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원산 여도근해에서 소해작전 중 기뢰접촉으로 폭파되는 YMS-516정의 모습(1950.10.18.)

한국해군도 북한해군이 설치한 기뢰로 인한 함정과 인명 손실을 많이 입었다. 먼저 1950년 9월 28일 동해안 구룡포 근해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YMS-509정이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하면서 승조원 38명 가운데 2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고 5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0] 10월 1일에는 목포항에 접근하던 YMS-504정이 화원반도 해상에서 기뢰에 의해 엔진과 선저(船底)가 파손되고 5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계속해서 10월 18일에는 YMS-516정이 원산 여도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기뢰에 의해 침몰하여 승조원 35명 가운데 전사 15명, 부상 11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날 수송함인 FS 영등포호도 영흥만의 여도 남방에서 기뢰에 의해 파손되어 기관고장 등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1951년 5월 5일 JMS-306정이 진남포 근해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석도 남방해역에서 기뢰에 의해 침몰해 승조원 36명 가운데 전사·실종 6명, 부상 17명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1951년 12월 26일에는 PC-704함이 원산 여도 근해에서 기뢰에 접촉되어 함이 침몰하고 함장 이태영 중령 등 승조원 57명 전원이 전사하는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해군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군은 6·25전쟁이 시작된 초기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쟁기간 내내 유엔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해안에 기뢰를 설치하여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동시에 연안 해역에도 기뢰를 부설함으로써 유엔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을 방해하고자 기도했다. 그 결과 유엔해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유엔 및 한국해군 함정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유엔해군이 한반도 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함정 세력이 와해되어 유엔해군의 수상세력에 대항할 만한 역량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북한해군의 기뢰전으로 인한 위협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6·25전쟁에서 소련이 북한을 통해 기뢰전을 시도하게 된 것은 북한의 항구와 연안에 유엔해군 함정이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엔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유엔해군의 공격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지만 소련의 입장에서는 6·25전쟁이라는 현대전에서 기뢰전의 효과를 실험하는 동시에 태평양지역에서 기뢰전에 대응하는 미 해군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3. 해안포병부대 운용

유엔해군에 비해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북한해군이 기뢰전과 병행하여 채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작전은 적극적인 해안포병부대 운용을 통해 유엔해군 함정의 해안 접근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유엔군의 대규모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1950년 9월에 단행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기점으로 유엔해군의 연안작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해안포병부대를 재편성하였다. 먼저 동해안에는 제24독립포병기관총여단 6,896명, 제25독립포병기관총여단 6,009명을 편성하여 운용하였고, 서해안에는 제23독립포병기관총여단 5,021명, 제26독립포병기관총여단 6,181명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해안방어부대에 다수의 포병병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특히 북한군은 유엔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원산을 비롯한 주요 해안지역에 해안포를 집중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북한군은 해안 포병부대의 무장에 있어서도 무반동포, 82mm 및 122mm 박격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장비를 확충하여 해안방어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해안포병부대 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안 관측업무를 실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병력을 추가로 보충하였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해안방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고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전문 도달시간을 기존의 1/2로 줄였다.[12]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군은 1951년 10월 7일 이후부터는 해안선을 연한 주요 고지에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직사포, 대전차포, 야포 등으로 강력한 해안포 진지를 구축하여 해안경비에 임하는 동시에 주요 해안지대에는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아군의 상륙에 대비했다. 그 결과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던 1952년 1월부터 1953년 1월 사이에 북한군의 해안포는 2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해안포병 운용 능력을 확충한 북한군은 북한의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 및 한국해군의 소해함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저항을 하였고 아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원산부근에서 아군이 주둔 중인 영흥만 내의 각 도서에 병력, 장비, 함대의 이동상황 등을 탐지할 목적으로 밀정을 보내고 혹은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아군이 주둔 중인 각 도서에 잠입시켰다.

아울러 해안선 후방의 고지일대에 병력을 증원하는 한편 갈마반도에 구축한 야포 및 박격포 진지에서 아군이 주둔 중인 황토도, 신도, 소도 등에 위협사격을 가했다.

한편 북한군의 적극적인 해안포병부대 운용으로 인해 유엔 및 한국해군의 함정들은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유엔해군은 이에 대응한 방어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의 해안포병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유엔해군의 소해함정들이었다.

유엔해군 함정 중에서 가장 자주 피해를 본 함정은 AMS-28정(오스프리)이었는데, 1951년 10월 29일에 해안포 2발을 맞았으며 그 중에서 1발은 연돌 상부를 관통하였고, 다른 1발은 수면 위의 선체에 박혔다. 다행히 중상을 입은 승조원은 없었다. 이 함정은 1952년 4월 23일에도 성진 연안에서 해안포 포탄에 피격되었는데, 이 당시 AMS-28정은 AM-372함(뮬렛) 및 AMS-36정(스왈로우)과 함께 적 열차에 대한 관측과 탄착수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AMS-28정은 1952년 10월 13일 고저에서 상륙양동작전에 참가했을 때 세 번째로 해안포 포탄에 피격되었는데, 이때 부함장과 사병 3명이 부상당했다. 이처럼 AMS-28정이 자주 해안포에 피격된 이유는 적 열차들을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연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AMS-28정과 함께 해안포에 자주 피격당한 또 다른 함정은 AMS-18정(헤론)과 AM-316함(컨피던트), AMS-22정(키트) 등이었다. 이 중에서 AMS-18정은 1951년 9월 8일에 수면 상부 6피트에 해안포 1발을 맞았고, AM-316함은 1952년 8월 27일, 북한군의 122밀리 해안포 4문이 100발을 사격했을 때 근접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AMS-22정은 1952년 11월 19일 원산에서 소해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북한군 76밀리 포 47발의 표적이 되어 장교 1명과 사병 4명이 경상을 입었다.[13]

북한군은 해안포병을 이용하여 아군의 해안봉쇄와 포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일반적으로 적들은 우리 함정들이 해안에 접근하도록 조용히 있다가 해안에 점점 가까이 오면 사격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적의 저항으로 1951년 6월 14일, 성진 인근해역에서 표적을 탐지하던 톰슨함이 적의 3인치 이동용 해안포 4문의 사격을 받고 회피기동을 하였지만 적의 포탄 13발이 명중하여 승조원 3명

이 죽고 3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1952년 5월 7일, 자메스 오웬 구축함이 역시 성진 인근해역에서 육지에서 이동 중인 적의 기관차와 철도차량 8대를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군의 10여 개 포대에서 11분 간에 걸쳐 발사된 집중적인 포격을 받은 결과 적 포탄 6발이 함에 명중하여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동시에 많은 장비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14]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유엔해군 함정의 피해사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처럼 유엔해군의 소해정들이 북한해안포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유엔해군의 소해함 및 구축함의 함장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정이 북한군 해안포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인근에서 활동 중인 유엔해군의 대형함정에게 북한군의 해안포를 파괴하기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긴급 전속기동 또는 지그재그 항해 등의 회피기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북한군 해안포의 발사섬광이 보이고 아군 함정을 향해 북한군의 해안포가 발사된 것으로 추측되면 소해함정의 침로를 즉시 변경하기도 하였다. 유엔 및 한국해군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해안포는 유엔해군의 소해함정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유엔해군의 함정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군의 집중적인 해안포병부대 운용에도 불구하고 유엔 및 한국해군은 구축함의 함포지원사격과 소해함정의 회피기동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상륙작전 시도와 상륙위협으로 북한의 해안방어 전력을 분산시켰다. 따라서 북한해군의 해안포병부대 운용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3 절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 작전

1. 작전 개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해군의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지상군을 지원하기에도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가졌다.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해군이 중심이 된 유엔해군은 이 같은 작전환경을 활용, 6·25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크게 공헌했다. 유엔해군은 절대적인 해상에서의 우세권을 바탕으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군사장비와 전투물자를 수송했으며,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항해하는 선박의 이동을 봉쇄했다. 또 필요한 해안의 어떠한 지점에도 상륙부대를 상륙시키고,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유엔군 측의 부대를 성공적으로 철수시켰다. 더불어 유엔해군이 보유한 항공기를 이용해 북한의 후방을 수시로 강타하는 동시에 아군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상륙전을 벌일 것처럼 시위를 벌임으로써 중공군과 북한군의 발을 묶어 둘 수 있었다.

6·25전쟁 기간 중 유엔해군은 항모 함재기 및 해병항공기의 공중폭격, 해상봉쇄 및 함포사격, 상륙 및 상륙기만작전, 소해정을 이용한 소해 및 적 해안방어 시설 무력화 등의 작전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해군도 유엔해군에 배속되어 있었지만 주로 소형함정을 이용한 동·서·남해안 경비작전, PT정의 기습작전, 소해정의 소해작전, 수송 및 호송작전, 전략도서 확보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엔군의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먼저 유엔해군이 수행한 작전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군이 설정한 가장 우선적인 작전목표는 유엔해군과 해병의 공중공격을 통해 공산군의 전쟁지속 능력을 소진시키고 주요시설과 병력 및 물자를

파괴함으로써 유엔군의 전략 및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51년까지는 항공차단작전으로 공산군의 보급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교살작전(Strangle Operation)'을 실시하여 도로망 파괴를 시도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1952년부터는 함재기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주요군사 및 산업시설을 무력화시켜 공산군의 전투수행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작전목표를 선회하였다. 그리고 변경된 작전목표에 따라 북한군의 핵심적인 산업시설과 심장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수풍댐 폭파작전, 평양공습작전, 신덕광산과 길주에 대한 공습작전,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 및 고원 공습작전 등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은 이 작전의 성공으로 북한의 발전소와 군수공장 밀집지역 등 핵심적인 산업시설의 생산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며, 철도망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대한 공습은 북한군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 한편 유엔해군은 공중공격의 일환으로 전쟁의 후반기인 1952년 10월부터 정전 시까지는 항공기들을 이용, 접촉선 직 후방에 위치한 적의 제2제대 및 지원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일명 "체로키(Cherokee) 폭격"[15]을 전개하여 지상군의 작전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둘째, 유엔해군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폭격과 병행하여 해군함정의 거포를 이용, 북한군의 지상군과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과 접촉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지상군의 작전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군의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셋째, 유엔해군은 북한해군의 기뢰전에 대응하여 기뢰대항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북한해군의 기뢰전은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유엔해군이 바다에서 육지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해군은 1950년 후반기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엔해군의 해상작전을 거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뢰전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군은 소해작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엔해군의 소해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북한해군의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유엔해군의 소해함정들은

6·25전쟁 기간 동안 총 1,088발의 기뢰를 소해하는 전과를 세웠다.

넷째, 유엔해군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수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여 전세를 대역전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륙작전을 계획하거나 상륙기만작전을 통해 공산군을 압박함으로써 공산군으로 하여금 전쟁기간 내내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한 조치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전쟁 중반부터 종반에 이르기까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의 동서해안에 대한 상륙공격을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 당시 제기된 많은 대상지역들 중에서 대표적인 지역은 원산 인근의 호도반도와 서해안의 해주반도 그리고 원산 남쪽에 위치한 고저반도 등이었다. 이들 지역 중에서 호도반도에 대한 상륙공격계획은 호도반도를 계속 점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적의 포대를 점령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해주반도에 대한 상륙공격계획 역시 상륙계획의 초안까지 작성되었으나 상륙을 위해 필요한 병력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고저지역에 대한 기만상륙작전만이 1951년 10월에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유엔해군은 공산군의 증원 병력을 유인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을 각개 격파하겠다는 최초의 작전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다섯째, 유엔해군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항공 초계작전을 통해 유엔군이 전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항공초계작전은 일상적으로 수행된 작전으로 초계비행대는 정찰비행으로 유엔해군이 한국해역에 대한 봉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뢰를 탐지하여 제거하고, 적의 어로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항모부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모함들의 작전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야간 작전항공기들이 원활하게 표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한국해안을 정찰하여 적의 동향을 분석하고 상선의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초계비행대 항공기들은 지상 항공기들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 보급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적의 잠수함 사용을 억제할 수 있었다. 아울러 6·25전쟁 기간 중에 초계비행대가 대만해협에서 수행한 초계활동은 한국해역에 대한 봉쇄효과뿐만 아

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대만 침공 의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한국해군이 수행한 작전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지원 아래 동·서 양 해역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유엔해군이 강력한 항공세력과 거포(巨砲)를 이용한 함포지원세력으로 대규모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주로 해안경비, 새로 인수한 PT정의 기습작전과 PC함에 의한 도서 탈환작전, 소해정과 유격부대의 합동작전, 북한지역 주요 도서를 근거지로 한 소규모 전투, 군수물자 및 피난민 수송 등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해군은 1951년 말부터 정전 시까지 동·서·남해안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경비작전을 실시하였다. 한국해군은 이러한 경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엔 및 한국해군의 해상작전 간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쟁기간 중에도 일본선박의 침범을 퇴치하여 영해를 수호하였고, 밀수선박을 단속하여 해상 치안을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1952년 1월에 인수한 4척의 PT정은 동·서해안에서 맹활약을 하였으며, 작전성과가 대단하였다. PT정은 한반도 해양환경에 매우 적합한 함정이었다. 왜냐하면 PT정은 최고속력이 50노트로 고속이었으며, 화력이 우수하였고, 흘수가 낮아 연안에 근접하여 작전하면서 북한의 요새와 병력집결지 및 포대를 탐색하여 격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PT정은 동해안의 원산, 성진 근해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장산곶, 순위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공산군의 해상진출을 저지하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셋째, 한국해군의 소해정들(JMS-301정 등)은 기본임무인 소해작전과 병행하여 황해도의 연안지역에서 유격부대원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소해정들은 먼저 유격부대원을 육지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사살하고 레이더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해군의 소해정들은 해주항을 비롯한 북한의 항구 내에 진입하여 적의 주요군수시설을 파괴하고, 선박들을 격침시켰다. 이들 작전은 소해정과 유격부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작전으로 전시에 해군함정과 유격대원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작전의 중요성을 부

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한국의 해병대와 해군은 동·서해안에 위치한 주요 전략도서에서의 방어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였다. 그 결과 해병대는 동·서해안의 도서에 주둔하면서 공산군에 대한 후방교란작전을 실시하였고,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는 해군과 정보수집작전을 수행하는 유격대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아군은 동해안의 영흥만에 위치한 도서(황토도, 여도, 신도 등)로부터 함경북도 양도까지, 서해안은 연평도로부터 백령도, 초도 및 석도에 이르는 주요 도서들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점령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한국해군은 호송 및 수송작전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성공에 기여하였다. 먼저 한국해군은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총 5척의 PF함(호위함)을 이용, 유엔해군의 보급선단 등을 호송하면서 해안에 근접한 적의 시설과 병력 집결지에 대한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호송작전 수행 중에 조우한 적의 함정을 격침시켰다. 그리고 한국해군의 PF함들은 작전 중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탈출한 아군 조종사를 구출하고 좌초된 아군의 함정을 함체 손상 없이 구조하기도 하였다. 수송작전은 해상작전의 일부로서 각 함정에서 소비하는 막대한 유류와 탄약, 병력, 필수보급물자 일체와 피란민 등을 목적지역에 안전하고 신속·정확하게 수송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를 위해 한국해군은 먼저 1951년 6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LST(상륙함)와 FS(수송함)로 수송선단을 편성하여 동·서·남해 전반에 걸쳐 수송작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195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JMS 및 PG(경비정)로 편성된 한국해군의 수송선단이 동해에서는 양도주둔부대의 지휘를 받고 서해에서는 백령도 주둔부대의 작전지휘를 받아 '백려작전'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953년 1월부터 7월 27일 휴전회담이 타결될 때까지는 역시 한국해군의 FS선단이 동해에서 '제1해룡작전'을 수행했으며, 서해에서는 LST선단이 '제2해룡작전'을 수행했다. 이때 남해에서는 LCI(상륙정), YO(유조정), LT-1(예인함) 등의 수송선단에 의해 '제3해룡작전'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한국해군이 전개한 수송작전의 결과로 각 도서 주둔부대에 막대한 군수물자가 수송·보급될 수 있었다.

한편, 1953년 7월의 정전협정 체결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엔군 측의 주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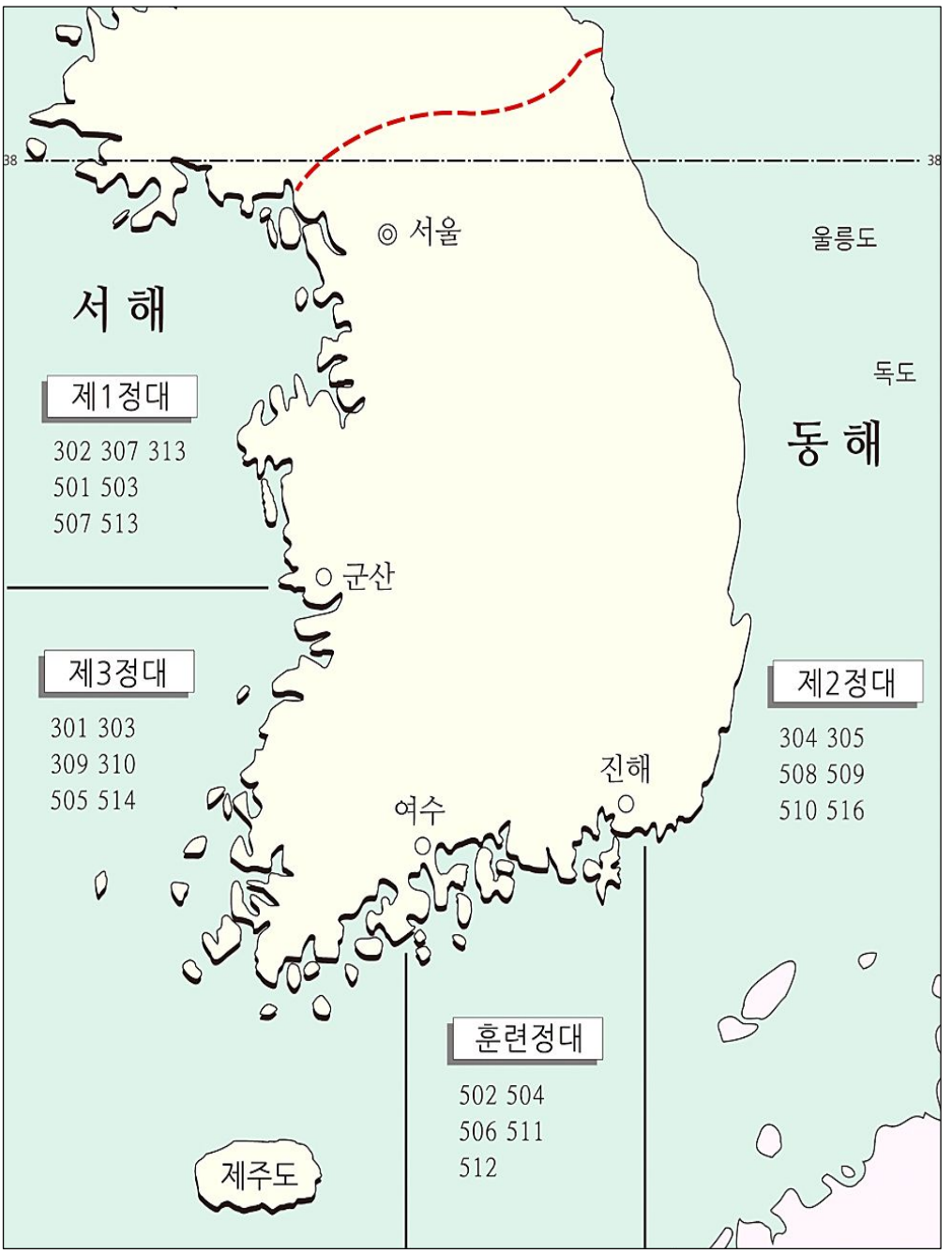
중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안 중의 하나는 1953년 8월에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이 결정하여 공포한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이다. 이 사안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이 조치는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에서 영토와 관련한 협의를 일체 배제하고 정전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유엔군 측의 호의(good faith)를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취한 결단이었다. 그 결과 유엔군사령관의 NLL 설정은 유엔군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유엔군 측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한 조치였다.

그리고 클라크 사령관의 이러한 NLL 설정이 공산군 측에게 유리한 조치임으로 인해 북한은 유엔군사령관의 NLL 설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73년까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인정·준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1973년 이후 「정전협정」 규정을 왜곡하면서 빈번한 군사적 도발과 함께 남북 간 각종 회담에서 NLL의 분쟁수역화를 통한 유엔사의 해체 및 정전협정 폐기를 기도함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지휘관계 및 해군전력 운용[16]

대한민국 해군은 1948년 11월 30일과 12월 7일에 각각 제정, 공포된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과 국방부 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에 근거하여 1948년 12월 15일부로 공식 발족되었다. 이때 해군참모총장에는 이전에 해군총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손원일 해군대령이 유임되었다. 이후 해군참모총장은 해군본부와 예하부대 조직의 창설 및 개편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한국해군은 해군본부의 주요 참모부서와 함께 4개의 경비부, 3개의 기지, 3개의 정대, 해군사관학교와 인천병원, 해병대 등을 예하부대로 편성하게 되었다.[17]

<상황도 6-2> 6·25전쟁 발발 이전 정대별 예속함정 및 경비책임해역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해군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동해안의 옥계, 삼척, 임원 일대에 상륙한 북한의 제766유격부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옥계해전을 치렀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오후 9시 30분부터 26일 오전 1시 38분까지 대한해협에서 전개된 해전에서 우리 해군의 PC-701함(백두산)이 600여 명의 무장 병력과 각종 무기, 탄약, 식량 등을 탑재한 북한의 1,000톤급 무장 수송선을 격침시킴으로써 개전초기 북한이 기도한 남해안 지역에서의 후방교란을 저지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해군사관학교 해사반도에 설치된 PC—701함의 마스트

한편, 미국은 1950년 6월 27일에 이루어진 유엔안보리 결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먼저 해군과 공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미 제7함대로 하여금 일본에 위치한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

록 했다. 이에 따라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제독은 6월 27일 한국 전장에서 극동해군이 수행할 임무에 관한 기본명령으로 작전명령 제5-50을 시달했다.[18] 이 명령에 따라 미 제7함대는 6월 27일 오후부터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고, 영국도 이날 극동해역의 함정들을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6월 28일에 미 해군의 주노함(Juneau)이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6월 29일에는 영국의 극동함대가, 6월 30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함대가 한국 해역에 속속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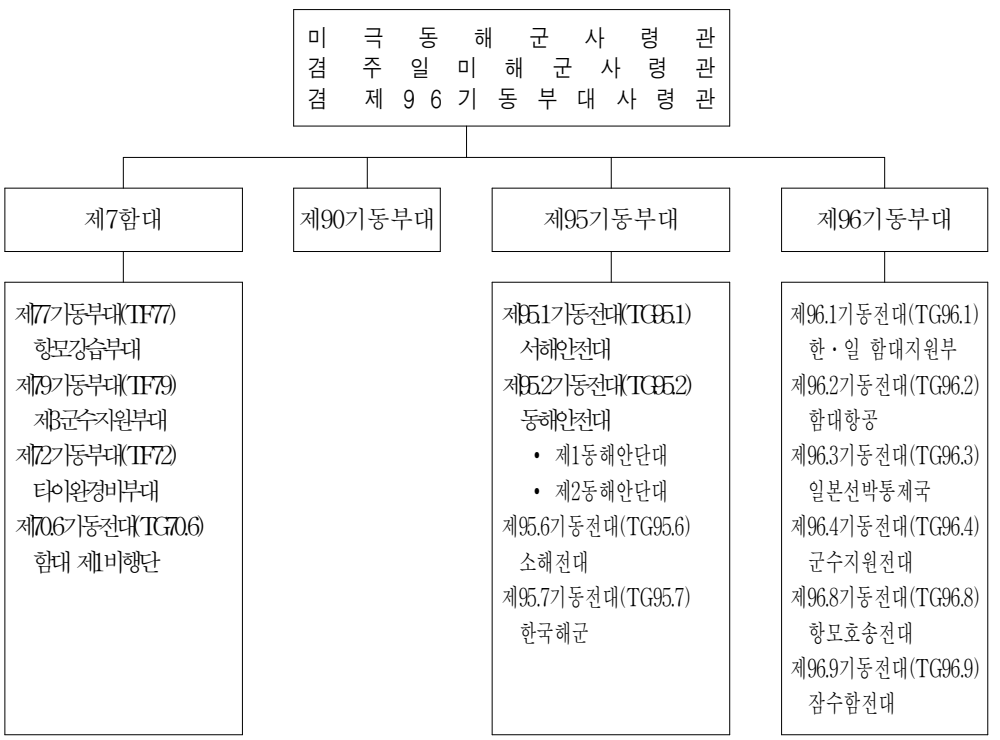
이처럼 유엔군의 주요함정들이 한국 해역에 도착하자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주노함과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제96.5기동전대(TG 96.5)를 편성하여 한국지원대(South Korea Support Group)로 지정했다.

이때 조이 제독이 사세보에 기지를 둔 한국지원대에 부여한 임무는 한국 해역을 초계하면서 적의 상륙을 저지하고, 침공해 오는 적 함정을 격침시키며. 아군에게 함포지원을 제공하고 철수작전을 수행하거나 한국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함선을 호송하는 것 등이었다.

이후 유엔해군의 세력은 미국의 경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 영국의 경순양함 2척 및 구축함 2척, 호위함 3척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구축함 1척과 호위함 1척 등 모두 14척으로 증강되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미 제7함대와 영연방국가들의 함정이 증강됨으로써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극동해역에서의 해군작전에 필요한 해군세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 극동해군을 제96기동부대, 제90기동부대, 제7함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7월 5일을 기해 부산으로 향하는 수송함선의 호송과 북한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 극동해군 작명 제8-50을 하달하여 제96기동부대의 편성을 세분화했다. 그 결과 동해작전은 제96.5기동전대가, 서해작전은 96.8기동전대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고 한국해군은 96.7기동전대로 편성되어 37도선 이남의 동·서·남해 해상에서 유엔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19] 이후 항공모함을 비롯한 유엔군 측 해군의 함정세력이 대폭 증강됨에 따라 미 극동해군은 1951년 9월 12일을 기해 추가로 제95기동부대를 창설하였고, 이때 한국해군은 95.7기동전대

<표 6-1> 6·25전쟁기 미 극동해군 기동편성(1950.9.12.~전쟁종료 시까지)[20]



(TG 95.7)로 재편되었으며 이러한 유엔해군의 지휘체계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3. 유엔해군 작전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이후 유엔군이 채택한 일관된 전략목표는 휴전협상의 과정에서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상전에서의 전투양상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의 주요 작전도 회담이 교착되었을 때에 적에게 압력을 가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동해안에서는 북위 42도 5분 이남의 해역과 서해안에서도 북위 39도 37분 이남의 해역으로 제한시켜 해상을 봉쇄하였으나, 유엔해군의 작전은 공중공격, 봉쇄작전, 함포지원사격, 군수지원 등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유엔해군이 육상의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힐수록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1]

1) 공중공격 및 체로키 폭격

기동성 있게 적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해군의 전투수단은 항모를 이용한 항공강습이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 표적을 항공모함의 신속한 기동력을 이용하여 접근, 함재기를 이용 공습을 전개하는 작전이다.

이에 따라 6·25전쟁이 시작된 이후 1953년 정전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엔해군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항모기동부대의 함재기와 해병 항공부대의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공격을 통해 유엔군의 전략·작전·전술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엔해군과 해병 항공부대의 작전중점은 개전초기에는 공산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아군 지상군의 작전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유엔해군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미 공군이 한반도 내에 공군부대를 운용할 만한 기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낙동강 방어전 때까지 이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움으로써 유엔 지상군이 낙동강 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 미 해군과 해병대의 항공부대는 개전 3일 만에 600~800대의 전투기를 한반도 작전에 투입했다. 7함대가 보유한 항공기 중 86~88%가 항공모함 등에서 운용 가능한 함재기이었기 때문에 이들 함재기들은 지리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전을 전개했다. 특히 1950년 7월 23일 미 육군이 근접항공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을 때 미 해군은 이에 신속히 응해 지상군을 지원했다. 낙동강 방어전 기간 중인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제77항모기동부대는 2,481회를, 해병대 항공기는 1,359회를 출격해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했다.[22] 유엔

해군의 작전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결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에 성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후에도 제77항모기동부대의 항공기들은 해안봉쇄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모함 및 호송 함정, 미 제5공군의 항공기, 해병 제1항공단 소속 항공기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다양한 유형의 항공강습작전을 20개월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 기간 중에 제77항모기동부대의 항공기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작전은 압록강철교 폭파작전(1950년 11월 8일~30일)을 비롯하여 두만강철교 폭파작전, 칼슨협곡 전투(1951년 3월 2일~31일) 등이었으며, 특히 유엔해군의 항공기들은 1951년 6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엔공군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교살작전'(Operation Strangle)[23]에도 참가하였다. 아울러 휴전회담이 군사분계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1951년 8월 25일, 제77항모기동부대는 북한 북동부의 소련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의 물자집결지인 나진을 강타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갑산을 기습공격하여 북한의 고위간부회의에 참석해 있던 북한 수뇌부 509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교살작전을 시작한지 1년 정도가 지난 후인 1951년 말에 작전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에 유엔해군의 항공기들은 2,379개의 다리, 4,519대의 차량, 7,028대의 화물열차, 4,674군데의 철도를 파괴하였다.[24]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유엔해군이 전개한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 항공차단작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손상된 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전선에 대한 병력투입 및 병참지원을 계속하였으므로 결국 유엔해군 항모기동부대와 해병 항공부대의 적 후방 차단작전은 소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1952년 초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는 항공작전의 목표를 기존의 항공차단에서 북한군의 주요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을 무력화시켜 공산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변경된 작전목표에 따라 북한군의 핵심적인 산업시설 및 인구가 밀집한 심장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수풍댐을 비롯한 발전시설 폭파작전(1952년 6월 23일), 신덕광산과 길주에 대한 공습작전(1952년 7월 27일~28일),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1952년 9월 1일) 및 고원 공습작전(1952년 10월 8일)과 함께 특히 평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습작전

(1952년 7월 11일)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이 공산군의 전투수행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전목표를 전환한 이후에 전개한 주요 작전과 성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전력공급원을 파괴하기 위한 공중공격으로 유엔 공군과 해군은 500대 이상의 전폭기와 폭격기를 투입하여 북한지역의 발전소 15개 중 13개를 완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5] 특히 1951년 10월 말부터 재개된 휴전협상이 포로교환 문제를 둘러싸고 1952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유엔해군은 공산군 측에 회담재개의 압력을 가하고 공산군 측의 전쟁능력을 박탈하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풍댐을 폭격하여 파괴시켰다. 수풍댐은 북한의 가장 큰 발전시설로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북한 전역으로 송전되어 주요 공장의 동력원이 되고 있었다. 수풍댐 폭파는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수행된 유엔해군 활동의 백미(白眉)였다. 수풍댐의 지리적인 위치나 MiG기, 대공포 등 북한군의 엄호세력을 고려할 때, 수풍댐 공습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으나 치밀한 공습계획과 조종사들의 우수한 기량이 바탕이 되어 유엔해군은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공습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평양지역 내에 위치한 모든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압록강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지하공장과 만주지역의 군수품 생산시설까지도 생산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둘째, 제77항모기동부대 함재기들은 미 제5공군 F-84 제트기들의 지원 하에 신덕의 아연 제련소와 광산, 길주의 마그네사이트 공장, 아오지의 정유공장 등을 차례로 폭격했다. 이 작전은 북한의 주요 군수시설을 파괴하여 북한군의 군수보급체계를 와해시키겠다는 목표로 수행된 작전이었다. 신덕 및 길주광산은 납과 아연을 생산하는 중요한 공격목표가 되었으며, 아오지는 종합적인 정유시설을 갖춤으로써 북한의 유류보급의 원천이 되는 지역이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함재기들은 먼저 적의 대공포를 선제공격으로 제압하고, 목표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북한의 주요 군수시설을 마비시켰다.

셋째, 고원 공습작전의 결과이다. 이 작전은 1951년 8월에 있었던 나진공습작전과

유사한 형태의 작전으로써 공군의 B-29 폭격기들이 해군 함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전개한 공중폭격작전이었다. 작전결과 유엔해군과 공군의 항공기들이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평원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고원지역을 파괴함으로써 북한의 동해안 철도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고원 공습작전은 6·25전쟁에서 이루어진 해·공군 합동작전으로서는 마지막 작전이었으며, 이후 유엔공군은 야간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공습작전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양 공습작전을 실시한 결과이다. 평양에 대한 공습은 평양 인근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술적 목표도 있었지만 북한의 심장부인 수도를 공격하여 북한군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평양지역에는 군수품 적재소 및 육군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군사시설과 공장지대 등이 위치해 있었고, 이곳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대공포와 레이더 기지가 있었다. 그러나 1952년 7월 11일, 제77항모기동부대의 함재기 91대가 미 제5공군의 협조를 받으면서 평양을 공습하여 평양지역에 위치해 있던 총 40개소의 군사시설, 군수품 집적지, 교량, 육군사령부 등에 폭탄 1,400톤, 네이팜 23,000갤런 등을 투하했다. 이로 말미암아 평양 주변의 기관차고 및 철도공장의 60% 이상이 파괴되는 등 북한의 정치, 군사 중심지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26]

이처럼 유엔해군의 항모기동부대가 유엔공군과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한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과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대한 공중공격은 공산군 측을 휴전회담 테이블로 유인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함으로써 공산군 측의 전쟁능력을 크게 저하시켰다.

한편 유엔해군은 1952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다시 작전의 중점을 교착된 전선에서 공산군과 작전 중인 지상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일명 “체로키(Cherokee) 폭격”에 가용역량을 집중하였다. 1952년 10월에 휴전협상은 다시 만날 약속도 없이 휴회하였고 1953년 4월 26일에 가서야 재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해군은 그동안의 항공차단작전

및 북한군의 주요군사 및 산업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중공격의 성과로 인해 해군의 공중세력을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즉 북한 지역 내에 위치한 소수의 전략적 목표물들은 이미 여러 번 공격을 당해 그 가치를 잃고 있었고, 적의 교통망을 파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상태였다. 그리고 근접항공지원 임무도 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교착된 상태에서 공산군들이 깊고 단단한 참호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기총사격이나 경폭탄 또는 로켓 등을 투하해서는 별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전선지역에서 아군 지상군의 포병사거리보다 후방으로 이격된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적의 군수품 집적소, 병원, 수송설비, 탄약저장소 등의 목표물을 해군 항공기의 정확한 폭격으로 파괴함으로써 전선의 지하진지에서 작전 중인 적의 전투능력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작전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전선 후방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폭격을 당시 미 제7함대 사령관 클라크(J. J. Clark) 제독의 조상 중의 한사람인 '체로키(Cherokee)'의 이름을 붙여서 '체로키(Cherokee) 폭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27] 이러한 공격계획은 클라크 제독이 제안했고 참모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는데, 이때 참모들은 북한의 후방에 있는 적들의 군수품들보다는 전선에 가까이 있는 군수품들을 파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공감하였다.

그것은 전선에 있는 군수품 하나하나가 모두 압록강을 건너와 먼 거리를 수송하느라 많은 비용이 든 것들로서 이러한 전선의 군수품을 파괴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선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적에게 심각한 보급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체로키 폭격의 개념이 정립되고 계획이 수립되자 첫 번째 체로키 폭격이 1952년 10월 9일에 시작되었다. 이때 키사지(USS Kearsage CV 33), 프린스턴(USS Princeton CV 37)[28], 엑세스(USS Essex CV 9) 항모로부터 총 91대의 항공기가 출격하여 미 제10군단의 포 사정거리 밖에 있는 적군의 부대와 지원시설들이 위치한 구역에 3번의 공격을 하였다. 공격결과 유엔해군의 항공기들은 적의 박격포를 비롯하여 37밀리 포, 참호, 엄폐호 등 다수의 시설을 파괴하고 적에게 많은 인명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공격과 관련하여 클라크 제독은 “10월 중순에, 제77항모기동부대가 보유한 공중공격 세력의 약 50%가 이런 임무에 투입될 때까지 체로키 폭격에 점점 더 많은 항공기들이 참여하였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이 공격을 선호하여 자기 부대가 공격할 때 한시적으로 폭격선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29]

그렇지만 몇 번의 체로키 폭격이 있은 후에 체로키 폭격과 근접항공지원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작전을 통제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해군과 공군 간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2년 11월 17일에 미 제8군사령관, 제7함대사령관, 제5공군사령관이 회의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근접항공지원과는 별도로 체로키 폭격은 계속 실시하되, 각 군 상호 간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이 체로키 폭격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52년 11월과 12월에는 체로키 폭격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엑세스와 키사지 항모의 항공기들이 김화지역에서 두 번째 체로키 폭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선에 있던 지휘관들에게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 지역은 적이 점령하고 있는 곳으로, 유엔군 전선에 공산군들이 퍼붓는 막대한 규모의 포격 때문에 일명 ‘포병의 골짜기’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체로키 폭격이 진행되는 동안 미 제9군단장인 젠킨스(R. h. Jenkis) 중장은 제77항모기동부대 항공기들이 자유롭게 체로키 폭격을 할 수 있도록 폭격선을 5,000야드나 아군 쪽으로 옮겼다.

유엔해군의 항공기들은 포병의 골짜기에 대한 첫 번째 공격으로 포 3문, 엄폐호 5개를 파괴하였고, 포 4문과 엄폐호 5개를 손상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적군 야영시설 25동을 파괴하고 10동 이상에 손상을 주었다. 이 당시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아군의 항공통제관들은 해군 항공기들이 투하한 1,000파운드 폭탄의 90%가 표적에 명중하였다고 보고했다.

체로키 폭격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해군이 수행하는 공중 임무의 반 이상이 전선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1952년 11월 2일에서 25일까지는 총 522회의 체로키 폭격과 212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제77항모기동부대 항공기들의 출격이 있었

는데 이 기간 중에 제77항모기동부대가 체로키 폭격을 통해 이룩한 전과는 아래 도표와 같다.[30]

<표 6-2> 1952년 11월 2~11월 25일간 체로키 폭격의 전과

목표물	파 괴	손 상
보급지원 지역	5	3
엄폐호	56	102
참호	680야드	435야드
박격포	40	15
포	34	31
병사 막사	34	7
병력 사상	59	0
굴	1	5
건물	6	0
철로 절단	61	0
철도 차량		4

1953년 초에 체로키 폭격에 대한 문제점이 추가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 공격으로 인한 우군의 피해였다. 실제로 195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유엔해군 및 공군의 체로키 폭격 간에 총 63회나 우군지역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중에서 39번은 제5공군이, 18번을 해병항공단이, 그리고 해군은 6회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체로키 폭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1953년 3월 이후에는 날씨가 좋아지고 전선에서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통제절차[31]와 상세한 상황설명을 조건으로 전선에 대한 체로키 폭격이 다시 증가하였다.

체로키 폭격에 대한 육군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체로키 폭격으로 적전방의 배후에 있는 목표물들을 완전히 파괴시켰다고 그들은 말했다. 모든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공격은 확실히 적군에게 큰 피해를 주어 그들의 전투력을 감소시켰다. 사실은 체로키 폭격 덕분에 적의 공격을 무디게 하고 막을 수 있었

던 것이다.[32]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을 비롯한 유엔군 수뇌부의 체로키 폭격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다.[33]

1952년 말부터 1953년 초의 겨울에 걸쳐 교착 상태인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동안, 전선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정찰활동을 제외한 지상군의 움직임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고통스런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바다에서의 4월은 제77항모기동부대의 매일 반복되는 출격으로 시작되었다. 유엔해군은 이를 통해 길주에서 단천으로 가는 철로를 파괴하고, 미 제9군단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하였다. 아울러 성진에 대한 함포사격과 함께 원산에 있는 포대와 목표물들을 공격하였다. 4월 13일에는 청진에 대한 대규모 공중공격을 다시 실시하였는데 필리핀 씨 항모(Philippine Sea, CV-47)[34]와 오리스카니 항모(Oriskany, CVA-34)에서 항공기 119대가 출격하여 청진의 교통, 보급시설과 기뢰저장고를 폭격했다. 4월 21일에도 프린스턴과 오리스카니 항모의 항공기들이 총 223회의 출격을 하여 북한의 북동지역에 있는 산업시설과 저장시설을 폭격했다.

1953년 4월말에는 한반도의 전쟁양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중지상태에 있던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간의 접촉이 재개되어 4월 26일에 199일 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휴전회담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은 포로송환문제와 한국 정부의 휴전반대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고, 양측 간에는 휴전에 대비하여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지쟁탈전과 일부지역에서의 대규모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동부전선에서는 격렬한 전투 후에 5월 말과 6월 초에 앵커고지와 812고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뒤를 이어 중부전선에서도 공산군이 미 제9군단과 한국군 제2군단 정면에 대규모의 전력으로 공격을 가해 왔다. 이로 인해 한국군 제2군단은 계속 밀리고 있었으며, 수도고지와 크리스마스 고지 등을 적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런 적들의 활동을 보고, 미 7함대사령관 클라크 제독은 테일러(Taylor) 장군의 미 제8군사령부를 방문한 후, 6월 6일에 제77항모기동부대와 제95기동부대에게 전선에 있는 유엔군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항모 항공기들을 동원하라고 명령

했다. 이에 따라 전쟁의 막바지에 제77항모기동부대는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모 4척(박서, 레이크 챔피온, 필리핀 씨, 프린스턴)이 계속해서 전선에 대한 지원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작전성과는 훌륭했다. 함재기들의 출격 횟수, 투하한 폭탄의 무게, 항해 일수가 많아지고, 야간 항해 중에 연료를 보급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1953년 6월 14일과 15일에 제77항모기동부대는 각각 300번과 470번 이상의 전선출격 임무를 수행했다. 이 작전에서유엔해군이 이룩한 공로와 관련하여 많은 한·미 군지휘관들이 찬사의 전문을 보내왔으며, 미 제7함대사령관 클라크 제독은 앵커고지 작전에서 제7함대가 공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35]

"나는 한국군 제1군단장인 이 장군과 협의 후 앵커고지를 되찾고 그 지역을 포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함포사격과 항모의 공중공격을 집중하도록 명령했다. 이때 기함인 뉴저지함과 세인트 폴 순양함도 전투에 참가토록 했다.

나의 명령에 따라 항모 항공기들은 뉴저지함과 세인트 폴함의 함포 사격과 함께 6월 14일부터 15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폭격했다. 제7함대 항공기들의 멋진 도움으로 이 장군의 부대는 고지 두 개를 되찾았지만 앵커고지 정상에 있는 적들은 14일 오후 4시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뉴저지함은 앵커고지 점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한 이후로 최대의 함포사격을 하였다.[36] 뉴저지함은 적의 엄폐호 44개 파괴 및 20개 손상, 굴 2개 함몰, 참호 610야드 파괴, 포대 13개 파괴 및 13개 손상 등의 전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제7함대 항공기와 함포의 지원을 받은 한국군 제5사단 병력들은 적들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오후 4시 경 앵커고지 정상을 탈환하였다. 이 전투의 결과로 공산군은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었고, 한국군 제1군단은 200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장군은 자기 부대가 앵커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항모 항공기의 공격과 함포지원사격에 감사를 표했다. 불행히도, 그날 밤에 적들에게 다시 고지 정상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동부전선에서 적의 공세가 무너졌고 그 지역에는 전투가 중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그동안 휴전협정 체결을 반대해 오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6일을 기해 27,000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산군 측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금치 않았다. 그리고 공산군 측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여 1953년 7월 13일을 기해 전쟁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공격을 가해왔으며, 이때 한국군을 곤궁에 빠뜨려 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정일권 장군이 지휘하던 한국군 제2군단을 집중 공격하였다. 적의 공격에 따라 한국군 제2군단은 초기에 10~14㎞를 물러났지만 잘 버티었다. 이때 제77항모기동부대의 항모들은 다시 위기에 처한 한국군들을 지원하게 되었고 클라크 사령관은 7월 14일에 제77항모기동부대의 모든 항공기들은 한국군 제2군단 정면의 전선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제77항모기동부대의 지원을 받은 한국군 제2군단은 공산군 측의 공격을 격퇴하고 전선을 회복하였다.

전쟁의 마지막 날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다른 날들과 비슷했다. 제77항모기동부대의 항공기들은 철도 차량 23개, 철교 11개, 터널 1개, 건물 69동, 참호 100야드와 주도로 교량 9개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 그리고 철도 40군데와 주도로 세 군데를 절단하였다. 이를 위해 필리핀 씨 항모의 항공기들은 49회를, 박서 항모는 77회를, 레이크 챔피온 항모는 124회를 각각 출격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항공작전은 종심작전으로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해군에게는 제해권의 확보와 함께 우세한 제공권을 보유하는 것이 작전성공의 관건이었다. 또한 북한군은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수의 대공포를 배치하였고, 거미줄과 같은 레이더망을 구축하여 유엔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있었다. 특히 주요시설 인근지역에 있는 공산공군의 MiG기[37]는 유엔군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후방에 대한 공습작전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으나 유엔해군은 치밀한 공습계획과 조종사의 우수한 기량으로 이 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아울러 유엔해군은 전쟁의 막바지에 체로키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적과 직접 접촉 중인 유엔군의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였다.

2) 해안봉쇄 및 함포지원사격

1950년 7월 4일, 다음과 같은 무선방송이 태평양에 있는 모둔 미군 함정들에게 전파되었다.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북한 침략자들을 몰아내 한국에서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한 유엔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한국 해안 봉쇄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상의 해상봉쇄작전은 1950년 6월 30일부터 이미 수행되고 있었는데, 북위 37도 이북해역에 대해서는 유엔해군이, 37도 이남 해역은 한국 해군이 각각 담당하였다.[38] 한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당시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서해에서 39° 35′N, 동해에서는 41° 51′N을 봉쇄한계로 하는 한반도 전 해안에 대한 봉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봉쇄의 범위를 본래 한반도 연안의 북쪽 경계로부터 조금씩 남쪽으로 잡은 이유는, 해군세력을 구소련[39]이나 중공 영토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수역에서 운용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구소련과 중공은 미국에 의해 선언된 봉쇄를 비난하였고 봉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봉쇄에 도전하지는 않았다.

한반도 봉쇄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3년 20여 일간 실효성 있게 계속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봉쇄조치로 인해 북한으로의 해상교통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적국은 물론 모든 중립국 상선의 항해가 봉쇄되었고 연안에서의 어로까지 금지되었다.

한반도 해안봉쇄에 투입된 함정세력은 최초에 13척이었고, 봉쇄를 실시한 3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서해와 동해에서 각각 평균 15~16척 정도의 연합군 해군함정들이 참가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국가들은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프랑스, 태국 등이었으며, 이들 국가의 함정들은 미국해군이 중심이 된 봉쇄와 호송활동을 효과적으로 잘 지원하였다. 이때 어로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임무는 한국해군의 소형함정들이 주로 수행하였다.

1950년 7월 4일 이후부터 1953년 정전 시까지 해안봉쇄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유엔해군에 부여된 또 다른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함포지원사격을 통해 아군 지상군의 작전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해군의 함정을

이용하여 주요항만을 비롯한 한반도의 정해진 전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한 상태에서 함포지원사격을 이용하여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적의 해안방어시설과 철도를 비롯한 수송 시설 및 수단을 파괴하였다. 아울러 함정에 탑승한 해병 특수부대원들을 적진에 침투시켜 적정을 파악하고 주요시설을 파괴하였으며, 적의 어로활동을 저지하는 등의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유엔해군은 이러한 해안봉쇄 및 함포지원사격을 통해 아군 정면의 적 지상군을 대상으로 피해를 강요함은 물론이고 해안에 인접한 공산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의 해안방어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유엔군의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봉쇄를 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유엔해군의 함정 세력은 매우 부족했다. 그 결과 유엔해군은 미 해군의 순양함 주노, 구축함 맨스필스, 스웬손, 드 헤븐, 콜레트함과 영국 해군의 순양함 벨파스트, 자마이카, 구축함 코샥, 콘소트, 프리깃함 블랙스완, 알라크리티, 하트함 그리고 호주 해군의 프리깃함 쇼울 헤븐함으로 봉쇄작전에 돌입하였다. 이후 7월말, 유엔의 추가 해상세력 요청에 따라 많은 함정들이 한국해역으로 증파됨에 따라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새로운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모든 봉쇄 및 지원함정들을 하나의 기동부대(TF 95.6) 예하로 편성하여 제3순양함전단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때 조이 제독은 서해에서의 봉쇄 임무는 영국 해군의 앤드류스 제독에게 맡기고 동해는 제96.51 기동전단과 제96.52기동전단으로 구분하여 미 해군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 2개월이 경과한 1950년 9월 12일을 기해 유엔해군 예하 제95기동부대의 조직은 대폭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부터 알란 스미스 제독이 딕시함(AD-14)에 승함하여 새로운 제95기동부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제95기동부대가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유엔해군의 봉쇄와 호송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제95기동부대의 공식명칭은 '유엔 봉쇄 및 호송부대'였다. 그리고 전단 예하의 제95.1기동전단은 영국 제독의 지휘하에 서해안을 담당하였고, 동해안 해역을 담당한 제95.2기동전단은 다른 국가 해군요원들이 주로 지휘하였다.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유엔해군 함정의 해안에 대한 함포사격은 1950년 6월 29일 동해안의 옥계에서 주노함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때 목표물은

적군 병력으로서 주노함은 5인치 포탄 459발을 발사하여 27명의 적 사상자가 발생토록 하였다. 첫 번째 함포사격이 있은 다음날에도 옥계지역이 또 한번 주노함 함포의 표적이 되었다. 한편 유엔해군의 함정과 북한해군 함정 간의 첫 번째 해상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 7월 2일 일요일에 주문진 부근해상에서 있었다. 이 두 사건은 이후 1953년 정전 시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단행된 유엔해군의 해안봉쇄와 함포지원사격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해안봉쇄와 함정의 함포지원사격은 어떻게 보면 '우습고 산만한 작전'이었으나, 유엔해군이 500마일에 달하는 북한의 모든 해안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진행한 이 작전으로 육상에 있는 공산군의 기차와 트럭들이 바다에 있는 유엔해군의 함정들에 쫓기고, 공산군들은 해안에서 33㎞까지 떨어져 있으면서도 유엔해군의 함포사격으로부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 해안을 봉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서해안은 30피트나 되는 조수간만의 차가 있었고, 여러 개의 만과 강, 수백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다. 동해안 역시 단순하기는 하였으나 높은 산과 급경사로 이루어진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다.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와 강들은 적들이 부유 기뢰를 부설하는데 사용되었다. 봉쇄를 위한 두 번째 장애물은 한반도가 미국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봉쇄와 포격을 하기 위한 함정이 부족한 것이었고, 네 번째 장애물은 효과적인 봉쇄를 위해서는 해안의 각 항구들이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함정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군의 봉쇄와 함포 지원사격은 6·25 전쟁 전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유엔군의 전략 및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미 해군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유엔해군의 대표적인 해안봉쇄 및 함포지원 작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엔해군은 1951년 2월 16일부터 정전 때까지 원산항 항만을 봉쇄하는 작전을 펼쳤다. 미 해군 제7함대 해안봉쇄부대는 제77항모기동부대 소속 함재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원산항을 봉쇄함으로써 전쟁기간 내내 소련에서부터 북한으로 이어지는 해상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미 해군 및 유엔해군은 소해정 4~5척과 구축함 2~3척으로 원산항을 계속 봉쇄하는 동시에 작전을 확대해 1951년 3월 8일에는 성진항을, 4월 26일에는 흥남항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유엔군의 상륙을 우려한 북한군은 보병 3개 사단과 포병 2개 여단을 원산 주변에 배치했으며, 이로 인해 유엔지상군과 접촉하고 있는 일선에서는 그만큼의 병력 부족 현상을 감내해야만 했다.

유엔해군은 주요항만에 대한 봉쇄작전과 함께 유엔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하고 적의 해안방어시설 및 물자집결지, 철도 및 기차 등을 파괴하기 위한 함포지원사격을 개전초기부터 정전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유엔해군은 유엔지상군의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전까지의 불리한 상황에서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과 해병항공기의 항공 폭격, 해병 제1사단의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작전을 비롯한 유엔해군의 4가지 초기 작전[40]이 유엔군의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4가지 작전 중에서도 특히 유엔해군의 함포지원사격은 적군을 죽이거나 적군의 기차나 트럭을 멈추고 보급품을 파괴함으로써 부산교두보에 가해지는 공산군의 압력을 줄여 줄 수 있었다.

실제로 1950년 6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해안에 있는 적군의 군사목표물에 대하여 봉쇄세력들은 총89회의 함포 지원사격을 했다. 그 결과 수천 톤의 목표물이 파괴되었고 다리, 창고, 철도, 터널, 공장, 유류탱크, 부대들을 망가뜨렸다. 이러한 형태의 함포지원사격은 전쟁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특히 1953년 6월에 북한군이 대공세를 전개하자 유엔해군은 전 항공모함이 구축함, 전함, 순양함의 지원 아래 고성근해로 진출하여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재기 및 해병항공부대 항공기의 폭격과 함께 전함의 함포사격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유엔군의 작전 및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한편 유엔해군은 해안봉쇄작전의 일환으로 전함에 탑승한 해병대의 특수요원을 고무보트를 이용, 적의 해안지대에 침투시켜 주요시설을 파괴하고 적 병력을 납

치하여 적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유엔해군이 수행한 가장 큰 규모의 특수침투작전은 1951년 4월 7일 청진 부근에 위치한 철로 상에서 전개되었다. 이 작전은 순양함 전대장의 지휘아래 한척의 순양함과 2척의 구축함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제41해병여단 요원 250명이 상륙함(LSD-22, APD-127)을 이용하여 해안에 기습상륙, 청진 남쪽 8마일 지점에 위치한 철도시설을 파괴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을 위해 소해함 4척이 침투해역에 대한 긴급소해를 실시하였고 구조함도 동원되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적들의 저항은 없었고, 해병요원들은 계획대로 폭약을 설치하여 100피트 정도의 터널과 철도를 15피트 깊이로 파괴시키는데 성공하였다.[41]

1951년 6월 20일에 스미스 제독의 뒤를 이어 다이어 제독이 95기동부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7월 10일을 기해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해군은 앞으로 25개월 동안 더 전투를 해야 했다. 이 당시 다이어 제독은 바다에서의 공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이 바다에서 지상에 있는 적들에게 타격을 주고 괴롭혀야 휴전협상이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해상을 초계하는 함정들은 봉쇄 유지, 어로활동 감시, 적 해안에서의 수송활동 저지, 기뢰제거,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유엔군 측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봉쇄활동은 지루한 초계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함장의 창의력과 의도에 따라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의 함정들은 1951년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스틱켈 구축함(DD 888, 함장 제스 가이 중령)이 성진 근해에서 적의 철교를 파괴하고 무기와 보급품을 수송 중인 무장어선을 격침시킨 것을 비롯한 다양한 작전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개하였다. 이 기간 중 전개된 유엔해군의 주요작전을 작전의 유형과 명칭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51년 7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개된 “한강하구 시위 작전”, 1951년 9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개된 로스엔젤레스 및 뉴저지함의 한국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함포지원 사격, 1952년 초부터 시작된 해군의 봉쇄와 함포사격을 통한 “올가미 조르기 작전”, 역시 1952년에 집중적으로 수행된 미 제1해병사단의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대규모 함포지

원사격, 인명구조 등에 사용하는 구명보트로 해안 또는 항구에서 표적 탐색과 함포통제 그리고 적들의 소형 배들을 공격하거나 빼앗기 위한 작전 활동, 소형선박 나포, 적의 해안포들과의 결투, 어로저지 활동, 1952년 4월 13일부터 시작된 수상함들과 항모 항공기들의 협조된 합동 공격, 1952년 1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꾸러미와 탈선작전"[42], 1952년 7월 이후 시작된 "기차 사냥" 등이다.

계속해서 전쟁의 마지막 해인 1953년에 전개된 해안봉쇄 및 함포지원사격 중 대표적인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53년 1월에 6척의 미국 함정들이 공산군의 포에 맞았지만 큰 손상은 없었다. 3월 6일 로우스 구축함은 흥남 인근에서 제77항모기동부대 항공기들과 함께 적들의 강력한 대응사격에도 불구하고 기관차 몇 개를 망가뜨렸다. 5월 17일에 키에스함은 브러쉬 구축함과 함께 고저 근해에서 육상에 상륙하여 북한군을 공격하는 한국 기습공격팀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때 작전을 완료한 한국 기습공격팀은 2대의 적 자동포와 소형 배 14척을 파괴했다고 보고했다.

4월 말부터는 휴전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모든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해안에서도 적들의 포는 강해지고 정확해졌다. 그러나 봉쇄를 하고 있는 유엔해군 함정들 역시 적극적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챤들러와 빌트시 구축함은 1953년 6월 3일에 탄천 근해에서 기차 한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6월 12일에는 맨체스터 순양함과 카펜터 구축함이 적의 항구 내에 위치한 군사표적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하는 동안 적들도 16발의 포격으로 대항하였다.[43]

전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던 1953년 6월에, 뉴저지 전함과 중순양함 세인트 폴함은 1952년 10월 아이오와함이 유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함포사격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동해안 축선에서 작전 중이던 지상군을 대상으로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16척의 함정들은 3개팀으로 나누어 유엔 지상군의 정면에 지속적인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지원사격을 실시한 결과 전쟁의 마지막 두 달 동안 이들은 5인치 13,000발, 8인치 2,800발, 6인치 700발, 16인치 1,700발을 적들에게 퍼부었다.[44] 전쟁이 끝날 무렵에 북한군이 동해안에서 현재의 접촉선으로부터 전방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해군의 함포지원사격 덕분

이었다. 그 결과 군사분계선이 동해안에서는 다른 전선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어졌다.

전쟁의 마지막 날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함의 함포지원사격과 봉쇄작전은 진행되었다. 세인트 폴 순양함은 저녁 9시 59분에 6·25전쟁에서 마지막 함포를 발사하였다.[45] 그리고 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원산항 주변의 섬들에서는 사격중지 시간인 저녁 10시부터 그동안 구축하였던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해상봉쇄와 함포지원사격은 끝이 났다.

6·25전쟁 기간 동안 유엔해군이 전개한 봉쇄작전의 수행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엔해군이 전개한 봉쇄작전의 결과로 적들의 주 보급로 5개 중 3개[46]가 봉쇄되어 공산군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유엔해군은 적들이 바다에서의 군사활동은 물론이고 보급품의 운송과 어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다음은 유엔해군이 6·25전쟁을 통해 미 해군 역사에는 없었던 포격과 저지활동을 한국 해안에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해군의 함포는 원래 해상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거나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선에서의 지상군 지원, 전선의 양측면 방어, 해안에 있는 철도와 도로 파괴 등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3개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은 잘 수행된 중요한 활동이었던 반면, 저지활동의 한 분야로서 부수적인 기능이었던 세 번째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는 유엔해군의 제77항모기동부대와 제95기동부대의 함포들이 집중적으로 북한군들이 사용 중인 북동 보급로를 공격하여 방해하고 괴롭게는 하였지만 지상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에서 유엔해군이 수행한 봉쇄작전은 공산군이 유엔해군의 해상봉쇄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가 공산군 측 공군 및 해군의 저항이 전혀 없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여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형태의 저항 중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유엔해군의 봉쇄작전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소해작전

유엔해군이 개전초기부터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다양한 유형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반면에 북한해군이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전은 기뢰를 부설하여 유엔해군의 함정이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고 함정의 포격을 방해하는 기뢰전뿐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북한의 기뢰전에 대응하기 위한 소해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유엔해군은 소해작전을 실시하면서 기뢰에 충돌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특히 연안에 근접하여 소해임무를 수행하던 소해함정들은 북한 해안포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유엔해군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급 전속기동 또는 지그재그 항해 등의 회피기동과 북한군의 사격조준을 방해하기 위한 연막작전 등을 실시하였으며, 야간 소해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엔해군의 소해함정들은 유엔해군의 소해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북한해군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기간 동안 소해작전 분야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그리고 소해작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종사 구조작전, 철도 차단작전 등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유엔해군의 소해함정은 6·25전쟁 기간 동안 항만 접근로, 항구, 수로 및 함포지원구역에서 총 1,088발의 기뢰를 소해하였다. 그리고 고유 임무인 소해작전뿐만 아니라 소해된 해역에서 다시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적 어선 나포, 기뢰정보 수집과 배포, 한국해군 소해부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및 해·공군 구조작전 수행과 관련한 한국 연락장교 훈련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엔해군의 소해함정은 1952년 10월에 한반도 해역에서 소해작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 잠수함들에 의하여 수행된 것과 유사한 조종사 구조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소해함 심볼함(Symbol)과 덱스트러스함은 동서해안에서 우군 조종사를 구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축함급 소해함인 DMS-35는 철도 차단작전 중에 북한군 열차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전공을 세웠다.[47]

유엔해군은 주로 한반도 연안에 대해서 주간에 소해작전을 수행하였으나, 주간 소해작전 간 북한군 해안포의 격렬한 사격으로 인하여 아군의 함정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1952년 10월 15일부터 실시된 고저 상륙양동작전을 위한 주간 소해작전이 실패함에 따라 야간 소해작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야간 소해작전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전을 한반도 전역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야간 소해작전의 교리를 개발하고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아울러 비록 야간에 실시되는 소해작전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 유엔 함정과 소해된 기뢰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등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작전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불구하고 유엔해군은 1952년 후반기부터 휴전 때까지 원활하게 야간 소해작전을 수행하여 아군 함정의 안전한 해상활동을 보장하였다.[48]

한편 유엔해군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소해도 실시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달성한 전과를 이어가기 위해 원산에 재차 상륙작전을 감행하려 했지만 영흥만에서 기뢰가 발견돼 이 작전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미 해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한 소해작전으로 북한이 부설한 다수의 기뢰를 제거함으로써 유엔군의 상륙작전 성공 및 소해 전술발전에 일조했다.

4) 상륙작전 및 상륙위협

6·25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맥아더, 리지웨이, 밴 플리트 그리고 클라크 등 미국의 고위 지휘관들은 상륙작전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6·25전쟁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진행됨으로 인해 상륙작전과 해군의 함포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수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여 전세를 대역전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는 추가적인 상륙작전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상륙기만작전을 전개하여 공산군을 압박함으로써 공산군으로 하여금 전쟁기간 내내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한 조치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공산군은 휴전회담이 개시되고 전선이 교착된 이후에도 유엔군의 상륙능력에 대해 잘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아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전선지역의 진지를 요새화하는 동시에 해안에서도 유엔군의 폭격과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다중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공산군들은 그들이 방심한 사이에 인천에서 기습을 당하여 궁지에 몰렸던 것을 생각하고 원산, 이원, 흥남 등 상륙이 가능한 해안에 대한 방어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공산군들이 갖고 있었던 유엔군의 상륙공격작전에 대한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49]

> "적군은 유엔군의 상류에 대비하여 그들의 해안선을 방어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인천상륙을 통하여 우리의 상륙작전 능력을 잘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방어를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들은 상륙예상지역으로 판단되는 원산부근에 대한 방어조치를 강구했는데 수많은 북한사람들을 동원하여 상륙작전에 대비한 해안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방어세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공군들을 배치하여 공격을 받는 해안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이때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전선에 있는 지하참호처럼 지하 깊이 굴을 파고 참호진지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해안방어용 참호는 바다로부터 상륙군이 상륙에 성공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을 때도 그 내륙 쪽의 참호로 이동하여 계속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안을 따라 이중으로 설치되었다. 아울러 해안선에는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 외곽에는 지뢰를 깔았다. 또한 해안에 있는 논과 저수지를 이용하여 상륙군의 전차와 중장비들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전쟁 중반부터 종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동·서해안에 대한 상륙공격을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실제로 기만 상륙작전을 시행했다. 이 당시 제기된 많은 대상지역들 중에서 대표적인 지역은 동해의 간성과 서해의 인천 그리고 원산 인근의 호도반도와 서해안의 해주반도, 원산 남쪽에 위치한 고저반도 등이었다. 이들 지역 중에서 호도반도에 대한 상륙공

격계획은 호도반도를 계속 점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적의 포대를 점령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해주반도와 간성,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공격계획 역시 상륙을 위해 필요한 병력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작되지 못하거나 시행 중에 취소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고저지역에 대한 양동 상륙작전만이 진행되었다.

고저상륙작전은 1951년 중반에 태평양함대사령관인 힐(T. B. Hill) 제독이 처음 제안하였는데, 상륙군이 고저를 점령한 다음 미 제8군과 합세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리시켜 이를 각개 격파하려는 작전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전세를 유엔군에 유리하도록 하며 공산군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② 공산군의 전선으로의 병력증강을 차단하며, ③ 유엔군의 고저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산군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 이를 격파한다. 즉, 고저상륙은 이 지역을 점령하는 목적보다는 공산군을 유도하기 위한 상륙양동작전의 일환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작전을 위해 제7상륙기동부대가 편성되고 사령관에는 제7함대사령관 클라크 중장이 임명되었으며, 미 제1기갑사단과 미 제118연대 전투단이 상륙군에 편성되었다. 수송선단에는 TG76.4의 베이필드함(Bayfield, APA-33, 함장 : 대령 W. E. Ferrale), 오카노간함(Okanogan, APA-220) 및 8척의 수송선이 합류하였고, 항공모함 본 홈 리차드함(Bon Homme Richard, 함장 : 대령 W. P. Waston)과 수 척의 구축함이 함포사격을 담당했으며, 기함은 전함 아이오와(Iowa)였다.

고저상륙작전은 제7상륙기동부대가 클라크 중장의 지휘 아래 1952년 10월 6일부터 상륙작전 준비를 시작, 10월 15일 14시를 H-Hour로 15일 19시까지 계속하였고 함포와 함재기들은 16일까지 적진을 강타했다. 그리고 10월 16일 16시 30분에 작전을 사실상 종료하였다. 이처럼 유엔해군이 고저상륙작전을 조기에 종료한 것은 전선에 배치된 적이 아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지하진지에서 나와 상륙지역으로 이동하는 반응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고 경미하였으며, 그들이 주로 해안포대만을 이용한 작전으로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항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약하면, 고저지역에 대한 상륙양동작전은 적을 우리의 우세한 항공기와 함포사격에 노출되도록 유도하여 타격을 가함으로써 북한군의 지역방어능력이 약해지

면 필요시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실시하려는 의도하에 수행되었다. 그리고 작전을 실시한 결과 유엔군 측의 최초 의도는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유엔군이 매우 적은 손상으로 그 지역에 상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유엔해군은 6·25전쟁 전 기간을 통해 한반도 전구 내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제해권을 이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느 지역에라도 지상군을 상륙시키거나 상륙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전투력을 투사하여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공산군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전력을 분산 운용하도록 강요하였다.

5) 항공 초계작전

6·25전쟁 시 항공 초계작전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유엔군이 전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항공작전은 크게 항모항공, 해병항공, 초계항공 등 3가지 유형으로 수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된 작전은 항공 초계작전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즉시 한국해역에 투입할 수 있는 초계기는 모두 8대에 불과했다. 이후 1950년 8월 4일, 제6함대 항공단이 창설되어 한국해역에 대한 초계임무가 부여되어 이 해역 내의 모든 초계비행대를 통제하게 되었으며[50], 미 해군의 초계비행대들이 추가로 한국해역에 도착하여 전력이 증강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 제6함대 항공단에 부여된 임무는 한국 근해에서의 대잠초계임무, 정찰, 수송단 호송, 작전지원을 위한 기상 관측임무와 탐색 및 구조, 기뢰탐색, 사진정보 수집, 보급임무 등 아주 다양했다.

전쟁기간 중 초계비행대가 수행한 또 다른 특별한 임무는 해군함정의 함포사격 시 탄착수정이었다. 첫 번째 탄착수정은 1950년 8월 2일, 제6초계 비행대 항공기가 영국 구축함 코삭 및 콕케이드가 목포지역에 함포사격을 할 때 수행하였고, 두 번째는 8월 6일에 역시 제6초계 비행대의 P2V기 2대가 유엔해군의 군함 5척이 인천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을 할 때 수행하였다. 이후에도 초계 항공기들은 긴

요한 함포사격에 대한 탄착수정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특히 1950년 10월 12일 원산항에 대한 기뢰탐색 시에는 제41초계비행대의 보이드 소령이 조종하는 PVM기가 적의 해안포 사격에 피해를 받은 소해함을 지원하는 동시에 엔디코트 소해 구축함의 함포사격 시 정확하게 탄착수정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에 위치한 적의 포병을 무력화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6·25전쟁 시 초계비행대가 수행한 임무 중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기뢰를 탐지하여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1950년 9월에 최초로 시행된 이후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 후에 제42초계비행대와 제47초계비행대의 PBM기들이 인천과 진남포항을 저공비행하면서 기뢰를 수색하고 소해함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PBM기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직접 기뢰를 파괴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저속으로 비행하는 큰 비행기를 이용하여 기뢰를 탐색하고 파괴하는 임무는 매우 어렵고 위험을 내포한 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함대 항공단의 제42, 제47초계비행대 항공기들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6함대 항공단의 항공기들이 탐색하여 폭파시킨 기뢰는 총 54개였고 이 중 31개가 진남포 해역에서 파괴시킨 것들이었다.

6·25전쟁기간 중에 초계비행대가 수행했던 부가적인 임무 중의 또 다른 하나는 군수지원과 연락업무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10월 7일에 제42비행대가 7,000파운드의 혈액을 요코스카에서 인천까지 수송한 것이었다. 아울러 1951년 초에 “개똥벌레”라는 독특한 임무가 초계비행대에 주어졌는데 이것은 조명탄을 투하하는 임무였다. 이를 위해 제6함대 항공단은 150개에서 250개의 조명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일부 연료탱크와 전기 계통을 개조한 P4Y4 4대를 이용, 1951년 6월 이후부터 해병항공기들이 야간에 전선의 철도와 도로를 공격할 때 함께 작전에 참가하여 조명탄을 투하, 지원하는 임무를 시행하였다. 조명항공기가 일몰 후에 2톤이나 되는 조명탄을 탑재하고 이륙하여 6시간 동안이나 한반도 상공에 체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숙달된 팀웍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전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명탄 투하 비행은 성과가 매우 높았고 공중공격을 실시하는 항공기 조종사들에게는 물론이고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서 제28비행대와 제871비행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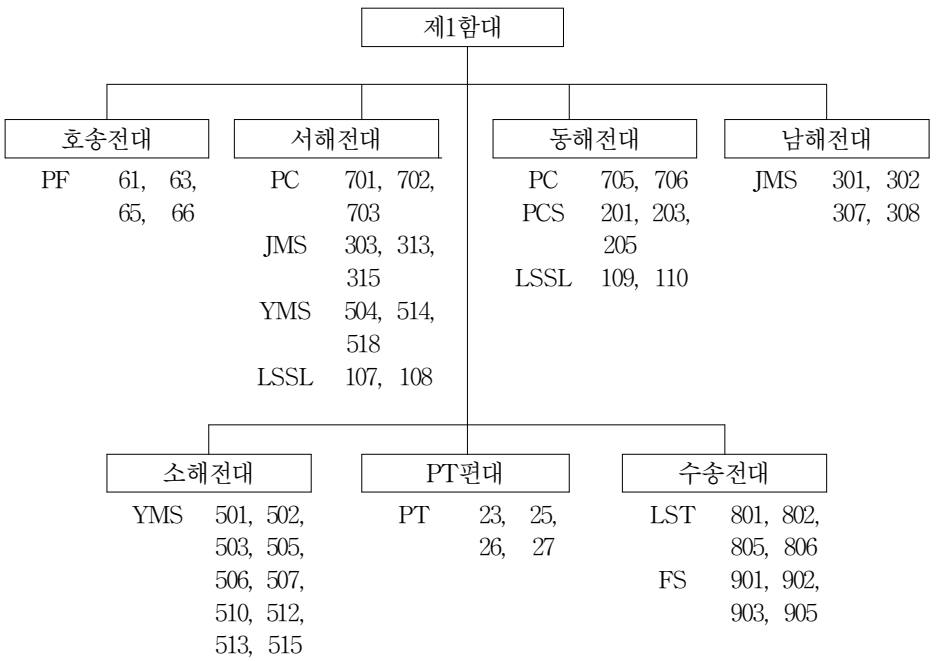
초계비행대대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제77항모기동부대가 동해에서 작전하는 동안 기상관측을 실시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겨울철에는 강풍과 안개로 인한 저시정(視程) 등이 항모부대의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상관측 정보는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이처럼 유엔해군은 항공초계작전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무를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유엔해군은 이러한 항공초계작전을 통해 항공작전에 있어서 육상에 기지를 두는 초계항공기가 항모 탑재 항공기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육상에 기지를 둔 초계항공기들이 방어가 가능한 각종 기지설비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항모 탑재 항공기보다 체공, 자위, 작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수하였고, 항모 탑재 항공기는 기동성과 작전의 융통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운용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4. 한국해군 작전

한국해군은 1950년 9월 12일을 기해 유엔해군 예하 제95기동부대의 제95.7기동전대(TG 95.7)로 편성되어 동·서해상에서 봉쇄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한국해군은 적의 배후에 위치한 크고 작은 도서를 확보하여 적의 해안포대를 탐색·공격하고 적의 기뢰부설을 방지하는 동시에 적의 해상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전을 전개했다. 원래 한국해군의 작전부대는 제1·2·3정대·훈련정대로 편성되어 동·서·남해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 한국해군은 서해안의 해상봉쇄작전을 강화하고 해군본부에서 직접 작전지휘 및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 1950년 8월 16일부로 제1정대를 제1함대로 증편했다.

<표 6-3> 한국해군 제1함대 기구도



출처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2집, 1954, 208쪽.

그 후 제1함대는 1950년 12월 15일에 제2정대, 1951년 1월 5일에 제3정대를 각각 제1함대에 통합했다. 한국해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작전과 종합적인 군수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1952년 1월 5일에 제1함대를 또다시 개편하여 예하에 호송·서해·동해·남해·수송·소해전대·PT편대 등 7개 전·편대를 편성했다.[51] 그리고 6·25전쟁 기간 동안에 30여 척에 달하는 다양한 유형의 함정을 획득하여 전투력이 크게 증강됨으로써 상륙작전, 경비작전, 호송작전, 수송작전, 함포지원작전 등 성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지원 아래 동·서 양 해역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유엔해군이 강력한 항공세력과 거포(巨砲)를 이용한 함포지원세력으로 대규모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해군은 주로 해안경비, 새로 인수한 PT정의 기습작전과 PC함에 의한 도서 탈환작전, 소해정을 이용한 소해작전,

북한지역 주요 도서를 근거지로 한 소규모 전투, 호송작전, 군수물자 및 피난민 수송 등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군과 해병대가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유엔 및 한국해군은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해상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상이 타결되기 직전까지 동해안에서는 원산만에 있는 도서뿐만 아니라 함경북도에 위치한 양도까지를 아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서해안에서도 서해 5개 도서와 함께 진남포 앞에 위치한 석도, 초도까지를 아군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들을 유엔군 측이 확보함에 따라 북한군은 해상을 이용한 진출을 시도할 수 없었으며, 반면 아군은 이들 전략도서를 근거지로 한 적후방교란, 정보수집 및 아군 유격대에 대한 지원작전 등을 통해 유엔군의 지상작전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3년 1월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수행된 한국해군의 작전활동에 대해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해에서는 PF급 함정이 UN함대의 수송선단에 대하여 일본의 사세보에서 한국의 여도근해에 이르는 항로에서 호송작전을 전개하였으며, PC급 함정은 주문진-흥남에 이르는 어로해역에서 경비 및 어선단의 보호작전을 병행하였다. 이때 원산 앞바다인 영흥만일대와 동북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해역에서의 소해작전과 기뢰폭파, 경비작전 등은 악천후에도 연일 계속되었다. 또 FS급 수송선은 각도서 및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적절한 병참지원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서해에서는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작전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연평도 근해에서 PC급 함정이 기함임무를 띠고 경비항해를 계속하면서 PCS, YMS, JMS, LSSL급 함정 등을 지휘하여 적 해안에 대한 포격과 소해, 경비, 수송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PT편대를 이용한 해안선 기습작전은 함정세력이 보잘 것 없는 북한군의 해안경비의 취약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우리 해군의 우수한 전투력을 과시한 작전이었다.

1953년도에 서해에서 진행된 한국해군의 대표적인 작전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3월 11일에 LSSL-109정, YMS-507정, 503정이 강교동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북한군

의 화력거점 2개소와 병사 5동을 격파하였고, 3월 21일에도 YMS-505정이 서해의 육도 대안인 목동의 적진을 포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토록 하였다.

1) 해상경비 작전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지상전이 교착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해군은 그 해 10월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동·서·남해에서 조직적인 경비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해군은 이러한 일련의 경비작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해안선 일대에 구축된 공산군의 해안포대와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어선을 이용한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군 함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해군은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각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기습작전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여 분쇄하였으며, 해안지역 일대의 공산군 진지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고 아군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산군의 배후를 교란하였다.

(1) 동해안 경비작전

1951년 10월 7일 이후로 북한군은 해안선을 연한 주요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직사포, 대전차포, 야포 등으로 강력한 해안포 진지를 구축하여 해안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이때 주요 해안지대에는 지뢰를 매설하여 아군의 상륙에 대비했다.

이러한 북한군의 해안방어 작전에 대응하여 한국해군은 동해안 일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함정들로 하여금 작전명령에 의거 출동하여 해안봉쇄, 함포사격, 해병특수부대와의 합동작전, 적의 어로활동 저지 등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함정들은 부여받은 각각의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북한 지상군의 동태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는 유엔해군에 제공하는 한편, 지상군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원활한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했다.

동해안 경비작전은 기간별로 3개의 작전으로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1951년 10월

부터 1952년 2월까지 '28작전'과 1952년 4월부터 1952년 12월까지의 '42작전', 마지막으로 1953년 1월부터 휴전성립 때까지 실시한 '묘한작전'이다.

'28작전' 기간 중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1951년 11월 29일 원산지구에 주둔중인 북한군 약 150명이 목선 5척에 편승하여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황토도에 소총 및 수류탄 등으로 기습공격을 가해온 사건이다. 이에 아군 해병대는 약 1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적을 완전히 격퇴시켰다. 작전결과 소대장을 비롯한 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나 적 사살 15명, 목선 2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951년 12월 22일에는 PF-65함, PC-703함, YMS-518정이 동해봉쇄구역을 경비 중 갈마반도의 적으로부터 박격포 사격을 받고 즉시 적진에 대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적의 토치카 수개를 파괴했다. 12월 23일에는 역시 65함, 703함이 전일과 같은 박격포사격을 받고 즉시 응전하여 적을 격멸했다. 12월 24일에는 65함, 703함, 518정등이 동해안 봉쇄해역을 경비 중 여도 부근에 출몰한 적선 2척을 격침시켰다.

1952년 4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전개된 '42작전[52]' 기간 동안 한국해군은 공산군의 후방에 침투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해상봉쇄, 수송, 호송, 소해, 경비 등 1951년과 동일하게 유엔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이 당시에는 정전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공산군의 저항이 비교적 감소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유엔해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진 한국함대의 활약으로 유엔군이 공산군의 작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2작전' 기간 동안 수행된 주요 전투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52년 6월 1일 공산군은 원산주변에 은폐된 해안포대를 이용하여 유엔함정을 공격하는 동시에 부유기뢰를 설치하여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 PC-701함은 유엔함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주변에 설치된 해안포대를 공격하여 무력화시켰으며,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였다. 또한 1952년 10월 8일 PC-706함은 흥남 근해에서 경비 중 마양도 서쪽 500야드 전방에 북한군 소속 소형선박 16척을 발견하고, 약 300야드까지 접근하여 사격함으로써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1953년 1월부터 휴전성립 때까지 한국해군이 실시한 '묘한작전'은 동해의 여도, 난도 등의 근해에서 적의 기뢰부설, 기습상륙, 오열준동 등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경비작전으로서 한국해군은 주로 유엔해군과 연합하여 적을 색출하고 적의 침투를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주요 전투로는 원산방면으로부터 피난민들이 도착해 남하하는 중계지로서 가치가 있는 난도를 확보하기 위해 PC-706함과 504·110·109·514·518정 등이 1953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해안에 있는 적군의 주둔지점에 대해 함포지원사격을 한 것이다.

한편 '묘한작전'에 참가한 한국함대의 함정 중 김영관 소령이 지휘하는 PC-705함은 휴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원산 해역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유엔해군으로부터 38도선 이남 해역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53]

> "6·25전쟁 기간 내내 유엔해군이 38도선 이북 해역까지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38도선 이남해역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말에 피를 토할 정도로 분노가 끓어올랐다. 3년 동안 우리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다니…"

⑵ 서해안 경비작전

1951년 10월 이후 서해안에서 북한군은 옹진반도를 비롯한 주요 해안일대에 진지를 설치하여 아군이 확보 중인 도서에 위협을 가했고, 아군 유격대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증원했다. 뿐만 아니라 아군 함정의 동태를 파악하고 기뢰부설을 계속하면서 아군의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상륙기습을 시도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해군은 적을 봉쇄하기 위해 유엔해군과 연합하여 경비작전을 실시하면서 적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고 아군 유격대의 적 후방지역 교란 활동을 해상포격 및 보급 등으로 지원했다. 특히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수심이 얕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한국해군 함정의 활약이 컸던 지역이었다.

서해안 경비작전도 동해안 경비작전처럼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탁수작전'과 1952년 4월부터 1952년 12월까지의 '충무작전',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금각작전' 등 3개의 작전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수행되었다.

'탁수작전' 기간 동안의 주요 전투는 다음과 같다. 1951년 10월 29일 북한군 약 1개 소대가 용호도 동북방 7km 지점인 인평으로부터 아군이 확보 중인 신도에 상륙을 기도하자 이를 탐지한 JMS-303정이 포격으로 적을 섬멸했다. 또한 1951년 11월 12일 아침 북한군 약 45명이 행동을 개시하여 용호도에 박격포와 중화기 등으로 위협사격을 가하여 오자 JMS-303정과 경비임무를 교대한 JMS-309정이 함포사격을 가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아울러 JMS-302정은 1951년 12월 6일 서해안 용호도 근해를 경비하던 중 신천군 남부면 청풍리에 중공군 사단본부(병력 약 2,500명)가 있고 벽성군 경단면 용천리 천기동에 적 신병훈련소가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적진에 대해 포격을 가해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서해에서의 해군작전에서 영국함대와의 작전지휘권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해군은 1951년 12월 23일 부로 서해전대를 편성하고 초대사령에 민영구 해군중령을 임명하였다. 그 이후인 1951년 12월 26일 PC-701함은 JMS-302, JMS-303정과 유격대원이 분승한 범선 2척을 대동하고 진남포 입구 석도 근해에 이르러 유격대를 청양도에 기습상륙시키고 지원포격을 실시하여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다.

12월 29일 JMS-315정은 서해안 석도 근해에서 경비 중 적정 수집을 위해 기습상륙한 우리 측 유격대에 대한 지원사격을 실시했다. 이때 JMS-315정의 지원사격을 받은 해병대 석도부대는 영국함대와 연합하여 석도 서쪽 2,000야드 지점에 출현한 적선 2척을 격침시켰다. 1952년 1월 4일 304정은 교동도 근해에서 경비 중 미 제8군 소속 유격대의 기습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포격을 실시하여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다.

'충무작전'은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해안의 강화도와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장산곶 북방에서 목덕도에 이르는 주요도서를 경비하는 임무를 띠고 유엔해군 서해봉쇄전대의 지휘 하에 수행되었다. 이 기간 중에도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에 의해 해양통제권이 장악된 상태임으로 인해 적의 저항은 소강상태였으나, 1952년 5월 2일에 진행된 덕동전투와 1952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국해군이 실시한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은 매우 치열하였고 의미 있는 작전이었다.

이 중에서 먼저 JMS-301정의 덕동전투는 1952년 5월 2일에 JMS-301정이 아군

의 유격대인 동키부대원 30명과 함께 기습적으로 진행하여 큰 전과를 올린 전투로서 전투가 종료된 후 적 지역에서 탈출한 피난민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한 결과 아군 함정의 사격으로 북한군 40여 명이 사살되고 레이더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54]

한편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은 1952년 7월 15일 새벽 2시에 적 약 300여 명이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창린도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작전에서 한국해군의 PC-702함(함장 : 한문식 해군소령)은 서해안전대사령관(CTG 95.12)의 지휘하에 영국 경순양함 벨파스트함 및 PF-116함, 미 함재기 4대의 지원을 받아 아군 유격대 140명을 섬에 상륙시켜 적이 섬을 점령한 다음날인 7월 16일 저녁 7시에 다시 창린도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작전을 진행하면서 아군은 우세한 함포지원과 공중공격에 힘입어 적을 압도했다. 그 결과 아군은 적 사살 70명, 생포 27명, 기타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아군의 손실은 전사 3명, 부상 20명이 있었고, 전투기 1대를 상실하는데 불과했다.

서해안 경비작전 중 '탁수작전'과 '충무작전'에 이어 마지막으로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금각작전'은 서해안의 연평도, 기린도, 초도, 교동도, 무도, 백령도, 대청도 등의 도서와 해주만 근해에서 전개된 경비작전이었다. 이 기간 중 한국해군은 밤낮으로 해안에 있는 적진에 대한 포격과 기습상륙, 적의 침투에 대비한 경비작전을 수행했다. '금각작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주요 작전은 다음과 같다.

먼저 YMS-514정이 통상적인 경비작전을 진행하던 중 1953년 1월 20일에 연평도 서북방 대안의 적진에서 발사된 75mm 포의 공격을 받고 약 20분 간 치열한 교전 후 사정권을 벗어났다. 또한 107정이 2월 22일 주간에는 대청도, 야간에는 기린도 근해에서 경비 중 장산곶 남방 20마일 지점의 적진에 함포사격을 가했으며, 다음날에도 적을 공격했다. 205정은 연평도 근해에서 경비 중 3월 9일 유격대 중환자 3명을 편승시키고 연평도를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했다. 아울러 109정과 YMS-507, 503정은 기린도-대청도 간 및 백령도 근해에서 경비 중 3월 11일 구미포의 중공군 토치카와 인민군의 포대 및 병사(兵舍)를 파괴하기 위해 적진지에 대

해 함포사격을 가했다. 이때 경미한 적의 저항이 있었으나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⑶ 남해안 경비작전

남해안 일대에는 일본, 중국으로 왕래하는 4톤에서 50톤급의 밀수선이 포항, 부산, 목포, 거제도, 마산, 삼천포, 여수 등지로 빈번히 출입하면서 밀수품을 거래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전시 국내경제를 교란시켰다. 뿐만 아니라 간첩의 준동과 밀수선의 간첩활동으로 인해 아군의 군사기밀이 탐지당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서해안의 경비작전이 직접적으로 공산군과 대치하여 교전을 벌였던 상황이었던 반면에 남해안의 경비작전은 남해안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밀수선 및 간첩선 단속활동과 불법 어로활동을 하는 일본선박에 대한 단속, 그리고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처리, 인접 해양주권 선언선을 경비 및 봉쇄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남해안의 경비작전은 시기별로 1951년 10월부터 1952년 6월까지의 '목항작전'과 195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한산작전', 그리고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노량작전'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먼저 1951년 10월부터 진행된 '목항작전'으로 한국해군은 '목항작전'을 시작하면서 YMS-504정과 22정을 해군총참모장 직속 하에 두고 부산, 포항, 진해를 모항으로 JMS급 함정을 정찰정으로 1척씩 대기시켰다. 이때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함정들은 해군총참모장이 직접 지휘하고 진해와 포항을 모항으로 하는 함정은 진해통제부사령관이 총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지휘했다.

해군 경비함정은 수시로 지시된 구역을 저속으로 순항하면서 외국선박을 검사하고 밀수선으로 확인될 때는 나포하여 즉시 해군본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도 선적증명서 혹은 출항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박과 선원의 도민증(또는 신분증명서), 병적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17세~25세 대상)를 엄중 경계했다. 경비정은 포항에 1척, 부산에 7척, 진해에 2척 등 총 10척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이 중에서 3척이 상시 출동하여 밀수선 단속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7월부터 시작된 '한산작전' 기간 중에 한국해군에 부여된 임무는 전술한 '목항작전'의 임무와 거의 같았다. '한산작전[55]'에 참가하여 출동한 함정은

JMS-301, 302, 307, 308, 309정 등이었으며, 이 함정들은 제1함대 예하 남해봉쇄전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이러한 함정들의 출동횟수를 살펴보면 JMS-301정이 6회, 302정이 4회, 307정이 5회, 308정이 6회, 309정이 1회 등이었다.

'한산작전' 기간 중의 각 함정들의 주요 작전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JMS-301정이 제주도 북방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1952년 9월 24일, 제주도 동쪽 20마일 해상에서 일본어선 10여 척과 제주도 북방 50마일 해상에서 일본어선 50척이 영해를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추적했으나 일본선박들이 소등을 한 채로 도망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8일에는 JMS-307정이 제주도 북방 매물도 부근 해역에서 제1, 제7 내수환 2척과 11월 11일 상기 해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제3진 진어환 2척을 발견하여 조사 후 봉쇄해역 외로 추방했다. 또한 JMS-308정은 1952년 7월 29일 남해안 북위 34도 34분, 동경 128도 37분 12초 해점과 11월 8일 매물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인 일본어선 2척을 발견하여 각각 조사 후 봉쇄선 밖으로 추방했다.

1953년 1월부터 시작된 '노량작전'의 임무 역시 전술한 '목항작전' 및 '한산작전'의 임무와 거의 같았다. 따라서 '노량작전"에 참가하여 출동한 함정도 JMS-301, 302, 307, 308, 309정 등으로 한산작전 시와 유사하였다. '노량작전' 기간 중에 진행된 대표적인 작전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JMS-307정과 JMS-308정이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1953년 1월 1일, 일본어선 각각 2척과 1척을 발견하여 조사 후 영해 밖으로 추방시켰다. 그리고 JMS-308정이 거문도 근해에서 경비 중 1월 4일에 제주도 동쪽 20마일 해점에서 일본어선 1척을 발견하여 조사 후 영해 밖으로 추방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해안 경비작전은 남해안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밀수선 및 간첩선을 단속활동과 불법 어로활동을 하는 일본선박에 대한 단속 및 추방 그리고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처리, 인접 '해양주권 선언선'을 경비 및 봉쇄하는 것 등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한국해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전개한 작전은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해양주권 선언선' 즉 '평화선'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량작전' 기간 중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해군의 지

휘부에 내려 보낸 '해양주권 선언선' 수호에 대한 지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6]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실행해서 기어이 지켜나가려는 것은 내가 선언한 평화선을 무슨 지경이라도 지키는 것이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권 있는 것을 다 찾으려 할 때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그들이 이 선을 자유로이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면 우리의 생활보장이나 국권을 보호하기 어려우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일본인들이 어선이나 뭐든지 침략을 하려한다면 전적으로 막기로 결정, 진행할 것이오.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적마다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서 우방 모든 관계자들이 알도록 주한미국대사관과 우리 주미대사에 알려서 일인들이 사실 아닌 보고로 해외에 선전해서 오해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일본어선으로 인해 시비가 생기는 때는 자세히 조사된 대로 보고할 것이오.
일본인들이 모두 우리가 법 없는 일로 이 평화선을 오해하고 또 국제공법이니 하여 말하지만 평화와 질서를 위하는 것이 국제공법이니만큼 그냥 개방해 놓고는 양국관계를 부지하지 못하니 우리가 양국 간의 평화를 주장하여 이 평화선을 세운 것이니 전국적으로 이 선을 지켜나가는 것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오.
요전에 일본어선을 250척이나 미 군함이 보호하여 다닌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고로 인하여 본인이 많은 효과와 도움을 받았으므로 앞으로도 무슨 일이라도 적절히 보고되어 사실을 알리기 바라오."

2) PT편대 기습작전

1951년 7월에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지상전은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안의 남강에 이르는 전선을 중심으로 공격보다는 방어를 위주로 하는 진지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기간에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 함께 한반도해역을 봉쇄함으로써 적의 해상활동을 분쇄하고 함포사격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등 제반 해군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2년 4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1함대의 PT편대는 동해의

원산일대와 성진 근해 그리고 서해에서는 장산곶에서 순위도에 이르는 해안과 그 주변의 도서에서 적의 진출을 사전에 봉쇄하고 적의 요새와 병력 집결지 및 포대를 탐색 격파하면서, 기뢰부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능동적인 기습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적의 활동을 분쇄하였다. PT정에 의한 기습작전은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해군이 수행한 가장 주도적이면서 동시에 큰 전과를 이룬 작전 중 하나였다.

총참모장 손원일은 수심이 얕고 섬이 많은 한반도 해안의 작전에 작고 빠르며 화력도 강한 함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미 해군의 고속정이 일본의 사세보에 있다는 정보를 작전국장 최효용으로 부터 입수하면서 미국 측에 고속정 인도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해군은 1952년 1월 24일 사세보의 미 해군기지에서 PT 어뢰정 4척을 인수하였다. 원래 미 해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되었던 PT정은 고속어뢰정으로서 해상 초계활동을 전개하면서 적함에 어뢰로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것이었다.[57]

이와 같은 PT정의 주무장은 5인치 로켓포였는데 좌우현에 로켓포 발사대가 장치되어 각각 8발씩 총 16발을 장착할 수 있었고, 정장이 직접 사격키로 사격하였다. 그 외에 함미에 40mm(S) 대공포 1문과 함수에 50mm중기관총(T) 2문이 장착되었고 좌우현에 각각 20밀리(S)가 장착되었다. 다만 어뢰정임에도 어뢰는 제거되었다. 배의 엔진은 1,500마력 엔진이 3개가 있어서 총 4,500마력으로 최고속력은 50노트, 경제속도는 34노트였다. 그리고 선체는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마호가니 목재로 제작되어 철선보다 단단했으며 만재배수량은 56톤에 달하였다. 승조원은 17명 정도였는데 정장이 엔진 속력까지 조절하였기 때문에 전원이 무기운용에 배치될 수 있었다. 그러나 PT정은 평소 항해할 때는 엔진의 출력으로 인해 비행기만큼이나 큰 소음이 났기 때문에 기습을 위해 잠입할 때는 소음기인 머플러(Muffler)를 덮어 소리를 감소시킨 상태로 5노트 이하의 속도로 기동했다.

1952년 1월 한국해군에 최초로 인수된 PT정은 2월 7일을 기해 PT-23정은 갈매기, 25정은 기러기, 26정은 올빼미, 27정은 제비로 명명되었는데 이 어뢰정들이 한국해군 함정 가운데서 가장 빠른 배였다. PT-23정과 26정은 1952년 4월 19일부터 서해안 작전에 투입됐고, PT-25정과 27정은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당시 정장은 주로 해사 3·4기생들이 맡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인수위원으로 직접 사세보로 가서 교육을 받은 다음 돌아왔기 때문이었다.[58]

PT정은 서해의 대청도나 동해의 여도 같은 전진기지에 정박하면서 주간에는 유류나 탄약 등의 보급과 휴식을 취했고 야간에 작전을 수행했다. 주요 목표는 적의 요새나 병력 집결지, 해안포대 등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일명 '기차사냥'[59]이 유명했다. '기차사냥'이란 해안가에 기차선로가 부설된 동해안에서만 가능했다. 동해안의 기차선로를 따라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적의 기차를 격파하는 것이 '기차사냥'이었는데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PT정의 장점과 강한 화력을 이용해 최대한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북한군의 기차를 확인하면 격파하는 방식이었다.

PT편대의 기습작전은 기간에 따라 '해연작전'[60](1952.4.1.~12.31)과 '백구작전'[61](1953.1.1.~1953.7.31)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연작전' 기간 중의 주요 활동으로 1952년 4월 19일 PT-23 및 26정이 서해안의 대청도 근해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마합도(麻蛤島)의 적 포대와 범선 수척을 발견하고 이를 로켓포로 포격하여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4월 26일에 이 PT 편대는 기린도 맞은 편 해안인 옹진반도의 마정리(馬丁里)에 집결한 적진에 대하여 로켓 포격을 가하였고, 27일에는 유엔 함정의 지원을 받으며 장산곶 해안의 적 진지에 포격을 가하였다. 또한 4월 30일에 이 편대는 미 함정과 합세하여 옹진반도 일대 해안의 적진지를 포격하였다. 5월 5일에 이 PT 편대는 해주만 입구의 부포리(釜浦里)에 접근하여 적의 포대와 병사(兵舍) 등의 표적에 포격을 집중하여 많은 손실을 주었으며, 다시 해주만에 접근하여 해주시의 적 보급소, 병력집결지, 포대 및 공장 등에 포격을 가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한편 PT-25정과 27정은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의 영흥만으로 출동하여 동해안 봉쇄전대와 연합하여 원산항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PT편대는 호도반도로부터 마양도와 신포(新浦)에 이르는 해안선 일대에서 적의 선박, 포대 및 보급소 등에 대한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포격을 가하였는데, 이때 마양도 근해에서는 적의 맹렬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계속해서 이 PT편대가 6월 20일 여도(麗島)로부터 양도에 이르는 해안의 적 포대와 병력

집결지 및 선박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하자 적도 즉시 반격을 가해 왔다. 이에 따라 이 편대는 근해에서 경비 중이던 유엔 함정의 지원을 받아 적에게 화력을 집중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주요 전과는 소형선박 1척 격침, 1척 대파, 적 진지 6개소 파괴 등이었다. 이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북한해군의 반격으로 인한 PT편대의 피해는 전무하였다.

그 후 PT-25정과 27정은 10월 초순까지 여도와 양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북으로는 어대진(漁大津)에 이르기까지 북동부 해안을 봉쇄하면서 끊임없이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PT편대는 미 구축함의 지원을 받으며 성진, 단천, 차호(遮湖) 및 마양도 등지의 적 포대, 철도시설 및 적 집결지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PT편대는 적 해안을 공격하면서 적 포대로부터 반격을 받기도 했으나 미 구축함과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62]

이처럼 동해안에서 활동하던 PT-25정과 27정으로 구성된 이 PT편대는 1952년 11월 초순부터는 서해로 출동하여 영국 함정과 함께 장산곶-등산곶 사이의 해안을 봉쇄하면서 산발적으로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PT편대는 11월 15~16일에 적 병력이 해안에 집결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영국 함정의 엄호를 받으며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적진을 파괴하였다. 이 PT편대는 또한 11월 20일에 덕동(德洞)의 해안선 700야드까지 접근, 적의 포대와 기지를 기습공격하여 진지 5개소와 건물 3동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백구작전'은 처음(1952년 4월)부터 서해에서 활동하던 PT-23, 26정과 동해안에서 작전을 마치고 1952년 11월 초순에 다시 서해로 이동하여 해연작전에 참가했던 PT-25, 27정이 합세하여 진행한 작전으로, 이들 4척의 PT정들은 1953년 1월부터 2월 19일까지 장산곶과 옹진반도의 적 해안일대에 대한 기습공격을 계속했다. 이 기간에 이들 PT 편대는 주로 대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FS-901함(함장 : 김영관 중령)이 PT편대의 모함으로 군수지원을 담당했다.[63]

이처럼 PT편대는 동·서해에서 북한군의 선박은 물론이고 해안에 배치된 북한군의 포대, 철도시설 및 보급소, 병력집결지, 공장 등과 함께 운행 중인 적의 기차

까지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포대로부터 반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수많은 전투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괄목할 만한 전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PT편대의 기습작전은 옹진반도 일대의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침공계획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원산 일대의 도서를 수호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 소해작전

한국해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상작전에 있어서 소해작전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특히 북한해군이 1951년 후반부터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의 해상작전을 거부하기 위하여 주요 항만과 상륙이 예상되는 해역에 중점적으로 기뢰부설을 시작함에 따라 소해작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은 소해작전세력을 재편성하여 1950년 10월 23일 제1소해정대를 창설하고 동·서·남해안에 대한 소해작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표 6-4> 소해함정별 출동일수 통계표(1951.7.1.~1953.7.30.)

구 분	출 동 일 수			계
	1951년도	1952년도	1953년도	
501	31	211	62	304
502		228	70	298
503	4	205	25	234
504	2	223		225
505	33	228	67	328
506	32	218	52	302
507	32	217	32	281
510	27	213	72	312
512	18	204	57	279
513	43	223	52	318
514		225		225
515		205	70	275
518		181		181
계	222	2,781	559	3,562

출처 :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제2집, 1961, 263쪽.

이 당시 서해안과 남해안 해역에서는 북한해군의 기뢰부설활동이 비교적 소극적이었으나 동해안 일대에서는 약 2,000개의 기뢰가 부설되어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의 해상활동을 방해하였다. 북한해군은 북한해역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종류와 많은 수의 기뢰를 부설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해안의 원산근해와 서해안의 대동강 하류 및 백령도, 초도지역에 집중적으로 기뢰를 부설하였다.

이러한 북한해군의 기뢰부설정보를 입수한 한국해군은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적극적인 소해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전개된 각 소해함정의 출동횟수를 살펴보면 YMS-501정이 304회, 502정이 298회, 503정이 234회 505정이 328회, 513정이 318회, 518정이 181회 등으로 총 3,000여 회에 달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중에 한국해군이 기뢰를 폭발시켜서 처리한 통계는 동해안 지역 904개, 서해안 지역 60개, 남해안 지역 47개로 총 1,011개였는데, 그 중에서 부유기뢰와 계류기뢰의 수가 가장 많았고, 미확인된 기뢰도 다수 있었다.[64]

한국해군이 시행한 소해작전에 대해 주요 해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근해에 대한 소해작전 내용이다. 한국해군의 소해함정인 YMS-501, 502, 503, 505, 506, 507, 510, 513, 515정 등은 봉쇄작전과 소해작전을 교대로 수행하였다. 특히 원산근해 해역에서는 봉쇄작전보다는 주로 소해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 해역에서의 소해함정의 출동횟수는 전체 전쟁기간 중에서 1952년 1년간의 출동횟수가 가장 많았다. 1952년 한 해 동안 원산 근해에서 한국해군의 소해정들이 소해작전으로 처리한 기뢰의 수는 총 200개였으며, 그 중 반 이상이 계류기뢰였다. 그리고 1953년에도 북한해군이 지속적으로 원산근해 해역에 기뢰부설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 함께 소해된 구역에 대해서도 검색소해작전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해야만 하였다.

다음은 성진, 마양도 해역에 대한 소해작전 내용 및 결과이다. 성진, 마양도 해역에 대한 소해작전은 6·25전쟁이 시작된 이후 조기에 시작되어 1951년 7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유엔 및 한국해군이 동해안의 마양도와 성진근해에서 소해작전을 수행한 결과, 총 72개의 기뢰를 발견하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 소해된 구역을 성진해안에서 약 1.5마일 외곽까지 확장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이 이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안전한 해상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65]

계속해서 진남포근해 및 기타 해역의 소해작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해군은 서해안지역에 대한 아군의 상륙작전을 두려워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뢰를 부설하였다. 이에 따라 YMS-501, 502, 503정 등은 특히 진남포 근해에 대한 소해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진남포 근해 해역 중에서도 북한해군의 기뢰부설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해역은 초도 인근해역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아군이 효과적으로 북한의 육상활동을 감시, 통제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의 소해정들은 총 50여 회 이상 초도 인근해역에 출동하여 다수의 기뢰를 발견, 폭발처리하였다. 이러한 소해작전의 결과로 아 해군은 안전한 해상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북한해군의 반격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6·25전쟁 전 기간 동안 대동강 하류 일대에서도 소해작전이 실시되었고, 기타 백령도, 연평도, 군산, 목포 및 여수 인근에서도 소해작전이 실시되었다.

유엔군에 비해 함정세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하여 제해권을 박탈당한 북한해군은 동·서·남해안에 기뢰를 부설하여 아군의 해상활동을 저지함으로써 아군이 확보하고 있는 제해권에 도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해군의 계획은 유엔 및 한국해군의 적극적인 소해활동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 결과 유엔 및 한국해군은 전쟁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해상작전을 전개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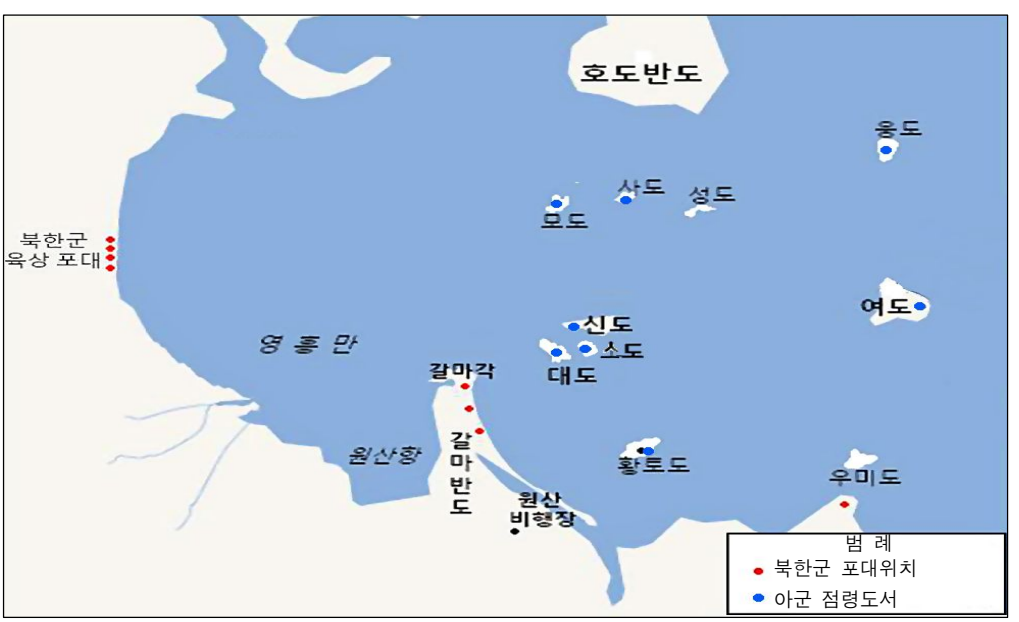
4) 전략도서 확보작전

전략도서 확보작전은 유엔해군과 해병대가 중심이 되어 유엔군의 지상군부대들이 중공군의 2월 공세를 격퇴한 직후인 1951년 2월 13일부터 1952년 2월 12일까지 전개한 작전이다. 전쟁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제해권을 확보한 유엔군사령부는 함경도 영흥만과 평안도 및 황해도 등 서해안 연안의 주요 도서를 점령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유엔해군은 1951년 2~3월에 구축함의

함포지원 아래 한국군 해병 독립 제42중대를 동해안 영흥만에 위치한 여도, 신도, 소도 등에 상륙시켰다. 그리고 뒤이어 4월 초부터 약 1개월 동안 한국군 해병 독립 제41중대를 서해안의 교동도, 백령도, 석도에 상륙시켰다. 또 1951년 8월 말에는 동해 성진 앞바다에 있는 양도를, 1952년 1~2월에는 서해안 진남포 해상의 초도와 호도를 각각 점령해 해안봉쇄작전 기지로 활용했다. 이후 공산군은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는 황토도, 양도 및 호도 등에 대하여 해안포격을 실시하면서 기습공격을 실시하였으나 한국 해병대가 우세한 제해권을 바탕으로 한 해군의 함포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이를 격퇴하였다.

그 결과 유엔 및 한국해군은 이들 전략도서를 지속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서해안에서 북한 함정의 항해와 기뢰부설을 저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군과 유엔군의 유격대에 활동기지를 제공하고 북한지역에 추락한 항공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기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산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67]

<상황도 6-3> 원산항내 주요 도서 현황



아군이 수행한 주요 도서방어 전투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황토도 방어전투이다. 아군의 해병대는 1951년 2월 5일에 동해안에서 공산군 후방교란과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는 유엔해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엄호할 목적으로 독립 제41, 제42중대를 편성하였다. 그 중에서 독립 제42중대는 2월 14일에 동해 여도(원산항 동쪽 14km)로 전개하여 3월 초까지 차례로 원산항 내의 5개 도서(여도, 신도, 소도, 대도, 황토도)를 점령하였다. 이에 당황하여 북한군은 황토도 대안(對岸)과 갈마반도(대도 서쪽 2.4km), 호도반도(여도 북쪽 8km) 등에 82mm 및 120mm 박격포를 배치하였다. 공산군은 박격포를 이용, 아군 함정과 해병대가 점령한 도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5월 중에 2차에 걸친 야간공격을 하였고, 1951년 11월 29일에는 제3차 기습공격을 하여 이곳을 경비하는 황토도 파견소대와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의 공격은 아군 해병대의 방어작전과 아군의 함포사격으로 격퇴되었으며, 아군의 황토도 방어소대는 3차 전투에서만 북한군 15명을 사살하고, 적선 2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아군도 전사 7명, 부상 4명(중상 2명, 경상 2명), 소총 파손 14정, 막사 소실 3동 등의 손실을 입었다. 북한군이 3차에 걸친 침공에 실패한 다음부터 황토도에 대한 북한군의 추가적인 병력 투입 등 직접적인 공격작전은 없었다. 다만 점차적으로 영흥만 일대 해안방어에 병력을 증원하는 한편 포대를 증설하고 도서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였다.

다음은 양도 전투이다. 유엔군 측이 확보한 전략도서 중에서 양도는 동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안과의 거리가 불과 3,650m로 적의 해안포 사정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상시 북한군의 기습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여 북한군이 1952년 2월 20일, 이 섬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가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북한군을 격퇴시켰으며, 이후부터 북한군은 해안포격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공격만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해병대가 양도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함으로써 양도는 휴전까지 아군 측 점령 하에 있는 도서가 되었다.

<상황도 6-4> 아군이 점령한 주요 전략도서 현황

마지막으로 진남포 서쪽 해상에 위치한 호도 전투이다. 호도를 방어 중이던 한국군 해병대는 북한군의 기습상륙으로 1952년 3월 25일, 일시적으로 호도를 탈취 당했지만 석도에 주둔 중인 해병 제7대대가 3월 29일에 호도를 재탈환하였다. 호도전투는 병력손실이 39명으로 다른 전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해병대가 호도에 병력을 잔류시켜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북한군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1952년 4월 초에 병력을 전원 철수시켰다. 왜냐하면 호도가 적지와 근접하여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해군은 도서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대의 편성을 조정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952년 1월 5일에 동·서해 점령 도서의 경비강화를 목적으로 해병도서부대가 신편(新編)되어 발족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독립 제42중대는 성진 앞 양도를 점령한 독립 제43중대와 같이 해병 제8대대에 편입되어 계속 여도를 중심으로 도서경비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제8대대는 원산 앞 도서 가운데 신편 이전에 배비가 없었던 웅도(여도 북쪽), 사도(호도반도 남쪽), 모도(호도반도 남쪽, 사도 인접도서)의 3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게 되어 양도까지 합쳐 모두 9개의 도서방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제8대대는 1952년 10월 1일에 동해부대로 개편됨에 따라 그 예하의 부대호칭을 여도부대, 대도부대, 신도부대, 모도부대, 사도부대, 황토도부대, 양도부대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대들은 휴전까지 북한군 해상보급의 차단과 도서경비를 계속 수행하고 아울러 대안(對岸)인 적지침투활동을 전개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모든 진지를 파괴하고 철수하였다.

이처럼 해병대와 해군이 동·서해안에 위치한 도서방어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전략도서들을 확보함으로써 동해안은 영흥만에 위치한 도서(황토도, 여도, 신도 등)로부터 함경북도 양도까지, 서해안에서도 연평도로부터 백령도, 초도 및 석도에 이르는 지역의 주요 전략도서들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아군이 점령할 수 있었다.

5) 호송 및 수송 작전

한국해군은 1950년 7월 10일을 기해 유엔해군의 일원으로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0년 9월 12일, 유엔해군 내에 봉쇄 및 호송함대가 편성됨에 따라 한국해군은 제95기동함대에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한국해군총참모장은 제95·70사령관이 되어 유엔군 제95기동함대사령관의 작전지휘 하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한국해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PF함 2척을 한국해군에 양도하고 작전에 참가하도록 했다.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PF함을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외국에는 전투함을 팔지 않는다는 미국무성의 방침에 따라 PF함을 구매하는데 실패했었다. 따라서 손원일은 전쟁기간 중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PF함을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받는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1950년 10월 23일 박옥규 대령과 최효용 중령 등 인수요원 400명이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PF-61함(두만강)과 62함(압록강)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1951년 10월 8일 최효용 중령과 이재송 중령이 PF-63함(대동강)과 65함(낙동강)을 인수했다. 이어 1952년 9월 2일 이성호 중령이 PF-66함(임진강)을 인수함으로써 총 5척의 PF함이 미 해군에서 한국해군으로 양도되었다. 특기할 만한 일은 이 당시 한국해군이 인수한 PF함들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 해군이 소련 해군에 빌려 줬다가 돌려받은 함정들이었던 까닭에 군함 내·외부 여기 저기에 러시아 글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해군에 인수된 5척의 PF 함정들은 주로 일본 사세보항을 기지로 한 유류, 탄약, 병력, 기타 보급 수송함선과 피난민 수송선 등의 수송선단을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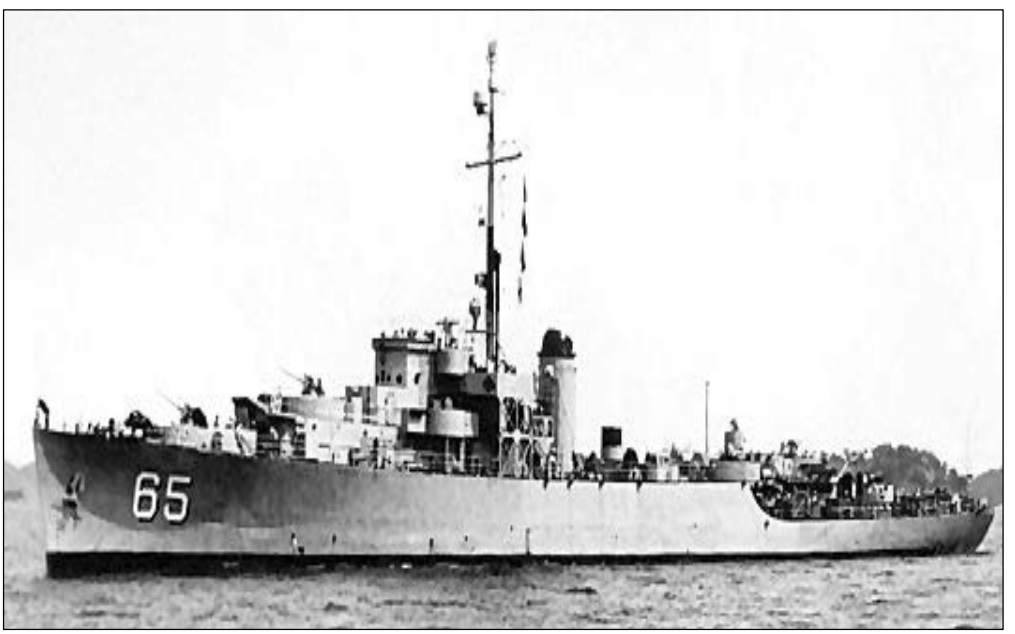
주요 함정의 전과를 살펴보면 먼저 PF-61함은 1951년 7월 14일 밤 10시 JMS-302정을 지휘하며 순위도 근해의 인민군 집결소에 맹렬한 함포사격을 가했다. 그 결과

적 병력 약 20명을 사살했고, 적이 병사(兵舍)로 사용 중인 인민가옥 약 10동을 파괴했다. 반면 우리 측 피해는 전무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PF-61함은 1952년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간 미 수송선을 호송하고 있었는데, 5월 31일 유엔동해함대사령부(CTG.95.2)의 명령에 의해 여도 동남방 및 갈마반도 서쪽 진지를 공격하여 해안포대 1개소와 건물 3동을 파괴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일에는 북위 39도 11분 00초, 동경 128도 05분 해점에서 기뢰 1개를 발견하여 처리했다. 또한 6월 3일에도 여도 동남쪽 해안지대의 적 포대 2개소, 토치카 3개소, 가옥 1동을 파괴하고 적 사살 15명의 전과를 얻었다. 계속해서 PF-61함은 유엔해군의 보급선단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3년 6월 25일 오전 9시 난도 북동쪽 10마일 해상에서 미 해군 제트기 F1(Orions Hain 항공모함 소속)이 바다 가운데에 추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작업을 벌여 조종사 1명을 구출했다. 이밖에도 PF-61함은 서해안 진남포 근해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1950년 12월 11일 범선 2척이 북상 중임을 발견하고 정지를 명령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포격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1952년 8월 4일에는 유엔동해함대사령부(CTG.95.2)의 지시에 의해 적 철도시설 6개소를 격파했으며, 8월 11일에는 또다시 동해안 흥남 동방 50마일 해상에서 미 수송선 호송임무를 수행 중 웅동리 남방 2마일 해상 쪽으로 이동하던 범선 2척을 발견하고 약 400야드까지 접근하여 범선 1척을 격침시키고 범선에 타고 있던 20여 명의 적 병력을 사살했다.

PF-62함의 대표적인 전과는 1951년 4월 15일 압록강 하류 신미도 지역에서 YMS-512정이 좌초된 것을 함체 손상 없이 구조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다음날인 4월 16일 아침 8시경에는 적 YAK기 4대의 공습을 받고 반격하여 적기 1대를 격추시켰고 1대는 파손시켜 격퇴했다. 이때 적 폭탄으로 인해 좌현에 파손이 생겨 침수되는 피해와 함께 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으나 전사자는 없었다. 그러나 PF-62함은 동해 울릉도 근해에서 미 유조함 마운트 베이커함(AE-4, Mount Baker)을 호송하던 중 1952년 5월 21일 레이너함과 충돌했고, 수리가 불가능해 결국 1952년 5월 26일 퇴역했다.

PF-63함은 동해안에서 미 수송선 호송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2년 4월 16일 새벽

4시 16분경 갈마반도의 적 포대 및 토치카에 대해 맹렬한 함포사격을 가해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미 수송선단 호송 임무을 수행하던 중 1953년 3월 2일 새벽 1시 15분에 양양 동북방 25마일 해점에서 우리측 어선 1척을 구조했다. 이후 PF-63함은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진해에 입항하여 구조된 8명을 인계한 후 오후 10시 진해를 출항하여 사세보로 향했다.



PF-65함의 모습

PF-65함은 PC-703함과 YMS-518정을 지휘하여 동해안 봉쇄해역을 경비하던 중 1951년 12월 24일 여도 근해에 출몰하던 적선 2척을 격침시켰다. 또한 동해안 원산 근해에서 미 수송선 호송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2년 5월 4일 갈마반도 일대의 적 집결지 및 포대에 맹렬한 포사격을 가해 적 2명을 사살하고 적 참호 3개소를 파괴했지만, 우리 측 피해는 없었다. 같은 달 7일에는 동해안 영흥만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황토도 동남방 3,000야드 해점에 집결된 적 진지 및 토치카에 3인치 포 사격으로 적을 격멸했는데, 확인 결과 적 20명 사살과 토치카 3개

소 파괴의 전과를 얻었다. 그리고 1952년 5월 11일에 동해안에서 부유기뢰 1개를 폭파시키고 5월 14일에도 미 수송선을 호송하던 중 오후 12시 45분에 부유기뢰 1개를 발견하여 폭파시켰다.

PF-65함은 계속해서 같은 해 5월 18일에 함경남도 단천 동북방 약 10마일 부근을 통과 중인 적 기차(보급 기차)를 발견하여 파괴했다. 동시에 7월 31일에는 동해안 원산 남방 60마일 해점에서 미 수송선을 대상으로 호송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적의 소형선박 2척을 발견하여 1척을 격침하고 1척을 파손시켰다.

한편 수송작전은 해상작전의 일부로서 각 함정에서 소비하는 막대한 연료(유류)와 탄약, 병력(인원), 필수보급물자 일체와 피란민 등을 목적지역에 안전하고 신속·정확하게 수송하는 작전이었는데, 이러한 수송작전은 1951년 6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LST(상륙함)와 FS(수송함)로 편성된 수송선단에 의해 동·서·남해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952년 6월부터 12월까지 JMS 및 PG(경비정)로 편성된 수송선단이 동해에서는 양도주둔부대의 지휘를 받고 서해에서는 백령도주둔부대의 작전지휘를 받아 '백려작전'을 수행했다. 계속해서 1953년 1월부터 7월 27일 휴전회담이 타결될 때까지는 FS선단이 동해에서 '제1해룡작전'을 수행했으며, 서해에서는 LST선단이 '제2해룡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에 남해에서는 LCI(상륙정), YO(유조정), LT-1(예인함) 등의 수송선단에 의해 '제3해룡작전'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해군이 적극적으로 해상 수송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각 도서에 주둔 중이던 유격부대를 비롯한 주요 부대에는 작전수행에 필요한 막대한 분량의 군수물자가 수송·보급될 수 있었다.

제 4 절 서해북방한계선(NLL) 설정

1. 개 요[68]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38도선 이남에 위치해 있었던 서해 5도와 그 주변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권내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한 쌍방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처럼 해상에서도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합의에 실패했다.

정전협정체결 당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1952년 1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연해수역(coastal waters)과 관련한 양측 간의 협상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국제적 영해설정 관행에 따라 양측 모두 영해의 범위를 3해리로 할 것을 주장했고[69], 이에 대해 유엔군 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군 측은 12해리를 영해의 범위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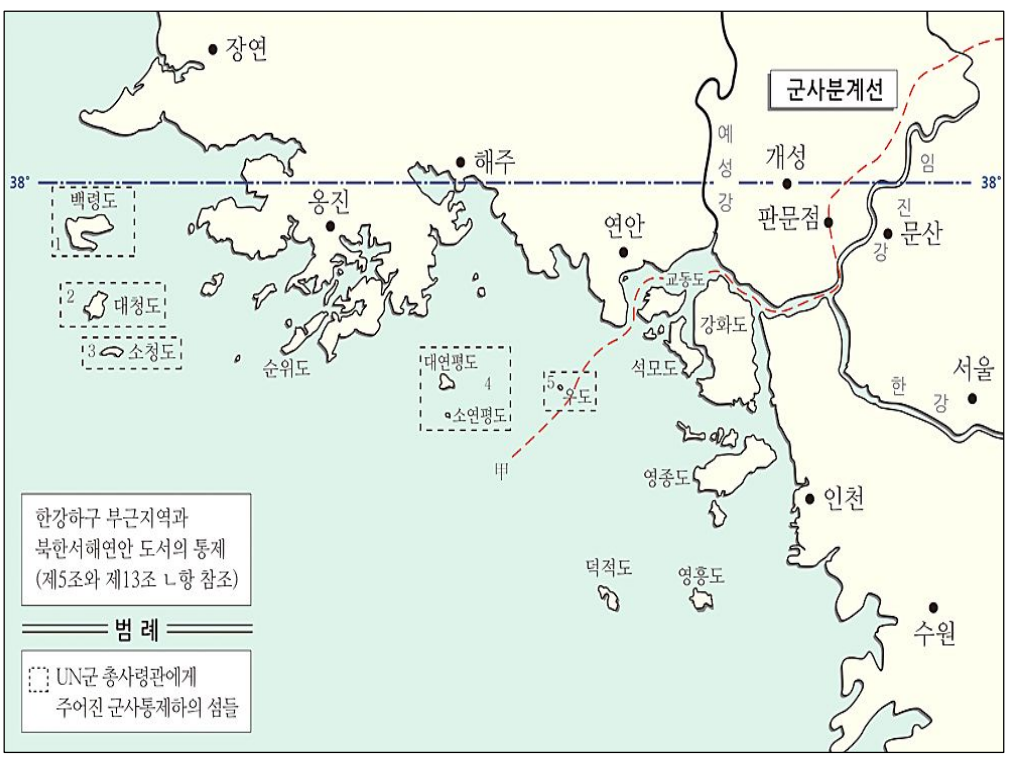
유엔군 측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미 합의한 정전협정의 내용에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정전협정 제15항)[70]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산군 측은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영해 설정과 관련된 조항의 전면삭제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 측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측은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전협정의 부속문서상에서 서쪽의 군사분계선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고,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명기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다만 서해 이북 5개 도서에 대

해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군(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두도록 한다'라고만 명기되었다.

이처럼 공산군과 유엔군 측 간에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 초계활동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동·서해에 각각 일정한 경계선을 공산군측과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설정하였다.

<상황도 6-5> 군사분계선 지도(『조선정전협정문헌』, 1953.9.)



출처 : 『조선정전협정 문헌』을 근거로 재작성

이때 동해에는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이란 명칭으로 지상의 군사분계선(MDL)을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 (NLL : Northern Limit Line)[71] 이란 명칭으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NM) 영해에 입각하여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 전 해역에서 유엔해군이 해상통제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엔해군을 일정한 선 이남지역으로 남하시키고 그 선 이북으로의 해·공군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위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서해에서 경계선을 선정한 이유는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영해원칙(3해리)만을 따를 경우 중간수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측 간에 경비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였다.[72]

그러나 서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채 서해 5도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관할권만을 인정한 정전협정 부속문서상의 내용과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단독으로 결정한 서해상에서의 북방한계선 설정은 추후 남북한 간에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해상봉쇄 및 해상방위수역 설정

서해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유엔군사령부의 해상봉쇄 및 해상방위수역 설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25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군사적 상황에서 유엔군 측이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유리한 점 중의 하나는 북한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해군력의 우위였다. 유엔해군은 먼저 항공모함의 함재기와 해병항공부대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공산군 측의 비행장·철도·교량·통신시설 등을 파괴하고 또한 적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려는 시도를 저지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유엔해군의 항공력과 함포사격은 공산군 측의 수적 우세에 맞서 유엔군 측의 지상군이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고, 공산군 측으로 하여금 휴전조건을 수락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군사적 압력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해군이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해상에서의 절대적인 우세권과 이를 이용하여 수행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naval blockade)도 유엔군의 작전 성공 및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7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 7월 4일을 기해 당시 미극동해군 사령관 조이 제독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엔 및 한국해군이 지속적으로 시행한 한반도에 인접하는 수역의 정찰결과를 토대로 서해에서 39°35′N, 동해에서는 41°51′N을 봉쇄한계로 하는 한반도 전 해안에 대한 봉쇄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유엔해군이 장악한 해상에서의 우세를 이용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유엔군의 해상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동시에 당시 전선에 더 많은 병력과 물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산군 측의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유엔 지상군의 작전 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유엔 및 한국해군은 해상봉쇄를 통해 전쟁기간 내내 적 첩보원이나 밀수출입 물품을 실은 어선 및 기타 소형 선박들의 한국, 특히 거제도·제주도 지역에 대한 잠입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엔군의 해상봉쇄에 대해, 소련 정부는 1950년 7월 6일 '그러한 해상봉쇄는 적대행위이며 이 해상봉쇄가 한국에서 유엔이 전면적인 무력개입을 한 것처럼 국제평화유지와 관련한 유엔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서면으로 미국 정부에 항의한 적은 있었으나 봉쇄에 도전하지는 않았다.[74]

한편 유엔군사령부가 해상봉쇄를 시작하고 약 8개월이 경과한 1951년 3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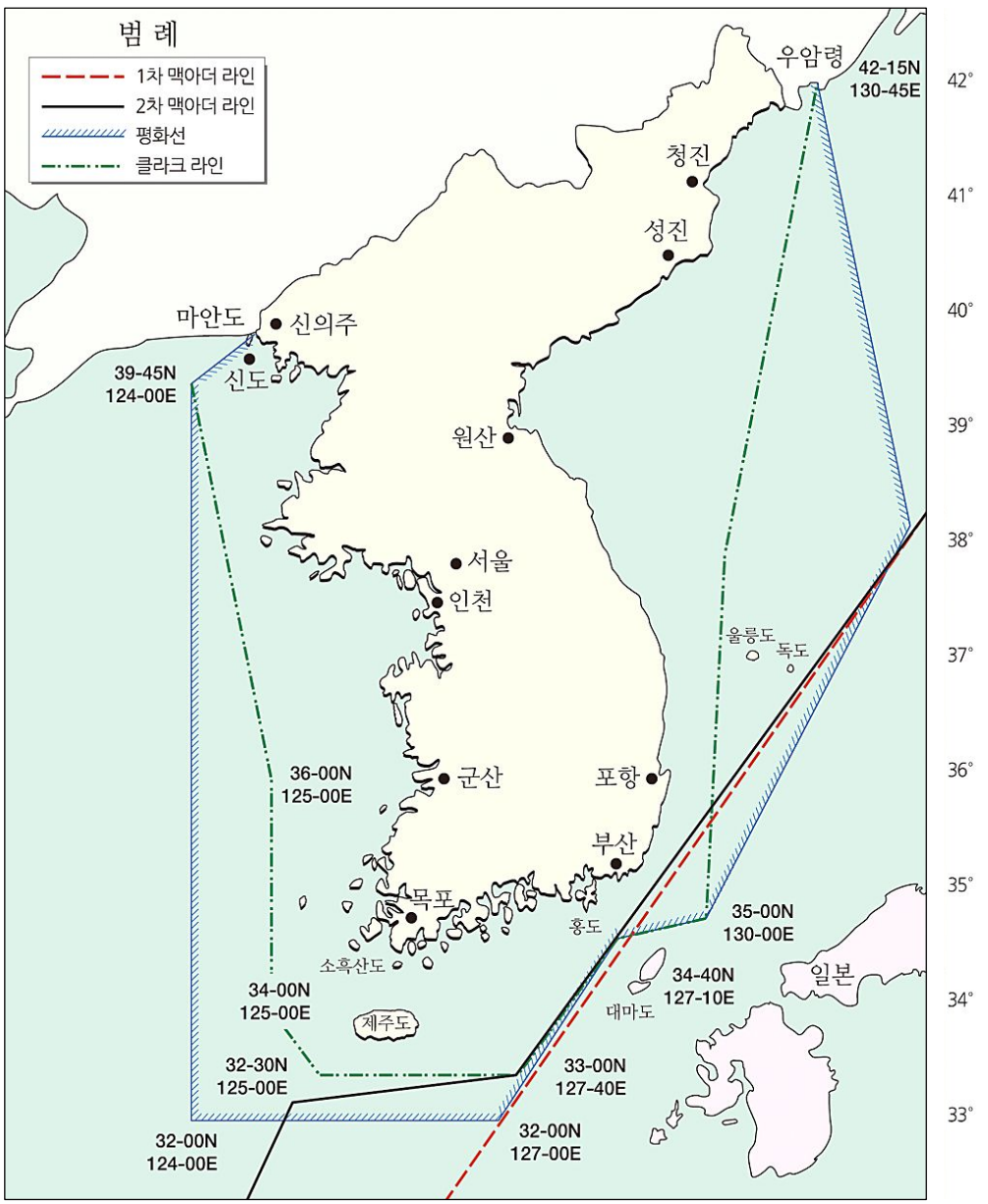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야간 어로 및 항해 금지구역으로 백령도 동북단, 순위도, 연평도 북단, 덕적도 서북단을 지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아군의 작전에 위협이 되고 이적행위를 감행할 우려가 농후한 점을 감안하여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적선으로 인정,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공격하여 포격 격침 혹은 나포, 억류한다고 발표했다.[75] 이어서 1952년 1월 18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즉 '평화선'[76]을 선포하였다. 이후 일본 어선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에 맞서 평화선을 자주 침범하고 우리 경비정이 이들을 나포함으로써 한·일 간에 어업분쟁 및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계속해서 휴전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952년 9월 27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연안에 대한 공산군측의 공격 방지, UN군의 보급선 확보, 전시 금제품 수송 및 간첩활동의 차단 등을 위해 이른바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는 '한국해상방위수역(The Korean Sea Defense Zone, KSDZ)'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평화선과 비슷한 형태였다.[77] 이때 새롭게 설치된 방위수역은 한국에 인접한 수역으로 북위 42°05′ 동경 130°47′, 북위 39°37′ 동경 124°00′ 등에 이르는 해역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방위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어업은 금지되었고 중립국 선박의 통과도 군사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제한되었다.

유엔군사령부의 '한국해상방위수역' 설정에 대해 소련은 먼저 당시 북한 주재 소련대사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는 '미국이 '해상방위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950년에 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도입한 한국해안에 대한 해상봉쇄의 확장이며, 극동에서의 또 다른 적대행위로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공격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소련 정부 역시 '미국 정부가 한국 주변에 소위 해상방위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새로운 적대행위의 결과와 소련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78]

소련의 반응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측은 해상방위수역의 설정이 1950년 6월 25일,

<상황도 6-6> 맥아더라인, 클라크 라인과 평화선



출처 : 지철근, 『수산부국의 야망』, 한국수산신보사, 1992 ; http://blog.naver.com/sung726oh를 참조하여 재작성

6월 27일, 7월 7일 등에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국제법에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79] 그리고 1952년 11월 3일에는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해상방위수역 설정은 한국해안에 대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금제품의 밀수나 한국 내로의 공산군 스파이의 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유엔군사령부의 한국해상방위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당시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방위수역에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유엔군사령부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클라크 라인이 전시를 감안한 일시적인 봉쇄선이라는 전제아래 끝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0]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상방위수역 설정을 환영하면서 유엔군이 한국해역을 봉쇄하고 영공을 방위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 국군을 20개 사단으로 늘리면, 유엔군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한만 국경을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81]

반면에 일본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치에 대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이승만 라인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일본 어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82]

3. 해상방위수역 해제 및 서해북방한계선 설정

서해북방한계선 설정은 한국해상방위수역이 해제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53년 5월 20일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개최된 정전협정 관련 미국 측 수뇌부 회의에서 머피(Robert Murphy) 주일 미 대사는 정전협정 조인 시 해상방위수역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 조문에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해상방위수역을 즉각적으로 해제

(dis-establishment)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해상방위수역을 즉시 해제한다면 유엔군사령관은 또 하나의 논쟁적인 사안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해제 시기를 정세의 추이에 따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머피 대사는 구체적으로 "방위수역의 취소는 일본 측으로서는 물론 매력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과 한국이 어업권을 포함한 몇몇 현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따라서 아직은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진척되고 정전협정이 서명된 후에는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한·일 간의 현안으로 제기하여 압박할 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국도 앞으로 일본과 상호안보지원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므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시점에서 방위수역 취소를 일본 측에 제안하면 미국의 국가이익 추구에 유익할 것이다."[83]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수뇌부는 머피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정전협정에는 해상방위수역이나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서해 이북 5개 도서의 관할권에 대해서만 명기하게 되었다.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해상방위수역의 해제문제가 한·미·일 간에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의 정책당국과 일본 및 한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해상방위수역을 해제하게 되었다. 해상방위수역의 해제는 1953년 8월 26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날씨 때문에 유엔군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면담이 미뤄지면서, 8월 27일 오후 4시에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유엔해군함대의 한국해상방위수역 통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발표하기 전에 한론(Hanlon) 제독이 국무부, 서울 및 도쿄 대사관의 동의를 얻어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해상방위수역의 해제를 설명했다. 한론 제독은 이 조치가 '순연(suspension)'의 의미이며, 상황이 방위수역의 존재를 요구하면 즉시 재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해상방위수역을 해제한 이유는 첫 번째 방위수역의 통

제가 적 스파이나 집단이 한국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의 정신과 조항을 준수하겠다는 유엔군 측의 호의(good faith)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방위수역 내에서의 어로활동과 관련한 한·일간의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일본 측은 해상방위수역의 설정으로 자신들의 어업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84]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7월 말에 주일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위수역의 철폐를 요청했다. 이 시기에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에 맞서 일본 어선들이 이 선을 침범하여 한국 측에 자주 나포됨으로 인해 한일 간에 어업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상방위수역이 폐지되자, 곳곳의 일본 어민들이 크게 환영했으며 실제로 남해와 동해에 일본 어선들의 출어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한국해상방위수역이 해제(클라크 라인이 철폐)된 것은 한일 간의 어업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상방위수역의 해제는 곧바로 정전협정문서에서 동·서해에서의 해상분계선과 관련한 언급이 배제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1개월이 지난 1953년 8월 27일에 해상방위수역이 해제되었고, 곧바로 이어서 8월 30일을 기해 유엔군사령관이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서해에 각각 NLL과 NBL을 설정하여 선포하였다.

4. 분석 및 평가

서해상에서의 북방한계선 설정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이 조치는 정전협정의 정신과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유엔군 측의 호의(good faith)를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전 해역을 통제하고 있던 유엔군 측에는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로부터 철

수함은 물론, 38도선 이남해역에서도 서해 5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육지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통제권을 북한에게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리한 조치가 되었다. 반면 해군력이 무력화된 북한 측에게 있어서 NLL은 그 선 이북수역에서의 안전한 항행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치였다.

아울러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설정은 휴전협상에서 군사적 문제에 한해서만 논의하고 어떠한 정치 및 영토적 문제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미국과 소련의 소극적인 협상전략과 미국이 채택하여 적용한 선택적 방어지대론[85]의 산물이기도 하다. 미 합참은 휴전협상 지침을 통해 공산군 측과의 휴전협상에서는 엄격히 군사적 문제에 한해서만 논의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 및 영토적 문제를 포함해서도 안 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86] 그리고 소련 측도 그로미코 소련 외무부부상이 공산군 측의 휴전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군사행동 중지에 관한 잠정적인 군사협정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정치문제나 영토문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87]이라고 말했었다.

유엔군사령부의 서해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에 사전 통보를 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북한 측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해상방위수역 철폐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여론의 반대에 대해 북한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 6월 15일 제네바정치회의에서 남일 북한 외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해상봉쇄는 우리 해안에 대한 비법적인 봉쇄"[88]라며 이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남일 외상이 지적한 '해상봉쇄 해제 요구'는 해상방위수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89] 해상경계선, 즉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한 항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취해온 실제 행동과 정황자료들을 보면 그들이 사실상 북방한계선을 설정 당시부터 인지하고 이를 인정·준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군사령관의 NLL 설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되었던 1953년부터 1973년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북한이 40여 척의 대규모의 함정으로 NLL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서해사태[90]를 시작으로 남북한 간 군사력의 역전 및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NLL의 무력화를 시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및 2010년 10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등 대규모의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였다.[91] 북한은 무력도발을 통한 NLL 무력화와 함께 각종 남북회담에서도 NLL의 무력화를 기도하였는데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의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의 해상 불가침구역이 북방한계선(NLL)을 전제로 합의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비롯하여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NLL의 무실화를 위한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등[92] 화전(和戰) 양면전략으로 NLL 일대를 분쟁수역화하고 궁극적으로 NLL을 폐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설정 이래 현재까지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져 왔으며, 그 이남해역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제해 오고 있는 관할수역이다. 아울러 이 해역은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영토이다. 즉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의 영역은 국가가 국제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으로 영토·영해·영공으로 구성되며,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해역에 대해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해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작전구역(AO), 특정금지구역 및 특정해역, 그리고 북방한계(NLL)이 존재하고, 이는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6·25전쟁기간 중 해군작전의 결과와 의미

6·25전쟁 초기에 한국해군과 북한해군의 전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7일,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결정에 따라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소해함 등의 강력한 전력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됨으로써 한국해군을 포함한 유엔해군 대 북한해군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엔해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93]

이에 따라 북한군은 개전초기에는 동해안에 특수부대를 상륙시키고 남해안 지역에서도 대규모 특수부대의 상륙을 통한 아군의 후방교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1950년 7월 2일, 주문진 근해에서 이루어진 아군 해군과의 교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해상작전은 시행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주로 기뢰전 및 해안포의 운용을 통해 아군의 상륙과 함포사격에 대응하는데 주력하였다.

반면 유엔해군은 전쟁초기부터 북한해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며, 전쟁기간 내내 한반도의 전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유엔해군은 1951년 7월 10일을 기해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지상에서의 군사작전이 고지쟁탈전 위주의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작전을 전개하여 휴전회담장에서 유엔군 측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유엔해군은 전쟁초기부터 확보한 가용전력의 우세를 활용하여 항모기동부대의 함재기와 해병항공부대의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공격 및 근접항공지원을 통해 유엔군의 전략목표 달성과 유엔군 지상군의 작전 성공에 기여하였다. 동시에 유엔해군은 북한의 동·서해안에 봉쇄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철저하게 봉쇄한 반면에 유엔해군의 활동해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해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

과 유엔해군은 한반도 내 모든 해역에서 해상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지속적인 공중공격, 함포지원사격과 소해함의 소해작전, 특수부대의 전략도서 확보 및 적진 침투 작전, 항공초계 등의 제반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1953년 6월에 북한군이 대공세를 전개하자 유엔해군은 고성근해로 진출하여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재기의 폭격과 전함의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유엔군의 작전 및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유엔해군이 해상의 악천후와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 해안포 등의 장애를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군의 해상세력이 완전히 격멸된 상태에서 유엔해군이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유엔해군의 끊임없는 소해작전으로 인하여 함대가 충분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도 유엔해군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한국해군은 6·25전쟁 기간 동안 유엔해군에 소속되어 동·서 양 해역에서 작전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유엔해군이 강력한 항공전력과 거포(巨砲)를 이용한 함포지원사격으로 대규모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주로 해안경비, 새로 인수한 PT정의 기습작전과 PC함에 의한 도서 탈환작전, 소해작전, 북한지역 주요 도서를 근거지로 한 소규모 전투, 유엔해군에 대한 호송 및 수송작전, 그리고 전쟁 막바지까지 계속된 전략도서 확보작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해군은 동·서·남해안에서 일련의 경비작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해안선 일대에 구축된 공산군의 해안포대와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어선을 이용한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군 함정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해군은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각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기습작전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여 분쇄하였으며, 해안지역 일대의 공산군 진지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고 아군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산군의 배후를 교란하였다.

그 결과 해군과 해병대가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1953년 7월 27일 휴전 직전까지 동해안에서는 원산만에 있는 도서뿐만 아니라 함경북도에 위치한 양도까지를 아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며, 서해안에서도 서해 5개 도서와 함께 진남포

앞에 위치한 석도, 호도까지를 아군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들을 유엔군측이 확보함에 따라 북한군은 해상을 이용한 진출을 시도할 수 없었으며, 반면 아군은 이들 전략도서를 근거지로 한 후방교란, 정보수집 및 유격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유엔군의 지상작전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다.

1953년 7월의 정전협정 체결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엔군 측의 주요 조치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사안 중의 하나는 유엔군사령관이 결정하여 공포한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이다.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서 우리 해·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서, 미국이 선택적 방어지대론을 적용한 결과인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소극적인 협상전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이 조치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정신과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유엔군 측의 호의(good faith)를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단행한 조치였다.

그러나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이러한 서해북방한계선 설정은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유엔군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유엔군 측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한 조치였다. 그리고 클라크 사령관의 이러한 서해북방한계선 설정이 공산군 측에게 유리한 조치임으로 인해 북한은 유엔군사령관의 NLL 설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까지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인정·준수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이후 북한이 신장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정전협정」 규정을 왜곡하면서 빈번한 군사적 도발과 함께 남북한 간의 각종 회담에서 NLL의 분쟁수역화를 통한 유엔사 해체 및 정전협정 폐기를 기도함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남북한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과 함께 최근(2010년)의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직접적인 무력충돌까지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6·25전쟁의 특성과 해군작전[94]

1) 바다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6·25전쟁은 비록 공산진영의 3개국과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회원국들 간의 국제전 성격의 전쟁이었지만, 양 진영이 모두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의해 3면이 바다인 한반도 내에서 치러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근세기에 발발했던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50년 6·25전쟁 등의 공통점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전쟁이었고, 주요 전장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바다였으며, 바다를 장악하고 바다를 활용한 국가가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쟁이 바다에서부터 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도 이러한 사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바다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남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한 북한은 지상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전면 남침을 시행하기 30분 전에 함선으로 특수부대를 동해안의 옥계, 삼척, 죽변, 임원 등지에 상륙시켰다.[95]

또한 대한해협에서는 한국해군의 백두산함이 6월 25일 오후 8시 12분에 부산 동북방 약 33마일(50㎞) 해상에서 600여 명의 특수부대원을 탑승시킨 채 남하 중인 1,000톤급의 북한 무장수송선 1척을 발견하여, 6월 26일 오전 1시 25분에 이 선박을 격침시키는 해전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평균 10노트의 속력을 내고 있었던 북한의 무장수송선이 6월 25일 오후 8시 12분에 북위 35도 30분상에 도착한 것은 이 선박이 늦어도 6월 25일이 되기 이전에 북한의 항구에서 출항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지상에서의 전면남침을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 넓은 범위에서는 6월 25일이 되기 이전에 해상에서부터 6·25전쟁을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바다를 통해 전쟁지속능력이 유지되었다.

불법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서울을 점령한 다음 남진을 계속하여 남침 1개월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국군과 유엔군을 밀어붙임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북한군에 의해 함락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선언하고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회원국의 병력을 남한에 지원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유엔군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그들을 38도선 이북으로 패퇴시키는 참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수송능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운명은 바로 증원 병력과 전쟁물자가 얼마나 빨리 한국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때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서울 북방의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225마일(372㎞)에 불과했으나, 미국 서해안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4,914마일(8,100㎞)에 이르렀고, 하와이를 경유하면 5,000여 마일(8,250㎞)이나 되는 원거리였다. 이에 따라 전쟁을 주도하게 된 미국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이동하는데 수반되는 시간과 공간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서 다행히도 한국과 가까운 일본 동경에 위치한 미 극동군사령부가 그 예하의 육·해·공군력을 한반도에 긴급하게 전개시킴으로써 한국이 북한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엔군을 지휘하게 된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병력과 전쟁물자를 우선 일본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전쟁이 발발한 즉시 유엔군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을 비롯한 주요 물자가 일본에서 확보되어 한국으로 수송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선박통제국(SCAJAP) 소속의 LST 39척과 화물선 12척 등이 수송수단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하였다.[96]

7월 1일 주일 미 육군 제24보병사단의 스미스 부대가 부산으로 공수된 후 제24사단의 후속 병력은 사세보와 세토나이카이 항구에서 일본선박통제국 선박으로 수송되기 시작했다. 7월 6일에 제24사단 병력이 완전히 한국으로 이동하였고, 이어서 제25보병사단도 이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유엔군이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과 전쟁물자를 한국으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함선이 더 많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서태평양 해역에서 해상수송의 책임을 맡은 미 해군의 정커(Alexander F. Junker) 대령은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해상수송지원부대(MSTS) 소속의 함선과 일본선박통제국의 함선을 우선적으로 병력과 전쟁물자의 수송을 위해 투입하고 부족한 수송선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상선을 용선으로 임대했다.

이후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병력과 전쟁물자를 한반도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쟁이 발발한 후 10일이 지난 7월 초에는 무려 55척의 함선이 바다를 통하여 15,000명의 병력과 1,700대의 차량을 포함한 전쟁물자를 한국에 수송하였다. 이것은 마한(Mahan)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바다는 모든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고속도로(a great highway)”[97]로서 육지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6·25전쟁에서 유엔군이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를 통해 얼마나 많은 병력과 전쟁물자를 수송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은 통계에 의하여 잘 설명되고 있다. “한국에 도착한 유엔군의 병력 7명 가운데 6명이 바다로 수송되었고, 5,400만 톤의 화물과 2,200만 톤의 유류가 함선으로 한국에 수송되었으며, 우방국으로부터 한국에 반입된 군수물자의 99.6%가 바다를 통해 수송된 것이었다.”[98]

3) 바다를 통해 군사력이 투사되었다.

6·25전쟁 발발 초기에 상대적인 전투력의 열세로 인해 계속적으로 지연전만을 실시하고 있었던 유엔군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추가적인 전투력의 보강이

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군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 북한군에 비해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던 유리한 점은 막강한 해군력을 통해 한반도 전 해역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바다를 통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은 항공기, 함포, 상륙군 등이었다.

유엔해군에 의한 전투력 투사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미 제1기병사단의 바다를 이용한 한반도 이동, 즉 전투력 투사였다. 유엔해군은 북한군이 금강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부산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 중이던 1950년 7월 18일 미 육군 제1기병사단의 병력 1만여 명과 전차와 차량 2,000여 대, 화물 2,029톤을 48시간 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송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제1기병사단은 낙동강 방어선전투와 유엔군의 반격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미 육군 제1기병사단이 없었다면 한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6·25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바다를 이용한 전투력 투사의 백미(白眉)는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바다를 통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적의 후방지역에 대한 해양으로부터의 군사력 투사를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함으로써 전략적 공세로 전환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여 단행하였다. 맥아더는 상륙작전에 매우 불리한 해양조건과 미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행해 나갔다.

수도 서울의 관문인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을 조기에 탈환해야 전략적·정치적·심리적·군사적 이점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고, 아울러 유엔군과 한국민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엔군의 함정은 한국함정 15척을 비롯해 미국 225척, 영국 12척, 캐나다 3척, 호주 2척, 뉴질랜드 2척, 프랑스 1척, 네덜란드 1척 등 모두 261척이었다.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지휘 하에 있는 상륙군은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을 비롯하여 한국

해병대 1개 연대와 육군 제17연대로서 총병력이 71,339명에 이르렀다.[99] 9월 15일부터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나타났다. 적의 배후를 강타한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부산을 탈취하려던 북한군의 기도를 무산시켰으며, 인천에서 상륙한 제10군단과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하는 제8군에 의해서 북한군은 불과 2주일 만에 분쇄되어 38도선 이북으로 패주했다. 적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유엔군 측은 약 14만 명의 아군 병력과 200만여 명에 달하는 일반인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고, 반면에 13만 명의 북한군 포로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과는 한국이 북한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천상륙작전은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도 유엔군은 바다를 이용한 해군의 전투력 투사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역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상륙을 실시하고 고저와 진남포를 비롯한 상륙 가능 지역에서의 상륙양동작전 등을 통해 북한의 어느 지역에라도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위협을 줌으로써 공산군의 전력을 분산하고 전의를 상실시키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4) 바다를 통해 주요 전투가 치러졌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충돌이었던 6·25전쟁에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엔군은 바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전쟁을 치러 나갔다. 반면에 한반도의 바다를 통제하지 않고 육지만을 점령한 북한군은 마치 물고기가 어망에 들어간 것과 같은 전장환경에서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한 북한군을 동·서·남해상으로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했다.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에 의해 수행된 주요 전투는 대부분 바다를 통해 치러졌으며, 이를 계기로 아군은 유리한 국면에서 싸울 수 있었고, 위

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포항상륙작전,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포항상륙작전,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의 계속적인 남진으로 위험에 처한 부산교두보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먼저 유엔군은 7월 18일부터 7월 19까지 실시된 포항상륙작전을 통해 미 제1기병사단을 적시에 증원함으로써 중부전선에서 미 제24사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대전지역까지 위기에 빠진 위기를 타개하고 부산교두보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남해까지 진격한 상황에서 8월 17일부터 실시된 통영상륙작전은 한국해군과 해병대가 수행한 최초의 단독작전으로서 한반도의 서쪽에서 부산으로 압박해 오던 북한군을 저지시켜 부산교두보에 대한 측방위협을 제거했다.

특히 9월 15일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리했던 아군의 전세를 일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케 했고, 이를 계기로 아군은 서울을 비롯한 전쟁발발 이전의 남한영토를 수복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원산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은 육상에서 수행된 일련의 대규모 지상작전과 연계되어 치러진 전투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한반도 북동부에 제10군단을 전개하기 위해 10월 26일 감행된 원산상륙작전과 중공군의 침공에 따라 유엔군의 재배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시작된 흥남철수작전은 모두 한반도의 해양조건과 해군력에 바탕을 둔 해군작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흥남철수작전은 해양력에 의해 함대의 기동력이 훌륭하게 발휘된 사례로서 아래와 같은 작전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작전의 결과로 병력 105,000명, 피난민 91,000명, 차량 17,500대 그리고 화물 350,000톤이 바다를 통해 철수되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위해 APA 6척, AKA 6척, T-AP 13척, LSD 11척, LST 81척 및 용역 수송선 76척 등이 동원되었다.[100]

이처럼 6·25전쟁에서 주요 전투는 대부분 바다를 통해 치러졌으며, 이들 주요 전투는 전쟁 수행에 단순히 영향을 미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조건을 결정하고 전쟁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동시에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3. 6·25전쟁이 한국해군 발전에 미친 영향[101]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유엔군을 통합 지휘할 권한을 미국에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미극동군사령부를 비롯하여 미극동해군과 공군 조직을 통해 전쟁계획과 작전지휘체계를 정립하고 유엔군을 지휘하여 지·해·공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군원 방식을 채택하여 미군이 보유한 무기, 장비, 탄약 등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직접 참전군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전세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대운용을 위해 한국군의 우수한 인력을 미군사학교에 유학시켜 인재를 양성시켰다. 이후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및 중공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전쟁 중에 채택하여 수행한 전략 및 정책은 전력증강을 비롯한 한국의 해군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전쟁기간 중에 이루어진 단기적 측면과 휴전 이후의 장기적 측면에서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6·25전쟁이 단기적으로 한국해군의 각 분야별 발전에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6·25전쟁은 한국해군의 조직 및 부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분야에서 한국해군은 괄목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는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채택한 작전지휘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미극동해군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의 원활한 작전수행과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엔해군의 작전지휘체계와 연계하여 조직과 부대를 개편하였다. 개편의 특징은 유엔해군의 상대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역작전 및 성분작전 체제로의 조직·부대 정비라 할 수 있다. 조직 및 부대 정비와 함께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의 병력 역시 14,862명에서 휴전 시에는 42,36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6-5> 전쟁발발 이전과 휴전 시 해군·해병대 병력 비교

단위 : 명

시 기	해 군	해병대	계
전쟁발발 이전	5,790	1,166	6,956
휴전시	14,862	27,500	42,362
증가율	2.3배	22.1배	5.4배

* 출처 : 해군본부, 『해군사』 행정편 제1집(해군본부, 1954), pp.73-75.

둘째,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의 상륙작전, 소해작전, 함포지원작전 등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해군의 작전·전술교리를 획득하거나, 한국지형에 적합한 작전·전술교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교리를 한국해군이 3년이라는 단기간에 획득 또는 개발했다는 것은 큰 수확이었다.

<표 6-6> 전쟁발발 이전과 휴전 시 함정세력

단위 : 척

시기	계	함정 유형													
		PF	PC	PCS	PT	PG	YMS	JMS	LSSL	LST	AKL	LCI	ATA	GB	YO
전쟁발발 이전	36		4			1	15	10		1	1	1		2	1
휴전시	57	4	5	4	3	2	13	8	4	4	5	1	1	1	2

* 출처 : 해군본부, 『해군편제사』에서 발췌 정리

셋째, 6·25전쟁이 한국해군의 함정·장비 증강에 미친 요인은 유엔해군의 연합작전과 미군의 직접군원에 따른 결과였다. 한국해군은 전쟁당사국으로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정과 장비를 필요로 하였고, 미국해군 역시 한반도 해양환경에 익숙한 한국해군과 원활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투함을 비롯

한 다양한 함정과 장비를 한국해군에 제공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전쟁발발 이전에 소해정 위주의 함정만을 보유하였던 한국해군은 성분작전이 가능한 호위함, 구잠함정, 어뢰정, 상륙함정 등을 갖추게 되었다. 함정세력은 전쟁발발 이전 36척에서 휴전 시에는 57척으로 증가되었다.

넷째, 한국해군은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우수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한국해군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에 힘입어 장차 예상되는 독자적인 군대운용에 대비하여 필요한 병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이들 전문인력은 전쟁 중에 양성된 인원 134명을 포함하여 1960년까지는 무려 1,948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한국해군의 각 병과학교에서 갑판, 항해, 포술, 전탐, 기관, 통신, 조함 등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동하였고, 아울러 미국 유학으로부터 획득한 군사지식·기술을 활용하여 해군무기체계, 함정운용술, 해군작전·전술교리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6·25전쟁이 장기적으로 한국해군력 발전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휴전협정의 후속 대책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연합해군작전체계의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군사정책과 6·25전쟁과정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한국해군의 독자적인 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이다.

미국은 한미 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방위에 대한 의무를 계속해서 지게 됨에 따라 휴전 이후에도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한국해군은 북한해군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반도 주변해역에 배치된 미국해군과 연합해군방위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한국해군은 미국으로부터 전투무기를 지원받지 못했던 과거 사례와 6·25전쟁을 통해 절감한 자주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쟁 중에는 물론이고 휴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해군항공기, 축전지, 디젤기관 등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해군무기체계 관련 기술의 축적은 물론이고 독자적이고 입체적인 해군작전에 필요한 무기체계 구축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6·25전쟁은 한국해군력 발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다. 한국해군은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반적인 해군력의 수준을 이전의 '내해방어 해군력' 수준에서 휴전 시에는 '근해방어 해군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6·25전쟁 시기의 북한해군과 유엔군 측의 해군작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해군은 전쟁이 시작된 초기에는 후방지역에 특수작전 부대를 상륙시켜 아군 지상군의 퇴로 및 병참선을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1950년 7월에 주문진 근해에서 이루어진 유엔해군과의 교전을 끝으로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주로 기뢰전 및 해안포병운용을 통해 유엔군 측의 상륙을 저지하는데 가용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해군은 전쟁기간 내내 유엔군의 작전에 큰 위협을 주지 못했다.

반면 유엔해군은 1950년 7월 4일 이후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봉쇄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중공격 및 근접항공지원,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사격, 소해작전, 항공초계 등을 통해 유엔군의 전략 및 작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일부로 작전에 참가하였지만 한국해군만의 단독작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때 한국해군이 수행한 작전은 동·서·남해안에서의 경비작전을 비롯하여 소해작전, PT편대 기습작전, 전략도서 확보 작전, 호송 및 수송작전 등이었다. 그 결과 한국해군은 유엔군의 작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력의 획기적인 증강과 연합작전 체제 구축, 무기체계 개발 등을 통해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영해를 독자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최근 남북한 간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설정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므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이 조치는 정전협정의 정신과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유엔군 측의 호의(good faith)를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 졌다. 그 결과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전 해역을 통제하고 있던 유엔군 측에는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로부터 철수함은 물론, 38도선 이남해역에서도 서해 5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육지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통제권을 북한에게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리한 조치가 되었다. 반면 해군력이 무력화된 북한 측에게 있어서 NLL은 그 선 이북수역에서의 안전한 항행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군사령관의 NLL 설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73년까지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인정·준수해 왔다. 그러나 1973년에 발생한 서해사태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 규정을 왜곡하면서 빈번한 군사적 도발과 함께 남북 간 각종회담에서 NLL의 분쟁수역화를 통한 유엔사의 해체 및 정전협정 폐기를 기도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필 : 김상원)

주(註)

1)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6~1951.6)』, 1952, 37쪽.
2) 상륙작전은 주로 전쟁의 제1단계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에 상륙한 모든 부대들은 대부분 전술적 규모였고, 동해안을 따라 공격하고 있는 지상부대들과 연결작전을 실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37-38쪽.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37-38쪽. 6·25전쟁 발발 이전 한국해군의 함정세력 36척이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1954)에 기술된 33척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1950.5.27. 구매한 PC 3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5)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Department of the Navy, 1962, p.61.
6) 북한군이 부설한 접촉기뢰(contact mine)는 부설 절차가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이었다. 즉, 어선을 이용하거나 바지(barge)에 궤도(track)를 장치해 10개에서 15개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군은 인력으로 기뢰를 바지선에 적재한 후 예인선으로 부설장소에 예인해 1분 내지 1분 30초 간격으로 바지 후미에서 기뢰를 굴려 떨어뜨렸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3,000개의 기뢰가 3주일 동안에 원산항 근해에 부설되었다.
7)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U.S. Naval Institute, 1957, pp.143-145.
8) 유엔해군은 주로 주간에 소해작전을 수행하였으나, 북한군 해안포의 사격으로 아군의 함정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자 야간 소해작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9) 유엔해군의 소해함정들은 6·25전쟁 기간 동안 총 1,088발의 기뢰를 소해하였고, 소해작전에 투입된 함정들은 소해작전 이외에도 기뢰정보 수집 및 배포, 한국 소해부대를 대상으로 한 소해교육훈련 및 조종사 구조작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10) 509정은 9월 28일 오전 3시 기뢰접촉으로 조타실 부분이 절단되어 배 앞부분이 먼저 침몰했다. 전사·실종자 대부분은 조타실 하부 침실에서 취침 중이던 사병이었다. 506정이 출동하여 인명구조 후 떠있는 잔여 함체를 예인하였으나, 함체는 침수로 인해 감포 전방 해상에서 침몰했다.
11)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295~311쪽.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2001, 165쪽.
13)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258-259.
14)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335.
15) 이 작전은 유엔해군이 전선지역에서 아군 지상군의 포병사거리보다 후방으로 이격된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적의 군수품 집적소, 병원, 수송설비, 탄약저장소 등의 목표물을 해군 항공기들의 정확한 폭격으로 파괴함으로써 전선의 지하진지에서 작전 중인 적의 전투능력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폭격을 의미한다. 유엔해군은 전선 후방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폭격을 1952년 10월부터 미 제7함대 사령관 클라크 제독의 조상 중의 한사람이었던 '체로키(Cherokee)'의 이름을 붙여서 '체로키 폭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6) 이 항의 내용은 해군본부에서 2012년에 출간한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17)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4-46쪽.
18)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118-120쪽.

19)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123, 470-471쪽.
2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211.
21)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322.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1970, 351쪽.
23) 이 작전은 유엔군이 공산군 전선의 후방지역에 한반도를 종단 및 횡단하는 중요한 지형지물을 따라 선을 그어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공군과 해군, 해병대의 항공세력에 일정한 지역을 할당하여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차량, 다리, 기타 목표물에 대한 항공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적을 고립시키고 전선으로의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 작전이었다.
24)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1957, p.274.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2012, 513-517쪽.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517-521쪽.
27)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462.
28) 프린스톤(Princeton, CV-37) 항모 제원 : 배수톤수 33,300톤, 전장 566미터, 전폭 44미터, 속력 33노트, 무장 5인치 12문. 40밀리 44문, 20밀리 59문, 항공기 80대.
29)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462-463.
30)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466.
31) 체로키 목표물들은 긴밀한 협조와 통제를 위하여 제77항모기동부대 계획장교와 미 제8군사령부 본부가 공동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전선에서 활동하는 항공기들은 폭격선 북쪽으로 확실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레이더로 통제되었다.
32) 체로키 폭격이 적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그들의 대공포 공격이었다. 공산군들은 절대 탄약을 낭비하려 하지 않았지만, 체로키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탄약을 소비했다.
33)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469.
34) 필리핀 시(Philippine Sea, CV-47) 항모 제원 : 배수톤수 27,100톤, 전장 271미터, 전폭 28미터, 속력 33노트, 승조원 3,448명, 무장 5인치 8문. 40밀리 8문, 20밀리 46문, 항공기 90~100대.
35)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483-484..
36) 아이오아 전함이 1952년 10월에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함포사격을 한 이후 처음으로 전함이 함포사격에 사용되었다.
37) MiG-15기 제원 : 폭 50피트 9인치, 길이 39피트 3인치, 높이 15피트 8인치, 중량 25,000파운드, 속력 320노트, 항속거리 900마일, 무장 기총 4×20밀리, 로켓, 폭탄 2,000파운드.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2002. 837쪽〕
38)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119쪽.
39) 구소련은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북한과 부동항인 라진항을 사용하기 위한 협정을 맺은 상태에서 라진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40) 포항상륙, 해군과 해병항공기의 항공 폭격, 해병 제1사단의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작전, 남한 동해안을 따라 실시된 함포 사격.
41)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305-306.
42) "꾸러미"는 함정과 항공기들이 공격하기에 적합한 해안에 있는 목표물로서 성진과 흥남 지역의 철도 5개가 선정되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다. "탈선"이라는 암호명은 함포사격만으로 파괴할 수 있는 표적들로서 북동해안의 표적을 검토하여 청진과 흥남사이에 있는 해안 철도 중에서 해군의 함포사정거리 내에 있는 11개가 선정되었다. 이들 탈선에 대해 초계하고 있는 함정들은 24시

간 간격으로 함포사격을 해야만 했다. 유엔해군은 이러한 해군의 항공공격 및 함포사격의 집중과 협조를 통해 공산군들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43)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368-369.

44) 신형식 역, 『한국전쟁 해전사』,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434쪽.

45)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488.

46) 3개의 보급로란 동해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 서해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 중국 및 만주 등 아시아 항구로의 대양을 이용하는 운송로를 의미함.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537쪽.

48)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214-216.

49)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390.

50) 이때 6함대항공단은 기존에 일본과 한국에 위치해 있었던 3개의 육상기지 초계비행대 및 2개의 항모탑재 초계비행대를 통제하였으며, 1950년 8월 4일 이후 6초계비행대, 42초계비행대, 209전대 그리고 영국해군의 88전대 등이 추가로 한국해역에 도착하였다.(신형식 역, 『한국전쟁 해전사』, 21세기 군사연구소, 442-443쪽.

51)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1992, 48쪽.

52)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1958, 28-32쪽.

53)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45쪽.

54)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104-105쪽.

55)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67-70쪽.

56)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72쪽.

57)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케네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중위의 신분으로 이 배를 타고 일본 함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맥아더 장군 지휘 하에서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58) 52년 초에는 3기생이 PT정장을 맡았고, 4기생이 부장을 맡았으며 후기에는 4기생이 PT정장으로 부임되었다.

59) 기차사냥이란 해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북한의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북한군의 군수물자를 실은 기차가 해안에서 관측 가능한 노출된 지역의 애로 상에 위치한 철로를 통과할 때 한국해군의 PT정이나 유엔해군의 함정들이 포사격을 통해 이를 파괴하는 작전임.

60)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86-100쪽.

61)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100-104쪽.

62)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434-435쪽.

63)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36쪽.

64)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316쪽.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555-559쪽.

66)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259-262쪽.

67) 실제로 황토도 전투에서 패배한 공산군은 1951년 말부터 상륙방어전의 일환으로 고원(高原)-문평(文坪)을 경계로 남쪽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 3개 사단(제2사단, 제13사단, 제27사단)과 이에 배속된 제25여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천까지를 경계구역으로 북한 제5군단 예하에 3개 사단(제6사단, 제12사단, 제46사단)과 제20포병여단, 제22포병여단 및 1개 포병여단을 배속시켜 중공군과 합동으로 해안경비를 강화하면서 아군의 해안봉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68) 제4절 “북방한계선 설정”의 내용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2년에 발간한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책자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인용하여 정리한 다음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것임.

69) 신복룡, 『한국사에서 서해 5도의 정치지리학』, 217쪽.

70) 정전협정 제15항 :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71) 그 후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가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면서 동·서해 모두 북방한계선(NLL)으로 명칭을 통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72) 박종성, 『한국의 영해』, 387쪽; 김모 증언(전 유엔군정전위원회), 2011.11.18.

73) "U.S. Position on Korea i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by the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Nov. 8, 1952)", 군사편찬연구소 *HM 2067*, pp.1863-1865.

74) 「소련정부, 한국의 해상방위수역 설치에 대해 미국 정부에 항의의견 전달(1952.11.4)」, 『한국전쟁시기 한미 정치관계 문서 : 남북한관계사료집 11』, 217-218쪽.

75) 『부산일보』, 1951년 3월 13일자.

76) 1952.1.18에 선포된 평화선은 "(한국)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일반적으로 부르던 명칭으로서 "Lee Line"이라고도 부른다. 초기에는 '어업보호수역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을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 확대수정하게 하여 같은 해 1월 18일 '한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의결을 거쳐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하였다. 이 선언(평화선)은 1945.9.28. Truman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 및 어업 관할 선언과 그 후 중남미에서 선포된 각종 해양관할권 수역에 기초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맥아더 라인'을 대체하려는 데서 나왔다. 일본인들에 대한 어업제한으로 인해 한국이 간접적 혜택을 받았던 '맥아더 라인'이 1952.4.28. 미·일 평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소멸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국근해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둘러 평화선이라고 불리는 "한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었다.

77) 외무부, 「유엔군사령부의 행상방위 봉쇄선 설정 및 폐지 1952-53」; 지철근, 『평화선』, 178쪽.

78) 「소련정부, 한국의 해상방위수역 설치에 대해 미국 정부에 항의의견 전달(1952.11.4.)」, 『한국전쟁시기 한미 정치관계 문서 : 남북한관계사료집 11』, 217-218쪽.

79) "Draft note to Soviet Union", 군사편찬연구소, *HM 2067.*

80) 지철근, 『평화선』, 범우사, 1979, 178쪽.

81) 「주미 한국대사관 성명서(1951.5.4.)」 맥아더기념관 문서.

82) 유엔군사령부 대변인, 「한국의 해상방위수역에 대하여 언급」, 『부산일보』 1952년 11월 5일자. 그러나 머피 주일 미 대사는 이를 부인했다

83) Robert Murphy, "Korean Sea Defense Zone in the event of an Armistice(June 6, 1953)", *RG 84.*

84) GHQ FEC & UNC, Command Report(Aug. 1953), *HD 1563*; 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 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1, 2009, 153쪽.

85) '선택적 방어지대론'이란 미국이 유엔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은 확보하고 그 외의 지역은 포기하는 군사전략 및 방침을 의미함.

86) 「휴전회담 안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가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내는 지시문」 1951.6.30, *FRUS 1951*, pp.598-600.

87) 「그로미코 일기: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유엔주재 소련대표의 성명과 관련해서 소련 주재 미국 대사와의 면담(1951.6.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706쪽.

88) 『조선중앙년감』, 1954-1955, 조선중앙통신사, 350쪽.

89) 해상방위수역의 해제는 제네바정치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인 1953년 8월 27일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음. 따라서 남일이 언급한 해상봉쇄 해제는 서해의 북방한계선 해제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됨.

90) NLL이 설정된 이후 20년 동안 이를 지켜오던 북한이 1973년 10월 23일부터 12월까지 북한 경비정 60여 척으로 무려 43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서해 NLL을 월선시켜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에 인접한 해상까지 침범한 사건을 의미함. 당시 북한 함정은 NLL 남방 10해리(18km)까지 월선하여 한국함정을 포위하고 우리 관할해역을 침범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어뢰정은 편대로 우리 함정에 접근하여 어뢰 모의발사훈련 기동을 하기도 하였고 백령도-연평도로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까지 위협하였다. 심지어 백령도로 향하는 우리의 해군 상륙함을 포위하고 진로를 가로막기도 하였다.

91) 1999년 이후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무력도발은 모두 서해북방한계선(NLL) 분쟁수역화 및 무실화 획책 전략 일환의 NLL 침범과 무력공격에서 비롯되었다.

92) 2006~2007년 개최된 남북장성급회담 및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공동어로구역 문제는 북한의 NLL 무실화 주장으로 결렬되었음.

93)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1950년 7월 2일 주문진 근해에서 주노함을 비롯한 유엔해군의 함정들이 북한해군의 어뢰정 2척과 탄약운반선 7척을 격침시키고, 2명의 북한군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는 해전을 치른 이후, 북한의 항공기로부터 몇 차례의 공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북한의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다.

94) 이 분야는 해군본부에서 발간한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2012) 책자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95) 북한군 병력 1,800여 명이 발동선 30여 척에 분승하여 1,000톤급의 무장수송선과 어뢰정 4척의 엄호를 받으며 옥계 지역에 상륙했고, 800여 명은 발동선 20여 척에 분승하여 경비정 2척의 엄호 아래 삼척에 상륙했으며, 500여 명은 다수의 선박을 이용하여 죽변과 임원 지역에 상륙했다.

96) 일본선박통제국 소속의 선박들은 일본인 승조원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으나, 미 극동해군의 통제 아래 주일 미 해군의 제96.3기동전대(TG 96.3)에 편성되어 있었다.

97) A.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Hill & Wang, 1957, p.22.

98)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491-492.

99)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66쪽.

100)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305.

101) 이 분야는 임성채, 「미국의 6·25전쟁 전략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제 7 장 공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제 3 절	유엔공군 및 한국공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 개황(1953.1.1～7.27)

1953년도 전선은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는 소강상태로 지속되다 6~7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 7월 27일 휴전을 맞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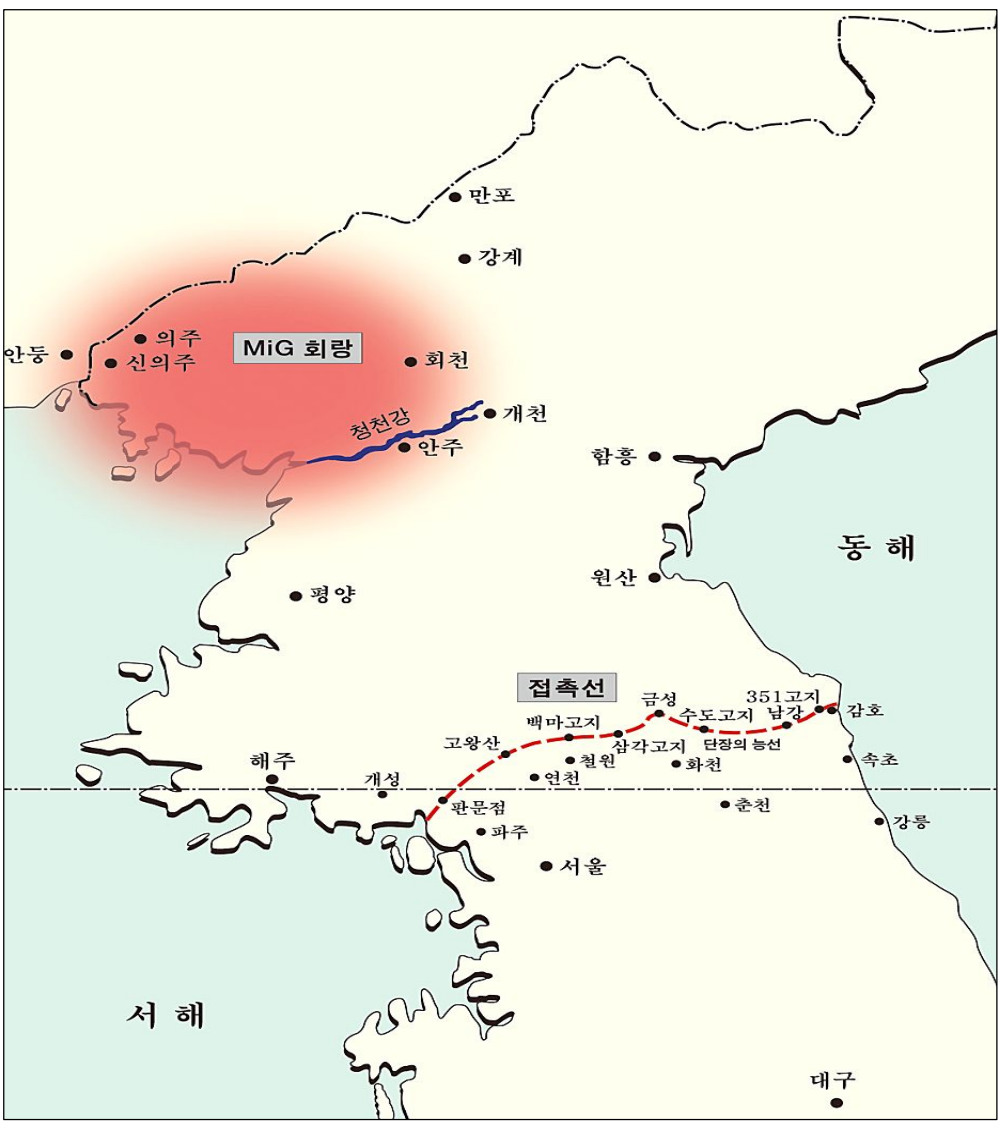
당시 전선은 한강하구에서 시작해 판문점, 고왕산 355고지, 백마고지(白馬高地), 삼각고지(三角高地), 금성(金星), 수도고지(首都高地), 남강, 351고지, 그리고 동해안 감호를 연하는 선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 전선은 현재 휴전선과 유사한 것으로 1951년 7월 휴전회담을 개시한 이후 큰 변화 없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다. 해상과 공중은 유엔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제해권과 제공권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공산군의 해군은 거의 궤멸된 상태나 다름없었고, 공군은 만주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미그회랑(MiG Alley)'이라 불리는 평양 이북지역에서 간헐적인 비행활동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이 시기 전선이 소강상태로 시작된 것은 1952년 12월 이후 공산군 측 내부에서 제기되던 유엔군의 상륙작전 가능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공산군 측 내부에서는 유엔군 측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상륙작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1953년 4월을 목표로 대(對)상륙작전 준비에 몰입하였다. 공산군 측이 내부 방어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동시에 유엔군 측에서도 이른바 '명분 있는 휴전'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실행할 수 없었다.

소강상태로 지속되던 전선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소련 스탈린(Joseph Stalin)의 사망이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사망 이후 휴전회담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

하였고 전선 상황도 소강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공산군 측의 협상태도가 변화되면서 양측은 협상이 중단된 지 약 6개월여 만인 4월 25일 협상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상황도 7-1> 1953년 1월 전선 상황도



협상이 재개되고 전쟁의 종결이 가깝게 생각되면서 양측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휴전을 맞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도에 이루어진 가장 큰 전투인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휴전 직전인 6월과 7월에 걸쳐 전개되었다. 중공군의 공세는 휴전회담 기간 중 진행된 대규모 전투이자 정전협정 체결 직전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방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중공군의 '하계공세'로 불리는 당시 전투는 시기적으로 3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는 1953년 5월에 시작되었다. 5월 12일 중공군 제60군 제180사단이 국군 제5사단 전초 689고지(Texas 고지)를 시작으로, 5월 24일까지 금성 돌출부 정면의 중대급 이하 7개 소규모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전투결과 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던 마제형고지를 제외하고 국군 제5사단, 수도사단, 제9사단의 책임구역은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2단계는 1단계 작전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거친 후 5월 27일부터 재개되어 6월 23일 종료되었다. 2단계 하계공세 시 공산군 측은 공격목표를 유엔군 대대급 진지까지 확대하고 서부전선의 중공군 제19병단, 중부전선의 제9, 20병단, 동부전선의 북한군 제3, 9군단을 총동원하여 전 전선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1953년 6월 1일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기존의 유엔군에 대한 공격방침을 변경하여 국군의 책임지역 정면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새로운 작전 방침을 채택하였다.

3단계는 6·25전쟁 기간 중공군의 최후 공세로 7월에 전개되었다. 특히 1953년 6월 18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중공군의 공격을 가열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1] 중공군은 7월 13일 국군 수도사단 및 제2군단(제3, 6, 8사단) 방어지역인 금성 돌출부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강력한 공세를 감행하였다. 7월 19일까지 진행된 이 공격을 통해 중공군은 상당한 지역에서 돌파에 성공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포함한 미 지상군이 한국군 방어지역을 교대하여 담당하거나, 국군의 후방에서 차단진지를 점령했다. 이후 국군은 반격을 통해 금성천을 확보하였으나 금성 돌출부를 상실하여 방어선이 직선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공군의 3단계 공세이후, 7월 19일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양측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영토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7월 21일 양측간에 군사분계선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7월 27일 10시 유엔군 측 협상대표단장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중장과 공산군 측 협상대표단장 남일(南日)이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는 정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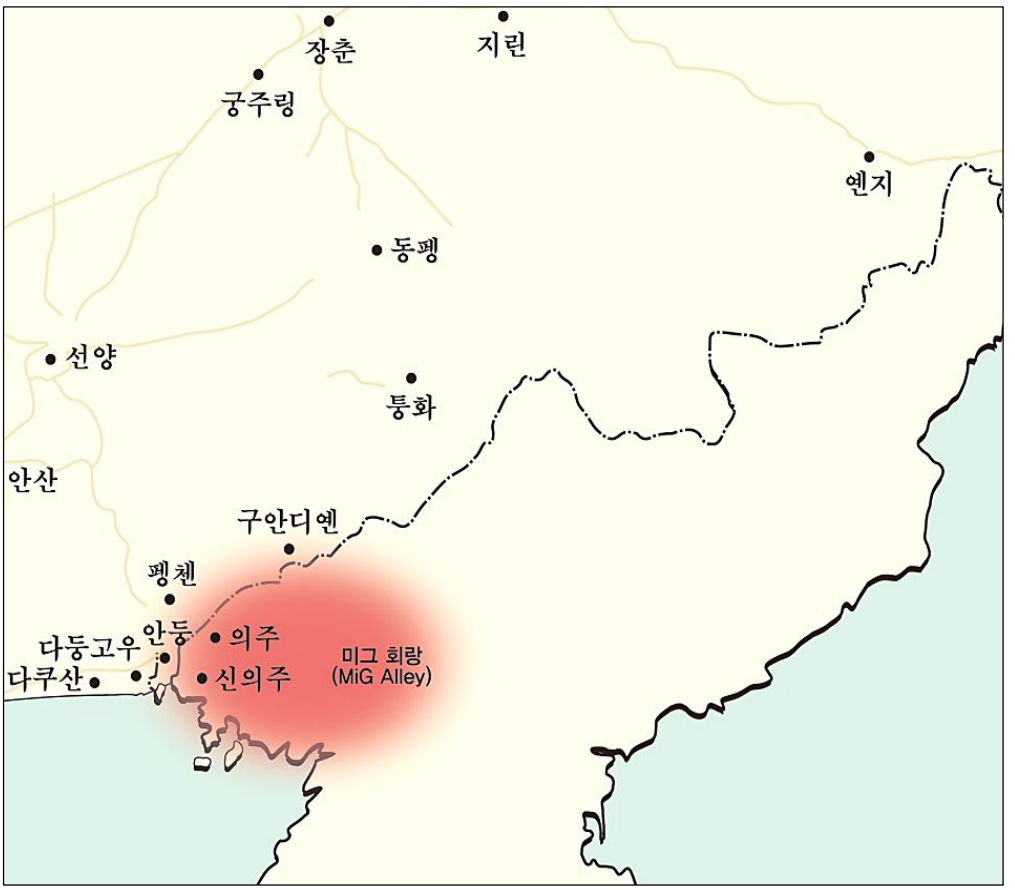
1953년도의 전선 상황 속에서 공산공군은 소련공군을 중심으로 미그회랑지역에서 소극적인 비행활동을 전개하였고, 중국과 북한공군은 소련공군의 엄호하에 일부작전에 참여하였으나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갖고 유엔공군에 대항하지는 못했다. 북한공군은 PO-2 경폭격기를 이용하여 휴전선 및 수도권 지역에서 야간 특수작전을 전개하여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유엔공군은 북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제공권을 장악한 가운데, 지상군 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후방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공군은 유엔공군의 일원으로서 1952년 10월 이후 개시하였던 공지합동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2. 공산공군 작전

1953년 소련, 중국, 북한 3국의 공군작전은 기존의 작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었다. 북한지역의 비행장이 작전 불능인 상태에서 공산공군은 만주지역의 비행장에 주둔하면서 미그회랑 지역에서 제한된 작전만을 전개하고 있었다. 공산공군의 주력인 소련은 참전이후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방어작전만을 전개하였고, 중국 및 북한공군은 자체 전투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공군력 증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소련 전투기의 엄호하에 간헐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공산공군의 상황은 한반도에 대한 제공권을 유엔공군에게 내주었고, 그 결과 유엔공군은 전쟁기간 내내 흔들림 없이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상황도 7-2> 1953년도 공산공군 비행장 배치지역 및 미그회랑



공산공군의 작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련공군은 1950년 11월 참전이후 계속해서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의 비행사단을 약 8~14개월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3년도에는 기존에 임무수행 중이던 제32·제133·제216전투비행사단과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가 철수하고, 제37·제100전투비행사단과 제298야간전투비행연대가 신규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전쟁초기와 달리 후반부에 투입된 소련 조종사들의 수준은 저하되어 있었다. 참전초기에는 전투경험이 많은 숙련된 조종사들이 투입된 반면에 전쟁 후반부로 오면서 이전보다 경험과

전투력이 부족한 자원으로 대체되었다.[2] 또 휴전이 가까워 오면서 부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우 소극적인 전투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소련공군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공군도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었다. 소련공군이 참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공군은 북한에 전진기지가 없는 상황과 조종사들의 능력 부족이 작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중국과 북한 조종사의 조종 능력 부족은 소련공군과의 합동작전에 제한요소로 작용했으며, 거의 매번 소련공군의 엄호하에 비행을 해야 할 정도로 취약했다.[3]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유엔공군과의 전투대결보다는 자국 공군의 전력증강에 더 집중하였다. 특히 중국공군은 전쟁기간을 이용해 자국 군사력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52년 8월 6일 전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의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은 커다란 학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은 군사학교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하였다.[4] 중국 지도부의 이런 사고 속에서 중국공군은 유엔공군과의 적극적인 교전보다는 자체 전투경험을 축적하고 공군력을 증강시키려는 목적에서 전력을 운용하였다.

북한공군도 유엔공군과의 적극적인 공중전보다는 자체 공군력 증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북한은 1953년 전반기 새로운 비행사단 창설과 함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를 최신기종으로 교체하는 등 부대개편과 전력보강 작업을 추진하였다.[5] 이 작업은 1953년 3월말 완료되어, 북한공군은 MiG-15를 보유한 전투비행사단을 3개로 증강시키고 제트폭격기인 IL-28을 보유한 제10폭격사단을 창설하였으며, 2개의 독립폭격연대를 보유하는 등 공군전력을 대폭 강화하였다.[6] 소련, 중국, 북한 3국 공군이 유엔군과의 전쟁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공군력을 운용하는 것은 같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국의 참전 목적과 세부적인 공군력 운용 양상은 이처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공군은 이 같은 내부 상황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유엔공군의 제공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을 강구하고 실제로 운용하였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써 '박스-인(Box-In)' 전술로 불리던 공산공군의 새로운 대응전술과 IL-28 전폭기

의 도입, 북한군의 PO-2기를 이용한 전술, 그리고 대공화기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실제로 유엔공군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박스-인' 전술이란, 공산공군이 미그회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유엔 조종사들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전술로 1952년 12월 무렵부터 새롭게 구사하였다. 이 전술은 MiG기 편대들이 미 공군 F-86 전투기가 기지로 귀환하기 약 20분 전에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까지 내려와 있다가 압록강을 건너 철수하는 미 공군 전투기 편대를 청천강까지 내려와 있던 MiG기들과 만주에서 이륙한 MiG기가 협공하는 방식이었다.[7] 적의 협공을 받은 미 공군 F-86 전투기 조종사들은 연료가 고갈될 때까지 싸우다 서해상의 초도(椒島) 상공으로 가서 비상탈출하거나 연료가 고갈되기 직전에 가까스로 모기지(母基地)에 착륙했다. 그 후 미 공군 F-86 전투기들은 압록강 초계임무를 마치고 귀환할 때 가급적 서해상을 거쳐 귀환하였으며, 공산군 MiG기들이 박스 안에 가두어 놓고 공격하려는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를 충분히 남겨서 귀환했다.[8]

IL-28 폭격기의 확대된 작전반경도 유엔공군으로서는 신경을 써야만 하는 문제였다. 1953년 1월 5일 미 제5공군사령관 글렌 바쿠스(Glenn O. Barcus) 장군은 공산군 측의 IL-28 폭격기 전력증강이 유엔공군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9] MiG-15 전투기는 행동반경이 짧고 대지공격능력이 의문시 되었으나, 만주에 새로 배치된 신형 IL-28 폭격기는 유엔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10]

북한공군이 주로 운영했던 PO-2 경폭격기도 유엔공군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방식이 1953년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공군은 개전초기부터 PO-2를 이용한 야간 특수공격을 전개하였다. 북한공군은 PO-2 항공기를 이용한 야간 공격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비행장을 공격하는 등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PO-2는 비록 구형 항공기였지만, 오히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등 유엔공군이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이밖에도 공산군 측의 보강된 대공화력은 유엔공군의 작전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유엔공군의 1953년 통계에는 공산공군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유엔공군 전투기는 14대였지만 대공화기에 의해 격추된 것은 64대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공산군 측의 대공화력이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

3. 유엔공군 작전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군 측의 공군력은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 공산군 측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적 수단이었다.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은 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난 뒤, 미 합동참모본부에 유엔군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지 않고 적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은 공군력 밖에 없으므로 공군력 운용에 대한 각종 제한을 해제하고 항공압박작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12]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2년 8월 8일 클라크 장군에게 보낸 지시문서에서 '유엔군사령관은 가용한 모든 공군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미 합참의장 오마 브래들리(Omar N. Bradley) 장군도 '유엔군사령부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중에 공군력만이 공산군이 정전조건을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13]

유엔군사령부의 공군작전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휴전회담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1952년 12월부터 1953년 3월까지 미 극동공군의 작전방침은 공산군에 압력을 가하여 휴전회담에 영향을 주고, 비상시에 대비한 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유엔군에 대한 적의 폭격 저지, 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 제공, 적의 군수 및 통신수단 방해도 포함되었다.[14] 이러한 작전방침에 따라 1953년도 유엔공군의 주요 작전도 휴전회담의 압박수단으로써 공군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북한상공에 대한 확고한 제공권 유지와 후방차단작전 및 지상 전투지원 작전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1953년 1월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143,450소티(sortie)였다. 이는 월평균 약 20,493소티를 실시한 것으로 1952년 월평균 19,262소티와 비교할 때 1,231소티(약 6.3%) 증가한 수준이었다. 작전형태별

로는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31,893소티(22.2%), 공수작전 31,101소티(21.6%), 제공(요격)작전 27,289소티(19%), 근접항공지원작전 23,392소티(16%), 정찰작전 10,735소티(7.5%) 순이었다.

이 시기 극동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총 224대로 작전 중 손실은 187대이며 이 중 공산군에 의한 손실은 89대였다. 또 이 중 공대공 전투에서는 14대를 잃은 반면 대공포에 의한 손실은 64대로 적 활동에 의한 손실 중 72%를 차지하여 유엔공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공산군의 대공화기였다.

1953년 1월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유엔공군의 작전 활동 및 전력증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 중 유엔공군과 해군은 함께 적 후방지역에 대한 '질식작전(Operation Strangle)'을 계속하였다. 유엔공군은 전선지구의 유엔지상군에 대하여 공중지원을 하는 한편 북한내의 모든 군사시설, 보급물집적소, 보급차량, 보급로에 대하여 연일 맹공격을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엔함대들은 주로 동해안지구의 적 군사시설 및 보급로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가하고 함재기로 공격하였다.[15] 이러한 유엔해·공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적의 보급품은 대부분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분쇄되어 적 지상군의 공세능력은 약화되었다.

유엔공군은 이 시기 항공기의 기종 전환을 추진하여 제8, 18전투비행단의 항공기를 F-51과 F-80에서 F-86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의 전투력은 급속히 증가하여 1953년 유엔공군의 F-86은 1:10의 비율로 MiG-15를 격추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이와 병행하여 비행장 활주로에 대한 보수 및 신설, 신규 조종사 전입, 그리고 후방정비체제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유엔공군의 전력 향상은 매우 확고해졌고, 이를 토대로 유엔공군은 공산공군과의 공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서 확고한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한국공군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1953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 공군은 총 3,082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다. 한국공군은 개전초기부터 단독출격작전 수행태세의 완비를 목표로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시켜 나갔었다. 그 결과 1951년 10월 11일 역사적인 첫 단독출격작전을 개시하였고, 1952년 10월 28일

부터는 이전부터 수행해오던 적 보급로 차단작전과 병행하여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1953년 7월에는 F-51 78대를 비롯해 총 11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16]

전투경험의 축적과 전투기 도입을 기반으로 1953년 한국공군은 조직상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1953년 2월 15일부로 제10전투비행전대를 기간(基幹)으로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또 같은 날 조종사훈련을 전담하고 있던 기존의 제1전투비행단을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함으로써 2개의 비행단을 보유하게 되었다.[17] 1953년도에는 17명의 100회 출격 조종사를 신규로 배출함으로써 6·25전쟁 전 기간 총 39명의 100회 이상 출격조종사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한국공군은 기간 중에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을 비롯한 다양한 지상군 지원작전 및 보급로 차단작전을 통해 전투능력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1953년도 유엔 및 한국공군 주요 부대의 지휘관 현황은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52년대 대비 주요 지휘관 변경 사항으로는 5월 31일부로 글렌 바쿠스(Glenn O Barcus) 제5공군사령관이 새뮤얼 앤더슨(Samuel E. Anderson) 중장으로, 폭격사령부는 6월 15일부로 윌리엄 피셔(William P. Fisher)에서 리차드 카미챌(Richard H. Carmichael) 준장으로 교체되었다.

<표 7-1> 1953년도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 현황

부 대		주둔기지	주력기종	지 휘 관
한국	공군본부	대 구(K-2)		총참모장 : 중장 최용덕
	제1훈련비행단	사 천(K-4)	T-6	준장 장덕창
	제10전투비행단	강 릉(K-18)	F-51	대령 김영환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도 쿄(東京)		대장 Otto P. Weyland
	제5공군사령부	이다쯔게(板付)		중장 Glenn O Barcus → Samuel E. Anderson(5.31~)
	제8전폭비행단	수 원(K-13)	F-86	대령 James J. Stone Jr. → William E. Elder(5.29~)
	제18전폭비행단	오 산(K-55)	F-86	대령 Frank S. Perego → John C. Edwards(6.15~)
	제49전폭비행단	대구(K-2)→ 군산(K-8)	F-84	대령 Edwin A. Doss
	제58전폭비행단	대 구(K-2)	F-84E	대령 Joseph davis, Jr
	제474전폭비행단	대 구(K-2)	F-84E	대령 William W. Ingenhutt
	제51전투요격비행단	수 원(K-13)	F-86	대령 William C. Clark
	제4전투요격비행단	김 포(K-14)	F-86	대령 James K. Johnson
	제3폭격비행단	군 산(K-8)	B-26	대령 John G. Napier
	제17폭격비행단	부산 수영(K-9)	B-26	대령 Clinton C. Wasen
	폭격사령부	요꼬타(横田)		준장 William P. Fisher → Richard H. Carmichael(6.15~)
	제19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Harvey C. Dorney
	제98폭격비행단	요코타(横田)	B-29	대령 Edgar S. Davis
	제307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Austin J. Russell
	제315공수비행사단	히가시후주(東府中)		준장 Chester E. McCarty
	제314공수비행전대	아시야(蘆屋)	C-119	대령 Harold L. Sommers
	제315공수비행단	일본 브래디(Brady)	C-46	대령 Robert O. Good
	제374공수비행단	다치카와(立川)	C-124	대령 James W. Chapman
	제403공수비행단	아시야(蘆屋)	C-119/46	대령 Maurice F. Casey
호 주	제77전투비행대대	김 포(K-14)	Meteor-8	중령 J. W. Hubble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오산(K-55) 미 18비 소속	F-86	중령 R. A. Gernecke
그리스	제13공수비행대	다치카와(立川)	C-47	중령 Kostakos Jaomes
태 국	공수비행대	다치카와(立川)	3/C-47	중령 Kaiwal Thawornthan
캐나다	제426공수비행대대	캐나다 도발(Dorval)	6/North Star	?

*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2011; 미 공군 역사연구센터 홈페이지(www.afhra.af.mil) "*USAF Organizations in Korea 1950-1953*" 참조 작성.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1. 소련공군

1) 편성 및 임무

6·25전쟁이 시작된 이후 1950년 11월 중국 만주에서 창설된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은 1954년 11월까지 중국 동북부지역에 주둔하였다. 이들은 약 8~14개월 간격으로 부대를 교대하면서 주둔했는데, 1953년도에도 전투비행사단과 지원부대의 교체가 있었다. 먼저 전투비행사단으로 1953년 7월과 8월에는 제32, 제133, 제216전투비행사단이 제37, 제100전투비행사단으로 교체되었다. 1953년 1월에는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가 철수하고, 제298야간전투비행연대가 신규로 투입되었다. 또한 1953년 1월에는 해군 제781전투비행연대가 들어오고, 제578전투비행연대는 1953년 4월 철수했다. 아울러 군단 전체를 지원하던 제18비행기술사단이 1953년 8월 철수하고, 제16비행기술사단으로 대체되었다. 1953년 1월에는 제87, 제92고사포병사단이 제28, 제35고사포병사단으로 교체되었다. 제10탐조연대를 대신하여 제20고사탐조연대가 1953년 1월부터 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7-2>는 1953년도에 이루어진 각 부대별 교체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소련공군의 임무는 1950년 11월 참전이후 변하지 않고 1953년에도 계속되었다. 소련공군은 미 공군의 공격으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 및 산업시설, 철도역, 교량, 군대집결지 그리고 다른 중요한 대상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압록강의 교량과 발전소 엄호 또한 주된 임무였다.[18] 이를 위해 소련공군은 만주와 미그회랑지역에서 유엔공군에 대항하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7-2> 1953년도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부대의 편성 및 교대현황

구 분	보유장비	주둔기지	활동기간	비 고
제64전투비행군단	4/MiG-15 bis	선 양	'50.11~'54.12	'54.11~12 철수
제32전투비행사단 (제224, 535, 913연대)	120/MiG-15 bis	안 둥	'52.9~'53.8	
제37전투비행사단 (제236, 282, 940연대)	120/MiG-15 bis	안 둥	'53.7~'54.12	제32사단 교대
제133전투비행사단 (제147, 415, 726연대)	120/MiG-15 bis	선양, 안둥 동펑, 안산	'52.4~'53.8	
제100전투비행사단 (제9, 731, 735연대)	120/MiG-15 bis	선양, 안둥 동펑, 안산	'53.7~'54.12	제133사단 교대
제216전투비행사단 (제676, 781, 878연대)	120/MiG-15 bis	안 둥	'52.7~'53.8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10/La-11 10/MiG-15 bis	안 둥	'51.6~'53.1	
제298야간전투비행연대	10/La-11 10/MiG-15 bis	안 둥	'53.1~'54.7	제351연대 교대
해군제578전투비행연대	?	안 둥	'52.7~'53.4	제133비행사단 배속
해군제781전투비행연대	24/MiG-15 bis	안 둥	'53.1~'53.7	제578연대 교대
제18비행기술사단		안 둥	'51.6~'53.8	
제16비행기술사단			'53.6~'54.12	제18기술사단 교대
제87고사포병사단	37/85밀리 고사포	안 둥	'51.6~'53.1	
제92고사포병사단		안 둥	'51.6~'53.1	
제28고사포병사단	37/85밀리 고사포	안 둥	'53.1~'54.11	제87/92고사포병 사단 교대
제35고사포병사단		안 둥	'53.1~'54.12	
제10고사탐조연대		안 둥	'51.6~'53.1	
제20고사탐조연대		안 둥	'53.1~'54.12	제10탐조연대교대

2) 작전활동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체적인 작전활동을 상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953년 당시 예하 사단 중 하나였던 제133전투비행사단의 전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소련공군의 비행활동 상황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1953년 8월 20일, 제133전투비행사단장은 제64전투비행군단장에게 보낸 전투결과 보고서에서 1952년 5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이루어진 사단의 전반적인 작전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했다.[19]

보고서에 따르면, 제133전투비행사단은 소련을 떠나 1952년 4월 16일 중국에 도착하였다. 이후 사단본부와 예하 비행연대를 각각 선양, 안둥(安東)[20], 펑청(鳳城)비행장에 배치한 후, 1952년 4월 20일부터 6월말까지는 제2제대로서 선양지역 방호와 제1제대인 제97, 제190전투비행사단의 증원제대 역할을 하였다.[21]

1952년 7월에 전투배치를 완료한 제133사단은 1952년 7월 5일부터 1953년 1월 24일까지 1개 비행대대를 제외한 3개 연대로 주간에는 제97, 제190전투비행사단과(1952년 9월부터는 제32, 제215전투비행사단)과 협조하여 요격 출격과 '자유사냥'을 통해 수풍발전소와 압록강 철교, 안둥 비행장, 평양-원산선까지의 북한 방호목표물과 교통로를 유엔공군의 폭격기와 전투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였다.[22]

1953년 1월부터 7월까지 사단의 비행활동은 총 2,867소티(월 409소티)였다. 이 수치는 제133비행사단이 중국에 도착한 이후 8개월간 실시한 3,723소티(월 465소티)보다는 월평균 55소티가 감소한 수준이다.

제133사단의 전투강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52년 8월~1953년 1월, 1953년 6~7월이었다. 조종사들은 전투에 투입된 15개월 중 8개월간 유엔공군과 긴장된 전투를 수행했다. 1952년 9월에만 810회의 출격을, 1952년 8월부터 1953년 1월까지 6개월간은 3,489회(월 582회)의 출격을 실시했다. 이는 전체 출격 횟수의 53%에 해당하는 것이다.[23]

<표 7-3> 1953년 제133전투비행사단의 예하 제대별 비행활동

구분	사단지휘부	제147비행연대	제415비행연대	제726비행연대	계
'53. 1월	2	52	270	270	594
2월	3	54	138	154	349
3월	2	36	134	140	312
4월		69	50	80	199
5월		11	100	80	191
6월		48	304	180	532
7월		68	344	278	690
계	7	338	1,340	1,182	2,867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457쪽.

비행대대별 전투강도는 조종사 1인당 월평균 6회 출격이었으며, 전체기간 동안에는 74회였다. 가장 높은 전투 강도를 보인 부대는 2,699회의 출격을 수행한 제415전투비행연대와 2,173회의 출격을 수행한 제726전투비행연대였다.[24] 그러나 조종사 1인당 최대 전투강도는 월 22회 출격이었으며, 전체기간에는 115회였다.[25] 전투보고서에는 참전기간 동안 성과로써 각 조종사들이 F-86을 비롯해 유엔공군의 전투기, 폭격기 등에 대항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단 예하부대의 전투효율성은 유엔공군기 1대를 격추하는데 출격 78회, 전투 16회, 사격 6회(탄환 314발 소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26]

그러나 이 시기 소련 전투조종사들에게는 전투결과보고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기 저하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사기 저하는 겨울철 기상, 미 공군의 기종 전환추진, 종전(終戰)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기상이 소련 조종사들에게 미친 영향은 비행활동 증가로 나타났다. 1953년 겨울 기상조건이 악화되어 비행숙련도가 낮은 조·중 연합공군 부대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신하여 제64전투비행군단 소속 비행부대의 전투 출격횟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련측 자료에 따르면 1952년 12개월간 주간 출격이 23,539회(월평균 1,961회)이었던 반면 1953년 7개월간 18,152회(월 평균 2,600회)의 주간출격이 있었다. 월평균 출격횟수가 1953년에 약 650회(33%)나 증가된 것이다. 1953년 주간에는 508회의 공중전이 있었고, 야간에는 1,373회 출격에 59회의 공중전을 수행했다.[27] 이에 따라 조종사들의 전투 피로와 긴장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비행활동의 증가는 조종사들에게 피로도를 증가시켜 사기저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미 공군의 기종 전환도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미 공군이 1953년에 들어서 제18, 제81비행단을 F-86으로 재무장하였는데, 이는 소련 조종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자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었다.[28] 여기에 이제 곧 전쟁이 끝난다는 기대 속에서 누구도 전쟁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공중전에서 전투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29]

이런 상황에서 소련 군 지휘부는 조종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소련 조종사들에게 B-29의 폭격으로 초토화된 북한 도시를 견학시킴으로써 미군의 호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들이 북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주입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적기훈장, 레닌 훈장, 소련영웅 칭호, 상금과 같은 보상이 조종사들에게 유엔공군기 격추를 독려하기 위해 이용되었다.[30]

소련공군이 유엔공군과의 작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중국과 북한 조종사들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소련공군에서 배우고 익힌 전투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 조종사들의 수준은 유엔공군을 상대하기에 벅찼고, 결과적으로 1953년도에 많은 MiG기가 격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31]

소련공군 제196비행여단 제3비행중대 조종사들(1951년, 단둥)

3)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작전활동 평가

1953년도뿐만 아니라 전쟁기간을 통틀어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작전활동은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기간 동안 소련공군은 실질적으로 공산군 측 공군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유엔공군에 대항하여 중국과 북한 지상군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제64전투비행군단의 조종사들은 미 공군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공군의 작전활동을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작전구역 측면이며, 둘째는 임무적 측면이다.[32]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작전구역은 북·중 국경선에서 반경 75km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후 평양-원산라인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제64전투비행군단 항공기의 서해 상공 비행은 시종일관 금지되었다. 이것은 물론 소련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비행부대의 수가 제한되었고, 비행장, 전파탐지소 등 공중전 수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의 준비가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 공군과의 전선 확대를 원하지 않은 소련 지도부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33] 따라서 동·서해의 제해권과 북한 상공에 대한 제공권이 유엔군 측에 있는 상황에서 작전구역 제한은 소련공군의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소련공군의 작전구역 제한은 그들에게 부여된 작전임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소련공군에게는 공군작전의 여러 종류 중 공중에서 적의 공군력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공작전이 매우 강조되었다. 미그회랑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남하하여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이나 폭격임무 등은 수행하지 않았다. 제64전투비행군단은 자신의 전력을 만주와 북한의 방어에만 투입했고, 작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의 지상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다.[34]

소련공군의 작전구역과 임무의 제한은 소련 정치지도자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련 지도부는 중국공군을 항공전에서 독립적으로 전투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어 중국공군이 극동에서 소련의 국익을 구현하게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35]

소련 국가지도자들의 이 같은 사고 속에서 소련공군은 만주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조종사들에 대한 비행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들 두 나라 조종사들의 조종능력이 유엔공군에 독자적으로 맞서 공중전을 전개하거나 소련공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정도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다. 대체로 공산공군이 함께 출격하지만, 소련공군의 엄호하에 '동참'하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F-86의 강력한 엄호를 받고 있는 유엔공군의 대규모 폭격기 및 전투폭격기 비행부대를 격퇴하는 임무는 제64전투비행군단 조종사들이 담당했고, 이때 중국과 북한공군의 조종사들은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전투에 참여했다. 안둥, 다쿠산(太高山) 등의 비행장에 배치된 연합공군의 비행기 총수가 제64전투비행군단의 MiG기 수를 상회할 때에도 소련 비행사들은 기존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36]

그러나 비록 지역적으로 원산과 평양이북에 제한되기는 했지만, 공산공군의 주된 공군력은 소련공군이었다. 그리고 소련공군은 유엔공군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소련공군은 유엔공군과의 대결에서 적지 않은 전과를 올렸다.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자료에 따르며, 소련공군은 6·25전쟁 전 기간에 걸쳐 격추 335대, 조종사 사망 120명, 기타 전투지원병력 손실 299명(장교 138, 하사관/사병 161)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다.[37] 반면, 공산공군에 의한 유엔군 측 피해(소련공군의 전과)는 총 1097대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1950~1951년 공중전에서 미군 비행기 564대 격추, 1952년 미군 비행기 394대 격추, 1953년 7개월간 공중전에서 139대의 미 공군 비행기를 격추했다는 것이다.[38] 비공식적인 소련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에서 소련조종사 32명이 '격추영웅'(Ace)이 되었고, 이중에서 22명은 '소련영웅' 칭호를 받았다. 수트야긴(N. V. Sutyagin) 대위가 21대를 격추하여 최고의 에이스가 되었고, 페페라에프가 20대로 그 다음을 이었다.[39]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때까지 소련은 150대에서 3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12개 비행사단(29개 전투비행연대)을 교대로 참전시켰다. 또한 4만 명이 넘는 병력(4개의 대공포 사단과 기타 지원부대 포함)이 제64전투비행군단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1952년 7월부터 1953년 8월 동안 약 2만 6천 명이 주둔하여 최대인원을 기록했다. 공산공군은 6·25전쟁기간 중에 약 9만여 소티를 비행하였고 이들 중 2/3가 소련공군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가 중국과 북한 조종사에 의한 것이었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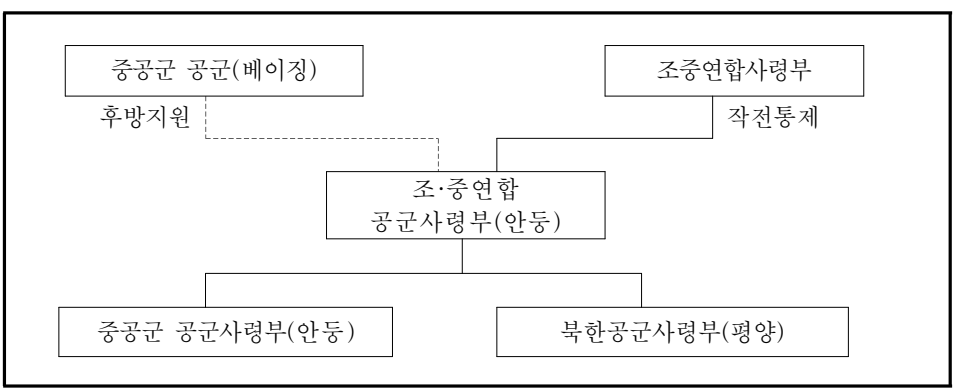
6·25전쟁기간 소련공군의 작전구역과 임무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소련공군은 공산군의 공군력으로 유엔공군과의 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존재였으며, 유엔공군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였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공군

1) 편성 및 지휘체계

1950년 12월, 북한과 중국은 전쟁기간 동안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중 연합사령부를 구성했다. 양국 공군도 연합사령부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51년 3월 중순, 연합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공군부대 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기로 하였다. 연합공군사령관에는 중공군 공군사령관인 류첸(劉震)을, 부사령관에는 북한공군사령관 왕련(王璉)을 임명했다.[41] 1953년 4월에는 연합공군사령관 류젠의 후임으로 화둥군구 공군사령관 녜펑즈(聶鳳智)이 임명되었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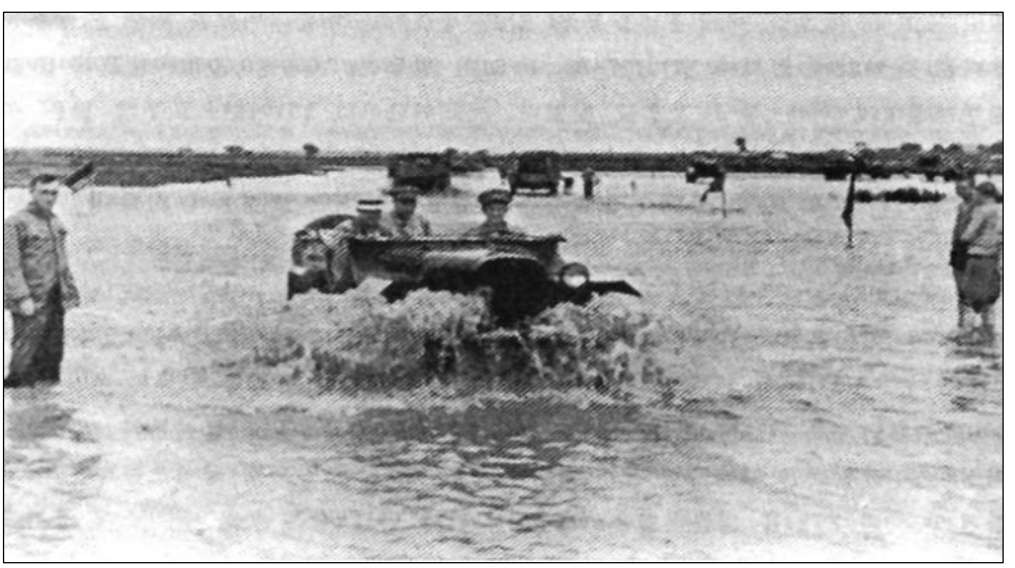
<표 7-4> 조중 연합공군사령부 지휘관계



북한과 중국은 연합공군사령부를 구성하였지만, 실질적인 공산군 측의 공군력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공군과의 지휘체계 단일화는 실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물론 소련공군과 합류, 단일지휘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소련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쟁기간 내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밀접한 협조를 위해 연락장교를 양측 지휘본부에 배치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43] 또한 소련공군은 조·중연합공군 지휘부의 요청

에 작전지휘체계에 대한 논의 대신 작전에서의 엄호 임무 정도만을 수행하기로 했다.[44]

소련공군과 조·중 공군간의 단일한 지휘체계 구축과 협조 부족은 작전간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가끔 중국과 북한의 방공포 부대는 소련 MiG기를 향해 대공포를 발사하였고 소련 조종사들은 중국 MiG기를 F-86으로 오인하여 요격을 감행하기도 하였다.[45]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중 연합공군사령부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안둥비행장이 홍수에 잠긴 모습(일자 미상)

2) 작전활동

1953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공군의 작전활동은 대공방어체계 증강과 간헐적인 공중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1952년 12월부터 1953년 4월까지 기간은 휴전협상이 중단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중공군 내부적으로는 유엔군의 동해 또는 서해에서 상륙작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상륙작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군도 이 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다.

먼저 상륙작전에 대비한 방어태세 강구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1952년 12월 하순부터 1953년 4월까지 대규모의 대상륙작전 준비를 진행했다. 12월 17일 중공군은 당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이 서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상륙작전 준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병력 배치와 지휘관계의 조정을 결정하고, 동해안에도 구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 잠정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작업을 1953년 3월 15일 이전에 완료하기로 확정했다.[46]

중공군 공군과 해군 역시 대상륙작전 준비에 참가했다. 1953년 1월 3일 펑더화이는 군사위원회 공군 부정치위원 우파셴, 부사령관 창첸쿤, 왕빙장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공군의 대상륙작전 준비 문제를 연구하고 조종사와 항공기의 준비, 그리고 전술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같은 달 마오쩌둥은 중국공군 작전 정황에 관한 군사위원회 공군사령관 류야러우의 보고를 들은 다음, 전투훈련과 대상륙작전 준비를 강화하고 전투 경험이 있는 조종사를 더 많이 양성하며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대상륙작전 참가를 위한 배치와 준비에 착수했다.

195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공군은 제1선에 5개 사단을 배치하여 작전에 임했고, 이 기간 동안 제1선에서 작전을 진행한 부대는 제3사단(1월 25일까지), 제4사단(3월 21일부터), 제6사단(1월 25일부터), 제16사단(1월 28일부터), 제12사단(3월 21일까지), 제15사단과 제17사단이었다. 이밖에 요격기 제18사단(MiG-15기), 제9사단 및 제2사단의 1개 야간비행대대(LA-9, LA-11기), 공격기 제5사단과 제11사단(제22사단 일부 포함, IL-10기), 폭격기 제10사단과 제20사단(Tu-2기) 역시 대상륙작전 준비를 진행했다. 당시 참전한 부대와 함께 공군에서는 모두 14개 사단에 630대의 항공기가 대상륙작전에 참가할 준비를 했다.

중국공군 La-11 [출처 :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p.47]

대상륙작전 준비과정에서 공군의 방공업무도 정비되었다. 대상륙작전 준비가 시작된 후 중공군 방공부대는 통일된 계획하에 대상륙, 대공중강습 작전 방안 및 야전부대와의 합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공군 방공부대와 중국 동북지역의 방공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고사포부대, 탐조등부대, 대공감시부대의 배치를 조정했고, 미군의 공중강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공중강습진지를 구축했다. 연합공군사령부와 합동으로 연합정보기지를 건립하고 공군과 방공부대를 집중 지휘하여 대공근무 경계체계를 확립했다. 1953년 6월에는 방공사령부를 설립했다. 그 결과 지휘체계가 더욱 명확해졌고, 합동작전 능력도 현저하게 증강되었다.[47]

다음으로 간헐적인 공격과 전투가 진행되었다. 중국 군사과학원에서 발간된 『중국군의 한국전쟁사』에는 1953년도 중국공군의 월별 주요 작전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공군은 여러 제대를 혼합하는 방식을 이용해 압록강 연안 상공을 넘어오는 미 공군 혼합편대를 뚫고 들어가 전폭기를 공격했고, 압록강 일선의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공군은 미 공군의 대규모 편대에 반격을 가하는 동시에 미 공군기 편대가 활동하는 틈을 이용해 소규모 편대를 여러 차례 연속으로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진남포와 대동강 하구 일대까지 진출해 미군의 소규모 편대를 공격하여 지상부대의 배치 및 구조물 구축과 물자의 운송 활동을 엄호했다고 한다.[48]

통계에 따르면 1953년 1월은 한반도 전장에서 공중전이 가장 많았던 달이었다. 중국공군은 144차례에 걸쳐 1,566대의 항공기가 출동했고, 그 중에서 117차례 1,326대는 유엔공군의 대규모 편대를 반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49]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공군은 모두 399차례에 걸쳐 4,093대의 항공기를 출동시켰고, 모두 50대의 유엔공군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16대에 손상을 입혔다. 유엔공군은 모두 123차례의 편대공격을 진행했고, 그 중에서 97번은 중국공군에 의해서 청천강 이남에서 제지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공군은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일선의 주요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지상부대의 대상륙작전 준비를 엄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50]

그러나 중국공군의 지속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서의 공중전은 유엔공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953년 춘계기간에 유엔공군은 그들의 공격목표를 수송로 차단에서 압록강과 다른 지역의 수력발전 댐으로 확대시켰다. 극동공군의 위력은 320대가 넘는 4개의 F-86 비행단에 의해 더욱 증가되었다. 전투로 인한 손실과 전투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인해 중국공군의 힘은 심각하게 소진되었다. MiG-9 조종사들이 대체되어 참전하였지만 MiG-15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전투임무를 위한 비행을 할 수 없었다.[51]

1953년 1월 한반도에서 중국공군의 작전에 대한 류야러우의 보고를 접한 후에 마오쩌둥은 중국공군 지휘관들에게 참전부대의 전력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조종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제3비행사단이 안둥기지에서 철수하고 전투경험이 전무한 제6비행사단과 제16비행사단이 교체 투입되었다. 1953년 3월 31일 제12비행사단이 전선에서 빠져나오고 제17비행사단이 교체 투입되었다. 니펑지의 긴급전문을 통한 참전부대의 복귀요청이 있은 후에 제4비행사단이 참전하

였고 이로써 제4비행사단은 5번째 전투임무에 복귀하였다.

1953년 2월 17일 중국공군 제17사단은 3개 중대를 출동시켜 진남포와 대동강 하구 일대에서 작전을 펼쳤고 미 해군 소속 항공기 4대를 격추시켰다고 한다. 2월 26일에는 중국공군 제16사단이 처음으로 진행한 공중전에서 미 공군기 1대를 격추시키고 1대에 손상을 입히는 전과를 올렸다고 기술하고 있다.[52] 경험이 축적된 조종사들이 미 공군 및 해군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상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전과는 4월에도 이어졌는데, 중국공군은 20대의 미군기를 격추시키고 5대에 손상을 입히는 전과를 올렸다[53]고 기술하고 있다.

중공 제12전투비행사단 Lu Min은 1952년 12월 미 제트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귀환 환영을 받고 있다. [출처 :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p.193]

1953년 4월 7일 제51비행단의 2차례에 걸쳐 에이스 칭호를 받은 피셔(Harold E. Fischer Jr.) 대위가 소련 MiG기를 추적하여 중국으로 진입했다. 그는 착륙하는 중국 MiG기를 발견하고 손상을 입혔으나 다른 MiG기가 그의 후미에서 강력

한 기관포를 날려 왼쪽 날개와 꼬리날개를 관통하였고 화염에 휩싸였다. 170여회의 전투임무를 수행했던 피셔 대위는 운좋게도 비상탈출 하였으나 포로가 되었다. 그는 2년여를 중국 감옥에서 보냈으며 전쟁 중 포로가 된 유일한 에이스 조종사였다. 피셔 대위를 격추한 중국 조종사 한데차이(韓德彩)는 불과 20살이었고 MiG-15 비행시간이 채 100시간이 되지 않았었다. 후에 한데차이는 전투영웅 칭호를 받았다.[54]

1953년 4월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중공군 지휘관들은 곧 종전될 것으로 믿었고 그들은 휴전이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수의 중공군 병력이 전투경험을 얻게 되기를 희망했다. 중공군 지휘관들은 협상장에서의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고 전선지역으로 추가적인 병력을 보내 지상에서의 그들의 통제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하계공세를 계획했다. 중공군 사령부는 공군부대에게 평양 북부에 대한 적극적 방어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중국공군 최고의 전투부대인 제4비행사단을 포함한 6개 비행사단은 350대의 MiG기를 보유하고 안둥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제2제대로 북한 3개 비행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공군의 전투능력은 전투조종사의 무경험과 기량의 차이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55]

5월이 되면서 전투가 격렬해졌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미 공군은 5월 한 달 동안 22,639소티를 출격하였고 북한 종심지역과 중국 국경지역 표적에 대해 61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하였다. 소련과 중국 공군부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었다. 5월 한 달 동안 중국공군은 단지 1,164소티의 작전을 실시했을 뿐이다. 미국은 5월에 단 1대만의 F-86 손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8대의 F-86을 격추하고 3대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중국공군 당국은 한 달 동안 비정상적인 높은 손실에 당황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군부사령관인 왕빈창을 안둥으로 급히 파견했다. 수차례 회의와 인터뷰를 거쳐 손실이 높아진 원인 다섯 가지를 발견했다.[56] 우선 세 가지 원인은 유엔군의 F-86 전력의 증가와 미 공군이 대량폭격편대군을 이용한 것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은 전투 경험이 없는 부대를 운용한 것

과 사용가능한 비행장을 2개 이상 유지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왕빈창은 최종적으로 중국 조종사의 무경험과 협력, 전술, 정보, 사격술 등이 숙련되지 못한 기초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중국공군의 손실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57]

중국공군의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다.
[출처 : 중국해방군화보사,『그들이 본 한국전쟁』1권, 12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중국공군 기록에서 다소 이목을 끄는 것은 야간 작전이다. 유엔과 미 공군의 야간폭격 활동에 대응하여 중국공군은 안둥에 제2, 제4비행사단 소속의 전투경험이 풍부한 조종사와 La-11 8대와 MiG-15bis 8대로 구성된 야간전투부대를 주둔시켰다. 1953년 5월 29일 야간에 2대의 MiG기가 요격임무를 위해 출격하였다. 제4비행사단 제10연대 부연대장인 쟈오수쥔(侯書軍)이 유엔공군의 F-94 1대를 발견하고 안주 상공에서 격추하였다. 다음날 항공기 잔해가 수거되어 이것이 중국공군이 거둔 최초이자 유일한 야간전투 승리임이 판명되었다. 또한 이것은 중국공군이 야간작전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미국 자료에는 이날의 F-94 손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미 해병대의 야간

전투기인 F3D-2의 손실은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58]

1953년 6월 초 한반도의 장마기간 동안 습한 날씨는 항공작전을 방해했다. 여러 날 동안 한반도 북서부 상공에는 여러 층에 걸쳐 구름이 걸려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 조종사들은 그들의 고도상의 이점을 포기한 채 유엔공군 전폭기를 잡기 위해 저고도로 비행하였다. F-86이 5천 미터 이하 고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군은 6~7월간에 994소티의 전투비행을 실시하여 유엔항공기 25대를 격추하고 다른 5대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휴전협상 말기로 접근하자 7월 8일 중국공군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조종사들에게 투지를 이완시키지 말고 공중에서의 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7월 19일 중국공군은 압록강 남부에 위치한 신의주와 의주 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 진입하는 유엔 전투기들과 교전하기 위해 20대의 MiG-15기를 비상출격 시켰다. 중국 조종사들은 이 전투에서 F-86 1대를 격추하고 2대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전 이전까지 중국공군은 유엔공군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였지만 이날의 승리가 중국공군이 6·25전쟁에서 거둔 마지막 승리였다.[59]

한편, 6·25전쟁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공군을 포함하여 자국 군대의 순환근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했다. 그 목적은 전쟁을 통해 자국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었다. 특히 중국공군은 1951년 9월 대규모로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 계속해서 사단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작전을 진행했다. 1951년 11월부터 매번 작전을 진행하는 부대는 3~4개 사단이었고, 각 사단은 3개월 정도 작전을 진행하면서 단련되고, 전쟁 경험을 쌓은 후 다른 부대와 교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52년 5월 현재의 전쟁 진행상황을 판단해 볼 때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1952년 말까지 파병을 연장할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공군도 이미 참전한 요격 사단에게 한 차례 더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후 5월 이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60]

그 결과 1953년 1월에 제16사단이 작전에 참가했고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제4사단은 모두 네 차례나 작전에 참가했다. 제3·6·14·15사단은 두 차례 작전에

참가했고, 제12·16·17·18사단은 한 차례 참가했지만, 작전시간이 비교적 길었다. 그 중에서 제12사단은 12개월, 제16사단은 6개월, 제17사단은 16개월, 제18사단은 6개월 반이었다.

1953년 4월 공군 당위원회는 MiG-15기 운용에 숙달된 비행간부와 교관 84명을 실전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하고 3단계로 나누어 중공군 공군부대에 이들을 편입시켜 실전에 참가하게 해 실전경험을 쌓게 하고 교육의 질을 높였다. 제1단계로 11명이 실전 훈련을 완료하였다. 제2, 3단계는 휴전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그밖에 1951년 12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모두 1,727명의 공군 각급기관, 참전하지 않은 부대, 항공학교의 간부와 전시 근무요원들이 중국공군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중국공군은 총참모부, 해군 항공병부대, 방공부대의 각급 기관 간부 총 331명을 받아들여 안둥에서 비행과 관련한 실습을 진행하였다.[61]

중국 지도부가 중국공군에게 전장 경험을 주기 위한 순환 참전 결정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경험이 부족한 공군이 전투를 통해서 전투경험을 축적했고, 장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1953년에는 야간과 악천후에도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간헐적이긴 했지만 미 공군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2]

중국 지도자들은 전쟁에 참전하기 전 자국의 젊은 조종사들이 공중전을 소화하고 현대전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될 시점에 10개 전투비행사단(21개 비행연대)과 2개 폭격사단(3개 비행연대), 그리고 800여 명의 조종사와 59,700명의 지상지원 병력이 항공작전에 참여했고 값진 전투경험을 얻었다.[63]

1953년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중국 공군력은 27개 비행사단(70개 비행연대)으로 확대되었고 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공군은 26,491소티의 작전을 실시하였고, 366회 공중전에서 F-86 211대, F-84/F-80 전폭기 72대, 기타 항공기 47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들이 입은 손실은 MiG-15 224대 등 231대가 격추되었고 319대가 파손되었으며, 116명의 조종사가 전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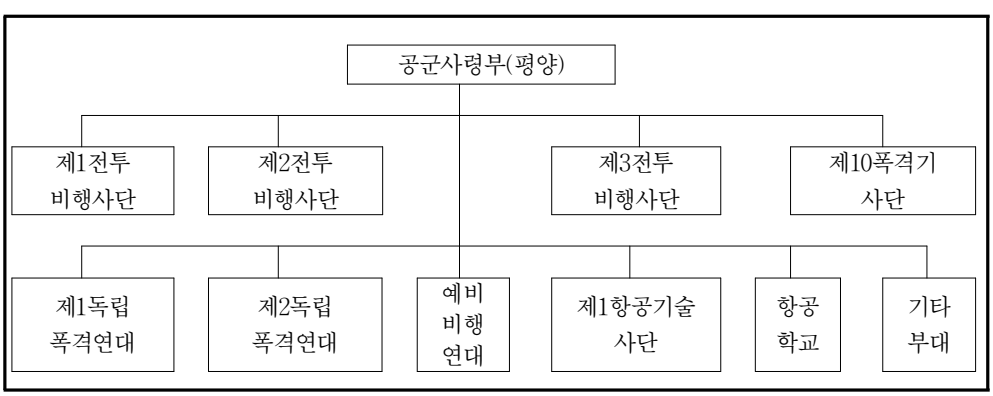
3. 북한공군

1) 부대 재편성 및 전력증강

휴전회담의 개시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간에는 대규모 전투 없이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전투의 소강상태는 전쟁의 양측 당사자에게 전력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북한에게는 자체 공군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토대로 이미 1952년 10월 이후부터 1953년 3월 말까지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과 전력 재편성을 시도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북한공군은 평양의 공군사령부 예하에 3개 전투비행사단, 1개 폭격기 사단, 2개의 독립폭격연대를 갖추게 되었다. <표 7-5>는 1953년 4월 기준 변화된 북한공군의 편성 및 지휘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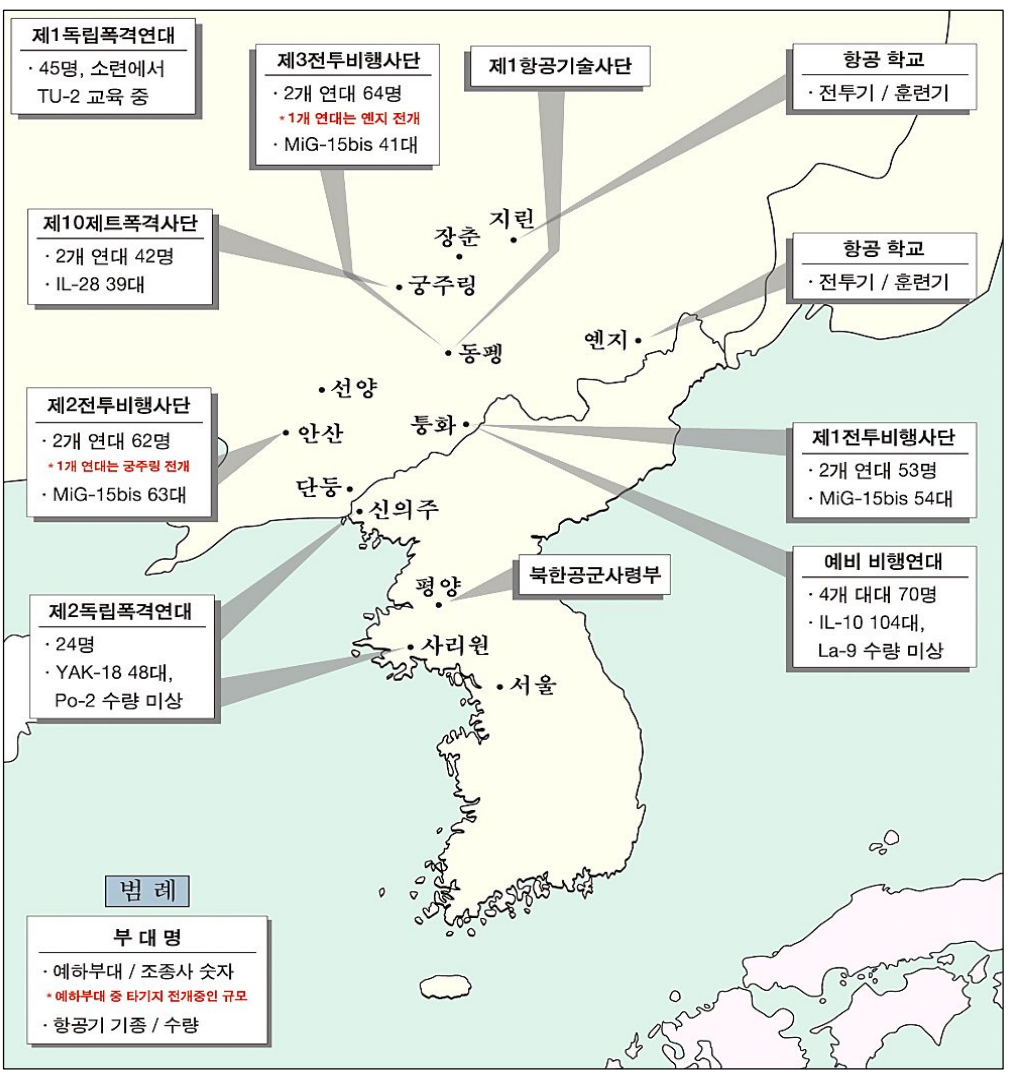
<표 7-5> 1953년 4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북한공군의 개편 및 전력증강은 1952년 10월까지 중국공군이 기존 구형 MiG-15에서 신형 MiG-15bis로 기종 전환이 대부분 완료된 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북한공군은 새로운 비행사단 창설과 함께 기존 전투비행사단의 기

종을 최신화 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65] <상황도 7-3>은 당시 북한공군의 각 기지별 위치 및 전력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상황도 7-3> 1953년 4월 기준 북한공군 기지별 전력현황



* 출처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1953.4.30)」,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29-630쪽 참조 작성

우선 기존에 MiG-15로 무장되었던 제1전투비행사단은 1952년 10월 이후 개량형인 MiG-15bis로 대체되었고, 제11혼성비행사단을 기존 제1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MiG-15로 기종 전환 후 제3전투비행사단으로 개편, 창설하였다. La-9을 주력기종으로 편성되었던 제2전투비행사단은 12월 이후 MiG-15bis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Tu-2가 주력 기종이었던 폭격기사단을 제10폭격기사단으로 개칭하고 최신예 제트폭격기인 IL-28로 기종을 변경하여 1952년 12월부터 작전을 위한 기종 전환훈련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기존 폭격기사단에 편성되었던 Tu-2를 주 전력으로 제1독립폭격연대를, 기존 제11혼성비행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Yak-18과 PO-2를 기반으로 제2독립폭격연대를 각각 전환·창설하였다. 그리고 부대 개편 과정에서 남은 IL-10, La-9 104대로 4개 비행대대를 보유한 예비비행연대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북한공군의 재편과정은 1953년 3월말에 완료되어, 북한공군은 MiG-15를 보유한 전투비행사단을 3개로 증강시킴과 더불어 제트폭격기인 IL-28을 보유한 제10폭격사단과 제1, 2독립폭격연대를 보유함으로써 폭격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예비전력으로서 구형전력인 IL-10, La-9으로 편성된 예비 비행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66]

그러나 1953년에도 북한공군은 북한지역에 전투기 작전이 가능한 비행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제트항공기의 작전이 가능한 비행장은 전년과 동일하게 만주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1전투비행사단은 퉁화(通化)에, 제2전투비행사단은 1개 연대와 사단참모부는 안산(鞍山), 1개 연대는 궁주링(公主岭, 장춘 남쪽 30km)에 위치하였다. 제2전투비행사단은 3개월 반 정도의 MiG-15bis 전환교육을 완료 후 1953년 3월 11일부터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전투비행사단은 1개 연대와 사단참모부는 동펑(東丰, 퉁화 북서쪽 100km 위치), 1개 연대는 옌지(延吉)에 위치해 있었다. 제10폭격사단은 궁주링(公主岭)에 위치하였다. 제10폭격사단은 4개월간 IL-28 전환교육 후 배치되었다. 제1독립폭격연대는 소련에서 조종사 45명이 Tu-2 운용을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5월경 교육이 완료되었다. 제2독립폭격연대는 신의주와 사리원에 위치하였다.[67] 땅이나 잔디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PO-2 경폭격기 기종을 운용하는 제2독립폭격연대만이 북한지역에 위치하였다.

2) 작전 활동

1953년도에 북한공군의 전력이 대규모로 증강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곧바로 작전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공군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공군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숙련된 조종사, 항공기(전투기), 비행장, 그리고 비행지원 인력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1953년 당시 북한은 항공기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조종사는 아직 숙련되지 못한, 그야말로 기본 비행자격을 획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계속해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공군의 조종사들이 유엔공군의 숙련된 F-86 조종사들과 공중에서 겨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 많은 MiG기 조종사들이 유엔공군에 의해 격추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숙련되지 못한 비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공군 조종사들은 F-86기와의 대결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북한공군은 부대 재·개편과 더불어 조종사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방법으로 프로펠러 비행기부터 제트기 조종사까지 모든 조종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소련 고문관들의 지원으로 훈련과 전투임무를 준비하고 실행하였는데 조종사 전투훈련은 계획 대비 70~90%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왔다. 조종사 훈련계획이 100% 완료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훈련에 필요한 항공연료(T-1)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약 1만 톤의 연료가 필요했으나 소련으로부터 4천 톤만을 제공 받았고, 3,500톤은 교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보유했기 때문이었다.[68] 결국 항공연료가 부족하여 훈련 및 전투에 일부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비행시설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행장이다. 비행장은 공군이 정상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핵심적인 시설물이다. 전쟁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은 북한지역내에 다수의 비행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고 유엔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하면서, 북한지역내 비행장은 모두 작전불능상태에 빠지고 말

았다. 1953년 9월 탈북 귀순한 MiG-15 조종사 노금석에 따르면, 북한공군은 1951년 11월 7일, 의주비행장에 북한공군 1사단 2항공연대 소속 MiG-15를 전개, 배치하였는데, 당시 북한지역에서 의주는 유일하게 전투기 작전이 가능한 비행장이었다.[69] 그러나 북한공군은 유엔공군의 공격으로 1951년 12월 15일 의주기지를 포기하였다.[70] 이후 북한과 공산공군은 신의주와 사리원, 그리고 일부 평양지역의 비행장외에는 북한 지역의 비행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북한의 소위 '전승기념관'에 전시 중인 MiG-15기 모습(2013.8.7. 조선중앙TV화면). 사진의 MiG-15 009호기는 1952년 6월 22일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와서 보았다고 선전하는 전투기임.

그러나 이들 비행장은 전투기가 작전을 하는데 필요한 포장된 활주로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땅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경량항공기의 작전기지로만 이용되었다. 이 때문에 공산공군은 전투기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 중국영토에 위치한 비행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작전 제한요소로 인해 북한공군의 작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비행장이 중국에 위치한 관계로 북한공군은 이륙 후 기지 복귀까지를 고려하여 작전에 임해야 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작전반경을 단축함으로써 작전 제한요소로 작용하였다.[71]

따라서 북한과 공산공군은 북한지역에 비행장 복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1951년에만도 MiG-15형 항공기가 주둔할 수 있는 10개의 비행장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주·야로 계속되는 유엔공군의 폭격 때문에 건설작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52~1953년에는 새로운 비행장 건설은 추진하지 않고 기존 비행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준비사업이 수행되었다. 건설 또는 복구 중인 비행장에는 통상 1개 고사포연대가 배치되어 대공방어를 수행했다.[72]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유엔공군의 항공정찰과 이어진 공습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73]

북한지역에서 비행장 건설, 복구 노력이 실패한 이후 1952~1953년에는 북한지역 대신 중국 만주지역에서 비행장을 확충하기 위한 탐사와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다.[74]

북한지역에 대한 비행장 복구 및 건설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공군 작전능력의 제한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도까지만 해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평양을 비롯해 서부지역으로는 남부-황주 계선까지, 동부지역으로는 함흥, 원산지역까지 작전 반경의 확장을 시도하였지만[75], 1953년도 들어서는 이 같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전투조종사의 조종능력이 숙달되지 못했고, 비행장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공군의 작전능력은 외형적 전력증강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953년도에 전개된 북한공군의 주요 작전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소련, 중국공군과 함께 미그회랑 지역에서 연합으로 유엔공군에 대항하는 작전과, 둘째는 경폭격기인 PO-2를 이용하여 유엔군의 비행장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첫째, 북한공군은 미그회랑 지역에서 소련 및 중국공군과 연합으로 비행하며, 유엔공군에 대항하는 수준의 작전을 유지했다. 북한과 중국공군의 조종 및 작전능력은 미숙했기 때문에 공산공군의 협동작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수준에서 북한공군 MiG-15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유엔공군에 대항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및 중국공군이 소련공군의 엄호하에 유엔공군과의 공중전에 참여하면서부터 전투 경험이 축적되어 갔다. 그리고 이후 전투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연합공군 소속 비행사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

1953년에 들어서 유엔공군에 의한 공산공군의 피해가 점점 커지자 북한 내부에서는 오히려 전과(戰果)를 과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노금석에 따르면 이런 전과 과장에서는 공군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전과 과장사례로 자신의 연대장인 태극성 대좌는 한 번의 교전에서 2대의 F-86 세이버 전투기를 격추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고, 개전 이래 그의 격추기록도 5대로 과장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과로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축하를 받았고, 영웅훈장을 수상하였다.[76]

둘째, 이 시기 북한공군의 활동 중 유엔군 측에 위협적이었던 것은 PO-2를 비롯한 경량항공기를 이용한 야간 공격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공격은 제공권이 유엔공군에게 장악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물론 PO-2를 이용한 작전이 1953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전은 전쟁 초기에도 북한이 사용했던 방식이었다. 1950년 11월, 북한공군은 소련공군이 독·소전쟁 시 사용했던 전술 중 일부를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야간 폭격시에 PO-2 항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1년간 중단되었던 북한공군의 경량항공기를 이용한 야간 공습은 1952년 10월 초도와 서울지역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1952년 10월 13일 이른 새벽 북한공군의 PO-2 경폭격기 4대가 초도의 레이더 기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으로 유엔군 측 병력 2명이 부상을 당하고 5명이 사망했다.[77]

한편 북한공군의 이러한 기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 제5공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PO-2를 비롯한 북한의 경량항공기들이 합판과 가죽천으로 만들어진데다 저공으로 비행하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신 야간전투기도 쓸모가 없었으며,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PO-2 항공기는 우수한 기동성과 저공비행능력을 이용하여 야간 전투기를 따돌리고, 자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78] 날개와 동체를 천으로 덮은 이 복엽기는 미 공군의 요격기로 공격하기에는 너무 작고 속도가 느렸다. 이들 경량항공기들은 1952년 11월 26일, 12월 5일, 12월 10일 밤에 반복하여 초도를 공격했다.[79] 12월 30일 밤 서울과 수원 상공에 나타났던 적 경량항공기들은 이후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80]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공군 경량항공기들이 1953년 4월 15일 밤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4월 15일 자정이 되기 2시간 전 여러 대의 경량항공기들이 초도를 공격하여 2명의 미군 대공포병을 살상하고 대공화기를 파괴했다. 이에 대응하여 4대의 미 공군 F-94 야간 요격기가 출동했으나 공산군 항공기들이 너무 저고도로 비행하여 F-94 요격기의 탑재레이더는 지상반사파로 인해 적기를 포착할 수 없었다. 공산군은 그 후 2주간 매일 밤 PO-2, LA-11, YAK-18 등의 재래식 항공기를 동원하여 공격목표를 바꾸어가면서 춘천, 김포 및 전선의 미군부대를 공격했다.[81]

<표 7-6> PO-2 경폭격기 사진과 제원

사 진	구 분		내 용
	제원	기폭(m)	11.4
		기장(m)	8.2
		기고(m)	3.1
		중량(kg)	991
	성능	최대속도(km/h)	129
		최대상승고도(m)	5,730
		항속거리(km)	496
		무장	100lbs 폭탄
		엔진(마력)	Polikarpov

*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2011, 699쪽.

4월 23일 밤 적의 경량항공기 공격으로 김포비행장에 주기된 RF-80 정찰기 5대가 가벼운 손상을 입었으며 전선에서 여러 명의 민간인이 살상되었다. 저공저속으로 비행하는 이 항공기들은 당시 요격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었다. 5월 3일 이른 새벽 F-94 요격기 1대가 속도를 110노트로 줄이고 PO-2 경폭격기를 요격 격추하였으나 F-94 요격기는 적기를 격추한 직후 추락했다. 5월 6일 밤에는 초도의 대공화기 부대가 적 저속항공기 1대를 격추했다.[82]

공산군의 야간침투 경량항공기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대책수립에 부심했던 미 제5공군은 대공전력 강화를 위한 화력보강과 대응절차를 마련했지만, 야간침투 경량항공기에 대한 방어는 성공하지 못했다.[83]

이후에도 계속해서 5월 26일과 27일 밤에 5~8대의 적 PO-2 경폭격기가 서울지역에 침투하여 소형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사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인천과 영등포를 연결하는 송유관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때 유엔공군의 각종 요격기들이 김포기지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긴급 출동했으나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조명탄을 투하하는 수송기와 기관총을 장착한 T-6 훈련기가 함께 요격을 시도했으나, T-6 훈련기 조종사는 조명탄 불빛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또 김포비행장에 배치된 대공화기들도 최대한의 사격을 했으나 적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84]

1953년 6월 초 공산군 경량항공기들은 거의 매일 밤 김포와 서울 그리고 초도를 공격했으며, 미 제5공군의 방어수단은 계속 취약점만 드러냈다. 6월 8일 밤에도 적 경량항공기들은 서울을 공격했으며, F-94 요격기가 요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6월 15일 밤에는 9대의 공산군 경량항공기가 이승만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폭탄을 투하했다. 이날 밤 미 해병항공대 AD(Air Defense)전투기가 김포 북쪽에서 적기 1대를 격추했다.[85]

6월 16일과 17일 밤에도 PO-2, LA-11, YAK-18 등 프로펠러 항공기가 침투하여 유엔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이들의 공격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불이 났으며 인천에 있는 5만 배럴짜리 연료탱크가 파괴되었다.[86]

미 제5공군은 공산군의 경량항공기가 이용 가능한 북한지역 비행장을 찾기 위

해 6월 말 촬영한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여러 대의 항공기가 평양비행장에 위장 분산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미 제5공군은 미 해군 제77기동함대가 보유하고 있는 F4U-5N 구형 콜세어(Corsair) 전투기를 김포비행장에 비상대기 시켰다. 미 해군 콜세어기는 적의 야간침투 경량항공기 요격에 아주 적합한 항공기로서 탑재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적의 저공 저속침투 항공기를 요격하기에 적합한 저속비행을 할 수 있었다.[87]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B-29 폭격기들은 7월 3일과 4일 밤 평양비행장을 500파운드 폭탄으로 공격했다. 또 7월 16일 제8전폭비행단 F-86전투기들이 적의 경량항공기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과 평양비행장을 저고도로 다시 공격했다. 그 후 야간 침투 경량항공기는 더 이상 남한 상공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 해군의 F4U 콜세어(Corsair) 전투기

미 해군의 콜세어 전투기 조종사 브데론 중위는 7월 16일 밤 야간 초계비행을 실시하던 중 평양근처에서 YAK기로 추정되는 경량항공기 1대를 격추하여 6·25 전쟁에서 해군의 유일한 에이스가 되었다. 이와 같이 1952년 7월 초부터 실시된 공산군 야간침투 경량항공기의 근원지에 대한 유엔군 측의 공중공격과 미 해군의

재래식 전투기에 의한 공중요격 결과로 공산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한의 유엔군 시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다.[88]

한편, 전쟁기간 동안 북한공군이 어느 정도 비행을 했으며, 또 실제 전투에서 몇 대의 전투기를 격추했고, 격추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알려진 자료를 통해 북한공군의 작전능력을 평가해 볼 수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소련과 중국공군이 각각 월 2,500소티와 1,500소티의 비행을 실시하고 있을 때 북한공군은 최고 12소티 정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공군의 비행활동을 추산하면 전쟁기간 중 약 370여 소티 정도를 실시하였다는 결과가 나온다.[89] 실제로 귀순 MiG-15 조종사 노금석은 심문과정에서 자신이 1년간 소속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연대에서 손실된 MiG기는 9대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9대도 공중전에서 손실된 것은 3대였으며 나머지는 비행 중 사고와 지상 계류 중 유엔 공군의 폭격에 의해 입은 손실이었다고 증언하였다.[90] 물론 이 자료들이 전쟁당시 북한공군 상황을 전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전쟁시기 북한공군이 자유로운 전투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유엔공군 및 한국공군 작전

1. 유엔공군 작전

1) 전력증강 및 부대 재배치

1950년 11월 소련공군의 참전으로 6·25전쟁은 미국과 소련공군의 대결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제트엔진을 장착한 소련공군의 MiG-15는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놓고 미 공군의 F-51(Mustang)을 위협하였다. MiG-15에 대항하기 위해 미 공군은 F-86 세이버(Sabre) 전투기를 한국으로 전개시켰고, 1950년 12월 15일 첫 임무를 수행했다. F-86 조종사들은 뛰어난 전투능력으로 MiG-15에 대항했지만, 항상 수적 열세에 시달리고 있었다.[91]

이에 따라 미 공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미 공군 본부는 1952년 7월 이후 1년에 걸쳐 F-86의 추가 도입과 한국내 비행장 보수 및 신설, 신규 조종사 충원, 후방지원체제 보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노력은 1953년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다.[92]

먼저, F-86 항공기의 지속적인 도입 및 구형 항공기와의 기종 전환이었다. 유엔공군은 1952년 12월 현재 총 1,20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F-86은 2개 비행단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공군은 당시 운용 중이던 F-51, F-84 등을 F-86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미 공군은 추가로 도입된 F-86을 제18전투비행단과 제8전투폭격비행단에 배치하고, 이들 비행단에 배치되어 있던 F-51 등 기존 구형전투기는 신형 F-86F 대지공격 항공기로 기종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F-86F 대지공격항공기는 폭탄장착장치와 기관총·폭탄·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는 조준기, 그리고 200갤런이 들어가는 보조연료탱

크를 장착한 것 외에는 요격기로 사용하던 F-86형 전투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93]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미 공군은 먼저 제18전투비행단의 구형 항공기들을 1952년 11월부터 1953년 1월 사이에 매월 1개 대대씩을 F-86으로 기종 전환하고 제18비행단이 기종 전환을 완료하면 수원기지에 주둔해 있던 제8전투비행단의 모든 항공기를 F-86 전투기로 기종 전환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미 공군본부의 F-86 전투기 추가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제18전투비행단의 기종 전환계획이 지연되어 결국은 제18전투비행단과 제8전투비행단이 동시에 기종 전환을 하게 되었다.[94]

미 North American Aviation Inc.에서 조립중인 F-86 SABRE 조립 라인 사진(1952년)

제18전투비행단의 기종 전환은 F-86F 전투기 도착이 지연되어 연기되었으나, 1952년 12월 26일에 제18전투비행단이 횡성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한 후에 1차로 제12비행대대와 제2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비행대대를 기종 전환시켰다. 그러나 제67비행대대는 1953년 1월 23일까지 F-51전투기로 비행을 해야만 했다.[95]

한편 수원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제8전투비행단은 주둔기지 변동 없이 구형 F-80C전투기를 신형 F-86F 전투기로 전환했다. 제8전투비행단의 제36비행대대는 1953년 2월 22일부터 F-80의 전투임무를 중지하고, F-86 전투기로 기종 전환을 시작했으며, 제35비행대대는 3월 14일부터 기종 전환을 시작했다. F-80전투기는 1953년 4월 30일까지 전투임무를 수행했다. 제80비행대대 역시 5월 1일부터 기종 전환훈련을 시작하여 2주 만에 F-86전투기로 작전준비태세를 유지했다. 제8전투비행단은 6월 4일 신형 F-86전투기로 기종 전환을 완료했다.[96] 이로써 유엔공군은 1953년 4개 비행단의 기종 전환을 마친 후 약 320대의 F-86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음은, F-86 전투기 도입과 함께 추진된 한국내 비행장 보수 및 신설이다. 한국 주둔 이후 2년 동안 미 제5공군은 비행장의 불비한 여건 및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항공시설인력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활주로를 비롯한 비행장의 각종 비행시설은 유엔공군이 공산공군의 제트전투기인 MiG-15와 대적하기 위해 F-86 같은 최신 항공기의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선결조건이었다. 따라서 유엔공군은 F-86 항공기 도입에 앞서 새로운 비행장 건설 및 기존 비행장의 보수 및 개선을 진행하였다.

비행장 건설을 위해 1952년 5월과 6월 항공시설부대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제417시설단과 제934시설전대, 제366, 840, 841시설대대가 이들이다.[97] 제417시설단은 대구에 지휘소를 두고 전투지대에서 항공시설 건설 임무를 감독하고 예하 시설부대를 관리하게 되었다. 또 부대별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제930시설전대는 남부 지역비행장의 유지보수와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제931시설전대는 서울-수원 간 및 중부지역에서의 비행장 건설과 유지임무를, 제934시설전대는 오산지역의 송탄비행장(K-55) 건설을 맡게 되었다.[98]

미 제417항공건설여단은 미 제5공군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새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10개의 건설대대를 투입했다. 항공건설부대는 대구기지에 활주로를 건설한 후 수원에 9,000피트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그리고 김포비행장 활주로를 확장하여 재포장했으며, 1953년 초까지 군산비행장을 완공

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또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C-124 대형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보강했으며, 부산의 2개 비행장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그 후 항공건설부대는 평택에 해병항공대 제12전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활주로를 건설했다. 아울러 미 제417항공건설여단 예하 3개 항공건설대대가 오산에 새로운 F-86 전투기 비행단이 주둔할 수 있도록 9,000피트 길이의 콘크리트 활주로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1952년 12월 새로운 비행장(K-55) 건설을 계획대로 완료했다.[99] 이러한 항공시설부대의 증원으로 인해 제5공군은 작전에 필요한 비행장과 항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100]

미 공군은 F-86 도입에 따른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기종 전환 교육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미 공군은 별도의 이동교육대를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했다. 이동교육대원들은 기종 전환부대를 방문하여 F-86F 전투기 운용절차에 대해 하루에 8시간씩 7일간 조종사와 정비사를 교육했다. 또한 1953년 1월 18일 3대의 F-86전투기가 처음으로 오산비행장에 도착하자 2월 3일부터 제18전투비행단 조종사를 대상으로 기종 전환훈련을 시작하여 교육을 받은 조종사들이 2월 25일을 기해 F-86 전투기로 최초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본토로부터 많은 교체조종사들이 도착하고 다수의 F-86 전투기가 보충됨에 따라 제12비행대대는 1953년 3월 31일에 F-86 비행대대가 되었으며, 제67비행대대도 4월 7일 이후 F-86 비행대대가 되었다.[101]

미 공군은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후방정비체계 구비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지속적인 '항공압박작전' 수행을 위해 항공기 가동률을 75% 이상 유지해야 했던 미 제5공군 예하 비행단들은 항공기 정비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정비기구를 조정했다. 이것은 F-86 도입 이후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 있는 후방정비부대에 운영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1952년 11월 제51비행단이 스이끼(水氣) 기지에 F-86 전투기 후방정비부대를 창설하자 이곳에 모든 F-86 전투기의 후방정비기능을 통합했으며, 1953년 2월 4개 F-86 전투비행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했다.[1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제5공군은 1953년 봄 구형 F-51전투기를 신형

F-86전투기로 기종 전환하여 F-86전투기 전력을 4개 비행단(제4·51전투요격비행단, 8·18전투비행단)으로 증강시켰다.[103] 그리고 F-86전투기로 기종 전환한 미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은 2월 25일부터 요격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제8전투비행단 역시 4월 7일 압록강 상공 초계비행에 합류했다. 이들 두 비행단은 기존에는 주로 F-51전투기와 F-80전투기로 전투폭격임무를 수행했으나, 새로 보유한 F-86전투기는 대지공격임무와 요격임무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성능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 두 비행단이 F-86전투기로 기종 전환함에 따라 미 제5공군의 제공작전 능력은 획기적으로 증강되었다. 그 결과 유엔공군은 증강된 전력을 토대로 공산공군에 대해 확고한 제공권을 유지하면서, 휴전협상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2)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1953년 1월부터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7월까지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143,450소티였다. 이는 월평균 약 20,493소티를 실시한 것으로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중공군 총공세시기인 1951년 전반기(1월~6월)의 월평균 21,727소티와 비교해서는 약 2,465소티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1952년 월평균 19,262소티를 실시한 것과 비교할 때 1,231소티(약 6.3%) 증가한 것이었다.

<표 7-7> 1953년도 유엔공군의 총 비행활동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비행활동 (소티)	18,890	16,583	18,041	23,094	23,264	23,908	19,670	143,450

* 출처 : 미 공군역사연구소(AFHRA) (http://www.afhra.af.mil)[104]

월별 비행활동 추이를 보면 1~3월보다 4월 이후 비행활동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휴전협상이 재개된 4월 이후 지상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고지쟁탈전 및 6~7월

에 이루어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 등으로 근접항공지원과 후방차단작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1953년 전체 비행 중 주간비행은 111,888소티 였고, 야간 비행은 31,562소티로 야간 비행의 비중이 약 22%를 차지했다. 야간비행 활동 수준은 월평균 4,508소티로 1952년 전반기 월평균 3,995소티, 1952년 후반기 4,020소티와 비교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1953년에 이루어진 총 비행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8> 1953년도 주·야간 비행활동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주 간	14,089	12,166	13,597	18,273	18,336	19,453	15,974	111,888
야 간	4,801	4,417	4,444	4,821	4,928	4,455	3,696	31,562

항공기 형태별로는 제트전투기 72,883소티, 프롭(prop)전투기[105] 416소티, 폭격기(B-29/26) 17,048소티, 수송기 32,228소티, 정찰기 8,674소티, 헬기 등 기타 항공기 12,201소티의 비행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분석하면 제트전투기(51%), 수송기(22%), 폭격기(12%), 정찰기(6%) 순으로 활동비중이 높았다.

이 시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프롭전투기의 활동이 급감한 것이었다. 프롭전투기는 1953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416소티를 비행하였는데, 이것은 1952년 후반기(7~12월)의 5,705소티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F-51을 운용하던 제18전투폭격비행단이 F-86으로 기종 전환을 하면서 프롭전투기가 폐기 대상기종인 점을 감안하여 손실이 발생해도 보충을 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결과였다.

<표 7-9> 1953년도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항공기형태별	중폭격기	443	359	466	453	513	501	437	3,172
	경폭격기	1,817	1,807	1,688	1,924	2,036	2,325	2,279	13,876
	제트전투기	8,908	7,881	8,291	11,959	12,027	13,063	10,754	72,883
	프롭전투기	416	0	0	0	0	0	0	416
	정찰기	1,236	1,074	1,068	1,389	1,602	1,293	1,012	8,674
	수송기	4,507	4,006	4,830	4,922	5,093	4,901	3,969	32,228
	기타	1,563	1,456	1,698	2,447	1,993	1,825	1,219	12,201

1953년도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을 작전 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31,893소티(22.2%), 공수작전 31,101소티(21.6%), 제공(요격) 27,289소티(19%), 근접항공지원작전 23,392소티(16%), 정찰 10,735소티(7.5%) 순이었다.

<표 7-10> 1953년도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근접지원		1,218	1,545	1,187	2,617	3,887	7,078	5,860	23,392
무장정찰/후방차단		5,714	4,858	4,264	5,310	4,706	3,450	3,591	31,893
제공	공세	2,901	2,000	2,911	3,927	3,645	3,467	2,454	21,305
	방어	678	936	830	1,028	1,186	743	583	5,984
정 찰		1,593	1,235	1,660	2,022	1,654	1,465	1,106	10,735
구 조		498	446	662	793	762	568	279	4,008
공 수		4,292	3,754	4,524	4,625	4,765	4,521	3,620	30,101
전술 통제		1,103	1,000	1,009	1,498	1,208	1,145	876	7,839
기 타		893	809	994	1,274	1,451	1,471	1,301	8,193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은 1952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수작전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접항공지원은 전체 비행운영 중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지만 1952년도의 7.8%와 비교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지상군 전투가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고지쟁탈전 형태로 전개되면서 공군의 역할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극동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총 224대로 이 중 작전 중 손실은 187대이며 비작전 중 손실은 37대였다. 작전 중 손실 중에서 공산군에 의한 손실은 89대였다. 이 중 공대공 전투에서는 14대를 잃은 반면 대공포에 의한 손실이 64대로 적 활동에 의한 손실 중 72%를 차지하여 유엔공군 조종사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지상에 배치된 공산군의 대공화기였다.

<표 7-11> 1953년도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작전손실	적활동	공대공	3	2	2	4	1	0	2	14
		대공포	10	5	7	6	8	18	10	64
		원인불명	3	4	1	2	0	0	1	11
	비(non) 적활동		11	4	6	7	13	14	15	70
	불명/실종		3	1	3	5	5	6	5	28
	소 계		30	16	19	24	27	38	33	187
비작전손실	비행사고		4	8	8	3	2	6	3	34
	기 타		0	1	0	0	0	0	2	3
총 계			34	25	27	27	29	44	38	224

* 출처 : A. Timothy Warnock Editor, *The U.S. Air Force's First War: Korea 1950~1953 Significant Event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2000, Appendix I Statistical Summary of USAF Operational by Month July 1952~July 1953, pp.74-76; 미 공군역사연구소(AFHRA) (http://www.afhra.af.mil).

195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진 유엔공군의 주요 작전 양상을 제공작전(Counter Air),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Air Interdiction)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CAS), 공수작전(Combat Cargo)으로 구분하여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106]

(1) 제공작전

제공작전은 총 27,289소티를 실시하여 월평균 3,898소티를 실시하였다. 이는 1952년도 월평균 3,345소티와 비교할 때 약간 증가한 수준이었다. 1953년도 공대공 전투에서 유엔군은 14대가 손실되고, 공산군은 293대가 손실되었다. 특히 이 중에는 288대의 MiG-15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7-12> 1953년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간 피·아 항공기 손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비행 (소티)	공세	2,901	2,000	2,911	3,927	3,645	3,467	2,454	21,305
	방어	678	936	830	1,028	1,186	743	583	5,984
항공기 손실	유엔군	3	2	2	4	1	0	2	14
	공산군	39(37)	25(25)	34(34)	27(27)	58(56)	78(78)	32(31)	293(288)

* 출처 :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74-76.
* 공산군 항공기 손실 중 ( )안 숫자는 MiG-15 파괴 대수임. 여기에 기록된 적기 손실은 유엔공군된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월별 공대공 전투와 관련한 주요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1953년 1월 22일 제18전폭비행단은 잔여 F-51를 전투임무에서 퇴역시키고 F-86으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이는 미 공군이 6·25전쟁의 공세전투에서 프롭 추진 단일엔진 항공기 사용을 종료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07] 제319전투비행대대 F-94기가 30일 늦게 La-9 1대를 레이더로 추적하여 격추하였다. 이는 F-94가 6·25전쟁에서 거둔 최초의

요격 사례이다.[108] 1월 30일 제4전투비행단 F-86 조종사가 소련이 제작한 쌍발 엔진 폭격기인 Tu-2 폭격기를 평양 북서부 서해 상공에서 격추하였는데 이는 1951년 11월 30일 이후 같은 기종을 격추한 2번째 사례가 되었다.[109]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미 제4전투요격비행단 소속 F-86

2월에 MiG기는 청천강 이남에 자주 출현하다가 이들을 요격하기 위해 유엔 전투기가 출격하면 즉시 철수하곤 하였다. MiG기들은 이를 통해 유엔공군의 레이더 방어체계를 탐지하고 F-86의 비상출격 시간을 확인하였다.[110] 2월 한 달 동안의 공중전에서 유엔공군은 F-86 2대가 손실 당하는 대가를 치루고 F-86은 25대의 MiG-15를 격추하였다.[111]

3월까지 미 제5공군은 신형 F-86F로 무장된 4개 전투비행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신형 F-86F는 엔진추진력이 높고 견고한 날개 선도각을 갖고 있어서 MiG-15와의 공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에 따라 미 제5공군은 F-86F의 성능과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의 자신감을 토대로 공세적인 공중전을 수행하여 적 전투기를 격추시킴으로써 MiG-15에 대해 심각한 손실을 입혀 궁극적으로 공산군이 전쟁을 중단토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3월 한 달 동안 유엔공군 조

종사들은 2월보다 약 29% 증가한 2,032대의 공산공군의 항공기를 공중에서 목격하였다. 3월 하순 MiG-15 조종사들은 공세적으로 공중전을 시도하였으나 유엔공군 조종사들에 비해 비행기술이 숙련 되지 못했던 관계로 대규모 손실을 당했다.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3월 중 2대의 손실을 입은 반면 34대의 MiG-15를 격추하였으며, 1953년 1월 이후 공개된 상호 격추비율에서 1 : 16.6의 대단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112]

1953년 4월 중 MiG-15의 활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엔공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MiG-15의 비행은 1,622회였다. 한편 공산군은 유엔공군이 대공초계 시 용이하게 관측할 수 있는 압록강 근처의 중국 비행장 2개소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400~500대의 전투기를 배치하였다. 극동공군 정보장교들은 이를 의도적인 방어능력 과시로 평가했다. 그리고 극동공군은 공산군의 최신예 제트전투기를 획득하기 위한 물라작전(Operation Moolah)을 시작하였다.[113] 이에 따라 4월 26일과 27일 B-29기 1대가 물라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단을 북한지역에 공중살포 하였다.[114]

5월 중 1952년 9월 이후 가장 강력한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1,507대의 MiG기를 목격하여 이중 537대와 교전하였다. 그 결과 55대를 격추하고 24대에 손상을 입혔다. 공산공군 조종사들은 이전에 비해 기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고, 교전 중 유엔공군 전투기에 의해 사격을 받기도 전에 비상탈출을 감행하는 사례도 때때로 목격되었다. 또한 부적절한 기동으로 공산군 측 항공기를 파괴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였다.[115]

6월 중 미 공군 전투기들은 미그회랑에서 승리를 계속하여 이어나갔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MiG기들이 F-86이 가장 선호하는 전투 환경인 40,000피트 아래에서 전투를 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미 공군 조종사들은 이전의 기록들을 모두 경신하였는데, 1,268대의 MiG기를 목격하여 501회 공중전을 벌인 결과 공중전에서는 1대의 손실도 없이 77대의 적기를 격추하였다.[116]

7월 중에 F-86은 MiG기와 200회 전투를 벌여 32대를 격파하였다. 대부분의 공중전이 벌어진 고도는 20,000피트로 이는 F-86이 가장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고도였다. 7월 11일 미 해병대 존 볼트(John Bolt) 소령이 미 공군 제51전투요격비행단 제39전투비행대대와 함께 비행하여 MiG-15 1대를 격추하여 해병대 조종사로는 전쟁 중 유일한 에이스가 되었다.[117]

7월 22일 6·25전쟁 기간 중 제51전투요격비행단 소속 F-86 3대와 4대의 공산공군 제트기간의 교전을 끝으로 미 공군 F-86과 공산군 MiG와의 공중전이 종료되었다. 이 전투에서 제25전투비행대대 샘 영(Sam P. Young) 중위가 마지막으로 MiG기를 격추하였다. 7월 27일 랠프 파(Ralph S. Parr, Jr.) 대위는 IL-12 수송기를 격추함으로써 더블에이스가 되었다.[118]

<표 7-13> 1953년도 제트격추영웅(Ace) 명단

계 급 / 성 명	5번째 격추일	최종격추대수
대위/Dolphin D. Overton, Ⅲ	1953년 1월 24일	5
대위/Harold E. Fischer	1953년 1월 24일	10
대위/Joseph M. McConnell, Jr.	1953년 2월 16일	16
대위/Manuel J. Fernandez, Jr.	1953년 2월 18일	14.5
중령/James P. Hagerstrom	1953년 3월 27일	8.5
대령/James K. Johnson	1953년 3월 28일	10
대령/George L. Jones	1953년 3월 29일	6.5
대령/George I. Ruddell	1953년 5월 18일	8
중령/Vermont Garrison	1953년 6월 5일	10
소령/Lonnie R. Moore	1953년 6월 18일	10
대위/Ralph S. Parr, Jr.	1953년 6월 18일	10
대령/Robert P. Baldwin	1953년 6월 22일	5
중령/Henry Buttlemann	1953년 6월 30일	7
중령/John F. Bolt(USMC)	1953년 7월 11일	6
대위/Clyde A. Curtin	1953년 7월 19일	5
소령/Stephen L. Bettinger	1953년 7월 20일	5

* 출처 :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85-87;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2002, 664-665쪽 참조 작성.

⑵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1953년도에 유엔공군이 실시한 항공차단작전은 총 31,893소티로 월평균 4,556소티에 달했다. 이는 1952년 월평균 5,922소티보다 1,300소티 이상이나 감소한 수준이었는데, 그 이유는 지상군 지원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이 195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52년에 유엔공군이 전개한 무장 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엔공군은 3월부터 주요 4개 철도선에 대해 주야간 집중 폭격을 가한 집중포격작전(Operation Saturate)을 실시하였고, 지체된 휴전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제안을 수락하도록 압박투하하고 휴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일환으로 1952년 6월과 7월 수풍, 장진, 부전, 허천 수력발전소 및 평양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제12전술정찰대대와 제3, 제452폭격비행단이 스포트라이트작전(Operation Spotlight)을 시행했다.[119] 1953년도에 실시된 유엔공군의 이와 같은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은 전년도와 비교 시 많지 않은 규모였다. 그러나 1953년도에도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은 유엔공군이 수행한 작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7-14> 1953년도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항공차단/ 무장정찰(소티)	5,714	4,858	4,264	5,310	4,706	3,450	3,591	31,893

1953년 각 월 중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공군은 1월 두 번째 주 6일 동안 신안주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중공격을 전개하였다. 이 공격에서 전폭기 1,116소티 중 453소티는 교량표적에, 713소티는 대공포 제압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B-26 폭격기는 주간에는 적의 보급시설과 병력 숙영

시설을 공격하였고 야간에는 철도 및 도로 상의 교량, 특히 해주-사리원 지역과 원산 이북 지역의 병참선에 중점을 두고 공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양과 원산 간 도로상의 이동차량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B-26은 스포트라이트 작전 기간 동안 33대의 기관차를 파괴하였다.[120] 조명탄을 투하하기 위해 C-47과 C-46 수송기들이 제6167항공기지전대에 배속되어 B-26 폭격 시 표적을 탐지하고 표적에 대한 조명 임무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제5공군은 증가된 차량행렬에 대한 폭격 시 강점을 갖게 되었고 1월 동안 2,582대의 차량을 파괴하였다고 주장하였다.[121]

1월 4일 제5공군은 희천 보급센터에 대해 124대의 전폭기를 동원하여 공격하였다.[122] 1월 4일과 5일에는 제307폭격비행단 소속 12대의 B-29가 희천지역의 보급시설과 철도 교량에 대해 폭격하였다. 1월 9일과 10일 B-29 17대가 신안주 통신복합시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고, 용미동 지역의 철도교량, 신안주 인근의 대공포 진지, 용미동과 매중동의 보급품 집적소에 대해 폭격을 실시하였다. 1월 10일 B-29의 야간 공격에 이어 전폭기들이 교량, 철도, 대공포 진지에 대해 주간에 158소티의 공격을 실시하였다. 1월 10일과 11일 제307폭격비행단 B-29가 선천과 안주지역의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였다. 이때 적 탐조등이 B-29 1대의 비행운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적 요격기가 이를 격추하였다. 1월 11일 전투피해평가 결과 용미동지역의 모든 철도가 사용불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1월 12일에서 15일까지는 기상악화로 인해 작전은 하지 않고 12일 하루를 보낸 후 전폭기들이 신안주 지역을 24시간 내내 공격하였다. 1월 13일과 14일 제307폭격비행단과 제19폭격전대는 신안주와 군우리 보급품 야적장을 공격하였다. 1월 14일 B-29의 야간공격 이전에 전폭기들이 신안주지역의 포진지, 철도, 교량을 공격하였다. 1월 15일 항공사진정찰 결과 새롭게 수풍발전소가 위장된 것과 4개 발전소 중 2개가 작동 중임이 드러났다.[123]

1월 17일과 18일, 제98폭격비행단은 포로수용소에 불과 1,000피트 이격되고 지하 42피트에 위치해 있는 평양 라디오 방송시설을 공격하였다. 이때 11대의 B-29가 2,000파운드 폭탄 10개 중 8개를 명중시켰으나 방송국을 파괴시킬 만큼 깊게 침투하지는 못했다.

1월 28~29일 제19전폭비행단 B-29 1대가 사리원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되었다. 이는 1952년 12월 이래 4번째 B-29 손실이며 6·25전쟁 중 마지막 손실이었다. 이후 B-29를 엄호하는 미 해병항공단 스카이나이트 항공기들은 공산공군의 야간 요격기를 격추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였고, 레이더를 장착한 제트전투기가 첫 번째로 적 제트기를 야간에 격추하였다. 1월 29일에도 전폭기들은 평양에 대한 주간 공격을 지속하였다.[124]

2월 중 제5공군과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북한지역 비행장의 사용불능 상태를 지속 유지했다. 많은 항공차단 임무 전폭기들이 적의 병참선 공격에 동원되었고, 제5공군은 2월 중에 2,850대의 차량을 파괴하였다고 주장했다. 병참선 차단작전 규모가 감소하게 되자 제5공군은 병력과 보급품 집결지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였다. B-26 경폭격기가 야간에 운행 중인 열차를 공격하는 스포트라이트 작전은 계속되었고 1월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열차를 파괴하였다. 또한 제6167항공기지전대의 조명탄 지원 하에 무월광에 실시되는 도로차단 공격도 지속되었다.[125]

폭격사령부의 B-29를 이용한 공습계획은 가능한 불규칙적으로 수립되었고, 중화기로 보호되고 있는 표적에 대해 무월광 시간에 맞추어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B-29 승무원들은 항공기별로 고도를 달리하고 비행운이 형성되는 고도를 회피하는 동시에 전자대응장비를 장착함으로써 적의 대공포 조준과 레이더 방향 탐조등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감소된 B-29의 편대 대형은 중요한 표적상공에서 상대편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 공중에 금속조각 등을 살포하는 채프(Chaff)와 전자방해의 효과를 보다 집중화시킬 수 있게 하여 폭격기간 상호 방호력을 제공하였다.

2월 2일 제5공군 소속 96대의 전폭기들이 교미포 남부 6마일에 위치한 병력 숙영시설을 공격하여 107동의 건물을 파괴하였다.[126] 2월 9일 교미포에서 제5공군 전폭기와 B-26기들은 이전에 적들이 탄약공장과 기관차 수리소로 이용했던 시설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2월 15일에는 제474전폭비행단의 F-84 22대가 수풍수력발전소를 공격했다. 이때 F-84를 호위하던 82대의 F-86기가 손실 없이 MiG기 30대를 유인함으로써 F-84는 1,0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공격으로 수풍발전

소는 수개월 동안 발전이 중단되었다. 2월 15~16일, B-29가 빙장리 통신센터를 공격한 직후 전력공급이 끊기자 평양 라디오가 방송이 중단되었다. 2월 16일 제1해병항공단은 제5공군 전폭기를 포함 총 178대의 전폭기를 이끌고 북한 서부 지역의 사리원, 해주에 설치된 적의 보급품 저장소와 병력 숙영지를 공격하였다. 2월 18~19일, 6·25전쟁 기간 중 가장 큰 규모의 전폭기 공습이 단행되었는데, 511대의 전폭기가 고폭탄을 탑재하고 출격하여 평양 남서부 강서에 위치한 기갑 및 보병학교를 폭격하여 건물 243동을 파괴하였다.[127]

3월 전반기 동안 공산군은 금성과 김화지역 내 중부 전선 몇몇 지역에서 중대규모의 공격을 실시하였지만 3월 내내 지상전선의 교착상태는 지속되었다. 나중에 공산군은 종종 중부와 서부지역에서 연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이 무렵 1~3개의 중국 보병사단이 추가적으로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거나 이미 배치되어 공산군 측의 전력이 증강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러한 전력증강은 휴전 이전에 보다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공산군의 공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항공전략은 전선부대로의 보급품 이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표적 파괴와 적대행위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되었다. 극동공군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항공차단작전을 벌여 공산군의 보충부대로부터 전선으로의 병력증강을 차단하고 저장된 보급품을 소진시키기 위한 춘계해빙작전(Operation Spring Thaw)을 구상하였다. 이때 유엔공군은 작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교량파괴는 B-26기에게 표적을 부여하였고, 교량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비롯한 예비교통로 파괴임무는 전폭기에게 할당하였다. 이후 실제 작전간에는 기상불량으로 인해 춘계해빙작전의 성과는 감소하였으나, 적으로 하여금 차량 운행 시 늪지대의 이면 도로와 임시 교량을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보급품의 도착을 지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128]

춘계해빙작전 기간 동안 B-29는 북한 종심지역으로 침투하였다. 폭격사령부는 전쟁기간 내내 제트 경폭격기의 증가, 조기경보와 지상관제요격부대의 증가, 새로운 지상관제접근체계의 도입 등 공산군의 항공전 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그회랑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1953년 3월 5일 기

상이 양호해짐에 따라 미 제5공군은 700소티 임무를 수행했다. 이 작전으로 F-84기 16대가 청천 산업지구를 공격하여 건물과 철로 2개, 도로 교량 2개를 완파하고, 기차 7량을 파손하였으며, 철로 및 도로를 절단하였다. 또한 전폭기들은 근접지원임무를 실시하여 56개 벙커와 포진지를 파괴하였고, 개인 참호 14개소 보급품더미 10개소를 파괴하였다. 계속해서 3월 5~6일에는 제98폭격전대 소속 B-29 17대가 온정리 병참지역을 공격하였다. 동시에 제19폭격전대 B-29 2대가 미 제9군단과 10군단 지역에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고, 또 다른 제19폭격전대 소속의 쇼란(Shoran)을 장착한 B-29 2대가 동해안의 내완리 보급품야적장을 공격하였다. 쇼란 유도폭격이란 비콘부대가 AN/APN-2 지상 비콘장비를 2개 장소에 설치하여 전파를 발사하면 항공기에 장착된 AN/APN-3 송수신기로 지상에서 발사한 전파를 포착하여 지상에 설치한 비콘으로부터 공격할 목표의 상대적 위치를 계산하여 목표위치를 찾아 폭격하는 새로운 전술이었다.[129] 3월 13~14일, 유엔공군은 종심지역에 대한 공습을 전개하였다. 이때 제307폭격비행단 B-29 12대가 압록강 근처의 조악동 제철소 인근의 숙영시설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3월 17~18일에는 미그회랑 지역 표적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제307폭격비행단과 제19폭격전대가 신의주 비행장 남부 3마일에 위치한 풍화동 병력집결지를 공습하였는데, B-29 2대가 적의 대공포에 의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3월 21~22일, 제19폭격전대 B-29 18대가 용미동의 주요 철교 2개의 전장(全長)을 파괴하여 세 번째 사용불능상태로 만들었다. 3월 22~23일, 제19폭격비행전대 B-29 8대가 용미동 교량에 대한 공격을 재차 실시하였다. 공격 시 B-29 승무원들은 공산군이 전날 야간에 손상된 교량을 복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교량에 이르는 예비도로가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폭격사령부는 또다시 세 번째 공격을 하고 귀환할 경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공습을 실시하지 않았다.[130]

4월에는 폭격사령부 소속 B-29와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만주부터 적 전방지역까지 이르는 보급품의 이동을 단절시키기 위해 철도 중심시설을 합동으로 공격하였다. 4월 하순이 되자 적의 병력집결지와 병참지역이 주요 표적이 되었다. 1953년

4월 1일 제307폭격비행단 B-29 1대가 기 부여된 표적을 공격할 수 없게 되자 트럭 행렬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북한에서 B-29가 작전을 실시한 이래 처음 실시한 이동표적 공격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1953년 4월 6~8일, 그리고 11~12일, 폭격사령부 B-29는 야간 공습을 실시하여 신안주지역 청천강에 위치한 철로 교량 3개를 파괴하여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전폭기들은 파괴된 교량으로 이어지는 예비도로를 공격하였다. 4월 13일 제8전폭비행단 F-86F 1대가 처음으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4월 15일 공산군은 약 75마일에 이르는 구성-군우리-시평리를 연결하는 철도를 완성하였다. 70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건설된 이 철도는 유엔공군 폭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정주, 신안주, 순천 철도중심지의 수많은 병목지점을 우회할 수 있게 하였다.[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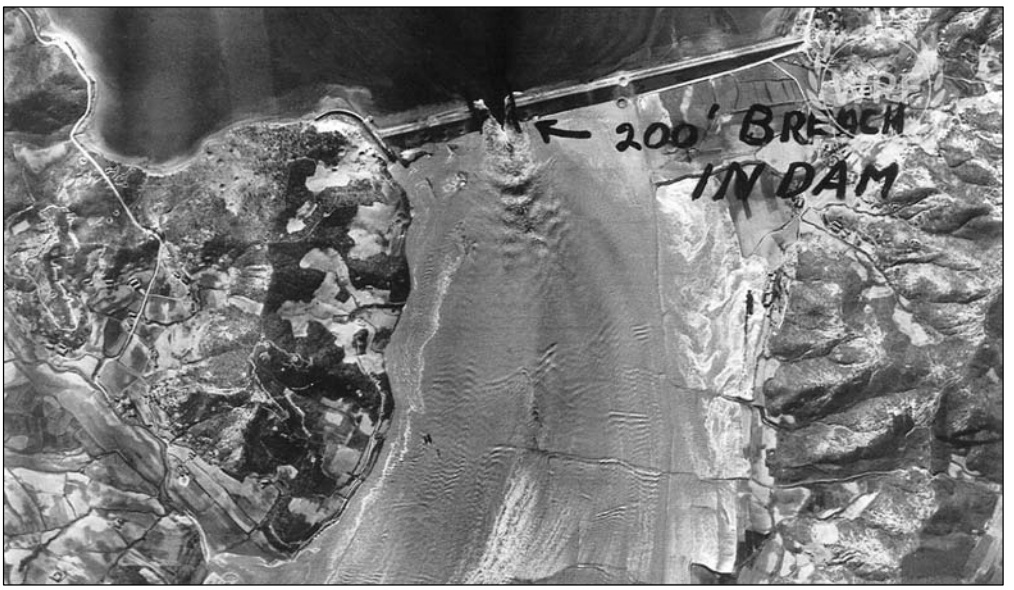
1953년 4월 13일, 유엔공군 제98폭격비행단 B-29기가 북한 남시지역 비행장 폭격 장면

5월 들어 유엔공군의 공격 목표는 새롭게 변화하였다. 기존에는 공격표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내 저수지 20개에 대한 파괴였다. 이것은 휴전협상에 진전

이 없는 가운데, 공산군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공산군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공격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선정된 것이었다. 유엔군 측은 북한에서 쌀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쌀이 전쟁물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저수지 공격은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가 평양북쪽 20마일 지점에 위치한 덕산댐이었다. 5월 13일 제58비행단의 F-84전폭기 59대를 4조로 나누어 길이 2,300피트의 댐을 공격했다. 이 댐은 1,000파운드 폭탄 여러 발이 명중했음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밤중에 저수지에 담겨 있던 물이 폭격으로 약해진 부위를 뚫고 쏟아져 다음날 전폭기들이 다시 공격하기 위해 가보니 물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댐이 파괴되면서 홍수가 일어나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댐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홍수로 6마일의 제방이 유실되고 신안주에서 평양에 이르는 철로의 교량 5개가 파괴되었으며, 철도옆 도로 2마일이 유실되었다. 또 건물 700동이 파괴되고 순안비행장이 물에 잠겼으며, 쌀농사를 짓던 수만 에이커의 논이 물에 잠겼다. 클라크 대장은 미 합동참모본부에 덕산댐 파괴 작전은 수 주간의 철도차단작전 효과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132]

댐 폭파의 효과를 확인한 유엔공군의 웨이랜드(Otto P. Weyland) 사령관은 덕산댐에 이어 2개의 댐을 더 파괴하기 위한 댐 폭격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자산댐을 제5공군에 배당하고 권가댐은 폭격사령부에 배당했다. 제5공군은 댐 공격명령을 즉시 시행했다.[133]

5월 15일 오후 제58비행단 F-84전폭기 36대가 자산댐 폭파를 위해 출격했다. 그러나 댐은 파괴되지 않았다. 5월 16일 다시 제58비행단은 90대의 F-84전폭기를 3파로 나누어 출격시켜 다시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저수지는 폭파되고, 저수지의 물이 일시에 쏟아져 제방 2,050피트가 무너졌으며, 평양-순천간 철도교량 3개가 유실되고 철도 옆 도로가 홍수에 휩쓸려 유실되었다. 무섭게 몰아닥친 홍수는 모내기를 마친 많은 논을 휩쓸었다.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붕괴되는 자산댐(1953년 5월 16일) [출처 : (사)월드피스자유연합]

또한 5월 21일 밤 B-29폭격기 7대가 권가 저수지를 폭파하기 위해 출격했다. 쇼란 유도를 받아 56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4발이 댐에 명중되었으나, 댐은 파괴되지 않았다. 5월 29일 밤 다시 14대의 B-29 폭격기들이 5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댐에 명중시켰으나 댐은 건재했다. 공산군은 미리 물을 방류하여 댐이 수압을 받지 않게 했고, 결과적으로 댐은 파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권가 저수지를 보수하기 위해 물을 완전히 방류하여 홍수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으나, 저수지 물이 필요한 논농사에 큰 타격을 입었다.[134]

실제로 공산군은 항상 신속한 철도복구능력을 과시했으나, 저수지 공격으로 유실된 철교는 빠르게 복구하지 못했다.[135] 또 무너진 덕산댐 복구를 위해 4,0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약 2개월간 작업했으며 공산군은 연인원 20만 명을 동원했다고 발표했다. 저수지를 폭격할 때 덕산 저수지 근처에 있던 유엔군의 첩보원에 따르면 저수지 폭격이 유엔군의 어떤 폭격보다도 공산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했다.[136]

1953년 6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엔군사령부는 항공력을 유엔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려는 공산군의 시도와 만주 국경 근처의 북한비행장에 대하여 집중하였다. 공산군의 지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은 중폭격기, 경폭격기, 전폭기를 근접지원임무에 투입하였다. 적 비행장 공습은 정전협정 체결 이전 주간 혹은 어떠한 시간에도 중국공군이 북한지역으로 날아와 현대적인 제트항공기가 북한에 보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극동공군은 비행장 공격을 위해 B-29와 전폭기를 동원하였고, 근처의 댐을 폭파하여 활주로를 침수시키거나 사용불능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6월 10일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는 작전 중이거나 작전 준비 중인 북한내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제98폭격비행단 B-29 16대는 대공포에 맞서 손실없이 신의주와 의주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제5공군이 실시한 최대 규모의 비행장 공습은 31대의 F-84가 출격하여 강계비행장을 파괴한 것이었다. 6월 11일 전폭기들이 전쟁 중 가장 원거리를 침투하여 북·중 국경 중간에 위치한 중강진 비행장을 공격하여 활주로를 사용 불능케 하였다. 6월 13일~18일, 남시와 태천비행장을 침수시키기 위해 F-84, B-29, 해병 F4U 전폭기가 덕산과 구성에 있는 저수용 댐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은 공산군이 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수위를 낮추어 놓아 파괴에는 실패했다. 6월 23일 공격이 불가능한 1개 비행장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비행장에 대해 웨이랜드 장군은 지속적인 공습으로 비행장을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한 제한적인 공격과 다른 일련의 공습을 통해 4~5일 간 무력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137]

1953년 7월의 불량한 기상은 항공작전을 방해하여 비행활동을 감소시켰다. 비행 활동 대부분은 유엔 지상군 지원과 공산군의 병참선 차단, 북한 비행장의 무력화에 집중되었다. 극동공군 비행활동의 43%가 유엔지상군 지원에 할당되었다. 폭격사령부는 휴전 이전에 항공기 도입 배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북한 비행장을 공습하였다. 공산군의 지상 공세가 중지되자 제5공군 항공기들의 임무는 근접항공지원작전에서 비행장 무력화로 전환되었다. 7월 4일과 5일, B-29 24대가 태천, 남시, 평양비행장을 공격하였다. 7월 7일과 8일, B-29 16대가 남시지역의 병

참지역과 보급품 야적장을 공격하였다. 7월 10일에는 제5공군 전폭기들이 공산군의 최종공격을 위한 병력 증원을 방해하기 위해 신안주와 용미동의 철도 교량을 공격하였다. 7월 10일과 11일에는 제98폭격비행단 B-29가 신안주 교량을 폭격하였다. 제307폭격비행단 B-29기가 용미동 철도 교량을 폭격하였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폭기가 청천교를 사용 불능케 하기 위한 일련의 공격을 마쳤다. 7월 27일 휴전 전에 마지막 시간까지 제5공군 소속 전폭기들은 북한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제67전술정찰비행단이 전폭기들의 공격 전에 항공사진 정찰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북한 비행장이 제트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비행장 무력화 계획은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8폭격비행대대 B-26 1대가 야간에 레이더 방향 지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위한 마지막 폭격을 실시하였다. 같은 비행대대 B-26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지역에 대한 마지막 공습을 위해 비행하였다.[138]

(3) 근접항공지원작전

1953년 근접항공지원작전은 총 23,392소티로 월평균 3,341소티를 실시하였다. 이는 1952년 전반기(1~6월) 881소티, 1952년도 후반기(7~12월) 월평균 2,149소티와 비교할 때 각각 약 3배와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휴전을 앞두고 지상군의 고지쟁탈전 격화와 중공군의 금성돌출부에 대한 공세에 맞서기 위해 유엔공군의 지상군 지원 작전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7-15> 1953년 근접항공지원 비행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비행활동(소티)	1,218	1,545	1,187	2,617	3,887	7,078	5,860	23,392

1953년도 월별 근접항공지원작전의 주요 상황을 살펴보면, 1월에는 몇 차례 이루어진 전선지역에서의 정찰 병력의 충돌 외에는 지상전투는 거의 없었다. 미 제

8군과 제5공군은 합동 공지지원작전을 시험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때 제8전폭비행단은 비행단이 보유한 24대의 폭격기를 이끄는 선도기(pathfinder)를 이용하여 높은 성과를 얻었다. 선도기를 이용한 방식은 숙련된 2명의 조종사로 구성된 2기 편대가 본 공격 편대 10분 전에 이륙하여 표적을 정찰 한 후 먼저 표적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후속 공격 편대에 표적의 위치를 노출시켜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공격방식이다. 이에 따라 제8전폭비행단은 대규모 근접항공 공격 시 선도기의 사용을 권장하였다.[139]

2월 전선에서의 지상군 활동은 완만한 속도를 지속하였고, 정찰 병력간의 교전과 소규모 적들의 정탐활동만이 계속되었다.[140]

3월 들어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지상전투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공군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이 임무에는 이른바 '체로키 작전(Operation Cherokee)'이라고 명명된 공군과 해군 전투기들이 합동으로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이용되었다.[141]

4월 13일 제8전폭비행단 F-86F 1대가 처음으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였다.[142]

5월 하순까지 전선은 비교적 조용했다. 5월 하순 이후 공산군은 판문점 북동부 10마일 상의 미 제1군단 관할 구역 내에서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에 대해 대규모 지상공세를 개시하였다.[143]

6월 중순까지 계속된 공산군의 하계 2단계 공세에서 유엔군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과적으로 네바다 전초진지를 공산군 측에 내주고 말았다. 이로 인해 공산군은 공세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는 휴전협상 최종단계에서 공산군 측에게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공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반면 공산군은 심각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순식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이 중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공산군이 점령한 고지가 차후작전과 휴전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포병의 탄막형성과 근접항공 공격을 실시하였다. 6월 중순까지 공산군은 전선 13,000미터를 따라 평균 3,000미터를 획득하였고 6일간의

휴식 후에 재개된 공격은 한국군에 한정되었는데 이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공산군의 지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은 중폭격기, 경폭격기, 전폭기를 유엔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임무에 투입하였다. 6월 2~3일, 폭격사령부 B-29가 야간 근접지원임무를 시작하였는데, 임무의 대부분이 미 제10군단의 서부지역 정면 적 지역에 위치한 공산군 훈련 및 병력 양성지역, 병참지역에 집중되었다. 6월 16일, 제5공군이 총 1,834소티의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실시하여 일일 최대 비행기록을 경신하였다.[144]

Mosquito에게 적 위치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전술항공통제반(TACP)

1953년 7월의 불량한 기상은 항공작전을 방해하여 비행활동을 감소시켰다. 비행활동 대부분은 유엔지상군 지원과 공산군의 병참선 차단, 북한 비행장 무력화에 집중되었다. 이런 가운데 극동공군 비행활동의 43%가 유엔지상군 지원에 할당되었다. 7월 12~20일, 극동공군이 실시한 근접항공지원 비행이 한국군 제2군단에

대한 공산군의 공격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7월 13~19일, B-29 중폭격기가 4,000파운드 공중파열폭탄과 지연신관 대인폭탄을 사용하여 지상근접지원 임무 100소티를 실시하였고, 공산군의 공세를 지연하였다. 6·25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1953년 7월 27일 밤 10시까지 모든 극동공군 항공기들은 전선 이남과 북한 해안 3마일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4) 공수작전

유엔공군은 1953년 7개월 동안 총 30,101소티의 공수작전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월 평균 4,300소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1952년도 월 4,319소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전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가운데 보급물자 수송과 휴가자 및 부상자 수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공군의 공수작전은 전쟁초기 1년 동안은 지상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투물자 수송이 주를 이루었으나, 휴전회담 개시이후 공수량이 급감되다 이후 전쟁 3년째 이후부터는 비교적 증가되기 시작하였다.[145] 특히 1952년 6월 이후부터 병력수송이 최대의 임무를 차지했다.[146]

<표 7-16> 1953년도 공수비행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비행활동(소티)	4,292	3,754	4,524	4,625	4,765	4,521	3,620	30,101

월별 공수작전의 주요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1월 C-47과 C-46 수송기들이 제6167기지전대에 배속되어 B-26의 폭격 시에 표적을 탐지하고 표적에 대한 조명임무를 실시했다.[147]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1월 25일부터 공산군 측의 평양과 판문점간 물자수송을 주 1회 왕복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공산군 측이 휴전협상을 구실로 전

선으로 물자를 수송하거나 병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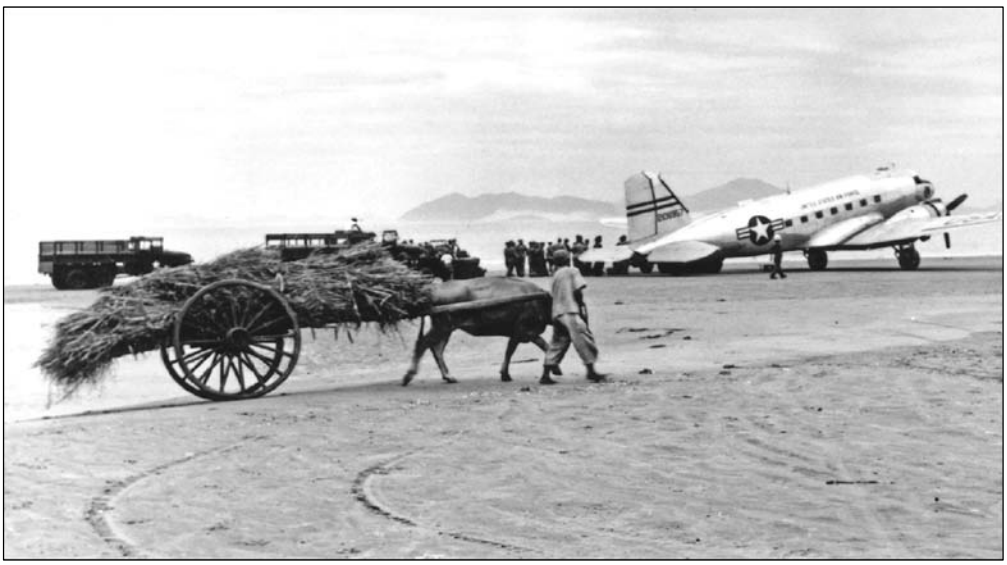
2월 극동공군은 1952년 12월부터 임무를 중지하고 있는 제22전투수송대대 C-124 수송기의 연료계통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한 결과, 2월에 임무에 복귀하였다.[148] 2월 28일 제3항공구조전대는 보다 크고 신형화된 H-19 2대를 수령하였다. C-124의 기술검사 비행이 헬기 부품을 적재하고 미 본토 헬기 공장에서 일본까지 비행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헬기부품은 일본에서 조립, 헬기로 완성되었고 한국으로 선적되기 전에 시험비행이 실시되었다.[149]

4월 12일 제581항공재보급통신단 소속 H-19 헬기 1대가 전투 중 항공기 손상을 입고 비상 탈출한 맥코넬(Joseph C. McConnell, Jr.) 대위를 구조하였다. 맥코넬 대위는 당시 적기 8대를 격추한 에이스였다.[150]

5월 중 H-19 헬기 조종사들은 탐색·구조 활동을 통해 10명의 조종사를 구출하였는데, 이들 중 6명은 5월 16일과 18일에 구조하였다. 5월 18일 H-19 1대가 북한지역내 20마일 지점에서 B-26 승무원 2명을 구조하였다. 이날 H-19는 그들 기지로부터 비상 출격한 다음 해주 인근의 작은 섬으로 비행하여 전투기들이 승무원 추락지점까지의 통로를 열기까지 대기하였다. 전투기가 북한 상공 5,000피트까지 침투하자 거울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생존자가 위치한 곳까지 H-19는 전투조종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비행했다. 생존자가 조명탄을 터트려 풍향을 알려주자 착륙하여 약 30초간 지상에 머문 상태에서 이들을 구조하였다.[151]

6월 22~23일 제315전투공수사단이 C-46 27대와 C-119 61대를 동원하여 미 제8군 예비 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87공정연대전투단 3,252명과 1,771톤의 화물을 한국으로 공수하였다. 6월 28~7월 2일, C-46, C-54, C-119 수송기들이 제19, 34연대전투단 병력 3,937명과 화물 1,227톤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공수하였다.[152]

공산군 공세기간이었던 7월 21~23일 간 제315전투공수사단은 미 제8군이 요구한 1개 보병연대(병력 3,252명, 물자 1,770톤)의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공수 요청을 수행하였다.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미자와 및 다치카와 비행장으로부터 한국의 부산과 대구비행장으로 병력 4,000명, 물자 1,200톤 이상이 공수되었다. 이는 6·25전쟁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수행된 주요 공수작전으로 기록되었다.



서해 초도 해안가에 주기 중인 C-47 수송기(1952년 9월)

(5) 물라작전(Operation Moolah)[153]

'물라'작전은 적에 대한 물리적 공격 작전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엔공군이 공산공군의 MiG-15 전투기를 입수하고, 적 조종사들의 귀순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154]

1953년 4월 26일 야간, 2대의 전폭기가 공산공군의 제트기나 MiG-15로 귀순하는 조종사에게는 현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소련어, 중국어, 한국어로 된 전단을 북한내 공군기지와 이미 선정된 장소에 약 120만 장을 살포하였다. 특히 제일 처음 귀순하는 자에게는 5만 달러의 상금을 추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모든 귀순조종사들에게는 5만 달러와 정치적 도피처를 제공하고 원한다면 익명사용의 특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귀순 조종사는 백령도까지 비행, 2만 피트 고도로 김포기지에 착륙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물라작전은 미 공군이 비행가능한 적 제트기를 입수하여 시험해 보려는 의도에 따라 계획되었고, 미 극동군사령관은 이 계획의 실천을 통해 적

조종사들간의 상호불신을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작전은 최초 워싱턴에서 논의되었으며, 1953년 3월 20일 미 합동참모본부 동의와 1953년 4월 1일 미 합동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미 극동군사령부에 전달되었다. 4월 21일 미 제5공군은 귀순하는 항공기와 승무원을 접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지시를 하달하였다. 최종적으로 4월 27일 물라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이 날짜는 휴전회담 재개일자와 일치하도록 결정되었다. 이후 유엔군사령부(미 극동공군사령부)는 5월 10일 야간에 압록강 근처 2개 비행장에 9만장, 5월 18일 야간에 동 지역에 4만 장의 전단을 살포하였다.

물라작전 결과는 평가하기 곤란하였다. 클라크 대장은 이 작전에 대한 적의 첫 반응은 MiG전투기를 8일간 지상에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치는 이 기간 동안 불신조종사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MiG기의 비행은 전단 살포 다음날인 4월 28일과 29일 2일간 실시되지 않았으나, 이는 악천후에 따른 것이며, 전단살포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엔군 측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귀순조종사 노금석과 그가 타고 온 MiG-15기(미 공군박물관 전시모습)

실제로 1953년 9월 21일 북한을 탈출하여 김포기지에 귀순한 북한 MiG-15 조종사 노금석은 물라작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자기가 받게 될 10만 달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자신은 단지 북한에 대한 혐오감으로 귀순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미 극동공군은 물라작전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이 계획이 공산군의 공중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실증할 만한 첩보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기술하였다.

3) 유엔공군 참전국 활동 요약

유엔공군에는 미국공군 외에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그리스, 태국 등 5개국의 공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의 참전현황과 전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는 태평양전쟁 후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F-51을 주기종으로 하던 제77전투비행대대를 1950년 7월 2일 6·25전쟁에 참전시켰다. 호주공군은 제77대대뿐만 아니라 제30수송비행대대, 제491정비대대, 제391기지대대 등이 참전하였다. 호주공군은 초기에 F-51를 운용하다가 공산공군의 MiG기가 등장한 이후에는 미티어(Meteor-8)로 기종을 전환하였다. 호주공군은 포항, 김포에 주둔하였으며, 전쟁기간 중 총 15,071소티를 출격하였고, 조종사 41명이 희생되었다.[155]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50년 11월 16일, 장교 13명과 21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선발부대가 부산에 도착하였다.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미 제5공군 제18전폭비행단의 작전 통제하에서 부산(K-9), 평양(K-24), 수원(K-13), 진해(K-10), 서울(K-16), 횡성(K-46)을 거쳐 마지막에는 오산(K-55)에서 미 공군이 제공한 F-51D, F-86F 등을 운용하였다. 작전과정에서 F-51D 74대, F-86F 4대가 손실되고, 조종사 전사 34명, 포로 8명, 기타 사망 2명이라는 큰 희생을 남겼다.[156]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 공군 사진

캐나다 공군은 1950년 7월 C-54GM North Star 수송기를 운영하던 제426공수비행대대가 참전하여, 미 워싱턴주(州) 맥코드(McChord) 공군기지와 일본 하네다 공항을 왕복하는 수송임무를 담당하였다. 전쟁기간 총 599회 태평양을 횡단하고, 약 7만 파운드의 화물과 13,000여 명의 인원을 공수하였다. 수송대대외에 22명의 우수한 전투조종사가 미 제5공군 제51전투비행단에 파견되어 미 공군의 F-86을 조종하며 MiG와 격돌하였고, 많은 전과를 올렸다.[157]

그리스는 1950년 11월, C-47 수송기 7대와 병력 67명으로 구성된 제13공수비행대를 참전시켰다. 그리스 공군은 1955년 5월까지 한국에 주둔하면서 인원 및 화물공수, 재보급을 위한 비행으로 총 2,916소티를 실시하였다.[158]

태국공군은 1951년 6월 13일 C-47 수송기 3대를 미 제135비행사단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제21비행대대에 배속시키면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태국공군은 한국의

전선에서 부상당한 환자 및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주로 담당하였다.[159]

태국공군 참전 사진과 C-47 수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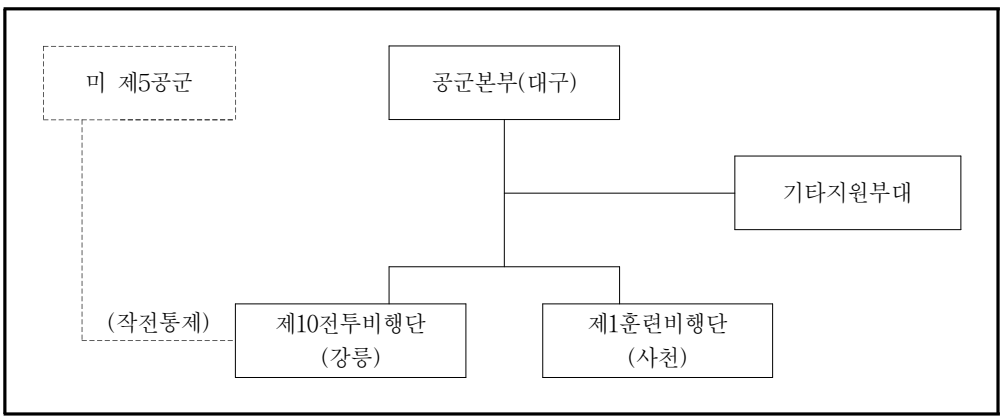
2. 한국공군 작전

1) 편성 및 지휘관계

1953년에 들어서면서 한국공군은 조직상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1953년 2월 15일부로 강릉기지에서 작전 중이던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제10전투비행전대를 기간으로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또 같은 날 사천비행장에서 조종사훈련을 전담하고 있던 제1전투비행단을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한국공군은 전투와 훈련기능을 각각 분리함과 동시에 2개의 비행단을 보유하게 되었

다.[160] <표 7-17>은 1953년 2월 15일 기준 한국 공군의 편성 및 지휘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7-17> 한국공군 지휘관계(1953년 2월 1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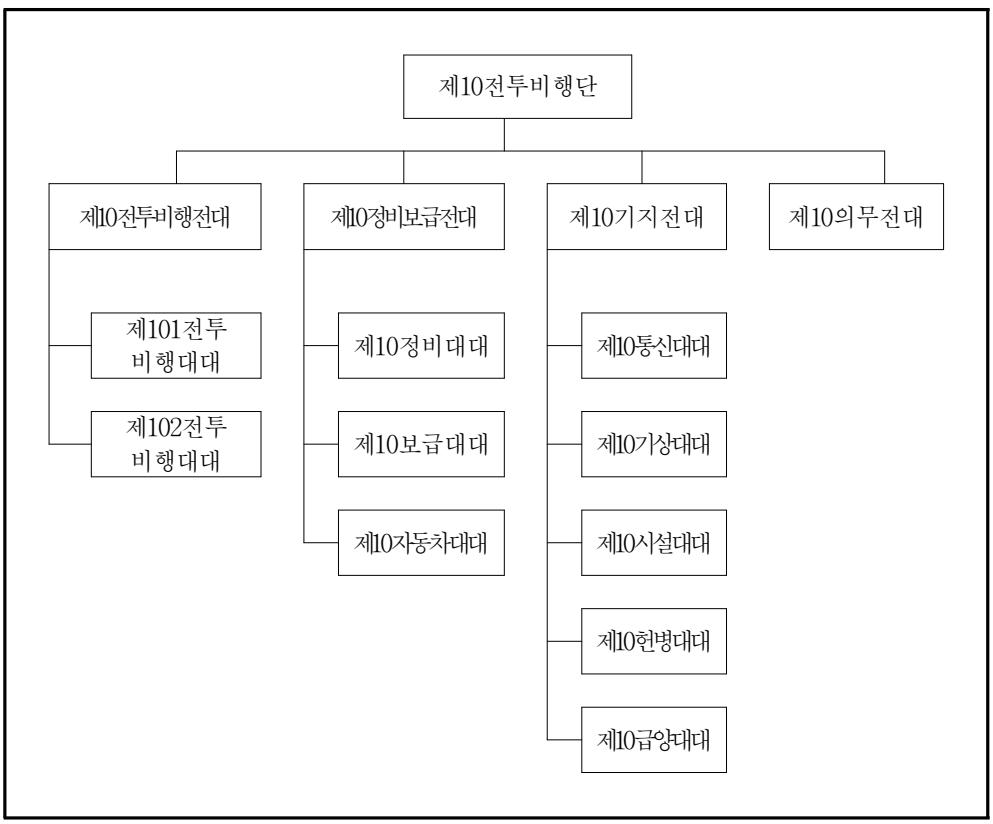


이전까지 한국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되어 공군비행단으로 운용되었다. 이후 1951년 8월 1일 공군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하여 예하에 제10전투비행전대를 강릉기지로 전개, 운용하고 있었다. 1953년 2월 제10전투비행단과 제1훈련비행단으로 전투와 훈련비행단을 분리, 확대 개편함으로써 공군전투의 필수 전투력이라 할 수 있는 조종사의 안정적인 양성과 충원이 가능해지고, 전투비행단은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상의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다.

한국공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구에 공군본부를 두고 있었으며, 강릉에 제10전투비행단, 사천에 제1훈련비행단이 위치하고, 제10전투비행단의 작전은 미 제5공군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다.

당시 창설된 제10전투비행단의 단장으로는 김영환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비행단장 예하에 전투비행전대, 정비보급전대, 기지전대, 의무전대 등 4개의 전대를 편성했으며, 전투비행전대 예하에는 2개의 전투비행대대를 두었다.[161] 당시 제10전투비행단의 편성현황은 <표 7-18>과 같다.

<표 7-18> 제10전투비행단 편성표(1953년 2월 15일)



한국공군의 이 같은 성장은 창군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력증강 및 작전능력 향상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한국공군은 1949년 창군 이후 지속적으로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당시 이런 노력은 계획한대로는 실행되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공군은 지속적으로 공군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특히 1952년 4월 1일 '공군확장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1953년 2월 기준 병력 9,814명과 F-51 전투기 39대를 포함한 7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162]

한국공군은 전력증강과 병행하여 작전능력도 꾸준히 성장해 나아갔다. 그 결과 1951년 8월부터 시작된 미 제5공군이 주관한 작전준비태세 검열(ORI : Operational Readiness Inspection) 수검을 통해 한국공군의 단독 작전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단독작전 및 단독전투란 한국공군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미 제6146부대의 고문단을 경유하여 작전명령(FRAGORD : Fragmentary Order)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참전 16개국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공군(ROK Air Force)이 직접 작전명령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63] 이처럼 한국공군이 단독작전능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1951년 10월 1일 제1전투비행단 예하에 제10전투비행전대가 편성되었던 것이다. 이 비행전대는 당시 최전방인 강릉비행장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제10전투비행전대는 적 후방 보급로 차단작전을 전개하면서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배양하였다. 그리고 1952년 10월 28일부터는 단독으로 국군 제1군단을 지상 엄호하는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는 한편 무장정찰도 실시하게 되었다.

강릉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전대가 비행단으로 승격한 것은 한국공군의 작전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과 미 공군이 보유한 F-51기가 한국공군의 요청에 의해 이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 공군 제58전투비행단이 보유해 왔던 F-51기는 1953년 1월 23일부로 미 공군의 전투부대에서 완전 퇴역하고 대부분 한국공군으로 이관되었다.[164]

미국의 지원에 따라 한국공군의 항공기 보유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F-51 전투기 8대를 비롯해 19대에 불과했던 항공기 보유대수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시 F-51 78대를 포함 총 118대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공군의 연도별 항공기 보유현황은 <표 7-19>와 같다.

<표 7-19> 한국공군 연도별 항공기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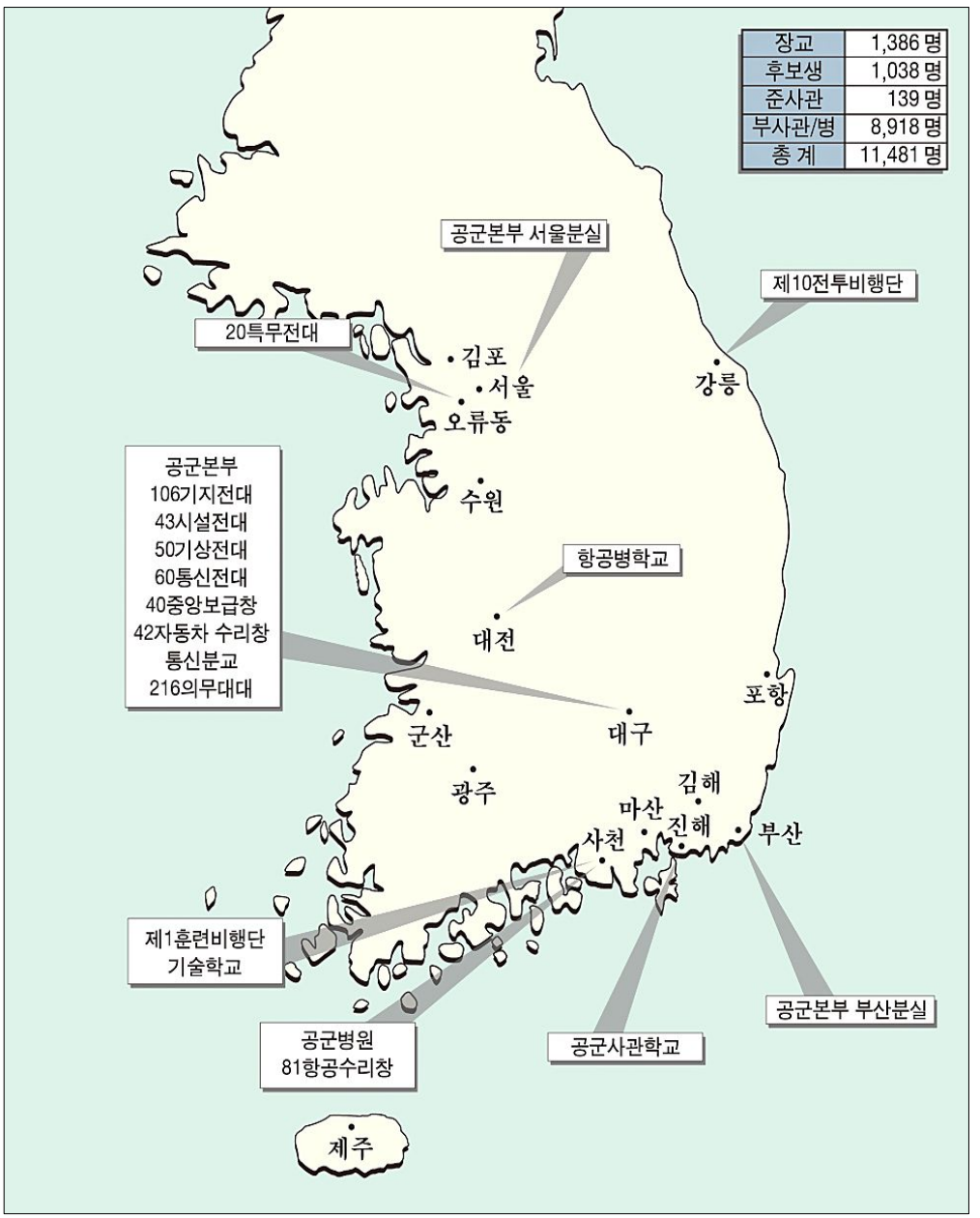
구 분		F-51	T-6	L형 항공기	C-47	계
'50. 6월			9	8		17
'50. 12월		8	6	4	1	19
'51. 12월		19	8	23	1	51
'52. 12월		39	15	22	1	77
'53년	1월	38	13	23	1	75
	2월	39	12	21	1	73
	3월	41	16	21	1	79
	4월	72	15	21	1	109
	5월	78	15	21	1	115
	6월	80	17	21	1	119
	7월	78	17	22	1	118

* 출처 : 공군본부, 『항공전사 - 한국전쟁-』, 1989, 232쪽.

1953년 2월 15일부터 7월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한국공군은 부대확장과 전력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상황도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부대를 배치 운용하고 있었다.

상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군본부는 계속 대구에 주둔하여 전투를 지속하면서 인원 및 전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외에는 대구기지에 제60통신전대, 제50기상전대, 제40중앙보급창, 사천기지에 제1훈련비행단본부, 제81항공수리창, 기술학교가 위치하였고, 진해에 공군사관학교, 대전기지에 항공병학교가 각각 주둔하여 강릉기지에서 작전 중인 제10전투비행단의 후방지원과 전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노력하였다.[165]

<상황도 7-4> 1953년 6월 30일 기준 공군 부대 배치 현황



*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1집 개정판』, 2011, 540쪽.

2) 작전활동

1953년 1월 1일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의 기간 중 한국이 수행한 공군작전은 강릉기지에 전개된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2.15일 이후 제10전투비행단)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동 시기 한국공군은 유엔공군의 일원으로서 지상군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지원작전과 적 후방보급로 차단을 위한 작전을 주로 수행하였다.

제10전투비행단의 창설로 한국공군은 전투비행전대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조종사 수가 대폭 증가(40명선 → 80명선)하였고, 그 결과 출격횟수도 대폭 늘어났다. 비행전대일 때는 매일 30회 정도 출격했지만, 전투비행단으로 승격한 이후에는 매일 50~60회의 출격을 기록했다.[166]

1953년 1월부터 7월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한국공군은 총 3,082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월평균 440소티를 실시한 것으로 양적으로는 1952년 월평균 330여 소티(총 3,957소티 : 후방차단작전 3,601, 근접항공지원 356)와 비교 시 월 100여 소티 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특히 1952년 10월 이후 지상군을 대상으로 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후방차단 작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표 7-20> 1953년 한국공군 전투 비행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총비행(소티)	565	339	329	512	550	402	385	3,082
근접항공지원작전	357	304	258	305	286	171	277	1,958
후방차단작전	208	35	71	207	264	231	108	1,124

* 출처 : 공군본부, 『전투요보(要報) 1953』, 200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570-593쪽 참조 작성

이 시기 한국공군의 작전상황을 1953년 2월 제10전투비행단 창단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0전투비행단 창단 이전(1953.1.1~2.14)

1953년 1월에 이루어진 실제출격은 23일간에 걸쳐 총 565소티였다. 공지합동작전 357소티, 적 후방보급로 차단작전 208소티로서, 출격지구는 고성, 신천, 사리원, 회양, 장전, 통천, 연안, 세포리지구이었고, 적 전차, 건물, 차량, 탄약 집적소, 연료 집적소, 보급물 집적소, 교량, 포진지, 벙커, 철도 등을 격파 및 파손시키고 적 병력을 다수 살상하였다.[167]

1953년 2월에는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되기 전인 2월 14일까지 동해안 1군단 지역의 공지합동작전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고성 서쪽 용계리 지역과 고성 남쪽 고봉리, 개잔령 및 사천리, 월비산 지역으로 총 133소티를 출격하였고, 다수의 적 보급물자 집적소, 벙커, 건물, 도로, 탄약저장소, 포진지, 탱크 등을 파괴 또는 파손시켰다.[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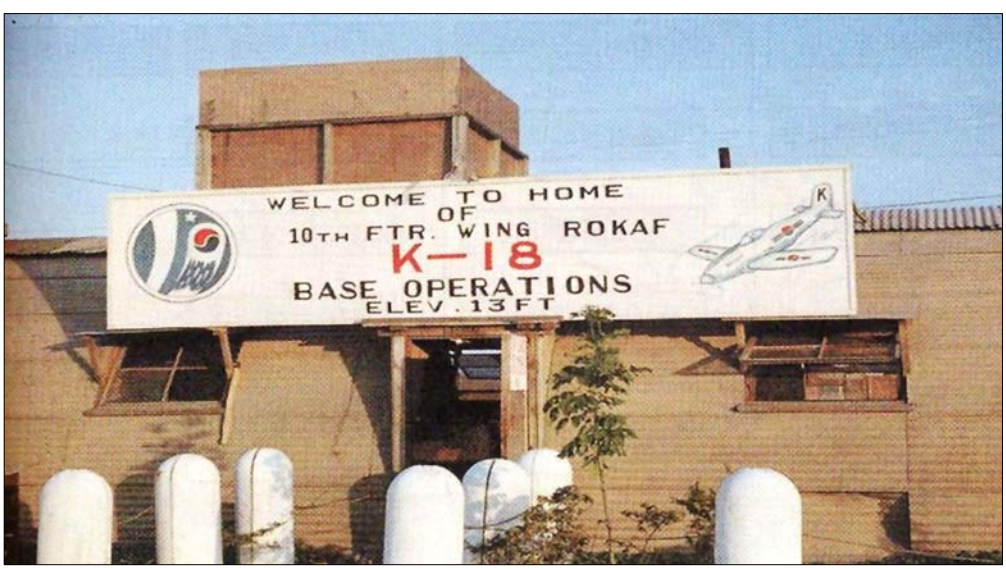
(2) 제10전투비행단 창단 이후(1953.2.15~7.27)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1953년 2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기간 중에도 지상군 전선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공산군은 155마일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서 동부전선에는 북한군을 배치하고, 중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에는 중공군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군은 동부전선에 제1군단을, 중동부전선에 제2군단을 각각 배치하여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 기간 중 지상군전투는 연일 소규모의 탐색전이 계속되었을 뿐 4월말까지는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5월 초순부터 공산군은 국군정면에 공세를 집중하였는데 특히 7월에 이르러서는 중공군이 7월 13일을 기하여 대공세를 취하였다. 이 공세에서 중공군이 국군 제2군단 정면의 30마일에 걸친 전선에 대하여 15만 명이라는 대병력을 투입함으로써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나, 중공군의 공세 개시 8일만인 7월 20일에 이르러

적의 기도가 완전히 분쇄되었으며, 이후 7월 27일 휴전을 맞이하게 되었다.[169]

기상적인 측면에서 제10전투비행단이 발족한 1953년 2월 15일부터 휴전성립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기상이 불량하여 출격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2월과 3~4월 중의 북한지역내 출격지구의 기상은 대체로 양호하여 출격에 별 지장을 주지 않았으나, 5월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기후가 극히 불량하여 5월 중에는 18일, 6월 중에는 12일, 7월 중에는 불과 10일 밖에 실제로 출격하지 못하여 기후불량으로 인한 작전지장이 막대하였다.[170]

그러나 이처럼 불량한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1953년 2월 15일부터 휴전성립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제10전투비행단은 K-18(강릉) 기지를 중심으로 하여 고성으로부터 문등리, 금성, 김화(金化), 철원, 판문점을 연결하는 전선에서 전투중인 우리 지상군과의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적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었으며 적 보급품을 분쇄하여 적 보급품이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불태워 버렸다.[171]



강릉기지에 창설된 제10전투비행단 지휘소

1953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의 출격은 25일 하루만을 쉬고는 연일 계속되었으며, 간성과 고성일대의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중점을 두어 총 189소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 벙커와 포진지, 자동화기진지, 건물, 보급물집적소, 차량, 동굴 등을 파손시켜 적의 후방지원 차단에 주력하였다.[172]

3월에도 공군은 20일간 329소티(근접항공지원작전 258, 후방차단작전 71)를 출격하여 고성일대의 지상군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통해 지상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또 이 기간 중 후방차단작전으로 3월 21일 16:10 김금성 소령이 지휘하는 9대의 F-51D 전투기가 강릉기지를 이륙, 평강과 신고산 중간에 위치한 세포리 지역으로 출격하여 적의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파괴하고 교량 2개소를 절단하였다. 3월 22일에는 14대의 F-51D전투기가 금성지역에 출격하여 전선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1개소를 차단하였고, 적의 대공화기진지를 파괴하였다. 또 26일, 28일, 31일에도 평강 서북쪽 지역으로 출격하여 적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173]

1953년 3월 26일 한국공군은 국군 제1군단 예하 제15사단의 요청에 따라 351고지의 지상군전투를 지원하여 적을 격퇴하였는데 이 작전은 T-6 모스키토 항공통제기와 F-51 전투기간의 유기적인 협동작전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공군의 대표적인 근접항공지원작전이었다.[174] 351고지 전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별도로 상술하겠다.

4월에는 23일간 후방차단작전 및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총 512소티(근접항공지원작전 305, 후방차단작전 207)를 출격하였으며, 고성, 평강, 연안 일대의 적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를 공격하였다. 이를 통해 적 병력, 건물, 차량, 탄약집적소, 보급품 집적소, 터널, 대공화기, 포진지, 산병호(散兵壕), 벙커, 도로, 철로, 동굴 등을 파괴 또는 파손시켰다.[175]

1953년 5월부터는 전력도 전투기(F-51) 70여 대로 증강되어 일기불순으로 18일밖에 출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 공지합동작전 출격회수가 550소티(근접항공지원작전 286, 후방차단작전 264)에 달하였으며, 고성, 간성, 통천, 화천에 출격하여 포진지, 동굴, 보급품집적소, 도로, 벙커, 산병호, 철도, 대공화기, 건물

등을 파괴 또는 파손시켰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대위 유치곤이 최초로 200회 출격의 빛나는 기록을 수립하였다.[176]

공산군의 마지막 공세기간 중인 6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국공군은 실제 출격일수 22일간에 총 787소티를 출격하였다. 이 중 57%인 448소티를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43%인 339소티를 후방차단작전에 투입하였다. 특히 6월 14일과 30일에는 1일 출격회수가 50소티를 넘었고 7월 17일에는 77대의 F-51전투기가 출격하여 개전 이래 1일 최대 최고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177]

6월부터는 국군 제2군단에 대한 공지합동작전도 개시하게 되었다. 6월에는 일기불순으로 12일밖에 출격하지 못하였으며 총출격 횟수는 402소티였다. 고성, 창도, 간성, 금성, 시변리지구에 출격하여 벙커, 포진지, 산병호, 차량, 건물, 화차, 도로, 철도, 교량, 보급품 집적소, 동굴 등을 파괴 및 파손해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178]

휴전이 성립된 7월의 실제 출격일 수는 10일간이며, 연출격기수는 385소티(후방차단작전 108, 근접항공지원 277)였다. 금성, 신막, 고성, 남천, 간성, 시변리지구에 출격하여 적 병력, 건물, 보급품 집적소, 교량, 동굴, 포진지, 도로, 철로, 산병호, 벙커 등을 파손 또는 파괴시켰다.[179]

특히 적이 7월 13일부터 우리 제2군단에 대해 대공세를 취하자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공군은 7월 17일 개전 이래 최대출격기록으로서 중동부전선에 출격하여 적의 주력부대를 공격하고 유엔공군과 더불어 지상군작전을 유리하게 전환시켰다. 7월 27일 휴전일에는 17편조(編組) 68대나 출격하면서 막대한 전과를 획득하였다.[180]

(3)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은 6·25전쟁 기간에 진행된 한국공군의 가장 대표적인 작전으로, 이 작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51고지는 태백산맥이 동해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동부전선의 최북단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어 아군이 적을 감제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였다. 따라서 이

고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아군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어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금강천을 기점으로 남강이 고성북방에서 동해로 흐르고 있어 피아간에 천연장애물로 이용하고 있고 원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있어 교통망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공군의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은 한국공군이 단독으로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는 1952년 10월 28일부터 휴전이 성립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수행된 작전을 총칭한다.[181] 이 기간 중 공군은 총 1,538소티를 출격하여 보급품 집적소 509개소, 벙커 736개소, 야포진지 158개소, 박격포 진지 179개소, 인명살상 287명 등의 큰 전과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F-51D 전투기 8대가 손실되고, 최종성, 임택순, 장창갑, 서동규, 김현일, 고광수 등 6명의 조종사가 순직하였다.[182]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전 성공사례로 1953년 3월 26일 작전을 꼽을 수 있다. 1953년 3월 26일 한국공군은 국군 제1군단 제15사단의 요청에 따라 351고지의 지상군전투를 지원하여 적을 격퇴하였는데 이 작전은 T-6 모스키토 항공통제기와 F-51 전투기간의 유기적인 협동작전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공군의 대표적인 근접항공지원작전이었다.[183]

당시 351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한국군 제15사단은 적이 수개월에 걸쳐 이 고지를 점령하고자 빈번히 공격을 가해와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 7군단 예하 제53연대 제2대대는 최후수단으로 동 고지의 후방을 기습할 목적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동굴을 파가며 접근하여 이 고지가 적의 수중에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였다. 이에 아군 제15사단은 자체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강릉기지에 주둔중이던 제10전투비행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항공지원 요청을 받은 제10전투비행단의 작전장교들은 현지 사단에 파견 근무 중인 배상호 중위와 351고지에 대한 공중공격에 관하여 2일간에 걸쳐 작전협의를 가졌으며, 협의결과 이 작전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공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첫째 이유는 동 목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목표라는 점, 둘째는 우리 육군진지와 불과 400야드(약 274m) 거리에 동굴입구가 있어 아군진지를 오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는 오폭으로 아군지역을 공격하면 지상군 손

실이 너무 커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이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몇몇 장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10전투비행단 부단장겸 10전투비행전대장 장지량 대령은 공격을 단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제10전투비행전대는 351고지에 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F-51전투기 4개 편대 16대가 참가하도록 하였다.[184]

마침내 3월 26일 10:00 정각에 강릉기지를 이륙한 제1편대(편대장 소령 윤응렬)의 F-51전투기 4대는 전투대형으로 목표를 향해 비행하여 약 20분이 지난 시각에 351고지 상공에 도착하였다. 이때 351고지 정면의 목표물 부근에서 산골짜기를 샅샅이 뒤지고 있던 배상호 중위의 T-6 모스키토가 목표상공 9,000피트 상공에 대기하고 있던 제1편대에게 무선으로 목표물을 지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351고지 서쪽의 경사면 골짜기에 연막탄을 발사하여 공격목표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 T-6 모스키토기는 육군화력지원본부에 3분간의 포사격을 요청하였고 야포탄이 적의 화력진지를 제압하자 제1편대장기가 10시 30분에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하여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고, 2번, 3번, 4번기 순으로 급강하 폭격을 계속하여 산골짜기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제2편대(편대장 이기협 소령)가 1편대 공격이 끝나자마자 동일 목표를 향해 급강하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3편대(편대장 옥만호 소령), 제4편대(편대장 김금성 소령)가 목표 상공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었으나 제4편대도 재차 공격을 가하였다.[185]

이날 출격한 16대의 F-51전투기는 13시 제4편대의 공격을 끝으로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강릉기지로 귀환하였다. 이로써 육군 제15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전략요충인 351고지에 대한 적의 위협은 제거되었다.[186]

1953년 3월 26일 351고지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출격한 16명의 조종사 전원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이는 공군에 있어 단일작전에 참가했던 전 조종사가 무공훈장을 수상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187]

공군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기념비(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4) 공지합동작전 준비 및 개시

전술공군의 3대 임무인 공중우세확보를 위한 제공작전, 전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후방차단작전,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3대 임무 중 근접항공지원임무는 지상군과 긴밀하게 협동해야 하고 또 복잡한 통신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임무로 평가된다.[188]

공지합동작전은 상당한 고등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복잡한 통신연락과 정확한 정찰, 그리고 신속한 기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189] 공지합동작전 임무수행은 지상군으로부터 목표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으면 즉시 합동작전본부(JOC)에서 지상 대기 중인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공중통제기(A/FAC 항공기, Mosquito)가 목표상공에 도착하면, 전술항공통제반(TACP, 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전방항공통제관(FAC)과 협조하여 출격하는 전투기 편대를 목표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술항공통제반과 모스키토의 유도하에 이 전투기 편대는 적의 동굴, 벙커, 보급물집적소, 포진지 등

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 결과를 모스키토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또는 전투기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190]

한국공군은 1951년 10월, 적 후방보급로 차단작전을 개시하는 한편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전술항공통제반 요원 및 옵저버(Observer)요원의 선발과 파견교육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1951년 11월부터 제5공군의 협조를 얻어 전술항공통제반 전투요원 및 모스키토-옵저버(T-6에 탑승하여 공중정찰함) 요원을 당시 평택기지에 주둔 중이던 미 제5공군 예하 전술항공통제전대(TACG)에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받게 하였다. 1951년 11월 8일 파견된 요원은 중위 박성연 등 총 7명이었다. 이들은 1951년 11월부터 현지에서 T-6 모스키토 정찰기를 통해 약 6개월간 평균 30회의 적진상공 실전경험비행을 하고, 실무교육을 완료하여 복귀한 뒤 전술항공통제 임무에 종사하였다.[191]

한국공군은 또한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 소속이던 이강화 소령을 미 제5공군사령부에 파견하여 공지합동작전을 전담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강화 소령은 1952년 8월 8일부로 미 제5공군 합동작전본부내의 공지합동작전처에서 미군 담당자인 윌슨소령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강릉기지 제10전투비행전대의 옥만호 대위와 손재권 대위를 TACP요원으로 선발하여 1952년 8월 9일 부로 미 제5공군 예하의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에 파견하였다.[192]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공군의 공지합동작전 능력이 키워졌으나, 곧바로 단독작전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계속해서 한국공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조종사들의 조종능력이 향상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1952년 10월에 이르러 우리 공군의 전력이 F-51전투기가 40여대에 달하고, 1일 평균 출격횟수 32회라는 전투능력을 갖게 되면서 지상군 전투부대에 대한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1952년 10월 28일부터 한국공군은 단독으로 우선 국군 1군단의 담당전투구역인 동부전선의 지상군전투에 대하여 직접 공중에서 지원을 가하였다.

공군의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공군이 오랜기

간 공지합동작전에 관해 준비하고 훈련한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한국공군 100회 출격 조종사 및 전사자 현황

한국공군의 작전 참여 횟수가 증가하면서 100회 출격 조종사도 계속해서 탄생하였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써 100회 출격은 대단한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공군은 1952년 1월 11일 당시 김두만 중령이 첫 1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한 이후 계속해서 100회 출격 조종사들이 배출되었다.

한국공군은 6·25전쟁 기간 동안 총 39명의 100회 출격 조종사를 배출하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드디어 200회 출격자도 나왔다는 것이다. 유치곤 대위(1953년 7월 당시 계급)는 1951년 10월 11일 출격을 개시한 이래 1952년 4월 29일 100회를 돌파하고, 1953년 5월 30일 출격 200회를 돌파하였다. 유치곤 대위는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203회의 출격회수를 기록했다.[193]

1953년에는 17명의 100회 출격조종사가 새롭게 탄생하였다. 1953년도 100회 출격 조종사 현황은 <표 7-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21> 1953년도 100회 출격 조종사 현황

계급/성명	100회 출격일	최종출격 횟수	계급/성명	100회 출격일	최종출격 횟수
소령/장성태	1953.1.16	113	중위/이찬권	1953.2.16	100
중위/박희곤	1953.1.16	101	중위/김만용	1953.2.16	104
중위/현창건	1953.1.16	112	중위/최순선	1953.2.16	124
중위/이학선	1953.2.16	105	중위/김직한	1953.6.13	109
중위/김필정	1953.2.16	113	중위/권찬식	1953.3.15	114
중위/최성달	1953.4. 8	128	중위/김호연	1953.3.15	108
중위/신관식	1953.2. 6	101	중위/황정덕	1953.3.15	104
중위/임병두	1953.2. 7	100	중위/전형일	1953.3.15	102
중위/조항식	1953.2.16	123			

*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2011, 546-548쪽 표 참조 작성
* 계급 : 1953년 7월 27일 기준

그러나 출격 중 조종사가 전사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졌다. 1953년에는 5명의 조종사가 전사하였다.

<표 7-22> 1953년도 출격 중 전사 조종사 현황

계급/성명	출격횟수	기종	전사일자	전사경위
대위/임택순	11	F-51	1953.3. 6	홍성남방 상공 피탄
대위/장창갑	29		1953.4.23	강릉상공 공중 충돌
중위/서동규	3		1953.4.23	강릉상공 공중 충돌
대위/김현일	6		1953.6.13	고성남방 상공 피탄
대위/고광수	51		1953.7.18	강릉상공 피탄

* 출처 :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257쪽 전사자 명부(전사조종사) 표 참조 작성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953년 1월 1일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유엔군과 공산공군의 운용상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엔공군은 정전협정에서 유엔군 측의 의사관철을 위해 공군력을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한국공군은 휴전회담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공군은 이 기간 동안 조직을 정비하고, 신예 조종사를 양성하였으며 유엔공군의 일원으로써 단독 또는 합동 출격작전을 통해 전투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셋째, 공산공군은 소련공군의 주도하에 작전을 진행하였으나, 소련공군은 소극적 작전을 전개하였고, 중국과 북한은 휴전회담 기간을 자국 공군력 재편과 증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특징들이 실제로는 1953년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기간 중 지속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공산군 측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 유엔 공군력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전선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협상과 결부하여 상대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 측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공군력은 효과적으로 공산군 측에 대한 압력수단이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력수단이었다.

그러나 공군력이 휴전협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의 6·25전쟁관련 책자들에는 유엔공군 작전이 정전회담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1952년 10월 이후 휴회되고 있던 휴전협상의 재개에는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이 결정적인 영향이었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던 유엔공군력 또한 공산군 측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53년도에 전개한 유엔공군의 작전은 협상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엔공군이 1953년 5월 실시한 북한지역 저수지와 댐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군사적 효과에 머물지 않고 북한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산군 측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유엔공군의 공격 목표가 군사 및 일부 산업시설에 집중되었던 데 반해, 1953년도에는 저수지와 댐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홍수로 인한 1차적인 공격효과뿐만 아니라 농사를 중요시 하는 상황에서 농업에까지 피해를 줌으로써 부차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6·25전쟁이 끝난 뒤 미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장군은 유엔공군의 전폭기 공격작전 중에 가장 훌륭했던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1952년 6월에 실시한 수력발전소 폭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53년 5월에 실시한 덕산과 자산저수지 폭격작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194] 이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발전소 폭격으로 인한 전력 손실과 저수지 및 댐에 대한 공격을 통해 농업에 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협상에서 공산군 측을 압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휴전회담 기간 동안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유엔 공군력은 공산군 측에 대한 압력수단이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력수단이었다. 이를 통해 유엔군이 6·25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공군력이 결정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련공군의 작전활동과 중국과 북한공군의 성장

소련은 1950년 11월 제64전투비행군단을 참전시켰다. 제64전투비행군단은 6·25 전쟁기간 150대에서 3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12개 비행사단(29개 전투비행연대)을 교대로 참전시키면서 4만 명이 넘는 병력이 약 9만여 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다. 소련공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산공군의 주력으로써 유엔공군에 대항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중국과 북한공군의 재건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공군은 소련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참전 전 기간에 걸쳐 소극적인 작전활동만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지역은 미그회랑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평안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최대 작전범위도 평양과 원산 이북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작전임무도 방어적으로 한정되어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작전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련공군은 유엔공군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특히 참전초기 독·소전쟁에 참전했던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제트전투기 MiG-15는 유엔공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소련공군은 유엔공군 항공기 1,097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공군의 또 다른 임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공군의 전력재건과 지원임무는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소련공군은 만주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북한공군의 조종사 훈련과 전투기 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공군력이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6·25전쟁을 통해 중국과 북한공군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중국은 휴전 당시 세계 3위의 공군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참전초기 중국공군 전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공중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조종사와 지상지원요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중국공군은 실제로 미 공군이 1일 평균 900소티의 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 1일 평균 50소티의 비행을 실시하는 수준이었다. 유엔공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국면에서 단지 제한적인 방어활동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적극적인 반격능력은 갖추질 못한 상태였다.[195]

그러나 중국공군은 소련의 지원하에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1951년 7월 중국공군은 평양 이북의 교통 운송을 엄호할 수 있는 비행사단이 2개에 불과했지만, 1952년 9월에는 9개 사단 450대의 항공기로 늘어났다. 1952년 10월 중국공군은 다시 성능이 훨씬 뛰어난 MiG-15 전투기를 새로 도입했다.[196] 전쟁이 종료될 시점에는 10개 전투비행사단(21개 비행연대)과 2개 폭격사단(3개 비행연대), 800여명의 조종사, 59,700명의 지상지원 병력이 한반도에서 항공작전에 참여했고 값진 전투경험을 얻었다.[197] 전쟁기간 중 중국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26,491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고 366회 공중전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98] 1953년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전체 중국 공군력의 규모는 27개 비행사단(70개 비행연대)으로 확대되었고 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쟁기간 동안 중국공군이 이룩한 놀라운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공군은 개전초기 유엔공군에 대패하여 괴멸상태에 빠졌었지만,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전선이 안정화되면서 공군 재건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휴전회담기간을 이용해 이전보다 더욱 큰 규모의 공군력을 갖게 되었다.

북한공군이 괴멸되었을 당시인 1950년 10월 9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소련 유학중인 학생들 중 2~300명과 소련계 조선인들 중 2,000명의 조종사를 양성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199] 일정 규모의 조종사가 확보되는 1952년 10월 이후에는 소련으로부터 전투기 등 장비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은 1953년 3월 말에는 3개 전투비행사단, 1개 폭격기 사단, 2개의 독립폭격연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53년 6월 15일에는 병력 10,547명, 항공기 492대(MiG-15bis 110대, MiG-15 39대, La-9 66대, IL-10 55대, IL-28 39대, Tu-2 37대, 기타 146대)를 가진 군대로 재건되었다.[200]

6·25전쟁에서 소련의 가장 생산적인 공헌이 중국공군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시켰고, 최초의 제트전투기 공중전 경험을 갖게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201] 이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의 기여는 중국공군뿐만 아니라 북한공군의 재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6·25전쟁을 통해 자국의 공군력을 성장시킨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6·25전쟁과 한국공군의 성장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공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 병력의 규모와 보유항공기의 증가가 나타났다. 1950년 6월 25일 총병력 1,897명(장교 242, 사병 1,655)이었던 공군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당시에는 11,461명(장교 1,382, 준위 140, 후보생 1,036, 사병 8,903)으로 약 6배 성장하였다.[202] 항공기는 1950년 6월 25일 경비행기 22대(L-4 8대, L-5 4대, T-6 10대)이었으나, 1953년 7월 27일 F-51 78대를 포함하여 총 118대(F-51, T-6, L-4/5 등)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203] 부대규모면에서도 전쟁 전 1개 비행단에 불과했지만, 1953년 2월 제10전투비행단을 창단함으로써 1개의 전투비행단과 1개의 훈련비행단을 갖추게 되었다.

질적 측면으로 6·25전쟁 기간 한국공군의 총 출격횟수는 8,457회였다.[204] 이것은 유엔공군 중 2위의 출격기록이었다. 100회 이상 출격한 조종사가 전체 39명이며, 200회 이상을 출격한 조종사도 한 명이 배출되었다. 또 숫자상의 출격횟수만이 아니라 한국군 단독작전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3년여 간의 전쟁기간 중 한국공군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1951년 10월 10일까지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유엔공군의 전투단위부대로 작전에 참가하지 못했었다. 미 극동공군이 한국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미 제6146기지부대의 조종사들과 함께 출격하면서 교육훈련 및 전투능력 배양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의 성과는 1951년 10월에 이르러 본격적인 전투를 하게 되었고, 이후 휴전 때까지 유엔공군의 전투단위부대로 항공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205]

한국공군은 3대 전과라 할 수 있는 승호리 철교폭파작전(1952.1.15), 평양대폭격

(1952.8.29), 351고지 전투지원작전(1952.10~1953.7)을 비롯한 성공적인 공군작전을 통해 공산군 측의 건물 1,770동, 차량 459대, 우마차 53대, 탄약 및 연료집적소 1,285개소, 철교 및 인도교 124개소, 터널 108개소, 포진지 521개소, 철도차단 1,014개소, 산병호 및 벙커 1,329개소 등을 파괴 또는 파손하고 적병 889명을 사살하였다. 전쟁기간 중 한국공군 조종사들 중 일부는 미 공군대학과 지휘참모대학에 입교하여, 미국식 선진교리를 익힐 수 있었다. 1951년 11월부터 9개월간 김영환 대령을 비롯한 10명의 한국 공군장교가 미 공군대학에 입교하였다.[206]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이 주관한 최초의 에어쇼(Air Show)가 전쟁기간 중에 개최되기도 하였다. 공군은 1952년 10월 1일 미 5공군의 지원을 받아 F-51, F-80, F-84, F-86기와 B-26기 등 40여 대와 한국공군 F-51, T-6기 20여 대로 사천 비행장에서 최초의 에어쇼를 개최하였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등 150여 명의 내빈과 민간인 관람객이 비행기의 묘기와 폭탄투하장면을 보면서 공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207]

전쟁기간 중 총 69대(F-51 전투기 39대, 경량항공기 30대)의 항공기가 전투 중에 파괴되고, 비행훈련 중에 총 48대(F-51 전투기 29대, 경량항공기 19대)가 파괴되었으며, 조종사 39명(전투 22명, 훈련 17명)이 전사 혹은 순직되는 손실[208]도 있었다. 그러나 공군은 이러한 아픔을 딛고 조국 영공 방위의 사명을 갖고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쟁이 끝나고 창군 4주년을 맞이하는 1953년 10월에는 참으로 괄목하다 할 만큼의 성장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6·25전쟁과 공군작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 계속된 6·25전쟁은 공군작전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6·25전쟁은 미국과 소련공군이 직접 충돌했던 첫 전쟁이었다. 1950년 11월

소련공군의 참전으로 6·25전쟁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쟁이 아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으로 변화되었으며, 공군작전에서는 미국과 소련공군의 대결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6·25전쟁을 통해 2차 대전과 독·소전쟁에 참전했던 양국의 전투조종사들이 새로운 전장에서 대결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역사상 첫 제트전투기간의 대결이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이전의 전쟁이 프로펠러 항공기의 대결장이었다면, 6·25전쟁은 미국 F-86 세이버와 소련 MiG-15기라는 제트전투기들이 출현하여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미·소 양 진영의 제트전투기간 대결은 새로운 공중전술을 이끌어 내면서 공군작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로, 6·25전쟁은 현대전에서 공군작전의 중요성이 확고히 부각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공군은 전쟁발발 이후 가장 먼저 한반도에 투입된 미군 전력으로,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항공차단과 폭격작전, 그리고 수송작전을 통해 한반도 전장에 계속해서 병력과 군수물자를 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휴전협상기간 중에는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공군력은 활용되었다.

결론적으로 공군의 역사에서 6·25전쟁은 미·소 공군의 제트전투기간 첫 대결장이자 현대전에서 공군작전의 중요성을 확고히 부각시킨 전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평가와 더불어 6·25전쟁에서 유엔군이 공산군에 맞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공군력이 탁월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 : 이신재)

주(註)

1)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8일 8개 수용소에 포함되어 있던 반공포로를 유엔군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 이를 통해 약 27,000여 명의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2) 이 점에 대해 귀순조종사 노금석은 전쟁 초기에 참전한 소련 조종사들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으나, 이후로는 경험이 부족한 비행사들이 참전했고, 이들은 겨우 '중학생들이요 주정뱅이였다'라고 표현하였다. 『국민보(國民報)』, 1954년 6월 2일자.
3)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2002, 609쪽.
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464쪽.
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2012, 607쪽.
6) 위의 책, 607쪽.
7) 전쟁기간 중 북한과 중국의 연합공군사령부는 미 공군부대들의 무선교신을 감청하는 부대를 조직하였는데, 이 부대의 임무는 유엔공군 항공기의 비행준비 및 이륙, 비행활동 등을 탐지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265쪽.
8)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09쪽.
9) 위의 책, 606쪽.
10) 위의 책, 606쪽.
11) 김일성은 1950년 12월 29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238호를 통해 "비행기 사냥군조를 조직할 데 대하여"를 발표했다. 김일성, 『김일성 전집』 제1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501-502쪽. 한편 북한 노동신문에는 1951년 3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약 35건의 적기(유엔공군기)격추 및 '사냥군조'의 활약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12)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543쪽.
13) 위의 책, 543쪽. 1952년 6월 수풍발전소와 1952년 7월 평양폭격이 단행된 것은 이런 유엔군사령부 지휘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공산군의 동력원이 되는 수풍발전소 폭격은 3일간 계속되어 북한 전 지역은 2주간 송전이 중단되었고, 중공 역시 만주지역 전력 수요량의 23%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244쪽.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9권』, 1976, 23쪽.
1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91, 231쪽. 당시 유엔해군의 함재기를 이용한 공격작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서 제6장 해군작전의 체로키(Cherokee) 폭격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16) 공군본부, 『항공전사 - 한국전쟁-』, 1989, 232쪽.
17) 위의 책, 215쪽.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133쪽.
19) 위의 책, 451-463쪽.
20) 안둥(安東)은 현재 중국 단둥(丹東)의 옛 이름으로 1965년 개명되었음.
21)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617쪽.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454쪽.
23) 위의 책, 457쪽.
24) 위의 책, 457쪽.
25) 위의 책, 456쪽.
26) 위의 책, 462-463쪽.

27) 위의 책, 447쪽.
28)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663쪽 재인용.
29)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p.141.
30) *Ibid.,* p.141.
31)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 663쪽.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 1953년도는 개인적으로 전투기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 되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32) 이점에서 소련공군 조종사와 방공포 요원의 업적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과 비교하여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 Xiaoming Zhang, *Op. Cit.,* p.142.
33) Robert F. Rutrell, *The United Sta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Revised Edition,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Washington, 1983, p.487(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 662쪽 재인용)
34)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 671-672쪽.
35) Xiaoming Zhang, *Op. Cit.,* p.142.
36)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 661쪽.
37) 위의 책, 665쪽 재인용.
38) 국사편찬위원회 편,『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448쪽.
39) Xiaoming Zhang, *Op. Cit.,* p.141.
40) *Ibid.,* p.138.
4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313쪽.
4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476쪽.
43) Xiaoming Zhang, *Op. Cit.,* p.141.
44)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 660-661쪽.
45) Xiaoming Zhang, *Op. Cit.,* p.141.
4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32-533쪽.
47) 위의 책, 557쪽.
48) 위의 책, 555-556쪽.
49) 위의 책, 554쪽.
50) 위의 책, 556쪽.
51) Xiaoming Zhang, *Op. Cit.,* p.191.
5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56쪽.
53) 위의 책, 556쪽.
54) Xiaoming Zhang, *Op. Cit.,* p.192.
55) *Ibid.,* p.193.
56) *Ibid.,* p.193.
57) *Ibid.,* p.194.
58) *Ibid.,* p.194.
59) *Ibid.,* p.195.

6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470쪽.
61) 위의 책, 470쪽.
62) 위의 책, 556쪽.
63) Xiaoming Zhang, *Op. Cit.,* p.202.
64) *Ibid.,* p.201.
6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607쪽.
66) 재편과정에서 남은 구형 전력인 Yak-18과 PO-2로 구성된 제2독립폭격연대는 야간폭격능력을 보유하고자 창설되었으나, 전쟁기간 중 PO-2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했다.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607쪽.
67)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1953.4.3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629-630쪽.
68) 위의 책, 623쪽, 626쪽.
69)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 McFarland& Company, Inc., 1996, pp.96-97.
70) *Ibid.,* p.106.
71) 참고적으로, 1950년 8월 4일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은 워커 장군에게 보낸 전문에서 공산군에 밀려 대구기지가 사용될 수 없을 경우 일본 큐슈에서 이륙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내 기지에서 이륙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3배나 떨어진다고 했다. 공군본부 역,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99쪽. 이 말은 역으로 공산공군이 만주지역에서 이륙해 전선까지 내려와 작전하는 것이 대단한 작전 제약요소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72) 태천과 남시 비행장 건설은 85mm포 32문, 37mm포 28문으로 무장한 8개 포병중대로 구성된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 1개 고사포연대에 의해 방호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제18비행기동사단 지원업무 종결보고 1951년 6월-1953년 9월』, 2011, 53쪽.
73) 구소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 비행장 복구작업 시 유엔공군의 활동이 잘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건설 또는 복원의 제1단계에서 유엔공군은 단독이나 항공기 4~12대(B-26, F-80, F-84, F-51 유형)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으로 주·야 공습을 실행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비행장을 파괴하지 않은 채 공중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며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개별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제2단계에서는 비행장 건설이 완공에 다다르거나 혹은 완공시점에 항공기 6~12대를 동원해 주·야간 공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때때로 대규모 B-29가 비행장 완파목적으로 투입되기도 했다. 체계적인 습격작전과 주·야간 적 비행대의 공습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개별성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생산성은 축소시켰다고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제18비행기동사단 지원업무 종결보고 1951년 6월-1953년 9월』, 51쪽.
74) 위의 책, 39쪽.
75)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제10권』, 601쪽.
76)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Op. Cit.,* p.135.
77)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72쪽.
78) 아바쿠모프 보리스 세르게예비치 저, 공군본부 역, 『소련 MiG-15 조종사의 한국전쟁 회고』, 2004, 121쪽.
79)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72쪽.
80)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72쪽.

81) 위의 책, 673쪽.
82) 위의 책, 673쪽.
83) 위의 책, 673쪽.
84) 위의 책, 674쪽.
85) 위의 책, 674쪽.
86) 위의 책, 674쪽.
87) 위의 책, 675쪽.
88) 위의 책, 675쪽.
89) Xiaoming Zhang, *Op. Cit.*, p.202.
90) *Ibid.,* p.202.
91) 미 제5공군사령관 앤더슨 장군(General Anderson)은 F-86F 전투기에 대해 6·25전쟁에서 사용한 미 공군의 다른 어떤 전폭기보다 우수한 전폭기(fighter-bomber)라고 평가했다. Robert F. R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639.
92)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29쪽.
93) 미 공군은 6·25 전쟁에서 3종류의 F-86 전투기를 선보였다. F-86A, F-86E, F-86F가 그것이다. 공군본부 역, 『6·25전쟁 연합항공전사 1950-1953(원제: Coalition Air Warfare in the Korean War 1950-1953)』, 2013, 69-70쪽.
94)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38쪽.
95) F-51전투기는 제2차 세계대전시 유럽과 태평양상공을 주름잡으며 미 공군의 긍지를 대변했으나, F-51은 1953년 1월 23일부로 미 공군의 전투부대에서 완전 퇴역했으며, 대부분 한국공군으로 이관되었다.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38쪽.
96)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40쪽.
97) 군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10권』, 645쪽.
98) 위의 책, 645쪽.
99)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35-636쪽.
100) 군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10권』, 645쪽.
101)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39쪽.
102) 위의 책, 641쪽
103) 극동공군은 1952년 8월까지 극동공군 제4, 51전투요격비행단을 2개의 F-86으로 기종전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104) 여기에 인용된 유엔공군 비행관련 통계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미 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를 인용한 것이며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주(註)로 처리하였음.
105) 프롭(prop)전투기는 통상 프로펠러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를 말한다.
106) 이 분야는 미 공군 역사 연구소(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에서 2000년도 발행한 A. Timothy Warnock Editor, *The U.S. Air Force's First War: Korea 1950~1953 Significant Event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2000을 참조하여 발췌, 요약하였음.
107) *Ibid.,* pp.53-54.
108) *Ibid.,* p.54.

109)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54.
110) 전쟁기간 중 북한과 중국의 연합공군사령부가 미 공군부대들의 무선교신을 감청하는 부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앞서 기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65쪽을 참고바람.
111)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54-55.
112) *Ibid.,* pp.54-55.
113) 물라계획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술하였음.
114)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58-59.
115) *Ibid.,* pp.59-60.
116) *Ibid.,* pp.60-61.
117) *Ibid.,* pp.62-63.
118) *Ibid.,* pp.62-63.
119) 스포트라이트 작전은 B-26 등의 경폭격기가 야간에 운행 중인 적의 기차를 공격하는 작전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603쪽.
120)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52.
121) *Ibid.,* p.53.
122) *Ibid.,* pp.52-53.
123) *Ibid.,* p.53
124) *Ibid.,* p.54.
125) *Ibid.,* p.54.
126) *Ibid.,* p.53.
127) *Ibid.,* p.55.
128) *Ibid.,* p.56.
129)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443쪽.
130)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56-57.
131) *Ibid.,* pp.57-58.
132) Robert F. Rutrell, *The United Sta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626.
133) *Ibid..,* pp.626-627.
134) *Ibid.,* p.627.
135) 실제로 김일성은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철도가 파괴되는 것에 대비하여 전쟁초기 철도 복구사업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교통성 산하에 '전시철도복구연대'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각 철도관리국에 두 개씩 조직되어 중요지점에 배치되었다. 철도복구연대 대원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실제 군대와 같이 견장을 달게 하여 군사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 신속한 철도복구를 위해 "철교근방에 나무로 우회교량을 설치하고, 미리 도하기재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철도복구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하라고 강조하였었다. 김일성, "전시철도복구련대를 조직할 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한 결론 1950년 7월 8일)", 『김일성 전집 제1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05-106쪽.
136)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80쪽.
137)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60-62.
138) *Ibid.,* pp.62-63.

139) *Ibid.,* p.52.
140)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54.
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9권』, 1976, 24쪽.
142)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58.
143) *Ibid.,* p.59.
144) *Ibid.,* pp.60-61.
145) 공군본부, 『UN 공군사(하)』, 1978, 382쪽
146) 위의 책, 383쪽
147)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52-53.
148) *Ibid.,* p.55.
149) *Ibid.,* p.56.
150) *Ibid.,* p.58.
151) *Ibid.,* pp.59-60.
152) *Ibid.,* pp.61-62.
153) 물라작전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UN 공군사 (하)』, 101-102쪽을 요약하였음. Moolah는 미국 속어로 돈(money)을 의미한다.
154) 유엔군 측에서 MiG-15를 입수하기 위한 작전은 이전에도 시도되었다. 1951년 4월 중순, 미 C-119 수송기가 80여대의 전투기들의 호위하에 북한 군우리지역에서 추락한 MiG-15를 분해, 엔진, 분사구, 통신기 등 주요 부품을 수집해 와서 MiG-15의 성능을 분석한 경우가 있었다. 윤일균, 『한·미 합동첩보비화 6006부대』, 한국학술정보, 2006), 25-26쪽. 그러나 물라작전은 북한 조종사로 하여금 MiG와 함께 귀순을 목적으로 했고 그것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5) 공군본부, 『6·25 전쟁의 기억(호주 공군)』, 2010.
156) 공군본부, 『6·25 전쟁의 기억(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2010.
157) 공군본부, 『6·25 전쟁의 기억(캐나다 공군)』, 2010.
158) 공군본부, 『6·25 전쟁의 기억(그리스 공군)』, 2010.
159) 공군본부, 『6·25 전쟁의 기억(태국 공군)』, 2010.
160)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215쪽.
161) 제10전투비행단은 1954년 10월 수원기지(K-13)로 이전하여 2013년 현재까지 수도권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62)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215쪽.
163)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량 장군의 일대기』, 163쪽.
164)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38쪽.
16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2011, 344쪽.
166) 장지량, 위의 책, 183쪽.
167) 공군본부, 『공군사 1집 개정판』, 338쪽.
16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91, 228쪽; 공군본부, 『공군사 1집 개정판』, 338쪽.
16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31쪽.
170) 위의 책, 230쪽.
171) 위의 책, 235쪽.

172) 위의 책, 235쪽;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59쪽.
17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35쪽;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49쪽, 359쪽.
174)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39쪽.
17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35쪽;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60쪽.
176)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36쪽;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61-362쪽.
177)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230쪽;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62-363쪽.
17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62쪽.
179) 위의 책, 363쪽.
18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36쪽.
181) 이는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에 대한 공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18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56쪽.
18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39쪽.
184) 위의 책, 240쪽.
185) 위의 책, 240쪽.
186) 위의 책, 241쪽.
187)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51쪽.
188)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714쪽.
18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223-224쪽.
19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30-332쪽
19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28쪽
19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개정판』, 330쪽
19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434쪽 표 참조 작성.
194)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680쪽.
195) Xiaoming Zhang, *Op. Cit.*, p.204.
19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396쪽.
197) Xiaoming Zhang, *Op. Cit.*, p.202.
198) *Ibid.,* p.201.
19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172쪽.
200) 위의 책, 642-644쪽.
201) Xiaoming Zhang, *Op. Cit.*, p.142.
202) 공군본부, 『항공전사 - 한국전쟁-』, 216쪽.
203) 위의 책, 217-218쪽.
204) 위의 책, 1989, 233쪽.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방차단작전 5,337회(63%), 근접지원작전 2,656회(31.2%), 대지공격 258회(3%), 공비토벌 198회(2.5%), 기타 46회(0.5%)였다.
205) 공군본부, 『항공전사 - 한국전쟁-』, 230쪽.
206) 장지량, 『위의 책, 158-159쪽.
207) 위의 책, 160-163쪽.
208) 공군본부, 『항공전사 - 한국전쟁-』, 231쪽.

제 8 장 정전협정 조인과 전후처리

제 1 절	정전협정 조인과 정전체제 구축
제 2 절	포로송환과 실향민 귀향
제 3 절	유엔의 조치와 제네바 정치회담
제 4 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정전협정 조인과 정전체제 구축

1. 정전협정 조인

1)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정전협정 합의

1953년 6월 말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때까지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경무대에서는 한미 양국이 휴전에 따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향후 정치회담 문제를 놓고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판문점에서는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석방 문제로 휴전회담이 휴회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전선에서는 공산군의 7월 13일 최후공세로 인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휴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러한 문제는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갔다.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은 7월 11일, 한국이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에 합의하게 됨으로써 타결을 보았다. 휴전회담 재개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의 노력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6월 29일에 정전협정 조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담 재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공산군사령관에게 보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공산군 측에게 한국 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과 석방된 반공포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산군 측은 그로부터 10일 뒤인 7월 8일, 유엔군사령관의 서신에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유엔군 측 제안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나, 조기 휴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군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측의 대표단이 약속된 시간에 만나 정전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와 정전협정 서명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토의하는데 동의한다.”[1)]

수석대표 남일(南日)은 반공포로석방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

다. 그는 석방된 모든 포로의 회수를 주장하며 유엔군 측을 비난하였고, 향후 한국 정부의 정전협정 준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남일은 유엔군 측에게 정전협정의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 만일 휴전협정에 '남한' 정부와 한국 군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엔군사령부 대표들이 휴전에 조인한다 해도 한국전쟁은 사실상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므로 정전협정이 참다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해서 확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책임은 불가피하게 귀측에 있다.[2]

판문점에 있는 휴전회담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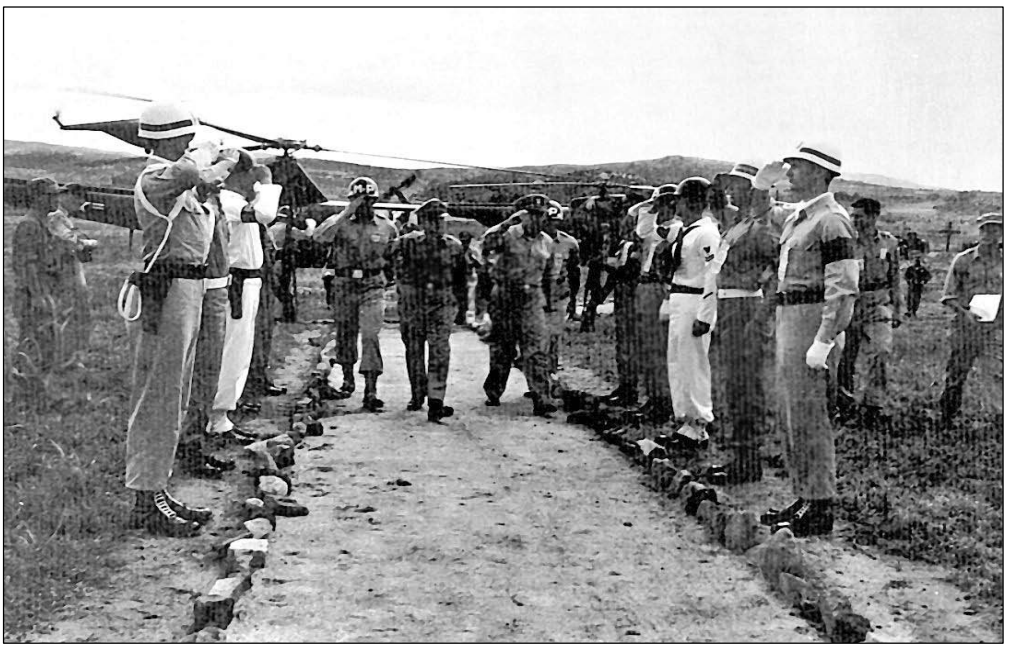
이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은 "유엔군사령부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 범위 내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보장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3]

현재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는 휴전 후에도 현 상태로 있을 것이다.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제반 지시사항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현재 전개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할 것이다.
클라크 장군이 6월 29일의 서한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량 범위 내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4]

공산군 측은 다음날인 7월 11일 회담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성명이 모순투성이며 불만족스럽다."며 비난하였다. 해리슨 대표도 공산군 측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 측이 정전협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은 유엔군의 내부문제라며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한국군이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할 경우, 유엔군사령부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5]

해리슨 대표는 7월 12일, 이승만-로버트슨 간의 회담 결과가 발표되자 공산군 측에게 휴전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공산군 측에게 7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서한에서 밝힌 바 있는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에 관한 제반규정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산군 측을 안심시키려 노력하였다.[6]

해리슨 대표는 계속해서 휴전에 따른 공산군 측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적대행위 종료 후 미국과의 공동목표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는 보장을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에서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귀측은 한국군을 통제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휴전조항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조인을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7]



휴전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의장대의 경례를 받고 있는 해리슨 유엔군측 수석대표

하지만 공산군 측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유엔군 측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하였다. 공산군 측의 요구사항에는 석방된 반공포로의 송환과 이승만 대통령이 "90일 동안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한 7월 11일자 미국 신문기사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포함되었다. 해리슨 수석대표는 불확실한 신문의 내용보다 유엔군 측 대표의 말을 믿으라고 하였다.[8)]

7월 14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의 요구사항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공산군이 전선에서는 공세를 펴면서, 회담장에서는 사소한 문제를 들고 나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클라크 장군은 해리슨 수석대표에게 "공산군 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담을 지연시키면 퇴장을 해도 좋다."고 지시하였다. 7월 15일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려 하자, 유엔군 측 대표들은 "전선에서 공산군의 공세에 비

추어볼 때, 휴전회담에 성의가 없다."며 퇴장하였다.[9] 그때 중국은 "정전협정 이전에 현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승만 군대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10]

유엔군 측의 태도에 공산군 측은 다음날인 7월 16일에 2일간의 휴회를 제의하였다. 이에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해리슨 대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문산기지를 방문하였다. 해리슨 대표와의 회동에서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석방된 반공포로의 재수감과 휴전에 따른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확실히 보장하라는 공산군 측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 측의 휴회 제의에 동의하면서 유엔군 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유엔군사령부는 귀측에 6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의 모든 조항을 협의하고 이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정을 맺지 않는다. 이것이 귀측을 위한 충분한 보장(assurances)이다.
> 그렇지만 본관은 귀측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전협정 초안의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 본관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만일 귀측이 진실로 휴전을 원한다면, 잘못 보도된 신문기사를 근거로 휴전을 지연시키거나 전투를 계속하지 말고, 유엔군사령관의 입장을 지금 당장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11]

양측의 휴전대표들이 7월 19일, 판문점에 다시 모였을 때 공산군의 공세도 중단되었다. 이에 전선도 안정되었다. 공산군 측의 수석대표 남일은 "유엔군 측 태도에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전을 빨리 타결하기 위해 언제라도 최종적인 합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12]

공산군 측의 수락으로 양측 대표들은 휴전을 위한 마지막 토의에 들어갔다.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조인 일자를 최근의 전선 상황을 반영하여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수정한 다음 결정하자고 하였다. 이에 해리슨 대표는 군사분계선 수

정과 관계없이 이를 결정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휴전일자를 7월 24일로 정하고, 정전 발효일시는 정전협정 조인 후 12시간으로 하자고 공산군 측에 제의하였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은 연락장교들에게 세부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제들을 위임한 후 회의를 마쳤다.[13]

이때 양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네 가지였다. 첫째,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치 문제. 둘째, 송환불원포로들의 인도장소 문제. 셋째,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설치될 각종 위원회의 활동 개시에 관한 문제. 넷째, 정전협정 문서의 조인을 위한 준비사항이었다.

군사분계선 수정작업은 그 동안 전선에 커다란 변동이 없었던 관계로 접촉선을 결정하기가 용이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7월 13일, 중공군의 공세로 전선지역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복잡하게 되었다. 양측의 연락장교들은 7월 20일, 군사분계선 수정을 놓고 토의하였다. 양측은 군사분계선을 다시 확정하기 위해 지도를 교환하였다.[14]

다음날인 7월 21일, 양측의 연락장교들은 정전협정 관련서류를 교환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수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도에는 수정된 최종 군사분계선을 아직 표시하지 못하였다. 7월 22일 유엔군 측은 일괄타결안을 제시하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즉, 유엔군 측은 포로 인도(引導) 장소로 비무장남쪽 지대를 원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 발효 이전에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공산포로들을 비무장지대 남쪽지역에서 포로송환위원회에 인계할 것을 제의하였다. 공산군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포로인도 장소가 비무장 남쪽지역으로 결정되자, 이제 남은 문제는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 현황이었다. 양측은 본국으로 송환될 포로 현황과 송환위원회에 인계될 정확한 포로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측은 7월 22일, 자신들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 숫자를 밝혔다. 유엔군 측은 북한군 포로 69,000명과 중공군 포로 5,000명을 공산군 측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가 있는데, 중공군이 14,500명이고 북한군이 7,800명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에게 통보한 포로현황은 미군이 3,313명이고 국군이 8,186명으로 총 12,746명이었다.[15] 공산군 측이 발표한 포로현황은 유엔군 측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발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양측은 포로 숫자를 확인한 후 하루에 교환할 포로 숫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토의하였다. 포로교환 비율은 양측의 수송수단(transportation facilities)이나 행정능력(administrative capacity)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었다. 유엔군 측은 하루에 상병포로(傷病捕虜) 360명을 포함해서 1,800명 정도의 포로를 교환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에게 하루에 상병포로 외에 3,000명의 포로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공산군 측은 자신들은 수용시설이 빈약하고 포로수용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0명만 보내 줄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공산군 측의 요구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자체의 능력을 다시 평가한 결과, 상병포로 360명을 포함하여 하루에 2,400명 정도의 포로를 판문점까지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산군 측에게 통보하였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1일 포로송환 숫자를 늘리지 않았다.[16]

또한 유엔군 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준비로서 제반 규칙과 운용세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공산군 측에 제시하였다. 공산군 측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조속한 타결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3일까지 휴전과 관련된 장애물들이 거의 처리되었다. 이는 양측의 주목을 끌었던 군사분계선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이다.[17]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 서명에는 양측의 최고사령관이 서명할 것을 공산군 측에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한국의 태도로 보아 양측의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들은 자신들의 사령부에서 서명한 다음, 그 정전 협정서를 판문점으로 보내 수석대표들이 '부서(countersign, 副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해리슨 수석대표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18]

공산군 측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7월 24일, 공산군 측은 “양측의 최고사령관이 판문점에서 서명할 경우, 한국과 자유중국의 신문특파원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였다.[19] 이에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해리슨 수석대표에게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는 모든 특파원들의 참가를 주장하라.”고 지시하였다.[20]

이와 관련하여 소련 정부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서를 교환할 때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참석치 않도록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1]

7월 25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그럴 경우 자신은 판문점의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고, 도쿄의 유엔군사령부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하였다. 워싱턴에서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 영토에서 서명하기를 바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22]

공산군 측도 이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유엔군 측은 서명 방식을 놓고 회담을 결렬시킬 수는 없었다. 결국 공산군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23]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하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으로 가서 정전협정에 조인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양측은 서명방식에 합의하였다. 정전협정 조인식은 휴전회담 수석대표자들이 판문점에서 먼저 하고나면, 양측의 최고사령관들이 그 다음에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정전협정에 따른 최종합의 및 준비로 인해 정전협정 서명일이 최초 7월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전협정 조인일시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하고, 발효시점은 이날 22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24]

클라크 장군은 유엔군 부대에 27일 10시부터 12시간 동안, 해군과 공군의 계획된 작전 그리고 지상에서의 진지 유지와 부대의 보존 상태만을 확인하는 데에 국한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27일 22시 01분부터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다.[25]

2) 정전협정 조인과 전선 상황

1953년 7월 27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3년 1개월 2일째가 되는 날이고,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개시한지 2년 18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27일 09시 57분, 이제까지 본회의를 주관해 왔던 양측의 휴전회담 수석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회의장의 반대쪽에서 각각 자리에 앉았다.

최초 정전협정 조인식을 하게 될 식장의 벽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비둘기가 그려져 있었고, 출입구는 북쪽에만 하나를 설치하였다. 이는 유엔군 측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려면 공산군 측 구역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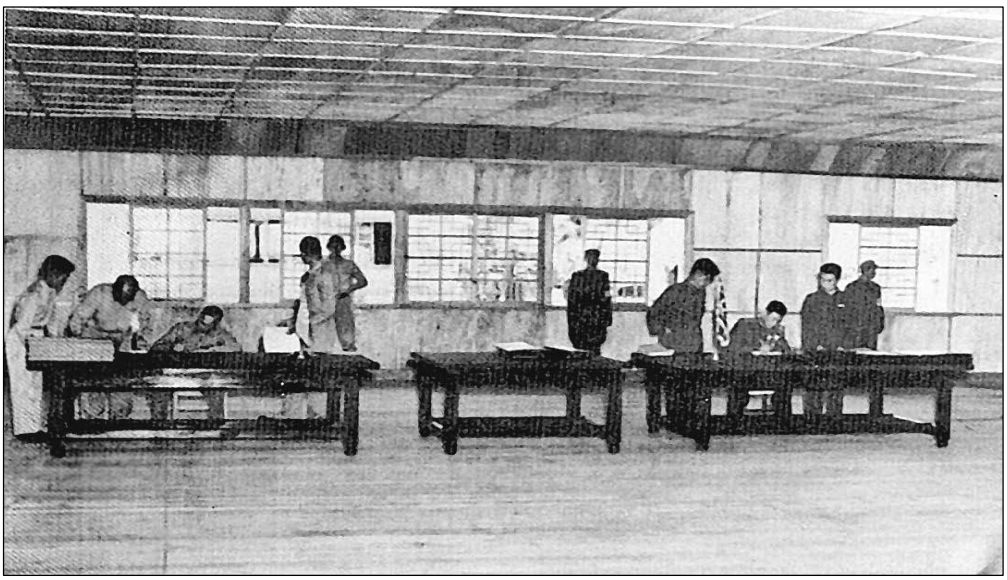
공산군 측의 의도를 눈치 챈, 유엔군 측에서는 비둘기 그림의 제거와 남쪽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27] 이처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조인식에서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급한 행동을 보였다.

정전협정 조인식 당일인 7월 27일, 휴전 회담 대표들이 앉은 책상 위에는 정전협정문을 비롯하여 첨부문건인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범위'와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이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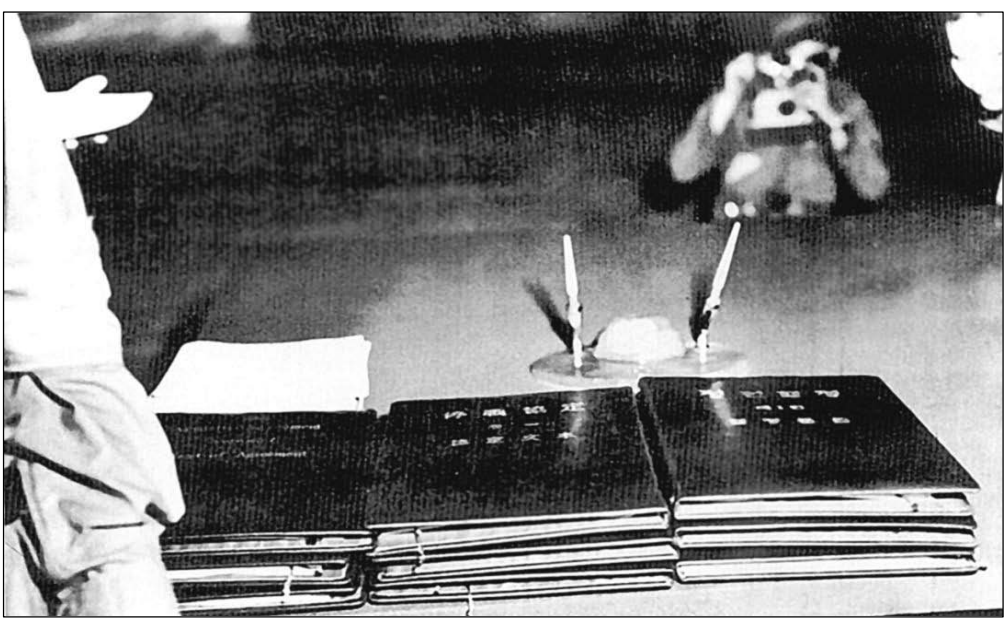
이들 문서는 모두 18부로 영문(英文) 6부, 중문(中文) 6부, 그리고 국문(國文) 6부로 되어 있었다. 서명은 휴전회담 수석대표들이 각각 9부씩하고 난 다음 서로 교환하여 다시 9부씩 교환하는 방식이었다.[28]

양측의 수석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단 한마디의 인사말도 나누지 않았다. 10시 12분 조인을 마치고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이 먼저 헬리콥터를 타고 판문점을 출발하였다.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과 그 일행은 소련제 지프차에 나누어 탄 후 판문점을 떠났다.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양측의 수석대표들(왼쪽이 해리슨, 오른쪽이 남일)



영어·중국어·한글로 된 정전협정 문서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그 옆이 클라크 극동해군사령관)

양측의 수석대표들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문산에서 한국의 휴전회담 대표와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 극동해군사령관 클라크 제독,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장군의 배석하에 유엔군 측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29] 다음은 클라크 장군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할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내용이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에게 정전협정 문서 서명을 도쿄에 있는 사령부에서 하지 말고 '한국땅(korean soil)'에 가서 하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 북방에 있는 문산으로 날아갔다. 문산은 유엔회담 대표단의 숙소가 있는 우리의 전진기지였다. 우리의 사무소는 어느 사과 과수원 속에 저라잡고 있었다. 정전협정 조인식이 끝난 후 꼭 3시간이 지나서 나는 문산의 한 극장으로 안내되었다. 그 극장은 장교들과 사병들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57명의 유엔종군기자, 20명

의 사진기자, 5명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아나운서들이 있었다. 특히 여기에는 5월 25일 이후 휴전회담에 불참하고 있던 한국의 최덕신 대표도 있었다.

나는 무대 앞에 놓인 책상으로 안내되었다. 나는 파커 만년필을 꺼냈다. 그 만년필은 한국의 정전협정 조인에 사용하도록 파커회사(Parker Company)에서 나에게 기증한 것이다. 조명등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장식하기라도 하듯 집중하였다. 카메라맨들의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터졌다.

나는 파커(Parker)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다. 그 다음 정전협정 문서에 유엔군사령관(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마크 W. 클라크를 18번이나 쓰고 서명하였다. 그렇다. 이 순간 나는 미완성의 역사 한 페이지에 종지부 아닌 종지부를 찍고 있다.

나는 서명이 끝나자 비로소 임무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성명서를 즉시 발표하였다. "본관은 이 순간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휴전이야말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 보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30]

공산군 측도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7월 27일 22시에 평양에서 서명하였고, 중공군의 펑더화이는 그 다음날 서명하였다. 펑더화이는 정전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7월 27일 오후, 북한군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을 대동하고 개성에 도착하여 내봉장(來鳳莊)에서 투숙한 후, 그 다음날인 28일 09시 30분에 내봉장에서 서명하였다.[31] 이로써 양측에 의한 정전협정 조인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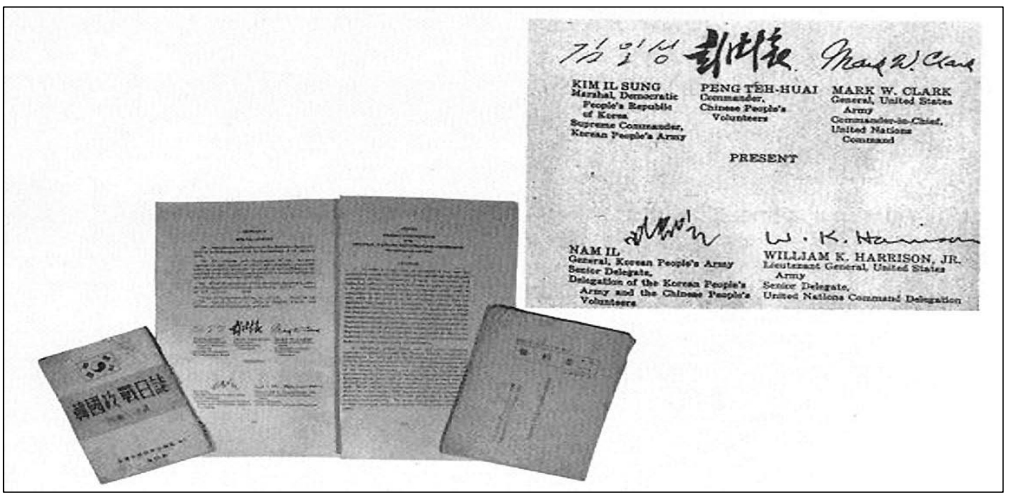
정전협정 조인 직후 지상에서의 모든 전투는 중단되었지만 포격전만은 계속되었다. 유엔군 전폭기들은 정전감시단이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공산군의 제반 전투력을 조금이라도 더 감소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비행장·철로·도로 등을 강타하였다. 해상에서도 유엔군 해군 전함들이 고성과 원산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22시가 되자 한반도 전역에서는 포성이 멎었고, 37개월간의 전투가 그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32]

한편 정전협정 조인시 양측의 전세는 지상군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해군이 북한지역의 전략도서까지 확보함으로써 해상을 완전봉쇄하고 있었다. 유엔공군도 '미그회랑'을 제외한 모든 공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195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1953년 7월 28일, 개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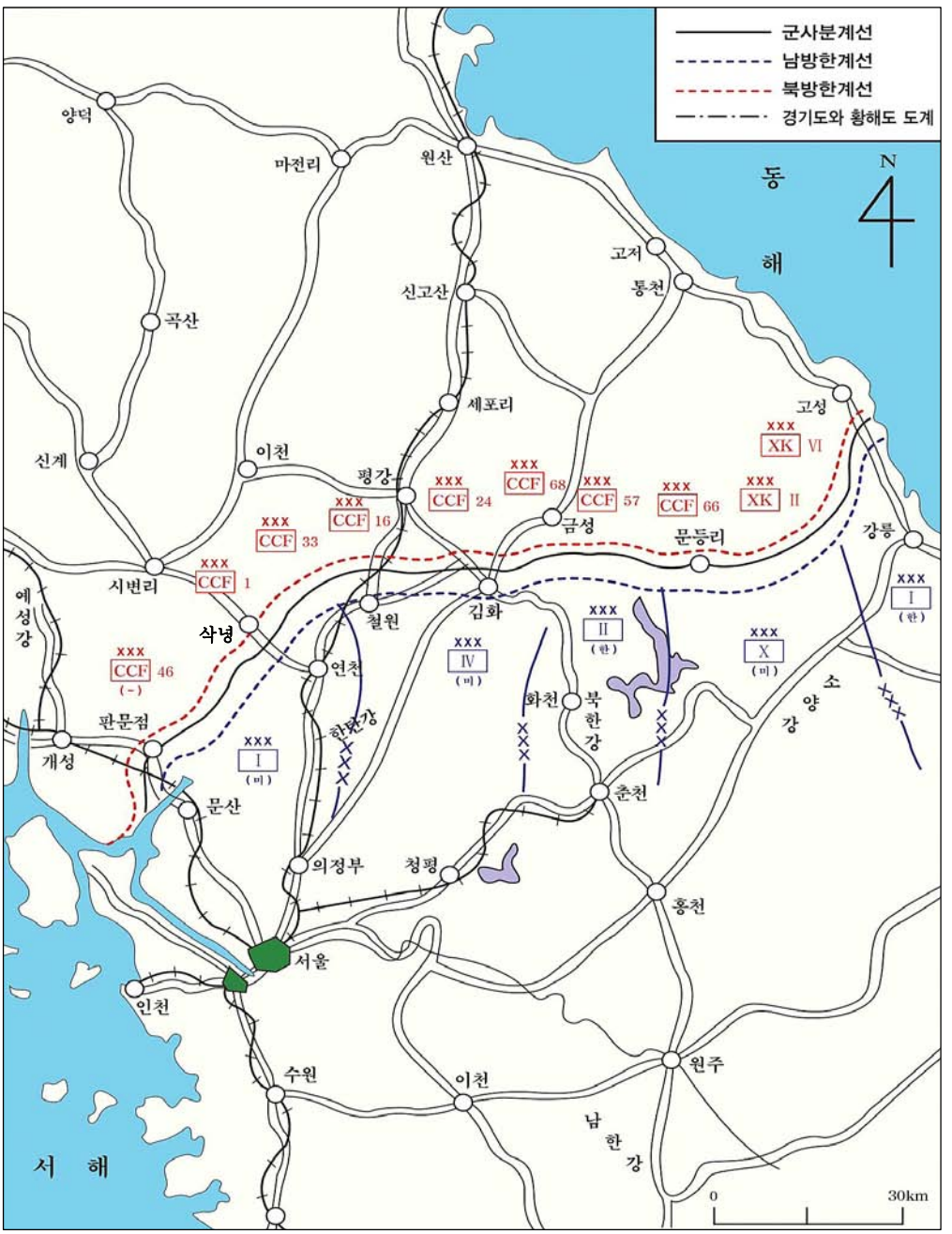
정전협정에 최종 서명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및 사령관의 서명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의 지상 전력은 국군을 포함하여 92만 명에 달하였고, 공산군은 북한군과 중공군을 합쳐 180만 명에 달하였다. 정전협정 당시 양측의 군사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1> 정전협정 당시 양측의 군사력 비교[33]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중공군		
국군	지상군	·3개 군단, 18개 사단 : 554,267명 ·해병 1개 연대전투단 : 22,174명 ·소계 : 576,441명	북한군	지상군	·6개 군단 18개 사단 ·7개 보병여단 ·7개 전차연대(+) ·45만명
	해 군	·1개 함대(57척) : 15,000명		해군	·발동선 24척 ·4,442명
	공 군	·1개 전투비행단 ·1개 훈련비행단 ·항공기: 110대 ·병력 11,461명		공군	·6개 사단 ·항공기 : 489대 ·병력 : 19,350명
	총병력	602,902명		총병력	473,792명
유엔군	지상군	·3개 군단 8개 보병사단 ·1개 해병사단 ·병력 : 341,628명	중공군	지상군	·19개군 58개 보병사단 ·병력 : 135만명

<상황도 8-1> 정전협정시 군사분계선 및 피아배치 상황



야전의 전투현장에서 정전협정 조인 소식을 듣고 있는 미군 병사들(1953년 7월 27일)

이처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한반도 내의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군사력은 약 300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는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여운을 남겨 놓고 있었다.

3) 정전협정 조인 후 한국 정부와 유엔의 반응과 조치

정전협정 체결을 놓고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국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전쟁당사국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정전이었다.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27日上午十時에休戰調印

12時間後協定發效

크라크司令官26日聲明發表

調印前에李大統領禮訪

크將軍一行26日午下空路來韓

정전협정 조인을 알리고 있는 국내의 신문보도(12시간 후 협정의 효력을 동시에 보도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수석대표들 사이에 정전협정 조인식이 있은 지 2시간 후에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정전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정치회담 기간 동안만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공산압제하의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요지의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였다.

> 나는 정전(停戰)이라는 것이 결코 싸움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게 하고, 고난과 파괴를 더 하게 하며, 전쟁과 파괴적 행동으로 공산군 측이 더욱 전진하여 오게 되는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정전에 조인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나는 정전의 결과에 대한 나의 그동안의 판단이 옳지 않았기를 바란다. 한국의 해방과 통일문제를 평화리에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에 도달된 합의는 양국의 공동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남한의 부흥은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공산측은 북한을 위하여 이만한 일을 할 것인가? 차후도 당분간 공산압제 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될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민족의 기본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유엔은 이 목표를 위해 확약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정책을 변경하여 정전을 방해치 않기로 하였는가 하는 상세한 설명은 차후 발표될 것이다.[34]

한국 국민들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부모형제들을 잃고 집과 재산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전선에서의 국군장병들과 후방에서 휴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던 어린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전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도 "한국의 휴전성립을 환영하며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전진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전협정 조인과 한국에서의 정전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성명 내용이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한국에서 약 1시간 전에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조인되었다는 정식보고를 기도와 감사로써 맞이한다. 이 정전협정 조인은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조속한 전투종결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침략을 격퇴하는 대가는 막대하였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유엔이 강경한 말로써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태도를 가진 행동으로써 침략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특히 지대한 업적을

남긴 한국군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당시의 연설 끝에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이 지금까지 필설(筆舌)로 표현된 어느 말보다도 오늘 밤 우리 미국 국민들의 진실한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링컨은 연설 말미에서 "우리는 무엇에나 모든 것에 자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자유와 또한 전 세계인들이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도록 부과된 성업을 성취하도록 하자."고 말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결의이며 각오이다.[35]

또한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유엔참전 회원국들도 7월 27일, 워싱턴에서 공산군의 새로운 침략을 억제할 목적으로 '대제재(大制裁, Greater Sanctions)' 선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대제재 선언에 서명한 각국의 대표들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펜더(Percy C. Spender), 에티오피아의 테세마(A. Tesemma), 네덜란드의 로이젠(H. Van Roijen), 터키의 에르킨(Feidun C. Erkin), 벨기에의 실베르크루스(Silvercruys), 프랑스의 보넷(H. Bonnet), 뉴질랜드의 문로(L. K. Munro), 남아공화국의 주스테(G. P. Jooste), 캐나다의 롱(H. H. Wrong), 그리스의 폴리티스(A. G. Politis), 필리핀의 감보아(Melquiades J. Gamboa), 영국의 매킨스(Roger Makins), 콜롬비아의 레스트레포(Cipriano Restrepo J.), 룩셈부르크의 갈레(Hugues le Gallais), 타이의 사라신(P. Sarasin), 미국의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이었다.[36]

이는 한국에서 공산군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유엔회원국들은 공동으로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이것은 공산군 측에 대한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회원들의 침략방지를 위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하지만 대제재선언문은 서명한지 20여 일이 지난 8월 7일에야 워싱턴에서 '공동정책선언(Joint Policy Declaration)'으로 발표되었다. 다음은 유엔군사령부의 '유엔특별보고서(a special UN report)'에 포함되어 발표된 공동정책선언 내용이다.

>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 유엔 회원국(United Nations Members)들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체결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기서 정전협정 조항을 완전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확인한다.
> 정전협정의 상대방도 우리처럼 그 조항들을 양심껏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유엔의 원칙과 목적을 믿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自覺)하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문제 해결을 성실하게 추구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해, 만일 유엔의 원칙에 재도전하는 무력공격이 재발한다면 다시 단합하여 신속히 저항할 것을 확인한다. 그와 같은 중대한 정전협정의 위반은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도 적대행위를 한국국경(frontiers of Korea) 내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끝으로 정전(armistice)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있어 평화의 회복이나 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opinion)이다.[37]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특별보고서의 일부로서 공동정책선언을 유엔에 정식으로 전달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엔대표 대리 워스워드(James J. Wadsworth)가 작성한 정전협정문 요약본과 휴전협상 과정을 정리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38] 여기에는 공산군 측에게 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정전협정 이행을 준수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2. 정전체제 구축

1) 비무장지대의 설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서명으로 전선에서는 그날 22시를 기해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일체의 전투행위를 중지하였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른 양측의 조

치였다. 양측이 서명한 정전협정에는 “양측의 통제 하에 있는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모든 무장 역량은 양측 수석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 12시간되는 시점부터, 즉 한국시간으로 7월 27일 22시부터 한반도 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단한다.

정전협정의 첨부문건과 임시보충협의의 일체의 기타 조항들 또한 정전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모든 군사역량과 보급과 장비는 정전협정이 발효된 후 72시간 이내에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에서 철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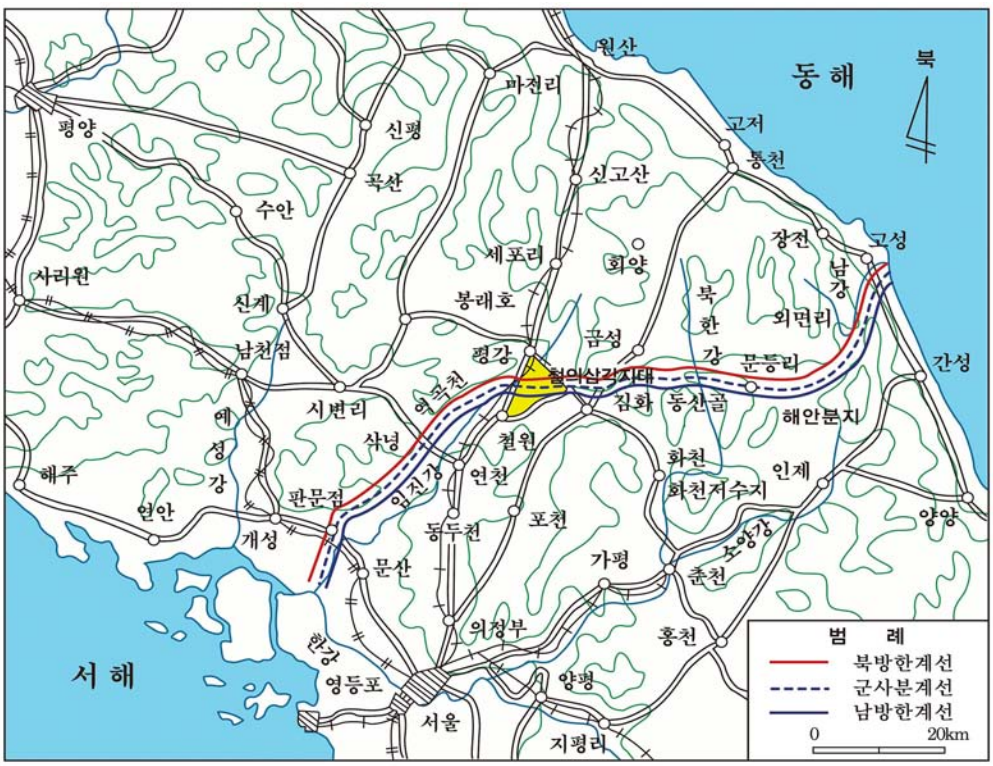
이에 따라 다음날인 7월 28일 아침부터 전선의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현 위치에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40]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동서 해안의 도서(島嶼, islands)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고, 포로송환을 위해 거제도와 제주도 일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 3,600명과 중공군 포로 1,200명을 LST에 승선시켜 인천으로 수송하기 시작하였다.[41]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양측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철수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또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양측은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고 합의하였다.[42] 이는 비무장지대를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a buffer zone)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정전협정에 설정된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는 한강하구-임진강하구(문산 서남 8km)-판문점-고양대-유정리(철원북쪽 12km)-하감령-밤성골-문등리-신탄리-수령-동해안 감호(남쪽 1km)를 잇는 선이었다.[43]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 철책선이 가설되지 않았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물이 군사분계선 155마일(약 248km)을 따라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서부전선에서부터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식물의 수는 모두 1,292개였다.[44]

<상황도 8-2>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1953.7.27.)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북쪽의 북방한계선과 2km남쪽의 남방한계선으로 설정되었다. 양측은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ttee)의 감독하에 군사분계선과 남방 및 북방한계선을 따라 규정된 표지물을 설치하여 경계의 관리는 물론이고 그 책임구역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한쪽 강안(bank)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으며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양측의 민간선박 항행(航行)을 위해 중립지대로 개방하도록 하였다. 한강하구의 항행(航行) 규칙 또한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양측의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를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였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출입도 통제하였다. 즉,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인원과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onduct of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병력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救濟事業)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을 지며, 그 북쪽 지역은 북한군과 중공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병력과 민간인 수(數)는 양측의 사령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인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와 휴대무기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MAC : Military Armistice Committee)에서 규정하고,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내의 출입을 허가받은 인원(물자 및 장비 포함)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을 보장받도록 하였다.[45]

또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coastal islands) 및 해면(海面, waters of Korea)

으로부터 모든 군사력,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양측의 동의 없이 또한 철수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가 있었다.[46]

정전협정에 규정된 연해제도(coastal islands)란, 정전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비록 어느 일방(one side)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島嶼)들을 지칭한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공산군 측의 군사통제하에 두며,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은 유엔군 군사통제하에 두도록 규정하였다.[47]

한편 정전협정 조인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1953년 7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MAC)가 판문점에서 최초의 회합을 가졌다. 양측은 정전위원회 위원들을 새로이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 수석위원에는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부장(參謀副長)이던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소장이 임명되었고, 공산군 측 수석위원에는 휴전회담 대표였던 이상조 소장이 임명되었다. 양측은 수석위원, 위원 그리고 비서장을 서로 소개하고 신임장을 교환하였다. 이후 양측은 공동감시소조(JOT: Joint Observer Team) 운영, 비무장지대(DMZ) 관리, 포로(POW : Prisoners of War) 및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의 수용시설 설치문제, 그리고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을 8월 5일부터 교환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7월 28일), “통일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대국민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대통령의 성명문이다.

> 이른바 휴전조약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선언한 목적은 중공군이 한국에서 물러가고 통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로서는 휴전이나 평화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결심에는 조금도 변동된 것이 없으며, 오직 시간만 몇 달 동안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유엔의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우기느니보다는 유엔과 미국의 협동을 보유하고 의당 기한을 물려서 그 동안에 유엔이 정치회담으로 적군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험해서 3개월 이내로 성공이 되면 좋을 것이요 성공이 못되는 때에는 유엔과 미국의 합작으로 우리와 같이 통일을 도모하자는 그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허락한 것이다.

우리는 그 휴전조약에 서명하거나 협동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기한 내에는 장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 하에서 이 휴전조약이 성립된 것이니, 이것이 미국의 물심양면의 원조를 얻어 가지고 중공군을 몰아내서 통일하겠다는 것보다는 충분치 못하게 생각되나, 그 다음 방법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각오가 되어서 이와 같이 된 것이다. 우리의 남북 동포들은 아무리 조급하고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라도 이 어려운 형편에서 가장 합당하게 조치된 것으로 믿기 바라는 바이다.

첫째로는 잠시라도 휴전이 성립되어서 양편에서 많은 인명을 상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된 것이니, 우리 국군으로서는 장병들을 교체시킬 여가도 없이 밤낮으로 적군의 수많은 침략에 대항해서 먹고 쉴 시간도 없이 싸워 온 것을 감안할 때 육신(肉身)이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도 강철이 아니므로 간단없이 싸워 나간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일이므로 그러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을 심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얼마 후에 더 큰 전쟁을 당할지라도 목하(目下) 형편으로는 이와 같이 된 것을 다행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 제8군사령관이 공표한 것과 같이 이 휴전조약은 평화조약이 아니고 잠시 싸움을 정지하고 담화로 타결하자는 것을 시험하자는 것이며, 유엔군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요, 따라서 우리 국군 확장에 육군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요, 해군 공군도 다 그만한 비례로 확장할 것으로 협의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초조해서 주야(晝夜)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인데, 우리가 죽기로 싸워서 구제해 낼 길을 힘썼으나, 이상 말한 것으로 몇 달 동안이나 지체하게 됨에, 다 같이 양해하고 얼마 동안 참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간의 우의가 더욱 공고해져 동양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에 큰 보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48]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휴전'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졌다. 이때 전선에서는 군의 철수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양측의 군사력 철수는 예정대로 7월 30일까지 완료되었고, 위험물과 지뢰 등의 제거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동해안과 서해안의 도서(島嶼, islands)들로부터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서해안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관할로 남게 된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제외한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道界) 북서에 있는 도서(islands)들로부터 철수하였고, 동해안에서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에 있는 도서로부터 8월 2일 이전에 철수를 완료하였다.[49] 이는 정전협정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수하도록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이들 도서로부터 가급적 빨리 철수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연합국에 의해 38도선으로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또는 '휴전선(休戰線)'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군사분계선은 정전체제하에서 한반도 분단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정전관리기구의 설치

(1) 군사정전위원회(MAC : Military Armistice Committee)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금지를 보장할 것을 다룬 문서이다. 이는 정전을 위해 양측의 군사령관 간에 이루어진 협정으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전체제 하에서의 모든 감시 책임은 군사정전위원회(MAC, 이하 정전위원회로 약칭)에게 주어졌다. 정전위원회의 전반적인 임무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 사건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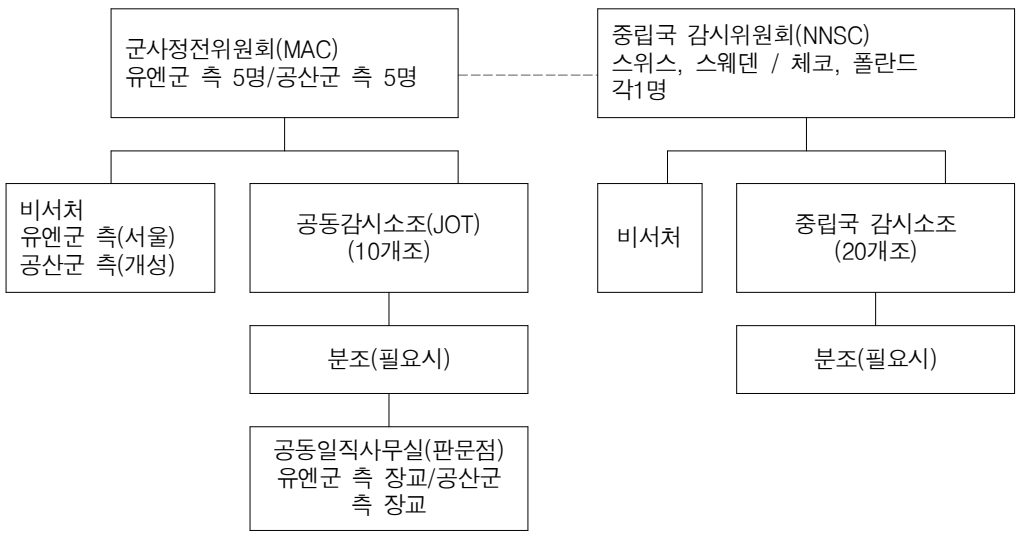
정전위원회(MAC)의 보다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적대 쌍방 간에 공동체로 운용한다. 둘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셋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넷째, 공동감시소조(JOT : Joint Observer Team)의 사업을 지도한다. 다섯째, 정전협정의 제반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여섯째,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로부터 받은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한다. 일곱째, 양측 사령관의 연락처로 운용한다. 여덟째, 공동감시소조(JOT)의 증명, 문서 및 휘장, 각종 차량과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하였다.[51]

군사정전위원회는 모두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었다. 양측은 5명의 위원 중 3명은 장군 또는 제독(flag rank)으로, 2명은 소장, 준장 또는 대령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최초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는 미국의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육군소장이었고, 4명의 위원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태국과 영국군 장성이 맡았다. 정전위원회는 10개의 공동감시소조(JOT : Joint Observer Team)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때 1개의 공동감시소조에는 4~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되었는데, 양측이 각각 반수씩 임명하여 운용하였다. 감시소조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운전병, 서기, 통역 등 부속 인원은 양측이 별도로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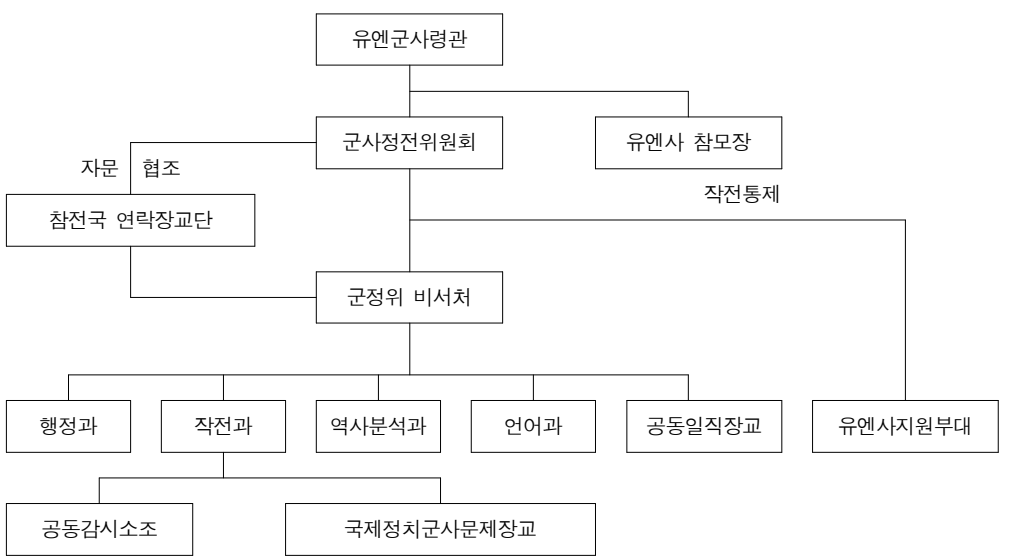
군사정전위원회는 최초 공동감시소조(JOT)를 통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부대 철수와 철수 후 45일 이내에 모든 폭발물과 지뢰 그리고 철조망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정전관리기구로서 전체적인 운영관리권을 보유하며 최고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MAC)는 중립국감시위원회(NNSC)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정전위원회(MAC)는 포로송환위원회(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와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정전위원회의 본부는 판문점 부근에 설치하되, 위원회의 양측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다른 지점으로 옮길 수도 있었다.[52]

<표 8-2> 정전관리기구 편성표



<표 8-3> 유엔군측 군사정전위 편성표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전관리 기구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한반도에서의 평화문제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 타결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군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유엔군 측은 그동안 공산군 측과의 협상경험으로 볼 때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엔군 측의 이러한 전망은 적중하였다. 정전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가 처음부터 상호간의 불신과 불화에 의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53]

공산군 측은 정전체제 유지가 북한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확실한 체제로 인식하고, 대미(對美) 접촉창구와 평화공세를 위한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하였다.[54] 정전체제하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입장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

⑵ 중립국 감시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의 임무는 정전협정 조인 후 한반도에서 새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이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이를 위해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지정된 남한과 북한의 5개 출입항인 인천·대구·부산·강릉·군산과 북한의 신의주·청진·흥남·만포·신안주를 통해 교체되는 병력과 군사장비 및 탄약에 대해 감독·시찰·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MAC)에 보고하였다.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었다. 그 중 2명은 유엔군 측에서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이 임명하고, 다른 2명은 공산군 측에서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임명하였다.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의 위원은 필요에 따라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들 보조인원은 감시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최초 20개의 '중립국 감시소조(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를 설치하되, 이 중 남북한의 지정된 출입항에 각각 5개 조씩, 10개 소조를 주재시키고, 나머지 10개 소조는 이동감시소조(mobil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로서 중립국 감시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키도록 하였다. 이동감시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양측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었다. 또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한쪽 수석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는 이동감시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중립국 감시소조는 오직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고 및 지도를 받았다.[55]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는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두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위원 및 중립국 감시소조를 통하여 지정된 출입항에서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56]

중립국 감시위원회로부터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까지, 군사정전위원회(MAC)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한쪽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소조원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보고에 대해 설명해야 하였다.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의 위원들은 1953년 8월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판문점을 뒤로 하고 각각 남과 북을 향해 출발하였다.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단의 행동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조인 직후부터 감시위원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다. 이는 공산군 측이 그들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지정된 감시 항구 이외의 다른 통로를 통해 비행장 및 군사기지를 증축 또는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남한지역에서는 정전협정 제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북한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묵인 하에 정전협정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은 항구를 통해 인력과 장비를 들여왔다. 공산군 측의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57]

이에 따라 북한지역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는 1954년 3월 29일, 이 문제를 유엔에 공식으로 제기한데 이어, 4월 5일에는 북한지역 감시를 위한 노력이 완전히 좌절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나아가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는 5월 13일,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유엔군 측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공산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의 이러한 요청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에 의해 거부되자,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는 앞으로 북한지역 감시의 실패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된 항의서를 제네바 극동평화회의에 제출하면서 북한지역 감시라는 불가능한 과업에서 자신들을 해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정전협정의 감시 규정은 사실상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58]

이후 공산군 측이 전혀 개선할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자 1957년, 유엔군사령부는 “향후 남한지역으로의 군수물자 도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무시할 것이다. 한편 미 제8군과 한국육군에 대한 증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정전협정에 규정된 정전감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되고 말았다.[59]

제 2 절 포로송환과 실향민 귀향

1. 포로송환위원회와 공동적십자소조 설치

정전협정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포로송환 문제였다. 포로송환은 휴전회담 과정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송환을 희망한 포로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의 처리 문제를 놓고 양측은 오랜 논의 끝에 포로송환위원회(捕虜送還委員會)를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60]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전쟁포로에 대한 송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포로송환위원회(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송환이라는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념과 용어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송환이라는 의미는 유엔군과 공산군 측 가운데 어느 일방(一方, one side)이 수용하고 있는 전쟁포로를 상대방에게 인도(引導)하는 행위(act)를 말하는 것으로, 국문(國文, Korean)으로는 '송환(SONG HWAN)', 영문(English)으로는 'repatriation', 중문(中文)으로는 '첸판(遣返, CH'IEN FAN)'으로 표기하기로 규정하였다.[61]

포로송환위원회는 양측의 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의 인도(delivery) 및 인수(reception)장소에 도달하는 시간 협조, 공동적십자소조(JRCT: Joint Red Cross Teams)의 포로송환 업무의 조정, 그리고 포로송환을 감독하는 공동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전반적인 지시(direction) 및 감독(supervision)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62]

포로송환위원회는 6명의 영관장교(officers of field grade)로 구성되며, 양측의

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과 공산군사령관)이 각각 3명씩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포로송환위원회 본부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포로송환위원회가 포로송환임무를 완료하면 이를 해산하도록 되어 있었다.[63]

한편 포로송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공동적십자소조(Joint Red Cross Teams)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공동적십자소조는 모두 3개의 소조(teams)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소조(teams)는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의 대표(representatives)를 내어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소조는 포로송환 장소에서 양측의 포로 인도 및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소조(teams)는 양측에서 각각 30명씩의 대표를 내어 6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소조는 공산군 측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송환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편의를 제공한다. 이때 책임자는 공산군 측 대표(chairman)가 맡았다. 세 번째 소조(teams)도 양측에서 각각 30명씩의 대표를 내어 6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소조는 유엔군 측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포로들이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송환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편의를 제공한다. 이때 책임자는 유엔군 측 대표가 맡았다.[64]

특히 포로송환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립국송환위원회(NNRC :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가 설치되어 운용되었다.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송환희망포로 및 송환불원포로(送還不願捕虜)에 대한 관리 및 송환임무를 직접 지도하였다.

특히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송환희망포로에 대한 송환임무가 끝난 후에는 전쟁 이전 자기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포로, 즉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관리도 맡았다.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스위스·스웨덴·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및 인도 대표로 구성되었다.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위원장과 집행책임은 인도 대표가 맡으며, 다른 4개국 대표는 각각 50명 이내의 참모요원(staff assistants)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65]

2. 송환희망포로의 송환 준비

포로송환위원회(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는 1953년 7월 30일에 첫 회합을 갖고, 포로송환을 8월 5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66] 군사정전위원회(MAC)도 8월 3일 판문점에서 회의를 열고, 정전협정에 따라 포로송환에 앞서 공동적십자소조(JRCT)를 파견하여 양측의 포로수용소 실태를 시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 공동적십자소조의 대표들이 북한 및 만주지역에 설치된 유엔군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 위해 지프차로 개성을 향해 출발하였고, 공산군 측 공동적십자소조의 대표들은 비행기 편으로 공산군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 위해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다.[67]

정전협정 조인 후 유엔군 측은 송환희망포로(送還希望捕虜)를 교환하기 위해 '빅 스위치작전(Operation Big Switch)'과 '빅 스워프작전(Operation Big Swap)'을 실행에 옮겼다. 빅 스위치작전은 공산군에 억류된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포로를 인수하는 일이었고, 빅 스워프작전은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던 공산군 포로 중에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를 공산군 측에 인도하는 것이었다.[68]

유엔군 측은 거제도와 제주도에 수용된 송환을 희망하는 공산군 포로, 이른바 친공포로(親共捕虜)들을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포로송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해로(海路)와 육로를 통해 수송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들 송환희망포로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송되었다. 먼저 부상포로 및 환자포로, 그리고 여자포로와 어린아이들은 포로수용소에서 부산까지 배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문산(汶山)까지는 기차로, 그리고 최종 포로송환 장소까지는 자동차로 이동하였다. 그 다음 남자포로들은 포로수용소에서 인천까지 배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문산까지는 기차와 자동차로 이동하였다.[69]

한편 공산군에게 억류된 북한지역의 유엔군포로수용소는 대부분 압록강 부근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북한에 위치한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임시수용소(자연동굴, 광산, 벽촌학교, 민가, 벌목장 초막), 화풍 광

산수용소, 초산 포로수용소, 금강산 해방전사(解放戰士) 초대소, 함북의 회령수용소, 아오지 수용소, 평양의 강동포로수용소, 만포진의 포로수용소 등 10여 곳에 산재해 있었다.[70]

거제도를 떠나는 반공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포로송환이 개시되자 공산군 측에 억류되었던 유엔군 포로들은 트럭에 실려 먼저 포로수용소에서 가까운 철도역으로 수송된 후 평양을 거쳐 개성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송환 장소로 이동하였다. 개성에 도착한 유엔군 포로들은 수 개의 천막에 분리 수용되어 송환을 기다렸다.

그리고 하루에 몇 명씩 포로송환 장소로 수송되어 유엔군 측에 인계되었다. 이때 포로송환으로 돌아온 미 군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비무장지대 안으로 수송할 트럭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던 단 몇 시간이 나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71]

이는 공산군 측에 억류된 유엔군 측 포로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포로가 된 자체도 힘들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억압된 포로생활을 한 그들의 처지가 만만치 않았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3. 송환희망포로의 송환

정전협정 조인 후 포로송환이 1953년 8월 5일 오전 9시부터 판문점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NNRC) 감독하에 실시되었다.[72] 첫날 유엔군 측에서는 국군과 유엔군 수뇌부 그리고 수많은 장병들이 판문점에 나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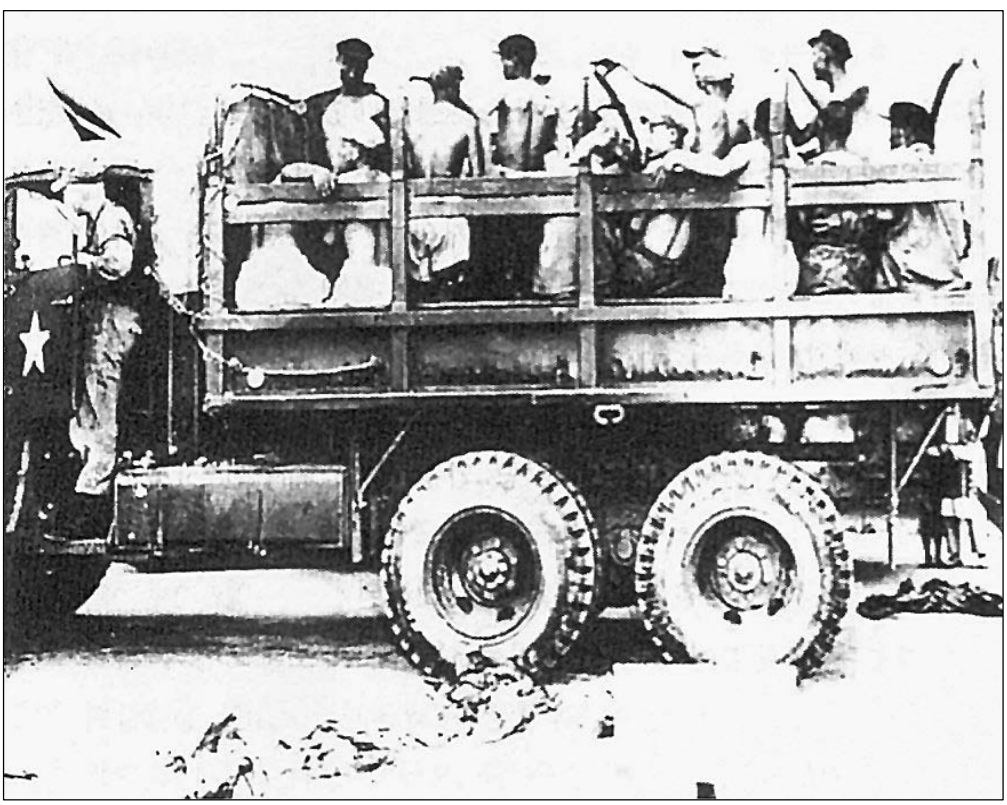
손원일 국방부장관과 백선엽 육군총참모장, 그리고 테일러(Maxwell D. Taylor) 미 제8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미 극동공군사령관이 판문점에 나와 포로송환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산군 측에 억류되었던 유엔군 포로들이 판문점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초 유엔군 측 포로들이 2대의 앰뷸런스와 4대의 트럭에 실려 판문점에 도착하자, 양측의 실무 장교들이 송환될 포로명단을 교환하였다.

이날(8월 5일) 정오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군포로 250명과 유엔군포로(미군 포로 70명 포함) 150명 등 총 400명이 남쪽으로 귀환하였다. 하지만 귀환한 유엔군 측 포로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병들었거나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던 관계로 즉시 서울에 위치한 제86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날 유엔군 측도 2,758명의 공산군(북한군 포로 2158명과 중공군포로 600명) 포로들을 북쪽으로 보냈다.[73]

그런데 포로송환 과정에서 공산군 포로들은 선전용의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들은 유엔군 측이 지급한 의복을 찢고 팬츠만 입은 알몸으로 붉은기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공산군 군가를 불러댔다.[74]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산

군 측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군 측이 지급한 의복과 약품을 찢거나 내동댕이치는 행동을 보였다. 다분히 공산주의식 선전용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산군 측 특유의 선전활동으로 유엔군 측의 입장을 곤란케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북한군 포로들이 판문점의 공산군 측 포로교환장소에 도착하자 유엔군 측이 지급한 옷과 보급품을 벗어던지고 있다.

한편 포로송환 첫날(8월 5일), 문산의 유엔군 측 포로인수본부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과 수행원들도 자유의 품안으로 돌아오는 유엔군 측 포로들을 환영하였다.

육군총참모장 백선엽(白善燁) 대장은 이들 귀환용사(歸還勇士)들을 뜨겁게 맞이하면서 포로송환에 즈음한 환영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전우들이여!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 본관(本官)과 전 장병은 그대들의 귀환을 환영한다. 불행히도 포로가 되어 괴뢰도당(傀儡徒黨)들의 쇠사슬에 얽매어 자유 대한(大韓)을 그리던 그 심경을 우리는 알고 한층 더 적개심을 갖고 적진에 포탄을 퍼부었다.
> 침략자는 드디어 손을 들고 휴전을 요구해 왔다. 전우들은 이에 광명(光明)의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 전우의 가족, 친지들은 두 손을 들고 그대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 전우들 중에 적의 강압에 못이겨 본의 아닌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충심으로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면 전우들의 전도(前途)는 양양(洋洋)할 것이다.[75]

이처럼 포로송환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던 병들거나 부상당한 포로와 여자포로들은 8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 번에 120명씩, 매일 3회에 걸쳐 공산군 측으로 보내졌다.

포로교환장소에 도착하여 석방되고 있는 유엔군 포로들

이후 유엔군 측은 매일 약 2,400명의 포로들을 판문점으로 수송하여 공산군 측에게 넘겨주었고, 공산군 측도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측 포로들을 매일 약 400명씩 남쪽으로 보냈다.

유엔군 측 포로송환 장소. “환영, 자유의 문으로!”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포로송환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인 8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 공산군의 학대를 받으며 고초를 겪고 귀환한 포로들에 대한 환영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이북 공산당들은 소련의 사주(使嗾)에 빠져서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어서 소련에 부속시키기를 계획하고 소련을 저들의 조상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4천년 역사에 없는 비극을 이루어 놓았다. 그 결과로는 이북의 우리 애국동포들이 그 세력하에 포위를 당해서 전무(前無)하고 비참한 형편을 당하고 우리로서는 방임할 수 없어서 죽기로써 싸워 동족상쟁(同族相爭)의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입었던 것이다.
> 이북에서 우리 국군청년들이 적에게 불행한 경우에 빠져서 오늘까지 국난과 갖은

고초를 겪어 온 것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길이 없는 바이다. 다행히 천우신조(天佑神助)해서 우방들의 원조로 지금 우리 국군의 방위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우리 국력으로 이 청년들의 희망을 완수할 것을 믿고 다만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우리 애국청년들이 무기도 없고 후원도 없을 적에 정성된 마음과 빈손으로 적군에 대항하다가 죽은 군인들도 많았지만, 그대들 귀환 용사들은 적군에 잡혀서 포로란 명의로 공산군의 갖은 학대와 굴욕을 지금까지 받다가 살아 돌아오게 되었으니, 우리 모든 동포들과 함께 기뻐하며 반가워하는 바이다.

우리는 조국을 재건해서 완전 무궁한 반도강산(半島江山)을 재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뿐이니, 제군(諸君)은 조속히 치유해서 건강을 먼저 회복하여 우리가 훗일에 밀고 올라갈 때에 충성과 단심(丹心)으로 다 같이 전진 또 전진해서 사경(死境)에 빠진 우리의 이북 동포들을 구출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또 부탁하는 바이다.[76]

또한 포로송환 기간 중인 8월 22일,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도 “지난날 소련이 송환을 약속하였던 독일과 일본 포로들을 억류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포로의 귀환을 실현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다음은 덜레스 국무장관이 포로송환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포로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에 억류된 유엔군 포로들의 일부가 계속 억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바이다.

나는 한국에 있는 우리 측 군사전문가들과 포로송환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전례가 있으며, 그 명백한 증거로서 그들이 송환하겠다고 약속한 수십만의 독일 및 일본포로를 억류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의심과 경계를 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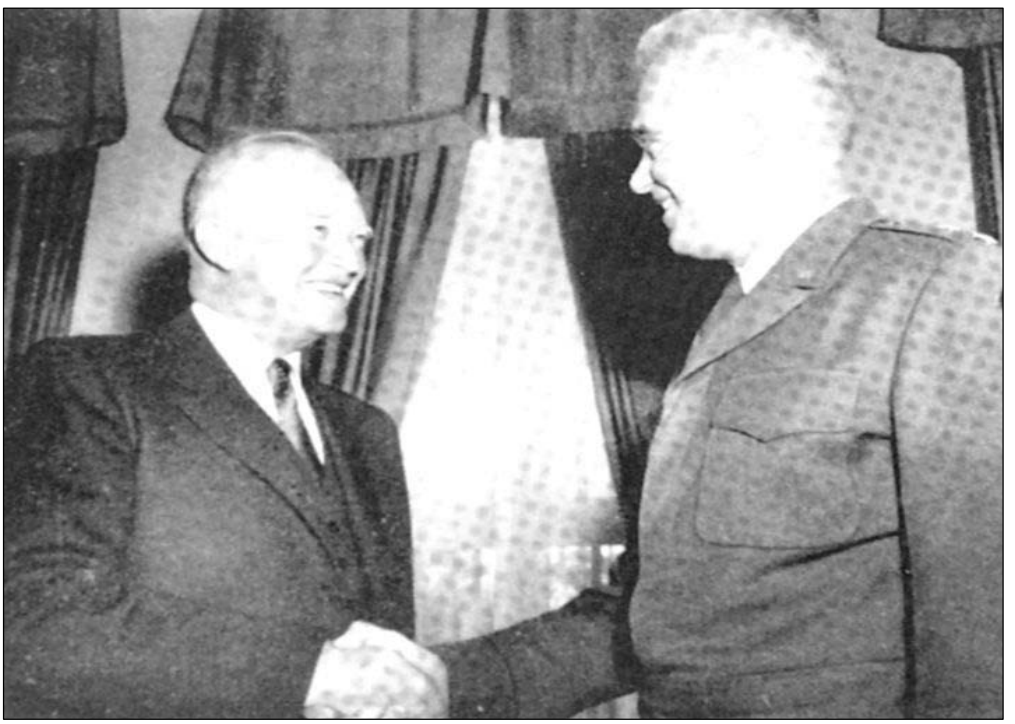
귀환한 포로들에 의하면, 공산군이 최근 유엔군 포로들에게 금고(禁錮) 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는 본관이 한국으로 향발 당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본관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보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또한 그러한 확정판결이 해당 포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구실로 이용될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들은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서 공산군 측에 억류된 귀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들을 인수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77]

송환희망포로에 대한 포로송환은 1953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9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이 37개월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9월 4일 무사히 귀환하였다.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장군이 포로교환 후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쪽이 딘 장군이고, 바로 옆 사람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다. 이 대통령 왼쪽 두 번째가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이다.

딘 소장은 3년 12일 간 북한군에 억류되어 포로생활을 하였다. 그는 귀한하자 제121후송병원에서 검진을 마친 후, 9월 5일 오전 9시에 미국으로 떠났다.



포로석방후 백악관을 예방,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미 제24사단장 딘 장군(오른쪽)

포로송환 기간 중, 유엔군 측은 75,823명의 공산군포로를 송환하였다. 그 중 북한군이 70,183명이고, 중공군이 5,640명이었다. 이에 반해 공산군 측은 12,773명을 송환하였다.

그 중 미군이 3,597명, 한국군이 7,862명, 나머지는 미국을 제외한 유엔참전국 포로들이었다. 다음 표는 전쟁 기간 중 실시한 병상포로를 비롯하여 정전협정 조인 후 실시한 송환포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8-4> 송환포로 현황[78]

구분		상병포로(53.4)	송환희망포로	총계
유엔군측	한 국	471	7,682	8,333
	미 국	149	3,597	3,746
	영 국	32	945	977
	터 키	15	229	244
	필 리 핀	1	40	41
	캐 나 다	2	30	32
	콜롬비아	6	22	28
	호 주	5	21	26
	프 랑 스	-	12	12
	남 아 공	1	8	9
	그 리 스	1	2	3
	네덜란드	1	2	3
	벨 기 에	1	-	1
	뉴질랜드	1	-	1
	일 본	1	-	1
	계	684	12,773	13,457
공산군측	북 한	5,640	70,183	75,823
	중 국	1,030	5,640	6,670
	계	6,670	75,823	82,493

〈표 8-5〉 상병포로 및 송환희망포로의 송환예정과 최종송환 현황 비교

구분		상병포로 (1953.4)	송환포로	계
송환된 유엔군 포로	한국군	471(450)	7,862(8,186)	8,333(8,536)
	유엔군	213(150)	4,911(4,578)	5,124(4,728)
	계	684(600)	12,773(12,764)	13,457(13,364)
송환된 공산군 포로	북한군	5,640(5,100)	70,183(69,000)	75,823(74,100)
	중공군	1,030(700)	5,640(5,640)	6,670(6,340)
	계	6,670(5,800)	75,823(74,000)	82,493(79,800)

* ( )안의 숫자는 송환예정인원이며, 표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송환된 인원

4. 송환불원포로의 처리

송환희망포로에 대한 포로송환이 끝나자 이제 남은 문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송환불원포로(送還不願捕虜)에 대한 처리만 남게 되었다. 이들 포로에 대해서는 1953년 6월 8일에 조인된 「포로협정(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과 7월 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였다.

중립국 송환위원회(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는 인도·스웨덴·스위스·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인도대표는 의장과 집행관 및 심판관을 겸하였고, 중립국 4개국 대표는 각각 50명 내의 참모인원(staff assistants)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인도는 이들 포로를 인수 및 관리할 부대를 파견하도록 하였다.[79]

인도는 포로관리 및 송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티마야(K. S. Thimayya) 장군을 인도대표에 임명하였다. 티마야 중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연방군(英聯邦軍) 여단(旅團)을 지휘했던 유일한 인도 출신 장군이었다. 그는 나중에 인도군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80]

유엔군사령부는 8월 한 달 동안, 포로관리 및 송환을 담당할 중립국송환위원회(NNRC)와 인도군(the armed forces of India)이 주둔할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9월 초,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인도대표 및 인도군과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들이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친공적(親共的)인 성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인도군에게 한 치의 땅도 밟게 할 수 없다.”며 인천상륙을 거부하였다.[81]

이에 인도군은 미군이 제공하는 헬리콥터 편으로 함상에서 포로송환 장소인 비무장지대로 이동하였다. 인도군은 토랫(P. P. Thorat) 장군이 지휘하는 총병력 5,5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인도군의 임무는 송환불원포로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것이었다.

포로송환위원회 의장 겸 인도군사령관 티마야(Thimayya) 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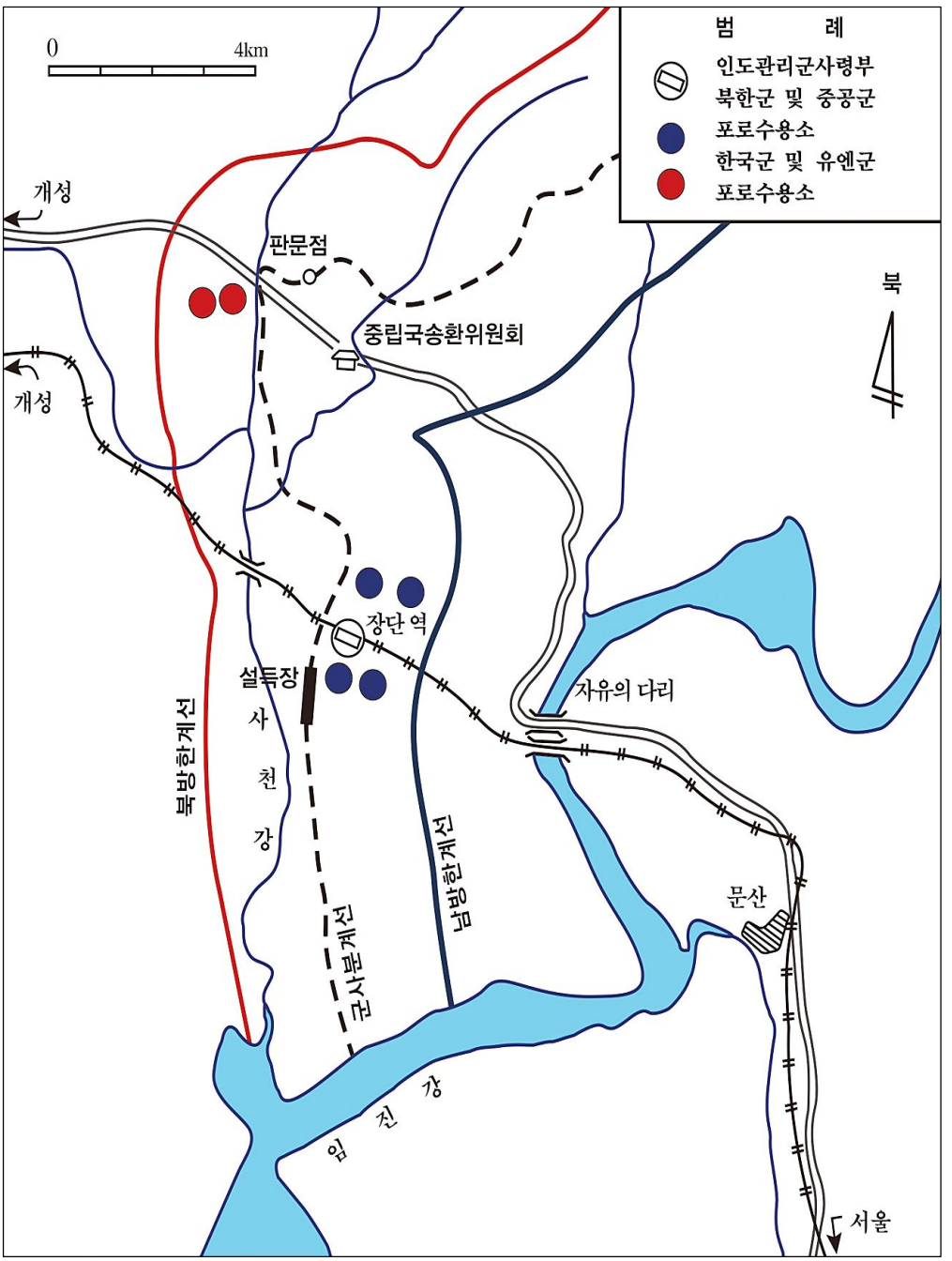
포로송환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도군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9월부터 송환불원포로들의 포로수용시설 및 설득 장소 설치, 그리고 포로이송 업무를 시작하였다.[82]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던 공산군의 포로수용소는 장단역 인근에 설치되었고, 공산군이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판문점 인근에 설치되었다. 이를 감독할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판문점 남쪽에 설치하였고, 포로들을 설득할 장소는 장단역 북쪽의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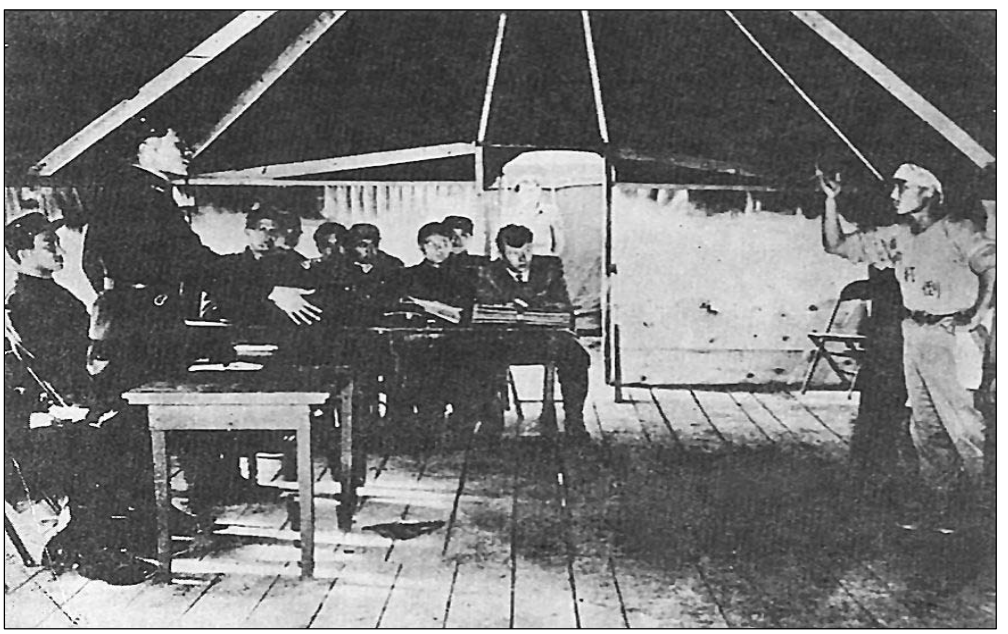
중립국송환위원회(NNRC)는 9월 9일 첫 회합을 갖고 향후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엔군 측은 다음날인 9월 10일부터 송환불원포로들을 인계하기 시작한 이후, 9월 23일까지 총 22,604명의 송환불원포로들을 인도군에 넘겼다. 공산군 측은 24일까지 359명을 인도군에 넘겨주었다. 이때부터 이들 포로들은 인도군의 관리를 받는 제2의 포로생활을 시작하였다.[83]

인도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공적(親共的)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인도군의 친공적인 언행이 노출되어 송환불원포로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도군은 포로들의 의사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군의 총탄에 반공포로가 사살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였다.[84]

<상황도 8-3> 비무장지대 송환거부 포로수용소 배치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산군 측은 '위협과 공갈'로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해 설득공작을 전개하는 한편, 같은 공산권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를 통해 의장국 인도대표를 조종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공산군 측은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 반복 설득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 8시간의 설득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요구하였다.[85]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한 설득 장면(반공포로의 가슴에 '적구타도'라고 쓰여 있다.)

공산군 측의 요구는 포로들에겐 설득이 아닌 고문이었다. 그것은 설득과정이 자의가 아니고 강제성을 띠게 됨으로써 유엔군 측이 계속 주장해 오던 자원송환(自願送還)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엔군 측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에 맞서 반공포로들은 면접을 거부하고 "공산 괴뢰는 물러가라!"고 외치며 항의하였고, 일부 포로들은 수용소 철조망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포로들에 대한 설득업무는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지연되었다. 하지만 중립국 송환위원회(NNRC)가 10월 7일, 공산군 측의 '강제적 설득'을 부결시키고, 15일부터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한 설득업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유엔군이 관리하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공산포로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산군 측의 선전과 인도군의 친공적(親共的) 언동에 기인하였다. 포로들의 설득 업무는 총 16개소의 천막에서, 각 천막마다 2개소씩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각 천막에는 250명이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86]

10월 15일, 공산군 측은 송환불원포로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포로들에게 공산군 측의 강압적 설득은 별 효과가 없었다. 이는 유엔군 측이 예상하였던 것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반공포로들은 면담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87]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월 15일, 먼저 공산군 측은 중공군출신 포로 500명에 대해 설득작업을 하였으나, 중국으로 가겠다고 희망한 자는 7명뿐이었다.[88] 다음날인 10월 16일, 공산군 측은 북한출신 포로에 대한 설득을 하였으나, 이들은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설득에 별 효과가 없게 되자 10월 19일, 공산군 측은 방법을 달리하여 설득을 지연시키면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였다. 이는 공산군 측이 중립국송환위원회(NNRC)의 설득규정에 명시된 90일간의 설득기간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포로들을 억류하겠다는 의도였다.[89]

그런 와중에 10월 31일, 공산군 측에 의한 북한출신 포로들에 대한 설득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출신 포로들은 남한으로 가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공산군 측은 "동무들 수고가 많소! 인민공화국의 대표로서 동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처자(妻子)와 조국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장래를 보장하는 김일성 동무의 성명서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유하기 시작하였다. 즉, 공산군 측 설득반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북한출신 포로들에게 상병포로 교환 때 북한으로 가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과 평양 시가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포로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별 효과가 없었다.[90]

설득기한이 임박하게 되자 공산군 측은 아니나 다를까 속셈을 드러내며, 설득기간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실제로 설득한 시간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그러한 제안을 무시한 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2월 22일, 신임 유엔군사령관 헐(John E. Hull) 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헐 대장은 1953년 10월 7일에 클라크 장군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중립국 송환위원회(NNRC)의 인도대표 겸 의장인 티마야 중장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티마야 중장도 어쩔 수 없이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설득 이 12월 23일부로 종료되었음을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91]

한편 국군 및 유엔군출신 포로에 대한 설득작업이 12월 2일부터 개시되었다. 국군포로는 국군에 의해, 미군포로는 미군에 의해, 영국군포로는 영국군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군 및 유엔군포로들에 대한 설득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 이들 포로들은 설득장소에 나오기 전에 이미 공산군 측으로부터 철저한 세뇌공작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 포로들은 설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92]

양측은 10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설득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기간 동안 공산군 측은 10일간의 설득기간을 통해 628명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반해 유엔군 측은 8일간의 설득기간 동안 10명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송환불원포로에 관한 설득은 12월 23일에 종결되었으나, 아직도 송환에 반대하는 포로가 남아 있었다. 이들 포로에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그 처리는 정치위원회에서 30일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치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었다.[93]

이에 헐(Hull)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12월 23일부로 포로 설득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30일이 경과한 1954년 1월 22일에 오후 12시를 기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6·25전쟁 종결 후 정전협정문의 부칙으로서 금년 6월 8일에 서명된 조문은 1년 이상이나 휴전회담을 지연시켰던 오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문제는 즉, 피난처를

요구하는 송환불원포로의 권리와 이것을 허용하는 억류 측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 권리는 인권자유와 인간존엄성에 입각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유엔군 측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회담에서나 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논평을 거듭하였다.

포로협정 제11조는 포로관리를 중립국송환위원회 소속대표에게 이관 후 90일의 기한이 되면 포로설득을 끝마치도록 규정하였다. 이 90일간의 설득기간은 12월 23일에 끝난다. 제11조에 내년 1월 22일 오후 12시를 기하여 이들 포로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인도군(印度軍)이 포로들을 억류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포로들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각기 원하는 적당한 중립국으로 갈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와 중화민국(대만) 대표들은 각각 인도군 억류하에 있는 약 8천여 명의 한국인 반공포로와 1만 4천 명의 중국인 포로에게 대한민국 내와 중화민국 영토 내에 새로운 가정을 주겠다는 요지를 포함한 공개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한·중국(대만) 대표들은 유엔군사령부가 이 양국에 가기를 원하는 개개인의 행동에 지장을 제거하는 적절한 모든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11조에 의거하여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인도 적십자사는 세계 여러 중립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어떠한 개개인이라도 편리를 도모하게 되어 있다.

설득기간의 종결과 함께 본관은 인도군에 대해 심심한 찬사와 존경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독특하고도 예민한 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도군 장병들은 군대의 강인성과 인간성에 대해 전례 없는 능력을 표시하였다.

포로협정에 의거 인도군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는 세계의 선량한 국민들의 갈채를 받았으며, 앞으로 남아 있는 약 30일간의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훌륭한 태도로서 부여된 임무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군은 능숙한 능력에 변함없는 신뢰감을 획득하였다.[94]

그러나 공산군 측은 10일 밖에 설득을 하지 못한 책임을 유엔군 측에 돌리면서 설득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포로석방조치는 정치회담에서 최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립국 송환위원회(NNRC)은 12월 24일, 공산군 측의 설득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하고 설득작업이 정식으로

종료되었음을 의결하였다.[95]

그러나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12월 27일에 채택된 포로설득에 관한 보고서에서 공산군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의장국인 인도가 공산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 결탁함으로써 이러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인도군은 양측이 포로석방 일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인도정부가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96]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반공포로 석방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 있었다. 그때 인도군의 티마야 중장이 본국에 이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인도정부는 티마야 장군에게 "기한이 만료되어도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포로들은 즉시 양측의 관할로 넘긴다."는 지침을 내렸다.[97] 이에 티마야 중장은 이 사실을 포로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유엔군사령관 헐 대장에게도 1954년 1월 18일에 서한을 통해 이를 알렸다. 이 결정이 통고되자 공산군 측은 이를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인도의 결정에 따라 2만 1천여명의 반공포로들이 1954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중립지대의 포로수용소로부터 유엔군 측에 인도되어 23일 오전 0시를 기해 민간인의 자격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1월 23일에는 한국과 자유중국(대만) 그리고 유엔군 관계관의 참석 하에 반공포로 인수식이 정식으로 거행되었다.

대한민국을 선택한 반공포로들은 1954년 1월 20일 오전 10시 33분에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을 넘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반공포로들은 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수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탄 첫 열차는 12시 14분에 자유의 다리를 출발한 후 그 다음날(21일)인 새벽 2시 25분, 마지막 열차가 대전에 도착함으로써 끝났다. 이들 반공포로를 수송하기 위해 병원 열차 2대를 포함하여 총 9대의 열차가 동원되었다.[98]

자유중국(대만)으로 돌아가는 반공포로들을 수송하기 위해 15척의 LST가 투입되었다. LST를 호송하기 위해 또 4척의 구축함이 동원되었고, 경비를 위해 미 제3해병사단 제4해병연대가 군함에 탑승하였다. 중국인 반공포로는 인천에서 대만

으로 송환되어 대만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99]

포로 설득장에서 북한의 설득을 반대하고 자유의 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반공포로들

<표 8-6> 공산군 측, 송환불원포로 처리 결과[100]

구분	북한군	중공군	계
공산군 측으로 귀환	188	440	628
탈출 및 행방불명	11	2	13
인도군 관리 중 사망	23	15	38
인도로 이송	74	12	86
유엔군 측으로 전향	7,604	14,235	21.839
총계	7,900	14,704	22,604

공산군 측은 친공포로(親共捕虜)의 인수를 거부하다가, 1월 28일에 가서야 중국 및 북한 측 적십자사(赤十字社)의 이름으로 친공포로를 인수해 갔다. 다음 표는 양측의 송환불원포로 처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8-7> 국군 및 유엔군 측, 송환불원포로 처리 결과

구분	국군	미군	영국군	계
유엔군 측으로 귀환	8	2	-	10
인도로 이송	2	-	-	2
공산군 측으로 전향	325	21	1	347
총계	335	23	1	359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1월 23일, 반공포로 석방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부터 반공포로들은 민간인으로서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또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101]

한국 정부도 외무부장관의 성명을 통해 대공투쟁(對共鬪爭)에서의 승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오늘 8천 명의 한인 반공포로와 1만4천명 이상의 중국인 반공포로가 다시 민간인으로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오래, 그렇게 영웅적으로 투쟁한 이 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 그리고 포로를 취급함에 있어 폭력이란 조금도 못쓰도록 자기직무를 훌륭히 완수한 모든 유엔 장병에게 우리는 감격해하는 바이다.
> 오늘은 인간해방의 거룩한 날들의 하나로서 청사(靑史)에 실릴 것이다. 민주자유대(對) 공산노선에의 투쟁에서의 전기(轉機)로서 이날이 오래 기억될 것이다.[102]

이처럼 송환불원포로를 통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이들 반공포로들은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오래, 그렇게 영웅적으로 투쟁한 반공투사들이었다. 그들은 그 누구의 주권도 미치지 못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반공일념(反共一念)으로 끝까지 공산군과 대결하여 승리함으로써 청사에 남을 민주주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주인공들이었다.

한편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인도군(5,500명)은 1954년 2월 7일부터 철수를 개시하였다. 인도군의 최종 부대는 2월 23일, 인천항을 출발함으로써 한국에서 철수를 완료하였다. 또한 포로송환임무를 위해 설치된 중립국 송환위원회(NNRC)도 2월 16일에 해산되었다. 다만 잔무 처리를 위해 21일까지 판문점에 잔류하였다. 인도군의 후방부대는 2월 18일 남은 억류자들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인계하였다.[103] 1954년 2월 19일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그리고 자유중국(대만) 정부 대표자들은 포로와 관련된 모든 작전을 마감하는 절차로서 귀환자에 대한 공식문서에 서명하였다.[104] 이로써 휴전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포로문제가 해결되었다.

5. 실향민(失鄕民) 귀향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설득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간 1953년 12월 11일,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가 판문점에서 첫 회합을 갖고 실향민 처리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실향민(失鄕民, displaced civilians)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규정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실향민은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 공산군 측 또는 유엔군 측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의 이남 또는 이북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을 작성하면서 이들 실향민들이 귀향(歸

鄕)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할 것을 규정하였다.[105] 즉, 교전 양측은 실향민을 그 자유의사에 따라서 상호 교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전협정에 따라 실향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협조하며 집행을 감독할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양측에서 각각 2명씩의 영관급 장교를 위원으로 하는 대표로 구성되었고, 본부는 군사정전위원회(MAC)의 본부 부근에 설치되었다.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임무를 완료하면 해산하도록 하였다.[106] 또한 이 위원회는 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향민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전쟁 중 공산군 측에 납치당한 애국인사만 해도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84,523명[107]에 달하였다. 따라서 교환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피랍인사의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이에 주목하게 되었다.[108]

실향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953년 12월 11일,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가 판문점에서 첫 회합을 가졌다. 이때 양측은 교환지점, 시간, 동반 가족범위, 그리고 소지품 휴대 허용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교환인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유엔군 측이 1일 500명을 주장한 반면, 공산군 측은 1일 100명을 주장하였다.[109]

결국 12월 29일에 열린 제2차 회합에서 유엔군 측이 교환인원을 양보하게 됨에 따라 양측은 1일 100명씩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1954년 3월 1일부터 실향민 귀향문제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양측이 실향민 교환에 합의를 보게 되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는 실향민 신고기간을 1954년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설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지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실향민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접수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이는 공산당이 싫어 월남(越南)한 북한주민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증거였다.[110]

한편 북한은 1954년 2월 15일, 북한 내에 남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피란민이 단 1명도 없다고 방송하였다. 북한의 발표가 있은 지 3일 후인 2월 18일, 유엔군 측은 남한에서 등록을 마친 30여명의 명단을 공산군 측에 제시하였다. 이때 공산군 측은 남한으로 귀향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1명도 없고, 다만 외국인 10여 명이 귀향을 희망한다고 통고해 왔다.[111]

공산군 측은 3월 1일, 그들이 통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19명(터키인 11명, 백러시아인 8명)을 유엔군 측에 인도하였다. 유엔군 측은 다음날인 3월 2일, 37명의 한국인을 공산군 측에 인도하였다. 최초 접수한 귀향인원은 39명이었으나, 교환직전에 남파 간첩으로 판명된 2명이 한국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됨에 따라 제외되었다.[112]

공산군 측은 실향민은 물론이고 납북(拉北) 인사들조차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함으로써 자유세계에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그들은 실향민들에게 귀향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사 표시를 보장하지 않았다. 결국 실향민 문제는 유엔군 측에게 또 다시 희망을 실망으로 안겨 주었다.

제 3 절 유엔의 조치와 제네바 정치회담

1. 정전협정 조인 후 유엔총회의 조치

정전협정 체결 10일 뒤인 1953년 8월 7일,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회담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총회에 보고하였다.[113] 유엔에서는 이 보고서를 접수하여 인준한 후 정전협정에 규정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담에 대해 토의를 실시하였다. 토의는 주로 정치회담 참가범위와 의제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의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은 1953년 8월 4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통일방안과 향후 정치회담에서 취할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덜레스 국무장관과 이승만 대통령은 네 차례의 회담을 통해 한국통일 방안을 비롯하여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취할 한미공동 정책문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토의하였다.[114]

한미회담에서 한국이 정치회담에 대해 먼저 제시한 것은 회의 참가 범위였다. 정치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한국·미국·중국·북한 등 전쟁의 직접 당사국만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이에 반대하자, 한국정부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정치회담에 소련과 인도만은 회의에 참가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도 정부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전쟁에 참전한 국가만이 정치회담에 참석할 수 있고, 회의는 일정 기한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는 덜레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였다.[115]

한미 양국은 1953년 8월 8일 드디어 경무대(景武臺)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한 한미 수뇌부가 지켜본 가운데 변영태(卞榮泰)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였다.[116] 이를 통해 미국은 안보 면에서 한국이 무엇을 우려하는 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장면(1953.8.8, 서울). 변영태 외무부장관(앞줄 왼쪽)과 덜레스 미국무장관(앞줄 오른쪽)이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뒷줄 왼쪽에서 3번째)과 국무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8월 8일), 한국의 통일을 포함한 양국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고, 향후 90일간의 정치회담에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국은 정치회담에서 탈퇴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한미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이다.

우리들의 우호적이며 이해 깊은 협의는 한국의 통일을 포함하는 우리의 공동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견지하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결의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일 상호방위조약 안에 가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공동위협에 대처하려는 공동조치에 있어서 우리 두 나라를 단합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한 한국에서 공산침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결시켰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어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할 것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공산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의의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는 이 불의의 공격을 유엔군사령부 자체와 동 사령부 휘하의 군대에 대한 공격 및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이며 자동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다.

정전협정은 정치회담을 3개월 내에, 즉 1953년 10월 27일 이전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치회담에서 미국 대표는 한국대표와 기타 유엔군 측 대표들과 협력하여 자유 독립국으로서 역사에 빛나는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고문들은 이미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이것이 정치회담에서의 일치된 노력을 위한 예비적 기반을 확립하게 될 것을 희망하며 믿는 바이다.

만약 이 정치회담이 90일 동안 개최된 후에도 이들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이 회담을 공산군 측 대표들이 주로 침투, 선전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국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악용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는 동 회담에서 동시에 퇴장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결정한 전후 목표이며 유엔이 그 목표로서 채택하여 왔고 또한 계속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적이 될 통일·자유·독립 한국의 달성에 관하여 더욱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체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나 합의를 본 정치회담 기간에는 군사적 수단으로써 한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117]

이때 유엔에서도 임시총회를 열었다. 1953년 8월 17일에 개최된 유엔임시총회에서 다룰 최대의 과제는 한국문제를 해결할 정치회담 개최였다. 유엔임시총회에서는 주로 정전협정과 정전협정문(제4조 제60항)에 의거한 정치회담 문제를 논의하였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정전협정 조인 후 3개월, 즉 1953년 10월 27일 이전에 정치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회담의 성격이나 구성 및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유엔임시총회에서는 개회 첫날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118]

유엔임시총회 첫날(8월 17일) 회의에서 유엔참전 16개국들은 "정전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의 요지는 "한국에 파병한 유엔회원국 중 원하는 경우 정치회담에 참석하여야 하며, 유엔의 대한(對韓) 원조 및 부흥계획에 공헌하도록 호소한다."는 내용이었다.[119] 다음은 유엔참전 16개국의 결의안 내용이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을 찬성하며,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사실과 이 결과 국제적 평화와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을 회복하는데 진일보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유엔의 목표가 대의정체를 가진 통일·민주·독립 한국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시키며 해당 지역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완전 회복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의 군사령관은 쌍방과 관련된 여러 나라 정부에 정전협정 발효 후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 철군문제와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이 각각 임명한 대표로서 고위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는, 정전협정에 포함된 건의에 유의한다. 이러한 정치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아래 내용을 건의한다.

첫째, 주한 유엔군사령부 예하부대로서 한국에 파병한 유엔회원국 중 대한민국과 더불어 회담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국가를 회담에 참석시켜야 한다. 참가할 국가는 회담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그들이 고수한 결정이나 또는 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미국 정부는 유엔참전국들 중 정치회담 참가를 희망한 국가들과 협의 후 만족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1953년 10월 27일을 넘지 않는 적절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상대측과 절충한다.

셋째, 유엔사무총장은 만약 양측이 동의한다면 정치회담 개최에 대해서 가능한 한의 조력과 편의를 제공한다.

넷째, 정치회담에 참가하는 유엔회원국가는 회담에서 모종의 합의를 보았을 때에는 유엔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 수시로 유엔에 통고하여야 한다.[120]

이에 따라 미국은 정치회담 개최문제를 놓고 공산군 측과 교섭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8월 18일부터 유엔총회의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서도 한국문제와 관련된 정치회담을 논의하였다. 이때 유엔주재 소련대표는 한국문제 토의에 중국과 북한 대표를 초청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미국 등 자유진영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되자 전혀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즉, 소련대표는 다음번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유엔 가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개최될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에 11개국이 참가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때 소련대표가 제안한 11개 국가는 한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인도·폴란드·스웨덴·버마(미얀마)·북한·중국이었다.[121]

유엔주재 소련대표가 제안한 11개국에는 소련과 인도가 포함된 반면, 중립국 감시위원회 4개국 중에서는 스위스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빠짐으로써 처음부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미국이 이에 즉각 반박하자, 자유진영 국가들도 미국 입장을 지지하면서 소련의 제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양측에게 있어서 문제의 쟁점은 인도의 정치회담 참가 문제였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놓고 벌이는 정치회담은 정전협정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순전히 교전(交戰) 쌍방으로 국한될 문제로 여겼다. 다만 미국은 공산군 측이 원한다면 소련의 참가를 허용하되 공산군 측의 일원으로 참가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122]

하지만 소련도 그들의 주장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소련은, 한국문제는 극동(Far Eastern)의 모든 문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회담에는 모든 국가, 특히 인도 등 중립국을 참가시키는 '대규모 원탁회의(圓卓會議, a

large roundtable conference)' 방식을 주장하였다. 소련의 이러한 제안에는, 회의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한국에게는 결정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123]

8월 20일, 유엔주재 미국대표는 인도의 정치회담 참가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되면 반대투표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스웨덴은 소련이 정치회담 참가대상국으로 스웨덴을 포함하였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유엔총회 의장인 캐나다 외무장관도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미국·한국·중국·북한이 거부권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들 4개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한 정치회담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124]

또한 변영태 외무부장관도 8월 24일,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정치회담에 인도대표의 참가를 반대하는 연설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한국은 한국문제의 공정한 해결과 정치회담 참가를 희망하나, 한국문제 해결은 대공유화(對共宥和)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치회담에 인도대표의 참가를 반대한다. 오늘날 분주히 선전하고 있는 한국의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의 관념은 그 출처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내 군사적 진공상태를 조작하고자 하는 공산도당들의 생각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 본 대표단의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가 극히 경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유엔에 인도(印度)의 참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을 인정하나, 한국에도 정치회담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125]

변영태 외무부장관의 연설을 계기로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정치회담 참가국 문제로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8월 27일에 있은 투표 결과, 한국에 군대를 파병한 유엔 15개국[126]과 한국은 앞으로 개최되는 정치회담에 유엔군 측 대표로서 참가할 수 있다는 자유진영 측 결의안이 찬성 42표, 반대 7표, 기권 10표로 통과되었다. 이어 자유진영 측은 소련이 제안한 '정치회담 참가 15개국 수정안'[127]을 반대 41표, 찬성 5표, 기권 13표로 부결하였다.[128]

소련의 결의안이 부결되고 난 뒤 영연방국가인 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가

정치회담에 인도를 초청하자는 결의안을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 제출하자, 이 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찬성 27표, 반대 21표, 기권 11표로 가결하였으나, 인도 대표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총회에서의 표결이 보류되었다.[129]

8월 28일, 유엔임시총회에서는 정치회담 개최에 대해 자유진영 측이 제출한 결의안을 찬성 45표, 반대 5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유엔임시총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제출한 "공산군 측이 희망한다면 소련을 정치회담에 참기시킬 것을 권고한 결의안"을 찬성 5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유엔임시총회는 또 한국문제에 대한 다음의 결의안(유엔총회결의 711-Ⅶ)을 채택하였다.

> 한국에 파병한 유엔군 측은 유엔의 요청에 의해 한국 파병국 중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국가를 참가국으로 정한다. 참가국 정부는 회담에서 독자적으로 완전 자유로운 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들이 고수하는 결정이나 협정에 대해서만 제약을 받을 것이다.
>
> 미국 정부는 정치회담 참가국과 협의 후 쌍방이 만족할만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정치회담을 개최하되, 1953년 10월 28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한다.
>
> 한국에 대한 원조 및 부흥계획을 수행하려는 유엔의 의도를 재확인하며, 본 사업에 공헌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호소한다.
>
> "정전협정 제60항의 이행"이라는 결의를 채택하며, 만약 상대방이 희망하면 소련의 한국 정치회담 참가를 권고하는 바이다.
>
> 제7차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유엔총회가 권고한 한국문제에 관한 여러 제안, 그리고 동 제안과 관련된 유엔총회의 의사록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북한당국에 통고할 것과 그 결과를 유엔총회에 보고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130]

이로써 정전협정 조인 3개월 기한의 만료일인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을 위한 준비회의가 열리게 되었다.[131] 이는 한국문제를 다룰 정치회담을 위해 유엔임시총회가 약 2주간의 논쟁 끝에 이룩한 하나의 성과였다. 1953년 8월 유엔

임시총회는 한국문제를 처리한 후 폐막되었다.

2. 판문점 예비회담 접촉 무산

유엔임시총회로부터 한국문제 정치회담 개최를 위한 공산군 측과의 교섭을 위임받은 미국은, 9월에 접어들자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정치회담을 서두르게 되었다. 9월 19일과 23일, 미국은 2차에 걸쳐 공산군 측에게 "정치회담을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또는 제네바 중에서, 1953년 10월 15일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즉시 회담 준비에 착수하자"고 제의하였다.[132] 다음은 미국이 공산군 측에게 보낸 각서 내용이다.

> 대한민국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에 군대를 파병한 회원국 대표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스웨덴 정부의 호의로서 전달된 1953년 9월 5일부 귀측(貴側)에 대한 아측(我側)의 통첩 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또는 제네바에서 1953년 10월 15일에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를 원한다.
> 우리는 즉시 회담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고로 귀측 양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일에 관해 조속히 회답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133]

그러나 공산군 측은 2주일이 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태도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10월 8일, 다시 공산군 측의 태도 표명을 촉구하는 각서를 공산군 측에게 보냈다.[134] 공산군 측은 이 제의에는 즉각 반응하였다. 각서가 공산군 측에 전달 된지 이틀 후인 10월 10일, 중국은 비로소 정치회담 소집을 토의하기 위해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에 대표를 파견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각서를 보내왔다.

> 정치회담을 조속히 소집할 목적 하에 중국 정부는 북한정부와 협의한 결과 정치회담 문제에 관한 토의를 위해서 미국대표와 회합할 아측(我側) 양(兩) 정부대표를

임명할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 토의에 있어서는 정치회담의 장소 및 시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 즉 동 회의 참가국 구성에 관한 결정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토의는 한국에 있어서의 양(兩) 교전국가 측의 대표만이 참가하므로, 그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135]

미국은 한국 등 유엔 참전국들과 협의를 거친 후,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에 미국대표 파견과 예비회담 명단을 공산군 측에 전달하였다. 10월 20일, 미국은 예비회담이 "단순한 사전 협의에 불과하며, 여하한 본질적인 문제도 취급할 수 없다."는 각서를 공산군 측에게 보냈다.[136]

미국의 각서가 공산군 측에 전달된 2일 후인 10월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공산군 측은 10월 26일에 열릴 판문점 예비회담 장소를 비무장지대 내에 설정하자는 유엔군 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때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통일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존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판문점 예비회담에 한국대표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53년 10월 26일 오전 11시, 판문점에 새로 건립된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회담이 열렸다. 유엔군에서는 미국 국무장관의 법률고문 딘(Arthur H. Dean)과 한국 외무부차관 조정환(曹正煥) 그리고 이수영(李壽榮) 대령이 참석하였다. 공산군에서는 중국 외무부 고위관리인 황화(黃華, 후에 중국 외교부장)와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副相) 기석복(奇石福)이 참석하였다.[137]

하지만 판문점 예비회담은 의사일정 문제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회담이 시작되면서 유엔군 측 대표는 "예비회담을 11월 24일 이내로 끝내고, 이날부터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정치회담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행정 등 기타 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회의 시작부터 8월 28일 통과된 유엔총회 결의안의 무효화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정치회담 참가국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양측은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138]

이후 회담에서도 공산군 측은 예비회담의 제1의제로 정치회담 구성국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자, 유엔군 측의 딘(Dean) 대표는 공산군 측이 구성국 문제를 계속 고집하면, 정치회담은 결코 개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회담을 휴회하였다.

11월 3일 제8차 회의에서, 미국측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정치회담 개최의 시일 및 장소문제와 공산군 측이 주장하는 구성국 문제를 동시에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2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토의과정에서 소련 이외의 중립국을 고문으로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소련의 참가자격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었다.[139]

이후 판문점 예비회담은 진전이 없었다. 중립국 참가문제와 회담 장소 문제로 논란만을 거듭하였다. 양측은 문제 타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11월 30일, 공산군 측은 소련을 타 중립국과 같이 고문자격으로 참가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소련을 중립국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12월 8일, 이번에는 유엔군 측 대표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안을 내놓았다.

정치회담 참가국 : 유엔참전국과 한국, 북한, 중국, 소련
회담 장소 : 제네바
절차 규정 : 쌍방 합의로 결정
공인 언어 : 영어, 한국어, 중국어[140]

그러나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공산군 측은 회담 내용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였다. 즉, 미국이 휴전회담시 불신행위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시 미국이 한국과 공모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회담은 상호 비난과 반박 끝에 무기휴회로 들어갔다.[141] 판문점 예비회담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딘(Dean) 대표를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군 측의 태도에 다음과 같이 불만을 터뜨렸다. “판문점 예비회담의 원래 목적은 정치회담의 시일과 장소를 결정함에 있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3개월 이상에 걸쳐 관계없는 문제를 제의하고 불필요하게 발언함으로써 회담을 공전(空轉)상태로 끌고 왔다. 그네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또 다시 3개월 또는 그 이상 회담을 끌게 될 것이다.”[142]

미국의 딘(Dean) 대표도 “공산군 측은 예비회담에서 유엔군과 미군의 완전 철수, 공산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남북의 연립정부 수립, 자유중국의 유엔 축출, 중국의 유엔 가입, 미국의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무역제한 해제 등 현실성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고 증언하였다.[143]

판문점 예비회담은 1954년 1월 18일부터 실시된 수차례의 연락관회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참가자격 문제로 재개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결국 한국 문제는 베를린 4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거쳐 제네바 극동평화회의로 이관되었다.

3. 제네바 정치회담과 결렬

판문점 예비회담은 소련의 참가자격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회담은 1954년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네바 정치회담은 우연히 성사되었다. 1954년 1월 25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이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다. 동서(東西) 베를린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 4개국 외무장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과 인도차이나(Indochina) 문제도 함께 논의하게 되었다.[144]

베를린 회의 폐회 전날인 1954년 2월 18일, ‘4개국 외무장관(Big Four Foreign Ministers)’회의에서 “4월 26일 제네바에서 중국을 포함한 5대국과 관계국들이 모

두 회합하여, 한국통일 및 인도차이나 휴전문제를 논의하는 아시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145] 이 회의의 원래 목적은 오스트리아의 지위를 토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합의를 보게 된 것은 아시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이것은 인도차이나 전쟁(Indochina war)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프랑스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대신 제네바 정치회담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146]

그러나 베를린 회의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정치회담에 소련이 주최국의 하나로 격상된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제네바 정치회담 참가를 거부하면서,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갈홍기(葛弘基) 공보처장은 "공산군 측과의 모든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안된 회의에서도 최종적 합의에 도달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며 유엔군 측의 각성을 촉구하였다.[147]

그러나 유엔 참전국들은 회담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덜레스 국무장관을 미국 대표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 정치회담에서 한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참가를 종용하였다. 미국의 제네바 정치회담 참가 종용에 한국 정부도 이를 수락하고 대표를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148]

하지만 한국 정부는 회담 참가 조건으로 미국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제네바 회담에 진전이 없을 때에는 미국은 한국과 함께 퇴장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문제를 토의함에 있어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회담결렬에 대비하여 국군을 대폭 증강시킨다는 것이었다.[149]

한국 정부는 1954년 4월 19일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네바 정치회담 참가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홍진기(洪璡基) 법무부차관, 최정우 동국대 교수, 이수영 외무부 정보국장, 한유동 외무장관 비서실장, 손병식 외무부 의전과장, 유조룡 속기사, 이주범 한글 타자수였다. 그리고

변영태 외무장관(왼쪽 3번째) 등 한국대표단이 제네바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모습.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왼쪽 첫 번째), 임병직 유엔대사(왼쪽 두 번째), 홍진기 법무부차관(왼쪽 3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미국에서 양유찬(梁裕燦) 주한미국대사와 임병직(林炳稷) 유엔대사가 합류하였다.[150]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제네바 회담에 참가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번 회담이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려는 마지막 시도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성명 내용이다.

> 한국 정부는 제네바 회담 참석을 종용하는 미국의 초청을 오늘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회의에 참석하기를 오래 동안 주저하였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제네바 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크게 의심하여 왔다. 둘째, 우리는 이 회담으로 말미암아 공산군 측에 전

쟁준비를 하는 시간을 더 주게 되리라는 일을 염려하였다.
우리는 과거 수 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고도 실질적인 보장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 결과 다행히도 현재 우리가 받은 보장은 대단히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장 아래 우리는 이제 신념과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제네바에 가게 된 것이다.[151]

제네바 정치회담이 1954년 4월 26일 한국을 비롯해 참전 15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제외)과 소련·중국·북한 등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네바 회담은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참가국은 한국과 유엔참전 15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불참), 그리고 북한·중국·소련 등 모두 19개국이었다. 제네바 정치회담은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서 말하는 정치회담이라고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토의하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개국 외무장관 회의의 부산물로 열렸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對共) 유화책으로 세계 도처에서 소련의 진출에 큰 부담을 안게 된 미국이 대소(對蘇) 봉쇄정책을 통해 강경정책을 쓰게 되자, 소련은 스탈린(Joseph Stalin) 사후 자유진영에 대해 평화공세로 대응하였다. 이때 미국의 전통우방국인 영국은 소련의 평화공세에 호응하며 대공(對

共) 유화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152]

제네바에서 4월 27일, 소련의 몰로토프(Vyacheslav M. Molotov) 외상의 사회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 한국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먼저 한국대표단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변영태 수석대표는 광복 이후 공산세력의 방해로 한국이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한 후, 북한지역에서의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 실시와 이에 앞서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연설하였다.[153]

某種書翰을傳達
中共資格問題廻避코40分間會合
中共參加資格協議
「中共撤收와自
英도印支佛軍援助?
軍事會

제네바 정치회담 개막을 보도한 국내신문

북한에서만의 선거실시에 대해 변영태 한국대표는, “1948년 2월 26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는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서 자유·비밀선거를 하여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을 고려하여 100석의 국회의석을

남겨두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유엔의 임무를 완수하는 일이며, 그 위신과 한국에 대한 과거의 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154]

또한 외국군 철수문제에 대해 변영태 대표는 "중공군과 함께 유엔군이 철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유엔군은 본래 중국과 북한의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해 출정(出征)한 경찰행동임으로, 그것이 완료된 후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중공군과 같이 철수해야 된다는 것은 사리 맞지 않다. 이는 강도가 자신의 흉기를 버리지 않으면서 경찰관더러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엔군과 중공군의 동시 철수를 반박하였다.[155]

한국대표의 연설에 이어 북한외상 남일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한국을 비난하고 유엔을 배격하는 발언을 하였다. 다음은 남일이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행한 연설 내용이다.

> 조선의 민족적 통일을 신속히 회복하고, 민주주의적 독립통일국가를 창건할 목적으로 북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 총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남북한 의회대표로 전한국위원회(全韓國委員會)를 조직한다. 셋째, 전한국위원회는 총선거법 초안을 준비한다. 넷째, 전 한국위원회는 남북한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발전시킬 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조직하여 총선거를 감독한다. 여섯째, 6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일곱째, 극동의 평화유지에 관심 있는 국가들에 의한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한다.[156]

북한의 제안은 '전한국위원회'를 조직하여 모든 선거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그 조직은 남북한이 1 대 1로 균등하게 유지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상호합의에 따른 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국이 주장하는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민주적 선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유엔의 역할을 전

혀 언급하지 않은 채,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유엔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속셈이었다. 특히 북한은 외국군의 철수시한은 명시하면서도 국회총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157]

이처럼 제네바 정치회담은 처음부터 한국의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방식, 선거관리 및 감시문제, 유엔의 권위 인정, 그리고 외국군 철수 등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4월 28일,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한국대표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한국문제 해결책은 이미 1950년 10월 7일자의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확정된 사항이며, 이 결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바 있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해야 아무런 위험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완수될 것이다. 외국군의 동시 철수도 불공평한 일이다. 중공군은 불과 수마일 철수하는데 비해 유엔군은 멀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공군은 언제든지 즉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58] 미국의 주장은 유엔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미국에 이어 중국대표가 연설하였다. 중국대표는 북한의 제안을 옹호하면서 미국이 태평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지의 포기, 일본의 재무장 반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등을 주장하였다.[159]

북한의 통일안에 대해 한국 정부도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4월 28일, 갈홍기 공보처장은 "북한의 남일이 제안한 통일안은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또 하나의 함정이며,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국가에 대한 공산주의의 기만정책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음과 같은 경고성명을 발표하였다.

> 충고는 금전보다 더욱 가치가 있으나, 금전만큼 환영을 받는 일은 드물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에 관한 왜곡 선전에 힘써 왔으며 그네들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이며 탐욕적인 국가라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 공산주의자들은 정부체제에 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다만 과거의 전통 속에

서만 살아온 인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같은 말의 의미를 왜곡 선전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압제와 기아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명칭 하에서 권력을 강탈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자비한 폭정인 독재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최선의 친구가 아니라 최악의 적이라고 선전하는데 힘쓰고 있다.
미국은 결코 침략국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도움 받는 사람들과의 우의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따름이다.[160]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 회의에서 북한이 제안한 '통일안'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도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지자, 오스트레일리아 대표가 하나의 타협안을 내놓았다. 오스트리아 대표는 "북한지역만의 선거 실시는 의심할 여지없이 명분이 뚜렷하다. 그러나 한국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전한국(全韓國)' 선거를 받아들일 것을 바란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161]

영국대표도 남북한의 인구 비례제와 국제적 감시하의 총선거 등 두 개의 조건을 '오스트레일리아 안'에 첨가하였다. 그런데 영국대표는 국제적 감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단정적 언사(言辭)를 회피하면서 "우리 견해로는 유엔 감시가 타당할 것으로 본다."는 함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뉴질랜드 대표도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독립 주권국가로서 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정권'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려는 점은 이해가 되나, 양측 주장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다른 우방국 대표들도 거의 동일한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러한 원칙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이에 북한의 남일은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162]

변영태 한국대표는 서울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여"로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전문지시가 도착하자, 이것을 타협안에 반영하였다.[163] 5월 22일, 한국

대표는 “북한에서만의 선거”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한국 통일에 관한 14개항의 타협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하나, 통일·독립·민주 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유엔의 감시 하에 종전의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둘, 남한과 현재까지 어떠한 선거를 행하지 못했던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셋, 본 제안을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넷, 선거 전후 및 그 기간 중 선거감시에 종사하는 유엔 감시위원은 선거 실시 전(全) 지역의 자유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감시조정하며, 이를 위해 행동·언론 등의 완전한 자유를 향유(享有)한다. 현지 당국은 감시위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다섯, 선거전후 및 그 기간 중 입후보자 및 그의 선거운동자와 가족 등은 행동·언론 및 기타 민주 제국에서 인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완전 자유를 향유한다.

여섯, 선거는 비밀투표 및 일반성인 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일곱, 전 한국의회의 의원 수는 전 한국 인구에 비례한다.

여덟, 선거지역의 인구에 정확히 비례되는 의원수를 할당하기 위하여 유엔감시 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아홉, 전 한국의회는 선거 직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열, 다음 문제는 전 한국의회 개최 후 제정한다. ①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 ②대한민국 현 헌법의 수정여부 문제. ③군대해산 문제.

열하나, 대한민국의 현 헌법은 전(全) 한국의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열둘, 중공군은 선거실시일보다 1개월 전에 한국으로부터 철수 완료한다.

열셋,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 실시 전에 시작될 것이나, 전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는 통일 한국 정부에 의하여 달성되며, 동 지배가 유엔에 의하여 확실히 증명되기 전에 철수를 완료해서는 안 된다.

열넷, 통일·독립·민주 한국의 권위와 독립은 유엔이 보장해야 한다.[164]

한국의 제안은 미국 등 15개 우방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특히 우방국들은 한국이 북한만의 선거주장을 철폐하고,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자유선거와 국제감시안은 유엔 및 제네바 정치회담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되었다. 그 가운데 국제 감시는 유엔에 의해 실시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자유진영 대표들은 국제 감시안을 지지하고 나섰고, 미국 대표도 6월 5일 연설에서, 국제 감시는 유엔통일부흥위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였다. 벨기에 대표도 6월 11일, 자유선거 감시를 위해 특별위원단을 유엔에서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이든(Anthony Eden) 대표는 6월 28일, 한국 안을 토의기초로 하되, 더 협의할 점이 있다고 하였다.[165]

공산측은 5월 22일 한국 대표에 의해 제안된 전(全) 한국선거에 대한 유엔감시안을 거부하였다. 공산측은 중립국감시 안을 주장하면서 중립국감시단은 공산국가와 비(非)공산국가 대표로 구성하되 대표를 같은 수로 하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북한대표는 "조선의 장래 헌법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국내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조선 국민과 장래의 조선 국회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6월 5일, 북한과 중국대표는 한국의 제안(14개 항)을 거부하면서 전 한국 선거에 있어서의 국제감시안을 또다시 반대하였다.[166] 북한대표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즉, 북한대표는 "18세기 아메리카의 여러 주(州)가 병합되어 합중국을 창건하였을 때 각 주는 인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또 스위스 칸톤(Canton)의 경우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의 발언권은 동일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167]

한국 대표단은 이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는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공산측의 그러한 주장은 6·25전쟁 발발 이후 공산진영이 유엔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기조'였다. 공산 측은 "6·25전쟁에 있어 유엔은 교전당사자이고, 1950년에 있어서 유엔 결의는 불법적이며,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감시는 외국 간섭이다. 그리고 제네바 정치회담은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엔총회의 결의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168]

공산측은 정전협정을 그들의 재무장을 위한 군사적 휴식기간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며 제네바 정치회담을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이는 한국과 자유진영 측에서 예측한 그대로였다. 이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군사적으로 패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가 우리[미국]보다 더 옳았음을 역사는 증명할 수도 있다."고 뒤늦게 회고하였다.[169]

북한대표는 6월 15일, 남북한의 직접 협상과 외국군의 동시 철수를 담은 안을 다시 내놓았다. 북한은 이에 앞서 소련과 중국 대표와 사전에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북한이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내놓은 최종안이다.

첫째, 양측은 본 회담에서 합의되는 기일 내에 외국군을 각각 비례수를 기준으로 철수시킨다.

둘째, 한국과 북한은 1년 내에 병력을 각각 10만 명 이하로 감축한다.

셋째, 남북한 대표로써 남북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양측의 전시체제를 점차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넷째, 양측은 군사적 의무를 포함한 모든 조약을 평화적 국토통일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남북한이 상호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쌍방의 문화적·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이를 실시할 '전 한국위원회'를 조직한다.

여섯째, 본회담 참가국들은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170]

소련 대표는 북한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볼 때까지 한국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동선언 채택을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과 유엔 참전국 대표들은 공산측이 그들 위주의 제안을 하게 되자, 제네바 정치회담을 일단 실패로 보았다. 나아가 한국과 유엔 참전국 대표들은

유엔 측이 제안한 2개 원칙(자유선거와 국제 감시)을 수락하지 않는 한 한국문제를 더 이상 토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171]

이에 한국을 포함한 유엔참전 16개국은 6월 15일, 회담 중단을 표명하고 토의 결렬의 모든 책임이 공산 측에 있음을 강조하는 '16개국 공동선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953년 8월 28일부 유엔총회의 결의와 1954년 2월 18일부 베를린 공동선언에 의거해서 유엔 지휘 하에 한국에 참전한 우리 국가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네바회담에 참가하였다.

우리들은 한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 과거에 유엔이 노력한 것과 합치(合致)하는 많은 제안을 하여 왔다, 우리들이 기본적이라고 믿는 2개의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은 그 헌장에 의거하여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공동작전을 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여 한국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높은 과업을 확장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둘째,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진정한 자유선거를 한국에서 시행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본원칙과 합치하면서 한국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의 기초를 성의 있게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그러나 공산측은 합의를 구하려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거부해 왔다…

그들은 1947년 이래 한국을 통일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태도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들은 실제 아무런 상호간의 의견일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인민으로 하여금 그릇된 환상을 품고 합의가 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견의 차이점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바이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들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공산 측 대표단이 우리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원칙을 거부하는 한, 이 회담에서 이 이상의 한국문제에 관한 고려나 시도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유엔의 목적을 계속 지지할 것을 다시금 단언하는 바이다.

1953년 8월 28일부의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이 선언에 참여한 관계국들은 이 회담

의 의사록을 유엔에 통고할 것이다.[172]

유엔 측의 '16개국 공동선언'이 있은 후, 중국대표는 한국의 평화확보에 관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미국·영국·프랑스·북한·중국·소련 등 7개국이 참가하는 비밀 회담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유엔 측 대표들이 이를 거부하자, 공산 측도 유엔 측의 16개국 공동선언을 거부하였다.[173]

이처럼 한국의 통일문제를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공산 측의 부당한 주장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는 6월 17일, 공산 측과의 회담은 무의미하며 그들로부터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이번 제네바에서 취하여진 유엔 16개 동맹국의 단결된 행동은 공산침략자들에 대하여 외교협상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를 가져오던 시기가, 이제는 종료하였다는 강력한 시사(示唆)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유엔 동맹국들이 무익한 제네바 회담을 종료하려는 완전일치(完全一致)된 결정은 한국이 벌써부터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뚜렷한 사실로서 알고 있는 바를 전 자유세계가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 즉 그것은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무용할 뿐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그러한 협상은 민주주의의 세력을 분할시키며 혼잡케 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장치된 함정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 공산주의자들의 성공적인 분할지연정책의 시기는 이제 끝났으며 자유세계가 주도권을 탈취하고 장악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 우리들은 공산분자들의 패배를 확실케 할 제반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실천되기를 희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 만약에 제네바에서 표시된 의견의 완전일치가 앞으로도 계속되며, 전 자유세계가 그의 결정(結晶)을 수행할 결심을 가진다면, 6월 15일 화요일이라는 일자는 전 세계를 통한 공산세력 전진(前進)의 종말을 표시하며, 이 악독한 침략적 제도의 쇠퇴의 시초를 의미하는 일자로서 세계 역사상에 기록될 것이다.[174]

제네바 회담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이 문제는 다시 유엔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유엔 측의 16개국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2개 원칙이 유엔의 한국문제에 대한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유엔은 이 원칙에 따라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行動으로實證할때

李大統領, 「壽府」討議終結에談

協商終焉을宣言

共産側의 新提案一蹴

國聯에經過報告決定

十代表不遠歸國

巨頭會談 25日開催 瑞西서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성명을 발표

제네바 회담은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렸으나, 한국의 평화통일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하였다. 공산 측은 자유선거에 관계되는 통일방안을 모두 거부하였다.[175] 제네바 회담의 결렬로 정전협정에 규정된 정치회담은 실질적으로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유엔 측과 공산 측은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의 염원이 담긴 멸공통일과 북진통일 휘호

대한민국은 제네바 정치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전협정은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는 사문서(死文書)에 불과하며, 단독으로라도 북진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176] 그러나 국제정세는 한국의 단독북진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통일된 자유·민주·독립국가 건설의 염원은 사라지게 되었다.[177]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정치회담 결렬을 계기로 태평양지역에서의 반공결속을 위해 아시아 반공민족연맹의 결성과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제 4 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

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정전협정의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4일, 미국의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이 8명의 고위사절단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와 상호방위조약 초안 검토를 위한 회합을 가졌다. 1953년 8월 8일, 변영태(卞榮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 중앙청(中央廳)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원안(原案)에 가조인(假調印)하였다.[178]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워싱턴에서 정식 체결되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은 1954년 1월 11일, 미 상원에 이를 제출하고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1954년 1월 19일, "대외적인 무력 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 원조하는 책무를 갖는다는 조항을 첨가한다."는 문항을 삽입하여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이로부터 1주일 뒤인 1월 26일, 미 상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81대 6으로 통과시켰다.[179]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 상원이 비준한 10개월 뒤인 1954년 11월 17일,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미양국은 군사동맹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 8-8>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일정

일 자	내 용	장 소	비 고
1954. 8. 4	1953년 8월 4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위해 덜레스 국무장관 등 8명 내한		
1953. 8. 8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假調印)	한국 서울	미국 대표 : 덜레스 국무장관 한국 대표 : 변영태 외무장관
1953.10. 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국 워싱턴	
1954. 1.15	대한민국 국회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동의		
1954. 1.19	미국 상원(上院) 외교관계위원회, 한미상호방위조약 승인 (조건부 승인)		
1954. 1.26	미국상원, 한미상호 방위조약 비준 동의	미국 워싱턴	찬성 81표, 반대 6표로 가결
1954.11.17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 한미군사동맹 법적 토대 형성 계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장면(1953.10.1, 미국 워싱턴)
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델레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정식 조인하고 있는 모습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구성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 역할을 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과 정부 간 또는 군사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가 명시되어 있다.[180]

제1조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유엔헌장을 지지하며,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는 자조(自助)와 상호원조에 의해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하며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및 군사위원회회의(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통한 협의기능을 강화해 왔다. 그 외에도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 군사정보교환, 방산협력(防産協力)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제3조는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대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군사 동맹관계를 선언함은 물론 공동방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4조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의 구체적 수단을 실제화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대북전쟁 억지력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5조와 제6조는 상호방위조약의 합법성과 함께 어느 일방이 동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有效)함을 선언하고 있다.[181] 다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11.17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Pacific area)에 있어서의 평화기구(peace fabric)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potential aggressor)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armed attack)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common determination)'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regional security)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collective defense)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international disputes)이라도 국제적 평화(peace)와 안전(security)과 정의(justice)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threat)이나 무력의 행사(use)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political independence) 또는 안전(security)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separately) 공동으로나(jointly) 자조(self-help)와 상호원조(mutual aid)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suitable measures)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each party)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administrative control) 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hereafter)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territories)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위험(common danger)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constitutional processes)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해·공군(land, sea, air forces)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right)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grant,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constitutional processes)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instruments of ratification)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Washington)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indefinitely)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other party)에 통고(notice)한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undersigned plenipotentiaries)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글과 영문(korean and English languages)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182]

3. 한미동맹과 '태평양지역 안보기구' 형성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이듬해인 1954년 11월 17일에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재침(再侵)을 억제하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침략세력의 공격에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도 직결된 안정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183]

6·25전쟁으로 이루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및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아시아국가와는 동맹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6·25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게 요청하였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태평양동맹'이 미국의 무성의와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을 우선시하는 '유럽제일주의(First Europe)'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미국의 그런 안보산물이 바로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공동 방위하는 군사적 동맹체가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였다.

그러나 미국은 6·25전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반공국가들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태평양전쟁 시 같이 싸웠던 연합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1951년 8월 30일에는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 1951년 9월 8일에는 미·일안보조약, 1951년 9월 1일에는 미국·호주·뉴질랜드 간의 앤저스(ANZUS)조약, 1954년 12월 2일에는 미·대만상호방위조약, 그리고 1954년 9월 8일에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처럼 양자 및 다자간에 있어서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표 8-9>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우방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현황[184]

구 분	조인일자	체결 당사국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1951. 8.30	미국과 필리핀
앤저스(ANZUS)조약	1951. 9. 1	미국, 호주, 뉴질랜드
미·일 안보조약	1951. 9. 8	미국과 일본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10. 1	미국과 한국
미·중(대만) 상호방위조약	1954.12. 2	미국과 대만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1954. 9. 8	미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태국, 대만

이로써 태평양지역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반공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동맹을 맺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태평양동맹'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의 기폭제는 6·25전쟁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는 대소(對蘇) 봉쇄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정전협정의 조인과 정전체제 구축

1953년 7월 공세가 끝날 무렵인 7월 19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에 조인할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은 본격적인 협정문 조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내용에 대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마지막 수정작업이 끝나갈 무렵 양측 대표들은 조인식 날짜를 7월 27일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 장군은 7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인식 날짜를 알려주었다.

양측 대표가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조인이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판문점에 마련된 조인식 장에는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이 입장하여 모두 18통으로 된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후 정전협정문서는 문산의 유엔군사령부로 보내져 이날 오후 1시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유엔군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정전협정 문서는 다시 판문점으로 되돌려져 평양과 개성으로 이송되어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각각 서명하였다. 그리고 정전협정에 서명된 문서 중 영문으로 된 6통의 문서만이 유엔군사령부로 돌아왔다.

정전협정 조인에 따라 7월 27일 22시를 기해 전 전선에서 포성이 멈추었고, 7월 30일 22시 정전협정에 따라 현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후방으로 2km 철수하여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주진지 편성에 들어갔다. 이로써 한반도는 정전체제가 구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조인하였다. 이로써 한미동맹이 정식으로 성립되어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바라지 않았다. 한국은 동맹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한국안보에 대한 단독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미국은 제퍼슨 대통령 이래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다며 펄쩍 뛰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열렬한 '짝사랑'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살길은 미국과의 동맹뿐이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의 반대에도 휴전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에게 이승만은 전후 안전보장책으로 한미동맹과 경제건설 그리고 한국군 증강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명문대학(조지워싱턴·하버드·프린스턴)을 나와 미국 역사에 정통하며, 국제정치학자인 이승만은 누구보다 미국의 고립주의적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살길은 미국의 대한(對韓) 개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자존심을 지켰다.

휴전으로 치닫는 6·25전쟁의 막바지에서 대한민국에 남은 유산은 '전 국토의 폐허와 공동묘지'였다. 그것도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된 채였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승만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그런 상태로는 살아갈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이 살길은 단 하나였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전후복구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었다. 미국은 싫은 기색이 역력하였다. 이승만은 미국을 움직일 협상수단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승만은 미국이 원하는 휴전을 방해할 수 있는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였다. 이것은 이승만이 미국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였고, 승부수였다. 미국은 그 보복으로 이승만 제거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그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회하였다.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고 얻어낸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동맹

이 비로소 현실화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동맹외교를 펼쳐 한미동맹을 일궈냈다.

(집필 : 남정옥)

주(註)

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이하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로 통일)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246;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 『한국전란 3년지』, C49쪽.
2)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480.
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79.
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79.
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9.
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81.
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49.
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p.249-250.
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83.
10) 외무부 역, 『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제4권, 194쪽.
1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1.
1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83.
1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1.
1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4.
1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86; 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4.
1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86.
1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7.
1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4.
1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7.
2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7.
21) 외무부 역, 『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제3권, 174쪽.
2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7.

2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7.

2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7.

2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8.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308쪽.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08-309쪽.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06-308쪽.

2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8.

30)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p.295-296.

31)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696쪽.

3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91.

33) 해군본부, 『해군통계연감』 196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항미원조전사 :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1952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34)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ugust 3, 19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11쪽.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12쪽.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1981, 676-677쪽.

37) US Message, JCS 940124 to CINCFE, 29, May 195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9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676-677쪽.

3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9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0.

39) 「한국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4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서』, 314-315쪽.

4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1972, 589쪽.

42) 「한국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1항,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

43) 「한국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항 및 제3항.

44) 제성호, 「한국휴전협정의 이행실태」,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집문당, 1998, 201쪽.

45) 「한국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6항~제10항.

46) 「한국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항 및 제3항.

47) 「한국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ㄴ).

48)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통일목표는 불변」(1953.7.28.),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1955, C13-C15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25-326쪽.

49)「한국 정전협정」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ㄴ);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16쪽.

5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1; 국토통일원,『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 회의록 분석』, 1980, 15쪽.

51)「한국 정전협정」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25항.

52)「한국 정전협정」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

5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93-49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1.

5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93-494.

55)「한국 정전협정」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42항.

56)「한국 정전협정」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41항.

5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1.

58)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45쪽.

5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94-49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1.

6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1;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포로』, 1996, 232쪽.

61)「한국 정전협정」제3조(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1항.

62)「한국 정전협정」제3조(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6항.

63)「한국 정전협정」제3조(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6항.

64)「한국 정전협정」제3조(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7항.

65)「포로협정(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제1조(총칙) 제1～제3항.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20쪽.

67)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포로』, 232쪽.

6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1997, 608쪽.

6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608쪽.

70)「귀환포로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한국전쟁 포로』, 283쪽.

7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1.

73)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ust,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3, p.21;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379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598쪽.

74) 조성훈,『한국전쟁과 포로』, 378쪽.

75)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59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워회,『한국전쟁 휴전사』, 321쪽.

76)「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위무사」(1953.8.19),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20-C21쪽.
77)「유엔군 포로송환에 대한 미 국무장관 성명」(1953.8.22),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63쪽.
7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41.
79)「포로협정(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제1조(총칙) 제1~제3항.
80) K. S. 티마야 씀, 라윤도 옮김,『판문점 일기 :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의 한국현대사 증언』, 소나무, 1993.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워회,『한국전쟁 휴전사』, 327쪽.
8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포로』, 243쪽.
8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617쪽.
84)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2쪽.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워회,『한국전쟁 휴전사』, 328쪽.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워회,『한국전쟁 휴전사』, 328쪽.
87)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3쪽.
8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95-514.
89)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3쪽.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워회,『한국전쟁 휴전사』, 330쪽.
91)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3쪽.
92)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4쪽.
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0쪽.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1-332쪽.
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2쪽.
96)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4쪽.
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3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650쪽.
9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포로』, 253쪽.
9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포로』, 253쪽.
10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5.
1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4쪽.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4쪽.
103)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3-A4쪽. 1953년 12월 8일에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8군사령관을 송환불원포로의 처리절차를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한 그의 행정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관련 업무를 이양한 바 있었다.
10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96.
105)「정전협정」제32조(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9항.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19-320쪽.
107) 내무부 통계국,『대한민국 통계연감』1955, 212-213쪽.
108)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5쪽.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5쪽.

1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5쪽.
1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5쪽.
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6쪽.
113)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654-669쪽.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6쪽.
115)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 중앙일보사, 1996, 170-171쪽.
116)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 175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602-603쪽.
117)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6쪽.
118)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6쪽.
119)「휴전협정 이행에 관하여 유엔에 제출한 유엔한국파병단 결의안」(1953.8.18.),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10쪽.
120)「휴전협정 이행에 관하여 유엔에 제출한 유엔한국파병단 결의안」(1953.8.18.),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10쪽.
1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39-340쪽.
122)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5쪽.
12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2;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 178쪽.
1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40쪽.
1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40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678-687쪽.
126) 유엔은 참전 16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불참선언으로 15개국만을 제안하였다.
127) 소련은 이전에 제안한 11개국에 이집트, 인도네시아, 시리아, 멕시코를 추가하였다.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41쪽.
12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690쪽.
130)「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1953. 8. 28),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20쪽.
131)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6-A7쪽.
132)「정치회담계획에 공산 측 의향을 재 타진하는 미국의 각서」(1953.9.1.),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36-C137쪽.
133)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하, 699-700쪽.
134)「공산측 태도 표명을 요구하는 미국측 각서」(1953.10.8.),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37쪽.
135)「판문점 예비회담에 동의한 공산측 각서」(1953.10.10.),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138쪽.
136)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706쪽.
137)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 181쪽.
1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44쪽.
139)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A7쪽.
1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44쪽.
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45쪽.
142) 대한민국 국방부,『한국전란 4년지』, C31쪽.

143)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187쪽.
1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45쪽.
14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3.;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30. March 1, 1954, pp.317-318.
14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3.
147)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C46쪽.
1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45쪽.
149)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A8쪽.
150) 여기에 비해 공산군 측은 대표단은 북한이 1백여 명, 소련이 2백여 명, 중국이 3백여 명이었다.
151) 「제네바 정치회담 참가 초청을 수락한 이승만 대통령 성명서」(1954.4.19.),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C52-C53쪽.
152)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737쪽.
153)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738-744쪽.
1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48쪽.
1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48쪽.
156) 「조선의 민족적 통일회복과 전조선적 자유선거 실시에 관하여」(1954. 4. 27.),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744쪽.
1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49쪽.
158)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2-1954, Vol.16, 1981, pp.131-134;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746-753쪽.
1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0쪽.
160) 「공산기만정책에 대한 이대통령의 경고성명」(1954.4.28.),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C53쪽.
1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1쪽.
162)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A9쪽.
163)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203쪽.
1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1-352쪽.
1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2-353쪽.
1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3쪽.
167)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205쪽.
1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3쪽.
169) Mark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168.
1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3-354쪽.
1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4쪽.
172)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785-787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4-355쪽.
1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57쪽.
174) 「제네바회담 결렬에 대하여」(1954.6.17.),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C65쪽.

17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3.

1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57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판문점』하, 789쪽.

1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357쪽.

178) 차상철,「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212쪽.

179) 차상철,「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한국과 6·25전쟁』, 212쪽 ; 김계동,「한미방위조약체결 과정과 개선방안」,『사상과 정책』(1989년 여름호), 154-162쪽 ; 서울 新聞社,『駐韓美軍 30年, 1945-1978』, 杏林出版社, 1979, 299쪽.

1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조약집 1945-1980』제1집, 1981, 154-157쪽.

181)「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 1); 국방부,『국방백서 1994-1995』, 107쪽.

1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조약집 1945-1980』제1집, 154-157쪽.

183) 온창일,「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135-137쪽; 차상철,「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212-214쪽.

184) 국방군사연구소,『국방사연표, 1945-1990』, 1994, 106-107쪽, 162쪽; 박재규,『냉전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박영사, 1982, 168쪽.

제9장 승 평

제1절	전쟁의 성격과 의미
제2절	전쟁의 경과와 결과
제3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형성
제4절	전쟁의 교훈

제 1 절 전쟁의 성격과 의미

1. 전쟁의 성격과 특징

6·25전쟁은 1945~195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를 양축으로 하는 세계질서 재편성 과정에서 동서 냉전구조가 전 세계에 걸쳐 하나의 전선처럼 형성되었다. 그 중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南北韓)뿐만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자유 및 공산진영을 포함해 미국과 소련의 힘이 직접적으로 맞선 최첨단의 안보상황 하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김일성이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승인과 마오쩌둥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돌파하여 남침함으로써 6·25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지영과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공산진영 간의 팽팽한 냉전(冷戰)이 열전(熱戰)으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의 남침목적은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전 한반도에 그들의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6·25전쟁은 '유엔의 헌장'에 도전한 불법 남침전쟁인 동시에 국제평화를 파괴한 침략전쟁이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초기 북한을 응징하고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결성하여 참전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전투파병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그리고 물자지원 및 지원의사를 표방한 42개국을 표방하여 63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대응해 소련을 중심을 한 공산주의 국가들도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특히 중국과 소련은 막대한 지상군과 공군을 한국전선에 보내 국군 및 유엔군에 맞섰다. 이로써 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된 국제전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

른바 한반도에서 직접 군대를 파병한 국가만 해도 무려 25개국이 참전한 세계전쟁이었다.

그럼에도 공산 측은 '북침론'을 내세운 가운데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 및 '인민해방전쟁' 또는 '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6·25전쟁이 대한민국의 '북침'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역사 날조와 함께 '조국해방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킨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6·25전쟁 이전 미국은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한국정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였고, 뒤이어 애치슨 국무장관도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에서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나 공산 측이 주장하고 '해방전쟁'은 의미가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1980년과 1990년에 걸쳐 동구권 공산권이 몰락하고 소련공산정권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온 소련의 비밀자료에서는 전쟁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걸쳐 일어났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전쟁을 승인을 요청하고, 이어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는 과정이 소련의 비밀문서 등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은 전쟁의 전개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전쟁모의단계에서부터 국제전(國際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은 결코 순수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전(內戰)'이 아니라 공산권 종주국이 전쟁모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한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이었고, 이후 전개과정에서 유엔회원 16개국과 소련 및 중국의 공산국가가 참전함으로써 그 규모면에서 세계전쟁임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특히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한 후에는 전쟁지원 차원을 넘어 유엔군사령관과 조중연합사령관(朝中聯合司令官)이 남북한 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산군과 유엔군의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전쟁지도 역시 이들에 의해 주도된 점 등 전쟁의 실상을 고려할 때 내전으로 규정하기엔

전쟁의 참전규모 및 전쟁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당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였음에도 이의 사용을 억제하였다. 그런가 하면 유엔군 측이 만주 또는 중국으로 전쟁지역 확대문제를 몇 차례 검토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한반도 내에 국한시키는 인내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6·25전쟁을 '제한전쟁(limited war)'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쟁목표에 있어서도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에 다소의 마찰이 있기는 하였으나 침략의 격퇴에 한정시켜 전쟁을 지도하였다. 유엔군은 이러한 전쟁목적을 달성한 후 적대행위를 일단 종결하였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시대에 치러진 '제한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에게 있어 6·25전쟁은 온 국민이 참여한 총력전이었다. 국군을 비롯해 15세부터 17세까지의 소년지원병, 학생신분의 어린 학도의용군,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지게부대인 노무자, 4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유격대, 준군사단체인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 제2국민역(役)으로 구성된 국민방위군, 경찰, 여군, 향토자위대가 참전하였다. 그들은 조국이 처한 위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선(死線)을 수 없이 넘나들다가 최후에는 그들의 고귀한 '뼈와 살 그리고 피'를 멍들고 찢겨진 이 산하위에 뿌리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끝내 지켜냈다. 이러한 점에서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6·25전쟁은 북한 또는 공산 측이 주장하는 '내전(內戰)' 또는 '해방전쟁'이 아니라 세계열강 25개국이 참전한 국제규모의 세계전쟁(world war)이었다. 특히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소련과 중국의 병력 및 무기를 지원받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으로 종결된 '20세기 최대의 전쟁'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25전쟁의 성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첨예하게 대립된 동서진영 간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념전(理念戰)과 무력적화통일을 앞세운 군사전(軍事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6·25전쟁은 전쟁지역이 한반도로 국한된 국지전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참가규모면에서는 25개국이 참전한 국제전이었다.

셋째, 6·25전쟁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위협만 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제한전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쟁승리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이었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넷째, 6·25전쟁의 전쟁종결방식은 이전의 전쟁 패턴하고는 상이한 전쟁이었다. 과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전쟁종결방식이었으나 6·25전쟁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휴전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양측은 모두 서로가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6·25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심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정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은 격심한 이념적·군사적 대립과 함께 이산가족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섯째, 6·25전쟁은 60년 후에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북한의 최빈국으로서의 성적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2. 정전체제의 의미와 특징

우리 민족은 6·25전쟁을 통해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파괴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전후처리로 설정되고, 1948년 냉전질서에 의해 고

착되었던 38도선의 경계선을 허물어트리지 못하고, 그 현상에서 정전을 강제(强制) 당함으로써 휴전선에 의해 재분단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유념할 대목은 재분단을 가져온 휴전의 정의가 군사행동(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순수 군사적 조치라는 점이다. 즉, 정전은 종전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가교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단 정전조치를 취하고 정전체제를 구축한 후, 이를 평화로 대체하기 위해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적 해결방안과 외국군의 철군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유엔참전 16개국은 이 정치회담을 통한 평화의 회복 도모와 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써 1953년 8월 7일, “우리는 유엔의 원칙과 목적을 믿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문제 해결을 성실히 추구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만일 유엔의 원칙에 재도전하는 무력공격이 재발한다면 다시 단합하여 신속히 저항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요지의 공동정책선언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정치회담은 한국정부와 유엔군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담 참가국 및 장소문제를 빌미로 북한과 공산군 측이 생트집을 잡는 바람에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좌초되어 본회담은 협상에 명시된 3개월 내 열리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다루던 미·소·영·프 4개국 외상회담의 주선으로 1954년 4월 26일 뒤늦게 정치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엔 공산군 측이 통일정부 수립방안에 있어 자유선거 방식과 유엔감시를 완강히 거부하고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음에 6월 15일 결렬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양측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남북통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하고 불안한 휴전상태로 대치를 계속하게 되었다. 북한의 저의(底意)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군사력을 이 정전기간을 이용해 재건하여 무력적화전략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기도였다. 그들은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휴전협정의 핵심조항인 휴전협정 제13조 D항의 신무기(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 도입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감시기구의 눈을 피해 새로운 장비의 도입을 비롯해 휴전협정

위반을 자행하였다.

유엔군 측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1957년 6월 21일에 정식으로 13조 D항의 폐기 선언을 하고 북한의 군비증강에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1959년 말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토치카를 구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무장화 또는 요새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정전협정을 파괴하는 한편 1960년대 초부터 무장병력을 남파시켜 대소규모의 도발을 야기함으로써 휴전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은 더욱더 노골화되었다. 1994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공산군 측 대표단을 철수하고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체코·폴란드 대표단도 축출함으로써 정전체제는 반쪽만 남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정전협정의 이행관리 및 감독기능이 마비되어 정전이 언제 열전으로 다시 바뀔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1990년대 20세기 말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대적 조류를 타지 못하고 이념과 무력만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다. 21세기 들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수로 지원 등 지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강경 노선을 버리지 못하였다. 북한은 오히려 서해연평해전을 비롯하여 천안함 피격, 뒤이은 연평도 포격도발, 정전협정 무효화선언 등 한반도를 전쟁상황으로 몰고 가는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전체제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특징을 다음과 같이 되새겨 볼 수 있다.

첫째, 정전체제는 6·25전쟁 결과 수립된 현실적인 체제이나 불안한 평화체제라는 것이다.

둘째, 정전체제는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이 될 때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체제라는 것이다.

셋째,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력, 정치적 대처력, 외교적 대응력, 경제적 자생력, 사회적 자정력(自淨力)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도발과 전쟁에 대한 모험은 정전이 된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과 정전을 돌이켜보면서 전쟁의 억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과 힘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이룩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제 2 절 전쟁의 경과와 결과

1. 전쟁의 경과와 전후 복구 및 전력증강

1) 전쟁의 전개양상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기습남침에다 침략전쟁 그리고 25개국이 군대를 파병해 전투를 치른 국제전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쟁은 유례없고, 잔인하고 격렬하게 치려져 많은 전쟁피해가 발생하였다. 전쟁은 한반도라는 좁고 제한된 전장 환경에서 3년 1개월 2일, 1,129일간 지속됨으로써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37개월 간 지속된 6·25전쟁의 양상은 '밀물과 썰물'처럼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끝을 오가며 전개되었다. 전쟁초기에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38도선으로 퇴각하고,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37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 전투양상을 보였다.

양측은 이후에도 38도선을 놓고 진퇴를 거듭하며 쫓고 쫓기는 기동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는 고착된 전선에서 양측은 휴전 이후의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의 살상무기가 좁은 전장에 모두 동원되어 그 위력과 밀도가 높았던 것도 인명피해를 높인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상에서는 전차와 야포를 포함하여 각종 지상화기가 동원되어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공중에서는 미국의 B-29전략폭격기와 양측의 최신예 제트전투기(미국의 F-86과 소련의 MIG-15)를 포함하여 천 여대가 넘은 각종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끊

임없는 작전활동을 펼쳤다. 한반도의 해역(海域)에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공모함이 4척 이상이 항상 바다위에 떠 있는 가운데 수백 척에 달하는 함정이 투입되어 각종 해상작전 및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처럼 6·25전쟁은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유엔군이 참전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38도선의 원상을 회복한 후에는 북진작전을 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공산권 측도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양측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보이다가 마침내 휴전으로 전쟁을 종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6·25전쟁은 연합 및 합동작전을 기본으로 각종 형태의 전투양상을 보였다. 기습전, 지연전, 상륙전, 기동전, 진지전, 참호전, 심리전, 게릴라전, 후방지역작전, 해상철수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후방차단작전, 융단폭격 등이 전개되었다.

2) 전쟁 피해와 전후복구

6·25전쟁 기간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戰亂)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국군만 해도 전사 및 사망 13만 7,899명을 포함하여 부상·실종·포로가 약 62만 명에 달하였고, 유엔군 참전 16개국도 미군 전사 36,940명을 포함하여 부상·실종·포로가 약 16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국군과 유엔군의 직접적인 인명피해만 해도 77만 6천 명에 달하였다. 이에 비해 공산군 측은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4만 명 등 약 204만 명의 손실을 입었다.

남북한 민간인 피해도 엄청나다. 남한 주민들의 피해는 사망 및 학살 37만여명을 비롯하여 부상 22만여 명, 납치 및 행방불명 39만여 명 등 9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주민 150만 명을 포함하면 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인명피해만 해도 25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피난민 32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을 포함하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남북한 주민들의 숫자는 600백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의 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정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음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적 피해도 인명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전쟁터였을 뿐만 아니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가옥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이 대파되었다. 특히 군사시설로 이용된 학교와 공공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어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 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다.

그러한 피해와 파괴 그리고 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반공의식과 생존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은 발휘하였다. 이것이 전후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전후 복구과정에서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도로, 학교, 공공시설, 교량 등을 건설하며 전후복구에 힘썼다. 그 결과 학교 900여 개, 교회 300개, 병원과 고아원 각각 200개, 교량 100개 등을 건설하였다. 이외에도 대구의 효성여대, 강릉의 관동대 건물도 지어줬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과 국군은 전후 굶주림을 참으며 전후복구 및 경제건설에 노력함으로써 황폐화된 국토를 되살리고 산업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반면 북한 공산정권은 그 체제가 갖는 자체 모순에다 국가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과다 투입함으로써 오늘도 파괴를 딛고 일어서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에 의한 전시체제의 지속적 유지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3) 국군의 성장과 발전

6·25전쟁은 38도선 경비를 위한 장비 및 무기를 보유했던 경비대 수준의 국군을 전쟁 이전의 수준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즉,

국군은 전후 일약 현대화된 60만 대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6·25전쟁 초기 국군의 병력은 8개의 보병 사단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단 병력 수준도 9,000여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의 총병력도 96,140명에 105밀리 곡사포 91문, 57밀리 무반동총 140정, 81밀리 박격포 384문, 60밀리 박격포 576문, 2.36인치 로켓포 1,900문, 장갑차 24대 등의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 해군도 소해정 등 33척에 6,956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군도 경비행기 12대와 연습기 10대에 병력 1,897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전후 국군은 6·25전쟁 당시 이와 같은 장비와 병력의 열세를 딛고 60만 대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채결 당시 국군은 개전 당시와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의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한국 육군은 전쟁 중에 부대창설을 계속하고 신병을 보충받아 정전 당시에는 3개 군단, 18개 사단에 12개 사단포병단, 3개 전차대대의 편제 아래 총병력 55만 명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육군은 그해 말에 20개 전투사단을 갖추게 되었다.

해군도 6개의 전대를 기간으로 한 함대(艦隊)로 성장하였고, 병력도 12,000여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구축함을 비롯한 전투함을 갖추게 되었다.

공군도 전쟁 초기 연습기와 연락기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전투기를 보유한 채 독립작전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즉 한국 공군은 1개 전투비행단과 1개의 훈련비행단으로 편성되었고, 여기에 F-51전투기 80대를 비롯하여 각종 항공기 110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병력도 11,000여 명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국군은 정전과 더불어 국방조직 및 군 구조도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바꾸게 되었다. 즉, 육·해·공군의 통합전략 및 통합작전을 위해 연합참모본부(聯合參謀本部, 합동참모본부의 전신)를 설치하여 운용하였고, 예비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 민병대(民兵隊)를 마을 단위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방 방어전담부대의 최고 야전군사령부로 제1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군수지원 및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총괄하는 제2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여기에 모든 교육기관을 통괄하기 위해 교육총본부(敎育總本部)를 창설하여 운용하였다.

이로써 3군의 합동작전을 통괄하는 연합참모본부 밑에 육해공군본부를 두었고, 여기에 휴전선의 전선을 담당하는 제1군, 후방작전 및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제2군, 그리고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교육총본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산세력의 침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공을 토대로 한 안보체제의 구축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반공이 국시로 자리 잡게 되었고 모든 가치에 우선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6·25전쟁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동과 혼란을 지양하고 안정지향적인 정치질서를 지향케 하였다. 나아가 국군은 안보의 주역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전쟁억지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전쟁의 결과

1)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승리한 전쟁

6·25전쟁은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비긴 전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통해 북한의 불법남침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였다. 6·25전쟁 초기 유엔의 전쟁목표는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었다. 물론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쟁목표가 한반도의 통일로 확대되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유엔은 전쟁목표를 다시 38도선 이남의 확보로 변경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전협정은 비긴 전쟁 또는 패배한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침략을 물리친 '승리한 전쟁'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최초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침략과 그 후 침략전선에 가세한 중공군의 남침을 모두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전쟁 이전 대한민국 영

토를 지켜냈다. 이는 유엔 결의 중 침략의 격퇴와 평화의 회복이라는 2대 목표 중 첫 목표의 완전한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38도선을 파괴한 상황에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공산침략을 격퇴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였음은 물론 전쟁이전 상태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6·25전쟁은 분명히 승리한 전쟁이었다.

이에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기념일'로 정하고, 이날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2013년 정전 60주년 기념식을 갖고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켰고, 한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6·25를 '잊힌 전쟁(forgotten war)'이 아니라 '명예로운 전쟁(honored war)'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유엔참전일로 정하고, 6·25전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전쟁 또는 유엔이 참전한 국제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 직후부터 7월 27일을 '전승절'로 부르며 승리한 날로 부르고 있다. 그들의 6·25전쟁을 기록한 '조선전사(朝鮮全史)'에서, "조선에서의 정전실현은, 우리인민과 인민군대가 강대한 적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쟁취한 역사적 승리였다."는 것이다. 이는 남침사실을 기만한 역사의 날조이자, 패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선전물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한 데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특성과 창조성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 통제·사회주의 북한 체제가 실패한 전쟁

6·25전쟁의 경과와 휴전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1948년 남북한에 두 체제가 수립

된 후 북한이 줄곧 시비를 걸어온 정통성 문제에 있어 우열이 확연히 가려졌다. 전쟁 간 그들이 점령지역에 설치하려던 그들의 체제는 대다수 국민에 의해 외면당하였고 참여와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는 침략의 패배에 결정적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 공산체제의 패배를 입증해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피난민의 동향이다. 휴전 때까지 최소 126만 명의 북한동포가 자유를 선택하여 월남(越南)하였으나, 휴전이후 실향민 교환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불과 37명뿐이었다. 전쟁포로도 협상과정에서 51%가 북으로 귀환을 거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공산군 측은 이를 복귀시키기 위해 폭동을 야기하며 2년간이나 회담을 질질 끌었다. 그러나 결국 전체 포로 중 절반이 넘는 87,000명이 자유의지에 의해 한국과 자유세계에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월남 동포와 반공포로의 규모는 북한 전체인구의 14% 이상으로서 두 체제간의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극적으로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대사건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쟁 동안 북한 김일성이 전쟁계획의 기초로 가정하였던 남한지역 내에서의 '인민봉기'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공이념이 도전불능의 위상으로 자리하여 전후 국가안정의 도모는 물론 국력의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통성과 체제 경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통제·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들에게 집단성을 강조하며 동원하였기 때문이었다.

3)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설정

6·25전쟁은 정전협정이 양측의 군사령관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조인되고 22시를 기하여 발효됨에 따라 적대행위가 중단과 더불어 정전으로 전환되었다. 양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곧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등 휴전체제를 구축하고 군사분계선을 기선으로 각각 2km씩 물러나

4km폭의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다시 대치하게 되었다.

휴전선은 휴전 당시의 피아 접촉선을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상에서는 한강하구-임진강구(문산 서남 8km)-판문점 새터-고양대-유정리(철원북 12km)-하갑령-밤성골-문등리-신탄리-수령-감호(남쪽 1km)를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휴전선은 서쪽지역은 38도선 남쪽에, 그 동쪽지역은 38도선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 바, 서부의 아군측이 포기한 면적보다는 동부의 확보한 면적이 다소 넓지만, 대체로 전쟁 전 현상과 비슷한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 전쟁과 휴전으로 인한 가장 으뜸가는 결과는 3년간의 전란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38도선을 대체한 휴전선에 의해 재 분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이 하나로 되기는커녕 전쟁 전 현상으로 회귀한 채 냉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분단과 대결을 다시 계속하게 된 불행한 역사적 사실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현실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제 3 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형성

6·25전쟁 때 미국은 1개 야전군, 3개 군단, 8개 보병사단, 1개 해병사단, 28개 보병연대, 54개 포병대대, 8개 기갑대대를 투입해 전쟁을 수행하였다.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은 일본과 하와이·오키나와·본토에서 동원돼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미국은 1950년 7월 1일 스미스특수임무부대를 파한한 이래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1년 6월 말 미지상군은 25만 여명, 1952년 6월 말에는 26만여 명, 휴전 때는 30여만 명에 달하였다. 이때 미군은 제8군을 비롯해 3개 군단(제1·제9·제10군단), 8개 사단(제2·제3·제7·제24·제25·제40·제45·제1해병사단)이 한국에 주둔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주한미군 철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감축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철군은 1954년 3월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부대가 미 제45사단이다. 이 사단은 1954년 3월 14일 인천항에서 이한식(離韓式)을 마친 후 뉴욕으로 출항하였다. 이어 미 제40사단이 철수하였다. 미 제40사단은 1954년 5월 8일 해산식 후 인천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1954년에 미 제25사단·제2사단·제3사단·제24사단이 철수하였다.

한국전선에 첫 발을 내디뎠던 미 제24사은 1954년 11월 6일 강원도 양구에서 이한 행사를 실시한 후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부도 일본으로 이동하였다가 1957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 함께 서울로 복귀하였다.

이후 주한미지상군은 미 제7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뿐이었다. 최초 미국은 한국에 2개 사단을 주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미국은 1955년 미 제1해병사단이 철수하자 미 제1기병사단을 파한했고, 미 제1기병사단이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하자 미 제2사단을 다시 한국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2개 사단 주둔원칙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1971년 미 제7사단이 철수하면서 인디언헤드부대인 미 제2사단

만 남게 되었다.

미국이 6·25전쟁을 휴전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하거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을 수행할 준비를 충분히 갖출 때까지 소련이나 중공과의 충돌을 회피한다는 전략이었다.

또한 미국은 서유럽 중심의 세계전략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의 군사력을 전부 투입할 수 없었다. 이에 미국은 중공군 개입 이후 전면전을 회피하면서 전쟁이전상태의 회복이라는 최초 유엔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38도선 부근에서의 명예로운 휴전을 모색하였다.

6·25전쟁 이전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태평양방위선 연설은 한국 정부를 경악케 했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런데 휴전은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에 휴전선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까지 공산침략을 막는 봉쇄선 역할을 하던 38도선 대신 정전협정으로 생긴 휴전선은 전시 태평양방위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에게 휴전선은 소련과의 전면전시 미극동군이 공산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사수할 태평양방위선이 되었다. 이를 확인해준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전후 휴전선은 미국에게 있어 단순한 휴전선이 아니라 평시 소련의 팽창을 막는 봉쇄선이자 전면전시 미국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태평양방위선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녔다. 이는 6·25전쟁 때 약 14만 명의 미군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된 한미동맹의 결정체였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통해 전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공산 측(특히 북한)의 무력에 의한 재침을 억제 및 차단하였다.

둘째,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셋째, 오늘날 대한민국이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제 4 절 전쟁의 교훈

6·25전쟁이 멈추자 전쟁의 직접당사자인 남북한 양측은 각각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의 북침을 저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최강의 미국에 역사상 첫 패배를 안겨준 전쟁”이라며 자랑하였다. 반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고, 남한 정부의 전복을 막았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의 결과는 남북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남북한 모두가 전쟁을 전후해 인구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은 전쟁 중 많은 인구손실과 함께 대규모의 인구가 월남함으로써 인적 자원 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월남함에 따라 공산정권으로서는 보다 쉽게 ‘김일성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이점도 있었다.

또한 북한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전쟁을 치름으로써 제3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됐으나, 이로 인해 서방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화 정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58년까지 기존의 개인경영 상공업과 개인농업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구조를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후 남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은 남한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국토가 좁은 남한에서도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다. 전쟁 이전 북한에서 월남한 인구의 대량유입과 1951년 1·4후퇴로 인한 중부권 인구의 이동, 전후 도시화로 인한 인구이동이 그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 상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든 많

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벅찼다. 이로 인해 1960년대까지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따라서 남한 사회는 전쟁의 거대한 분수령을 넘어 오면서 과거의 봉건주의적 잔재가 무너지고,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산업자본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란이 가져온 심리적 불안과 초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반공이념을 심어 주었다.

이렇듯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정신적·심리적·물질적 재난을 가져오게 하였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자식 잃은 부모, 부모 잃은 고아, 남편 잃은 여인, 파괴된 고향산천, 그리고 고향을 떠난 온 실향민들이 있었다. 이들이 겪은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우리 민족의 아픔은 점차 희석되거나 또 망각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반세기란 긴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의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자 중무장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분쟁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민족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은 오늘날까지 피해의식과 적대의식으로 남아 남북한 주민들의 사고 및 행동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60년 전 그날 이 땅 위에서 일어난 6·25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국방 미비가 불러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나게 해주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침을 당한 6·25전쟁의 결과는 경악과 참담, 그 자체였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하루아침에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섰던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25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쟁억제체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억지력으로는 대한민국 군사력과 동맹체제의 군사력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전시체제의 평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전후 북한

은 계속하여 선군정치에 의한 전시통치를 지향한 반면, 대한민국은 다원화된 자유민주주의 발전체제를 지향하며 '전쟁 없는 평화체제'를 갈망하였다.

셋째, 6·25전쟁을 통해 남북한 간의 총체적 대결체제를 극복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기민한 정치외교력과 자생력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자체정화가 가능한 사회적·제도적·교육력을 배양하고, 자유 시민으로서 시민정신과 책임감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넷째, 6·25전쟁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호국영령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이 있었다. 마치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렇게 했듯이!

끝으로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 민족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과 같이 6·25전쟁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국방과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집필 : 남정옥)

부 록

1. 연 표
2. 정전협정

1. 연 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년	1월 20일	•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1월 26일	• 콜린즈 미 육군참모총장 내한
	2월 11일	• 밴플리트 후임으로 테일러 중장 부임
	2월 22일	• 유엔군사령관, 상병포로 교환 제의
	3월 4일	• 이승만 대통령, 클라크, 테일러 회동
	3월 5일	• 스탈린 사망 공식 발표
	3월 25일	• 미 제7사단, 불모고지 피탈
	3월 26일 ~30일	• 미 해병 제1사단, 베가스고지 방어
	3월 28일	• 공산군 사령관, 상병포로 교환 제의 수락
	3월 30일	• 유엔총회, 중단된 휴전회담 조기 속개 촉구
	3월 31일	• 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 본회담 재개 제의
	4월 11일	• 휴전회담 연락장교회의, 상병포로 교환 협정
	4월 17일	• 유엔총회, 포로문제 판문점회담에서 해결 촉구 결의
	4월 20일~ 5월 3일	• 상병포로 교환
	4월 26일	• 휴전회담 본회담, 6개월만에 재개 • 한국측 대표 교체, 최덕신 준장 부임
	5월 1일	• 제3군단 재창설
	5월 25일	• 클라크, 포로송환 최종안 이승만 대통령에 설명 • 유엔군측, 포로송환 최종안 제의 • 한국대표, 회담 불참선언
	5월 29일	• 제25사단(터키여단), 네바다 전초 상실 • 영연방 제1사단, 후크고지 방어
	5월 30일	• 미국, 에버레디계획 확정
	5월 31일	• 이승만 대통령, 휴전회담 양보 없음을 강조
	6월 1일	• 이승만 대통령, 대미 타협안 수교
	6월 1일 ~9일	• 제12사단, 812·854고지 전투
	6월 7일	• 정부, 도미중인 전장병 즉시 소환 명령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년	6월 8일	• 전국의 준비상계엄령 • 휴전회담 본회의, 포로교환협정 조인
	6월 10일	• 중공군 최후공세(6월 공세) 개시
	6월 10일 13일	• 제8사단, 수도고지 피탈
	6월 10일 ~14일	• 제5사단, 949·973·883고지 피탈
	6월 14일 ~18일	• 제20사단, 1090고지 방어
	6월 18일	• 이승만 대통령, 전국에서 반공포로 석방 • 제26·제27사단 창설
	6월 19일	• 유엔군사령부, 서해 5도 주민 10만 명 철수령
	6월 25일~ 7월 3일	• 제3사단, 관망산 피탈
	6월 26일~ 7월 1일	• 제7사단, 선우고지(938고지) 피탈
	6월 23일~ 7월 11일	• 이승만 대통령-로버트슨 회담
	6월 30일	• 국방부장관에 손원일 해군중장 임령
	7월 6일 ~10일	• 미 제7사단, 포크찹고지 피탈
	7월 13일	• 중공군 최후공세(7월 본공세) 개시
	7월 13일 ~15일	• 제2군단 및 수도사단, 금성돌출부 상실 • 117A도로-진현리-수동령-수상리-748고지에서 적 최후공세 저지
	7월 16일 ~19일	• 국군 제2군단, 금성천 확보
	7월 27일	• 휴정협정 조인 • 클라크 사령관, 문산에서 서명 • 김일성, 평양에서 서명 • 클라크, 휴전 메시지 발표 • 이승만 대통령, 성명 발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년	7월 28일	• 펑더화이, 평양에서 서명 • 군사정전위원회 설치(1차 회의) • 포로송환위원회 1차 회의, 8월 5일부터 포로교환 합의 • 쌍방,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작업 착수 • 유엔군, 북한 동서해안 점령도서로부터 철수 개시 • 유엔군, 공산군 포로의 수송 개시
	7월 30일	• 유엔군, 30일 21:50 비무장지대 완전 철수 발표 • 공산군, 30일 22:00 비무장지대 완전 철수 보도
	8월 1일	• 중립국감시위원회, 첫 회의 개최
	8월 3일	• 양측의 적십자대표, 합동적십자반 양군 포로수용소 시찰 협정에 조인
	8월 4일	• 덜레스, 한미상호방위문제 협의 위해 방한 • 군사정전위, 유엔군 북한 연안도서 철수완료 통고 • 유엔군측 적십자반, 북한 포로수용소 방문차 개성 향발 • 공산군측 적십자반, 부산에 도착
	8월 5일~ 9월 6일	• 덜레스 국무장관 일행, 경무대 방문 • 휴전협정에 의한 송환희망포로 교환
	8월 7일	• 이승만-덜레스, 한미공동방위조약 체결과 대한경제원조에 완전 합의 • 참전 16개국, 공동정책 선언
	8월 8일	• 한미방위조약 가조인(서울)
	8월 9일	• 인도 포로관리군 선견대, 문산 유엔군기지에 도착
	8월 17일	• 유엔 임시총회 뉴욕에서 개최
	8월 18일	• 유엔총회 정치안보위, 한국 정치회담 문제 토의 개시
	8월 28일	• 유엔총회, 한국 정치회담 개최 권고 결의
	8월 31일	• 국회, 9월 1일부 서울환도 발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년	9월 1일	• 인도 관리군 제1진(1,200명), 인천항 경유 중립지대 도착
	9월 4일	•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 귀환
	9월 9일	• 중립국송환위원회, 티마이어 의장 출석하에 첫 회합
	9월 11일	•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후임으로 헐 대장이 임명
	9월 14일	• 인도 관리군 제3진 인천 경유 중립지대 도착
	9월 16일	• 국방부, 공산군측의 국군포로 학대상 발표
	9월 19일	• 유엔소련대표단, 한국 정치회담의 구성국 문제를 총회의 특별의제로 요청
	9월 21일	• 소제 미그기 1대 김포비행장으로 귀순
	9월 23일	• 유엔군, 송환불원 반공포로 22,604명 인도군 이관 발표 • 공산군, 송환불원 친공포로 359명 인도군 이관 발표
	10월 1일	• 한·미 상호방위조약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
	10월 15일	• 공산군측, 송환불원포로 설득 개시
	10월 25일	• 정부, 판문점 예비회담 한국대표로 외무차관과 이수영 대령 임명
	10월 26일	• 정치회담 판문점 예비회담 개막
	11월 11일	• 유엔총회, 공산군의 잔학행위 비난 결의안 가결
	11월 12일	• 미국부통령 닉슨 방한
	11월 16일	• 양측, 정치회담 시일과 장소, 중립국 참가 토의 위해 2개분과 설치 합의
	11월 23일	• 중공·북한간 경제문화협정 조인
	11월 30일	• 공산측, 정치회담에 소련을 중립국으로 참석 제안
	12월 2일	• 친공포로에 대한 설득업무 개시
	12월 8일	• 유엔군측, 정치회담 개최에 관한 17개항 최종제안
	12월 11일	• 실향민송환위원회, 판문점에서 1차 회합
	12월 12일	• 예비회담 무기한 휴회 선언
	12월 16일	• 중립국송환위 의장, 미송환포로 1월 22일 석방 예정 공표
	12월 26일	•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설득 종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4년	1월 14일	• 미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조치로 2개 사단 철수 발표
	1월 20일	• 예비회담 연락관회의 개최
	1월 23일	• 인도군, 송환 완료 발표, 잔류포로 각측으로 이송 • 반공포로 인도·인수식 • 유엔군사령부, 송환된 2만 1천여 명의 반공포로 석방
	1월 25일	• 실향사민 등록 개시 • 베를린 4국 외상회의 개회
	1월 28일	• 공산군측, 친공포로 347명 인수
	2월 18일	• 베를린 4개국 외상회의, 한국 문제 정치회담 주선
	2월 21일	• 포로송환위원회 21일 자정 해산
	2월 23일	• 인도 관리군 최종부대 인천 출항
	3월 1일	• 유엔군측, 실향사민 외국인 19명 인수
	3월 2일	• 월북희망 실향사민 37명 인도
	4월 19일	• 정부, 제네바 회담 참가 특별성명서 및 명단 발표
	4월 26일	• 제네바 회담 개막
	6월 15일	• 제네바 회담 결렬

2. 정 전 협 정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953. 7. 27

서 언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이(2)키로메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경계선 및 남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을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량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해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갈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사민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천(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 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

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련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의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한다.

제 2 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륙해 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십이(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을 보라.)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리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칠십이(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력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어 결국에 가서는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사십오(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이 감독 하에서 사십오(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리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46분, 동경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분) 및 우도(북위37도36분, 동경125도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서 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륜환 림시 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경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림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륜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륜환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러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륜환은 일(1) 대 일(1)인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던지 어느 일(1)력월 내에 륜환 정책 하에서 한국 경외로부터 삼만오천(35,000)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어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정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자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의 군사인원의 루계 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리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수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륜환을 감독하며 시찰한다.

ㄹ)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정지

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일(1) 대 일(1)로 교환하는 기초우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드려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정형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 하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여 시찰한다.

ㅁ) 본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 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 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던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기재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을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량 지역에 린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 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호상 적극 협력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비용은 적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십(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오(5)명은 국제련합군 총사

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오(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십(10)명 중에서 각방의 삼(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이(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일(1)명 보조 비서장 일(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십(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사(4)명 내지 륙(6)명의 령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여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직책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던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57분29초, 동경 126도40분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ㅈ) 적대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호상 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던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 않은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이던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 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이(2)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서전 및 서서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 위원은 후보위원 일(1)명을 지정하여 그 정 위원이 어떤 리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 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인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십(20)개의 중립국 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시찰소조는 최소 사(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령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이(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일(1)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일(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 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직책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

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 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십(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후비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 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43. 중립국시찰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련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인 천 (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신 의 주 (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대 구 (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청 진 (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부 산 (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흥 남 (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강 릉 (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만 포 (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군 산 (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신 안 주 (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이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던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일(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개별적 조원 일(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 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 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후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련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륙십(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 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 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중에서는 "송환" 중국문중에서는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 충돌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륙십(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할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 장교 륙(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삼(3)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삼(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 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며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 지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 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련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써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십(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이십(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륜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륙십(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륙십(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련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련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이(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 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 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날짜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날자, 사망원인 및 매장 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 재료의 마감한 날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십(10)일에 일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도망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이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 장교 사(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이(2)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들)을 선정하며 월경 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던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 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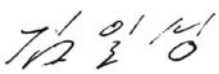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 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 가지 글의 각 협정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참 석 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 덕 회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미국 륙군 대장
마크 더불유.클라크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국제련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륙군 중장
윌리암 케이.해리슨

참고문헌

Ⅰ. 국문 문헌

명령, 지시, 작전보고서 등 문서, 자료집

육군 작전교육국,「정기작전보고 제169호」(1950. 7. 1).
국군 제1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70호」(1953. 1. 26).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호」(1953. 6. 15, 08:00).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3호」(1953. 6. 26).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4호」(1953. 7. 12, 12:00).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5호」(1953. 7. 14, 11:30).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6호」(1953. 7. 15, 12:00).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8호」(1953. 7. 19, 16:00).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62호」(1953. 7. 14, 12:00).
보병 제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97호」(1953. 6. 25, 21:00).
보병 제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246호」(1953. 7. 12, 16:00).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1호」(1953. 6. 30, 09:00).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2호」(1953. 7. 2, 12:00).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3호」(1953. 7. 7, 09:00).
보병 제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1호」(1953. 7. 8, 03:00).
보병 제3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0호」(1953. 7. 14, 08:00).
보병 제3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1호」(1953. 7. 14, 12:00).
보병 제3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4호」(1953. 7. 15, 12:00).
보병 제5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84호」(1953. 6. 26, 14:00).
보병 제5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85호」(1953. 7. 10, 24:00).
보병 제5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88호」(1953. 7. 15).
보병 제6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23호」(1953. 7. 9, 18:00).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238호」(1953. 6. 19, 17:00).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239호」(1953. 6. 20, 17:00).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9호」(1953. 6. 28, 12:00).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30호」(1953. 6. 29, 20:00).
보병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31호」(1953. 6. 30).
보병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80호」(1953. 7. 14, 11:00).
보병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82호」(1953. 7. 15, 15:00).
보병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83호」(1953. 7. 16, 12:0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97호」(1953. 7. 14, 11:0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98호」(1953. 7. 14, 15:0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00호」(1953. 7. 19, 23:0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06호」(1953. 7. 15, 12:00).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2호」(1953. 7. 18).
보병 제1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13호」(1953. 7. 18).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4호」(1952. 12. 30).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5호」(1953. 1. 12).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계획 제9호」(1953. 6. 4, 12:00).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호」(1953. 6. 4, 12:00).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0호」(1953. 5. 29).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3호」(1953. 6. 1, 18:00).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6호」(1953. 6. 5, 18:00).
보병 제12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7호」(1953. 6. 7, 12:00).
보병 제20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4호」(1953. 5. 11, 12:00).
보병 제20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43호」(1953. 6. 16, 10:00).
보병 제20사단 제62연대,「작전지시 제15호」(1953. 6. 17, 20:00).
미 제10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369호」(1953. 6. 5).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47)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48)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49)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0)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1)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2)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4)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5)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6)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8)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9)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60) (대전 : 육군본부,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제18비행기동사단 지원업무 종결보고 1951년 6월-1953년 9월』(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1)(미발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세대학교이승만연구원,『사진으로 보는 6·25전쟁과 이승만대통령』(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2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3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3권, 2005.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 편역자 출판, 2006).
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사 자료집』제2/4/6/11집(과천 : 편자출판, 1996).
대검찰청 공안부,『좌익사건실록』제11권 (서울 : 대검찰청, 1975).
대한민국 공보처,『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공보처, 1953).
대한민국 외무부(편역),『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1-4권(서울 : 미발간, 1994).
大韓民國公報處,『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서울 : 편자출판, 1953).

신문, 방송, 사전, 연감, 일지

『경향신문』『대구매일』『동아일보』『로동신문』『민주신보』『부산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
공보처통계국,『대한민국통계년감』(서울 : 통계국, 195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내무부 통계국,『대한민국 통계연감』, 1955.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一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2).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二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3).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三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4).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四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5).
동아일보사,『비화 제1공화국』제2집(서울 : 홍우출판사, 1975).
부산일보사,『임시수도 천일』(상·하) (부산 : 부산일보사, 1984).
사회과학출판사,『조선지명편람(함경남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

연합뉴스,『2009 북한연감』(서울 : 편자 출판, 2009).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4), 제11권(강원도).
조선중앙통신사,『조선중앙년감 1954-1955』(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5).
崔鍾泰 編著,『韓國戰爭日誌』(서울 : 軍事問題硏究所, 1991).
韓國言論資料刊行會,『한국전쟁 종군기자』2 (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인물대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9).

부대사, 증언집, 회고록, 전기

공군본부,『6·25전쟁 증언록』(계룡 : 공군본부, 2002).
공군본부,『UN 공군사(하)』(서울 : 공군본부, 1978).
공군본부,『공군사 1집 개정판』(계룡 : 공군본부, 2011).
공군본부,『공군사 제1집 증보판』(계룡 : 공군본부, 1991).
공군본부,『공군사 : 공군창군과 6·25전쟁』(계룡 : 공군본부, 2010).
공군본부,『전투요보』(계룡 : 공군본부, 2000).
공군역사기록단 역,『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제1집(계룡 : 역자 출판, 2010).
국방군사연구소,『국방사 연표, 1945-1990』(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조약집 1945-1980』제1집(서울 : 전사편찬위원회, 19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제2집(서울 : 국방부. 1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서울 : 전사편찬위원회, 1989).
국방부,『국방백서 1994-1995』(서울 : 국방부, 1995).
국방부,『국내 군수 지원 능력 및 현황』(서울 : 국방부, 1969).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서울 : 정우사, 1984).
백선엽,『6·25전쟁 회고록 : 군과 나』(서울 :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1989).
병무청,『병무행정사, 상권』(서울 : 병무청, 1985).
보병 제1사단,『전진역사』(서울 : 인쇄창, 1966).
보병 제8사단사령부,『오뚜기 약사』(서울 : 인쇄창, 1969).
서울대 법학연구소,『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3).
서울특별시,『시세일람』(서울 : 서울시, 1957).
유재흥,『격동의 세월』(서울 : 을유문화사, 1994).
육군본부,『육군발전사』상, 1970.
육군본부,『육군전사』제7권(서울 : 육군본부, 1957).

육군본부,『전장사례연구』제4집, 1988.
육군본부,『판문점』상·하, 1972.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서울 : 그루터기, 1996).
장도영,『望鄕 :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 숲속의 꿈, 2001).
장성환,『나의 항공생활』(서울 :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4).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
제7보병사단,『상승칠성부대-전사를 중심으로(1946. 1. 29~2007. 8. 31)』, 2007.
조병옥,『나의 회고록』(서울 : 해동, 1986).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제1권 (서울 : 고려원, 1991).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3집, 제4집(서울 : 중앙일보사, 1985).
韓徹永,『自由世界의 巨星 : 李承晩大統領』(서울 : 文化春秋社, 1953).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
해군본부,『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계룡: 해군본부, 2012).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제1집(해군본부, 1954).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제1집(서울 : 해군본부, 1954).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제2집(서울 : 해군본부, 1958).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6~1951.6)』(계룡 : 해군본부, 2001).
해군본부,『해군통계연감』(서울 : 해군본부, 1964).
해군본부,『해군편제사』제1권(서울 : 해군본부, 1970).
해군본부,『해군편제사』(서울 : 해군본부, 1954).
해군본부,『해군편제사』(계룡 : 해군본부, 1992).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제3·4집(해군본부, 2001).
해군본부,『해군 30년사 1945~1975』(해군본부, 1978).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서울 : 해병대사령부, 1961).
해병대사령부,『해병사』제2집(서울 : 해병대사령부, 1962).
해병대사령부,『해병전투사』제1집(서울 : 해병대사령부, 1958).

연구 저서 및 논문

공군본부 역,『6·25전쟁 연합항공전사 1950-1953』(계룡 : 공군본부, 2013).
공군본부 역,『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계룡 : 공군본부, 2005).
공군본부,『6·25전쟁의 기억』(계룡 : 공군본부, 2010).
공군본부,『6·25전쟁 항공전사』(계룡 : 공군본부, 200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7).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전투사 : 노전평전투』(서울 : 국방부, 199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지원사』(서울 : 신오성,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7권(서울 : 국방부,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8권(서울 : 국방부,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9권(서울 : 국방부,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10권(서울 : 국방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의 정보보고 체계(1945~1953년 미 정보보고서 중심으로)』(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상)(서울 : 국방부, 19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하)(서울 : 국방부, 19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 국방부, 19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서울 : 국방부, 19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서울 : 국방부, 19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권(서을 : 국방부,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국방부, 19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19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7권(서울 : 국방부, 19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서울 : 국방부, 19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서울 : 국방부, 19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0권(서울 : 국방부, 19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서울 : 국방부, 19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 국방부, 19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교암산전투』(서울 : 국방부, 19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금성전투』(서울 : 국방부, 1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백마고지전투』(서울 : 국방부, 19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서울 : 국방부, 19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양구전투』(서울 : 국방부, 19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서울 : 국방부, 1990).
김계동,「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박두복 외,『한국전쟁과 중국』(서울 : 백산서당, 2001).

김남식,『남로당연구』1 (서울 : 돌베개, 1984).
김보영,「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영호,「6·25전쟁과 유엔의 역할」,『軍史』제59호.
김운태,『해방30년사』(서울 : 성문각, 1976).
김일성,『김일성 전집』제1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김종국 역, 러시아 국방부편『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 오비기획, 2002).
김주환 편,『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서울 : 청사, 1989).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2000).
남정옥,「국민방위군」,『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남정옥,『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경기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남정옥,『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경기 파주 : 이담 북스, 2010).
남정옥,『한미군사관계사』(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2).
대한민국 국회,『국회사』(서울 : 국회, 1972).
데이비드 햅버스탬 지음, 정윤미, 이은진 옮김,『The Condest Winter :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서울 : 살림출판사, 2009).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 오비기획, 2002).
로버트 T. 올리버 저, 박일영 역,『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 이승만과 한미관계』(서울 : 계명사, 1990).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서울 : 이매진, 2004).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밀물과 썰물』(서울 :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박명훈,『조선지명편람(평안북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
박재규,『냉전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서울 : 박영사, 1982).
박정인,『박정인 회고록, 풍운의 별』(서울 : 홍익출판사, 1994).
보훈처,『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서울 : 국가보훈처, 2006).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 전사 27』(평양 : 북한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빌 길버트 원저, 안재철 편역,『마리너스의 기적의 배』(서울 : 2004).
沙江,「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6권(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서상문,『6·25전쟁과 베트남전쟁 : 동아시아전쟁사 최근연구 논문선집』(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서용선 외,『한국전쟁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5).

서울신문사 편저,『주한미군 30年』(서울 : 행림출판사, 1979).
소련군 총참모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송효순,『대석방 : 실록 반공포로석방』(서울 : 신현실사, 1973).
시성문,『판문점 담판』(북경 : 해방군출판사, 1989).
신범식,「소련의 북한 군사 지원」,『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신형식 역,『한국전쟁 해전사』(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아바쿠모프 보리스 세르게예비치 저, 공군본부 역,『소련 MiG-15 조종사의 한국전쟁 회고』(계룡 : 공군본부, 2004).
안재철,『생명의 항해』(자운각, 2008).
楊奎松,「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제1권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양대현,『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서울 : 형설출판사, 1993).
양영조,『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서울 : 선인, 2007).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열림, 1998).
오규열,「중공군의 상감령 전투에 대한 재평가」,『군사』46호, 2002.
오진근, 임성채 공저,『손원일 제독』(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온창일 외,『6·25전쟁 60대전투』(서울 : 황금알, 2010).
온창일,『한민족전쟁사』(서울 : 집문당, 2007).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한국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
외무부,『한국외교 30년』(서울 : 외무부, 1979).
원태재,「6·25전쟁과 영국의 역할」,『軍史』제59호.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공비연혁』(서울 : 육군본부, 1971).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 인사편』(서울 : 육군본부, 1953).
육군본부,『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하)(서울 : 육군본부, 2009).
육군본부,『한국전쟁과 반공포로』(대전 : 육군본부, 2002).
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대전 : 육군본부, 1994).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서울 : 일신사, 1996 수정판).
육본정보참모부,『북괴 6·25남침분석』(서울 : 보진재, 1970).
윤일균,『한·미 합동첩보비화 6006부대』(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6).
이대근,『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서울 : 까치, 1987).
이문항,『JSA-판문점 : 1953-1994』(서울 : 소화, 2001).

이상철,『NLL 북방한계선 : 기원, 위기, 사수』(서울 : 선인, 2012).
이원복,『전쟁과 협상』(하)(서울 : 대림기획, 1989).
이종석,「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軍史』제44호.
이충환,『미국비밀 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서울 : 삼인, 2003).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 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서울 : 다섯수레, 1991).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제5/8권 (서울 : 명성출판사, 1991).
임성채,「미국의 6.25전쟁전략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광주전남현대사』2(서울 : 실천문학사, 1991).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전라남도지』제9권(광주 : 광주광역시, 1993).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저자 출판, 1992).
전종순,「중공군 정월공세 시 리지웨이와 펑더화이의 작전지도」,『軍史』제45호.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정일권,『정일권 회고록: 6·25비록, 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일보사, 1986).
정일형,『유엔과 한국문제』(서울 : 신명문화사, 1961).
조성훈,『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조성훈,「6·25전쟁 휴전협정을 둘러싼 국제관계」,『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서울 : 성신여대출판부, 2005).
조성훈,『한국전쟁과 포로』(서울 : 선인, 2010).
조창래,「한국전시 릿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고찰」,『군사평론』제350호 부록, (대전 : 육군본부, 2001).
중앙일보사 편,『민족의 증언』3(서울 : 을유문화사, 1975).
지철근,『평화선』(서울 : 범우사, 1979).
최덕신,『내가 겪은 판문점』(서울 : 삼학문화사, 1955).
최만원 역,『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서울 : 선인, 2010).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서울 : 에디터, 2003).
한국역사연구회,『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 학술회의』(서울 : 한역연, 2010년 6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 세경사,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25권 (서울 : 편자 출판,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 선인, 200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한국전쟁과 휴전체제』(서울 : 집문당, 1998).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서울 : 중앙일보사, 1996).
한표욱,『한미외교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

解方,『關于朝鮮開城停戰談判的回憶』,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 (대전 : 신진기획, 2002).
홍학지 저, 홍인표 역,『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고려원, 1992).

Ⅱ. 외국어 문헌

영문 자료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9).
Appleman, Roy E.,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9).
Appleman, Roy E.,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8).
Barros, James, *Trygve Lie and the Cold War*(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9).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3. 20).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2. 2. 20).
Clark, Mark W., From the Danube to the Yalu(New York: haper & Brothers, 1954).
Clausewitz, Carl Von, *On Wa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Michael and Paret, Peter.
Cowart, Glenn C., *Miracle in Korea*(Columbia, 1992).
Crane, Conrad C.,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5, 1952(Unpublished).
Field, James 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Washington, 1962).
Finley, James P.,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al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Futrell, Robert 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GHQ, FEC & UNC, Command Report(Aug. 1953).

GHQ, FEC, G-3, Commander's Atomic Target Analysis(1951, Sep.).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ust, 1953.

GHQ, UNC, G-3 Operation Report, Jan. -Dec. 1952.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of U. 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Hammel, Eric M., *Chosin : Heroic Ordeal of Korean War*(CA Novato : Presidio Press, 1990).

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4 August 1952",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Hermes, Walter G.,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f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Hqs. X Corps, Command Report, 1 June to 30 November 1952.

Hqs. X Corps, Command Report, 1 June to 30 July 1951.

Hqs. X Corps, Command Report, June 1953.

Hqs. X Corps, US Army, Command Report, July 1953.

Hqs. EUSAK, Command Report Map, Jun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April,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August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December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Jul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June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March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Ma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May 1953.

Hqs. EUSAK, Command Report, November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October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October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September 1952.
Hqs. EUSAK, 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37, 9 May 1953
Hqs. EUSAK, 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37, 9 May 1953.
K. Spate O. H.,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D., Jackson W. A., ed.,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and Geography*(Prentice Hall : Englewood Cliffs, 1964).
Kennan, George F., *Memoirs, II, 1950-63*(Boston, T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2).
Kesaris, Paul, ed., *Record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t II : 1946-1953 The Far East,* Washington, A Microfilm Project of University Pub. of America, Inc., 1979, No.9.
Kissinger, Henry, *Diplomacy*(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KMAG,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786, NARA.
Leary, William M.,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Matray, James A.,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1).
Message to Commander-in-Chief, the Far East Command, and Commanding General, Strategic Air Command, Commander-in-Chief, the Pacific, Selected Records Relating to the Korean War, DoD, Truman Papers, truman Library.
Mossman, Billy C., *United States Army in Korea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Myers, Kenneth W., *U.S. Military Advisor Group to the ROK :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ndated),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es 12-13.
No Kum-Sok &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1996).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Qs of R.O.K., *Units Short History ROKA*(Seoul, Headquarters ROKA, 1955).
Panikkar, K. M., *In two Chinas : Memoirs of Diplomat*(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55).

Paterson, Thomas G., Clifford Gary, and Hagan Kenneth J., *American Foreign Policy : A History 1990 to Present*(Lexington, Massachusetts Toronto : D.C. Heath and Company, 1988).

Rees, David, *Korea : The Limited War*(London : Macmilan, 1964).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Univ. Press of the Pacific Honolulu, 1988).

Schnabel, James F., and Watson Robert J.,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One(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Shrader, Chares 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London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5).

Stratemeyer, George E.,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Washington :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9), Edited by Blood, William T. Y.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New Jerse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The Air University of USAF,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30 June 1952*, 1955.

Truman, Harry S., *Memoirs :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 & Co., Inc., 1956).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rnock A. Timothy Editor, *The U.S. Air Force's First War: Korea 1950~1953 Significant Event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2000.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중문 자료

中國社會科學出版社,『當代中國空軍』(북경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北京 : 當代中國出版社, 1993).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5).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中冊)(臺北 : 中央研究所近代史研究所, 2003).
王焰主編,『彭德懷年譜』(北京 : 人民出版社, 1998).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平壤 : 編者出版, 1981) 第6卷.
中共中央文獻研究室,『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冊(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8).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毛澤東文集』第6卷(北京 : 人民出版社, 1999).
中國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第2卷(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偉大的抗美援朝運動』(北京 : 人民出版社, 1954).
陳章華, 榮肇隆主編,『中國軍事史辭典』(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1993).
彭德懷自述編輯組,『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

일문 자료

陸戰史研究普及會,『中共軍の攻勢』(東京 : 原書房, 1971).
佐佐木春隆,『朝鮮戰爭』(中)(東京 : 原書房, 1979).
A. V. トルクノフ著, 下斗米伸夫, 金成浩譯,『朝鮮戰爭の謎と眞實』(東京 : 草思社, 2001).

찾아보기

ㄱ

가고지 233, 365, 369, 371
갈홍기 765
강문봉 85
개성 66
고지쟁탈전 92, 177
공동감시소조 716, 719
공동적십자소조 726
공수작전 653
관망산 399, 401, 402, 406
교암산 180, 215 341, 342, 345,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1, 372, 374, 418, 435
국가안전보장회의 52, 88
국군 제1군단 38
국군 제9사단 38
국제적십자사 21
국제전쟁 793, 794, 795
군사분계선 713, 714, 718, 806
군사정전위원회 14, 715, 718, 719, 722, 723, 747, 757 798, 806
궁주령 620
그리스 658, 711
근접항공지원작전 650
글렌 바쿠스 595, 598
금성 47, 88, 180, 215, 258 341, 345, 372, 377, 416
금성돌출부 40, 47, 55, 180, 214, 215, 216, 218, 236, 296, 324 339, 341, 345, 398, 401, 416, 424, 474, 591
금성천 180, 217, 234, 236, 239, 248, 249, 258, 260, 275 339, 340, 341, 345, 365, 366, 372, 374, 375, 376, 381, 382, 387, 389, 393, 394, 397, 398, 400, 405, 407, 411, 412, 413, 414, 416, 418, 420, 423, 424, 425, 426, 428, 433, 435, 439, 441, 474, 475
기석복 757
김광협 42, 87
김영환 660
김웅 42
김일성 28, 30, 41, 42, 43, 87, 679, 704, 705, 793, 794, 810
김일환 70, 91
김화 46

ㄴ

남아프리카공화국 657, 711, 762
남일 35, 42, 87, 104, 107, 108, 118, 120, 124, 126, 127 592, 693, 697, 764
내전 794
네덜란드 711
네바다 전초군 39
노금석 622, 624, 628
뉴질랜드 80, 711, 754, 755, 766
닉슨 51

ㄷ

다니엘 113, 120
다쿠산 606
대만 26, 27, 68
대만봉쇄 26
대만해협 27
대상륙작전 589, 610, 611
대제재선언문 711
대한정책 32
덕산댐 647
덜레스 145, 148, 158, 24, 51, 82, 89, 710, 711, 729, 732, 749, 750, 765, 774
덩화 42, 87
독일 759
동펑 620
동해안사령부 187, 188, 189, 191, 347
딘 733, 758, 759

ㄹ

래드포드 52
러베트 24
로버트슨 82, 145,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693, 695
로저스 141
룩셈부르크 711
류첸 608
리지웨이 83
리차드 카미챌 598
리커농 42, 108
리틀 스위치 114, 162

ㅁ

마오쩌둥 41, 42, 43, 87, 108 594, 793
마크 클라크 596
만주 61
말렌코프 23, 29
맥아더 26, 83, 84
맥코넬 105
머피 149
모리스 105
모스키토 668, 671, 672, 673
몰로토프 23, 112, 763
문용채 85
문종욱 136, 137
물라작전 639, 655, 656
미 제10군단 38
미 제7함대 26
미국 21, 22, 25, 27, 28, 31, 32, 51, 57, 59, 60, 75 711
미그회랑(MiG Alley) 589, 592, 623, 705
미주리선 178, 234, 235, 248, 325, 363
민기식 85
밀번 105

ㅂ

박고지 252, 253, 254, 255, 256
박기병 85
박스-인 595
박옥규 72
박헌영 42, 87
반공포로 22, 23, 35, 36, 39, 88, 91, 92, 93, 129, 130, 131, 132, 133, 134, 137, 139,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64, 165 693, 696, 697, 743, 745, 758

반덴버그 53, 89
방어지대론 584
방호산 42
백마고지 276, 282, 289, 340
백석산 180, 181, 291, 296, 317
백선엽 70, 73, 78, 91, 134, 142, 728, 730
백암산 180, 341, 345, 375, 376, 377, 378, 381, 385, 386, 387, 388, 389, 392, 393, 394, 396, 400, 414, 415, 416, 418, 429, 474
밴플리트 53, 72
베리아 23
벨기에 711, 768
변영태 76, 750, 754, 760, 763, 766, 774
별우리 341
부산 148
북진통일 75
북침론 794
불모고지 38, 213, 214
브라이언 716
브래들리 52, 53, 89
브리그스 76, 125, 145, 148, 149, 153
브리스코우 72
비무장지대 708, 713, 715, 716, 719, 743
비엔창우 107

ㅅ

상병포로 21, 103, 111, 113, 114, 115, 117, 177, 476, 699
새뮤얼 앤더슨 598
서해북방한계선(NLL) 504, 556, 558, 562, 565, 566, 569
서해안사령부 188, 189, 191, 350
석주암 135
선도기 651
선양 602
소련 21, 22, 28, 30, 32, 41, 57, 66, 75, 110, 753, 754, 762, 769, 771, 793, 795
소희 107
손병식 760
손원일 70, 91, 728
송환불원포로 130, 736, 737, 739, 740, 741, 746
송효순 135
쇼란 645
수풍발전소 90
쉬스여우 42
스웨덴 68, 121, 721, 723, 736, 753
스위스 76, 119, 121, 721, 723, 736, 753, 762
스탈린(J. Stalin) 22, 23, 28, 29, 30, 41, 43, 87, 103, 110, 117, 162, 589, 679, 762, 793, 794
스포트라이트작전 641
신태영 70, 90, 134
신현준 72, 91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 746, 747
쌍룡고지 225, 230, 232, 233

ㅇ

아이슬란드선 248, 249, 252, 254, 257, 313, 316, 319, 339, 340, 377, 381, 394, 397, 416
아이젠하워 22, 24, 25, 26, 44, 51, 55, 59, 60, 62, 64, 66, 80, 82, 87, 89, 117, 144, 145, 148, 149, 150, 151, 153, 155, 163, 164, 165, 700, 703, 774
안둥 602
안산 620
압록강 75

애담스 66
애치슨 24, 32, 809
앤더슨 51
양유찬 761
에버레디 58, 78, 89, 91
에티오피아 711
여문리 260, 398, 403, 408, 423, 425
역곡천 213, 250, 251, 283, 284, 286, 288
연합공군사령부 608
영국 711, 753, 754, 762, 766, 771
옌지 620
오마 브래들리 596
오바마 805
오스트레일리아 80, 711, 766
오스트리아 759, 760, 766
왕련 42, 608
왕젠안 42
용호동 261, 271, 272, 345, 381, 404
워스워드 712
원용덕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월비산 182, 453, 455, 460, 465
웨이랜드 72, 647, 677, 703, 728
윌리엄 피셔 598
윌슨 24, 51, 56, 89
유럽공동방위조약 30
유엔 21, 50
유엔군사령부 72, 73, 79, 117, 125, 145, 151, 152, 153, 156, 694, 695, 711, 712, 723, 736, 743, 749, 756, 808
유재흥 83
유조룡 760
유흥수 85
이든 26, 768
이명제 86
이상조 107, 113, 716
이수영 107, 757, 760
이승만 22, 32, 34, 36, 39, 54, 58, 59, 70, 72, 73, 74, 75, 76, 78, 79, 80, 81, 82, 83, 85, 89, 90, 93, 107, 123, 129, 130, 131, 132, 133, 135, 138, 142, 143, 144, 146,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3, 164, 165, 591, 693, 695, 709, 716, 718, 731, 749, 758, 759, 761, 765, 766, 769, 773, 810
이주범 760
이탈리아 68
이한림 105
이형근 83, 210, 361, 455
이형석 86
이호 107
인도 26, 104, 121, 123, 725, 736, 739, 743, 753, 754, 755
인천 148
일본 68
임기택 137
임병직 761

ㅈ

자산 67, 647, 648
작전명령 662
작전준비태세 검열 662
장제스 26, 27
장춘산 107
쟈오유 107
저우언라이 28, 42, 111, 118, 120
적근산 180 341, 345, 374, 377, 416, 433, 434, 435
전선사령부 187, 188, 195, 352
전쟁정책 41, 52
전쟁지도 24, 41, 50, 51, 70, 87, 89
정일권 48, 73, 83, 208, 244, 248, 259, 263, 359, 377, 446

정전협정 23, 52, 59, 82, 85, 86, 93, 129, 163, 693, 694, 695, 697, 698, 700, 701, 703, 704, 706, 708, 710, 711, 712, 713, 716, 718, 719, 721, 724, 726, 728, 746, 747, 749, 752, 772, 773, 774, 798, 805
제10전투비행단 659, 660, 661, 665, 680
제10전투비행전대 660, 665
제1전투비행단 659, 665
제1해병사단 37
제1훈련비행단 659, 660
제417항공건설여단 631
제64전투비행군단 593, 600, 602, 605, 606, 607, 678
제930시설전대 631
제공작전 637
제네바 정치회담 759, 764, 765, 769, 771, 773
제네바협약 21, 109, 113, 128, 132, 133, 142
제주도 76, 114
제한전쟁 795
조국해방전쟁 794
조용연 137
조이 72, 105, 507, 519, 559
조정환 757
조중연합사령부 42, 87, 186, 187, 190, 46
주파령 180, 341, 374, 400, 413, 415, 416, 426, 433, 435
중국 28, 57, 66, 753
중국정책 28
중립국 감시위원회 721, 722, 798
중립국 송환위원회 122, 127, 129, 149, 218, 736, 740, 742, 746
지형능선 418, 420, 426
진헌식 134
질식작전 597
집중포격작전 641

ㅊ

차이청원 107
채프 643
체로키 작전 651
체로키 폭격 513, 514, 515, 516, 581
체코슬로바키아 721, 723, 736, 753
초도 595, 624, 655
총력전 795, 796
최덕신 73, 105, 107, 127, 134, 704
최세경 133
최영희 85
최용건 42, 87, 704
최용덕 70, 91
최정우 760
최홍희 86
춘계해빙작전 644

ㅋ

캐나다 658, 711, 754
콜롬비아 711
콜린스 53, 89, 148, 159, 164
콜세어 627
퀸고지 252, 253, 254, 255, 256, 257
클라크 34, 53, 58, 59, 61, 62, 64, 65, 68, 72, 74, 76, 81, 85, 89, 90, 103, 105, 109, 110, 123, 124, 125, 141, 143, 144, 145, 151, 152, 153, 157, 158, 162, 198, 199, 200, 202, 204 343, 355, 693, 696, 697, 700, 703, 741, 769
키이스 51

ㅌ

타이 711
탈보트 51
태국 658
태극성 624
태프트 26
터키 711
터키 여단 39
테일러 8, 40, 53, 58, 61, 72, 73, 89, 141, 204, 245, 355, 473, 703, 728
퉁화 620
트루먼 22, 24, 89, 92
트리그브 리 50
티마야 736, 741

ㅍ

파키스탄 121
파트리지(Earle E. Partridge) 474
판문점 21, 23, 57, 105, 111, 114, 128, 700, 701, 709, 728, 731, 755, 757, 758, 759, 806
펑더화이 42, 87, 110, 126, 145, 187, 190, 218 340, 343, 346, 591, 610 704, 705
페치텔러 53, 89
펭췽 602
포로송환 21, 32, 35, 76, 81, 103, 104, 117, 118, 122, 127, 162, 724, 727, 728, 729, 731, 733, 734
포로송환위원회 104, 724, 725, 726
포크찹 고지 213, 340
폴란드 721, 723, 736, 753, 798
프랑스 711, 753, 762, 771
프롭전투기 634
필리핀 80, 711

ㅎ

하계공세 46, 47, 177, 183, 184, 185, 186, 211, 213, 215, 218, 352
한국 정부 21, 31, 32, 60, 72, 74, 76, 77, 79, 81, 82, 91, 126, 134, 143, 148, 151, 156, 157, 163, 697, 749, 760
한국공군 비행단 343
한미동맹 809
한미상호방위조약 75, 80, 83, 91, 165, 693, 729, 750, 774, 776, 809
한미회담 749
한반도 793, 794
한센추 42
한유동 760
함마슐드 50
함태영 70, 90
항공압박작전 632, 641
해군봉쇄 61, 550, 559
해리슨 5, 104, 105, 121, 122, 123, 124, 126, 592, 694, 695, 696, 697, 699, 700
핵무기 57, 58, 61, 64, 66, 89, 92 126, 795, 796, 800
핵표적분석 64
헐 741
헤렌 134, 141
호주 657, 754
홍구표 135
홍쉐즈 42
홍진기 760
화살머리고지 276, 277, 282, 289, 340
화이트 209, 298, 309, 361
화천 46
화천발전소 475
화천저수지 181, 258, 354, 473
황병준 137
황융셩 42
황토도 550

휴전반대 31, 32, 33, 34, 75, 82, 134, 145, 163, 710
휴전회담 21, 22, 23, 25, 30, 35, 39, 64, 73, 75, 81, 84, 88, 91, 92, 103, 105, 117, 127, 130, 146, 152, 163, 164, 693, 749
흑운토령 345, 375, 386, 387, 393, 397, 428, 431, 433
힉키 105

1

16개국 공동선언 770, 771, 772

3

351고지 182, 218, 449, 450, 452, 453, 455, 457, 459, 460, 461, 463, 669, 670, 672, 681
38도선 793

5

5·25 최종안 178, 218

6

6·25전쟁 29, 701, 793, 794, 795, 796, 800, 801, 804, 805, 806, 809, 810, 811, 812
6월 공세 240, 324, 325, 326, 339, 355, 473, 475

7

7·13공세 47, 363, 377, 381, 409, 416, 418, 466
7월 공세 326, 339, 474, 363

F

F-51 597, 629, 630
F-80 597
F-86 597, 604, 614, 629, 631, 632

I

IL-28 594, 595

K

K-18 667

M

MiG-15 594, 595, 597, 612, 614, 617, 620, 624, 631
MiG-15bis 618, 620

P

PO-2 592, 595, 620, 623, 624, 625, 626

집 필 자

김 상 원 전쟁사부장
남 정 옥 책임연구원
손 규 석 선임연구원
이 신 재 연구원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문위원
정 용 근 자문위원

감 수

한 용 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온 창 일 교수(육군사관학교)
허 남 성 교수(국방대학교)
정 토 웅 교수(육군사관학교)
임 성 채 박사(해군역사기록관리단)
이 명 환 교수(공군사관학교)
오 규 열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나 종 남 교수(육군사관학교)

6·25전쟁사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2013년 11월 30일 인쇄
2013년 12월 6일 발행

발 행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 국군인쇄창(13108945)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안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홈페이지 www.dsc.mil.kr)

이 책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집필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그린란드
GREEN LAND

북 극 해
ARCTIC OCEAN

그린란드해
Green Land Sea

바렌츠해
Barents Sea

가라해
Kara Sea

라ptev해
Laptev Sea

동시베리아해
East Siberian Sea

베링해

보퍼트해
Beaufort Sea

캐나다 북극제도

그린란드
GREEN LAND

유럽
EUROPE

아시아
ASIA

중앙시베리아고원

서시베리아평원
West Siberian Plain

러시아연방

북회귀선 Tropic of Cancer

남회귀선 Tropic of Capricorn

아프리카
AFRICA

앵글로아메리카
ANGLO AMERICA

캐나다

미국

라틴아메리카
LATIN AMERICA

오세아니아
OCEANIA

ATLANTIC OCEAN

INDIAN OCEAN

PACIFIC OCEAN

태즈먼해
Tasman Sea

스코샤해
Scotia Sea

드레이크해협
Drake Passage

웨들해
Weddell Sea

정치구분도

남 극

북 극

범 례

주 국 경 계
주 요 도 로
철 도
하 천
산 맥 · 산 지
화 산
유 전
우 물
대 도 시
주 요 도 시
기 타 도 시
정 청

영토기호
(유) 유 국
(영) 영 국
(러) 러 시 아
(노) 노 르 웨 이
(포) 포 르 투 갈
(중) 중 국
(덴) 덴 마 크
(네) 네 덜 란 드
(뉴) 뉴 질 랜 드
(오) 오스트레일리아
(벨) 벨 기 에
(에) 에 스 파 냐
(이탈) 이 탈 리 아

영토이와 영접이

S=1:43,000,000 (개량원추도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